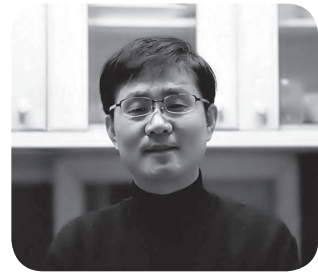




차	02	여는 글
례		
	04	1부 - '와' 한 눈에 보기
	06	호별 디자인
	17	통계로 보는 '와'
	18	온라인 설문조사
	20	2부 - '와' 돌아보기
	22	이슈&인물
	22	1) 사람과 이야기를 만나다
	84	2)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102	3) 마을만들기 현장을 가다
	114	4) 시민이 민들어 가는 학습
	128	5) 정다운 우리학교 이야기
	143	해외평생학습동향
	143	1) 영국을 가다
	171	2) 독일의 계속교육
	191	3) 미국 문턱없는 학교
	203	4) 일본의 공동학습
	219	기관탐방
	311	교육에서 배운다

점속을 향한 간절함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장

피터팬 신드롬, 스톡홀름 신드롬, 바나나 신드롬, 슈퍼우먼 신드롬... 누가 이렇게나 많은 신드롬을 만들었는지, 세상에는 각종 듣도 보도 못한 신드롬이 넘쳐 납니다. 이런 신드롬 대열에 스탕달 신드롬도 살짝 명함을 내밀고 있습니다. 『적과혹』의 작가 스탕달이 피렌체의 한 성당에서 작품을 감상한 후 순간적으로 격렬한 흥분이나 감흥 등의 분열증세를 느꼈다는 일기(日記)를 근거로 심리학자들이 붙인 명칭입니다. 그러나 심리학자의 조사연구에서 제가 의미 있게 본 것은 일본인 중에 이런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발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술의 아우라를 느끼기 보다는 일렬종대로 무리지어 관광을 다

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뒤를 따릅니다.

사실 위의 글에서 일본을 한국으로 대체해도 무방하지 않나요?

헌데 이런 현상은 비단 관광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유사한 형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 속에 담긴 의미와 진정성과 그 고유의 결.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면 결국 아무 것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웹진 ‘와’에서는 좀 진득하게 보고 싶었습니다. 의미 없는 듯 보이는 것들에 이름을 불러주고 단순한 표정의 무채색에 다양한 칼라의 색을 입혀 보고 싶었습니다.

‘와’에서 담은 내용은 특이하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했던 기관들과 사람, 그리고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평생학습 관련 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다만 ‘와’에서는 좀 더 주의 깊게 보면 새롭게 드러나는 미세한 결을 좀 더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의지를 안받침 해 주지 않을 경우 현실은 늘 초라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는 회고의 다른 이름은 부끄러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석규 전도연 주연의 『접속』이라는 영화를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사랑의 상처를 안고 있던 두 남녀가 PC통신을 통해 접속을 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지만 만날 듯 이어질 듯하던 두 남녀는 결코 현실에서 접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도연은 말합니다.

“만나야 할 사람은, 언젠가 꼭 만나게 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둘은 결국 현실에서 뜨겁게 접속을 하게 됩니다.

‘와’를 만드는 저희들은 많은 사람과 사연, 그리고 다

양한 기관과 주제를 만나고 취재하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콘텐츠를 통해 접속을 시도해 보지만 콘텐츠는 더 영어어져야 할 것이며 접속의 축은 더 세밀하게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때론 ‘와’를 향한 칭찬과 격려가 들리기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접속’에는 아직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애요 짝사랑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문을 해 봅니다. 과연 ‘간절함’이 있는가. ‘언젠가 꼭 만나게 되는 것’은 주어진 운명 때문이 아니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이라 생각해서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여러분들과 뜨겁게 만날 것을 더 간절히 염원해 봅니다.

이제 10개월 여의 기간 동안 만든 이야기들을 한 권의 책자로 묶어 냅니다.

콘텐츠의 완성도 부족과 관계없이 그동안 걸었던 길에 대한 기록의 의미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내용을 이렇게 책자로 묶어 내려니 민낯을 드러내는 듯 화끈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끄러움이 결국 채근으로 작용하여 더 나은 내일의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와’에 보내주신 격려나 칭찬은 ‘신선함’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허나 신선함은 생리상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훨씬 더 정교해지고 풍부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한 노력을 더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나무가 늘 푸른 것은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계속 잎갈이를 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혁신하고 새로워지는 것에 주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깊은 평화가 함께하기를.....



1부

‘와’ 한 눈에 보기

p. 6 - 7

120314 _ 와1호

120328 _ 와2호

120410 _ 와3호

120425 _ 와4호

p. 12 - 13

120829 _ 와13호

120912 _ 와14호

120926 _ 와15호

121010 _ 와16호

p. 8 - 9

120509 _ 와5호

120523 _ 와6호

120605 _ 와7호

120620 _ 와8호

p. 14 - 16

121024 _ 와17호

121107 _ 와18호

121121 _ 와19호

121205 _ 와20호

121219 _ 와21호

p. 10 - 11

120704 _ 와9호

120718 _ 와10호

120801 _ 와11호

120814 _ 와12호

p. 17

통계로 보는 ‘와’

p. 18 - 19

온라인 설문조사

[illegible]

청간호 이야기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무모한 도전 시작합니다. 누구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며 수원평생학습동행리포트 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MORE](#)

수원시민
인문대학

주목! 이교목
수원시민 인문대학

나와 나를 이해하고 우린는 공존의
살을 찾아가는 여행

“ ”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원시 평생학습원장

MORE

[이론은 소식](#)

[교육 운영 Tip](#)

[추천자료](#)

물을 이룬시커 주는 간단 스트레칭
 [MORE](#)

2011년 평택학습도시 조성사업 운영 사례집
 [TAKE](#)

창간 축하 100자 응원 메시지 [메시지 보러가기](#)

평생학습동행

우리 동네 수원

수원시와 평생학습 관련 정보를
지급 받으 확인하세요

- * 수원시 평생학습관~사회적기업 제휴나 대우공구상 일상사점 협약 맺어
- * **수원시민 인문교양 아카데미 3~4월 강연 안내**
- * 2012년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선정 결과 안내
- * 수원시 경제대 인문학 교육 협약
- * 외국인주민을 위한 직업능력개발교육
- * 청소년을 위한 카운슬링 대학
- * 즐겁고 유익한 토요일교실 개설
- * 3월 나한빛, 지도 들고 떠나는 202평터미어
- *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이야기
- * "철심스미들 소식~어린이 농부학교, 우리동네 하얀 담사단 등"
- * **고용촉진을 위한 미스즈청소부품 보급사업**
- * 수원청소서비스마이다교육센터 성대한 등 열리
- * 수원시 올해 마블로네상스 사업 80건 선정
- * 항공~장흥로 구간 인문학 길 걷로

이시이후대이

수원시청

수원시청

경인일보

수원시와국민대협정

수원시청소년상담서

바른샘도시관

청양구민회관

관심청소년수원관

수원시민신문

수원시여성가족재단

수원시민신문

수원시청

국내 소식

국내 다양한 평생학습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상반기 직업능력개발훈련 '사회적기업' 교육 개설**
- * 경기도평생학습사이트 출범, 신규교육 대폭 확대
- * "지역리더와 함께하는 지역발전"
- * 2012년 2/4분기 문화교육발전 연속과정 모집 공고
- * **2기 커뮤니티비즈니스 기능·기술 아카데미**
- * 아가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확대
- * 협동과 연대의 주제, 새로운 협동조합을 말한다
- * **사회적기업가교육 수강생 모집**
- * "민주교향악시, 미래를 본다-통상학사 최창현 교수와 2012년 특별강연"
- * 시·아카데미 온라인 강의 일상교류 교육성 모집
- * 2012년 경기도 아이돌로미 양성교육 안내
- * 불만투어~아주 5일형 정립길 나들이
- * "사회적 기업" 정보 소개 전자저서판 2冊 열어
- * 불행유, 이통사와 전국사회의 미디어 활용교육
- * 광주시, 기후변화교육 시민교육센터 운영
- * 소상공인 지원 전문 정책개발 기구 발족
- * 프리크리드 이코노미, 이도비록 이기자 공개강연회
- * 시정발표
- * 중앙일보
- * 지역신문
- * 평생교육진흥원
- * 희망재직자
- * 이시이후대이
- * 지역신문
- * 시정발표
- * 경기도여성정책개발센터
- * 경기도여성발전센터
- * 새마을운동이론
- * 연남뉴스
- * 매일경제
- * 뉴스쉐어
- * 경기도
- * 환경재단

본 메일은 2012년 03월 14일 기준, 회원님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예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If you don't want this type of information or e-mail, please click the [unsubscribe]

 수원시평생학습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381번길 2(우만동 582)
 Sowon Lifelong Learning Center T. 031-248-9700 F. 031-248-9902





서로배우며함께성장하는꿈다온우리학교

수원시평생학습관 learning.swwon.go.kr

2주째 2012년 3월 28일
2주마다 수업내용이 발전합니다.

‘옛날 나무나 나뭇잎 따서 새끼를 데우는 일’을 ‘날과 달이 함께 돌아온다’라는 뜻의 합성, 재창이 완벽하게 못가니 새로운 소리를 지어내기 힘들다.

수원시평생학습관 **동행리포트**



의견남기기
수신요청하기

주목! 이교육
교육과 복지서비스
그리고 일자리 창출까지
수원시 재무관리사 양성과정

왜 청간호를 보고 난후
우리는 이런 "와"가
되기를 바라요~

이로운 소식

교육 운영 Tip

학습자의 마음을 얻는 강의의 오묘함 기법

MORE

추천자료

평생교육제와 지역만들기운동의 과정과 전망

MORE

평생학습동행

 	우리 동네 인문학 한눈에 보기	 
우리동네 수업  수원시의 평생학습 관련 정보들 바로 확인하세요	- 나와 지역의 성장만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 환경교육협약서 작성 교육모임 - 역사문화체험강사 과정 훈련제 도입 247) 성북혁신마을 교육생 모집 -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부모 자녀 대화법 - 남성 성찰 요리특강인 요리하는 남자가 아릅답다 - 너와나 함께하는 진로여행 - 상반기 사회상상장 프로그램 안내 - 수원시, 사회적기업 발전 정책방안에 대해 토론하다 - 수원시에는 영어도서관이 있다 - 수원팔라디움 리세타입인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제3기 수원대노동무과교 교육생 모집 - 수원시중요도안과도 아로신 관련 프로그램 열 열 - 노토, 수취인임 외국어권 친구 맺기 - 주말 가족프로젝트 수강생 모집	- 수원지역사회복지협의회 - 수원환경운동센터 - 수원여성인재개발센터 - 수원청소년문화의집 - 정당구민회관 - 권선청소년수련관 - 수원시청소년상담센터 - 경기타임스 - e-수원뉴스 - 수원팔라디움 - 수원시농업기술센터 - e-수원뉴스 - e-수원뉴스 - 권선청소년수련관 - 수원시가족여가문화관
국내 소식  국내 다양한 평생학습 관련 정보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시민교육 지원사업》 공모 - 한림시, 아시아 최초 'IAEC 세계유형' 개최 - 경기도, 노인 소비생활 피해 예방 교육 - 부천시의회,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제정' - Social Innovation Road 플랫폼 1기 모집 2012 이혼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공모 - 우리가족 박물관 여행 2012년도 선민문화교육 지원사업 공고 - 평생교육으로 주5일 수업 정착 도와 [복합유형 교육신청] 탐방형/참가는 교육... 품비 없는 교육 실천단 - 경기도 '스마터스 중독예방교육' 전국 최초 실시 - 경기도, 평생학습 대학생 코치 사업 올해 2차에 실시 2012 사회적기업가 MBA 과정 모집 - 경기도, 평생학습 포럼 '갈' 새로운 날개를 달다 - 경기도~이처럼에 여성단체심 과정 교육생 모집	- 민후학원문화기념사업회 - 조산일보 - 수원일보 - 부천시의회 - 희망재단·지식, 여행사 공공 - 한국여성재단 - 경기문화재단 - 교육과학기술부 - 수원민간대학뉴스 - 광남일보 - 아시아경제 - 파이낸셜뉴스 - 한겨레경제연구소 - 경기도 - 수원일보

본 메일은 2012년 03월 28일 기준, 회원님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If you don't want this type of information or e-mail, please click the [unsubscribe]

 수원시평생학습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381번길 2(우안동 582)  수원시  경기도

 Suwon Lifelong Learning Center T. 031-248-9700 F. 031-248-9902 Suwon City The Gyeonggi Institute

수원시 평생학습관 | **learning suwon.go.kr**

제3호 2012년 4월 10일 2주마다 주요일에 발간됩니다.

>>>는 내외나 다녔을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밑거름 시책, 정책 등 국내외 동향의 흐름과 더불어 학교, 대학의 현황에 대해 소개하는 소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수원평생학습동행리포트







의견남기기
수신요청하기

 이슈&인물 한학박사의 한 해 속에는 눈 뜬 사색의 빛깔이 보인다 남문서점 윤환수님을 만나다 [MORE]	 기타발령 수원시민미술저널은 문화예술과 지역사회, 그리고 조국의 만남 [MORE]
 제1차 와글&아글 포럼 [MORE]	 주목! 이교록 평생학습기관 실무자의 네트워크와 글과아글포럼 [MORE]
이로운 소식  교육 운영 Tip 구급조끼도구상 이용한 웹 설문조사 만들기 [MORE]	 A Guided Tour of Social Innovation in Korea 수정마을 한국 사회혁신 둘러보기 [MORE]

수원시청 정책신문
learning.suwon.go.kr

제4호 2012년 4월 25일
2주마다 수요일에 발행됩니다.

오는 4월 25일은 4·19 민주화 운동을 의미하는
달로 ‘새물결’ 창간을 축하하고 통일여운 조성,
문화의 향기를 담아낸 창간특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소식을 확인하십시오.

와

수원평생학습동행마포르트

[의견남기기](#)
[수신요청하기](#)

 이슈&인물 건강한다는 지혜사회를 위한 의료정보 의료생원 새날하의원 [MORE]	 기타행사 이웃(EWUT) 지역주민과 함께 문화사랑방을 꿈꾼다 [MORE]
 주최! 이교육 제1회 외곽외교포럼 지난 4월 19일에 열린 그후 이야기 [MORE]	 해외방학사진촬영 제1차 영국을 가다 (첫번째) 영국으로 떠난 초·중·고교생들 중... [MORE]

이로운 소식



교육 운영 7개
구급 알람시스템 활용한
실시간 정보수집

[MORE]



수선자료
평생교육기관
분류체계 수립연구

[MORE]

평생학습동행

우리 동네 작은도서관 찾아보기

보라가기

우리 동네 수월

수월시의 평생학습 관련 정보들
자료 바로 확인하세요

- ▶ **청소년배움동행 활성화를 위한 수월지역 청소년단체 공동 세미나** 수월청소년문화센터
- ▶ 2012 수월예술제에 수감생 모집 수월예총
- ▶ **수월일자리센터가 들려주는 취업이야기** 수월일자리센터
- ▶ 수월군 문화유적 답사 '근대의 거인들 되다들' 수월박물관
- ▶ **제7기 수월학생실용능력학-사제식별 바로 알기** 수월학생실용과
- ▶ 제7차대안고교의 그늘 속 인들과 일하다 수월체육문화센터
- ▶ **2012 종다국료 요문학과학교 최초로 프로그램 안내** 경기문화재단
- ▶ 경교산 숲 생태학교 수월환경운동센터
- ▶ **지소록가정 청소년 '꿈꾸는 바리스타 고실'** 영동중앙사회복지관
- ▶ 수월 청소년들의 미디어 축제 열리 수월인터넷뉴스
- ▶ 2012 세계를 만나다 4월-인도발달단계 참가자 모집 수월청소년문화센터
- ▶ 다문화로 열거하는 2개의 길의 꿈 - 파키스탄 전통과 문화 강좌- 통איאי사아문헌연구원
- ▶ **자거자거두들 2사리 작곡동무 모집** 수월YWCA
- ▶ 우라기국학 학부 출신 작가 발자취여행 장안구민회
- ▶ 경기도교육청, 학부로 지원 업무능력 개발 수월인터넷뉴스

국내 소식

국내 다양한 평생학습 관련 정보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제4회 과천시 평생학습축제 개최** 과천시 평생학습센터
- ▶ **충남평생교육진흥원 개원기념 세미나 개최**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 ▶ 우리동네 그림관 국채유물상 개최 안내 푸른경기/21삼천리신문
- ▶ **서울이소셜미디어리소스** 희망재단소식
- ▶ 인천시 평생교육 구성적 역할 알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경기미래
- ▶ **평생교육 통해 일터가 만들어졌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인터뷰** GNews
- ▶ 인천학 고전 읽는 자리로 모임 우후속속 한겨레
- ▶ 중산층 두마음 수확대, 근로자 61% 상시고용 매일경제
- ▶ 부천시 5월 한 달 시민 SNS 집중 교육기관 운영 뉴스와이/이
- ▶ **서울 노원구, 협동조합 전문가 양성한다** 이사회자경제
- ▶ 젊음수목 보편권 선로, 세로수목은 실어애 이사회자투데이
- ▶ [전공노예 프로그래밍] 경영 vs 경영, 청소년 권익과학과 big3 the big start
- ▶ [공모]이대문자단 상반기 통합 배부사자 이대문자단
- ▶ [공모] 2012 사회취업과 창업에세이 문학예술교육 지원사업... 한국문화재단평생교육진흥원
- ▶ [공모]리문학아름 리대상개발 멘토링 프로그램 한국문화재단

평생교육진흥원

우리동네에서 즐기는 어린이날 행사

보러가기

우리동네 수원

수원시의 평생학습 관련 정보들
바로 확인하세요

* "안녕, 인문학?"

* "무한상상" 청년이노 도전하러

* 행복한 경인지기 **부부프로젝트 모임**

* 동북로 둘러주는 옛 수원화성 이야기

* 대가의 그림 속 인물과 알아라

* 잔영으로 보는 한국사

* 5인 5색, 색다른 인문학

* **수원시 소설번역 경진대회**

* YOUTH DREAM K.O.D 유지식 스몰 참가자 모집

* **경인아레나 교육프로그램 'Hello! Friend'**

* 가족정신 인문학 교육성 모임

* 수원교육지원청 '별과구 녹색체험교실' 운영

* 잔영마을 | 다갈, 다갈이 돌아 온다! 한탄하러

* **희망랜드와도 함께하는 환경이야기**

* 다문화가정 자녀 공교육 진입 돕는다

다산인생센터

수원시사회복지관지원센터

수원시경인지기지원센터

수원화성박물관

수원체육문화센터

지혜샘도서관

성당도서관

수원시사회복지관지원센터

영동청소년문화의집

어린이아트에이세움센터

수원시기술인들

수원일보

수원화성초

희망랜드와도

경인신문

국내 소식

국내 다양한 평생학습 관련 정보들
확인하세요

* 경시교육과 재교육과정 '성공관'

* **소셜미디어서울 11기**

* "초중등과 병과로 돌풍과실 개사" 교육성 모임

* 창원-유네스코 국제교육포럼 개최

* **여성친화적 강사연구회 강화교육 3기 모집 마감**

* 자문관 워크샵 - 포럼

* 한살림 청년 아카데미

* **전통문화와 학생에게도 학과급을 내 줄 열려**

* 문화교육과 농촌 노인 평생교육의 창 마련

*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우유니 이노원' 특강**

* 용암리로 지역공동체 살인다

*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담당자 직무연수 개최

* 서울시, 아동 및 성인 20명씩 대상을 '아동권리교육' 실시

* **서울 급진군, 2012년 상반기 '통장 아카데미' 운영**

* 부산여성정책연구원, 기업수로 맞춤형 여성교육으로 일차리 잡았다

* 울산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 평생교육진흥원 전환

진주평생학습센터

희망랜드와도

경기도복지여성서비스센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강화도여성비행터

하사신문

한살림

출발뉴스

광주일보

수원일보

여성신문

아이사우더미

뉴스이머

아시아경제

국제신문

울산매일

수원시평생학습관 learning.suwon.go.kr

제5호 2012년 5월 09일
2주마다 수요일에 발간됩니다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

의견남기기
수신요청하기



이슈&인물
순수감치 장사하다 교수님
누구나 가르치고 배운다



기관탐방
지혜로 열린 대학
함께하라는 열정만이 필요할 뿐



주목! 이교로
찾아가는 학교
시청·학교·단체 어디든 찾아갑니다.
첫번째! 수원포교시장



해외평생학습동향
제1탄 영국을 가다
(두번째) 영국 평생학습은
우리가 지킨다



이로운 소식
교육에서 배운다
보지기를 활용한
신물조각법



수원지로
서울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리뷰를
우리가 지킨다

수원시평생학습관 learning.suwon.go.kr

제6호 2012년 5월 23일
2주마다 수요일에 발간됩니다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

의견남기기
수신요청하기



이슈&인물
장신적 중요도를 통한
자발적 독서모임의 주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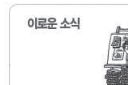
기관탐방
성인문해교육은 소외된 사람을
위한 사회적 배려입니다
수원제일평생학교



주목! 이교로
심용SOS!
자동차간담장비학교
사랑하는 가족과 안전여행을 위한



해외평생학습동향
제1탄 영국을 가다(3)
시리즈! 수월적 소외가 아닌
적극적 참여로 만들어가는 배움



이로운 소식
교육에서 배운다
우리집 재무관리
실개방



추천자료
성인문해교육의
방향과 과제

평생학습동향

통째로 공짜로 영화보기

우리동네 수월

수원시의 평생학습 관련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2012년 평생학습관계자 워크숍 개최
- 제5회 다문화가족축제
- 2012년 5월 수원포교 '귀뚜라미의 소름과 지성의 통설'
- 수원시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5월에 포토샵, 엑셀 배운다
- 문물교육 건강교실 운영 안내
- 수원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관선청소년수련관
- 2012 수원청소년 심년기념 행사
- 2012년 리틀스타재능학교 안내
- 더 좋은 이해교실
- 예술가 보드게임하고 얼마 이해할 놀자~!
- 부모교육 무료특강 '우리아이 집중력, 기억력 향상시키기'
- 아주중은이웃 참여지원센터
- 경기단절여성 HFD 프로그램 교육료 모집
- 수원·FHD센터
- 전통교육 출판생 모집
- 수원여성지역개발센터
- 수원시 무분별지식사업, 손 모시기 시민캠페인 모집
- 수원일보

국내 소식

국내 다양한 평생학습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2 시민안전교육지원사업 신청요청 공고
-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시군 평생교육 컨설팅 지원
- 청소년 녹색소비생활교육 지도자 양성 워크숍
- 인주시민교육지원사업 신청과정
- 제5회 포배아 위한 수준, 세계 시계 교육 해아
- 평생학습 SOS 모니터단 선발
- 경기7도, 원안계통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길 열려
- 포항시,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지원조례 주민발의
- 울산시, 노인상담 및 자살예방 전문교육 실시
- 100세 시대, 행복한 내일 만드는 평생학습 일거니가겠다
- 제4회 청소년 사회참여 발표대회
- 제1차 평생교육정책포럼, '복합적인 행복한 학교'를 주제로 개최
- SNS강사 양성과정, 한국소셜미디어진흥원에서 6월 개강
- 유아·어린이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의무화
- 신문읽기 특강 '리더스 콘서트'

평생학습동향

누구나 가르치고 참여할 수 있는 누구학교!! 2012 누구학교에 지금 참여하세요

우리동네 수월

수원시의 평생학습 관련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신촌기 부부교육 '남편과 함께하는 신촌'
- 제24회 수원포교 '올라라! 김세디라 여행'
- 【북문서브】사람 꽃을 만나다
- 경계의 미술, 시장에 선 순간
- 밤을 잊은 인문학-현대의 이해와 감상
- 수원시 도서관가이드
- 청소년 목회예배를 위한 수원지역 심포지엄 '2012 희망을 말한다'
- 인턴제 중독예방을 위한 one-stop 가족치료 프로그램
- 가족 산책여행의 날 '자연과 나는 하나'
- 21세기 한국인을 위한 역사란 무엇인가
- 6월 미술인문학 특강
- 2012 수원청계구리 학교-시민모니터링기 기본교육
- [성별평화행기교육] 성인지 감수성 아랍지 알아오
- 어르신 우울증 예방을 위한 참여활동 '할기로운 만남'
- 수원·FHD센터, '보안네트워크 전문연차'에 양성과정 모집

국내 소식

국내 다양한 평생학습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12년 평생학습도시 선정 결과 공고
- 올리비아 그림동화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지원사업
- 2012 자원봉사 강사 양성 과정
- 평화길라잡이 6기 모집
- '10년 뒤 쓰는 직감' 소설이디어강사 양성과정, 내일 2월 개강
- 인도리랑 마을학교 '협동의 삶이 대안이다'
- 교과부, '2012년 대학 중생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지원 대책 발표
- 시민단체 활동가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 즐거움 토요일 '자랑이 가진'
- 부상하는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의 재발견
- 시민의 진보와 한국 사회
- 에너지 민주주의와 녹색미래
- 예술·세미나 시즌 2
- 경기도, 사회적기업 교육생 모집
- 다문화사회 교육 시민에 초청 및 찾아

본 매월은 2012년 05월 09일 기준, 회원님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시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If you don't want this type of information or e-mail, please click the [unsubscribe].)

수원시평생학습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381번길 25(우원동 582)
T. 031-248-9700 F. 031-248-9902

수원시평생학습관
수원시평생학습관

본 매월은 2012년 05월 23일 기준, 회원님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시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If you don't want this type of information or e-mail, please click the [unsubscribe].)

수원시평생학습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381번길 25(우원동 582)
T. 031-248-9700 F. 031-248-9902

수원시평생학습관
수원시평생학습관

수원시평생학습관 learning.suwon.go.kr

제7호 2012년 6월 05일
2주마다 수요일에 발간됩니다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

의견남기기
수신요청하기



이슈&인물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고민하다
균형잡힌 삼발이가
용기(주변)를 받쳐주어야



기쁜행랑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자원의 정복상이다. 더
수원체육문화센터



UPCYCLING
주력 이모작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 학교
아이들에게 건넨
'학교 밖 학습공간' 제공



해외평생학습동향
제1탄 영국을 가다(4)
영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학습을 넘어
사회적 학습으로



이로운 소식
이로운 소식



추천자료
1. 우리 동네 그린벨
2. 2011 마을공동체대상
공모사업 최종보고서

수원시평생학습관 learning.suwon.go.kr

제8호 2012년 6월 20일
2주마다 수요일에 발간됩니다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

의견남기기
수신요청하기



이슈&인물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고민하다
균형잡힌 삼발이가
용기(주변)를 받쳐주어야



기쁜행랑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자원의 정복상이다. 더
수원체육문화센터



UPCYCLING
주력 이모작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 학교
아이들에게 건넨
'학교 밖 학습공간' 제공



해외평생학습동향
제1탄 영국을 가다(5)
영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학습을 넘어
사회적 학습으로



이로운 소식
이로운 소식



추천자료
1. 우리 동네 그린벨
2. 2011 마을공동체대상
공모사업 최종보고서

평생학습동향

발학!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

우리동네 수필

수원시의 평생학습 관련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2012 수원 행복설계아카데미
- 2012 여성문화 아카데미
- 어린이 건강교육 '생활습관관 관리교실' 안내
- 수원시, 수원지방법원과 시민생활법률상담소 개강
- 책 읽는 가족 공모
- 2012년 2기 시민배움교육 및 다문화교육 수강생 모집
- 남양만에 펼쳐진 역사와 문화를 만끽하다
- 책과 함께하는 책이름
- 다문화가정어린이 DMZ체험여행
- 창의적 경제 리더가 될까?
- 진분류이문화체험 '옛날 옛적에'
- 농촌문화체험, 환경교육, 영상제작캠프
- 열린학교 'open class' 1기 모집 -사회적기업가아카데미 심화과정
- 2012 대한민국 구석구석 6월 '레포즈'
- 6월 전시회 '나는 공산주의자다' 원화 전시

국내 소식

국내 다양한 평생학습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마을이 학교다 2기
- 2012 나눔교육 심포지엄
- 경기도 환경교육 전문가 Jump-Up 과정 수강생 모집
- 2012 민주시민교육 교사연수 '승통 트이는 교실, 희망이 베풀는 학교'
- 2012 대학생 평화리더십 캠프
- [공과]2012년도 소성면허 경연대회 개최
- 평생교육사시험 지정제 폐지
-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창의교육 '평생교육 고등서' 개발
- 전북교육청 다문화 교육정책 연구회 '세계시민교육으로 전환해야'
- 안원원, 시민 위한 인권교육과정 개설
- '대학부터 진로 설계' 생애학교의 실험
- '취업준비생엔 비즈나스맨이 가르치죠' 독일 직업교육전문가 재연
- 최은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고졸인재 先취업後진학 위해 학업인정 학습기관..."
- 선남시,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교육과정 개설
- 독서 교육기부 프로그램 쏟아진다

본 매월은 2012년 06월 05일 기준, 회원님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If you don't want this type of information or e-mail, please click the [unsubscribe].)

수원시평생학습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381번길 경무문로 582
T. 031-248-9700 F. 031-248-9902

수원시평생학습관

평생학습동향

2012 여름학기 프로그램 안내

우리동네 수필

수원시의 평생학습 관련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2012년 상반기 평생교육활동회 유공자 표창 계획
- 수원시, '수원시어생지도자학' 교육생 25일까지 모집
- 노숙인 쉼터로 찾아가는 평생교육프로그램
- 자이존종합 향상을 위한 행복한 책읽기 프로그램 공모
- 다산인권센터 20주년 기념특별 '인권과 민주주의'
- 여름방학특수교육
- 작가초청강좌 '나는 부모다'
- 경기가 있는 오호! 수강생 모집
- 책이름을 만나는 우리역사
- 청소년 캠프워크숍 2012년 청소년정책개발기 행사
- 2012년 제2기 예비 부모를 위한 집단상담 참가자 모집
- 6월 환경의 달 '가정에서부터 환경살리기'
- 여름방학 봉사체험 농촌의 여름
- 2012 경기도수원시 일자리 박람회
- '해피콜 베이비시터' 양성교육 안내

국내 소식

국내 다양한 평생학습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창의인성 교육나눔 박람회
- 2012 사회자기립 기간
- 2012 올라리 쇼비 공모전
- 독특한 시민을 길러내는 시민교육은 국가의 의무다
- 불(不)로 불러 싸인 2012 한국사회, 불 끄는 데에 대한 이야기
- SGS 사회자기립 아카데미 무료 공개특강
- 내 인생의 탄생 포인터2 '공공분야 멘토와의 만남'
- 2012 청소년 평화리더십 캠프
- 안원원, 시민 위한 인권교육과정 개설
- 2012. 5.18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공고
- 청소년 음악향락 워크숍-소리배움여행 시즌4
- 제16회 어린이생태학교
- 2012 여름 청소년 인문학1 [과학적 읽기]
- 사회자기립과 사회적협동조합
- 숨에서 인생 배우자, 청소년 산림교육 본격화

본 매월은 2012년 06월 20일 기준, 회원님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If you don't want this type of information or e-mail, please click the [unsubscribe].)

수원시평생학습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381번길 경무문로 582
T. 031-248-9700 F. 031-248-9902

수원시평생학습관

수원시 평생학습관

learning.swon.go.kr

자료 2012년 7월 4일
2주마다 수업열람 및 강담 1차

수원평생학습동행리포트





의견남기기

수신요청하기

이로운 소식


교실에서 배운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명상

MORE



추천자료
생활속의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시민교육

MORE

수원시 평생학습관 learning.swugov.go.kr

| 제10호 2012년 7월 18일 |
2주마다 수요일에 발간합니다

수원평생학습 종합마포트

있는 내내 나, 나와 우리 사회를 바꾸는
문화 · 생활 지혜와 인생의 소소한
재미의 향연, 이것이 한눈에도 보거나
읽는다는 것을 재확인해 드립니다.

의견남기기
수신요청하기

이로운 소식


교육에서 배운다

모두가 즐거운

착한여행

[MORE](#)



추천자료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MORE](#)

평생학습동행

사회적경제 / 협동조합 행사 마당

보러가기

우리동네 수업

수원시의 평생학습 관련 정보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경기수원인문학교

* 독서심리상담사 심화과정 수강생 모집

* 어린이 영어회話 참가자 모집

* 외국어능력 위한 한국어초급특강

*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특강 '우치·초등 독서논객이 성적을 좌우한다'

* [주제가 있는 공간] 스웨덴의 복지국가,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

* 17회 수원시 여성주간 기념 '찾아가는 여성영화제'

* 학원 HUMAN 성교육 체험관

* 향토동화 제21권 7월 호문예가 안내

* 수원화랑박물관 (주요강좌3회) 수강생 모집

*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일 잘하고 일(job)이랑'

* The+클론이베이션 7월 참가자 모집

* 수원시 장학동행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 수원시외국어마을, 첫초고 '어름캠프'

* 2012년 교과서와 연계한 역사특강 2학기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경기수원인문학교 행사지원위원회

수원시장애인인문학교

수원문화재단

수원시도서관

바른재단서교

경기복지시민재단

수원여성회

수원문화재단

향교동 제21권

수원화랑박물관

클론이베이션

영동종합사회복지관

모마이아

수원발명

장안문화재단문화회관

국내 소식

국내 다양한 평생학습 관련 정보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회 시민교육학박람회 '우주 시대' 경관'

* 학교교육, 시민교육이 담겼다

* 화랑미술제가 청소년·초·중·고 TALK

* 페미니즘과 포미디에코 워크숍 '모든 여성들이 일가를 썼다'

* 내 생활이 기원 - 우리시대 작가들이 직접 들려주는 자신의 삶과 문학이야기

* 역사와 예술을 찾아 떠나는 경기차림포럼

* 제1회 청년대학회

* 1기 모교친목회개교와 심화과정

* 공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사건강좌)

* 해외자랑행사 '젊은, 열정적으로 복합하는 세계문화유산'

* 2012 사회학박제가 상설이야기과 과정 개강

* 주 5일제 수업 관련 학교 현장의 실천 전략과 과제

* 이문 평생교육아다

* 경기도 두루누리 아카데미 사업 실시

* 경기도, 베이비부머 '인생학' 설계 중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모마이아

홍사단 인문학윤문본부

지구시민교육연구소

다문화재단

한국문화재단

우익인사들

화랑재단서교

계재하나

공공기관

한국사회학박제학원진흥

한국여성정책개발원

중우빌

기초빌

시민인물

본 메일은 2012년 07월 04일 기준, 회원님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If you don't want this type of information or e-mail, please click the [unsubscribe]

수원시 평생학습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381번길 제우안동 582) 수원시 수원지식산업진흥원

Suwon Lifelong Learning Center T. 031-248-9700 F. 031-248-9902 SUMON CITY Suwon Knowledge Industry Promotion Center

서로 배워 함께 성장하는 아름다운 우리 학교

평생학습종합

수원시인문대학 2기 모집 상세보기

우리대학 수험		
수험자의 평생학습 관련 정보들 비밀 자료 확인하세요	2012 하반기 서울국제문화재단 공모사업 공고 2012 시화작가기 세레노 페스티벌 - 아름답게 어린이교과 안내 - 아름답게, 한도 환경전문가가 되어볼까? - 수험자, 인문학의 향연이 계속 된다 2012 청소년 육성재단 여름방학 캠프 - 수험마법진사관 여름특강학기 (올라라네이치) 展 2012 수원 청소년 7월 도서관 행사 안내 2012 수원청소년교 수목원 여름방학 숲교실 - 녹색생물상식 예코리빙방학활동 참가자 모집 2012 수원인문학교실, 견고교실, 바른심 지킴이 교육 안내 - 청소년 인문학 강좌 [남양주연단 1기]아름개장학교 '다같이 놀자 동네한바위' 2012년 7월 수원포탈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 건국선생 365+ 건국백세리더 모집 안내	- 마음포레스트센터 (재)사회복지사업 경기재단 - 수원비행기 - e-수험뉴스 - 아시아투데이 - 수원시청소년상담센터 - 수원미술대전가 - 한미로보스타산 -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수목원 - 수원YWCA - 수원학원내일 - 수원외제21 - 한림실사회적응훈련센터 - 수원시 - 수원시인문대학

국내 소식		
국내 다양한 평생학습 관련 정보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2012년 학습형 사회의 질적 향상 및 학습마을 활성화 사업 - 청소년 미래설계교육 2기 희망캠프 - 다섯을 바꾸는 365인 2012 소셜이노베이션 캠프' - 협동조합기본법 기초교육과정 - 우리 시대의 하이브리드, 문예예술 사회학자의 길 찾기 [공공]평생교육이 일차리 학습 이어다어 7월 내일Talk ~나 인생의 탐험모험기3 - 문화적 활동가들을 위한 뉴타운 경제생활 캠프인 [공공]비영리단체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 시범 단체 - 예술과 예술을 찾아 떠나는 경기창의캠프 - Sound of Music' 신사옥개장캠프 - 무인강변을 걸으며 체험하는 탄소 Zero 학교 - 내년부터 만 3~4살도 국가 공공교과 배우다 - 경기도, 발달장애인 직업교육과 일차리 발굴방안' 공모전 개최 - 전국음악은 은퇴교육	- 경기평생교육진흥원 - 희망재단 2012 소셜이노베이션 시즌36 - 협동조합연수소 - 매출경영지원센터 - 일차리연구소 - 내일교육 - 아름디마루재단 - 경기문화재단 - 전국신사박물관 - 생태지킴이연구소 - 한겨레 - Gnews - 중앙일보

본 메일은 2012년 07월 18일 기준, 회원님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If you don't want this type of information or e-mail, please click the [unsubscribe]

수원시평생학습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381번길 제우은행 582)
 Suwon Lifelong Learning Center T. 031-248-9700 F. 031-248-9902 수원시 SUWON CITY 정미재연구소 THE HOPE INSTITUTE

서로배우, 함께 성장하는 행복다문우리학교

—

수원시평생학습관

learning.suwon.go.kr

제12호 2012년 8월 14일
2주일에 수요일에 변경됩니다

수원평생학습관 동량라포트


[blog](#)
[t](#)
[f](#)

의견접수하기

수신도움하기

 미술관월간 회원들 거더 (1) 미술관월간는 시민만들거더 사용철아슬아파트 MORE	 가을잡 이제까지 좋은 친구들 소개해 주시려! 슬기샘이언니도서관 MORE
 주말! 이 교목 우리 문화와 역사, 삶의 이야기! 녹아있다 막걸리교실/약초교실 MORE	 해미평생학습종합 제2년 도원의 계속교육 (세 번째 이야기) 독서사회의 교육인간성 - 시민대학 MORE

평생학습동행

수원시평생학습관 2012년 2학기(9~12월) 프로그램 안내		상세보기
우리동네 수업 	* 수원 행복설계 아카데미 2기 * 수원시민 인간문화재 참가자 모집 * KBS-수원시, 청소년 대상 '방송학교' 운영 * 수원시 '찾아가는 다문화 교육' 실시 * 제12기 수원예술교육 수강생 모집 * 청소년을 위한 내에게 딱 맞는 직업 찾기 * 예술 속 인물이야기하기 '미술 아는 만큼 보인다' * 자연생, 원토에서 길을 걷다 '생각이라는 사막에서 길을 걷다' * 독후감발표회 '청소년, 책으로 아는 세상을 공유다' * 제2기 어린이 큐레이터 참가자 모집 안내 * 가톨릭아카데미 '영리교육, 지도 속 건강 찾기' * 하반기 민화그리기 강좌 수강생 모집 안내 * [가족학습]사회실리교육-부부심리교육 * 한아름도서관 하반기 회원 모집 안내 * 누구에게나 평등한 공간, 누구나 참여디자인 알아보기	- 희망제작소 - 선정도시서관 - KBS - 수원일보 - 수원예술 - 수원일자리센터 - 장안구민회관 - 수원시종자자원봉사센터 - 수원청소년문화의집 - 수원화랑박물관 - 관전청소년수련관 - 수원화방 - 수원건강가족지원센터 - 한아름도서관 - 푸른강2기
국내 소식 	* 2012 안전인원조사 결과분석, 인원과 조출항차 * [교재] 학교에서 배우는 공동연구-번화를 위한 활동 * 2012 전국 시민운동대회 '운동가, 호모덴스로 진화하라' * 2012 하반기 온라인 커뮤니티제선 워크숍 * 제1기 전래놀이지도자과정생 '차적죽음, 수강생 모집' * 유아교육교육프로그램 2기 * 우리세권 연동기 아닌 함께 시유하고 실현할 스승이 필요하다 * 학교폭력 예방 상담원 양성교육 * '흥 20주년 릴레이워크숍' 흥 20년, 그래서 그제 학교 흥' * 인천시, 2기 공동체적 이해관계인 아카데미' 개강 * 학교 교육개혁의 국제 동향 : 성과와 과제 * 2012년 대학생 실학탐색 모집 안내 * 제14회 서울국제청소년영화제 * 청소년 토요일 C- 플렉스 소셜 클래스 3기 * 우리가 펼치는 새로운 세상 '프론트11기' 모집	- 국제해운대서한민국 - 한국공공무엇연합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아름다운재단 - 경기문화재단 - 클imate문화재단 - 하사센터 - 창교육학부모회 - 흥 - 한국주식신문 - 한국교육개발원 - SYIFF - 하사센터 - 임승보아트

국외 다양한 활동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메일은 2012년 8월 14일 기준, 회원님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매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If you don't want this type of information or e-mail, please click the [unsubscribe]

 수원시평생학습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381번길 2(우산동 582) 수원시 소원교육센터
 Sowon Lifelong Learning Center T. 031-248-9700 F. 031-248-9902 The Hope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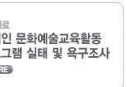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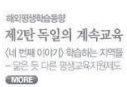
수원시평생학습관 learning.suwon.go.kr

제13호 2012년 8월 29일
2주마다 수요일에 발간됩니다

수원시평생학습관동향리포트

와

의견남기기
수신요청하기



평생학습동향

수원시민 인문대학 2기 모집 상세보기

우리동네 수월	그린디자인이 율호설 교수의 지구를 바꾸는 디자인 상상력	수원시평생학습관
수원시의 평생학습 관련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2012 제3기 수원시 도시농부학교 전문기 과정 교육생 모집	수원시평생학습관
	* 2012 하반기 인문학특강 '시민, 시민으로 살아가다'	희망생도서관
	* 녹색성장도시사 양성과정	수원여성실업개발센터
	* 8월 수월포럼 공정의 힘이 넘치다	이시이투데이
	* 수월행복실용가이데미 2기	희망제작소
	* 한국미술과 인문사상 강의 안내	수원YMCA
	* 우리문화의 수수께끼, 우리 문화의 길을 묻다	선경도서관
	* 문화향성(종)공명프로젝트 [공감돌리] '아무대나 인문학'	대한글공작
	* 수원시 안전한국거점지원단 양성교육 참가자 모집	수원시
	* 경제교육 글, 나와라 특약! 참가자 모집	수원청소년문화센터
	* 2012년도 하반기 수원시도서관 아간 인문학 강좌	수원시도서관사업소
	* 신나는 토요일 참가자 모집	관산청소년수련관
	* 2012년 3기 시민예절교육 및 다례교육 수강생 모집	수원예술포럼
	* 수원시, 하반기 공직자 인문학 및 외국어 교육 실시	중앙일보

국내 소식

* 협동조합 창업 아카데미 Let's Coop	희망제작소
* 시민교육학박람회 '공유마당' 참가자 모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의 사회적경제 실현 전략	지역재단
* 세대공간 통일기행	문화재단은은아성회
* 감성! 상상력! 민주시민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충청남도교육문화본부
* GAMMA(GAMMA) 기본과정 안내	한국GAMMA센터
* 디자인 집현전 (디자인으로 세상 바라보기)	현대자연연구소
* 2012 전국시민운동가대회 '운동가, 호모루덴스로 진화하라'	시민사회발전재단
* 전통문화유산과 함께하는 맛문화교육	세소넷
* 프랑스 사회기업 및 사회적경제 역사, 현황	희망제작소
* 종합무인 미각수다 레노바에 참맛수다 '맛 콘서트'	Food For Change
* 우리마을 환경교육관 운영과 적성기술	녹색연합
* 공정여행기 양성과정 진행	대전유망주 평생학습원
* 창조적 예술교육자 양성을 위한 마적제형예술교육	서울문화재단
* 2012 세계자연유산(WCC) 중 지속가능발전교육 워크숍 개최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본 예일은 2012년 8월 29일 기준, 회원님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시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If you don't want this type of information or e-mail, please click the [unsubscribe])

수원시평생학습관
Suwon Lifelong Learning Center
관기도 수원시 팔달구 381번길 2(우문동 582)
T. 031-248-9700 F. 031-248-9902

수원시
SUNGWON
수원시
SUNG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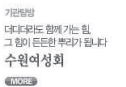
수원시평생학습관 learning.suwon.go.kr

제14호 2012년 9월 12일
2주마다 수요일에 발간됩니다

수원시평생학습관동향리포트

와

의견남기기
수신요청하기



평생학습동향

가을, 수월에서 열리는 축제 상세보기

우리동네 수월	2012 수원시 평생학습축제	수원시
수원시의 평생학습 관련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모여와! 심대명명문서] 9월 이야기 '공부' 공부는 기쁨이다SPACE공들	수원시평생학습관
	* 제5회 권선동전래놀이한마당 '대들아 놀자~ 해설 때까지~'	수원여성회
	* 그린디자인이 율호설 교수의 지구를 바꾸는 디자인 상상력	수원시평생학습관
	* 제8기 수월포럼 공정의 힘이 넘치다	수원박물관
	* 제7기 생태환경지도자 봉사단 양성교육	경기문화재단
	* 숲 생태 해설기 양성과정	서수원자연관식물
	* 에코수월마을리더	수원환경운동연합
	* 미술관들7에는 한 도시의 문화적 자원이 담겨있다	수원미술관
	* 사회적경제 포럼 '시장의 정교한 문'?	수원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
	* 2012 한·독 도시교류포럼 주빈 참여 자정자, 독일의 경험을 나누다	희망제작소
	* 9월 빈곤이아기, 최저생계비와 빈곤	다산인문센터
	* 2012 행복한이웃학교	수원시
	* 나의 무한한 역량에 - 김순우 시민 자정자연회	서수원자연관식물

국내 소식

* 위키토코@실외교육	서울시
* 2012 민주여성학교 <생각의 재산을 물려라>	한국여성민우회
* 제82기 언론학교	민주언론시민연합
* 제1회 도시 지역에너지 학교 '도시에서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녹색연합
* 청소년 나눔 토크콘서트 '여우와 참마'	이웃다문화재단
* 한 권의 책, 여덟 가지 시간 '나폴리 부리요' '관계의 미학'	경기도미술관
* 2013년 여성특례법 제정 10주년 기념 기념식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2012 민주시민교육 연수 '민주적 의사소통과 의사 결정 방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제6회 여성인권영화제	한국여성평화연
* [다큐나이트 14th] 나비와 바다	자유인문포럼
* 청소년들은 미술과 함께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하사센터
* 평생직업 위한 맞춤형 교육 체계 구축 시급	SBS
* 생명·합동 대화하교	모심과살림연구소
* 2012 생명의 시작 숲하교	물빛문화재단
* 무상시 '정비사업 시민교육' 후원 확대 실시	아시아뉴스통신

본 예일은 2012년 9월 12일 기준, 회원님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시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If you don't want this type of information or e-mail, please click the [unsubscribe])

수원시평생학습관
Suwon Lifelong Learning Center
관기도 수원시 팔달구 381번길 2(우문동 582)
T. 031-248-9700 F. 031-248-9902

수원시
SUNGWON
수원시
SUNGWON

수원시평생학습관 learning.suwon.go.kr

제15호 2012년 9월 26일
2주마다 수요일에 발간됩니다

수원시평생학습동향리포트

이슈8인물
조상을 잊지 않고
하루 역점을 잘 하주세요.
학습한 평가 좌담회

주목! 이 교육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해야 배우는
건강한 "돈" 사용설명서
어린이 미니멘토

제3탄 미국 문턱없는 학교
(첫 번째 이야기)
누구건도,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이론은 소식
고양이에서 배웠다
커피피키에서
바스타!!!!

추천자료
차기정부의
지역인재 육성방안 세미나

의견남기기
수신요청하기

수원시평생학습관 learning.suwon.go.kr

제16호 2012년 10월 10일
2주마다 수요일에 발간됩니다

수원시평생학습동향리포트

이슈8인물
주정하지 않고 삶에서
이탈하라
골목잡지 사이다

주목! 이 교육
환경보호와 나눔의 미학을
실천하는 또 하나의 방법
거북이공방워크숍

제3탄 미국 문턱없는 학교
(두 번째 이야기)
모든 것을 가르치는 학교

이론은 소식
30리에서 배웠다
맛과 멋, 흥이
함께하는 막걸리

추천자료
수원시평생학습관
Map

의견남기기
수신요청하기

평생학습동향

주민주치센터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학교 상세보기

우리 동네 수필

수원시의 평생학습 관련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행궁동제지연시 생활문화예술학교
* 초등학교를 위한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친구와 건강하자'
* 제대로 알면 자녀성교육 문제없어요 '자녀의 성교육 지도'
* 알기 쉬운 청소년 경제이야기
* 소발안전 체험프로그램 '생명의 법칙'
* 제3기 수원화성박물관대학 수강생 모집
*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교육 '부모의 물결'
* 숲 생태 학습가 평생과정
* 수원도시생태농업 활성화 토론회
* 브런치 콘서트 Arts Concert '문화와 음악의 만남'
* 수원화성박물관 주역강좌7 수강생 모집
* 토요일마다재민대학
* 폰트 북 강강 교실
* 하반기 아간 인문학 제2강 '옛 그림으로 보는 우리 역사'
* 다문화가족 자녀 '내모습 알기' 참가자 모집

행궁동제지연시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
수원지역사회교육협의회
한미통도서관
관선청소년수련관
수원화성박물관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수원YMCA
수원도시생태농업네트워크
경기도문화재단
수원화성박물관
서수원지식정보도서관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선경도서관
수원YWCA

국내 소식

국내 다양한 평생학습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회 도시 지역에너지 학교 '도시에서 에너지자립마을 만들기'
* 에코북 오픈컨퍼런스 '새롭게 읽자 다르게 살자'
* 2013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 파워 트위터란 따라 해보는 SNS UPI UP! 일일 활용법
* 도농상생 위한 귀촌·귀농정책의 방향과 과제
* 대학생들을 위한 협동조합 설명회
* 활동가 세상을 향한 멘토를 꿈꾸다
* 제19기 시민연호학교
* 아시아의 이야기: 내 이야기를 들어줄래?
* 제2회 문화예술교육 포럼 '문화예술교육, 사회적 역할을 톺아'
* 도성길라잡이 5기 모집
* 꿈을 꾸게 하는 단어 찾아가는 물 환경교실
* 평생학습도시사업 [마을 길찾기] 프로그램 '4050 희망일자리 워크숍'
* 선진국처럼~ 대학 아젠다 평생교육에 눈 돌릴 때
* 10월 생애이카데미 입문과정 모집안내

녹색연합
환경재단
아름다움재단
희망제작소 시너시사회문화센터
지역재단
대학생 재능포럼
환경교육센터
전북민중연방시민연맹
참여연대 느티나무
예술경영지원센터
서울KYC
환경교육센터
은평구평생학습관
한국일보
순천연구소

본 매월은 2012년 9월 26일 기준, 회원님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매월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If you don't want this type of information or e-mail, please click the [unsubscribe].)

수원시평생학습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381번길 경우문로 582)
T. 031-248-9700 F. 031-248-9902

평생학습동향

2012 수원평생학습동아리 한마당 배워서 남주자! 상세보기

우리 동네 수필

수원시의 평생학습 관련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012 수원시민 청담대회
* 2012 마을디자인이 워크숍
* 지동마을 작업장에서 함께할 아름다운 모임
* 2012 세계를 만나자 10월 파카스탄 편
* 우리아이 성교육, 어떻게 해야 할까요?
* Fun+한 토요소셜 부모교육 '아이의 소통하는 부모되기'
* 【부모건강프로그램】 좋은 반식을 원한다
* 한국전통문화원 '한국을 만나는 향'
* 제8회 수원여성문화원 '여성들의 신나는 잔치'
* 독서토론회 '한마당 10대 너의 배움에 주인이 되어라'
* 인문학 숲으로의 초대
* 그림자극 대공연 '활활 잔디'
* 수원시민의 장애인식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
* 행복한 글쓰기 - 나를 찾아가는 행복한 아침
* 힐링문학 <선민예배와 건강관리>

수원시
미올로세상센터
이웃EVAUT
수원청소년문화센터
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수원시청년상담센터
지혜샘어린이도서관
장안청소년문화회관
수원여성회
솔가샘어린이도서관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영동종합사회복지관
수원지역사회복지협의회
서수원지식정보도서관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국내 소식

국내 다양한 평생학습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2년 가을 학술대회] 한국 성인교육 정책의 반성과 전망
* 2012 직장인 행복실재이카데미 4기 '읽고후 Left'
* 2012 서울 교육 일자리 한마당
* 2012 오픈컨퍼런스 '2013년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 2012 민주주의 배움터 '경제 민주화의 길을 묻다'
* 우리마을 우리지역을 지키는 마을학교 '마을이 학교다'
* 마을학교 두번째 '상생을 협동하는 마을을 만들자'
* 심대외마을, 유쾌한 십대가 유쾌한 마을을 만든다
* 2012 광명시 평생학습축제
* 제2기 무위당학교 '원주에서 역사를 돌아 보자'
* 2012 민주여성학교 '민주주의와 여성정치'
* 그린컨퍼런스2012 '생태적 삶의 화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 공감의 대화술 '자기공감을 통한 힐링과 관계공감을 통한 더 나은 관계 만들기'
* 어저들의 힐링 브런치 '살을 춤추다'
* 명인 아카데미 10월 강좌

한국성인교육학회
희망제작소
서울시
오픈컨퍼런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희망제작소 뿌리센터
인도리광
물
광명시
모심과살림연구소
한국민주회
녹색연합
광각주인연대
카르페디엠 치유예술연구소
명진에너지발전소

본 매월은 2012년 10월 10일 기준, 회원님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매월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If you don't want this type of information or e-mail, please click the [unsubscribe].)

수원시평생학습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381번길 경우문로 582)
T. 031-248-9700 F. 031-248-9902

수원시평생학습관 learning.suwon.go.kr

제17호 2012년 10월 24일
2주마다 수요일에 발간됩니다

수원시평생학습관 동향리포트

이웃을 돌보며
수원시 평생학습관 개관 1주년
한 해를 돌아본다

2012년, 이렇게 일하다

주최 이 교육
박찬희가 읽고 있던
한편에 관한 오해와 진실

국민 필수 교양(헌법)

네트워킹
개인의 배움을 넘어 함께하는 학습

2012 수원
평생학습동아리 한마당

미국, 문턱없는 학교
(세 번째 이야기) 중
대중이 학교를 찾는다

의견남기기
수신요청하기

이웃을 돌보며
수원시 평생학습관 개관 1주년
한 해를 돌아본다

2012년, 이렇게 일하다

주최 이 교육
박찬희가 읽고 있던
한편에 관한 오해와 진실

국민 필수 교양(헌법)

네트워킹
개인의 배움을 넘어 함께하는 학습

2012 수원
평생학습동아리 한마당

미국, 문턱없는 학교
(세 번째 이야기) 중
대중이 학교를 찾는다

평생학습동향

우리 동네 수원

수원시의 평생학습 관련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2012 수원시 청년대학 "청년 워크숍" 수원시
- 인문학 교실을 통한 바람직한 수원 청소년 쉼 쉼집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
- 2012 아버지 카운슬러대학 "아버지가 나하면 자녀의 인생이 바뀐다" 수원시청소년상담센터
- 건축으로 보는 근대 역사와 문화 선경도서관
- 클래식, 세계를 본다 영동도서관
- 인문학을 통한 다문화공동체 만들기 (수원 다문화가족 인문학강좌)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 청소년 직업진로활동 발전을 위한 연구토론회 권선청소년수련관
- 〈모아라! 시대〉(명랑문화) 제3회 "돈" 꿈꾸는 기획단(SPACE)공방
- 기후학교 참가자 모임 푸른길2121 실천협의회
- 수다로 푸는 정치이야기 수원여성회
- 우리아이 특사도 어떻게 할까? 영동도서관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지 일자리 확충방안 정책토론회 경기복지시민연대
- 인문학 강좌 '우리 곁의 조선' 지혜샘어린이도서관
- 경제의 미술, 미술에 선 순간 (세계 미술시장과 K-Art Market) 수원미술전시관
- 수원시 생명영양분식평가와 여성친화도시의 방향제언을 위한 토론회 수원여성회

국내 소식

국내 다양한 평생학습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 "자유와 인문학"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인권이슈과정 '가치'를 읽는 표현의 자유와 인문학? 국제평화네트워크 한국지부
- 가족역량 근절을 위한 움직임은 마을모임 in 운영 한국여성성문화
- 커뮤니티 2년 "가계부와 대선" 여수문화재단
- 강산준 교수와 함께하는 마을 민주주의 광장 "자본으로 읽는 한국사회" 관악사회복지
- 아이보다 한 걸음 더 부모성장 프로젝트 (2012 행복한 부모학교) 은평구평생학습관
-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 강사과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2012 아시아 소셜벤처대회 국제컨퍼런스 "문화예술과 사회혁신" 서울문화재단
- 사회적기업 발표 및 교육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한국전역 '사회적기업' 집중해소 프로젝트 공모 사회연대은행
- 자신의 변화를 꿈꾸는 공동체 학교 "공동체를 정의하다" 커뮤니티와 경제
- 한국사의 혁신방향과 사회적경제 발전전략 사회적기업진흥재단
- 제23차 지역리더포럼 "협동조합 간 협력을 지향하다" 지역재단
- 협동조합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여성민주회합 연합회
- 한일포럼 "지속가능한 농촌, 에너지 자립은 가능하다" 희망제작소

본 매월은 2012년 10월 24일 기준, 회원님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시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If you don't want this type of information or e-mail, please click the [unsubscribe]

수원시평생학습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381번길 2(우안동 582)
T. 031-248-9700 F. 031-248-9902

수원시평생학습관 수원시평생학습관

수원시평생학습관 수원시평생학습관

수원시평생학습관 learning.suwon.go.kr

제18호 2012년 11월 7일
2주마다 수요일에 발간됩니다

수원시평생학습관 동향리포트

이웃을 돌보며
수원시 평생학습관 개관 1주년
한 해를 돌아본다

2012년, 이렇게 일하다

주최 이 교육
박찬희가 읽고 있던
한편에 관한 오해와 진실

국민 필수 교양(헌법)

네트워킹
개인의 배움을 넘어 함께하는 학습

2012 수원
평생학습동아리 한마당

미국, 문턱없는 학교
(세 번째 이야기) 중
대중이 학교를 찾는다

의견남기기
수신요청하기

이웃을 돌보며
수원시 평생학습관 개관 1주년
한 해를 돌아본다

2012년, 이렇게 일하다

주최 이 교육
박찬희가 읽고 있던
한편에 관한 오해와 진실

국민 필수 교양(헌법)

네트워킹
개인의 배움을 넘어 함께하는 학습

2012 수원
평생학습동아리 한마당

미국, 문턱없는 학교
(세 번째 이야기) 중
대중이 학교를 찾는다

평생학습동향

우리 동네 수원

수원시의 평생학습 관련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2012 수원시 청년대학 "청년 워크숍" 수원시
- 인문학 교실을 통한 바람직한 수원 청소년 쉼 쉼집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
- 2012 아버지 카운슬러대학 "아버지가 나하면 자녀의 인생이 바뀐다" 수원시청소년상담센터
- 건축으로 보는 근대 역사와 문화 선경도서관
- 클래식, 세계를 본다 영동도서관
- 인문학을 통한 다문화공동체 만들기 (수원 다문화가족 인문학강좌) 경기도다문화교육센터
- 청소년 직업진로활동 발전을 위한 연구토론회 권선청소년수련관
- 〈모아라! 시대〉(명랑문화) 제3회 "돈" 꿈꾸는 기획단(SPACE)공방
- 기후학교 참가자 모임 푸른길2121 실천협의회
- 수다로 푸는 정치이야기 수원여성회
- 우리아이 특사도 어떻게 할까? 영동도서관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지 일자리 확충방안 정책토론회 경기복지시민연대
- 인문학 강좌 '우리 곁의 조선' 지혜샘어린이도서관
- 경제의 미술, 미술에 선 순간 (세계 미술시장과 K-Art Market) 수원미술전시관
- 수원시 생명영양분식평가와 여성친화도시의 방향제언을 위한 토론회 수원여성회

국내 소식

국내 다양한 평생학습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 "자유와 인문학"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인권이슈과정 '가치'를 읽는 표현의 자유와 인문학? 국제평화네트워크 한국지부
- 가족역량 근절을 위한 움직임은 마을모임 in 운영 한국여성성문화
- 커뮤니티 2년 "가계부와 대선" 여수문화재단
- 강산준 교수와 함께하는 마을 민주주의 광장 "자본으로 읽는 한국사회" 관악사회복지
- 아이보다 한 걸음 더 부모성장 프로젝트 (2012 행복한 부모학교) 은평구평생학습관
- 민주시민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 강사과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2012 아시아 소셜벤처대회 국제컨퍼런스 "문화예술과 사회혁신" 서울문화재단
- 사회적기업 발표 및 교육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한국전역 '사회적기업' 집중해소 프로젝트 공모 사회연대은행
- 자신의 변화를 꿈꾸는 공동체 학교 "공동체를 정의하다" 커뮤니티와 경제
- 한국사의 혁신방향과 사회적경제 발전전략 사회적기업진흥재단
- 제23차 지역리더포럼 "협동조합 간 협력을 지향하다" 지역재단
- 협동조합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여성민주회합 연합회
- 한일포럼 "지속가능한 농촌, 에너지 자립은 가능하다" 희망제작소

본 매월은 2012년 11월 7일 기준, 회원님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시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If you don't want this type of information or e-mail, please click the [unsubscribe]

수원시평생학습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381번길 2(우안동 582)
T. 031-248-9700 F. 031-248-9902

수원시평생학습관 수원시평생학습관

수원시평생학습관 수원시평생학습관

수필시 경성회관 learning.saewon.go.kr

제19호 2012년 11월 21일
2주마다 수요일에 발간됩니다

‘옛는 옛이니, 내로 부터 사내를 대하는
 의문, 생각, 감정을 표현하는 수필시.
 격려의 향기, 애정의 완결은, 온기가
 흐르는 소리를 대하되기도 합니다.’

수필시경성회 동향리포트



blog  

의견내기
수신요청하기

이로운 소식



교육에서 배운다
공정무역커피로
수망로스팅 하기

[MORE](#)

추천자료



「협동조합 기본법」
어렵지 않아요

[MORE](#)

정책활동합동

2013 Start Up 20' 별★별 멘토들과 만남		상세보기
우리멘토 수월	* 2012 수월시민청인대회 본선발표회 * 2013 스타일 "친한 친구 피터" * 인문학자들과 (교현에서 순환으로 성장에서 생태로) * 자신의 자녀, 제대로 읽고 나누는가? * 사회복귀 지원관심 '더하기, 나누기' * 제사·복지장기포함 장애인안보초점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방안 * 빈곤 이여기 누가 우리를 빛지게 하는가? * 정초, 우리시나 멘토인가? * 사람 중심의 교육, 생태교육으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 여행, 나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 새문안교회 감화 이론 및 실습 특강 * 삶을 되살리는 인문학 공부법 * 호미라비 화랑광동 1호점 '주인 문화 화랑 공간' * 수월-연산-화성 마을만들기 공동기획강좌 '요코하마시의 마을만들기' * 지역중심경제강좌-재테크(연금생존/세계재민)	- 수월시민청인대회 - 수월청소년소년문화제 - 지혜샘마을이도서관 - 태초마루도서관 - 경기북지시민연대 - 경기북지재단 - 빈민간사민모임 - 수월문화원 - 수월의시21 - 화랑광동도서관 - 수월비밀공간 - 영동도서관 - 청보산마을예술촌 - 미림골드스튜디오 - 서수월주민민약사실
국내 소식	* 제4회 국제예술대회 '일과 노래의 아름다운 통합' * 2012 경기생태교육 클럽발표회 '참교육의, 길을 열다' * Social Designer's School * 소설미디어로 창조하고, 사진미디어로 소통한다 * 제4기 오 · 락 · 락 워크숍 참가자 모집 * [2012 체인지온 컨퍼런스] 발표 자료 공유 * 절은 사회학자일까, 공을 이야기하다 * 청양인문학학교 '인연을 배우자, 그리고 행복해지자' * 청신산을 위한 환경생태 감화 '청신산, 예화를 만나다' * 2013 세계생존실천지구환경포럼 * 우리 역사와의 대화 What U want? * 한국 환경교육운동의 과거와 미래 심포지엄 * 협동조합, 경기도의 미래를 열다 * 나를 바꾸는 여자들의 위대한, 한 장의 페미북 * 2013년 지역사회교육포럼-인간환경의 균형을 찾아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경기문화재단 - 청양재단 - 한국문화재단 - 대행인진 - 체인지온 - 한국사회학자협회 - 인원연대 - 여성환경연대 - 환경재단 - 경기도비밀공간 - 환경교육연대 - 경기개발연구원 - 연니네트워크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국내 다양한 정책활동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메일은 2012년 11월 21일 기준, 회원님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If you don't want this type of information or e-mail, please click the [unsubscribe]

수원시평생학습관 Seowon Lifelong Learning Center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381번길 2(우만동 582) T. 031-248-9700 F. 031-248-9902 수원시 SUMWON CITY 수원지재소 Seowon Jijae-so The Jijae Institute

서로 배워 함께 살아가는 세상 만들기

[illegible]



이슈인물
누구보다교두보에 ODI가
온라인 평생학습권의
숨은 고수 찾기

[MORE](#)



주인! 이 교육
너희 재물이 누구에게 필요하다
(고등학교 자율형 학교 프로그램)
누구나 웹

[MORE](#)



7월 2주
7월의 나눔을 일고
느리게 더 느리게 향하는 공동체
마음챙김신재활센터

[MORE](#)



재미왕이재현동무 4인
일본의 공동학습
(세 번째 이야기)
일본신학교의 부인, 여성

[MORE](#)

이로운 소식


교육에서 배운다
프레지를 활용한
발표 업그레이드

Prezi

[MORE](#)

CELEBRATE

HUMAN RIGHTS



추천자료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인권상담 길라잡이

[MORE](#)

평생학습동향

수원시평생학습관 2013 겨울학기 프로그램 안내		상세보기
우리동네 수업  수원시의 평생학습 관련 정보들 자랑 배로 확인하세요	* 2012 수원시 청소년 인재를 육성 프로그램 "나의 비전스케치" 수원시 * 수험생컨설팅 겨울방학 프로그램(강의+세션) 수험생컨설팅 * 인문학강좌 (시대를 읽다 세상을 읽는다) 지혜배원리지도관 * 서예문인강좌 및 모임 안내 수원박물진 * 조선시대 대목장길의 역사 수원화성박물관 * 겨울산길 어린이캠프, 자녀구이틀 수원YMCA * 한겨울에는 채취한정 과학교실 수원 환경사업소 * 2012 수원시 초급 자전거 지도자 교육 서수원주민복지시설 * [환경특목] 우리 몸을 해치는 유해물질 수원YWCA * [태양화학상식] 영화로 만나는 명품 사극 경기평생교육연구원 * 영화사랑, 세상읽기 '아라뮬 열시는 빌라드랩니다' 수원화성박물관 *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경기도대학교 "굿뉴스 페스티벌"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 어린이들 부모교육강좌 (초등과 중등 사이) 영동도서관 * 자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 프로그램 리더십 수원지역사회교육협의회 * 찾아가는 청소년 인문학강좌와 대학교 모임 수원외대2기	
국내 소식  국내 다양한 평생학습 관련 정보들 확인하세요 있습니다.	* [출판강의] 우리 아이 변화의 시작 "공공영어" 공공강연 * [출판] 읽는 문화 "소셜리더십강좌" 소셜이노베이션스쿨 * 청소년과 함께 만들어가는 인문학교과 통진각교육문화본부 * 연인이 보인다, 세상을 보았다 837 특별한 인문학교과 인문학시민연합 * 대안교육 길잡이 <두뇌만화교과> 톨러블 * 청소년 교육여행 "태극무로트 캠프" 톨러블청소년 캠프 *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그린아카이브 '술과 나' 합정재단 * "한국 환경교육운동의 과거와 미래, 실태조사" 환경교육센터 * 2012 대안적 지역발전은 모색하는 활동가 학습모임 녹색시민연구소 * 2012 세상을 한 뼘 더 키우는 창 "다문화사회기법아카데미" 세넷 * 서울예술교육포럼-중구난방 서울문화재단 * 2012 예술경영 컨퍼런스 예술경영지원센터 * 소셜미케팅 시대: [음향]하라 문화아카데미] 마이컨텐츠스쿨 * "동행 - 농촌 희망실적도, 발전기대 세미나 희망제작소 * 가을에 들기는 사색 향연: 사회적 연대, 지식과 경험을 보다 환경교육센터	

본 메일은 2012년 12월 5일 기준, 회원님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If you don't want this type of information or e-mail, please click the [unsubscribe]


수원시평생학습관
 Seowon Lifelong Learning Center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381번길 2(우산동 582)
 T. 031-248-9700 F. 031-248-9902


수원시
 Seowon City


유니버시티 오브 더 트윈 리버스
 The Twin Rivers Institute

사 로 배 우 미 할 과 실 상 치 는 정 다 문 우 리 학 교

수원시평생학습관

learning.swwon.go.kr

제21호 2012년 12월 19일
2주차에 수업일에 발간됩니다

수원평생학습동망리포트



2012년 12월 19일 내·외국 우리 사람을 이해하는
 일로 사람, 함께 할 우리와 어울릴 수 있
 게 하는 힘, 어떤 언어에서든 잘 다
 려는 소를 익히는 것입니다.

의견내기

수강신청하기

이로운 소식


내 손으로 직접 담그는
건강 효소
[MORE](#)


추천자료
다양하게 활용해 보자
학습·정보 공유 사이트
[MORE](#)

평생학습동행

수원시평생학습관 2013 겨울학기 프로그램 안내

상세보기

우리동네 수업

수원시의 평생학습 관련 정보들
지급 비회 확인하세요

* “일상에서 인문학을 말한다” 강연회 * 수험생 초․중․고등 교육과 재교육 * 제24기 영동청소년자원봉사학교 * 청소년 자원봉사 5월학기 “함께 소통하는 투게더 존” * 청소년자원봉사학교 * “올 리아드” 교육생 모집 * 문화와 함께하는 연얼파티 케이코 만들기 * [크리자스마 특강공연] 판타지시 DREAM 피레키오 * 가을방학특집 어린이 한자서 탐방 교실 * 책과 함께 나누는 그림자극 여행 * 물심양호초 교실 * 아산인의 통과학과-요양에서 무덤까지 * 제2회 공공누리 마을학교 * 함동초삼일학교 * 내 온 안의 스타트업 도서관 ‘수원시 도서관’ 앱 출시	* 수원시 * 수원정보 * 영동청소년사회복지관 * 무봉초청소년복지관 * 우안청소년사회복지관 * 군포초종합복지관 * 수원청소년문화센터 * 스토리강연 * 수원박물관 * 해남남원도서관 * 함동문화놀이터 * 중앙아산전문문화연구회 * 푸른강가11 살림집의학 * 수원시사회복지사업지원센터 * 수원시

국내 소식

국내 다양한 평생학습 관련 정보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창조적 실험과 변용/사물과 물고기, 지역에서 일하기” * 제1차 서울올림픽 미술공연, 사자화상과 방학을 즐기는 * “희망봉” 오론토비 내 손으로 만드는 ‘나눔’ 교 * “창조, 세상에 걸을 때 내 속은 흐르는 물” * 한양대학교미래에대 “그대 가까이 살아 있던 꿈, 다 어디로 갔을까” * “가장 학교에서 학생학교로 융성회 방문 교육, 심포지엄 * (다이나미크 23호) 아무도 꾸지 않는 꿈 * (연남노프) 배려이브리케이션 후원상징표 초대 * “비교노프 생각과 일, 해설강좌 * 마을에서 놀며, 배우며, 소통하는 아이들 [커뮤니케이션 소집합 워크] * 사회학7기] 장강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 제48회 창의·인성교육 현장포럼 “창의성·인성·예술의 만남” * 글로벌 활동가를 위한 해피나눔학교 * 명동창의인텔이 세상을 톺다! 해커 콘서트 2012년, 2012년 * 선인 평생학습 참여율 35.6% ‘무조건’ 증가	* ○ 온오프연구소 * 서울시마을교육공동체 협동지원센터 * 희망재단교육 * 씨즈 * 청토비(사)에코보따리 * 신성학고교구독판트북프 * 자유인문연구소 * 배려이브리케이션위원회 * 진보교육연구소 * 서울대학교 * 성균관대학교 * 경기창의학교 * 지구구약문화재단 * 광명시평생학습원 * 뉴스11

본 메일은 2012년 12월 19일 기준, 회원님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회원님께서 수신동의를 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
 If you don't want this type of information or e-mail, please click the [unsubscribe]

수원시평생학습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381번길 2(우만동 582) 수원시 호남제약소

Suwon Lifelong Learning Center T. 031-248-9700 F. 031-248-9902 BUNCH CITY The Future Tradition

서로배우며함께성장하는성다문화우리학교

통계로 보는 ‘와’

창간일 : 2012년 3월 14일(수)

발행일 : 격주 수요일

구독층(와21호 기준)

호별 구독 현황

구분	인원
수강생	2,447명
평생학습 및 관련단체 관계자	1,680명
평생학습 및 관련단체	176명
기타(언론, 정보 요청자 등)	271명

호수	발행일	구독인원
창간호	3월 14일	1,732명
2호	3월 28일	2,652명
3호	4월 10일	2,826명
4호	4월 25일	2,902명
5호	5월 9일	2,944명
6호	5월 23일	3,044명
7호	6월 5일	3,193명
8호	6월 20일	3,370명
9호	7월 4일	3,489명
10호	7월 18일	3,608명
11호	8월 1일	3,647명
12호	8월 14일	3,709명
13호	8월 29일	3,831명
14호	9월 12일	4,178명
15호	9월 26일	4,241명
16호	10월 10일	4,240명
17호	10월 24일	4,265명
18호	11월 7일	4,264명
19호	11월 21일	4,448명
20호	12월 5일	4,546명
21호	12월 19일	4,574명
합계 : 75,703명 / 회당평균 : 3,605명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 독자 의견 청취를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2012년 발행되었던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와 관련하여 독자들의 의견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 준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2013년 '와'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 있는 '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와'에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조사기간 : 2012. 11. 19(월) ~ 11. 26(월) / 8일간

조사대상 : 동향리포트 구독자 중 560명(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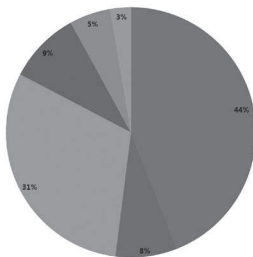
응답자 : 74명(응답율 13.2%)

유효응답자 : 71명(95.9%)

1.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를 어떻게 아시게 되셨나요?

접근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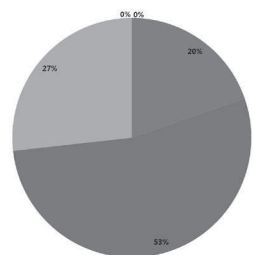
학습관 교육 및 행사 참여 등을 통해(33명, 44%)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해(6명, 8%)
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23명, 31%)
지인의 추천을 통해(7명, 9%)
들어본 적 없다(4명, 5%)
기타(2명, 3%)



2.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전체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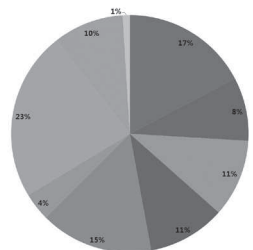
매우만족(14명, 20%)
만족(38명, 53%)
보통(19명, 27%)
불만족(0명, 0%)
매우불만족(0명,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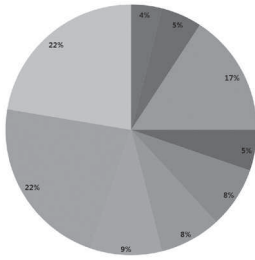
3. 가장 만족하시는 콘텐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만족 콘텐츠

이슈&인물(18명, 17%)
기관탐방(9명, 8%)
해외평생학습동향(11명, 11%)
주목!이교육(11명, 11%)
교육에서 배운다(16명, 15%)
추천자료(4명, 4%)
우리동네수원(수원교육정보모음)(24명, 23%)
국내소식(국내교육정보모음)(10명, 10%)
기타(1명,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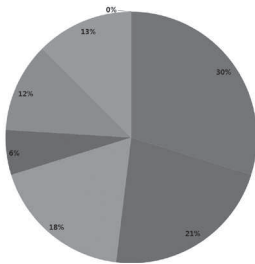


4. 가장 불만족하시는 콘텐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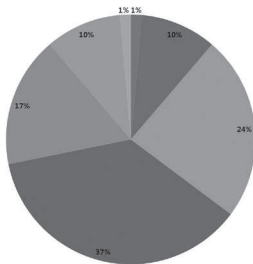
불만족 콘텐츠 이슈&인물(3명, 4%)
 기관탐방(4명, 5%)
 해외평생학습동향(12명, 17%)
 주목!이교육(4명, 5%)
 교육에서배운다(6명, 8%)
 추천자료(6명, 8%)
 우리동네수원(수원교육정보모음)(7명, 9%)
 국내소식(국내교육정보모음)(17명, 22%)
 기타(17명, 22%)

5.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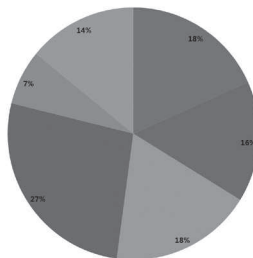
만족 콘텐츠 평생학습관련다양한기획기사(31명, 30%)
 평생학습관련전문가의깊이있는칼럼(23명, 21%)
 평생학습기관실무자들의현장이야기(19명, 18%)
 평생학습관련통계조사(6명, 6%)
 학습자및학습동아리이야기(12명, 12%)
 수원의역사·생활·문화관련소식(13명, 13%)
 기타(0명, 0%)

6.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 20세이하(1명, 1%)
 21~30세(7명, 10%)
 31~40세(17명, 24%)
 41~50세(26명, 37%)
 51~60세(12명, 17%)
 61세이상(7명, 10%)
 무응답(1명, 1%)

7. 귀하의 직업은 무엇인가요?



직업 평생학습관련기관관계자(13명, 18%)
 시민사회단체관계자(11명, 16%)
 회사원(13명, 18%)
 전업주부(19명, 27%)
 학생(5명, 7%)
 기타(10명, 14%)



2부

‘와’ 돌아보기

p. 22 - 142

이슈&인물

- 사람과 이야기를 만나다
-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 마을만들기 현장을 가다
- 시민이 만들어 가는 학습
- 정다운 우리학교 이야기

p. 143 - 218

해외평생학습동향

- 영국을 가다
- 독일의 계속교육
- 미국 문턱없는 학교
- 일본의 공동학습

p. 219 - 310

기관탐방

p. 311 - 351

교육에서 배운다



평생교육의 대모를 만나다!

발행호 (제1호) 2012. 03. 14.(수)

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 도반들과 함께 걷는 길

- 그 속에 피어나는 배움을 향한 불광불급(不狂不及)

저 멀리 있었다

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 홈페이지를 자주 드나들며 써핑을 하지만 눈에 띄는 내용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도 별로 보이질 않았다. 분명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 정책 수립에 굵직굵직한 영향을 미치는 중추 기구이기는 한데 일상의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기관들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

건만 그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진흥원은 이름하여 가깝고도 먼 사이였었다.

그래서 궁금했다

진흥원과 평생학습기관의 접점은 어디인가. 진흥원 수장에게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 게다가 진흥원 원장이 누군가. 한 평생을 평생교육분야에 바쳤고 세계 평생학습 명예의 전당에도 등재된 토종

수원산 최운실 교수가 아니던가.

그녀, 최운실 원장에게 묻다

취임(2010년 11월)이후 1년 여 소감이 어떠신지요.

현실과 이상은 늘 간극이 있게 마련이죠.

평생교육계에 30년 이상 종사해 온 연구자이자, 학자 그리고 대학교수로서 제가 평소 생각해 왔던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이상적 신념들을 현장에 구현, 접목시키고자 취임 후 1년 여간 참으로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 그 덕에 평생교육법이 정한 평생교육 진흥의 6대 영역 9대 기능 수행과 희망교육지원 및 전 사회의 평생교육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며 나름 적지 않은 성취를 일구어 냈다 자부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산적한 과제들이 너무 많아 찻찻산중이란 말이 절로 떠오릅니다. 스스로 매겨보는 현실 성적표가 영 아니네요... 우리는 분명 세계적 교육열을 자부하는 학습민족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이나 참여율은 그다지 높지 못합니다. 학습동아리나 풀뿌리 민본 평생학습의 구동, 일터와 지역사회의 배움터화 등 풀어나야 할 숙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실적 한계 또한 녹록치 않아 이 생각 저 생각에 잠을 설치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힘내서 걷고 또 걸으려 합니다.

‘진흥원호’의 수장으로 앞으로의 국가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포부와 계획은 어떠신지요.

글쎄요. 포부와 계획이라...

아마 그 첫째 과제는 ‘학습강국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 평생교육진흥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일 겁니다. 중앙-광역-기초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전체를 종횡으로 엮어내는 물 썰 틈 없는 평생학습지원망의 구축이지요. 학습시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이 문해교육에서부터 희망의 인문학으로 그리고 문화예술교육과 시민참여교육, 학력인증대안교육과 생애 직업역량개발 등으로 스펙트럼을 넓혀 나갈 수 있

도록 학습촉매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올인 하려 합니다.

현재 16개 시도에 조례에 근거하여 시도평생교육진흥원들이 속속 설립, 개원되고 있고, 기초지자체마다 평생학습관들이 지역평생교육 구심체로 기능하고 있지요. 이들의 임파워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공공과 민간의 ‘평생교육적 동행’을 위한 공공-민간부문간 상호 파트너십과 협력체계 구축 또한 너무 중요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서로 힘을 합해 공조하고 협력한다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공공과 민간(GO-NGO) 양자의 관계가 마치 ‘사이좋은 부부’처럼 늘 함께 서로 힘을 보태주는 동행의 관계여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또 다른 숙제는 바로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 온 마을 학습으로’ 평생교육의 틀을 바꾸어 나가는 작업일 겁니다. 학교는 이제 더 이상 아이들만을 위한 닫힌 교육의 터전이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이를 위한 지역사회 학습터로 열려야죠. 마을학습의 중심에 학교가 있어야죠. ‘지역사회의 심장부’로 학부모, 지역리더, 어르신 등 모든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열린 공간, 삶의 터가 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가 되어야 하지요. 이 일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쏟으려 합니다.

글로벌 시대를 여는 한국의 평생교육 역할에 대한 포부는 어떠신지요.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가장 관심을 갖고 노력해 온 분야의 하나가 바로 글로벌 평생교육지평 확대 사업이거든요. 바야흐로 한류 3.0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은막의 한류스타나 K-Pop의 열풍이 한류 1.0과 2.0시대의 상징이었다면 이제 교육 특히 평생교육을 통한 세계 중심국가 코리아의 활약이 가히 한류 3.0시대의 아이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요. 세계적인 교육열과 교육적 노하우 그리고 문화 전통을 중심으로 세계 속의 코리아로 부상해야 할 때 이죠.

지난 2월 글로벌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아프리카를 다녀왔어요. 작년 10월에는 남미 여러 나라를 다녀왔구요. 정말 믿기 어려울 만큼 ‘한국을 배우자(Learn Korea)’는 각국의 열기가 너무 뜨거웠어요. 그들에게 교육은 단순한 문자 깨우침이 아니라 인간



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하나의 거대한 인권 운동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앞으로 아프리카 54개국 그리고 남미 22개국과 함께하는 한국교육 진출의 세계적 교두보 마련을 위해 매진하고 싶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에 관해 이야기 할 때 당시의 감동과 장면들이 떠오르는지 다음과 같은 말을 되뇌었다.)

아하, 그 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감동에 벅차 지금도 막 눈물이 내려 하네요.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국평생학습기관 데이터를 보았는데 수원시에서 조사한 평생학습기관 분류 기준표와 많이 달라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국내에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인 셈 아닌가요?

평생교육은 그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통일되고 표준화된 분류체계나 통계가 마땅치 않아요.진흥원에서 전국적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어요. 그 일환으로 평생교육기관 분류 체계화 연구 등도 수행했구요. 아마 올해 말쯤이면 현장에서 원하시는 평생교육 정보 서비스가 조금 더 원활해 질 듯 싶습니다. 또 올해 신설된 진흥원 정책연구실과 정보화지원실에서 평생교육 DB구축 및 표준화 관련 사

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니 좀 기대해 보시지요.

평생교육의 스펙트럼은 참으로 넓다. 그렇기에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과 종사자 또한 참으로 다양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다양하다’는 중립적 언어 보다는 복잡·혼재라는 말이 더 적합한 단어 선택일 듯하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중앙 진흥원을 위시해서 시·도 광역지자체와 시군구 그리고 동시에 시·도 교육청과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여러 경로로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체제로 인해 자칫 역할 및 권한에서 혼란과 갈등이 빚어질 소지가 다분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자원 낭비나 행정 사각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평생교육 관련 업무들이 그동안 담당하던 시·도 교육청에서 행정단위 시·도 광역지자체로 이관, 조정되기도 하고 역할 분담에 변화가 나타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아직 분명한 역할 분담이나 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혼란, 중복, 상치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중앙 진흥원과 시·도 진흥원과 기초 시군구 단위 평생학습관의 역할과 기능, 권한과 업무 등에 있어 법이나 규정이 정한 명확

한 경계 나눔을 근거로 현실에서 뭔가 좀 더 정확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 경기도에도 설립되었습니다만, 시·도 평생진흥원의 경우 그 핵심 기능은 도민을 대상으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도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와 정보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전문가 연수 기능 그리고 각 지역 및 기관간의 평생교육적 네트워크 구축 등 광역의 평생교육 진흥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곳이지요. 그런 점에서 기초지자체인 시군구의 학습관과는 기능이 많이 다릅니다. 좀 기다려보죠. 올해 정도만 지나도, 시스템이 훨씬 더 안착될 거고 서로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가 명확해져 이런 저런 현실적 기능 중복과 혼란스러운 문제들이 정리될 거예요. 중앙 진흥원에서도 올해 중점 사업의 하나로 ‘100세인재개발특임본부’에서 지역평생교육 체계화 및 활성화 사

특히 민간 위탁 모델로 평생학습관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기도 해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어요. 민간과 공공부문이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한편 공통된 영역에서 함께 공조하는 이른바 ‘따포’ 모델의 전형이 되었으면 합니다. 민관이 힘을 합쳐 평생학습으로 하나 되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적 학습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특히나 수원에는 화성이라는 훌륭한 문화자원도 있잖습니까. 특화 프로그램의 한 모습으로 수원의 평생학습기관들이 화성의 혼과 문화와 역사를 시민들에게 전하는 학습전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고요.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학습자원을 매트릭스화해서 강점을 둘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세워 공공과 민간이 동행하는 ‘메타 협용 시너지 체계’를 만들었으면 하는 기대가 큼니다.

아직 질문할 것들이 많이 남았는데 다음 일정의 사

우리가 행복해서 신나서 일 할 때
우리를 만나는 학습자들도 행복합니다. 그렇기 위해 ‘늘 공부하는’,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진정한 교육자가 되시자고요.

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좀 지켜봐 주세요.

평생학습도시 수원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출생지이기도 하려니와 제가 현재까지도 몸담고 있는 곳 이어서 ‘평생학습도시 수원’은 평생학습관 태동 이전부터 제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곳입니다.

람들이 연신 노크를 해대니 점차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에 중간을 생략하고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수원지역 평생학습 종사자들에게 선배로서 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최고의 평생교육자들이 혼을 담고 일하는 참으로 멋진 학습도시를 일구는 일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모든 일의 성공에는 ‘사람’이 관건입



니다. 마음과 능력과 열정을 갖춘 이 분야의 사람들이 있어, 그들의 겸손함과 성실함과 열정과 실력 그리고 행복감으로 평생교육의 성패가 결정됨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행복해서 신나서 일 할 때 우리를 만나는 학습자들도 행복합니다. 그렇기 위해 ‘늘 공부하는’,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진정한 교육자가 되시자고요.

공부란 단순한 머릿속 지식이 아닌 가슴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지혜 성찰의 과정을 향한 구도의 길이라 생각해요. 남을 가르치려면 먼저 교육자인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가르침과 배움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하나이기 때문이죠. 프레일리 선생의 가르침처럼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을 다 모르는 사람도 없지요. 서로 서로 가르치고 서로 서로 배우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래요. 배움이란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끝이 없는 길’입니다. 비록 우리 사회가 여전히 ‘교육=학

교’라는 신화에 빠져, 학교 밖의 소중하고도 다양한 학습경험들과 학습터들이 때론 아예 실종되어 버린 듯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디만, 그래도 ‘모든 이를 위한 학습’에 생을 바치겠다고 나선 당신들이 계셔, 또 하나의 ‘울지마 톤즈’ 주인공 같은 당신들이 계셔, ‘세상은 분명 희망’입니다. 학습의 씨앗을 뿌리고 거두는 학습농부들이신 당신들께 거는 기대가 큼니다.

그녀는 불광불급(不狂不及)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미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구어 낼수 없고 도달할 수 없다는... 일가를 이룬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 세 단어로 표현하면 ‘확신’·‘열정’·‘노력’이 그것 일 게다. 하긴 이런 것을 끝없이 연소시키지 않은 채 어찌 일가를 이룰 수 있겠는가.

하얗게 밤을 새울 때가 많아요. 일중독이라 불리울 만큼 늘 일에 묻혀 살고 있거든요. 시간과의 사투를 벌이며 살아가는 기분이죠. 주말마저도 반납하

고 평생교육을 공부하는 박사 제자들과 함께 논문 스터디 서클에 참여합니다. 아마 생을 마감하는 그 날 까지 이 일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부분으로 남을 거예요. 기쁨과 열정으로 임하는 ‘평생교육’이 바로 내 삶의 강력한 비타민이자 항생제입니다. 제가 최근 자주 떠 올리는 가능성의 언어인 ‘하쿠나 마타타’의 정신으로 신나게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쿠나 마타타. 아프리카 말로 ‘걱정하지마. 문제 없어. 다 잘 될거야. 당신 분명 해 낼 수 있어’라는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 아프리카 현지에서는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적 슬로건으로도 자주 인용되고 있단다. 현재의 어려움을 잠시 잊어버리게 하는 모르핀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기 존재에 대한 긍정과 낙관적 자세를 의미한다면 ‘하쿠나 마타타’야 말로 이 땅의 학습 지킴이 ‘평생교육자’ 그리고 위대한 학습시민들에게 건네는 인사말로 썩 괜찮을 듯싶다.

그녀라고 표현된
최운실원장님,
그리고 지금도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평생교육 지기들’에게
마음속으로 전하고 싶다.
‘힘 내시라구요.
세상은 당신이 계셔
희망입니다.

하쿠나 마타타’.

강사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발행호 (제2호) 2012. 03. 28.(수)
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장

강사는 평생학습 생태계의 한 축입니다



결코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라는 말을 되새기지 않더라도 강사들의 교수법, 수강생에 대한 과학적 이해, 수강생에 대한 태도와 자세 등 강사들의 스킬과 마음가짐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직접적인 교육은 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실에서 ‘강사가 하는 것’이다.

먼저 ‘고백’으로 이 글을 시작한다. 없었다. 단 한번도.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지만 강사와의 관계, 처우개선, 강사의 교육 등 강사와 관련한 그 어떤 논의도 고민도 해 본적이 없다. 수강생과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그들의 지적욕구를 해결시켜 주는, 기관 운영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인 데도 말이다.

독일의 인지학자 루돌프 슈타이너의 “교육의 질은

이러한 강사들이 갖는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보면 현재 그분들이 받는 대우는 부당하다. 이는 강사료와 같은 재정적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별책부록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인식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좌담회는 강사로서의 조건과 고민을 솔직한 육성으로 들어 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기 위함이다. 생생한 육성은 그 어떤 화려한 논리보다 깊은 울림이 있지 아니한가.

1. 강사와 교육기관과의 관계

강사는 2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의실에서는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이 있지만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의 전문능력을 파는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노동자로서의 관계에 있어서는 역학관계상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석자들은 일종의 갑을관계를 내면화하고 있었다. 개인마다 그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갑을관계를 현실로 수용하면서 그 조건 하에서 대응하고 있는 듯 보였다. 발언 내용을 가명으로 처리하는 것도 그 짙은 현실의 생생한 모습이다.

홍길동(강사1) 저는 여러 기관을 겪어 보았는데요, 기관이나 담당자가 일관된 원칙이나 기준이 없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와 달라진 기준을 이야기할 때 감사 지적사항이었다고 말하거나 담당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한 강사에게 교육에 대해 원하는 내용들이 사전에 공지가 안 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교육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범죄 조희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동 대상이 아닌 성인강좌에서 까지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었고 게다가 6개월 전에 조희를 진행했는데 또 다시 하는 이유를 물으면 나는 모른다, 그냥 지침이다 등의 이야기만 합니다.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같은 소속 기관이면 연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마다 다 각자 진행하고 있어요. 강사가 을의 입장이어서 불평등한 것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는 있지만 기준과 통일성이 없는 것을 강사에게 일방적으로 따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불편하고 싫습니다.

사 회(산소통) 시스템 미비에 따른 원시적 방식을 강

사들에게 요구하는 것인가요.

홍길동(강사1) 프로세스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관련 전체 기관의 DB가 정리되고 연계되었으면 하는데 모든 것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 불편하더라고요.

김연아(강사2) 도서관에서 일을 할 경우에는 담당사서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담당사서가 뭘 좋아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맡은 교육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담당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느냐가 중요해요. 교육을 잘하려면 준비물이 필요하지만 담당자는 이렇게 재료비가 들어가면 엄마들이 안 좋아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비용이 조금 높으면 수강생 모집에 불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교육이란 연속성 있게 진행을 해야 하는데 그 때 그 때 추세에 따라 주제를 바꾸기도 해서 힘든 면이 있습니다.

홍길동(강사1) 기관과 계약하기 전에는 매번 제출할 서류를 두툼하게 가지고 다닙니다. 각 기관마다 원하는 서류가 너무 많고 양식도 모두 다릅니다. 하나도 통일된 부분이 없고 원하는 방식도 모두 달라요. 팩스 제출도 안 된다고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불쾌한 기분도 들어요. 기관마다 원하는 것이 모두 다른 것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박지성(강사3) 저는 정규직으로 일하다 현재는 프리랜서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기관을 다니며 강의를 할 때 저의 정체성을 파악하기가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을 할 때 다칠 수도 있는데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가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교실에서는 선생님인데 이 사회 안에서 뭔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계약서도 없이 그냥 구두로 시작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은 대부분 위

탁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배려 해주지만 다음 학기에 강좌를 계속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고민해볼 때 일종의 권력관계가 형성되는 듯 합니다. 내 강의가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재계약을 하는데, 수강생이 평가한다기보다 위탁한 기관과의 관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나름의 평가 기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내 강의를 온전하게 평가하는 틀이 되는지...

김연아(강사2) 기관에서 강사들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의 문제가 있는데요 마치 시혜자 같은 입장에 서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강좌를 하나 드렸으니까 무료강좌 보너스로 하나 더 해주세요... 또 도서관에서 수업을 하다보면 강의실이 바뀌는 경우가 많은데 누가 특강이라도 할 경우에는 갑작스레 제 강의실이 바뀌곤 합니다.

2. 기관의 평가

사 회(산소통) 저희 같은 기관들도 공무원에 의해 평가 대상이 됩니다. 어찌 보면 평가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과연 그 평가기준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평가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박지성(강사3) 계량화하기 쉽진 않겠지만 단순한 수강생 만족도 말고도 교육의 성취도로도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김연아(강사2) 평가기준이 기관마다 서로 다른데요 어떤 기관은 최종 평가기준서가 몇 장이 들어왔느냐, 즉 출석률을 최고로 따지기도 합니다. 합의에 의한 평가 양식이 필요합니다.

홍길동(강사3) 강사와 기관의 합의에 의한 평가 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입상 실적으로 강사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교육생을 몇 그룹으로 나누어 입상할 수 있는 아이들, 조금 부족한 아이들 등으로 구분하고 서로 별도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기관에서는 학부모와 아이들 모두에게 평가를 진행하고 이것을 평균하여 최종평가를 하였는데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떠한 부분에서는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평가서를 돌려 평가하게 하는 것은 자괴감에 빠지게 합니다. 배가 나왔다, 흰머리가 많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 싫어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여 돌린 경우도 있고 모든 강의를 공개수업으로 한 적도 있습니다. 평가 틀에 대해 기관에서 별로 고민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일방적 기준이 아니라 강사와 협의를 해서 시행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김태희(강사4) 강사로서의 어려운 점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첫째로는 단발성 사업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프로그램이 유행처럼 번져서 한 곳에서 잘되면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강의를 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이 단기사업, 단순 평가로 끝나버립니다. 일정한 성과가 내려면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일정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전체적인 숲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흥행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가 합니다.

둘째는 수강생 문제인데요 수강자 자부담금이 적으니까 수강자들이 목적과 필요성이 있어서 수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큰 생각 없이 시간 죽이기용으로 수업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수업의 참여도도 떨어지고 강사도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에서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보통 수업을 3개월 단위로 접수하고 진행하잖아요. 기관에서는 수강생 모집이 안 되면 폐강하는데 이것을 너무 당연하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강사들은 본인의 전체 일정을 생각해서 수업을 잡는 것인데 수업이 얼마 남지 않은 2-3일 전에 폐강해버리면 이것은 결국 강사의 일거리가 줄어들어는 것입니다.

또한 비현실적인 강사료도 문제입니다. 강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 돈을 들였는데 시간당 2-3만원을 제시합니다. 물론 기관의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개인의 노력이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부당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계약 문제인데요, 교육담당자가 바뀌어 친분이 깨지거나 하면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홍길동(강사1) 강사료의 경우 3단계 정도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 그것을 기준으로 강사료를 책정하는데 이것의 문제는 기준 강사료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강사료는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어

서 강사료 인상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이럴 때는 장기 고용을 목표로 생각하고 진행하기도 합니다. 사실 강사료가 너무 적으면 기회비용의 부분에서도 선택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3. 강사은행제

강사료 문제로 더 뜨거워지기 전에 비겁하게 초점을 살짝 이동시켰다. 강사료는 기관의 선의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강사은행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런데 좌담회 참가자 대부분은 그 취지에는 공감하였으나 현실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단 한 명도 강사은행제를 통해 계약된 적이 없었다.

홍길동(강사1) 대부분의 기관이 공개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은행제 실효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헌데 공개채용을 해도 항상 강의하던 사람이 강의를 합니다. 이것은 강사가 검증이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도 강의를 요청하고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섭렵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지성(강사3) 제 경우엔 취미강좌이다 보니 강사 분들이 많습니다. 실용음악학원도 많고, 평생학습관에서 질 높은 수업을 하면 좋겠지만, 내가 능력수준이 무척 높지는 않지만 서너 명 정도는 가르칠 수준은 됩니다. 이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질문을 던졌다. 강사은행제의 실효성이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강사들이 입력하는 정보가 지금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꼼꼼해져야 한다. 과연 강사들은 그런 정도의 정보를 공개하길 원할까. 역시 참석자 대부분은 세심한 정보공개를 꺼려하고 있었다.

정보의 충실성과 강사은행제 활성화 사이에는 인과 관계는 아닐지라도 연관관계는 분명히 있지만 강사 은행제의 핵심주체인 강사들에게는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적은 듯 보였다.

4. 기관과의 관계 개선책

홍길동(강사1) 강사들과의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자리는 난생 처음인데 이런 자리는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언제든지 시간을 내서 참석할 용의가 있습니다. 강사협의회가 있으면 힘들지만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용이 채워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간의 소통 기구가 있으면 이 안에서 여러 논의가 이뤄질 수 있고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교육을 기획할 때 담당자 혼자하지 말고 함께 참여하는 기획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지성(강사3) 강사협의체는 일종의 이익단체 아닐까요. 있으면 좋겠지만 보다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길동(강사1) 이익단체로서의 방향은 매우 장기적인 모습인 것 같고 지금은 자문의 역할, 대화의 통로로 활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강사의 재교육

좌담회 참석자들이 강사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오늘 참석자 전원은 강사의 재교육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강사의 분야가 매우 광범위하고 강사 간 수준 차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기에 교육 주제를 잡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터.

홍길동(강사1) 요즘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요. 소프

트웨어 활용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미디어 활용에 대한 강좌가 있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영상을 보여주면 좋아하는데 이걸 만들 줄 알면 좋겠습니다.

김태희(강사4) 강사들끼리 인적자원을 나눠서 스토리텔링, PT, 스피치 등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서로 교류하고 있는데요. 좋은 강의가 있다면 시간을 빼서라도 들을 것 같습니다.



홍길동(강사1) 몇 번의 강사 교육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 현장을 모르는 사람이 강사를 하여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희망하는 분야, 배우고 싶은 사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또한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기획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6. 기관들에게의 제안

홍길동(강사1) 동아리를 만들어주세요. 강사들의 동아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영역의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김태희(강사4) 강사들을 위한 정기적인 토론회, 간담회 자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강사들 간의 정보교류는 물론 강의 내용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연아(강사2) 동아리를 무슨 동원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할 때 도와달라거나 축제에 참여해달라거나 하는데 물론 불린티어이긴 하지만 최소한 교통비 정도는 줘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

생학습관 직원들이 들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진행될 수도 없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해결하려고 하겠고 한편 평생학습기관 전체가 합심해서 처리해야 할 일은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솔한 이야기를 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현(강사5)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 힘들어요. 처음부터 다시 똑같은 걸 반복해야 해서 불편하고 진이 빠지기도 합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길동(강사1) 학습관이 내용적으로 내실이 있어서 허브 기관으로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참여의 술선수범이 되고 그것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 회(산소통)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의 생생한 육성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 그리고 평

좌담회가 끝났다.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 일어섰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저희들끼리 여기서 얘기 좀 나누고 가도 되나요?” 생면부지의 초면인 관계, 게다가 좌담회라는 어색한 자리에서 만난 사람들이 일정을 마쳤음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대화를 지속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알 길은 없으나 그간 이런 자리를 갈급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기관 입장에서 보면 강사는 중요한 문제도 시급한 문제도 아니기에 우선순위에 있어 늘 말석을 차지하고 만다. 그러나 강사는 결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값싼 노동력이 아니다. 강사는 평생학습 생태계의

한 구성요인인 것이다.

오늘 좌담회에서 나온 강사의 발언이 모두 진실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오해의 요인도 있고 생각의 차이도 존재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강사를 하나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느냐의 문제이다. 오늘의 좌담회가 우리 모두에게 성찰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참석자(가나다 순)

- 김건리(강사), 경력 7년, 독서논술, 역사 강의
- 김동현(강사), 경력 4년, 포크기타 강의
- 박상도(강사), 경력 5년, 독서지도, 글쓰기지도, 논술지도, 자기주도학습 강의
- 이정미(강사), 경력 7년, EM, 천연비누&화장품, 환경, 리더십 관련 강의
- 장미애(강사), 경력 8년, 북아트, 애니메이션 강의
- 정성원(사회자) 수원시평생학습관장



화성 봉담에 있는 윤한수 씨의 책방 창고 모습. 구석구석 빼곡히 책이 쌓여 있다.

남문서점 윤한수씨를 만나다

발행호 (제3호) 2012. 04. 10.(화)
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장

사람들은 알까? 올해가 문광부가 지정한 ‘독서의 해’란 것을. 게다가 매년 4월 23일은 ‘세계 책의 날’이란 것을. 문광부는 4월 23일을 전후하여 시끌벅적한 이벤트를 개최할 것이며 한국인이 얼마나 책을 읽지 않는지를 데이터로 들이밀며 타박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저 무덤덤한 표정으로 일상으로 들어 갈 것이다.

문광부는 알까? 헌책방이 전국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으며 얼마만큼의 책들이 유통되고 있고 그 헌책방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사람들은 사라지고 있는 헌책방에 대해 잠시 애잔한 표정을 짓다가도 다시 일상으로 들어 갈 것이다.

〈건축학개론〉은 첫사랑을 소재로 한 영화이다. 사랑에는 ‘첫’사랑은 있을지언정 ‘헌’사랑은 없다. 그러나

리고 그 책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심경과 의견을 육성으로 듣고 싶었다. 인터뷰이를 선정하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았다. 수원에는 헌책방 숫자가 한 손가락으로 헤아려도 남기 때문이었다.

97년 무렵부터 팔달문 인근에서 제법 규모 있는 ‘남문서점’을 운영하던 윤한수 씨(44세). 그러나 현재는 도저히 채산을 맞출 수 없어 오프라인 서점을 철수하고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다. 바람이 심하게 불던 날, 책 창고와 사무실이 있는 화성시 봉담읍으로 찾아갔다.

신간서적이 시각적 오브제라면 헌책은 후각적 오브제이다. 새 책은 칼라폴한 책표지와 세련된 디스플레이와 조명 등을 통해 시각적으로 유혹하지만 헌책은 세월의 응축을 통해 만들어지는 냄새를 통

헌책방의 헌 책 속에는 눈뜨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향기가 있다.

책의 경우에는 ‘헌’책이 존재한다. 사람들이 화폐를 통해 지불하고 가방에 넣는 순간 그 책은 적어도 유통시장에서는 바로 헌책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그러나, 비록 헌책은 존재할지언정 그 책속의 내용과 가치까지 ‘헌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식과 지혜의 유통기한은 무한대인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새책’만이 아니라 제2, 제3의 경로를 통해 헌책들도 계속 유통되면서 사람들 사이를 누비고 다녀야 한다.

궁금했다. 수원에는 얼마만큼 헌책방이 있는지. 그

해 오직 후각으로만 존재를 증명한다. 그의 책 창고를 열었을 때 헌책 고유의 냄새가 강렬하게 전달되었다. 60여 평 공간에 꽂 들어찬 책들이 사방천지를 메우고 있었다.

책방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아는 분이 청계천에서 덩핑을 할 때 책을 알게 되었다. 이 때 출판도 조금 배우고 하면서 서점을 내게 되었다. 월세 매장 비슷한 개념으로 자리가 좋은 곳에 들어가서 팔고, 한두 달 있다가 나가고, 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그런데 이후에는 다른 옷가게, 화장품가게 등이 이런 형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매장

임대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져서 지속 할 수가 없더라. 그 때 잘 될 때는 하루에 한 트럭씩도 나갔다. 그 때 당시는 기본으로 초판 3,000부를 찍고 했는데 이름 없는 출판사들은 서점에 깔아보지도 못하고 모두 재고로 나오곤 했다.

화성으로 등지를 옮기신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지요.

예전에는 헌책방이라기보다 재고도서(출판사에서 팔다 남는 책) 판매를 중심으로 책방을 하었는데 90년대 말 IMF 시기에 서울에서 하던 책방을 정리하고 수원으로 내려와 남문서점을 하게 되었다. 재고도서를 할 때는 책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재고책만 팔아도 수익이 좋았다. 재고가 2,000-3,000부 들어와도 팔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책을 많이 봤다. 근데 독자층이 줄어들니까 재고도서만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겠다 싶어서 책의 다양성을 위해 다양한 헌책을 취급하게 되었다. 수원의 경우 학생들이 많아서 헌 자습서, 참고서가 잘 팔렸는데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다보니 따로 자습서 등을 볼 이유와 시간이 없어졌다. 이렇게 한계가 오다 보니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서 점차 서점을 줄이게 되었고 그러다 중국에는 완전히 문을 닫게 되었다. 지금도 헌책방은 줄어드는 추세다. 독자가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대기업에서 하는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헌책을 취급하다 보니 작은 영세업체는 건디기가 매우 어렵다.

현재 온라인 판매 운영은 어떠한지요.

운영은 그저 근근이 끌고 나가는 수준이다. 얻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에 풀칠하는 정도로 끌고 나가고 있다. 헌데 헌책방을 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 그러면 나는 냉정하게 이야기한다. '돈벌이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라면 하지 마라.' 열심히 뛰면 그만큼은 돌아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참 쉽지 않다.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책을 구매하시는지요.

처음 시작할 때는 헌책 나까마(고물상을 돌아다니며 헌책을 수집하는 분)들에게 책을 사기도 했고 출판사에서 재고 나오면 사오는 경우도 있었다. 예전에 수원에도 작은 헌책방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 그런 헌책방이 문을 닫을 때도 일괄적으로 사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도 가장 빈번한 것은 가정집에서 오는 연락이다. 이민, 이사 등의 경우나 형편이 여의치 않아 파는 경우, 집이 좁아 책을 파는 경우 등 연락이 온다.

일반 세간도 아니고 손때묻은 책을 팔려면 쓸쓸함이 묻어날 텐데요.

한번은 경주에서 책을 사오는데 서가를 보니 내가 좋아하는 하는 책이 많아 너무 기분이 좋았다. 인문 사회, 역사 쪽의 책으로... 이 분은 형편이 어려워 책을 팔려고 하는 경우였는데 근데 이 분이 책이 아까워 너무 망설이더라. 몇 번을 간 끝에 결국 계약이 성사되었는데 막상 책을 가져가려 하는데 일전에 보았던 책들이 안보이더라.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그제야 방에서 자신이 아껴서 숨겨 두고 싶었던 책을 가지고 나오더라. 그럴 땐 참 잔한 마음이 든다.

운영 측면에서 효자상품 같은 책이 따로 있는지요.

재고도서는 여기저기 경쟁도 붙고 해서 수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리고 독자층도 매우 적어진 것 같다. 헌책의 경우는 희소성 있는 책을 중심으로 가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최초의 잡지로 알려졌던 '소년'의 경우 창원에서 책을 샀는데 비용도 상당히 들었다. 그 때 소년 1-15권과 다른 고서 등을 사왔다. 소년같은 이런 귀한 책은 평생 한 번 정도 보는 책이다. 단일 품목으로 제일 고가에 판 것도 '소년'이었다. 창간호부터 15권까지 1,500만 원에 팔았다.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구매한 책들이 약 15만

권 정도. 이것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다. 웹상에 등록된 책이래 봐야 이제 겨우 4만권 정도이니 무슨 책이 얼마만큼 있는지 정확히 알 길이 없다. 한두 권씩 구매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트럭으로 한꺼번에 구매해 판매를 하는 일이 다반사인지라 자신이 어떤 책을 구매했는지도 모르는 것이 어찌면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뜻밖에도 책장 어딘가에 소위 불온도서라는 금서가 있었고 이로 인해 그는 모진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던 가장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것도 아닌 국가보안법이라는 무시무시한 법률에 의해 재판을 받게 된 것은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는 일이다.

재판을 하게 되었던 상황을 설명해주시죠.

그 때 당시 걸렸던 책이 80년대 말 출판된 책들이다. 처음엔 나도 잘 몰랐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금서목록이 엄청나게 많더라. 태백산맥, 아리랑(웨일즈)의 경우도 엄밀히 따지면 금서이다. 그런데 조사를 하는 그들도 정확하게 모른다. 웨일즈의 아리랑인데 조정래의 아리랑 책을 보고 금서라고 하고... 우리나라 국립도서관에서 대출해주고 있는 전태일 평전, 페다고지 등도 금서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이 말이 되는가.

다량으로 사오다 보니까 무슨 책을 샀는지 정확히 다 모르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예를 들어 책방의 책을 인수해서 1만 부가 들어왔다면 그 중의 몇 권은 금서가 들어오게 되어 있다. 목록을 일일이 다 알 수가 없다.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 그런 법이 아직까지 있는 줄도 몰랐다. 조사를 한 그들도 정권 말 자기 밥그릇 챙기기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생각한다.

2007년 시작해서 2010년 말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났는데 심경은 어떤지요.

재판은 괜찮았는데 조사실에서 조사 받는 게 너무

싫었다. 한 번 가면 5-6시간 동안 조사를 받는데 경찰 과장이 반말을 딱딱 하는데 기분이 너무 나빴다. 똑같은 것을 계속 되묻는 것이다. 반복되는 이야기를 수 없이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묻기도 한다. 이 책은 어디서 사왔는가 묻는데 그걸 기억할 수도 없잖은가. 이것을 짜 맞추기 하는데 참 어이없더라.

이렇게 하다가 재판에 넘어갔다. 처음에는 재판도 쉽게 생각했다. 변호사 없이 그냥 하려고 했는데 판사가 변호사를 쓰라고 해서 국선 변호사를 쓰게 되었다. 처음 국선 변호사 사무실에 갈 때도 마음에 안 들었다. 어찌되었든 고객인데 모든 것을 인정하고 집행유예 받자고 해서 변호사와 싸우고 나왔다. 그 후 아는 분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고 1여년 정도 함께 싸웠다.

애초 경기지방경찰청의 무리한 수사가 검찰 단계에서 필터링되었다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런만 어처구니없는 수사의 브레이크는 검찰 어디에도 없었다. 검찰은 오히려 한술 더 떴다.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끝내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갔다. 이제 재판은 끝났다. 그러나 그 상흔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검찰은 침묵하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야만의 시대를 위태롭게 걸어가고 있는 중이다.

재판 이전에 서점을 하면서 사회 현상에 대해 관심이 있었나요?

조금 있기는 해도 그리 많지는 않았다. 효선이 미선이 때 관심을 갖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광장으로 뛰어나가는 일이 많아졌다. 일주일에 한두 번 계속 집회에 나가곤 했고 지금까지 하고 있다.

재판을 통해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내가 당해보니까 유사한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찾았는데 정말 있더라. 그래서 오픈시키라고 했



보수동 책방골목에서는 매년 헌책과 관련한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다.

다. 검찰은 사회 이슈화되는 것을 무서워한다. 그런데 실제로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는 당사자들은 조사받고 하는 일들을 무서워하더라. 그래도 계속 설득하고 오픈시키라고 했다. 이런 분이 몇 분 있는데 본인이 고사를 하는데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으니까... 잘못된 일도 아닌 것에 놀아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당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영국의 헤이온와이뿐 아니라 프랑스는 세느강 주변 고서점가가 살아 있고 일본에는 헌책방 거리가 존재한다. 헌책방 북오프만 해도 1,000개, 직원만 6,000명이 넘는다. 헌책방이 단순한 책 유통 매장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푸대접 그 자체다. 이렇듯 헌책방의 마지막 숨통이 끊어질 즈음 고서점 거리로 유명한 부산 보수동이 위치하고 있는 부산 중구청에서 책문화관을 건립한 일은 반가운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단순한 하드웨어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보수동 책방들과 함께 매년 헌책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부산 보수동은 지자체에서 헌책방 문화관을 세우고 하는 등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문화적 컨텐츠로 승산이 있다고 보고 투자하는 일이겠지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를 만들려고 했다. 부지를 시에서 기증을 받고 그곳에다 건물을 지어서 헌책방 단지를 만들고 싶었다. 영국 헤이온와이처럼 만들고 싶기도 했다. 예전 청계천 경우도 비슷한 것들이 쭉 같이 모여 있지 않았나. 10-20팀 들어가면 문화의 거리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지는 7-8년 되었다. 근데 요즘은 헌책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하다 보니 같은 업종의 사람들을 덜 만나게 되고...

수원시는 화성행궁 공방거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여기에 헌책방들을 입주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원의 헌책방은 남문 오복서점, 아주대 앞, 대지서점(자습서) 정도가 남아 있는 것 같고 개천 변에 있는 것은 다 없어졌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책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는 2-3군데 밖에 없는 것 같다. 지금 헌책방은 링거라도 하나 꽂아줘야 겨우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시에서 움직여주면 좋긴 할 것 같다. 수원이 경기 남부의 중심도시이니 수원과 그 주변도시까지 문화적인 소양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람들이 다 서울로 나가서 그런가... 인구에 비해서 수원에서는 헌책방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헌책방과 인연을 맺은 지도 꽤 오래되셨는데 아쉬움은 없는지요.

헌책방이 없어지는 속도보다 동네 작은 책방 없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긴 하다. 전자책에 밀리고 있고. 다른 투자를 하기에다 어렵고 스스로의 동력만으로는 힘에 부친다. 젊은 친구들의 경우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잘 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렇게 보면 돌파구는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느 정

도의 투자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예전에 비해 요즘은 책을 잘 안 읽는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피부로 느껴지나요.

그렇다. 나도 집에 가면 나 자신도 모르게 스마트폰
에 들어가서 트위터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
더라. 아무래도 기계 쪽에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 같
다. 젊은 세대들도 책을 많이 안 읽고... 부모들의 경



남문서점 윤한수 씨. 책 창고 한 칸에 그의 사무실이 있다.

우 아이들에게 전집류를 그냥 사주곤 하는데 그러
지 말고 아이와 손을 잡고 서점에 가서 읽고 싶은 책
을 고르고 1-2권 사고 이러한 습관을 가지면 커서
도 서점과 책과 친해질 것 같다. 50권 100권씩 한꺼
번에 사서 한 번도 읽지도 않은 책이 수도룩한 경우
가 많다. 책은 저렇게 사는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소리는 안한다. 대신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한다. 근데
아이들은 만화로 된 책만 보려고 한다. 그래도 책을
부딪치니까 보긴 하더라. 그리고 원하는 책을 사주
니 다행도 보더라.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지요.

여러 가지 구상은 하는데 특별히 확실한 미래가 보
이진 않는다. 시장이 바뀌는 추세에 따라 나가진 나
가야 할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좀 더 인간다워져
서 내가 다른 곳에 정신 팔지 않고 먹고 사는데 집

중하면 조금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든다. 이정
도 하면 어느 정도까지 매출과 판매량은 올라가겠
구나 하는 것은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뚜렷하게 있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오늘의 이 인터뷰가 수원의 헌책방 주인에게
듣는 마지막 육성일지도 모른다. 간신히 명맥만 유
지하고 있는 수원의 헌책방. 날개도 없이 추락한 헌
책방은 처연한 소리를 내며 대지와 충돌한다. 그러
나 돌아보는 이 아무도 없고 헌책방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퇴장하고 있다.

헌책방. 소비자에게 외면 받는 책들은 냉정하게 전
시대에서 사라져 헌책방으로 도매금으로 넘어 오기
도 한다. 주인의 애정 유효기간이 끝난 책들도 갖은
사연을 안고 헌책방으로 넘어온다. 그러나 헌책방으
로 들어서는 순간, 이 책들은 또다시 패자부활전을
준비한다. 새로운 주인을 만나 본래 제 스스로의 가
치를 증명해 보인다. 그 때 그 책은 살아 있다. 비록
입성이 남루할지언정 그 책은 그렇게 싱싱하게 살아
있다.

이정록시인의 〈헌책방 털보氏〉에는 다음과 같은 구
절이 있다.

“헌책방의 헌 책 속에는 눈뜬 사람에게만 보이
는 향기가 있다.”

윤한수씨의 헌책방 www.ibuybook.co.kr

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

발행호 (제4호) 2012. 04. 25.(수)

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장

건강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를 위한 의료 활동

나는 A매치만 편식하는, 그래서 얼치기 축구팬 축에도 끼지 못하지만 리오넬 메시라는 선수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는 풍문으로 들어 알고 있다. '외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뛰어난 메시는 이제 펠레와 마라도나급의 선수로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런 메시가 속해 있는 팀이 바로 스페인 리그를 호령하는 FC바르셀로나이다.

그 FC바르셀로나는 기업소유의 팀이 아니라

17만 3,000여명의 시민 출자에 의해 운영되는 협동조합 소유의 팀이다. 조합원들이 직접 구단주를 선출하기도 하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만든 팀이 아니기에 수백억을 상회하는 광고도 110년 동안 일체 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 유니세프 글자만 유니폼에 선명하게 박혀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앞에 붙은 FC를 Football Club이 아니라 Football Cooperative 라 불러도 무방할 듯하다.



세계 최고 명문 클럽 중의 하나인 바르셀로나 팀 유니폼에 유니세프 글자가 새겨져 있다.

분류학으로 보면 자본주의는 시장이라는 속(屬) 하위에 속해 있는 하나의 종(種)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에는 시장=자본주의라는 등식 부호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다. 시장에는 비자본

제적 방식의 다양한 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협동조합이다. 아직 협동조합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진 않으나 자본주의에 내재되어 있는 극심한 경쟁과 이윤추구,

그로인한 양극화의 폐단을 보완 내지 완화시키고 있음이 실증되고 있으며 이런 기능으로 인해 관심과 주목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경쟁과 이윤이 아닌 상호 호혜와 연대의 정신에 기초한 협동조합이 수원에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번에는 폭을 좁혀 의료생활협동조합을 만나보기로 했다.

수원의료생활협동조합의 진료기관인 '새날 한의원'현승은 원장을 만났다.

홈페이지를 보니 2007년부터 준비모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개원은 작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약 4년의 준비기간이 있었다는 것인데 창립까지의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사실 나는 수원에 아무런 연고가 없었다. 그러던 중 결혼을 하면서 아내의 직장이 수원이라 이곳에 터를 잡게 되었다. 지역운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지인으로부터 한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그 분이 지금 수원의료생활협동조합 한동근 이사장이다. 의료생활에 관심이 있으면 한번 같이 만들어보자고 해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생각도 못했다. 처음에는 빨리 진행 될 줄 알았다. 허나 의료생활의 경우 몇 명이 의기투합한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함께 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저변 확대를 위해 계속적으로 진행했다. 3년 정도 무료봉사활동도 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분들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했다. 그때는 직장을 다니면서 준비모임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결합하는 형식으로 함께 했는데 2010년에 더 이상 끌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이사들과 함께 출자하여 창립하게 되었다.

현재 조합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조합원은 714명이고, 한 달에 20명 정도 조합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주로 진료를 받으러 오



새날한의원의 전경. 정식명칭은 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이다.

신 환자분들이 조합에 가입한다. 외형이 넓지 않으니까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가입하는 것이다. 내원 환자 분들 중 비조합원 비중은 50~60% 정도 된다. 의료생활의 경우 법적으로 비조합원 진료 비중이 50%까지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조금 넘친다. 조합원 분들은 인근 주변에서 많이 오고 계시는데 조합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수원 각지에 퍼져 있고 멀리서도 찾아오신다. 부산에서도 오신다. 자본금은 1억 6천만 4백 원 정도 되는데 한의원 개원하는데 주로 쓰였다. 자본금에는 출자금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아니지만 조합원 분들에게 차용한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부산에서도 오신다니... 그렇게 멀리서까지 내원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곳이 생기기 전부터 조합원들과 계속해서 관계를 가졌던 이유도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생활에서 활동했던 적이 있어 생활 진영에 지인들이 오시기도

한다. 그리고 약제가 믿을 만 하다며 많은 분들이 오신다. 사실 한의계 전반적으로 못 믿을 것은 아니지만 의료생협이 아무래도 신뢰도가 좀 더 높은 것 같다. 우리가 친환경 약제들을 주로 사용하고 좋은 약제를 사용하는 것은 맞다.

친환경 좋은 약제의 사용은 필경 제조 원가의 상승을 유발하지만 그렇다고 판매가가 높지도 않다면 결국 상대적으로 이윤의 저하를 불러오게 된다. 이것은 협동조합이기에 가능한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경영상의 문제를 불러올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환자당 진료시간이 길고 합리적이고 적절한 이윤만을 얻는, 협동조합으로서의 당연한 운영방식이 경영의 부담을 불러오지는 않을까. 냉정한 현실은 가치가 고상하다고 해서 비껴가 주지는 않는다.

경영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차입한 금액도 있고, 경영상으로 쉽지만은 않다. 다른 의료생협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의원이 의료생협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아직 많지 않기도 하고 수익으로 조합을 운영시켜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수익이 많이 나는 구조가 아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환자들이 더 와야 한다. 의사가 2명이 되더라도 경영이 되려면 환자들이 더 와야 하는 건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적절한 진료를 하고 적절한 수의 환자들이 오면 된다. 우리가 아직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거나 하진 않아서 자금운영이 쉽진 않다.

사회적기업 선정은 양날의 검 같은 것인데 혹시 이와 관련한 내부 이견은 없었나요.

없었다. 초창기에는 생협 진영 내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해서 그를 통해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좋겠다는데 합의하고 있다. 즉, 외연을 확장하는데 사회적기업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

고 있는 상황이다. 지원을 받으면 내부역량도 확충하고 서비스도 확충하려고 한다.

경영 문제를 해결할 특별한 방도는 있는지요.

개인적으로는 조합원의 힘으로만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은 그런 수준이 안 된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했는데 4월 말경에 결과가 나온다. 사회적기업이 된다면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등을 통해 방문요양사업이나 노인요양시설, 병아보육시설 등을 생각하고 있다. 꼭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는 제공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조합원들로만 가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내부의 조합원 활동과 교육이 의욕만큼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교육적인 활동을 하고 싶은데 아직은 활성화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예를 들면 소모임들-건강 활동 관련 소모임 지원, 건강실천단이라고 하여 현미식 채식 위주 프로그램 운영, 좋은 식습관 보급, 단식 프로그램 운영 등을 하는 것이 있다. 많은 활동을 통해서 조합원들을 자주 만나야 하는데 아직은 의료기관 이용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

오늘의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관계와 각종 선택의 결과물인데 현원장의 오늘이 있기까지에는 어떤 경험과 선택들이 있었을까. 수원의 조그만 조합에 고용된 의료노동자인 현승은 원장이 궁금해졌다.

원래 의료생협에 대한 지향이 있었습니까?

학생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 그러던 중 공중보건의 활동(전북 남원 보건소)을 하게 되었는데 그 때 국가사업 중에 한방건강증진사업을 했었다. 그 전까지는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하면 양방만 있었는데 한방사업을 만드는 시도를 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경험을 갖추게 되었는데 나와서 보니 씨먹을 때가 없더라. 이것을 꾸준히 할 수



세남 한의원 현승원 원장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나름 고민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럼 의료생협을 하게 된 계기가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싶어서라는 거네요.

그렇다. 공공적인 활동을 하고 싶었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철학 자체가 마음에 들었다. 실제 운영되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겠지만, 의료의 주체가 단지 의사가 아니라 자발적인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 좋았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좋은 것 같다.

가치와 실제 사이에는 간극이 있을 수 밖에 없을 텐데요. 협동조합은 지역의 문제를 등한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단지 조합원만이 아닌 지역 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지역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 목표다. 지역과 지역민을 건강한 삶으로 유도하는 것. 그런데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좀 있다. 쉽게 말해 나 같은 경우 여건상 진료실을 잘 벗어나질 못한다. 의사 한 명이 더 와서 다른 활동에도 결합하고 싶은데 경영적인 문제로 아직은 생각으로만 그치고 있다. 지금 계획으로는 6월 이후에는 의사를 한 명 더 늘려서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려고 한다. 지금하고 있는 활동으로는 취약계층에게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는 한약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의

국인 근로자, 의료보호 1·2종, 차상위 계층 등에게 지원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모두 가치에 동의해서 모인 분들은 아닐 테고 따라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만 같은 것도 있을 텐데요.

당연히 있다. 치과의원이나 다른 양방도 만들자 등등 실제적인 요구가 많이 있다. 민율만한 기관이 필요한 것이니까.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싶지만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다. 총회 때도 의사 한 명을 더 늘려서 활동력 있게 움직이고 조합원 지원도 하자고 했다.

의료 서비스의 경우 비조합원도 받을 수 있는데요. 조합원을 위한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다른 의료생협과 마찬가지로 조합원에 대한 혜택이 있다. 우리의 경우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한약을 지을 시 10% 할인을 해주기도 하고, 조합에서 진행하는 각종 교육에 참여할 권리도 가진다. 다른 의료생협들의 경우 건강검진 사업을 무료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조합원 프로그램들이 다양화되어 있기도 하다. 단순 의료서비스 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욕구가 있어서 조합원으로 가입하곤 한다.

예전에 일본 의료생협을 다녀왔는데 조합원들의 현황도 좋고(지역인구의 10% 이상이 조합원임) 조합의 자기자본 비율도 높더라. 조합을 왜 가입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의료가 아니라 작은 소모임의 프로그램이 좋고 그로 인한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가입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예를 들어 어르신은 건강한 모임들 지원해주고 강의 소모임, 전문 활동가가 정보를 주고 하는 등의 프로그램이 좋고 관계성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 우리는 아직 이러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의료서비스의 경우 다른 일반 의료기관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요.

믿음인 것 같다. 한약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진료
방식. 증상치료만으로 끝
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습
관 교정을 위한 방법을 알
려주고 미리 예방할 수 있
도록 한다. 즉, 질병을 유발하는 요인을 확인하고 약
이나 침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식습관, 운
동방법 등 생활습관을 지도한다. 비정기적으로 전
화를 통해 건강상태나 생활방식들을 상담하기도 한
다. 이러한 것이 차별점이자 장점이다. 이렇기 때문
에 진료시간이 좀 긴 편이라 대기를 많이 하게 되어
불만도 있지만 적절한 진료, 양질의 진료를 위해 하
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후에는 한방적인 건강검진
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새날한의원에서 진행하는 뜸강좌
(출처:새날한의원 홈페이지)

앞으로 발전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조합원 활동을 더 많이 하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
는 인력적인 부분의 보강도 필요하지만 조합원을 많
이 만나서 의견을 듣고 그에 기반해서 다양한 활동
을 꾸려야 한다. 지난 한 해 동안은 경영 안정화에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대외활동 - 취약계층 지원,
조합원 활동 등을 하는 것이 목표이다. 사회적기업
으로 인증이 되면 그것과 관련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사업의 외연을 넓혀나가
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수원 시민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사람들은 모두가 건강하고 싶어 하지만 건강은 결
코 혼자서 챙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족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건강하고 활력 있어야 개인의 건강도 확
보할 수 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진 않겠
지만 네트워크가 커지면 삶의 많은 부분들이 협동

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개별적
이고 소비적인 형태가 아니라 서로 도와가면서 이러
한 경제 체계 안에서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할 때 건
강도 챙겨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에 참여하
고 관심을 가져 주면 자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삶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몇 년 전부터 지병으로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그럴 때 마다 여지없이 1시간 대기에 길어야
5분 진료를 받는다. 손님은 왕이라지만 병원에서만
큼은 손님은 봉이다. 무심한 표정으로 어려운 의학
용어를 날려대면 없던 병도 걸릴 판이다. 우리 의학
계는 세계 최고의 제왕절개 분만율을 기록하고 있
고 CT/MRI 등 고가장비 보급률 및 약품 사용량 역
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영리를 기본으로 하
는 시스템 내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그야말로 희
미한 옛사랑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렇다고 의료생협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얕
힌 매듭을 단칼에 베어 버리는 알렉산더의 검도 아
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주체가 의사나 병원이
아닌 환자라고 생각하는 접근 방식은 그 무엇보다
반갑고 이런 의료기관이 수원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비록 기대와 만족지수 사
이에 강물이 흐르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힐난이 아
니라 참여를 통해 건너야 할 것이다.

좋은 사회란 좋은 시민이 만든다는 너무나 평
범한 진리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 나는 인터뷰
를 마치며 조합원 가입서에 서명을 하고 나왔다.

※ 조합원 가입 요건 - 1구좌 1만원, 기본 3구좌(3만원) 이상
출자 가능하며 탈퇴 시 출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조합원으
로 가입하면 진료 중에 비급여 항목 할인 혜택이 있고 직계가
족까지 모두 가능하며, 여러 가지 건강 관련 활동이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 www.swmedcoop.com

자발적 독서모임의 주부들

발행호 (제6호) 2012. 05. 23.(수)

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장

정신적 풍요로움을 통한 삶의 환희

풍경 하나.

대학에 대한 평가기준 중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항목이 취업률이다. 교과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게다가 평가는 곧 돈과 연결되기 때문에 대학당국은 취업률이 낮은 학과를 팔쥐 어미 콩쥐를 바라보듯 하다가 기회만 되면 신속하게 통폐합을 감행한다. 그러니 웅당 해당 학과 학생들은 심한 반발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이로 인해 대학은 몸살을 앓게 된다. 이때 통폐합 대상의 1순위인 인문 관련 학과이고 그렇게 대학은 효율성의 이름으로 인문학을 질식시키고 있다.

풍경 둘.

전국 어디 할 것 없이, 공공과 사설 구분 없이 인문학 강연과 강좌가 대 풍년을 이루고 있다. 가히 인문학 르네상스라 명명할 만 하다. 이 업계에서 조금 유명한 사람은 초청하기도 쉽지 않고 이제 담당자들은 새로운 강사의 발굴에 오늘도 머리를 쥐어 짜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공간에서는 인문학

이라는 이름의 강연이 열리고 있을 것이다.

인문정신이 실종된 대학은 게토화 되어 점점 더 그로테스크해져만 가는데 반해 우리 사회의 도처에는 인문학 강좌가 넘쳐흐르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사회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기이며 이에 따라 사람들도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 속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문학 강좌가 풍성해졌다고 해서 인문정신이 고양되는 것은 아니다. 인문학과 인문정신 사이에는 개연성은 있으나 연관성은 높지 않다.

소위 'CEO를 위한 인문학'강좌는 아무리 비싸도 연일 만원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오직 새로운 돈벌이 관점에서 접근하는 한 또 다른 형태의 기복신앙에 지나지 않는다.

재독교수 한병철 씨에 따르면 우리는 성과에 집착하여 스스로 착취하는 피로사회에 살고 있다고 한다. 박카스를 마신다고 해서 피로가 한방에 풀리는 것이 아니듯 인문학 강좌를 듣는다고 해서 갑자



격주로 진행되는 독서토론 모임 <서재의 불빛>. 오늘도 여전히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기 온전한 자기성찰에 이르는 것도 아니다. 교양인의 존재를 증명하듯 강좌를 수강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집단적으로 모여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제가 되면서 고민의 깊이를 더하는 크고 작은 모임들이 중요하다. 이런 모임은 한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기본 셀이며 피로사회를 해결해 나가는 비타민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목했다.

언제부터인가 평생학습관에 있는 담쟁이카페에서 서너 명이 모여 책을 펼쳐 놓고 이야기하는 풍경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처음엔 친구들끼리 모여 사사로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는데 주의 깊게 보니 단순한 잡담이 아니라 토론을 하고 있었다. 북카페에서 책을 읽거나 토론하는 사람의 모습만큼 완벽한 인테리어는 없다. 그 어떤 유명한 화가의 그림으로도 그 공간을 그렇게 연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범죄와의 전쟁’에 나오는 최민식 씨가 북카페에서 그 모습을 본다면 웅당 이리 말을 할 것이다. “살아있네”

그러나 인테리어라는 관리자 모드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사회라는 확장된 프리즘으로 보면 그것은 한 사회의 소중한 진지(陣地)역할을 하는 것이라 여

겨졌다. 직선으로만 질주하는 사회를 곡선으로 만들어내는, 작지만 부드러운 힘을 가진 진지.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둘러 앉아 이야기 하는 것을 좌담회라고 한다면 이번호는 좌담회라기보다는 그냥 방담회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모임이 어떤 성격이며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편안하게 주고받은 대화록을 공개한다.

먼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종숙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다.

주해진 작년까지 공부방을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 도서관 자원봉사를 준비하고 있다.

전현서 아이들 영어 과외를 하고 있다. 공학도이지만 영어에 관심이 있어 내 아이들을 집에서 학습을 도와줬는데 아이가 영어공부를 잘하다보니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서 시작하게 되었다.

심정아 자원봉사로 잡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과거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책을 더 읽고 싶고 공동체 생활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화성 향남이나 발안시민을 위한 잡지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삶의 잔잔한 이

야기를 발굴하고 사람들을 인터뷰 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쓰는 과정이 책읽기와 소설쓰기에 연장선 되어 매우 즐겁게 일하고 있다.

수원은 2005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고 최근 들어서는 인문학도시를 부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양한 인문학 강좌들이 수시로 열리고 있는데 수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문학이 자신의 삶과 연계되고 일회성 트렌드가 아닌 굳건한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 뿌리박은 인문학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처럼 자발적으로 독서하고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숙 우리는 십년 전 한신대에서 개설한 글쓰기 모임을 통해 처음 만났다. 처음에는 선생님을 모시고 소설을 쓰고 합평(合評)을 했다. 그러다 강좌가 폐강되고 친목모임이 유지되는 정도였다가 <서재의 불빛>이란 이름으로 6개월 전에 다시 모임을 시작했다. 처음엔 소설가가 되려고 공부를 했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 휴지기간을 가졌다. 그러다 글을 지속적으로 쓰기 어려우니까 책이라도 같이 읽자는 마음에서 계속 만나고 있다. 앞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 각자가 하는 일이 달리 있었는데 계속 만날 수 있던 것은 삶의 지향성이 유사해서이다. 모두 아이를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있었고 생활의 패턴이 유사한 것도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것 같다.

심정아 그 동안 장소가 없어 불안했다. 집에서도 해보곤 했는데 여기 평생학습관 카페가 제일 좋더라. 차도 맛있고 조용하고.

책을 선정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심정아 반장님(급조된 반장 이종숙)이 선정한다.



이종숙 씨. "알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고
뿌듯함이 있어 삶의 활력소가 된다."

이종숙 <책은 도끼다>를 읽다가 그 안에 좋은 책들이 소개되어 있어서 그걸 읽기로 했다. 주로 다른 분들이 추천해준 도서를 읽는다.

심정아 고서점도 같이 가서 책을 보기도 하고 사기도 한다. 여러 책을 뒤진다.

<서재의 불빛>은 격주 단위로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 한번 모임을 할 때 한 권 정도씩 소화를 하는데 좀 어렵거나 생소한 책은 두 번에 나누어 하기도 한다. 소설가 지망생이다 보니 지금까지는 문학에 편중되기도 했는데 이젠 특정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다방면에 걸쳐 주제를 확장하고 있다. 각자 책을 읽은 후 요약을 하거나 상호 교감할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한 후 각각 4부씩 프린트를 해서 돌려 보기도 하면서 모임의 충실성을 높이고 있었다.

함께 읽고 토론하는 것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종숙 완독을 한다는 장점이 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물어봤을 때 대답을 얻을 수도 있고,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알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고, 뿌듯함이 있어 삶의 활력소가 된다.

주해진 아는 만큼 보인다고 혼자 읽으며 혼자 아는 것만 읽혀지는데, 4명이 읽으면 4명이 아는 것이 같이 읽혀진다. 그러면 더 읽어야겠다는 독려가 된다.

전현서 자극이 된다. 내가 보는 입장과 시선이 다르니까 편협해지지 않을 수 있다.

심정아 책 읽는 것보다 사람에 관심이 간다. 글을 쓰는 행위가 자기에만 집중하게 될 수 있고 자의식이 과잉되며 어려운 순간에는 극복하기 어렵더라. 하지만 책을 읽으면 남을 관찰하게 되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취향을 알 수 있게 된다.

주부의 일상생활은 가사와 육아에 제한을 받게 되어 이런 모임이 혼치는 않을 듯합니다. 이런 모임을 하게 돼서 좋은 점이 있다면?



주해진 씨. "우리 모임을 통해 정신적으로 풍요로워졌다."

주해진 세상엔 많은 모임이 있지 않나. 그런데 여기는 서로가 다른 환경에 있어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소통이 참 잘 된다. 같이 있으면서 대화하고 헤어지면 또 오고 싶고 그렇다. 내 안의 어떤 것을 내어 놓아도 이해할 것 같은 친근감이 다른 모임보다 더 크다.

이종숙 다들 부러워한다. 그 나이에 무슨 책을 읽고 이야기하고 그러냐는 얘기를 하기도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공부라고 할 건 없어. 하지만 거기서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 삶의 지혜라는 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만 듣는 건 아니다. 공부에만 목적을 갖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생활의 현명함을 배우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 이 모임에 애착이 가게 되는 건

서로를 통해서 지혜를 터득하기 때문인 것 같다.

지적 욕구의 충족과 서로의 시각을 통한 자극, 이게 일상생활과 연결이 되고 있나요?

이종숙 큰 아이가 대학 1년인데, 진로 문제를 고민할 때 주변 사람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 신정아 씨 아이가 우리 큰 아이보다 더 나이가 많은데 여러 지혜를 나눠줘서 덜 불안할 수 있었다. 내가 현명한 사람이라고 판단한 사람이 해주는 조언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영향이라면 영향일 수 있다.

전현서 책을 읽고 문자화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느낀다. 그런 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단순히 책을 보고 메모하고 끄적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컴퓨터로 타이핑하고 출력해서 아이들에게 엄마가 쓴 글이라고 읽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과정이 아마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 것 같다. 그리고 딸이 제 생일날 립스틱이나 화장품이 아닌 노트나 책을 선물한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었다. 엄마한테는 그런 것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주해진 모임을 통해 풍요로움을 느낀다. 40대 후반 되면서 명품에 목말라 하거나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모임이 아니었으면 결핍이 많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특별히 하는 게 없으면 우울해질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우울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2주에 한 번이지만 이 모임을 통해 난 부자라는, 정신적 풍요로움을 느낀다.

이 모임을 통해 본인 스스로의 충만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주해진 시어머니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오래 모시고 살았다. 시어머니가 강한 편이어서 좀 힘들었

다. 그걸 이겨내고자 글쓰기를 했던 것이다. 글쓰기와 책읽기를 통해 힘들 수 있었던 일을 잘 피하거나 해결해 왔다. 주변 사람들이 내게 행복해 보인다고 말하는 건 그런 점 때문이 아닐까.

심정아 일상에서 만나면 이렇게 깊은 얘기 못한다. 낯간지러워서. 책을 매개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된다.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안테나를 세워놓은 듯 한 느낌이다. 더불어 사물을 바라볼 때 다각적으로 보는 눈을 키웠다.



심정아 씨, "사물을 다각적으로 보는 눈을 키웠다."

심정아 저는 글쓰기 능력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가능하다면 우리 4명이 함께 삶의 다른 면을 접해보고도 싶다. 예를 들어 같이 사진을 찍는다든지, 함께 여행을 가든지...

주해진 궁극적으로는 좀 더 글쓰기에 접근했으면 한다.

이종숙 앞으로는 글쓰기가 기본 목표다. 그리고 책 읽어주는 아줌마 모임 같은 봉사를 하는 게 제 다음 목표다. 나이 드신 분들의 위안 같은 것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다. 제가 예전에 한국어교육을 잠시한 적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연속적으로 하기는 어렵더라. 그래도 누군가 찾아와서 책을 읽어주면 외로움을 버티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전현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 보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 인원이 보충돼서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상적일 것 같다.

오빠를 안타까워하던 동생이 니체에게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는 편지를 보내자 니체는 다음과 같이 답장을 썼다. "만약 네가 영혼의 평화와 행복을 원한다면 믿어라. 하지만 네가 진리의 사도가 되고 싶다면 질문하라."

인문학은 질문학이다. 단지 유명 강사의 훌륭한 강연을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전현서 씨,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상적일 것이다."

멤버를 더 늘릴 생각은 없나요?

이종숙 흔히 공동체 모임이라는 것은 대체로 먹거리 같은 거에 치우쳐 있다. 저는 인문학적인 공동체를 생각했다. 그런 모임을 통해 서로를 치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목표였다.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튼튼한 내공이 생기면 그 때 새로운 회원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 준비가 안 되었다.

심정아 10년이 거저 지나간 건 아니었다. 우리가 조금씩 자기의 의견을 내지 않고 서로 듣는 귀를 열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새로운 사람과 천천히 맞춰갈 것이다.

앞으로 이 모임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면 좋겠는지요.

대해, 세계에 대해 끊임없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거창한 진리의 사도가 아니라도 일상 속에서 '왜'라는 질문을 길어 올려서 자기 삶의 주인 자리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불편한 일이다. 혼란스럽고 괴로울 수도 있다. 그래서 함께여야 한다. 함께 만나 얘기하고 고민하고 꿈꾸는 삶 속에서 우리는 풍요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함께'는 우리 시대 최고 미덕 중 하나이며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아름다운 진지가 되는 것이다.

소설을 쓰는 과정은 '오르가즘과 같은 쾌감'을 준다는 전현서 씨. 좋은 소설 쓰기를 갈망하는 <서재의 불빛> 구성원들이 어떤 소설을 우리 앞에 펼쳐 놓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 하나만은 신뢰할 수 있겠다. 나홀로 세계에 빠져들어 우리네 삶 속에서 부유하는 소설은 아닐 것이라는. 책을 통해 자기만의 생각을 갈무리하되 상대방의 의견과 시각에 다시 자극을 받아 자기를 다시 되돌아보는 긍정적 상호작용은 어느새 자기를 더 단단히 여물게 만든다. 창작을 위한 즐거운 고통에 행운이 있기를. 굿 럭.

수원시민 인문대학 종강에 즈음하여

발행호 (제9호) 2012. 07. 04.(수)
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장

조화로운 평생학습 생태계를 위하여

한 달여 남은 런던 올림픽 시즌에 맞춰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올림픽 열기 고양을 위해 서서히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는 썸병이기도 하고 육상 종목에는 도통 관심이 없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우사인 볼트가 100m에서 9초 4의 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한 기사를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육상에는 100m와 같은 단거리부터 42.195km의 마라톤까지 다양한 종목이 있는데 제 아무리 바람처럼 날랜 우사인 볼트라도 마라톤 종목에서 우승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거리와 장거리 경기는 보폭과 스피드와 심장의 박동까지, 그 경기에 걸맞은 근육과 문법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생학습관련 기관들의 각종 강좌를 보면 단 순 취미 강좌부터 전문 강좌까지, 올림픽 경기의 수많은 종목처럼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100m 경기처럼 아주 짧게 끝나는 단발성 강좌부터 마라톤 경기처럼 긴 호흡을 요구하는 장기 강좌까지 두루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미교양 프로그램류가 아닌 소위 인문학 관

련한 프로그램 중에서는 마라톤 같은 긴 호흡의 강좌가 그리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꼬맹이 시절 그런 경험들 없으셨나요. 사자와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와 같은 류의 주제를 두고 침 튀기며 이야기하다 가끔은 주먹다짐으로 번지기 까지 하는 일들 말입니다. 아이의 인지발달 과정에서 '비교'라는 좀 더 복잡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런 류의 논쟁이 왕왕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징카Z와 로보트태권V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소룡과 성룡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

1회성 단발 강좌와 한 주제에 대해 길고 깊게 가는 장기강좌. 이소룡과 성룡은 통쾌하게 악당을 물리치는 히어로로 둘이 함께 공존하면 좋을 일이 지 굳이 둘의 우열관계를 가릴 일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단발성 강좌와 장기 강좌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우월하고 좋으냐의 가치판단 문제는 아닙니다. 평생학습 생태계 내에서 함께 군락을 이루고 공존해야 합니다. 편식이 건강에 좋지 않듯 한쪽 강좌만

편중되어 있으면 그 또한 학습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에서는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와 MOU를 체결하여 '수원시민 인문대학'이라는 깊고 긴 호흡의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글은 이번 인문대학 프로그램을 기획한 목적을 간략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수원시민 인문대학은 최근 유행처럼 되어버린 인문학의 일회적 대형 강의 형태를 지양하고, 긴 호흡을 가진 깊이 있는 대학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인문학의 본래적 성격을 회복하려 합니다. 인문학을 매개로 시민의 자발적 학습공동체 형성의 장을 마련하고, 참여와 연대를 바탕으로 한 시민의식으로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인문학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수원시민 인문대학의 비전입니다.

이번 수원시민 인문대학은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진과 함께 공동으로 기획을 하였는데 선정된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자의 논어
 - 인간·딜레마·가치 : 소설로 읽는 인간의 삶
 - 현자들의 행복한 담론 :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스 윤리학을 중심으로
 - 근대 문명사 : 지난 500년의 세계 한 눈에 보기
 - 근대시대의 명작과 함께하는 미학 강의
 - 유럽문화 읽기 : 르네상스에서 모더니티의 수도 파리까지
 - 환대의 식탁, 내 이웃은 누구인가 : 사랑, 우정, 욕망의 담론 읽기
 - 시민 너는 누구냐 : 시민사회와 공론장의 역할
- 6월 26일 화요일 오후 7시 평생학습관 202호.
〈인간·딜레마·가치〉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이 웅기

중기 모여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이 클래스의 12주차 마지막 수업 시간. 오늘도 변함없이 교수님이 제시해 준 소설을 읽고 각자의 해석에 따른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번에 선정된 소설은 「모비딕」으로 유명한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인데 풍문으로라도 들어 보지 못한 소설인데다 매우 독특한 주제와 내용인지라 다들 작품 해석에 애를 먹은 듯 한 표정입니다.

참가자들의 작품 해석과 소감을 듣기 위해 교수님이 조금씩 운을 떼면서 이야기가 점점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교수님과 수강생의 다대일, 또는 수강생간의 의견제시 등이 덧붙여지면서 소설은 해체되고 분석되면서 점점 더 명료해지기 시작합니다.

- 쉬운 책은 아니었지만 재미있었다. 거기에 사회적 지배계층에 대한 풍자와 도전이 깔려 있는 것 같았다.
- 각각의 인물들 캐릭터가 다양하고 생기가 있어서 한편의 시트콤을 보는 것 같았다. 양자택일이란 보통 강요의 다른 이름인 경우가 많은데 주인공이 선택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말은 소극적 거부를 넘어 체제에 대한 도전적 성격도 있다. 사람들에게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닌가.
- 주인공 바틀비는 수취인불명 같은 존재 같다. 소통과 공감의 불가능성 속에서 비극적 결말로 끝 맺고 있는데, 공감의 거리가 너무 멀게만 느껴졌다.

대체로는 상대방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가끔은 해석에 따른 의견 차이를 보일 때도 있습니다.

- 바틀비는 아무것도 안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본주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저항하는 듯

보이지만 그는 목숨 걸고 저항을 한다고 봐야 합니다.

- 바틀비를 자본주의 매카니즘 속에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수취불능우체국 업무를 하면서 받게 된 절대적 허무감, 그 경험이 그의 존재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런 연장 속에서 그를 해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 행정국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잉여인간으로,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서 발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그의 삶의 방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 굉장한 트라우마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 우리나라에도 명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명퇴를 하게 되면 잉여인간으로 전락하게 되거나 그런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의 소리 없는 저항으로 읽혔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7시가 되면 직장 일을 마치고 급하게 뛰어 오는 분도 있고 느긋하게 일찍 와 책을 보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한평생을 정리하는 글을 써서 삶의 흔적을 남기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오신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계시고 논술지도를 하고 있는데 밑천(?)이 떨어져 보충을 하고자 오신 분도 계십니다.

대학생들은 연령대도 비슷하고 경험의 부족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이 넓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의 편차도 크고 세상을 보는 관점도 제각각인 시민을 대상으로 토론식 수업을 이끌어 가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이번 〈인간·딜레마·가치〉 수업을 진행한 경희대 김은하 교수님과 몇 가지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12주 정도의 긴 강의를 하신 경험이 있는지요.

어쩌다 한 번씩 신문사 문화센터나 시민단체에서 단



‘공자의 논어’ 수업 장면

편적으로 1-2회의 강좌를 한 적은 있지만, 이렇듯 호흡이 긴 강의를 한 적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했던 말 또 하는 것은 아닌지, 같은 농담을 처음하는 것처럼 또 써먹는 것은 아닌지 긴장했습니다.

‘리바이벌은 굴욕’이라는 제 나름의 좌우명 탓에 쯔신경이 쓰였습니다. 단지 반복이 문제가 아니라 만남이 길어지면 밀친이 쉬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교수님 강의를 듣는 시민과 대학생의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이 분들은 학생들처럼 의무적으로 수업을 이수해야 하는 분들이 아니라 굳이 시간을 내 피로한 몸을 끌고 와 뭔가 배우고 깨닫기 위해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 열심히 들을 준비가 된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교수의 강의를 주는 유익함이 없다면 언제든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도 하지요. 또 이론에 대한 이해력은 학생보다 부족하지만 인생에 대한 통찰력은 학생들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고요.

시민들은 아무런 의무 없이 문학작품을 읽는 유희의 기쁨을 느끼고 싶어 하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의무와 책임으로 묶여진 생존영역과 가족 영역을 벗어나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기쁨을 즐기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굳이 강의를 들으러 나오신 것을 보면(독서의 기쁨은 혼자서도 느낄 수 있는데), 재교육 받음으



매주 단편소설을 읽은 후 교수님의 비평과 참가자의 토론이 벌어진다.

로써(사실 스스로가 재교육 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인생관 혹은 세계관을 계속적으로 만져가려는 건강한 시민이라고 봅니다. 문학이 곧 인간사회에 대한 이야기이고 스토리를 해석하는 행위에는 세상에 대한 자신만의 입장 혹은 주장이 담겨 있기 마련인거죠. 그래서 시민의 수업은 결국 인생과 사회에 대한 비평적 토론 수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수강생의 작품 해석력은 어떻습니까?

일단 작품을 꼼꼼히 읽어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독은 작품을 제대로 읽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지요. 몇 분은 작품 해석력이 매우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석력과 적절한 언어표현 능력 등을 갖추었기 때문에 제 자신이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작품들을 잘 읽어 오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말만 해온 탓에 작품 분석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도 있고(자기검열을 하시는 거죠) 또 작품은 잘 읽었는데, 적절한 언어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충분히 편안해지시면, 그리고 작품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면 말씀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가 교수님에게도 도움이 되었는지요.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가르치면서 제가 참 확신하고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나야말로 어디 가서 재교육 받고 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대학생들과 수업을 할 때는 간혹 '숙임수'를 쓰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인 척, 많이 아는 척, 세상에 대해 긍정하는 척, 성실한 사람인 척 등등. 아마도 이러한 행동 속에는 존경받고자 하는 욕망이 담겨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그보다는 어린 학생들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책임의식 때문에 위선적으로 구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다 나중에 후회합니다. 학생들이 저에게 좋아한다는 편지를 보내오면 견딜 수 없이 불편해지거든요.

어른 시민들 수업에서는 어린 학생들 앞에서처럼 속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버벅 대고 말을 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방학동안 공부 좀 한다고 저의 부정적 세계관이 바뀌지는 않을 듯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솔직하게 대화하자...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같이 문제를 풀어간다고 생각해보자, 뭐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듯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행위 동기나 선의에 의해 평가받고 싶어 합니다만 현실은 냉정하게 그 사람의 행위 결과에 의해 평가를 내리곤 합니다. 법률이 대표적인 케이스이지요. 어떤 선생님인들 잘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선생님 다 호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학생들은 어떤 평가를 내렸을까요. 수강생 중 몇 명에게 이번 수업을 마친 소감을 들어 보았습니다.

김은주 주제가 좋아서 들었는데 여러 사람의 다양한 시각을 접하게 되어서 좋았다.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걸 알고 깜짝 놀랐다. 남녀의 시각차이도 그렇고. 내 주관적인 것이 타인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보정되는 것

같았다. 다시 한 번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12주 동안 참 즐거웠다.

이은영 주제에 걸맞은 소설들이 선택되어서 좋았고 선생님의 탄탄한 준비도 좋았다. 수강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고급스런 언어로 재정리를 해주시거나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잘 이끌어내 주셨다. 단순히 소설을 읽는 것 외에 그 소설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역사·사회적 배경이 씨줄날줄로 얹혀 잘 이해되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베스트셀러류가 아니라 클래식한 작품을 깊이 있게 다루어진 점도 좋았다.

전에 서울대에서 개최한 철학콘서트라는 긴 강좌를 수강했는데 1회성 강좌들은 아무래도 깊이가 얇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긴 강좌는 단순히 강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과 진지하게 소통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좀 더 성숙해지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강좌 수강을 내 생활의 1순위로 올렸는데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꼭 들을 예정이다.

전미애 단발성 강좌는 한 번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의 역량에 크게 좌우되는 면이 있는데 장기 강좌는 생각의 가치를 하나씩 처 나가면서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번 강좌의 주제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관점을 확장시키는데 굉장히 유익한 강좌였다. 이번 강의에 만족하게 돼서 다른 주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일면식이라도 있는 사람에겐 야박한 평가를 내리지 못하는 한국인의 고유한 성정을 감안한다하더라도 수강생들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어찌 백프로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보완, 개선해야 할 점이 있게 마련입니다만 “좋은

교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행복했다”는 한 수강생의 표현이 이 수업에 대한 평가를 종결짓는 것 같습니다.

일회성 강좌를 ‘식당 음식’이라고 비유한다면 장기 강좌는 ‘텃밭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장인은 대체로 식당에서 끼니를 때우게 되는데 자신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신속하게 섭취함으로써 생활에 필요한 영양소를 얻게 됩니다. 현대인에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옵션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텃밭 음식은 수고로움과 인내가 요구됩니다. 텃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게다가 급하다고 해서 여물지도 않은 채소를 잘라낼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수고로움 속에서 아니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자신도 한 뼉쯤 성장해 나갑니다.

늘상 텃밭 채소를 도시락 반찬으로 싸 올수 없듯, 매일 매일을 식당음식으로 해결하는 것도 곤혹스러운 일일 터. 베란다에서 혹은 자그마한 텃밭에서 자신의 노고를 거름삼아 키운 야채로 섭생을 하게 되면 입 안 가득 퍼져가는 향과 식감에 마음마저 상쾌해 질 것입니다.

올 9월에 다시 수원시민 인문대학 강좌가 열립니다. 이번 가을에는 더욱 풍성한 식탁을 차리겠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결인의 찬이라도 황제의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이 성 원장 인터뷰

발행호 (제11호) 2012. 08. 01.(수)

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장

정리 이은미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학습마을(Learning Village)을 통한 새로운 학습생태계를 꿈 꾸다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소재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직무실에서의 모습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출범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동향리포트와' 창간호에 최운 실 평생교육진흥원장님과과의 인터뷰를 게재했습니다. 헌데 그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명칭 앞에 이제 는 '국가'라는 명사가 붙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 난해부터 새롭게 도별/광역시별로 각각 평생교육진 흥원이 만들어졌기에 변별성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생 긴 때문입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도 31개의 시·군 평생학습

을 리드하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수원시 평생학습관보다 정확히 2개월 늦은 작년 12 월 28일에 재단법인 형태로 만들어졌고 초대 원장 으로 이 성 씨가 취임을 하였습니다.

언론계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통령 이 진용을 구축하고 업무에 익숙해지는 기간, 통상 6개월 정도는 가급적 비판을 삼가고 기다려 주는 허니문 시즌이라는 비판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 불 문처럼 존재합니다. 진흥원은 설립된 지 이제 만7

개월이 되었습니다. 길게 보면 이제 겨우 걸음을 떼기 시작했으나 진흥원이 해야 할 역할을 놓고 보면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게 됩니다.

새 집 증후군

새 집이나 새 건물에 들어서면 일단 페인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휘발성 기체가 코를 파고들면서 머리가 멍해 지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여기에 각종 건축 자재나 벽지 등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은 거주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기도 합니다. 이를 하여 새집 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들 때의 일반적 패턴은 이런 것입니다. 혼자하기 힘든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유기적으로 편제한 후 목적에 대한 공유를 기반으로 각자 필요한 업무를 하도록 만듭니다. 새집 증후군처럼 저는 새로운 조직에도 일정한 경향의 증후군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새 조직 증후군?

서로 처음 만난 사람끼리의 서먹함, 물리적 결합을 넘어 화학적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도 한데 자칫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파열음이 발생하기도 하고 목표에 대한 공유 정도가 개인마다 다르기도 하고 목표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도에 대해서 차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물질적 조건이 빠듯하기라도 하면 대단한 결기의 투합이 아닌 한 초기부터 빠져거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나 초기의 조직단계에서는 전체를 아우르면서 이끌어 나가는 조직의 리더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HRD(Human Resources Development)

전공 이력

사람은 늘 선택을 하게 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그 사람을 헤아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보는 일입니다. 과거 이력의 누적과 현재의 실존을 등치시키는 것은 자칫 경력 결정론에 빠질 함정이 없진 않으나 어찌되었든 그 선택의 누적에는 그 사람을 읽어 볼 수 있는 DNA가 들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이 성원장님의 이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 포스코 인재개발원 차장(2000. 08 ~ 2005. 12)
- 대통령자문 사람입국신경쟁력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상임)(2004. 07 ~ 2005. 12)
- 경기도지사 교육정책보좌관(2008. 05 ~ 2010. 05)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2010. 05 ~ 2011. 12)

이렇게 보면 이 성원장님의 왕성한 활동 기반은 HRD인 듯한데 이런 특성은 인터뷰 와중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생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을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인적 자아실현에 중점을 둔 UNESCO형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 신장이 강조되는 OECD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다는 가치판단의 영역은 아닙니다. 다만 이 성원장님의 경우에는 자연스레 OECD형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있는데 이와 별도로 각도/광역시별로 진흥원을 만들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형식적으로는 평생교육법에 의해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법률적 측면이 있다. 중요한 것은 1,200백만 명

기도민에 대한 효율적 평생학습이다. 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교과부 산하에 소속되어 있는데 국무총리 산하 혹은 대통령직속 산하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과부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그리고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별로 교육예산이 많이 있고 실제로도 각 부처별로 교육이 실행되고 있다. 이런 것도 다 평생교육분야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진행해야 효율적일 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현재 평생교육국 산하로 되어 있지만 실제업무는 유네스코형 평생교육 플러스 OECD형 평생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흔히 이야기하는 유네스코형 평생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OECD형 평생교육이라고 생각한다. OECD형 평생교육은 일자리, 경제생활중심의 교육이다.

공무원이 초등학교 장래희망 1순위가 되었다는 뉴스는, 비록 처참하지만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꿈이 없는 세대라기보다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부모님의 안정회구 욕망이 투사된 요인이 크리라 위안을 해보지만 일자리는 이제 너나없이,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랍의 속담을 살짝 비틀어 빌려 오면 불안은 영혼을 잠식하는 시대가 도래했기에 OECD형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에 잘 조응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심각하게 불균형한 상황에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실제 평생학습을 통해 보완해줄 수 있느냐의 Fact 문제뿐 아니라 자칫 평생학습이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포지셔닝이 적절한 것이냐의 가치문제도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웬만한 스펙과 능력으로는 일자리를 찾기 쉽지 않은 조건에서 일자리 중심의

평생교육은 각별한 주의와 세밀한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천이백만 경기도민에 대한 평생교육을 종합하는 컨트롤타워인데 그렇다고 진흥원에서 직접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결국 31개의 시·군 평생교육 담당자들이 평생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런 측면에서 현장에 계신 분들과 관계설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시·군 담당자와 간담회를 한다. 한꺼번에 모여 하는 간담회를 주로 하지만 찾아가는 간담회를 하기도 한다. 몇 일 전에는 남양주, 시흥시와 사업 설명회 겸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를 통해서 정부정책과 도의 정책을 연결하는 것도 있지만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다. 시·군에서 일하는 평생학습 담당자들은 시간문제뿐 아니라 교육비 문제 등으로 전문적인 외부교육을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현재 한국액션러닝협회 부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협회의 협조로 180만 원 짜리 교육을 18만 원에 저렴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 붙여 각 시·군별로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이다. 현재 경기도평생학습포털, 경기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경기창조학교 포털이 있는데 이 3개의 사이트를 통합해서 네이버식의 포털을 만들려고 추진 중이다. 각자 어디에 살든 도민이 들어왔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 관심사, 경험을 진단해주고 과정보다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포털을 구축하려 한다. 예를 들어 시흥시에 참이슬아파트가 있는데 시스템이 없다면 회원관리, 출결관리, 예산관리가 되지 않아서 일하시는 분이 매우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을 조만간 완성하고 나면 시민뿐 아니라 평생학습 관계자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조례를 살펴보니 진흥원의 업무 11가지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31개 시·군에 대한 사전조사랄까 사전 이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기초조사는 어느 정도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기도가 워낙 넓고 기관도 많아서 한꺼번에 다 아는 것이 쉽지 않고 지금도 하나씩 알아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먼저 각종 조사연구의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경기도에 약 1,500여개의 평생학습 관련 기관이 있는데 그 평생학습 관련 기관이라는 기준이랄까 정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잘 세워야 한다고 본다. 과거에는 교육청이 평생교육의 중심기관이었기 때문에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등등이 다 평생교육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물론 그것도 광의로 보면 평생학습기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제는 중심기관이 지자체로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개념, 범주를 새롭게 잘 잡아야 한다고 본다. 진흥원에는 평생학습정책연구실이 있는데 오늘 아침 보고 받으니 1차 지표 선정이 끝났다고 한다. 아직 미흡하긴 하지만 차근차근 새롭게 연구조사를 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2012년 3월에 개최된 제1차 평생학습 관계자 간담회 모습. (출처:진흥원 홈페이지)

수원시 평생학습관에는 3개 팀이 있습니다만 처음엔 학습관 식구 전부를 조사연구에 배치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수원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생성되는 각종 지표를 일괄 조사한 뒤 일목요연하게 데이터로 축적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가 물리적 공간이나 인구 그리고 평생학습관련 기관과 시설이 워낙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각종 자료를 조사연구하여 축적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기준을 새롭게 정의내리는 것 또한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진흥원에서 애쓰고 있는 일들에 기대와 함께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영화 ‘나쁜놈들 전성시대’에 나오는 최민식 씨의 ‘살아있네’라는 감탄사는 정책과 같은 거대담론이 아니라 이런 세밀한 구체성에 의해 터져 나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평생교육의 중심으로서 비전 및 어떤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다. 분야별, 계층별, 영역별 맵을 작성할 것이다. 시스템 분석을 하여 입체형 마스터플랜을 연말정도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물론 후자에 따라 개원 7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 마스터플랜이 없냐고 나무랄 분이 계실 수도 있겠으나 붕어빵 만들거식 혹은 부실한 계획을 조금씩 만드느니 비록 시간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치밀하고 종합적으로 짜는 것이 여러모로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에서도 끊임없이 논의하고 외부 기관들에게 지혜도 빌려가면서 만들어 내는 종합계획이야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핵심적으로 펼쳐 나갈 사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진흥원으로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지사님의 권유도 있었지만 학습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지역사회 학습생태계를 잘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씨를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뤄졌으

면 한다. 예를 들어 진흥원 건물 인근에 한 2천 세대의 한일타운이 있다. 이런 정도의 규모가 되면 지식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학습의 공급자가 어디서/어떻게 공급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이럴 경우 필요한 교수법을 익히게 한 후 시간과 장소, 대상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더불어 아파트에 러닝 빌리지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방과 후 학습뿐 아니라 탁구, 음악 등 모든 학습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 한다. 그러면 공급자나 수요자가 서로 사는 공간이 가깝기 때문에 편리하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러닝빌지를 통해 러닝 패밀리 시대, 학습가족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왕따, 자살문제 등 이러한 문제는 가족과 친구간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가족과 친구와 함께 배우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사회적 문제도 상당 부분 흡수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성공적인 모델을 예로 들면 아까도 언급했던 시흥시의 참이슬아파트 같은 경우이다. 3년 전에는 시흥시로부터 지원을 받았었는데 얼마 전에 가보니 이제는 외부의 도움 없이 100%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코디네이터이다. 마을학교에는 마을학교장이 있다. 또한 강사도 자원봉사다. 외부의 전문 강사보다는 수업의 질이 떨어 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중에 단 몇 명이라도 소명감이 있고 자질이 있는 강사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을의 리더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자생적으로 교육이 잘 돌아가면 일자리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답변을 듣고는 일종의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도 온라인/오프라인 형태의 지식(강좌) 매개 역할을 준비 중에 있거나 이미 시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차이는 좀 있겠으나 근본적인 취지와 관점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평생학습관에서는 영국의 School of Everything이나 U3A를 관심 있게 지켜보았고 지난 4월 말에 영국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약하나마 ‘누구나’학교라는 이름으로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 진흥원의 정규인력은 19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중 과건 온 공무원 3명과 업무가 이관되어 온 창조학교 6명을 빼면 사실 실제 진흥원 고유의 업무를 하는 직원의 숫자는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정원이 25명으로 늘었지만 경기도민 대비 적은 인력이라고 생각한다. ‘창조학교’는 창의 학교인데 이것도 당연히 평생교육의 내용이다. ‘思考몽치’라는 사업을 도내 5개 대학과 MOU를 맺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다. 경쟁률이 30:1이다. 학교 밖 대표적인 평생교육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인력이 증원되어서 다행입니다만 홈페이지에 보니 ‘일터에서의 학습지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사업이 필요한 일입니다만 제한된 인력과 재원을 어떻게 투입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보면 진흥원이 직접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할지 의문입니다.

물론 고민은 있다. 사업전담팀 조직을 만들어 직접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 중이다. 그리고 일용직, 영농인, 운수업 종사자 등 이분들은 실제 교육을 받고 싶어도 잘 못 받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진흥원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운수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은 우리가 나서서 직접 하기보다는 교통연수원에 대한 컨설팅으로, 농어민과 관련한 부분은 농업기술원컨설팅으로, 어민은 경기도수산자원, 군인은 연천군컨설팅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 중요한 것은 남이 하지 않

는 방법, 남이 힘들어 하는 분야를 실험 해 보고 성공 샘플을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 하나가 택시기사분들을 위한 평생교육이다.

진흥원이 이제 7개월 정도 되었는데 앞으로의 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유네스코형 평생교육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HRD를 바탕으로 OECD형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평생교육이라는 일이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고 앞으로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한다. 평생학습으로 세계 속의 경기도, 미래를 여는 경기도를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경기도가 잘하면 대한민국이 표준이 될 것이고 그것이 전 세계의 모델이 되게 하는 것이 내 꿈이기도 하다.

진흥원은 공적 기관입니다. 따라서 일상 업무나 사업을 펼칠 때 시·군이라고 하는 행정기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민간기관과의 소통과 네트워크의 한계를 노정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개별 시·군에서 민과 관이 한 방향으로 잘 정렬되어 있다면 그런 한계가 많이 보완될 터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경기도 평생학습의 그물코는 성기게 되어 여러 가지를 빠트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일의 경중과 순서를 가리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성 원장님은 지금 당장은 시·군과의 관계 및 역량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민간과의 파트너십 또한 빠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데요”

함께 간 직원이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며 저에게 한 말입니다. 한 시간여의 길지 않은 인터뷰에서 그런 호감을 주는 것은 저 같은 사람은 언감생심인 부러운 능력입니다.

진흥원은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일일이 접하는 일선 기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흥원은 사람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기도 하고 관심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3가지 마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초심과 열심과 진심.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들은 진흥원의 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gill.or.kr

오늘도 영글어가는 엄마표 경제교육

발행호 (제13호) 2012. 08. 29.(수)
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장

돈, 신의 제왕 자리에 오르다

월 스미스 주연의 <아이,로봇>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인간을 위해 요리며 운전이며 청소며 아이 돌보기 등 생활의 거의 모든 부분을 대신해 주는 로봇.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진 이 로봇이 어느 순간부터 인간을 향해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SF영화입니다.

사람들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수단으로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최초 화폐의 존재이유는 유용한 교환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화폐는 인간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화의 로봇처럼 물리적, 신체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정신적 타격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배금주의. 배금(拜金)이란 돈을 숭배한다는 뜻이니 결국 인간 생활의 유용함을 위해 만들어진 돈이 이제 인간을 자기 아랫것으로 하찮게 보는 드라마틱한 역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돈은 이제 어떤 신도 넘볼 수 없는 신의 제왕 자리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재무상담사 양성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가계부채 922조. 도저히 실감 나지 않는 엄청난 액수의 부채가 전국 가정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돈은 한 인간의 삶을 파멸로 이끌 수도 있지만 지난 IMF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익히 알듯이 한 국가를 파탄낼 수도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연착륙하지 못하면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2분기의 경우 고금리의 제2금융권 대출 비중이 36.7%나 되는 것은 부채의 질 문제에 있어서도 심각성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렇기에 국가든 가정이든 경제에 대한 정확한 설계와 계획 그리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허나 모든 사람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외부의 지원과 조력은 큰 힘이 되겠지만 기존의 재무상담사는 대체로 금융상품 판매에 최종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별무소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에서는 전문적인 재무상담사를 양성해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에듀머니와 MOU를 체결하여 지난 4월부터 <

수원시 재무상담가 양성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징검다리〉라는 이름의 동아리 결성

곰이 백일동안 쭉과 마늘만을 먹으며 인고의 세월을 거쳐 사람이 되었다면 엄격한 면접을 통해 선발된 40명의 수강생은 백 시간 동안 이론과 현장 실습을 통해 단련되어 나갔습니다. 허나 비록 엄격하고 꼼꼼한 수업이었다 할지라도 단기간에 수십 갑자의 절대고수로 변신하여 강호로 나서는 것은 중국 영화에서나 가능한 법. 결국 이분들은 스스로의 담금질을 위해 학습동아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징검다리〉라는 이름의 동아리는 기능상 상담사 역할을 지향하는 팀과 경제교육을 지향하는 두 개의 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주부 열 명으로 구성된 경제교육팀을 만나보았습니다. 이 팀은 매주 금요일에 모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스터디를 하거나 경제교육과 관련한 교안과 각종 교구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모으기도 하는데 제가 찾아 간 날은 며칠 후 있을 지역아동센터 교육과 관련한 구체적이고 세심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표 수업 준비

“수업 전에 주의 환기를 위해 관련 동영상 틀어 주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헌데 어떤 게 있을까요?”

“용돈 관련한 내용의 동영상은 많은데 미래설계와 관련해서는 별로 없는 것 같던데....”

“구글 검색을 해 보니 홍명보감독이 아이들을 위해 이야기 하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럼 우리에게 맞게 편집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 남편이 동영상을 좀 만들 줄 아는데 남편한테 얘기해 보지요 뭐”

“좋은 남편 두셨네요”

“호호호호”

엄마의 마음으로 교육을 준비하기 때문에 이 팀의 대화 내용은 철저히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교안작성부터 교구제작 그리고 PPT 활용 및 대화를 이끌어 내는 아이템까지, 마치 자신의 자녀에게 교육을 시키듯 세심한 마음 씀씀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이 팀을 이끌고 있는 두 분을 만나보았습니다.

에둘러 가지 않고 직설적으로 물어 보았습니다.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으면 진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본인이 확신이 없으면 그것은 교육이 아니라 테크닉으로 잘 포장된 강사일 뿐.



팀장을 맡고 있는 김효연 씨(좌측)와 총무를 맡고 있는 김윤정 씨(우측)

김효연 변화 것이라고 확신해요. 물론 한두 번 교육으로 갑자기 확 바뀌지는 않을 테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받다 보면 분명 바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어른과는 달리 습득하는 게 참 빨라요.

김윤정 전문가 양성과정을 이수하면서 사실 제가 먼저 변했어요. 지금까지는 제 아이들에게 필요할 때 수시로 돈을 주었는데 지금은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용돈을 주면서 엄마가 왜 용돈을 주는지, 용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이야

기했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지금은 잘 하는 것 같아요. 용돈을 받으면 먼저 나눔통(기부를 위한 저금통)에 일정 금액을 넣은 후에 소망통(자전거 사기처럼 본인이 원하는 것을 위해 저금을 하는 통)에도 저금을 해요. 비록 아직 어린 나이기는 하지만 어릴 때부터 돈을 관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효연 저희 집도 변했어요. 아이가 이제 좀 컸는데 한 잔의 커피를 마시는데 필요한 돈도 어떤 이에게는 한 시간의 땀 흘린 노동으로도 부족한 것이니 습관처럼 소비하지 말고 생각하는 소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냉장고를 꽉 채우는 일도 없이 소위 ‘냉장고의 여백의 미’를 즐겨요. 대형할인점 이용도 잘 안하고요. 제 생활이 건강해져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경험을 통한 이해와 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에 이르는 점입니다. 그것이 배타적 주장의 토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경험은 개인에게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확신’만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장착되어야만 합니다.

김효연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이수했습니다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제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지금은 내 몸이 실천하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어요.

김윤정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에게 보수 교육은 계속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강의가 있으면 찾아가서 배우기도 합니다.

이 팀은 100시간의 전문가 양성과정 이후 어린이 경제교육과 관련한 30시간 심화교육을 별도로 받았

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이들 교육이 많기 때문에 유아교육 출신자를 영입하여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였고 PPT작성이나 IT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 분야의 경력자를 통해 팀 전체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팀의 최종목표는 단지 아이들 경제교육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효연 저희들은 아이들 교육 뿐 아니라 이주민이나 미혼모 그리고 장애인들의 경제관념이나 홀로서기 등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특히 홀로서기를 할 경우 경제문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더욱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움이 단지 개인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로 흘러들어 지역을 살찌우고 풍부하게 한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원 어느 곳에서는 강좌가 열리고 있을 것이고 한 인간의 떨림의 순간이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의 결과 한 사람의 교양인 완성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물꼬를 타고 흘러 흘러야 하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선으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는 그 선을 통해 면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단지 계획일 뿐이지만 사회를 향해, 이웃을 향해 활짝 열려 있는 이분들의 모습은 그 의도만으로도 격려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실제 교육을 해보았다고 하는데 경험을 해 보니 어떠신가요

김윤정 저희가 3곳을 다녀봤는데 3곳이 다 다르더군요. 조건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교육방식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현대 어린이 교육은 부모 교육으로 연결되어야 확실한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 교육을 어떻게 연결시킬지 고민하고 있어요.

부모들의 경우에 경제교육이라고 하면 보통 부자 되기 교육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 보다 먼저 현명한 소비가 우선이거든요. 부모들이 피부에 와 닿는 교육, 스스로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효연 저희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의 아이들을 주로 교육했는데 자신의 경제관리가 안 되는 아이들은 시간관리 역시 안 되는 것을 알았어요. 게임이나 휴대폰에 너무 많이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케어해주는 부모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안타까웠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당장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런 일이 악순환 되는 것 같아 참 가슴이 아파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김윤정 지금 한국사회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한편으로 돈 개념이 많이 왜곡되어 있잖아요. 전도된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하고 싶어요.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는 도구로서의 가치, 이런 것을 차분히 가르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이런 경제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효연 예전과 함부로 비교할 순 없지만 요즘 아이들은 '왜 나는 이건희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나'하면서 속상해해요. 그래서 직업선택에 있어서도 돈과 연결시키죠. 내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돈 잘 버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죠. 돈이 내 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교육, 아이들 스스로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케어 하는 교육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1~2년 교육으로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10년 20년 끈질기게 해 나가야겠지요.

이번에는 이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현장을 직접 한번 나가 김신애 씨를 만나 보았습니다. 권선구의 한 지역아동센터 교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오후. 비좁은 공간에 저학년과 고학년이 함께 섞여 있었고 선생님은 아이들 주의를 끌기 위해 박수를 치기도 하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면서 그 아말로 고군분투 하고 있었습니다.



교보재를 이용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신애 씨

사전에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요

제일 기본은 교안을 작성하는 일입니다. 교안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는 각종 교구를 준비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안이 아니라 학생들입니다. 교안에 따라 일률적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누구인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수준은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 충분히 고려를 한 후 다시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반대로 삭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과 논의를 해서 조율하게 됩니다.

직접 경험을 해 보니 어떠세요

저희가 충분히 논의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다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의 인지발달상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떨 땐 진행이 잘 안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규격대로, 매뉴얼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럴 때면 '아 더 많은 준비와 능력을 키워야겠구나'라는 생

각을 합니다.

왜 이 일을 하시게 되었는지요

저는 현재 유치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동학과 출신이기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을 즐거워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개인적 사정으로 일을 중단하게 되었다가 경제교육 전문가과정을 이수하고 다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어찌면 제 존재이유이기도 한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요

함께 하는 선생님들이 다 봉사 마인드가 투철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장점을 서로 배울 수 있어서 참 좋아요. 팀원 전체가 좀 더 다듬고 배워서 역량을 한층 끌어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눈과 귀를 더 열어서 배워가다 보면 성숙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어요. 아이들이 돈에 매여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우리의 꿈이자 희망이잖아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본인이 컨트롤 하면서 능동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경험한 다른 지역아동센터와는 좀 다른 것 같았어요”

권선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첫날 교육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더운 여름, 낯모르는 선생님들과 수업을 한다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일입니다. 보조교사 포함 4명의 선생님과 함께 한 이날 수업은 생각만큼 진행되지 않아 속상한 일이지만 이렇게 또 한 번 큰 배움을 얻어 갑니다.

둘째 날 수업은 첫째 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훨씬 생

산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 볼 수 있는 성찰의 힘,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노력과 분투. 이것이 끊임없이 작동하는 한 엄마표 경제교육이 본 궤도에 오를 날은 결국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회비용이라는 단어는 좀 어려웠던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저 시간을 좀 줄이는 게 어떨까요”

“그래요, 대신 좀 아이들에게 쉽고 효과적인 도구를 사용하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엔 이번 걸 좀 보완하도록 하지요”

권선구 지역아동센터 수업 진행을 캠코더로 촬영한 동영상상을 본 이후 이 팀은 보완점, 개선점을 찾아 다양한 의견과 지혜를 모아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분들은 한층 더 진화해 나갈 것입니다.

며칠 전 친척집을 방문했는데 한 달 전에 본 중학생 조카 녀석이 또 부쩍 커진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한창 성장하는 시기이니 그럴 것입니다. 어찌면 <징



평생학습관에 모여 지난 번 수업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경제교육팀원들 모습

검다리> 경제교육팀도 눈에 띄게 성숙해 나갈 것입니다. 이 팀의 성장판은 사회를 향한 열린 마음과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한 끊임없는 노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쯤 비록 인지도가 낮아 교육기관 섭외를

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만 이것은 아주 작은 성장통에 불과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남의 아이를 제 아이처럼 생각하는 마음, 아이들에게 줄 사탕 하나까지 세심하게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어찌면 생각보다 빨리 훌쩍 성장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뜨거운 성하의 계절이 사람을 지치게 만들지만 그 속에서 만물은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볕 같은 더위 속에서도 과일들은 그렇게 스스로 영글어 가듯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엄마표 교육은 오늘도 쉽 없이 한 뼘씩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주장하지 않고 살며시 이야기 하는 잡지 『사이다』

발행호 (제16호) 2012. 10. 10.(수)
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장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여, 한번 잡좌봐~”로 시작되는 뱀장수 아저씨의 구성진 멘트와는 달리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각종 ‘기념일’입니다. 법의 날로부터 시작해서 금연의 날, 재향군인의 날, 태권도의 날, 납세자의 날, 새마을의 날...

어림잡아도 거의 70여 개 정도에 이르는 이런 각종 기념일은 뻔한 날도 아닐뿐더러 잘 안다고 해서 딱 하나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고 해서 사는데 지장 있는 것도 아니니 그저 그러려니 무관심할 뿐입니다. 이런 데면데면한 기념일 중에는 다음 달 11월 1일에 있을 ‘잡지의 날’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남선선생이 만든 『少年』창간일을 기념하여 ‘한국잡지협회’가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까까머리 시절을 경과한 우리들은 각종 잡지의 특징과 창간일을 외우느라 우뇌를 심히 괴롭혀야만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잡지는? 1896년 대조선독립협회회보, 우리나라 최초의 월간지는? 1908년 소년, 우리나라 최초의 동인지는? 1919년 창조.

다시 까까머리 시절. 우뇌를 자극해 암기를 해

야만 했던 잡지들과는 달리 나의 좌뇌를 심하게 흔들며 엔돌핀을 생성시킨 잡지는 『선데이서울』이었습니다. 당시 보기 드문 칼라 화보에 눈이 뚱그래지며 동무들과 몰래 길길거리면서 성인세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달뜬 환상을 품기도 했으니 그야말로 ‘선데이서울 키즈’였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길었을 무렵에는 『창작과비평』을 끼고 살았습니다. 어느 잡지에서도 보기 어려운 리얼리즘 계열의 시와 소설, 그리고 날카로운 사회비평과 새로운 이론들. 영화를 배우고 싶어 두꺼운 영인본을 헐값에 팔아야 했을 때 나는 마치 시대의 배반자가 된 듯한 자기 최면에 빠져 술독에 빠지기도 하면서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졸업 이후, 필요할 때면 사서 보긴 해도 딱히 관심을 갖고 옆에 두는 잡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 계간형태로 발간되는 『사이다』라는 잡지에 눈길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거창한 주의·주장을 담은 것도 아니고 정교한 논리로 무장하지도 않았습

니다. 골목과 골목 사이, 마을과 마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매개하고 촉진하는, 그야말로 ‘사람·자연·문화에 대한 소소한 얘기들’을 재료로 삼아 담백한 밥상을 차리는 골목잡지입니다.

이 잡지는 제호에서 풍기는 이미지 같은 ‘톡 쏘는 맛’은 없습니다. 탄산음료라기보다는 구수한 숯불에 가깝고 화려한 수라상이기 보다는 올곧은 선비의 검박한 밥상과 같습니다.

게다가 시중에서 쉽게 구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배포처도 마땅찮을뿐더러 특별한 사회적 영향력도 없는, 매체로 보면 그야말로 비주류 무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번도 주류를 탐한 적도, 꿈 꾸는 적도 없습니다. ‘영향력’ ‘주류’와 같은 패권적 단어들은 이 잡지가 가고자 하는 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이다』는 우리가 빠른 속도로 내닫다 지나쳐 버린 것, 허황된 신기루를 쫓다 잃어버린 것들을 오늘 하나씩 길어내어 우리를 곁에 앉힙니다. 그리곤 속삭이듯 들려줍니다. 그렇다고 『사이다』가 복고(復古)의 깃발을 올린 것은 아닙니다. 과거를 불러와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의 신파조 가사를 읊조리지도 않습니다.

『사이다』가 길어 올린 ‘그것’에는 따스한 시선이 어려 있고, 그 따스한 시선 속에 우리가 만들어 갈 미래에 대한 당찬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시제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고 미래

형입니다.

창간호와 여름 호의 표지는 칼라만 다르지 같은 디자인입니다. 봄 호를 보면 수원을 상징하는 성곽 위에 사이다로 짐작될 듯한 음료수와 계란 그리고 보에 쌓인 도시락이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 소풍가듯 가벼운 행락길에 나선 모양이고 그 안쪽으로 산이 병풍처럼 둘러 싸인 마을에 모양이 제각각인 집들이 다닥다닥 정겹게 붙어 있고 그 뒤쪽으로는 길게 길이 나 있어 또 다른 어떤 마을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표지는 『사이다』의 정체성과 나아갈 길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팔달산 인근 주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 놓지만 언젠가는 더 먼 길을 떠나 수원 곳곳의 ‘그것’을 보여줄 것임을 표지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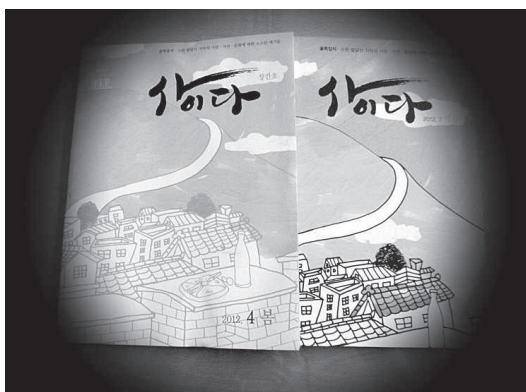
창간호에서 남수동의 골목길과 그곳에 정붙이고 살아 온 어르신들의 신산한 삶을 정겹게 펼쳐 보였다면 이번 여름 호에서는 장안동의 어제와 오늘을 다채롭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곳에는 듄직하게 마을을 지키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모습과 사람의 얼굴이 겹쳐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잡지를 만드는 사람을 만나보려 합니다.

세상사 늘 그렇듯 모든 일에는 최초의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이다』가 태어나기까지에는 많은 곡절과 사연 그리고 좌절이 있었을 터이지만 그럼에도 잡지제작의 꿈을 안고 한걸음씩 오늘까지 이끌어 온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디자인 회사 ‘더 페이퍼’의 대표 최서영. 10월 4일 교동에 있는 사무실로 최서영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잡지를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수원에서 십여 년 이상 일을 해 왔는데 2년 전부터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과 뭔가 함께 일을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어요. 단지 업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재밌고 보람된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6명과 함께 지속적으로 스터디를 했습니다. ‘희망의 인문학’이나 ‘마을이 희망이다’ 등등의 책을 읽고 토론토 하고 워크숍도 가지면서 각자의 생각을 조율해 나가려고 했지요. 그런데 각각 하고 싶은 일들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다들 문화적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잡지를 만들고 싶었죠. 잡지는 다양한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잖아요. 지역의 특색을 갖춘 우리만의 문화를 만들고 싶었는데 잡지라는 것이 재원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참 치열하게 고민하고 구체화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으로는 도저히 일의 진척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깃발을 들었지요. 어차피 잡지는 오픈형이기 때문에 서로 각자의 직업과 능력을 통해 이 잡지에 참여를 하면서 가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이죠.

이철수 화백의 <가을편지>라는 판화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과가 떨어졌다. 만유인력 때문이란다. 때가 되었기 때문이지”

돈도 안 되고 끝탕만 찰 일을 왜 하려고 했을까. 저는 저 나름의 논리를 통해 추론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서영 씨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어떤 특별한 법칙의 작용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이 일을 해야 할 때가 되어서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고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되는 법. 최서영 씨는 먼저 잡지를 만들 주체를 세우는 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잡지에 관심 있고 만들 의사가 있는 분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6주 동안 교육을 했어요. 디자인 흐름 이해하기, 내 안의 디자인 본능 발굴하기, 스마트폰으로 올리기, 수원의 역사, 글쓰기, 캘리그래피 등의 집중 교육을 2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그 중에서 15명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서 다시 그분들을 대상으로 10주 동안 잡지 실무교육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굴되고 단련된 분들이 <끼리>라는 동아리를 결성했고 잡지 제작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다』를 매개로 엮여진 조직은 <끼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회비 5만 원의 후원금을 통해 『사이다』를 응원하는 50여명의 <사이다 클럽> 사람들이 있는데 각 분야의 실무자, 전문가인 이분들을 대상으로 연간 2회 정도 클럽데이를 펼칩니다. 그렇다고 흥대 앞 클럽데이를 상상하지는 말기를.

“주변에 보면 훌륭한 분들이 참 많거든요. 실무 능력이나 기타 여러 면으로... 근데 네트워킹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클럽데이 등을 통해 네트워킹이 자연스럽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난번에 처음으로 ‘마임 테라피’라는 내용으로 클럽데이를 했어요. 전문가이신 이두성 선생님을 모시고 했는데 처음에는 어색해 하던 참가자들이 점점 거기에 몰두하면서 행복해 하더라고요. 저

는 네트워킹도 네트워킹이지만 이런 것을 계기로 그 분들도 본인 스스로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매년 남들을 위해 행사를 준비만 하는 분들이잖아요. 이번 클럽데이의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가을엔 사이코드라마 형식의 워크숍을 개최할 생각입니다.”

건강한 잡지는 단지 텍스트와 디자인의 조합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잡지 제작 전후 사람을 묶어야 하며 텍스트를 독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미게 해야 하며 필요한 제반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잡지는 단지 활자매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가이자 선전가이며 활동가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잡지라는 것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기성과 지속성을 띄어야 하기 때문에 냉철한 경영논리가 작동하기 마련입니다. 착한잡지라 해서 선한 마음으로만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어 보았습니다.

『사이다』제작비 마련 등 경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요.
매번 5천 부를 제작할 때 마다 순 제작비만 천만 원 가량 소요되는데요. 여기에는 디자인비, 원고료, 사진 사용비 등 잡지 제작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한 겁니다. 한테 무가지이다 보니 매출 실적이 전혀 없지요. 그래도 긍정적인 게 지금은 공공기관에서 조금씩 광고가 들어오고 있고 때때로 약간의 개인 후원금도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외부 수입 외에도 자체적으로 아카이브전이나 아트상품전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적자이죠. 그래서 필요한 돈은 남편에게 손을 벌리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큰 걱정은 하지 않아요. 저는 행복한 빛이라고 생각해요. 그 일에 맞게 사람도, 돈도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경영상으로 보면 아직 어려운 상황인데 개인의 의지가 아무리 높다고 해도 공적매체의 제작을 발행인의 의지에만 맡겨두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만들려고 추진 중인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행정기관에 계신 분들은 콘텐츠가 갖는 의미에 대해 아직 이해가 부족한 듯 싶어요. 이제 두 번째 발행이긴 하지만 제작을 할수록 책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독자들로부터 위안을 받기도 하고 있고 저 외에도 잡지 제작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점차 자기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게 보이니까 발행의 중요성을 더 실감하고 있습니다. 비록 개인적 바람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직간접적인 참여 인원도 점차 늘어나고 있기에 지속성 측면에서 보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회적기업으로 되면 더 좋겠지요.

현재의 조건을 검토해서 계간지 형태를 취하는 것이겠습니까만 계간지라는 발행 주기의 텀이 너무 긴 것은 아닌지요.

맞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발행주기를 빨리 맞추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요. 처음 잡지 발행 이야기를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어요. 그게 되겠냐 라는 거죠. 그래도 급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더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그래서 기사가 모이고 넘치면 격월간으로 가고 최종적으로는 월간까지도 고민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문제나 사회적기업 설립문제 등 잡지 제작의 안정적 기반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해결과제나 고민은 무엇인지요.

제가 공부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지역사람, 지역에 대한 이해가 너무 관념적이거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현실은 우리가 갖는 관념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념으로 접근하

면 곤란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주변 분들의 반응이 조금씩 오기 시작하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야지 괜한 미화를 하게 되면 안 된다. 잘못하면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활자화라는 것이 참 무섭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염태영 시장님이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시면서 격려를 해주셨는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변하지 않고 갈 수 있겠는지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변하지 않는 지속성에 대해 저희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담을 내용이 많은 지에 대해 우려를 하시는데 사실 취재를 나가보면 내용은 무궁무진해요.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에 걸맞은 장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이다』는 어떤 누구라도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저는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에 관심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편하고 과장되지 않게 들려주고 싶어요.

마침 인터뷰 자리에 서예가이자 평생학습관에서 캘리그래피 강의를 하고 계신 윤경숙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야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행궁동 레지던시에 있었을 때 최서영 대표님을 만났어요. 제가 글재주는 없지만 다행히

캘리 글씨에 좀 재능이 있어서 그것으로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끼리> 멤버이기도 하고요. 알콜센터에 나가 서예클리닉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일들이 『사이다』를 통해 알려지기도 하니 좋기도 하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고 저도 도움이 된다면 계속 참여하고 싶어요”

이런 매체를 만드는데 있어 가장 큰 기쁨 중의 하나는 독자들의 열렬한 반응입니다. 독자들의 반색에는 모르핀 성분이 들어 있어 어떤 어려움도 꺾꽂히게 해서 나갈 힘을 줍니다.

영통백화점에 근무하시는 분은 주로 서울의 북촌마을 등을 돌아 다녔는데 『사이다』를 접한 이후에는 잡지에 소개된 곳을 돌아보기도 하고 있고, 우연히 책에 소개된 남수동 기사를 접한 분은 외가가 남수동이라며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과 결혼한 여동생이 40년 만에 고향땅을 밟았는데 남수동 이야기를 보고는 잡지를 들고 여동생과 함께 즐겁게 돌아보았고 남편에게도 소개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했다고 하는 사연도 있습니다.

이런 소박하면서 가슴 따듯한 사연들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사이다』를 꺾꽂히게 밀고 나가는 친환경 연료가 되고 있어서 듣는 내내 저도 행복했습니다.

수원시민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사실 아직 안정적인 배부처를 확보하는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저희들 과제이죠. 그리고 그것을 잘 배포하는 것도 고민거리고요. 인력이 많지 않다보니 우편발송도 일이고 또 발송요금도 제법 나가고요. 그렇다고 특별히 개인후원을 권장하지는 않아요. 아직 정기 후원금 제도도 마련하지 않았고요. 재정문제는 저희들이 여하히 해 볼 생각이예요. 그렇지만 잡지 발행과 부대 행사를 하다 보면 손

길이 참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싶어요. 누구나 편안히 와서 소박한 담론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요.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작은 형태의 소규모 출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월간지 『소년』의 창간사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리하려 하면 능히 이 책임을 감당하도록 그를 교도 하여” 이 잡지는 그야말로 누군가를 계몽, 교도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이다』는 무언가를 주장하거나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오늘 이 자리에 살포시 길어 올려놓을 뿐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더 이상 잃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최후의 방어진지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여 힘을 보태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가 밀고 나가야 할 미래로 탈바꿈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도 〈사이다 클럽〉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이것 말고도 달리 보탬 일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씩 힘을 보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사람의 탁월한 주술적 능력 때문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자기 것을 조금씩 보탬기 때문에 발생한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빈 것이 있으면 누군가가 채워줄 것이라 믿는다는 ‘행복한 빗쟁이’ 최서영 씨와 『사이다』여 부디
굿 럭!

〈참여방법〉

- 연간회원 월 1만원
- 잡지 발행 및 문화공연 기획팀 필요 업무 지원
- 후원금 111-144588-01-016 기업은행, 최서영
- 구독문의 031-225-8199

시인의 감수성을 간직한 정훈관(政訓官)

발행호 (제18호) 2012. 11. 07.(수)

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장

그 유명한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부터 김민우의 '입영열차 안에서' 그리고 제목만 봐도 술한 남성의 오금을 저리게 할 수빈의 '너 다시 군대가'까지. 군대 관련 가요를 검색해 보면 생각보다 많은 노래들이 주르륵 튀어 나오는데 이렇게 군대 관련한 대중가요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게다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아마도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닐까 합니다.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도 많지 않을뿐더러 우리처럼 긴 복무기간, 게다가 평화상태가 아닌 휴전상태, 또한 남북 간에 긴장이 일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나라. 이런 요인을 두루 다 갖추고 있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기 때문에 군대와 관련해서는 노래도, 스토리도, 영화도, 문학작품도 많이 창작되고 있습니다.

지위고하나 취미, 종교, 교양이나 인품에 관계없이 전국의 남성들을 일순간에 대동단결 시키는 군대는 단지 고상하게 문화콘텐츠로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최정상에 있는 사람을 그야말로 후덕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휘발성 높은 인화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이회창 씨가 청와대 입성을 앞두고 번번이 고배를 마신 것도 아들의 군 면제라는 족쇄가 크게 작용했고 가수 유승준 씨는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중 군입대 문제로 한방에 흑 가면서 인생의 쓴 맛을 제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는 원칙과 형평성의 문제가 기본관점입니다만 군대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의 부재에 대한 반감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군대 경험을 고통으로 인식할수록 그것으로부터의 열외에 대한 인식은 논리영역이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로 전화되고 맙니다.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에 획일적 사고와 강제적 규율의 생활패턴은 신체 건강한 남성의 자랑스러운 국방의무로 이해 설득시키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방부는 그래서 복무기간의 단축이나 생활환경이나 병영문화의 개선 등에 나서고 있지만 한반도의 특수 상황에 기반한 군의 존재이유가 변하지 않는 한 군대는 여전히 남성들의 대동단결의 강력한 기제로 유구한 역사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저는 강원도 인제에서 보병으로 근무를 했는데 국

방일보 활자라도 좀 접할 수 있었던 것은 상병 무렵 이었고 자유로운 독서나 인문교양 강연은 그야말로 연감생심이었습니다. 군문화가 이제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지적 성장의 유예기간임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헌데 한 달 전쯤에 우리학교 직원 한 분이 저에게 행사 인사말을 부탁해서 잠시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한 편의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모두가 일어서서 국기에 대한 경례와 ‘대한니우스’를 필히 관람하여야만 하는 엄숙한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트라우마인지 각종 행사 전에 내빈소개와 격려사와 축사로 이어지는 요식행위는 가급적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했는데 무슨 특별한 행사도 아니고 조용히 영화를 관람하는 행사(평생학습관에는 시민사회자료관 주축로 독립영화를 보는 정기 행사가 있습니다)에 관장의 인사말이라니. 알고 봤더니 경기도 경찰청 소속의 전투경찰 대원 70여명이 참석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무형태는 다르지만 전경도 군인처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젊은 무리’임에는 동일한데 평일 근무시간에 평생학습관 시설에 와서 그것도 일반 상영영화가 아닌 인권과 관련한 독립영화를 관람하다니... 젊은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용어를 빌리면 그야말로 ‘깜놀’할 일이었습니다. 군대와 관련한 저의 인식은 아직도 80년대 강원도 인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그는 누구일까. 어떤 생각으로 이 장정들을 인솔해서 독립영화를 보려고 했을까... 저의 이런 궁금증은 그가 정훈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직 경찰이면서 동시에 시와 소설 등을 왕성하게 창작하고 있는 현직 문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스테레오타입으로 사물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삶을 노래하는 예민한 감수성의 시인과 음습한 범죄현장을 누비는 근육질의 형사가 삼쌍둥이로 존재하는 것이 인식상의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경찰의 정훈관은 군대의 정훈장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직 내에는 군대의 정훈장교와 같은 공식 직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前경기지방경찰청장님께서 정훈관이라는 업무와 역할을 만드신 것이지 법률적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시·소설 같은 창작활동도 하고 칼럼도 쓰고 하니 그분께서 ‘경찰에도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이 필요하고 책임자일 것 같으니 한번 일을 맡겨보라’고 해서 올해 2월에 제 업무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 정훈관은 경기도에만 독특하게 있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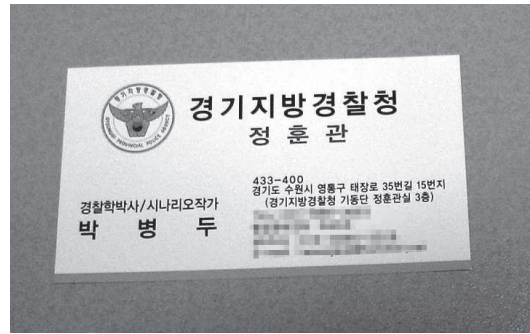
어떻게 전경들을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으로 인솔할 생각을 하셨는지요.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영화 <시선 1318>을 관람하고 있는 전경들

경기도에는 40여개의 전의경 부대가 있는데 마침 그날은 광주에 있는 대원들 교육을 시키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영화에 관심이 많아서인지 영화만큼 상상력을 제공하는 매체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딱딱한 실내 교육 보다 영화를 통해 젊은이의 감수성을 자극하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영화감상이 좋다고 판단해서 광주에 있는 대원들을 수원 시평생학습관으로 데려 온 것이지요. 물론 정신교육이나 좋은 외부 강사의 교육도 필요하지만 정형화된 교육보다는 젊은이들에게 맞는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콘서트도 보게 하고 배구나 축구경기를 같이 관람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젊은이들의 정서함양이나 치유효과에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대의 일선 지휘관들은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멀리 오가기 위해 차편도 마련해야 하고 혹시 이동 간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방식은 낯설잖아요. 그래도 젊은 대원들의 반응이 좋고 해서 앞으로도 자주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평생학습관과의 첫 만남은 영화 상영이 매개가 되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박병두 씨는 단지 영화에 관심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현재 영화 제작 시나리오의 각색을 맡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때에는 영화 오디션에 합격하기도 했고 대중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2006년에 『그림자밟기』라는 소설을 출간했는데 그 장편소설이 <엽기적인 그녀> <클래식> 등의 술한 화제작을 만든 박재용 감독의 차기작으로 준비되고 있고, 그래서 박 감독과 함께 시나리오 각색을 맡고 있었습니다. 수원을 촬영지로 하는 조건으로 수원시에서도 제작비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수원시에서 제작비 지원을 했으니 시사회는 행궁광장에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계신다니 시민 여러분들도 기대를 한번 해 보



박병두 씨의 명함에는 경찰학박사와 더불어 시나리오작가라는 타이틀이 함께 들어가 있다.

시기 바랍니다.

이런 색다른 방식과 내용의 교육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 인지요.

군대도 그렇지만 경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단지 내무생활이 편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문화가 달라졌고 아날로그적인 것이 디지털화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도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경찰은 ‘법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라고 생각하는데 중재를 하려면 법뿐만 아니라 사람을 잘 알아야 하잖습니까. 단지 법만을 앞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경제를 이해하고 그 선상에서 국민들 편에서 생각한다면 경찰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찰은 최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일을 하잖아요. 이를테면 불심검문도 업무상 하게 되는데 불심검문을 받는 시민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러면 단지 법을 집행한다는 경찰 마인드가 아니라 ‘아 이분은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구나’ 이런 관점에서 집행을 하면 그래도 불필요한 긴장을 최소화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경찰은 국민의 정서, 피부에 와 닿는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직업이기도 한데 하다못해 스티커 발부를 하는 일도 역사사지의 입장에서 수행하면 좋을 것이고... 사람은 늘 실수하게 마련인지라 범죄자가 되기도 하는데 죄를 범하는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개도하는 역

량, 이것도 인문정신에 기초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찰에 입문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요.

제가 88년도에 경찰이 되었으니 25년이 넘었네요. 뭐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대학 졸업하고 경찰이 되어서 지금껏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초임 시절에 웃지 못할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저는 근무지 인근에 방을 얻어 살고 있었는데 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마침 방에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가지러 집에 갔다가 어찌된 일인지 그날부터 3일 동안 연락도 하지 않고 드라마 원고를 쓴 거예요. 당시에는 휴대폰도 없고 신임 때 일이라 다른 분들이 제 방도 알지 못해서 경찰서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난거죠. 게다가 총까지 휴대하고 사라졌으니 경찰에서는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지요. 그때부터 ‘아 글을 쓰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붓을 꺾었죠. 그러다 우연히 글을 하나 쓴 것이 계기가 되어 좀 더 글 쓰는 일을 하고 싶어서 대학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긴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에 잠긴 이순신장군은 상상이 가지만, 무단결근 밤에 작은 총 옆에 차고 원고를 쓰는 경찰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통칭 조직부작용자라고 쓰고 또라이 라고 읽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런 ‘또라이 정신’은 개인적으로 보면 무아지경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경찰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집필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본인 스스로도 통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박병두 씨는 창작의 탈랜트를 가지고 태어난 듯 보입니다.

시인의 감수성과 경찰의 경직성 사이에서 고민이 있었겠네요.

평범한 사람도 경찰 조직에 들어오면 공격적 성향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아무래도 경찰은 범법자를 다

루는 일이라 범죄자를 체포하고 조사하고 감옥에 보내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잘 못 견디겠더라고요. 경찰 생활 하는 동안 내내 이런 사이클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 상황을 극복하는 본인의 노하우가 있는지요.

글을 쓰는 것은 개인적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데 경찰이라는 공조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업무시간 제약도 있고 또 일이 많다

보면 개인적인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으로서는 행복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노선이 늘 충돌하게 됩니다.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이럴 땐 주로 의식적으로 문화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문인협회 회원들을 만나기도 하고 세미나나 강좌에 참여해서 강의를 듣기도 하고요. 카메라를 들고 길에 나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은 한시적인 해소이지 궁극적인 해결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업 창작생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인 <수원시민 인문대학> 강좌를 듣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 과목을 듣고 있으니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고 있는 셈이네요. 사실 이런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경희대학교의 훌륭한 교수님이 직접 지도를 하시는 일도 흔치 않고 게다가 비용도 매우 저렴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강의 듣기 전에 좀 충실한 준비를 하면 좋은데 시간 없다는 핑계로 단순히 참여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또 수강생 중에서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배워야 할 점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성찰하게 되는 것도 있고

요. 사실 4개 강좌를 듣는 것은 저에게 욕심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욕심을 좀 부리고 싶어요. 현대 요즘 제 아내가 좀 서운해 하는 것 같아요. 퇴근하면 아내와 손잡고 산책을 하거나 문화공연 관람을 했는데 제가 인문학강좌를 들은 이후로는 통 같이 할 수가 없어서 말이죠... 그리고 수원은 염시장님의 의지도 강하고 해서 인문학 저변도 넓어지고 풍토도 좋아지고 있는데 인문학을 강조하되 이제 실천하는 인문학으로, 사람들도 단지 수업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인으로 점차 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이 주도적으로 실천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리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훈관으로서 바람이 있다면요.

다치면 다 하겠지만 아마 형사과 같은 곳에 배치가 되면 제가 잘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훈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독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시다만 정훈관이라는 업무는 청장님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보면 청장님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저는 좀 다른 방식, 다른 내용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경찰 내부에서 전적인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 일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일에 대해 행복하다고 느끼는 한편 조직으로부터 고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일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때론 영화 한 편이 시집 한 권 읽는 것 보다 더 큰 감수성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정형화된 교육 대신 인문학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강의가 젊은이들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성과를 측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도 최

선을 다 해 해나가야지요.

외로움과 힘듦은 처음 길을 여는 사람의 숙명 과도 같은 일입니다.

법적 직제가 아닌 정훈관이라는 직책을 맡아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하는 이의 고독, 그것도 조직 전체로부터 완전한 이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의 업무 수행은 자칫 외줄 타기의 아슬아슬함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의 좋은 분을 모시려고 해도 2시간에 십만 원 안팎의 강사료로는 운신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다'는 박병두 씨의 고백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간략하게 이야기만 나누었습니다만 평생학습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아니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비록 전경이라고 하는 특수한 직종에 있지만 그 젊음에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평생학습관이 나선다고 해서 하등 이상할 것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정훈관이라는 임의 직책이 박병두 씨의 건투에 의해 법적 직제로 공식화되고 그 결과 전국 각지의 경찰 조직에 배치가 된다면 어떻게 하는 행복한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단지 개인의 빛나는 활동에 기댈 수밖에 없음이 안타깝기는 해도 지금으로서는 올바른 않지만 유일한 방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병두 씨의 건투를 빌어 봅니다. 굿 럭.

따뜻한 미소와 함께 한 해를 마무리

발행호 (제21호) 2012. 12. 19.(수)
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장

직장인에게 빨간날이란? 그저 웃지요. ㅎㅎㅎㅎㅎㅎ
2013년은 계사년(癸巳年) 뱀띠 해인데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면 총 116일의 휴일이 보장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달력을 받게 되면 뛰니뛰니해도 토/일의 휴일이 아닌 각종 법정 공휴일의 질적 배치에 가장 먼저 눈이 가게 마련입니다. 올해 추석연휴처럼 토·일·월로 짜여 진다면 아무리 빨간날이라도 짜증 제대로 나기 십상입니다. 내년에는 어린이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빨간날에 민감한 부모님을 둔 아이들은 어디 나갈 생각 말고 집에서 부모님을 잘 위로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괜스리 걱정을 해 봅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한글날이 법정공휴일로 컴백을 했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종대왕님 만세입니다.

세종대왕님이 이처럼 23년 만에 화려하게 컴백하셨는데 요즘 들어 더욱 혼탁해진 한글 사용 실태를 보시면 기분이 어떠할까요. 아예 한글날을 폐지하라고 대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중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존칭어의 오남용사례는 배금주의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하여 참으로 쓸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건 샘플이시구요 수분크림이시구요 삼천 원이시구요 지금은 재고가 없으신데 다음 주쯤 물건이 들어오세요.”

이런 과용은 단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판매원의 몰상식 문제로 단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최고라는 오도된 가치관을 갖은 구매자의 그릇된 욕구가 불러일으킨 우리시대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이런 사례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결제 되셨습니다’가 아닌 ‘결제 되었습다’라고 했다고 쌍욕 들어본 적 있습니다”

“저런 극존칭 저도 정말 싫어하는데 2년 정도 일하니까 그냥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쓰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디 가서 극존칭 들으면 그냥 해탈의 심정으로 이해를 합니다-ㅜㅜ”

서비스에 있어서 친절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과공은 비례라는 말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터무니없는 극존칭은 오히려 사람의 인격을 폄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편안한 서비스, 이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진심, 결국 진심이 핵심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극존칭의 남발도 아니고 매뉴얼에 입각한 손님응대도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건 마음을 담아 응대를 하는 것만큼 최상의 서비스는 없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은 분 계시죠? 그러면 교동에 위치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을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이기도 하고 2012년 '와'의 마지막 호이기도 하니 훈훈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된 것은 1년 전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관은 작년 9월부터 업무를 시작했지만 현재의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더부살이를 해야 했는데 그곳이 바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 달여의 기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좀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경비업무를 맡고 계신 분이 세분인데 모두 하나같이 다 친절하면서 편안하게 대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정여사의 어투를 빌자면 친절해도 너~무 친절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풍경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먼저 가족여성회관을 책임지고 있는 황의숙 사무국장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세분에 대해 평가를 하신다면...

저희는 강좌가 끝나고 분기별로 고객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늘 그분들에 대한 칭찬이 이어집니다. 때로는 직접 저에게 찾아와서 그분들 칭찬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가끔 주차문제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 때도 있지만 그건 좁은 주차공간으로 발생하는 문제일 뿐이고 특별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 식구이긴 합니다만 제가 봐도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별도의 친절교육이 있나요?

아니요. 어찌 보면 더 이상의 친절교육이 필요치 않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주의사항을 이야기하는 정도입니다. 보통 경비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대개 연세가 높은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세분은 50대 전후의 비교적 젊고 학력도 괜찮은 분들이예요. 그래서 가끔 '왜 경비업무에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지 젊고 허우대 멀쩡한 사람을 고용하느냐'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답니다.

친절이 주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분은 저희 기관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처음 만나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짓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관문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칭찬과 평판을 얻고 있다는 것은 저희에게도 매우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분들은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철저히 배어 있어서 업무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수강신청은 보통 직접 인터넷을 통해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저희 사무실로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는데 그분들이 1층 휴게공간에서 필요한 사

항들을 다 거들어 주시니 저희 사무국 업무도 훨씬 효율적이고 내방객들도 다 좋아하고 계십니다.

수원시 가족여성회관은 2007년 개관하여 그동안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 지난 해 11월부터 민간에 위탁운영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보통 경비 및 미화는 외부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가족여성회관은 위탁 3개월 후 이분들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신분의 불안도 벗어나고 소속감도 생기니 업무의 충실도도 높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헌데 다시 시청에서 용역으로 계약을 전환하라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는 민간용역회사 소속의 간접 고용 비정규직 6,231명을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 계획 발표를 해서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안인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비용측면에서도 오히려 절감이 된다고 하니 그야말로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입니다. 따라서 가족여성회관의 고용형태를 옛 방식으로 돌리는 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의 주인공 이창한님을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한님도 가족여성회관에 직접 고용이 되니 안정감과 소속감이 생겨 더 좋다고 하신데 아직 최종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니 좋은 방향으로 해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나요.

2007년 9월 무렵인가, 가족여성회관이 처음 개관했을 당시부터 근무를 했으니 지금까지 한 5년 정도를 이곳에서 근무한 셈이네요.

가장 신경을 쓰는 업무는 무엇인지요.

저희들은 주로 주차 및 안내를 맡고 있는데요 내방



객이 오시면 1층 데스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접수를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도와 드리기도 하고요. 가족여성회관이 더 많이 알려지고 또 더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하는 것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 이창한님은 쑥스러운 듯 손사래를 치면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인터뷰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당사자의 언어로 한번 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딱히 CS교육(Customer Satisfaction, 고객만족)을 받은 것은 아닌데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모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저희들은 그냥 있는 대로 한 것뿐인데 주변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어떤 면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뭐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먼저 내방객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편이에요. 처음엔 좀 서먹서먹하기도 하지만 자꾸 다가가다 보면 서로 익숙해지는 면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좀 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수원 시민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하겠지만 가족여성회관은 사실 주차공간이 넓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차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용객의 요구를 다 들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이해만을 앞세우면 사실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주차문제뿐이 아니잖아요. 모든 면에서 자신의 이해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창한 님은 반장으로서 같이 일하는 동료의 칭찬을 빼놓지 않았습니

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분들은 참 인사를 정말 잘하고 있어요. 먼저 밝게 인사를 하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가끔 저희가 시정할 것이 있으면 모여서 이야기도 하면서 더 잘해보려는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분한 칭찬이 기분 좋으면서도 부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관은 대체로 경비업무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비록 민간용역업체 소속일지라도 내방객은 해당 기관에 속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고용형태 여부와 관계없이 그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그 기관 소속의 직원이 맞습니다. 들머리에서 환한 미소로 맞아 주는 분이 있다면 내방객의 찌푸려졌던 마음도 환하게 퍼질 것이고 그런 기관은 얼마나 멋진 곳으로 각인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경비 선생님들의 서비스로 인한 기관의 경쟁력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마다의 개인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서비스 마인드가 CS교육을 통해 단박에 제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들머리에서 내방객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기관의 태도와 자세

를 대충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교육은 비단 강의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과잉 립서비스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소박한 태도로 사람들을 무장해제 시키고 있는 세분의 모습을 보면서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살아 있는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세분을 보면서 간디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네 믿음은 네 생각이 된다.

네 말은 네 행동이 된다.

네 행동은 네 습관이 된다.

네 습관은 네 가치가 된다.

네 가치는 네 운명이 된다.

반복된 행동으로 습관처럼 몸에 밴 소박한 자세와 태도. 그리고 선한 미소.

여러분에게 환한 미소를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할 뿐입니다.

이 세분을 생각해 보시면서 훈훈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웹진 ‘와’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분들에게 깊은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균형잡힌 삼발이가 용기(容器)를 받쳐주어야

발행호 (제7호) 2012. 06. 05.(수)

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장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1) -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사람들

2000년.

국민의 정부는 주민참여의 확대와 저비용·고효율 행정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읍면동의 행정기능을 점차 축소하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을 정부 100대 개혁과제로 선정하였다. 이후 2000년부터 도농 복합도시를 제외한 94개 일반시 및 자치구 1,655개 동사무소가 본격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 운영되어 오고 있다. 그로부터 강산이 한번 바뀌고도 몇 년이 더 흘렀다.

22%.

수원에 평생학습시설로 등록된 기관은 총 176개인 데 그중 주민자치센터가 39개로 22%를 차지할 만큼 단일 기관으로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늘도 수원의 주민자치센터 곳곳에서는 스포츠댄스 음악이 흘러나오거나 흥겨운 사물놀이 가락이 담장을 넘거나 고요한 침묵 속에서 주민들이 한자 한자 공들여 붓글씨를 쓰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다.

주민자치센터의 수가 많다보니 그 기관을 이용하는

연간 총인원 숫자도 매우 많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주민자치센터가 본래의 기능을, 제 역할을 올곧이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개선점과 대안을 마련해 보는 것은 평생학습도시 수원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작은 일은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의욕과 현실은 자주 갈등하거나 서로가 서로를 배신한다. 주민자치센터를 촘촘히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욕은 제법 왕성하나 실제의 실행능력은 무디기만 하다. 간단한 문헌조사와 몇 명의 인터뷰로 주민자치센터를 파악했다고 하는 것은 다리만 몇 번 만지고선 코끼리의 전체 형상을 주장하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이 글은 시작임을 밝힌다.

‘와’에서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후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수원 곳곳을 다닐 것이고 필요하면 다른 지역도 조사할 것이며 각종 데이터를 꼼꼼하게 분석해 볼 것이다. 오늘은 그 첫 시작으로 수원 내 다양한 위치에 있는 분을 만나 취재한 내용을 재구성하여 포괄적인 접근을 해 보고자 한다.

주민자치센터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는 보기에 따라서는 다양하게 언급할 수 있다.

주민자치센터 인근에 존재하는 사설학원이나 강습소 등도 그에 해당한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얼마의 금액에 개설하느냐에 따라 학원 운영이 영향을 받게 되니 예민한 이해관계자일 수 있고, 강사들도 프로그램 존재에 따라 큰 영향을 받게 되니 이 그룹도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꼭지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 전부를 대상으로 조사, 연구할 수는 없는 일이니 여기서는 핵심적인 그룹으로만 한정해서 다룰 것인데 그 핵심그룹을 세 축으로 분류해보면 지역주민과 주민자치위원 그리고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원론적으로 보면 그 중에서도 지역주민이 가장 중추적 역할을 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세상사 어디 그런가. 원론을 이야기할수록 현실의 남루함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일이 왕왕 있으니 우리네 시민의식도 그러하다.

이해관계라 함은 상호 갈등과 협력의 긴장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기본 축을 담당해야 할 시민의식의 불투명과 너트가 헐거워져 있으니 나머지 주요축도 자연스레 성기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삼자의 건강한 길항관계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 지금의 형국인 듯싶다. 자칫 세 축의 삼발이 다리가 헐겁고 성겨져 그 다리가 받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라는 용기(容器)가 쏟아질 것만 같다.

그러나 시민, 시민의식이라는 것이 자칫 잘못 접근했다가는 변죽만 울리기 십상이라 일단 우회로를 타고 주민자치센터에 접근하기로 했다. 그래서 먼저 행정기관 담당자를 만나 보았다.

주민자치센터에서 행정의 역할은 그야말로 서포트 역할이다.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함에 있어 지원·보조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포트 역할이 어느 시기에서는 중

요한 동력의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다. 큰 장작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군불이 필요한데 장작불이 자기의 힘으로 큰 불길을 만들기 전까지는 자그마한 군불이 매우 소중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이다. 주민자치센터 제도의 도입이 어언 십여 년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행정의 서포트 역할이 제 몫을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공무원은 그 나름의 고충과 고민을 한아름 안고 있었다. 이날 만난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기관과 이름은 생략하도록 한다.

주민자치센터 담당자로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요.

이것이 주민자치센터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 주민자치센터는 그야말로 지역 주민이 자발적 주체가 되어 운영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이와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다. 특히 권리의식은 높는데 그에 수반되어야 할 책임의식은 그에 따르지 못하는 듯하여 아쉽고 그래서 주민들이 권리의식을 내세우다 보니 담당자로서 위축되어지는 면이 있다. 조금만 불편하다 싶으면 구청, 시청에 민원을 넣는다. 심지어 중앙정부기관에까지 민원을 넣는 일이 있는데 공무원이다 보니 그런 민원이 발생하면 공문을 통해 내려오는 서류에 일일이 다 답변을 해 줘야 하고...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산다. 그래서 자기가 접한 경험치를 통해 세상을 재단하게 마련인데 이런 범주 오류를 감안하더라도 권리와 책임의 부조화를 이야기하는 담당자의 이야기는 주민자치센터도 ‘공유지의 비극’에서 벗어나 있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어서 참 씁쓸하게 들린다.

30%?

이 공무원은 주민자치센터 관련 업무뿐 아니라 다

른 행정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궁금했다.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주민자치센터에 쏟는 업무량을 수치로 하면 어느 정도일까. 정확하게 측정하면 25%가 안 될지 아니면 35%가 넘을지는 모른다. 게다가 업무의 양적 측면만의 문제를 넘어 난이도와 집중도도 고려해야 할 요인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담당 공무원이 온전하게 주민자치센터에 신경을 쓸 수 없으며 이것은 본인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핵심은 주민자치위원이다. 조례에 의하면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센터별로 2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그렇기에 어떤 마인드의 주민자치위원을 선출하느냐에 따라 해당 지역의 활성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수원지역 주민자치위원 구성에 대한 데이터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현황과 분석은 차후로 미룬다.)

그러나 상기한 바와 같이 아직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가 미미한 상황이라면 행정기관의 서포터 역할이 매우 클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취미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프로그램이 한쪽 방향으로만 치우치는 것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비록 예산은 많지 않지만 우리도 명사초청 같은 문화, 인문학강좌를 하고 싶고 또 그런 시도도 하고 있는데 막상 주민들은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많지는 않은 편이다. 그리고 우리 동만의 특성인지 몰라도 프로그램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사설 강습소 등이 증가한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신규 수강생

은 별로 없고 기존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대체로 계속 이용하고 있는 편이다. 이것이 악순환을 부르는 것인데 기존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 신규 회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런데 활성화가 미비하거나 인근 지역과 프로그램 중복 방지를 위해 프로그램을 변경·수정하려 해도 결코 쉽지 않다. 대체로 강사분들은 7~8년씩 된 분인데 비해 저와 같은 담당자들은 경력이 많지 않으니 강사분들이 '왜 터치하냐', '그런 전례가 없다'는 등의 이야기로 반발을 하게 되면 이것도 잘 해결이 안 된다. 이럴 때면 시청이나 권위 있는 기관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해결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주민자치위원의 참여 정도는 어떻습니까?

주민자치위원이 25명인데 그중에서 1명만이 자원봉사로 참여하고 있다. 주민들의 자원봉사 참여도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인터뷰한 공무원의 심경과 고뇌가 수원시 주민자치센터 담당 공무원 전체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고민 속에는 일면의 진실이 있고 일정한 공감대도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담당하는 39명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조사를 해보려고 한다. 이 내용은 다음 호에 게재할 것이다.

일선 현장의 주민자치센터 담당 공무원이 아니라 시청에서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의 인식은 어떤지에 대해 알고자 시청 자치행정과를 방문해 팀장과 담당 공무원을 만났다. 주민자치센터 담당 공무원이 주로 시민들을 담당한다고 하면 시청의 담당과에서는 주로 주민자치위원들을 담당하고 있었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주민자치위원장 중심으로 1박 2

일의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이제는 신규위원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그 외에도 특별강사를 초빙해서 구별로 마을만들기 중심의 강연을 개최하고 있다”

시청에서는 특정 지역의 주민자치센터가 아니라 전체를 보기 때문에 시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더 객관적인 판단일 수 있다.

“주민센터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점차 개선이 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외에도 전체 동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나 명절행사 등을 주도해야 하는데 이런 면에서 보면 동분위기를 잘 잡고 있다고 보여 진다. 비조직적이긴 하나 모범사례도 잘 전파되고 있고 정부차원에서도 모범사례가 내려온다”는 시청 담당자의 말을 종합하면 주민자치센터의 중요한 한 축인 주민자치위원의 경우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허나 이것이 수원시 전체를 아우르는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이며 긍정적인 판단일 수는 있겠으나 ‘이성은 비판주의이나 의지는 낙관주의’라는 그림시의 표현에 빗대보면 시청에서의 상황판단이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느 조직에서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현장과 헤드쿼터 사이에는 늘 온도차가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이 온도 차이가 적을수록 조직의 건강성이 높아질 테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인계동 주민자치위원회 기획분과에서 운영팀 팀장으로 오랜 기간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송은정 씨를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 물어 보았다.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를 내지만 젊은이들 참여가 없는 편이다”

그래서 이곳 주민자치위원의 연령대가 높은 편이라고 한다.



송은정 씨는 인계동에서 12년째 살고 있는 토박이로 동네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

“구청의 지원금이 별로 없어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해야 하는 일이 있다. 자치센터를 운영하거나 기타 여러 행사를 치루려 해도 돈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법 아닌가. 그럴 때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회비를 걷어 주기도 한다”

젊은 사람은 아무래도 생계문제가 걸려 있어서 시간을 내기도 그리고 필요한 회비를 내기도 쉽지 않다. 그러니 마을공동체 문제에 관심이 있더라도 선뜻 주민자치위원으로 나서는 게 어렵게 되고 그러다보면 뉴페이스에 의해 새로운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은 난망한 과제가 되고 만다.

담당 공무원과의 업무적 관계는 어떠한지요.

프로그램을 개설할 때는 먼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검색한다. 다른 기관들이 하는 것을 많이 참조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된 안을 가지고 담당 공무원과 상의를 한다. 담당 공무원과는 정기적인 월례회의를 하는 편인데 담당 공무원들은 주민자치센터 이외에도 다른 일이 너무 많다. 게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알만할 정도가 되면 담당이 바뀌게 된다. 그러면 또 다시 일일이 설명해야 하고 그로 인해 여러 가지로 바뀌는 게 많다.

그래서 송은정 씨는 이런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정식화된 운영매뉴얼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강사비 책정이나 동아리 선정 같은 것은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 담당자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것이 있으면 담당자가 바뀐다고 해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으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형식이 과마다 다른 게 있어서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 있더라. 공무원측에서 통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나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갈증이 있는데 특별히 도움 받을 만한 곳이 없어서 답답하다. 지치기도 하고”

인계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아래와 같이 도표로 정리해 놓았는데 이것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주민자치기능의 강화와 지역공동체형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헌데 주민자치기능의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이란 기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내용이다. 삶과 생활 속

에 결부된 풀뿌리 민주주의가 세밀한 신경망으로 작동해야 형식적 지방분권을 혁신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단지 주민들에게 할애된 조건과 공간이 아니라 더 나은 삶,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소중한 기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수원시 업무 조직도를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포괄적으로는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업무에 속해있는데 이중 주민프로그램의 경우 문화교육국의 평생학습팀과도 관련이 있다. 송은정 씨가 지적한 같은 시청 소속인데도 과마다 다른 형식의 문서를 요구한다는 것은 어쩌면 지엽적인 문제로 보인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여러 단위의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있느냐의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기능

주민자치센터는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주민자치활동의 중심, 주민복지증진, 주민과 행정간의 가교역할 등 크게 4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1.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2. 주민자치활동의 중심	3. 주민복지증진	4. 주민과 행정간의 가교역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간의 만남과 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주민 사이의 소외와 개별화를 극복하고 지역 화합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자치 능력을 훈련하고 또 실제 주민자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자치 활동의 중추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역공동체의 형성 또는 주민자치의 최종적인 지향점이기도 한 주민복지 또는 삶의 질 향상은 최근 들어 경제 및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문화, 복지, 여가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과 행정기관과의 가교역할을 수행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가도록 이끌어 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들의 역량제고 및 분과위원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적극참여

주민들이 알아야 참여할 수 있다.

문화프로그램을 벗어나 좋은 동네 만들기 운동과 같은 공동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문제가 관건인 것이다. 이뿐 아니라 업무 담당자의
적정한 업무량과 업무의 전문성 등 여러 가지 행정
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어 보인다.

한편 주민자치센터의 또 다른 축인 주민자치위
원의 경우에도 구성과 역할, 책임과 봉사 등 개선 보
완해야 할 점이 상존하고 있고 핵심적인 주민들의
시민의식 문제는 조급하지 않으면서 중·장기 입체
적 계획을 통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 어느 것 하나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문제
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과 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
지만 이미 여러 측면에서 성과를 보이는 주민자치센
터도 있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성장한 자극을 주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 일들은 어느 대출광고의 카피처럼 ‘단박’에
달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끈질기고 완강하게
이 문제를 붙들고 늘어져야 한다.

매끈한 해결책은 잘 보이지 않더라도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고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해결할 사
람을 만들어 나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길이 열리리
라 생각한다. 대저 사람 사는 게 그렇듯이 말이다.

‘와’의 고민이 혁신의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간절
히 소망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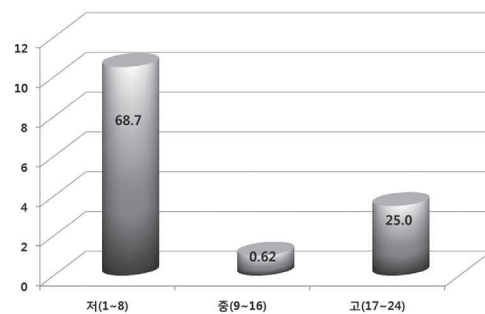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발행호 (제8호) 2012. 06. 20.(수)

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장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2) - 주민자치센터 담당자 설문조사

지난 호에 예고한대로 오늘은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신 분은 총 16명으로 전체 대상 39명의 41% 수준이긴 합니다만 대상자 전원의 의견은 아닐지라도 패턴과 고민의 일단을 엿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성실히 응해주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련 업무 경력〉

1. 담당 공무원의 상황과 조건

먼저 주민자치센터 관련 업무 경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갓 시작한 1개월 경력부터 제법 경력이 높은 24개월까지 다양했습니다. 보통 공무원의 부서 변동 기간이 2년 정도임을 고려하여 응답자의 경력을 8개월 단위로 끊어 저·중·고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더니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기에 상수로 놓고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여지는 담당자의 업무경력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담당자의 숙달된 경험과 전문성이 후임자에게 제대로 전달·공유되느냐 그리고 교체된 신규 담당자의 능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배려가 존재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관건일 것입니다. 이와 연관된 문제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전문성 정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해 보았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업무 경력이 대체로 낮은 것은 공무원의 숙명과의 같은 부서변동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

본인의 전문성이 높다고 스스로 체크한 분은 25% 인 반면 보통이거나 낮다고 체크한 분은 각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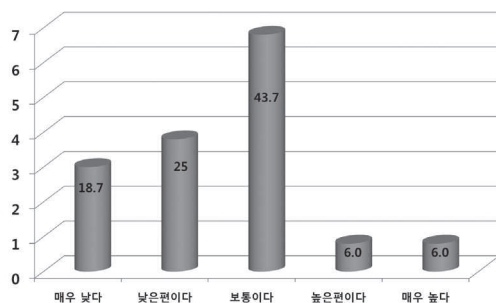
43.7%와 31.2%로 나왔습니다. 즉 응답자의 75% 정도는 본인의 전문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문성이란 기실 경험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데이터입니다만 한편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경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응답자의 87.5%가 '없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담당하는 부서와 담당자는 존재하나 주민자치센터를 담당하는 일선 현장의 담당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 되는 대목입니다.

각 동별로 진행되고 있는 업무를 일괄적으로 평가절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는 제법 난이도가 높은 일입니다.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역량 그리고 활동이 활발하다면 담당 공무원은 그야말로 서포팅 정도의 역할로도 충분할 수 있겠으나 기본이 아직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과 조건 속에서는 공무원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주민자치센터를 빨리 안정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는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업무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도 44% 정도는 특별한 호불호 없이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44% 정도는 본인



〈업무 만족도〉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편에 속해 있고 이는 만족도가 높다는 비율에 비해 4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혹시 업무의 만족도와 업무 경력 기간간의 상관성이 있을까 살펴보았으나 두 요인의 상관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업무 만족도가 낮다고 해서 문제 삼을 것도, 심각한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만족도가 낮은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그것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결코 만족도 그래프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상태에서 결코 높은 성과가 나오긴 어려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업무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관련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업무비중	설문결과
30~40%	37.5%
40~50%	37.5%
50~60%	18.7%
70%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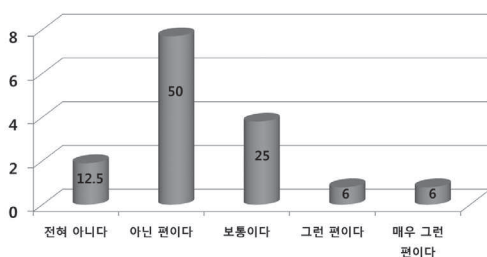
이 수치를 통해 즉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응답자 중 3/4 이상이 50% 이하의 업무배분을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관련 업무는 각 동별 환경과 조건에 따라 업무의 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데이터는 가치중립적이어서 이 데이터만으로 옳다/그르다, 혹은 좋다/나쁘다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데이터가 죽어 있는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유의미한 시사점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데이터와 함께 파악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업무의 양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인프라와의 연관성 정도입니다. 즉,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거나 혹은 그 결과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양이 작아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 업무를 축소시켜 다른 쪽 업무에 배치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인력운영 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 업무의 양이 제일 적다고 응답한 30~40% 응답자의 경우 해당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정도가 낮을 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도 없거나 1명인 경우 즉,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정도나 인프라도 매우 미비한 상태의 지역이었습니다. 결국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공무원의 업무량과 실제 배치 사이의 적절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정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정도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역시 다양한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활성화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지역 보다는(12%) 아직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지역이(62.5%) 약 5배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보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가야할 길이 꽤 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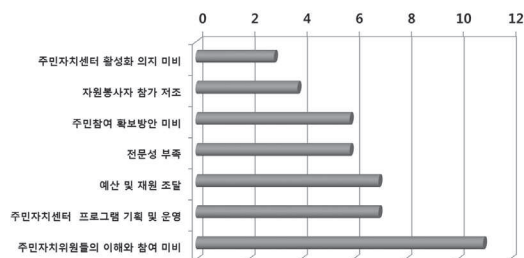
이것은 각 주민자치센터별 자원봉사자 숫자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10명인 곳(1개 지역)도 있습니다만 한 명도 없는 곳(1개 지역)도 있었고 2명 이내가 50% 이상이었습니니다. 자원봉사자가 없거나 적게 되면 프로그램 기획과 섭외 운영까지

담당 공무원의 몫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의 질이나 주민 서비스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결국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미비로 귀결될 개연성도 높게 되겠지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정도에 대한 객관적 지표가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활성화됐다 안됐다는 논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미비점·개선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자들에게 활성화가 안 되는 요인 다시 말해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순서에 따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복수 응답)

개선해야 할 사항	설문결과
공간/시설 등의 미비	8명, 25%
주민자치위원들의 노력 부족	8명, 25%
주민들의 참여의식 미비	7명, 21.8%
담당 공무원의 잦은 변경	3명, 9.3%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 미비	3명, 9.3%
이용시간대 제약	2명, 6.2%
프로그램의 미비	1명, 3.1%

이번 조사에 의하면 공간/시설 등의 미비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데 공간/시설의 경우 주민센터가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거나 신축하지 않는 이상 비용 문제 때문에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청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관내 다른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을 뿐더러 담당 공무원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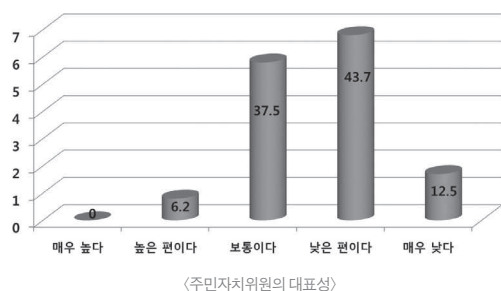


〈주민자치센터 운영시 애로사항〉

이와 함께 ‘주민자치위원들의 노력’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매우 컸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지적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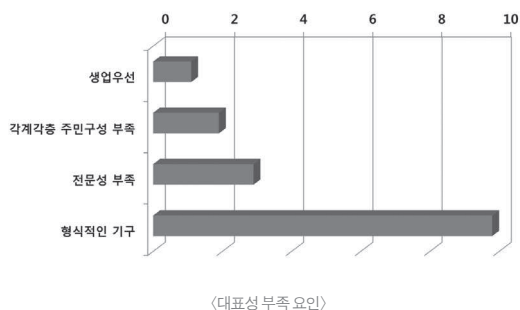
3.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

공무원들은 주민자치위원들의 대표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혹은 그 판단의 합리성이 어떻든 간에 대표성이 높다고 보는 것(6.2%)보다 낮거나 매우 낮다고 보는 쪽이 거의 9배 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은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표성이 부족한 요인으로는 다른 요인과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62.5%의 수치로 형식적인 기구라는 요인이 수위를 차지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지 주민자치센터만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마을잔치나 체육대회 등 큰 축제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



을 지원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평가가 정확하다고 할 순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는 최소한 일면의 진실은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은 마을축제와 같은 단발성·일회성 행사에는 강점을 보일 순 있으나 주민자치센터처럼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참여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어려운 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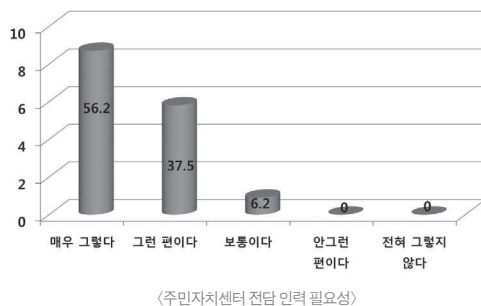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천편일률적이고 지역마다의 특색이 없다는 세간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인력과 예산 그리고 비좁은 공간 안에서 색다르면서 유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 운영에 관해 몇 가지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최적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18.7%가 매우 노력한다고 대답했고 그런 편이라는 25%, 보통의 수준은 50%라고 자체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프로그램 기획 시 조언을 구할 기관이나 인물이 있는가에 대한 조사에서는 그렇다와 보통이다가 각각 31.2%라고 응답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없는 편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25%이고 전혀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12.5%로 나타나 프로그램 기획 시 37.5% 정도는 관련 네트워킹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 시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단 1명이었고 보통이라는 43.7%인 반면 어려움을 느끼거나(31.2%) 매우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18.7%)을 합하면 응답자의 절반 정도까지 조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한 귀결이겠습니다만 프로그램 기획 시 조언을 해 줄 기관이나 인물에 대한 필요성은 보통이다 18.7%, 필요성을 별로 못 느낀다 12.5%를 제외하고 대부분 필요성을 느끼거나(43.7%) 매우 절실하게 느끼고(25%)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과 경험, 개인차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부족함을 보완해 줄 그 무엇에 대한 갈증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도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불어 담당 공무원들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응답을 보내왔습니다.



서두에 밝혔듯이 설문조사 응답률이 적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 다만 경향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의 데이터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한 질적 조사의 보완도 하지 못한 한계도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전제하면서도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보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담당자들이 미비한 시설과 부족한 자원봉사의 틈바구니에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대표성이 부족한 주민자치위원들이 여러 이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서 훨씬 더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 놓여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더 적극적으로는 전담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기관 중 하나인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단기간에, 한방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그래서 웹진 ‘와’에 현재 요구되는 자세는 완강함과 지구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부족한 설문조사 이외에도 이러한 방면에 지혜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들을 찾아 갈 것이고 새로운 모범적 사례가 있으면 지역을 불문하고 돌아 볼 것입니다. 그 속에서 희망의 불빛을 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나 지혜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설문조사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밝힌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이 주도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담당공무원이 전담하여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인 현실(업무과중으로 인해 프로그램 개발 및 특성화사업 운영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프로그램 및 사업을 추진하고 싶으나 추진 인력 및 시간 부족)
- 자치센터가 전문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 전담 직원(비공무원)을 두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주민자치센터가 당초 의도와 달리 자치위원회가 미비한 이유는 생업이 우선되기 때문에 월1회 회의 참석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동장 및 자치위원회의 센터운영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복지, 문화교육,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필요함.
- 강사 선정 및 교체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동 규칙 정비)
- 프로그램 내용의 충실화를 위한 수강료 및 강사비 현실화
- 주민 대상 방학 특강 운영(기본 운영비 보조금 교부 필요)
- 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기업 마케팅, 센터운영의 실례 등)
- 자치센터운영 자체에 대한 위탁은 어떨지..
- 전문성이 있는 강사를 모집할 수 있는 구인란이 따로 있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자치센터는 행정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 의해 직접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자치라는 이름하에 행정 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보여주기식의 행정이고, 주민의식이 아직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운영할 전담요원이 필요하니 전문성 있는 인력을 교육하여 배치하였으면 합니다.

이천시의 용감한 선택과 새로운 도전

발행호 (제10호) 2012. 07. 18.(수)

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장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하여(3) - 이천시 주민자치 학습센터

꺼병이의 십 원어치 머리 손질

몇 해 전에 별세한 길창덕 화백의 대표작 「꺼병이」를 아시지요.

꺼병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게슴츠레한 눈, 어리버리한 행동, 썩은 충치라는, 꺼병이 아이템 3종 세트를 두루 갖춘 주인공.

그 꺼병이는 원형탈모증처럼 머리 한 움큼이 빠져 있는데 혹 여러분은 왜 머리가 빠져 있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친구가 저에게 들려주기를, 엄마가 머리 깎으라고 돈을 주었는데 이발소에 가던 도중 군것질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이것저것 사먹다 보니 남은 돈이 십 원뿐인지라 그냥 집에 돌아가자니 어머니에게 뒤지게 맞을 것을 염려하여 타협책으로 이발소 주인에게 십 원어치만 깎아달라고 해서 그리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해준 친구 녀석은 워낙 우스갯소리와 장난을 좋아하는지라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진위여부를 각설하고 이야기를 더 진행시키면 이렇습니다.

꺼병이의 고뇌

꺼병이는 100원이라는 돈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엄마의 말대로 머리를 깎을 수 있고 아니면 만화방에 가서 만화책을 볼 수도 있고 입에 새콤달달한 떡볶이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재화는 한정되어 있으니 갈등과 번뇌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런 일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단위에서도 발생합니다. 한정된 재원을 두고 중앙부처간 로비가 벌어지기도 하고 예산안을 의결하는 국회의원의 이해 요구에 따라 예산이 늘거나 줄기도 하고 여차하면 여야간에 할리우드 액션 영화를 찍기도 합니다.

이천시의 용감한 선택

경기도의 4.5%에 해당하는 면적에 2읍 8면 4동에 20만 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는 도시 이천. 도농복합도시 이천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42.8%로 전국 도시 재정자립도 평균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며 2012년 예산은 약 5천 2백억 정도입니다.

5천 2백억이면 한 도시의 살림살이치고 결코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또한 시장과 시의회가 찰떡궁합으로 합의한다고 해도 5천 2백억이라는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5천 2백억 속에는 법률적으로 반드시 사용해야 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919명 공무원에 대한 급여 같은 것 입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 무상보육도 반드시 해야 하고 노후화된 시설도 보수해야 하고 수송 및 교통 분야에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고 나면 5천 2백억은 그야말로 손 안의 모래알처럼 금방 사라지고 그래서 실제 시장이 핸들링 할 수 있는 금액은 없거나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사업은 쉽게 시도하기가 어렵고 특히 급여처럼 경직성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라면 더 더욱 어려운 선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천시는 14개 읍면동 지역 주민자치학습센터(주민자치센터를 이천에서는 ‘학습’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주민자치학습센터라고 명명하고 있다)에 전문 평생교육사를 각각 1명씩 배치했습니다. 평생학습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강조한들 시 전체 차원에서 보면 당장 급한 사안도 아닐뿐더러 그렇게 자원과 인력을 투입한다고 해서 바로 눈에 확 띄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정된 재화의 배분은 일종의 풍선효과가 있어서 한쪽에 예산을 투입하면 다른 쪽에서는 예산이 줄어들기 십상입니다. 게다가 휘발성 높은 총액임금제 적용을 받게 되는 분야인지라 자칫하면 내부 갈등과 불만이 터져 나올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천시의 선택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용감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최초로 읍면동 주민자치 학습센터마다 전담 평생교육사를 배치한 이천시청 담당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의 평생교육사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이 사안을 먼저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 시청 담당 공무원을 만나보았습니다.



좌로부터 이천시 평생교육센터의 송성숙 평생교육사, 서성원 소장, 장병준 자치학습팀장

이 제도를 언제부터 시행했는지요.

이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것은 2004년인데 평생학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05년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고 이런 과감한 결정과 시 차원의 의욕이 반영되어 2005년도에 이천시가 평생학습도시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력수요는 모든 부서의 공통사안이고 총액임금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부의 이견이나 갈등 같은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럴 개연성은 있지만 그래서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관해 시장님 관심이 워낙 높고 열의가 있으셔서 큰 문제없이 추진되었습니다. 의회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주었고요.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의 성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성과를 꼽자면 프로그램의 활성화입니다.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주민여론을 반영하게 되니 자연스럽게 참여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읍면동 별로 평생학습 발표회 같은 것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계기로 참여 인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사는 행정과 민간 사이에서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평생교육사라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의 실정을 감안한 특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위촉된 각종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줄 것을 기대했는데 점차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서 요구되는 업무도 병행하게 되면서 행정과 민간을 묶어주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업무양도 증가하게 되었지요. 주민자치위원들의 경우 전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 일을 전적으로 담당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사들이 서포트를 해 주니 그분들도 더 열심히 하게 되었고 동기유발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사 업무양이 늘어나게 되면 보수나 혹은 신분상의 안정성 등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어려운 점은 없는지요.

평생교육사들이다 보니 평생교육 관련 업무만을 생각하고 참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업무라든지 대민 서비스라든지 기타 다른 업무를 병행하게 되니 업무량도 늘어나고 힘든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들도 매달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 인식을 개선시켜 나가고 있고 평생교육사들도 정기 모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사는 5년 단위의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신분상의 불안정성이 있는데 이것은 총액임금제라는 행정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만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도 차원, 더 넓게는 국가 차원에서 검토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인한 성과를 제 나름대로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 활성화라는 가시적인 성과 외에도 주민자치위원들의 의식이 개선되면서 위원회가 점차 실질화 되고 있다는 것과 단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넘어 마을 특성화 사업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점.

게다가 더욱 근본적인 것은 이천시민들이 평생교육에 대해 맛을 느끼게 되면서 평생학습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기제가 시장의 의지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새로운 시장의 의지에 의해 언제든 이 제도가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최고 결정권자의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 시민의 판단과 선택 영역으로 이동해야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평생학습을 향한 이천시의 노력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로자와 아키라의 '라쇼몽'이라는 영화를 보면 하나의 살인사건을 보는 시각과 진술이 사람에 따라 제각각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눈에 물대기 식으로 사건에 대한 해석이 객관성을 떠나 자신의 이해요구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상다반사의 상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시청 담당 공무원의 시각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하고 있는지, 직접 읍면동을 찾아가 담당 평생교육사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이연자 씨는 2010년에 채용된 후 지난 3월 이곳 창전동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공무원처럼 반드시 순환보직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닌데 읍면동 지역에 따라 근무환경과 조건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근무처를 정기적으

로 변경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동과 면단위는 여러 모로 차이가 나게 되는데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는 동이 훨씬 나은 조건”이고 “게다가 도회지이다 보니 젊은 사람들도 많아서 일전에는 20대 주민자치위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시청의 자체 평가를 염두에 두고 ‘지금 평생교육사들이 빠질 경우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해 물었더니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이곳 창전동은 주민자치위원이 25명인데 내부 실행력과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 보면 위원들 자체만으로 꾸려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업무 중에서 제가 해야 할 일과 위원들이 처리해야 할 일에 대한 명확한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서포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역할 구분이 분명치 않으면 나중에 혼란과 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도의 도입으로 변화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어떤 주민의 경우 단지 프로그램을 배우러 왔다가 많은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 분 스스로 주민자치위원으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주민자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 굉장히

좋은 일이지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넘어 동아리에 가입하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제가 전담을 하게 되니 주민 상담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임신 우울증에 걸린 주부에게 적당한 프로그램을 소개했는데 이 분이 나중엔 관련 자격증까지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제 일에 대한 자부심도 느낍니다”

그러나 이연자씨 역시 신분상의 불안함을 이야기 했습니다.

“일에 몰두 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네요”

부발읍에서 근무하는 이선미 씨는 2005년부터 일을 시작했으니 초창기 멤버 중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산증인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프로그램 활성화 중심 업무였는데 점점 업무가 늘어나더라구요. 어떨 땐 주민자치위원 경조사까지 챙기기도 했구요. 처음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할 때 제가 회의 기록부터 웬만한 모든 일은 다 처리한 것 같아요. 조례에 의하면 회계정리는 주민자치위원회 간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민간인 신분이니까 행정감사 나오면 감사는 결국 교육사들이 받게 되니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기도 했지요. 그래도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고 의식도 변화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14명이었던 초기 멤버 중에서 이제 이선미 씨를 포함 4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연고가 없는 분들은 장기간의 생활고를 버티기 힘들고 또 더 좋은 자리가 나게 되면 이직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평생교육사 제도의 도입으로 변화된 점을 말해 달라고 하니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 외에 마을 의제를 끌어내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도자기로 유명한 신둔면의 경우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특색을 살리는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도자기로 지도를 제작하기도 하고 버려진 굴다리를 벽화로 채색하기도 하면서 외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평생교육사들이 촉매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도 진행시키는데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선미 씨도 업무 여건 이야기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저희 업무 시간이 주 30시간입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일찍 퇴근하면 다른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신해야 하고 회의가 저녁에 개최될 때도 많고 주말 프로그램도 많아서 30시간만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이 일에 소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부 교육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동기부여가 잘 되어야 도전의식도 생기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도 생기니까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규모가 있는 읍과 동을 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면단위 지역의 현장 실무자를 만나 보았습니다. 손 경 씨는 2006년에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이곳 모가면이 3번째 근무지라고 합니다.

“직전 근무지가 장호원읍이었는데 그곳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업 볼륨도 클 수 있고 주민들 자발성도 높았습니다. 그에 비해 이곳 모가면은 지역 특성상 주민들이 참 순박하고 정감이 있지만 아무래도 저와 같은 평생교육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생각해요”

장호원에서 근무할 때에는 주민자치위원들과 업무 영역에 대한 구분이 매끄럽지 않았는데 다행히 이곳에서는 특별한 업무 마찰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 계시던 김복수 주민자치위원장께서 한마디 거들고 나섰습니다.

“위원장이 뭐 큰 벼슬이 아니거든요. 평생교육사와 잘 조화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사 나름대로 고유업무가 있고 전문성이 있는데 위원들이 월권행위를 하면 안 되지요. 다만 저희들은 의견을 제시해서 조율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사를 부러먹는 존재로 보면 안 되지요. 잘 존중해주어야 합니다. 업무적으로 평생교육사가 웬만한 일들은 다 커버를 해 주고 간사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만일 평생교육사가 없으면 참 어려울 겁니다”

마을의 변화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마을만들기 공모 사업 같은 것에 대해 주민들에게 신청하시라고 하면 잘 신청을 안한다. 그러나 위원회와의 회의를 통해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뽑힌 마을 의제를 가지고 주민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도 한다. 마을 주민의 의견과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이 결합되는 좋은 사례다. 서경 1,2마을의 경우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서 주민참여형 도자기 숯대를 만들게 되었다.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지고 전통장과 맞물리면서 관람객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본인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내비쳤습니다.



모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꿈나무 안심학교 모습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만 주민참여가 높아졌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은 주민자치와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기초가 되어서 이천이 평생학습도시로 발돋움하는데 발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곳 모가면에서는 일반적인 사업 외에 ‘꿈나무 안심학교’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꿈나무 안심학교란 2008년 초 안양에서 일어난 혜진이·예슬이 사건 이후 맞벌이 가정 자녀의 방과 후 돌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초등학교의 빈교실과 도서관 등 공공기관 시설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위탁사업은 대학교에서 주로 맡고 있는데 반해 모가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위탁을 맡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담 평생교육사가 없었으면 해당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모두가 좋아하는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이천의 사례

보통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에 ROI(Return on Investment)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 이 제도 도입 이후 나타난 변화의 성과들이 투입요소에 비해 미진하다고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업무 내용이 좀 더 확장되었으면 하는 사안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제도를 개선·보완시켜 나갈 것인지 아니면 폐기를 할 것인지는 오직 이천시민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제도가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는 유력한 혹은 유일한 방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천

은 이 제도 도입을 통해 평생학습의 기반을 확장시키고 있고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제도는 여타 지자체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해도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천시청의 송성숙 평생교육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1주일이 멀다 하고 각 지자체에서 이천의 제도를 벤치마킹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실화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의 방식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유력한 방도는 아니라고 말씀 드렸습디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이천의 사례는 유력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사람과의 미팅을 조율해주고 바쁜 업무 와중에도 곳곳을 안내해준 송성숙 선생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마을만들기는 사람만들기다

발행호 (제12호) 2012. 08. 14.(화)

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장

마을만들기 현장을 가다(1) - 시흥시 참이슬아파트

묻지마 마을 만들기

연세대 조한혜정교수는 『이제 다시 마을이다』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근대는 ‘마을을 버린 사람들’에서 시작해서 ‘마을을 만드는 사람들’로 끝날 것이다”

이때의 ‘마을을 만들다’라는 것의 의미는 새마을운동식의 삽을 들고, 길 넓히고 지붕을 개량하고 담벼락을 고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익명의 공간’을 ‘인간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며 거기에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허나 ‘마을’에 대한 개념, 그리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없이 돌격 앞으로 식의 밀어붙이기 사업이 되면 이는 차라리 안하느니보다 못한 결과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마을만들기는 십여 년 전부터 거센 바람이 불었는데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의 각 부처별로 이름만 다른 형태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거의 ‘묻지마 사업’수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결과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범죄는 사람들의 익명성과 무관심을 숙주로 삼아 더욱 창궐합니다

심심찮게 발생하는 살인이나 성폭행 범죄가 자극적으로 언론에 노출되고 나면 들끓는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제일 먼저 내놓는 만만한 해결책은 CCTV의 설치입니다. 그러나 고화질의 카메라로 24시간을 감시한다 해서 검거율은 높아질지언정 범죄율이 줄어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묵한 탓인지 카메라 증가가 범죄율을 줄였다는 연구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범죄는 더 지능화되고 폭력화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나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CCTV 공화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을을 인간의 공간으로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전한 하나의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은 그 어떤 격언보다 울림이 큰 메시지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마을 사람이 한 아이의 이웃이 되고 부모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마을은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

실히 필요한 것은 차갑고 날카로운 CCTV 카메라가 아니라 서로에게 보내는 따뜻한 관심과 배려입니다.

인간 종에 깊이 박혀 있는 유전자

아파트는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거주공간이 되었지만 한편으로 아파트는 공동체의 붕괴와 개인의 고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오브젝트가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은 불편한 타인이 된지 오래고 내 생활을 침범하지 않는 한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무관심 모드가 가장 편한 생활 패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염원은 비록 지금은 남루하고 퇴색되었다 하더라도 인간 종(種)에 깊이 박혀 있는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끊어진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망을 복원하려는 노력과 시도는 그 결과와 무관하게 존중과 박수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시흥시 참이슬아파트에서 전개한 힘겨운 고투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손사래를 칩니다만 참이슬 아파트는 마을만들기의 한 전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호에는 시흥시 참이슬아파트 관계자를 만나 그 과정과 경험을 들어 보았습니다.

참이슬 평생학습 마을만들기의 전사(前史)

평생교육사 300여명을 회원으로 2002년 설립한 비영리민간단체인 평생교육실천협의회(이하 평실협)와 그 조직을 이끌고 있는 이규선 회장을 먼저 이해해야만 참이슬아파트 사례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습니다. 시흥시에 등지를 튼 평실협은 평생학습을 하려면 ‘제대로’해보자는 생각으로 밀바닥부터 다지기 시작했는데 먼저 주목한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가지고 있는 평생학습시설로서의 가능성과 잠재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흥시 주민자치센터도 다른 도시의 그것과 크게 다를 게 없는 상황. 지난한 과정과 우여곡절 끝에 시흥시 14개동에 자원봉사 형태로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 활성화시키려고 했지만 격렬하게 반대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있는 동에는 결국 배치하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시흥시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평생교육실천협의회 이규선 회장

그리고 2006년에는 주민자치센터의 보이콧 속에서도 민간단체의 힘으로 제1회 평생학습축제를 치렀고 그 영향인지 시흥시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시흥시도 서서히 의식 변화가 진행되었는데 평실협은 시장님과 관련 공무원들 앞에서 브리핑을 통해 평생학습을 통한 마을만들기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일단 1개 지역만 시범으로 실시하기로 결정이 나게 되어 평실협 중심으로 이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규선회장은 평생학습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많은 평생학습도시들이 있지만 형식을 넘어 실질화,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아리를 많이 만들고 마을단위 거점을 활성화시켜야 하고 그래서 지역이 실질화 되면 도시 자체가 풍성해 질 것입니다”

참이슬평생학습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의 전개

“2007년 7월 경에 주민 한분이 공모사업에 신청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셨어요”

2006년 5월부터 입주자대표 회장을 맡고 있었고 시범사업이 전개될 당시에는 추진위원장 역할을 하였으며 지금은 참이슬아파트의 엔진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학교 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평범한 주민 양복근 씨. 참이슬아파트의 산증인이기도 한 양복근 씨에게 참이슬아파트의 변화를 확인하려면 양복근 씨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를 보면 될 것입니다. 마을만들기는 사람만들기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입증 해 주시는 분입니다.



평범한 입주민에서 참이슬학습마을만들기의 상징이 된 양복근 마을학교교장

1) 주민 참여를 위한 바닥 다지기

마을 리더 등 주민의 참여의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참이슬아파트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후 가장 역점을 둔 일은 주민들의 이해와 합의였습니다. 주민 참여가 없는 마을만들기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 그리고 참여를 위해 밑바닥부터 다지는 작업을 한 것입니다. 전체 944세대에서 700여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여 각종 사업의 기초자료로 삼았고 1년 동안 크고 작은 27차례의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231명의 주민과 비전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런 빈번한 모임은 주민들 간에 자연스

럽게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는 일이니 아파트라는 시멘트 덩어리에서 섬처럼 떠 있던 주민들이 이제 점차 선으로 연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2) 주민의 변화, 마을 리더의 양성

이 사업에 평신험 소속 2명의 평생교육사가 결합하여 지원을 하였지만 언제까지 외부 인력의 도움에 기댈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지속가능한 인적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리더를 양성하고 배출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 마을지도자 워크숍과 마을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수강생을 의식적으로 동아리 활동으로 연결하여 리더로 발굴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였습니다. 참이슬아파트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발굴되고 단련된 리더, 그리고 변화된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규선 사실 주민간의 갈등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 내부에 이제 그만 마을학교를 접자는 의견이 6대 5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단될 위기를 맞았죠. 그런데 변화된 주민들, 마을학교의 맛을 알게 된 주민들이 그 회의에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설득하고 의견을 표력해서 사업을 계속 할 수도 있었습니다.

양복근 이번 사업을 통해 마을리더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 거점공간의 확보

주민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기획·설계·운영하고 있는 마을학교는 참이슬아파트의 핵심 기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유아부터 실버세대까지 생애주기별 학습뿐만 아니라 가족체험프로그램 및 마을문화

를 일궈가기도 하고 학습동아리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18기째 이어져 오고 있는데 많을 땐 기수 당 300명 정도가 수강할 정도로 활성화되었지만 인근에 국민체육센터라는 막강한 기관이 들어선 이후에는 아무래도 수강생이 분산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이규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공간을 확보한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곳이 없어서 아파트 인근 교회를 빌려서 쓰기도 했는데 관리동 지하에 80평이나 되는 큰 공간이 활용도가 떨어지는 헬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곳은 외부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를 내보내려면 시설비나 관리비나 기타 금전적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지요. 근데 1,500만 원이라는 외부업자의 요구 전액을 마을기금으로 지불하고 그곳을 오로지 주민의 평생학습을 위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공간은 건물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주민들이 애써 멀리 기관을 찾아가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쉽고 편안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은 평생학습사회를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게다가 학습을 통해 변화된 주민이 마을의 공동체를 위해 기여를 하게 되기에 학습공간은 평생학습을 위한 중요한 기지이자 마을 공동체의 교두보인 쉼이나 공간이 그야말로 ‘평생학습’과 ‘마을만들기’를 수렴하는 능동적 개념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이슬아파트는 이렇게 없던 공간도 새롭게 창출하였고 기존에 있었으나 이용도가 극히 미미했던 도서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전부터 한 30평정도 되는 도서관이 있었지만 사실 일주일에 두 시간 정도 개방할 정도로 이용

률이 형편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독서지도사 양성 과정을 통해 주민 스스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주민들은 전문성을 더욱 높여 일류강사처럼 강의를 할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한 마을의 주축으로 점차 자리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양복근 마을학교의 경우 외부강사가 1/3정도 되고 재능기부를 해 주시는 분이 1/3, 그리고 아파트 입주민이 1/3 정도 됩니다. 각종 양성과정을 통해 발탁된 입주민 강사가 그 정도 된다는 것은 직업창출 측면에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을학교 교장이긴 합니다만 자체적으로 2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녀회나 노인회 그리고 입주자대표회 같은 분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서 이분들이 균형과 견제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긴 하지만 매주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기에 있었던 갈등도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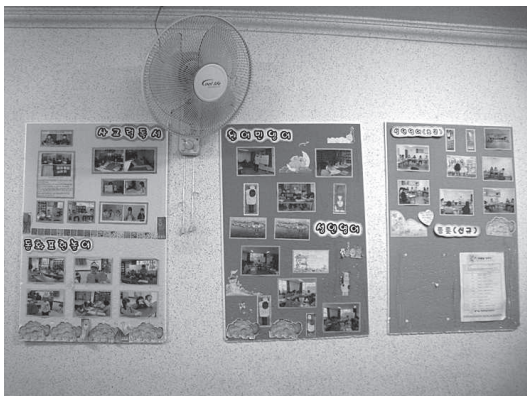
4) 마을 문화 만들기

양복근 우리마을은 이제 다양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는 사람이 많아졌지요. 예전엔 마을마다 골목길이 많았는데 골목길은 한편으로 소통의 공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엘리베이터를 골목길이라 생각하고 그 단절의 문화를 극복하고 소통하는 문화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에서 서로 다정하게 인사 나누듯이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매뉴얼도 만들고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이규선 수년째 매달 해 오고 있는 어린이 프리마켓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축제를 할 때도 가장 주목을 많이 받기도 하고, 아이들 스스로 참여하고 경험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생각해요. 이제는 아이들이 남대문 시장 상인 저리가라예요.

이 외에도 1년 동안 갖고 닦은 문화적 역량, 학습의 결과를 페스티벌을 통해 함께 나누는 행사를 합니다. 외부 협찬이 전혀 없이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준비하고 힘을 합쳐 축제를 즐기다 보면 마을주민으로서의 자긍심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이때도 가끔적이면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프로그램을 모색하게 됩니다.



마을학교 공간에 전시되어 있는 각종 활동 사진들

참이슬아파트는 평생학습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적 사례로 많이 소개되었고 지금도 각지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오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꼭 '성공'과 '실패'로 나누어 평가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마을만들기를 고민하는 많은 사람이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를 하고 있는 사례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 요인이 무엇인지.

이규선 보통 무슨 일이든 바텀 업(Bottom Up)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꼭 그것이 능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탑다운(Top Down)을 통해 시민을 자극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와 방식을 통해 구현해 내야겠지요. 따라서 저는 전문성을 가진 중간지원조직의 결합이 필

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외에 마을의 리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습동아리 시스템을 통해서 리더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내는 일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또한 길게 가기 위해서는 마을학교나 마을축제처럼 가시적 성과물이 있으면 더욱 좋지요. 마을축제 같은 것은 주민참여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창구니까요.

양복근 저도 전문성이 있는 안내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년간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마을의 리더가 중요합니다. 저는 내성적인 성격이라 추진위원장 시절에 스트레스가 참 심했어요. 건강이 악화되기도 했지요. 그런데 이제 즐겁게 일합니다. 아내가 아이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자고 했지만 저는 이곳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애착이 강하지요. 내가 사는 마을이 행복하고 화목하면 저도 행복한 것 아닌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생각이 참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이규선 교장선생님은 그간의 경험을 통해 관록이 붙으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기신 것 같아요. 이제 말씀도 논리적으로 잘 하시고, 또 다른 리더분들이 뒷받침을 해 주시니 즐겁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참 보기 좋은 변화이지요.

그러나 양복근 씨는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아무래도 했수로 6년 정도를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왔으니 그럴 만도 할 일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양복근 씨를 만드는 일이 필요한 듯 보였습니다. 다행히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전담 인력이 배치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참이슬아파트 시즌2가 시작될 모양입니다.

그리고 두 분은 공히 이런 사업을 할 경우 조금함을
버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규선 너무 성과에 집착해서 욕심내거나 스트레스
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마을마다 호흡이 다르거든
요.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기획하고 긴 호흡으로 지
치지 말아야 합니다.

양복근 저희도 기업 등의 스폰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소중히 하면서 길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규선 씨는 본인의 소망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67세가 되면 스스로를 정년퇴임시킬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배운 것을 가지고 제가 평생 살 곳에
가서 한번 제대로 된 마을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 마을은 저에게 노후를 책임져줄 거거든요. 사람
들이 얼굴을 알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 그것만큼
좋은 안전망이 없어요. 마을 구성원들의 노후를 보
장해 주는 마을, 멋지지 않나요”

돌아오는 길에, 저도 그런 마을에 살짝 손가락 하나
얹어 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이 글은 두 분과의 인터뷰 그리고 이규선회장님이 작성한 <
마을 평생교육사의 현황, 역할, 과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
성근 님의 석사논문 <평생학습마을 만들기에 나타난 평생교
육사의 직무분석>을 참조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 이번 글에는 수원시평생학습관 실습생 김혜련, 김진석 두
분이 인터뷰 정리와 사진 찍기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만들기에는 한 도시의 문화적 자원이 필요하다

발행호 (제14호) 2012. 09. 12.(수)

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장

마을만들기 현장을 가다(2) - 마을르네상스센터

지금으로부터 64년 전, 힌두교 광신도 총탄에 의해 쓸쓸하게 생을 마감한 한 사내. 비록 육신은 스러졌으나 여전히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내. 이 사내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는데 과연 누구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사소하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죄를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이 2개의 문장만으로 그 사내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래 2개의 문장을 덧붙이면 확신은 없어도 추측하기가 제법 수월해 질 것입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

“비폭력은 인류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해방된 즈음인 1948년에 세상을 떠난 간디 선생입니다.

인도에는 간디 외에도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가 또 있습니다. 간디와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인데 철학가이며 사상가이자 시성(詩聖)으로 추앙받고 있는 타고르가 그렇습니다. 1913년 동양인 최

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것으로 유명한 타고르는 한때 간디와 사상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만 ‘Mahatma(위대한 영혼)’라는 칭송의 시를 간디에게 헌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문단은 마하트마 간디가 남긴 말로 마치고자 합니다.

“미래 세계의 희망은 모든 활동이 자발적인 협력으로 이뤄지는 작고 평화롭고 협력적인 마을에 있다”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

식민지하에서 치열하게 민족독립투쟁을 하는 사람이라면 미래 세계의 희망은 ‘마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 척결’에 있다고 해야 할 듯한데 갖은 투옥과 고초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마을’을 이야기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의 희망은 마을입니다’라는 말을 하고 다닌 이가 있다면 ‘참으로 한가한 소리’라거나 국제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얼치기 민족주의자라고 손가락질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 아니 어쩌면 시간이 흘러서 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말은 이제 시대를 넘어 지역을 넘어 더 큰 울림으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마을에 대한 개념의 스펙트

럼의 폭이 넓은데 간다가 이야기 한 마을과 현재 대한민국 화두의 하나인 마을이 같은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나 ‘사람들 간의 공동체적 활동’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은 조한혜정 교수의 〈이제 다시 마을이다〉라는 책에 실린 이야기로 마치려 합니다.

“근대는 ‘마을을 버린 사람들’에서 시작해서 ‘마을을 만드는 사람들’로 끝날 것이다”

제가 만나 본 외국인, 특히 일본의 시민사회활동가들이 한국에 대해 매우 놀라워하면서도 부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시민사회의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힘입니다. 한국의 시민, 시민사회는 한국 현대사의 변곡점에서 결코 작지 않은 역할을 담당했고 어떤 이슈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을 리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강력한 활동의 이면에는 시민사회 역시 중앙집중적 시스템이었다는 한계와 반성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역과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과 하방은 자연스럽게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성장한다고 합니다. 지역에서 성과를 낸다는 것도 마치 농부처럼 끊임없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가능할뿐더러 일정한 소출을 내는 일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1990년대 들어 다양한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민운동, 도시빈민운동, 작은도서관운동, 공동육아, 협동조합... 주제와 대상은 달라도 바라보는 방향은 모두 같았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운동이 씨줄과 날줄로 엮혀 지역을 새롭게 직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마을’이라는 이름의 사업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역과 마을에 관심을 두고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는 일이었고 게다가

가 적지 않은 돈이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행정중심 사업이 자주 그렇듯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돈은 있으되 사람이 없었고, 사람은 있으되 비전이 없었고, 비전은 있으되 협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빈곳을 채워나가기 시작한 것은 이전부터 지역에 뿌리를 두고 활동한 시민사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7년 전북 진안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전국에 산재한 마을만들기 현장의 경험을 나누고 대안을 모색하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은 시의적절한 일이었습니다.



2012년 제5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가 개최된 창원시 행사장 인근 모습

애인이 떠난 뒤에는 쓸쓸함과 상처가 남지만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꼭 상채기만 남는 것은 아닙니다. 하다못해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새로운 방식의 고민과 도전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떠난 자리를 이제 지방정부가 조금씩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단순히 일회성 사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지속성과 조직성을 담보하여 한층 진일보한 형태의 관심과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례를 통해 뒷받침을 하고 별도의 전담부서를 꾸려 민관 거버넌스의 주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중간지원조직은 안산을 필두로 강

릉, 완주, 청주, 정선, 대구, 서울, 정읍, 부산, 광주 등 십여 곳이 됩니다. 수원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수원에는 제2부시장 직속으로 ‘마을만들기 추진단’이 있고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통해 수원 마을만들기를 이끌고 있는 ‘마을르네상스센터’가 있는데 2011년 6월 창립부터 지금까지 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이근호 센터장을 만나 보았습니다.



팔달구 신흥동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르네상스센터 사무실에서 이근호 센터장

최근 들어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고 행정 측면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간지원조직이 이처럼 많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이라 보십니까?

중간지원조직은 몇 년 전부터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준비 중인 지자체도 몇 개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작년 즈음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는 갑자기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이전부터 민간 쪽에서 지속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런 축적된 힘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가능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 될 수 있었던 것은 민선 5기 단체장의 관심과 정책적 의지가 결합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5기 단체장의 경우 예년과는 달리 주민참여, 직접민주주의, 소통 등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

졌는데 그러한 의지와 시민사회의 축적된 역량이 만나게 되면서 이런 중간지원조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취재 전 홈페이지를 살펴보았더니 마을르네상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도시를 문화와 복지,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삶의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실천하는 “마을공동체 시민운동”〉

그리고 마을르네상스를 작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제로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의 심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심사는 총 세 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먼저 서류심사를 하게 되는데 페이지의 내용 보다는 주민의 의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심사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못써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페이지를 잘 쓴다고 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진정성과 주민들의 준비 정도를 놓치지 않고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아이디어가 너무 형편없지만 았다면 가급적 진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공모사업의 진행 현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공모사업은 1회 때는 90건이 응모되어 58건이 선정되었고 2회 때는 96건이 응모되어 80건이, 3회 때는 75건이 응모되어 56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이후라도 저간의 사정으로 실행이 중단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작년 6월 이후 수원 지역에서는 약 190여개의 아이디어가 완료되었거나 실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공모사업의 분야는 공동체 프로그램, 시설조성사업, 공간조성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사업의 내용에 따라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긴 합니다만 대개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내의 사업이 많습니다. 분야로는 공동

체 프로그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요. 이렇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곳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전문가를 결합시키거나 필요하면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진행된 공모사업 중 인상 깊은 곳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신평동, 장안동의 70대 이상 할머니들이 지역 마실을 다니시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 흉도 보고 마을의 대소사에 관해 불만도 나오고 그랬지요. 여기에 작가들이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면서 스토리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고민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주요 공통 관심사를 정리하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자를 선발하게 되었지요. 이때 이십전십으로 3쌍의 부부가 결정이 되었고 그분들 이름을 골목대장이라 칭하면서 문제해결의 중심에 서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 마을 쓰레기 투기 문제였습니다. 보통 쓰레기 문제 해결이라고 하면 CC TV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이 마을에서는 기계적 장치 대신에 화단을 꾸미기로 했습니다. 대신 화단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 화단을 설치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골목대장이 그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목표인 화단 8개 만드는 것에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이제는 골목벽화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골목대장도 선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동네일에 애정을 가지고 책임지는 사람이 나오는 것은 소중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몇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190여 건의 아이디어가 실행되었거나 실행 중에 있는데 과연 실행 이후 어느 정도 자생력과 조직력을 갖게 되었는지. 마을만들기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일상적인 노력이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고민과 대안이 있어야 할 듯싶었습니다.

“저도 사람이 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는 사업에 행정이 지원을 하게 되는데 지원 형태가 참 다양합니다. 주민들의 팔과 다리가 되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형태도 있고, 그것은 주민들의 일이니 주민들이 스스로 힘을 합쳐 사업을 펼쳐 나가야 한다며 한발 물러서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할 순 없으나 저는 행정이나 전문집단에서 지원을 해 줄 때도 ‘당신들이 빠져 나왔을 때를 생각하라’라고 강조합니다. 그들이 빠져 나왔을 때 와해가 되면 안 되니 주민 스스로 더 많이 생각하고 일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민의 참여와 권리 의식이 더 높아질 필요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오직 주민만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명 이상의 주민이 발의를 해야 합니다. 주민중심을 놓고 보면 당연한 판단이고 올바른 방향성이겠습니까만 현 단계에서 주민의 자생성에 근거해서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는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원에는 지역에 결합해서 마을을 변화시키고자 애쓰고 있는 기관, 단체, 개인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획공모전을 실시해서 주제도 다양화 됐습니다만 지금 당장 단체가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완성태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바꾸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은 주민들 스스로 다양한 일과 경험을 하게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마지막 의문점은 질 관리입니다. 올해 들어 171건이

접수되어 136건이 선정되었는데 적은 인력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진행·관리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질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전북 진안의 사례를 검토하기도 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었는데요. 한 사람이 케어 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 5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마을르네상스센터만의 힘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을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다양하게

저희 수원도 그렇습니다만 역사가 오래된 진안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서도 각자의 조건과 처지에 맞는 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단지 머릿속에서 그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요. 끊임 없는 실천과 성찰과 도전 속에서 누적되어 가며 만들어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수원상을 그려가고 있는 도상에 있습니다. 수원은 일단 ‘시민에게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도전에 행정과 중간지원 조직들이 잘 서포트를 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리더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민들은 실무력이나 기타 여러 가지로 힘



센터에서는 마을학교, 도시대학을 통해 마을의 리더를 양성하고 있다.
(출처:마을르네상스 홈페이지)

만들려고 합니다. 다행히 수원에는 문화적 역량이 높고 다양한 그룹들이 존재합니다. 행궁동에만 해도 21개의 기관이 있고 KYC나 기린, 그리고 개인 작가까지 그 층과 폭도 넓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마을르네상스센터는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현장에는 이런 활동하는 그룹들이 주민들과 네트워크 되어 활성화될 수 있다면 단점이 많이 보완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원의 경우에는 예산뿐 아니라 전국 어느 행정조직보다 잘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는 2011년은 지역형, 2012년은 수원형, 2013년은 한국형 마을르네상스를 만들겠다는 단계적 목표가 있는데 목표대로 가고 있는지요.

들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다양한 사업의 기회를 통해 새로운 일꾼이 발굴되는 것을 보면 기분이 너무 좋고 이런 것들이 보람입니다.

혹자는 시설조성사업 같은 것이 무슨 마을만들기냐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하다 못해 투박한 마을 벽화 속에도 마을 주민의 희망과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벽화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벽화를 바라보는 주민을 보아야 합니다. 벽화가 무슨 마법의 부적이 아닌 이상 벽화 자체가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벽화를 그리기 위한 준비 과정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진행 과정 속에서 다투기도 하고 다 그린 후 서로 모여

막걸리 한잔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단순 거주자가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벽화는 마법의 부적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도돌이표처럼 우리는 다시 사람이 희망이라는 명제에 다가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의 고유한 개성이 있고 마을 일에 접근하는 입장의 차이가 있으며 그 결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는 사람마다의 결을 따라 함께 해야 할 방식과 내용이 달라집니다. 과연 그 힘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마을만들기의 폭과 속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는 단순한 담당 실무기관의 역량 차이를 넘어 한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행궁동과 지동 일원에서 마을르네상스 주간행사가 개최됩니다. 수원시 마을만들기의 오늘을 조망하면서 함께 내일을 꿈꾸는 행사입니다. 국제세미나도 있고 문화행사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지역 곳곳의 마을만들기 현장을 탐방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합니다. 별 좋은 가을, 자녀들과 손잡고 수원 속으로 걸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마을르네상스센터 www.maeulcenter.or.kr

“순무김치 장사하다가 졸지에 교수님 소리도 다 들었네... 꺄꺄꺄”

발행호 (제5호) 2012. 05. 09.(수)
글 남경아 수원시평생학습관 사무국장

강화도 온수리에서 순무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김정자 할머니(67세).

김정자 할머니는 48년째 온수리에 살고 있는 토박이로, 2011년 시작된 온수리대학의 <순무김치 대학> 인기 강사다. 온수리 대학은 2008년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어디든 강의실이 된다’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된 ‘○○는 대학’의 새로운 모델로, 청년들이 떠난 농촌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순무김치대학 외 100년이 넘어 2대째 양조장을 하고 계신 사장님에게 배우는 가업의 노하우 등 마을전체가 학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평생학습에 부는 새로운 바람

지식정보화 사회, 고령화 사회를 맞아 평생학습은 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열쇠로, 이 시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이제 평생학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취미정도의 교육이 아니라 지식정보사회의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는 1999년 평

생교육법을 제정하고, 2001년부터 『평생학습진흥중합계획』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총82개의 도시를 학습도시로 선정하였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은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체계를 갖추나갔다.

하지만, 그 동안 평생교육은 대부분 하드웨어가 갖춰진 평생교육 기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민들은 강좌를 수강하는 일정한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런 평생학습계에 최근 몇 년 전부터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시민들이 직접 학습 기획자로 나서 스스로 학습을 조직하고, 학습의 장소를 시설중심에서 거주지 중심으로 옮겨가는 등 평생학습이 변하고 있다.

다양한 시민주도 모델의 평생교육

시민들의 자기주도성을 발휘하는 대표적인 평생교육 사례는 대전의 배달강좌제를 손꼽을 수 있다. 배달강좌제는 5명 이상의 시민이 모여 특정 강좌를 원하면 어디든지 강사를 파견해주는 교육으로 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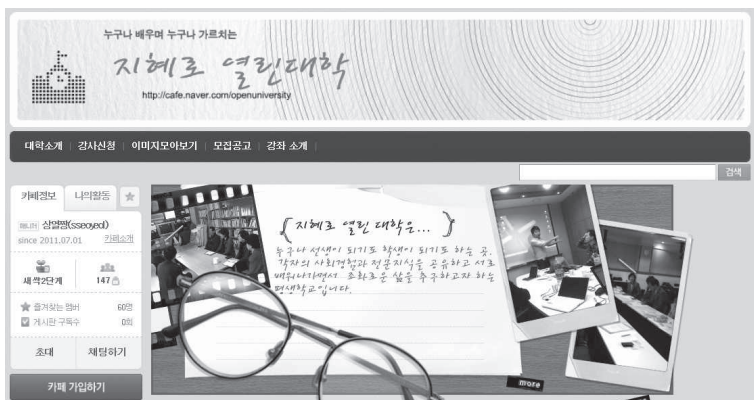


배달강좌제 <https://lll.daedeok.go.kr>

대덕구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어 이미 국내 10여개 도시가 벤치마킹하고 있다. 배달강좌제는 시민의 일상으로 다가가는 획기적인 평생학습으로서의 의의 뿐만 아니라, 열악한 자치구 재정으로 평생학습 하드웨어를 건립할 수 없는 현실을 수요자 중심의 학습서비스로 발상을 전환한 혁신사례이기도 하다.

서울 은평구 평생학습관에서도 작년부터 ‘숨은 고수를 찾습니다’라는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말 그대로 자신만의 노하우나 경험을 가진 숨은 고수들을 찾아내어 개인의 지혜가 지역 주민 모두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배움의 터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 모두 재능 나눔으로 이루어지며, 대학생, 주부, 만화가, 웃음치료사, 교육전문가,

NGO활동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강사로 참여해 아가자기한 교실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지혜로 열린 대학 <http://cafe.naver.com/openuniversity>

‘지혜로 열린 대학’은 희망제작소 은퇴자 교육 프로그램인 ‘행복설계 아카데미’를 수료한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학습공동체로 2010년 영국의 U3A(University of the Third Age)에서 영감을 받아 시작되었다. ‘지혜로 열린 대학’은 전문직 은퇴자들이 재능과 경험을 나누는 사회공헌의 첫 걸음일 뿐만 아니라, 누구나 자율적으로 학습을 조직하여

넘는다. 이제 평생학습 도시 수원에서도 새로운 시민참여형 평생학습 모델 씨앗이 뿌려졌다. 일명 ‘누구나학교’가 그것이다.

왜 강의는 전문강사만 해야 하는 거지?
왜 강좌는 학습기관에서만 개설해야 하지?
개인의 잠재된 능력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발휘될 수

수원, ‘누구나학교’ 도전장을 던진다.

수원은 전국에서 평생학습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진 도시 중 하나다. 크고 작은 평생학습 기관만도 170여개가

있을까?

학습의 공급자, 수요자의 관계는 고정불변일까?

도시의 지속가능한 지식생태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누구나학교’의 탄생은 위에서 제시한 사례들처럼 이런 물음들로부터 출발하였다.

누구나 학교는 삶의 경험과

노하우, 전문지식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강사가 되고, 새로운 배움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갖고 싶은 사

위를 어떻게 할지도 고민이 된다. 또, 전문강사들의 재능 나눔이 혹시나 타 기관에 오해를 불러일으키

지는 않을까 걱정도 된다. 그러다보니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정신에 입각해 운영되어야 할 ‘누구나학교’에 작은 규칙들이 자꾸 만들어 지고 있다. “아~ 어렵다.” 실무자들의 탄식도 들린다.



숨은고수 찾기 <http://edu.eunpyeong.go.kr>



누구나학교 <http://cafe.daum.net/suwonnuguna>(문의 070-4477-6518)

람이 만나 자유롭게 강의를 열고, 서로 배우는 시민 참여형 학교다.

아직 초기단계라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주로 평생학습관의 공간을 통해 이루어 지지만, 앞으로 발전단계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현재 강좌를 개설할 분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 대표, 시장상인, 동아리 회원, 주부, 대학생, 직장인, 전문 강사의 재능 나눔 등 다채롭다.

물론 걱정과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강의’는 전문강사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많아 ‘나도 강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기 어렵다. 좋은 뜻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영리기업의 참여 범

그럼에도 우리는 이 도전을 포기할 수 없다. 어머니의 손맛이 딸로 이어지고, 장인의 손길이 제자에게 전수되듯이 한 사회의 지식과 경험은 일상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물 흐르듯이 이어질 수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배움이 배움으로 그치지 않고,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지역사회로 흘러가는 평생교육의 흐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수원 누구나학교’도 이러한 시대흐름에 발맞추어 이제 작은 씨앗 하나를 던졌다. 부디 그 씨앗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잎과 열매를 맺게 되기를, 그리하여 시원한 나무그늘을 만들어 내기를 소망해 본다.

며느리도 참가하는 누구나학교

발행호 (제19호) 2012. 11. 21.(수)

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장

혹시 기억에 남는 광고가 있으십니까.

TV 광고는 단지 상품을 팔려는 홍보수단에 그치는 것을 넘어 트렌드 세터(Trend Setter) 역할을 하면서 술한 유행어도 제조하고 있습니다. IMF를 통과하던 시절 ‘부자 되세요’라는 외침은 우리들 욕망에 불을 질렀고 ‘짜장면 시키신 분~’은 전국망 건설을 통해 비교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던 모 이동통신사의 히트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추장 광고에 나왔던 신당동 떡볶이 할머니가 배시시 웃으며 강조 하던 말. ‘아무도 몰라, 며느리도 몰라’ 이제는 세월이 흘렀으니 가문의 비기(秘技)를 며느리에게 다 전수하고 할머니는 편안한 노후를 즐기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남에게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비기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 제품의 노하우를 지켜내기 위한 보안은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 넘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는 비기란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재능은 나눌수록 더 커져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픈소스의 대명사격인 리눅스가 그렇고 아예 사람들

이 갖고 있는 지식의 참여를 전제로 한 위키피디아가 그렇습니다. 또한 혁신의 아이콘 애플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도구를 배포하여 애플리케이션 제작을 일반인에게 허용함으로써 생태계를 풍성하게 만들었고 이는 오히려 애플의 강력한 경쟁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높은 진입장벽과 견고한 성채 속에 고고하게 나홀로 존재하는 지식은 이제 존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시대는 이제 지식을 어떻게 획득할까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을 어떻게 전파하고 활용할까의 시대로 진입하였습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재능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나누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물론 시민이 요구하는 혹은 시민에게 필요한 강좌를 기획해서 프로그램화시키고 보다 많은 시민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평생학습관의 주요 기능 중 하나입니다.

허나 이 시스템에는 분명한 한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먼저 ‘장사가 되는 프로그램 기획’에 집중된

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대부분의 평생학습시설은 수강료 수입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테 설사 무료 강좌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참여 할만한 아이টে에 먼저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인원이 참여 하지 않으면 폐강을 하거나 강좌를 취소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패턴입니다.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탑 다운(Top down) 방식입니다. 평생학습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무리 시대의 흐름을 읽고 시민적 요구를 반영한다고 해도 결국 프로그램은 그분들의 경험과 능력치에 근거해 구성될 수밖에 없으며 이 상황에서 시민의 참여는 고작 프로그램 소비자로서의 역할에 머물게 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자면 평생학습기관의 물리적 한계를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형 기관이라 하더라도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리적 한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무리 수원의 평생학습시설이 타 도시에 비해 양적으로 많다 하더라도 110만이 넘는 수원시민의 인구를 생각하면 연간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양과 질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시절, 월요일마다 운동장에서 진행되는 조회시간에 교장선생님의 훈화말씀은 끝날 듯 끝날 듯하면서도 오뉴월 엿가락처럼 질질 늘어졌습니다. 평생학습기관의 부족한 점을 들자면 교장선생님의 훈화말씀처럼 끝없이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규명’이 아니라 ‘대안’입니다. 자칫 대안 없는 비판은 공허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에서는 ‘누구나학교’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 속에서 축적된 지식과 재능 그리

고 지혜가 있다’고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일적 자본제 하에서 생활해 오다 보니 교환가치로서 기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타인에게 ‘비용을 받을 만한’ ‘특별한 무엇’외에는 감히 강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비단 강단에 선 교수나 화려한 파워포인트로 무장한 전문강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물론 깊은 연구를 토대로 한 전문적 지식영역도 있습니다만 생활 속에서 터득한 소소한 지혜도 우리 사회를 풍성하게 만드는 지식생태계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강의를 전문가의 고고한 성채로 묶어 두면 갈수록 시대와 유리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반 시민이 스스로 강의에 나서고 그래서 서로가 주체적으로 접속하게 되면 우리 사회가 훨씬 풍요로워지고 이 방식이 공동체와 접목하게 될 경우 그 지역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 설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재능과 지혜를 나누기 위해 스스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강의 계획을 짜고 시민은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신청을 해서 참가하는 시스템. 이것은 시민의 참여를 넘어 시민이 주도가 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체계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기관의 기획으로 낙하산처럼 떨어지는 프로그램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기획과 자발적 참여에 의해 사다리처럼 타고 오르는 형태. 그래서 누구나학교는 새로운 시대에 조응하는 평생학습 2.0 버전이면서 동시에 시민이 주도하는 사다리형 학습형태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아직 시작은 미약합니다. 첫 걸음을 떼는 자의 숙명이지요. 그러나 이 시스템이 가져 올 미래를 생각하면 자못 가슴이 뻑니다. 누구나학교는 평생학습관의 오리지널리티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보다 먼저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지혜로 열린 대학’이나 은평구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는 ‘고수를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은 기본 줄기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며 누구나학교의 튼튼한 플랫폼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누구나학교라는 이름으로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약 80여개의 강좌가 개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도 강사로 참여하였고 출판사 사장님 그리고 사회적기업도 한 몫을 담당했습니다. 단발성 강의로 끝나는 것도 있고 8회 동안 진행되는 강좌도 있습니다. 강의 경험에 있는 분도 계시고 난생처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타인 앞에 나서는 분도 계십니다. 내용과 형식, 참가자의 연령과 경험 등 다종다양한 형태의 누구나학교. 아직 강좌의 양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아쉬운 것은 있지만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더 큰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누구나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 두 분의 강사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먼저 ‘창조성을 깨우는 글쓰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 계신 김소라 님입니다.

어떤 계기로 참여를 하시게 되었는지요.

제가 <백년가약>이라는 독서모임을 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들르는 편인데 우연히 ‘누구나학교’와 관련된 안내문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에게 그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물었고, 듣다 보니 ‘어, 재밌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입시논술이나 엄마들 독서지도, 독서토론 강의 등이 경험은 있지만 글쓰기에 대한 강의 경험은 없거든요. 글쓰기는 자기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자기성찰의 중요한 도구잖아요. 현대 일반인들은 글 쓰는 것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글 쓰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 글 쓰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한번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직접 경험을 해 보시니 생각과는 달리 어려움이 있지 않던가요.

제가 독서동아리 운영을 2년째 해 오고 있는데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강사로 앞에 서서 진행을 해야 하니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누구나학교는 이번 달로 6회째 진행 중인데 매회 새로운 분들도 오시지만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참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 매번 다른 내용을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에게 들었던 강의나 공부한 내용을 종합해서 새롭게 준비하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약간의 스트레스는 발생하더라고요.

본인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요.

강의 내용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 도움이 되고 발전의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예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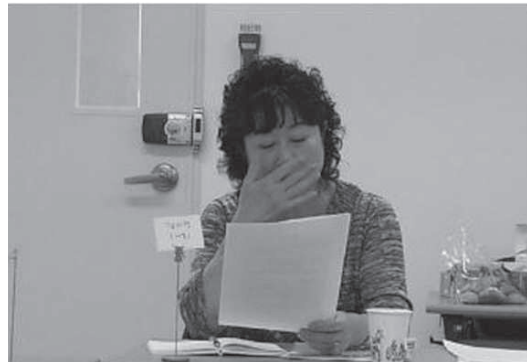
공부한 내용을 복습이라도 하게 되고 자료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강의를 하다 보니 강의 스킬도 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잘 알 수 있게 돼서 제가 도움을 얻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예전에는 주로 30~40대 학부모를 중심으로 만나 왔는데 지금은 20대부터 60대 까지 매우 폭 넓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돼서 네트워크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누구나학교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비록 외국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지만 저는 매우 신선했던 컨셉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보통 연단에 서는 것은 경력이나 전공이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누구나 학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재능을 끌

도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고 사람들에게도 인식의 전환을 시켜 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소라 씨는 다음과 같은 제안도 잊지 않았습니다. “학습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많은 분들이 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을 보면 커리어가 참 화려해요. 독일에서 20여년 공부하신 분, 영국에서 교수를 하신 분... 게다가 책을 출간한 저자도 계시고 시 부문 수상 하신 분도 계시요. 미술치료사를 하신 분도 계셔서 제가 제안을 했으나 아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면 기뻐하기 마련이잖아요. 제가 제안을 해서 지금 주부들과 함께 생활영어 강좌를 연 후배가 한 명 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더 많은 분이 참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김소라 씨의 강의장 풍경.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http://blog.naver.com/sora7712>

어내서 연결시켜 주는 것이잖아요. 이런 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보니 스마트폰 관련한 강좌가 있더라구요. 이런 것은 보통 강좌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내용도 누구에게는 참 유용한 강의가 될 수 있잖아요. 비록 크진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능력을 인정해 주고 강의의 장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 그리고 이런 것을 누구나학교라는 타이틀을 걸고 시

누구나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과 대안이 필요한데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장에는 역시 ‘어떻게 이런 것이 강의가 되겠어?’라는 콘텐츠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에이 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재주가 없어’라는 교수법 문제입니다. 보통은 이 정도의 인식회로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김소라 씨가 주문한 적극성이 평생학습관에 더 요구되어 지는 것이 사실입니

다. 그리고 당연히 누구나학교 시즌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분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야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만분, 그러니까 하루 3시간씩 10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직접 해 보는 것입니다. 산 속에서 10년 동안 육십갑자의 내공을 쌓은 후 강호에 뽐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정도를 사람들과 교류해 나가면서 수정하고 더 명확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는 스스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타인과의 교류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그만큼 단련되어 나가기 마련입니다.

평생학습관 사무실에는 매주 수요일 점심 무렵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와서 복사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당연히 눈길도 가고 궁금했는데 마침 그분은 김소라 씨 권유로 주부들과 함께 생활영어 강의를 하고 계신 김영진 씨였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엄마 품에서 쉼쉼 잠을 자고 있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나요.

애를 낳으면 경력단절이 되기 쉽고 또 애를 돌보다 보면 다른 일을 하기 쉽지 않잖아요. 현대 아이를 돌본다는 이유로 영어를 놓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과 소규모로 영어 공부를 했어요. 애를 엮고 안고 하면서 공부할 곳도 마땅찮은데 그래도 자리 잡고 앉아서 하니까 되더라구요. 그러다 권유를 받아서 살펴봐왔더니 집하고도 가깝고 편찮은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는 아이를 엮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저도 적극 권장하고 있어요. 아이를 안고 공부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고 그런 공간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애기 엄마로 살다보면 자기 계발이나 공부를 등한시 하게 되는데 그래도 집에만 앉아 있는 것을 싫어하고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려는 욕심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직접 경험을 해 보시니 어떻습니까?

제일 큰 어려움은 아무래도 아이 문제입니다. 아이가 아프거나 하면 수업준비도 그렇고 아예 수업을 못할 수도 있고, 아이 문제가 아니라면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데 아무래도 학원이 아니다보니까 교재를 강제로 구매하게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 제가 일일이 복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요. 그리고 누구나학교는 다 무료이고 강제성이 없다보니까 사람들이 꾸준하지 않고 들락날락 하는 것도 좀 안타깝더라구요. 지금 5회째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숙제도 내주고 또 외워오라고 주문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은 불편해하죠. 근데 외국어는 끊임없이 사용하고 필요하면 외워야 하는게 있거든요. 지금까지 꾸준하게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 말씀이 갈수록 재밌어진대요. 이제 서로 좀 알게 돼서 부끄러움도 열어 지고 또 제가 내준 숙제가 있어서 공부를 할 때 아이가 보채면 “엄마 공부해”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서 좋대요.

누구나학교 참여 이후 변화되는 점이 있습니까?

사실 마음 단단히 먹어도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누구나학교를 하기 때문에 영어를 놓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학교가 아니었으면 공부하거나 책을 볼 일이 없었을 거예요.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영어는 더욱 사용안하면 발전은 커녕 퇴화되기 십상이거든요. 물론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의 레벨이 높지 않지만 그래도 복습을 한다는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노래도 준비해야 하니 한번이라도 더 듣게 되니까 아무래도 저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요.

누구나학교를 평가하신다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괜찮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주부는 아무래도 지출에 대한 부담이 있게 마련인데 강좌도 무료이고 또 하나를 듣다보면 다른 강좌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어 여러 개를 듣기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듯하니 평생학습관에서 좀 더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아이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나 혹은 본인의 이력에 플러스를 시키려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 이후로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누구나학교는 열린 학교이니까 제가 강의를 주도한다기 보다는 다 같이 함께 참여하자는 의미에서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누구나학교만이 갖는 의미가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인생 첫 강의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PC통신이 대유행을 하고 컴퓨터가 핫 트렌드가 되었음에도 저는 담을 쌓고 모르쇠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에게 강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친구는 당시 인터넷 관련 책을 출간하면서 나름 잘나가는 강사였기에 강의 요청이 밀려 있었습니다. 요청을 거절하려는 친구에게 대신하겠다고 하니 그야말로

‘택도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대에서 요청했다는 이유 하나로 시작된 욕심, 그날 이후 저는 관련 서적을 다 모아서 열공에 열공을 더 하고 필요하면 화장실에서조차 암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강의는 택도 없는 시작이었지만 다행히 손가락질 받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나학교는 저처럼 용감무식한 강의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꿈지락샘의 요리교실’이나 ‘종이선생님의 행복한 비누 만들기’처럼 생활 속의 이야기를 풀어 놓을 수도 있고 청명고 권용찬 학생(페이스북과 트위터 배우기)이나 아름다운청년 성도영 씨(커피와 함께 하는 통기타교실)처럼 세대 간을 연결시킬 수도 있고, 좀 더 전문적인 기능으로는 경매전문가의 재능나눔으로 부동산 경매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나눔의 다른 이름은 마법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지혜나 지식 그리고 재능을 우리 사회를 위해 내어 놓을 때 또 다른 누군가가 호응하며 나눔의 행렬에 동참할 것이고 그 행렬은 우리 지역을 마법처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지식이 나누어져서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타인과 접촉을 하게 되고 그 접촉을 통해 우리는 이웃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지혜의 품앗이인 누구나학교는 그래서 단순히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이 아니라 우리지역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라,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은평구 〈숨은 고수를 찾아라〉를 찾아서

발행호 (제20호) 2012. 12. 05.(수)

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장

외국 영화가 한국에서 상영될 때 본래의 제목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한국영화가 외국에서 상영될 때도 동일한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도가니>가 미국 극장에 걸릴 때는 ‘침묵당한’이라는 의미의 <SILENCED>로 바뀌었고 탁구 남북 단일팀을 영화화 한 <코리아>는 ‘하나 되어’라는 의미의 <AS ONE>이라는 개명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것은 해당 국가의 문화와 정서를 반영하는 마케팅 결과이니 별로 이상할 것은 없는데 오래전 만화영화인 <엄마 찾아 삼만리>가 한국에서 제목이 바뀌게 된 것은 조금 색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옆의 포스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만화영화의 본래 제목은 <엄마 찾아 삼천리>입니다. 헌데 한국에 들어 올 때는 어찌된 일인지 ‘삼천리’가 ‘삼만리’로 거리가

열 배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직역을 해도 제목 자체가 영화의 내용과 주제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개명해야 할 이유가 보이질 않습니다. 합리적 추론을 해 보자면 주인공 마르코의 험난한 여정을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 거리를 늘인 것 아닌가 하는 정도인데 이것도 좀 과장되어 보이기 때문에 적절한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거나 말거나 식의 주장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즉, 당시 <삼천리자전거>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간접광고의 가능성을 고민하다 결국 삼만리로 변경시켰다는 속설입니다.

개명이야 어찌되었든 <엄마찾아 삼만리>는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되었고 이후에는 극장용 영화로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아들을 찾아 길을 떠나는 것도 잔한 일인데 어린 아들이 엄마를 찾아 이국땅을 헤매는 과정은 곱빼기로 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찾는다는 아주 단순한 서사구조이지만 여기에 다양한 사건을 덧붙이면서 아이의 성장담으로 까지 확장시킨 꽤나 많은 만화영화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마르코가 아르헨티나 밀항을 감행한 것은 엄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는데 그러면 은평구평생학습관에서 ‘숨어 있는 고수’를 굳이 찾으려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과연 숨어 있는 고수들을 잘 찾아내고 있을까요. 중국에는 엄마를 만나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처럼 은평구평생학습관의 미래도 희망으로 이어질까요.

이런 점을 알아보기 위해 은평구 역촌동으로 향했습니다. 은평구평생학습관의 수탁 주체는 명지대학교로서 희망제작소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수원시평생학습관처럼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안산시평생학습관도 안산대학교에서 위탁운영을 맡게 되면서 민간위탁 운영 기관은 이제 전국에 3곳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위 3개 기관이 좀 더 남다른 모범과 성과를 창출하여 평생학습시설이 민간위탁으로 더욱 전향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차후에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평생학습관이 지금과 같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시작한 것은 2010년 6월이었으니 수원보다 1년 4개월 정도 앞섰습니다. 그리고 올 초부터 서서히 <숨은 고수를 찾아라>라는 프로그램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눈썰미 좋으신 분은 눈치 채셨겠지만 은평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숨은 고수를 찾아라>라는 프로그램은 수원시평생학습관의 <누구나학교>와 유사한 목표와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한 몸의 두 명의 생명체가 깃들여 있는 쌍둥이처럼 이름만 각기 다른 프로그램이 하나는 은평구에서 다른 하나는 수원에서 지금 각자 새로운 도전과 실험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숨은 고수를 찾아라>의 현재를 살펴보는 것은 <누구나학교>를 돌아보고 미래를 점쳐보는 일일터. <숨은 고수를 찾아라>를 기획하신 은평구평생학습관의 김미윤



총괄팀장님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는지요.

제가 교육학을 전공했는데요 공부를 할 때도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니 영국의 U3A나 프랑스 등에서는 이미 실행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학교 시스템이야 그렇다 해도 학교 밖 체계에서도 강사 중심의 강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이 가지는 한계랄까 단점이 보여서 이런 획일화된 방식을 좀 탈피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고민의 씨앗을 가지고 있으면서 은평구평생학습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이곳 역시 조례와 운영규정에 근거한 패턴화된 강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좀 재미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동아리분들을 지원하면서 ‘그러면 주민참여를 일구는 의미에서 이분들과 함께 기획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싶었고 그때부터 프리하게 논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야기를 좀 더 나누다 보니 다양한 아이디어가 오고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고수’라고 명명했다가 ‘그래 숨어 있는 보석을 한번 캐보자’까지 논의되었고 결국에는 ‘숨은 고수’라는 명칭으로 정리되게 되었습니다.

목표와 현실은 간극이 있기 마련이고 갈등과 충돌이

왕왕 일어나는데 팀장님이 보실 때 처음의 기획대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자리를 잡은 것은 생각보다 빨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으니 고민과 걱정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먼저 광고를 하게 되었는데 차츰 주위 분들의 소개도 늘어나고 동아리분들의 추천과 참여가 이어지면서 빨리 안정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월 평균 10~15개 강좌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은평구 내에 있는 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그 지역에 맞는 고수 프로그램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면 뭐랄까 강사와 수강생의 경계 같은 것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경계와 벽마저 허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단계 도약을 위한 고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의 주민자치센터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얘기
해 주시죠.

은평구에는 16개의 동이 있는데요 저희 평생학습도시계획 안에 의하면 이런 주민자치센터와 크고 작은 도서관을 창조센터라는 이름의 거점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개의 주민자치센터와 접촉을 했는데 그 중 4곳에서 관심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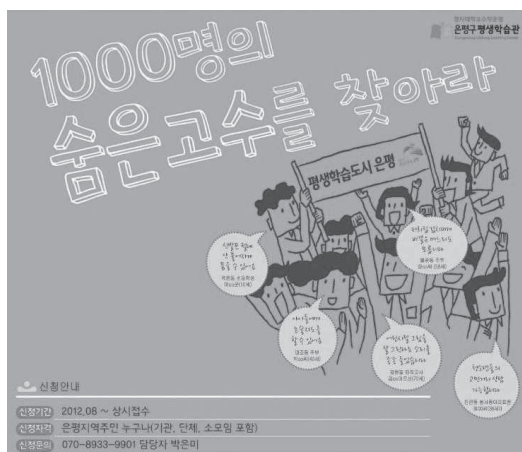
가지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응암3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번 가을에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SNS나 미술 프로그램 등 기존 주민자치센터에서 하지 않았던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접촉과 논의 과정 속에서 그곳 팀장님과 주무관님의 이해도가 높아져서 MOU를 맺게 되었고 내년부터는 응암동 지역의 고수분이 그곳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시민들이 확실히 체감하려면 양
적으로도 다양하면서 질적으로도 수준 높은 강좌가
지속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활로를 어
떻게 찾으실 계획인지요.

저희 학습관 사업을 도시 전체 사업으로 연결시켜서 사이즈를 키울 계획인데요 결국 거점지역으로 녹아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점이 학습관 한곳이라면 한계가 명백하잖아요. 그래서 거점을 통해 판을 새로 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수 프로그램도 그냥 이런 식으로 가면 한계에 봉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강좌와는 다른 독특한 프로그램도 기획·발굴할 필요성이 있고... 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돌파구는 결국 지역 거점을 잘 살려서 그 지역의 실정과 조건에 맞는 사람을 잘 발굴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은평구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면 다
음 단계로는 지역을 중심으로 접근하겠다는 계획이
시네요.

저희 학습관의 중요한 컨셉은 ‘마을’인데요 일반 시민들은 마을만들기와 평생학습의 관계를 잘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마을만들기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지역의 일꾼 풀이 그렇게 풍성하지 못하거든요. 제한된 분들이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셈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수 프로그램은 새로운 일꾼을 발굴하는, 그분들 입



은평구 <숨은 고수를 찾아라> 포스터 (출처:은평구평생학습관 블로그)

장에서 보면 지역 활동에 데뷔하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지역에서 일하실 분이 교수 프로그램을 통해 이렇게 많이 배출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또 하나는 저희가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은평구에는 큰 도서관도 있지만 작은 도서관까지 합치면 40~50여개 정도 되는데 도서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지만 대부분 자원 활동가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비로소 너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너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라는 시처럼 그분들의 활동을 인정하고 이해해서 그분들 하는 일에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분들이야말로 실질적인 고수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별로 숨어 있는 고수를 잘 발굴하는 것과 더불어 잊혀지기 쉬운 소중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게 보면 지금은 시작단계입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성과를 꼽으라면 어떤 게 있는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참여자의 변화입니다. 저희는 강좌 개설 신청자가 있으면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열 것인지에 대해 듣고 조언을 해주면서 명석을 깔아 드리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그분들의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발휘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눈에 보이니까 저희들 자체도 평생학습에 대한 쾌감 같은 것을 느끼기도 하고요. 사실 라이선스가 있는 전문 강사를 통한 강좌에서는 이런 것을 잘 볼 수 없잖아요. 평범한 시민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강의를 열고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변하고 또한 그 강좌를 들은 분이 또 다시 용기를 내어 강좌를 여는 선순환 과정은 교수 프로그램에서만 맞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런 과정은 학습관에서 기획하는 강좌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일들이지요. 처음엔 생소했지만 이제 주민분들이 교수라는 용어에도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교수 프로그램을 진행한 분들과의 간담회 모습(출처: 은평구평생학습관 블로그)

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항상 예기치 않은 일들, 감동 같은 사례들이 나오는 법인데요. 맞아요. 저희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에 좌절을 하고 집에서만 숨어 지내던 20대 여성이 있었는데요. 한번은 그분 어머니가 억지로 리본강좌를 듣게 했어요. 강제로 끌려 나오다 보니 늘 구석에서만 맴돌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대부분 주부인데다 아이들도 옆에서 놀고 그러니 무슨 마실 같은 분위기 인거예요. 그런 분위기에 조금씩 젖어갔는데 게다가 그 강좌를 맡고 계신 숨은 고수 선생님이 워낙 열성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과정 속에서 그 젊은 여성의 마음이 조금씩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지금은 리본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이것은 그분뿐 아니라 강좌를 맡은 선생님에게도 자부심을 갖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사례를 들 수 있는 것은 목회자인 남편을 따라 미국 유학길에 나선 주부 이야기입니다. 낯설은 미국에서 십 년 동안 살림만 하다 보니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는데 그걸 극복해 보려고 여러 가지

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귀국해서도 아이랑 만
지내다가 우연히 고수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강좌
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딱히 한 가지 주제
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예를 하다가도 영어
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본인이 우울증을 극복한 이
야기를 풀어 놓기도 하고... 한마디로 버라이어티쇼
를 한 것이지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의 강점이 여기에
있다고 봐요. 예측을 넘어서는 의외성과 관계. 단순
히 공예 스킬에서 시작했다가 중국에는 힐링 프로
그램으로 변했어요. 저희는 강좌 오픈 전에 면담과
정을 거쳐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개인 이력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영해서 강좌를 여는데요
본인을 오픈하고 열려 있는 분이 지속적으로 꾸준
히 강좌를 해 나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사랑방
같은 크고 작은 프로그램들이 저희 학습관에 활력
을 불어 넣고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하게 열고 있는 고수 프로그램 모습 (출처: 은평구평생학습관 블로그)

이 글의 서두를 <엄마 찾아 삼만리>로 시작했습니다
만 엄마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있다고 해서 다 엄
마를 만나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쉽지
않은 일이지만 길 위에 나서지 않는 한 결코 그리운
엄마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기존과 같은 방식의 평생학습이 갖는 한계를
인식한다고 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것은 아
닙니다. 비록 어렵고 고된 일이지만 새로운 도전과
모험에 나서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만화영화처럼 해피엔딩의 결말이 준
비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예정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허나 벌써 길이 만들어지고 있습
니다. 비록 몇 걸음 되진 않지만 우리가 걸어 온 발
자국이 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로 더 많은 사
람이 오갈 것이며 지금과는 또 다른 길이 만들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미윤 팀장님의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 계속 누구
나학교가 오버랩 되었습니다.

기존 평생학습 체계의 한계에 대한 인식, 숨은
고수를 찾아내는 과정의 어려움, 배움과 가르침의
경계를 어떻게 해체할 것인지, 이 방식을 어떻게 좀
더 지역에 밀착시켜 새롭게 도약 할 것인지... 새로운
길에 나선 사람에게 닥치는 고민과 어려움을 은평
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종의 동병상련입
니다. 그러나 지금 제기되고 있는 어려움은 현재의
조건일 뿐이지 결코 한계일 수 없습니다. 은평은 이
제 2단계 도약을 위해 현재의 조건을 발판 삼아 달
려 나가고 있습니다.

은평의 <숨은 고수를 찾아라>나 수원의 <누구나학
교>가 기존 평생학습체계의 틈새를 메워주는 보완
재가 될 것이냐. 아니면 대체재로서의 가능성이 있
느냐. 사실 이런 성격 규정은 아직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시민참여를 넘어 시민주도형인 이 시스템
은 아직 어떤 개념으로도 포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 관심사는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 변화
하고 중국에는 지역의 변화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게
할 것이냐 입니다.

아직 시작은 미약하나 담대한 도전과 실험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수원과 함께 같은 길을 걷는 도반인 은평구 평
생학습관에게 깊은 평화가 함께하기를.

수원시 평생학습관 평가 좌담회

발행호 [제15호] 2012. 09. 26.(수)

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장

“초심을 잃지 않고 허브 역할을 잘 해주기를...”

- 일 시 : 2012년 9월 13일(목) 16시
- 장 소 : 수원시 평생학습관 2층 회의실
- 참석자 : 이성엽 교수(아주대), 이지은 간사(수원YMCA), 허윤범 간사(지역사회복지협의체)
권지현 상담사(평생학습관 상담실 봉사자), 정성원(평생학습관 관장, 진행)

우리시대의 가객 김광석 씨는 〈이등병의 편지〉를 불렀는데 노랫말 중에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도돌이표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새로워질 뿐 아닌가 합니다. 보다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결별해야 할 낡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야 하는데 이것은 스스로의 성찰로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평생학습관은 개관 1년을 맞아 보다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냉정하고 날카로운 객관적 평가를 받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 몇 분을 모시고 평생학습관의 역할과 방향 그리고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 사실 자체가 틀리거나 구체적인 질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토론에 개입하지 않고 경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좌담회를 통해 제기된 사안들을 잘 새겨들어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혜를 나눠주신 참석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희망제작소라는 서울의 외부 기관이 위탁받은 것에 대한 수원에서의 평가와 시각

허윤범 관련해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어서 부정적인 정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개인 의견을 말하면 우선 반가웠습니다. 위탁기관이 수원에 소재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이라는 곳은 어찌 보면 지역성이 약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에서 일을 하다 서울 등지로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다시 말쑤드리면 위탁기관의 소재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원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은 저도 위탁기관이 희망제작소라는 것에 대해 대화가 오고간 것은 없는데요 지역사회에서 일하다 보면 회의나 모임이 있어서 나갈 때 대체로 비슷한 단체와 비슷한 사람을 보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알음알음, 유사한 사람끼리 진행해왔던 것들이 학습관이 생기고, 와글와글포럼 같은 행사를 와보

면 유유상종이 아닌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작은 단체들도 만나게 돼서 좋았습니다. 그냥 뻔한 프로그램이 아닌 색다른 프로그램을 접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이성엽 앨빈 토플러의 말을 빌면 세상의 속도에 대한 대응에 기업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이 시민사회이고 가장 늦는 것이 학교나 공무원조직이라고 합니다. 물론 함부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의 교육적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업은 구상부터 진행되는 방법과 방식이 앞서가고 있고 세련되게 구성되어 있지요. 하지만 기업은 사회 기여, 공유하는 측면에서 매우 약합니다. 노하우라고 잘 알려주지 않죠. 기업교육의 측면에서 HRD의 방법과 콘텐츠 등이 접목되고 전수되고 있지 않는데 그런 측면에서 학습관은 시민단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아이템도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이 기존 평생교육시설의 강사 중심 프로그램보다 옛지 있고 더 나은 면이 있습니다. 꼭 희망제작소가 아니어도 다른 단체들이 평생교육에 접목시키는 소통의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희망제작소가 위탁을 맡아서 잘되었고 또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델이 돼서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이해관계를 벗어나면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국단위로 이러한 업그레이드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지현 사실 희망제작소가 위탁했는지 수강생들은 잘 몰라요. 연령이 높거나 공무원분이 오시면 물어



볼 때가 있는데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개인 취향으로 인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평생교육 기관은 보통 다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곳 평생학습관에서 와서 특화된, 지금까지 잘 볼 수 없던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학습관이 위치한 곳이 미개발 지역이라는 특성도 있고 홍보도 잘 되지 않아서 초반에는 잘 어필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분당, 안양, 안산 등에서 많이 찾아오고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면으로 봤을 때 좋은 프로그램은 많은데 이것이 시민들의 수준과 욕구에 잘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윤범 일정 부분 부정적 시각이 있다면 아마도 외부의 큰 기관이 와서 수원을 잠식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희망제작소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라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지역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계속 지역에 있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장기적인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성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일관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학습관의 역할에 대한 평가. 규모가 큰 대표적 평생학습시설로서 유익한 강좌를 많이 개설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거점기관으로서 강좌 개설은 물론이고 다른 기관들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 즉, 허브의 역할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견으로 나뉠 수 있다. 학습관의 위상과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허윤범 예전에 시청에서 운영하던 평생학습센터와 지금의 평생학습관이 혼동되기도 했습니다. 포털에서 검색을 하면 아직도 평생학습센터 검색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센터와 학습관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수강생들은 더욱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합니다.

이지은 예전에는 시와 소통을 했는데 시청에 있던 박은미 선생님이 평생학습관에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제대로 공지가 안 되었는지 어느 순간 바뀌게 되어 초반에는 혼동이 좀 있었습니다. 수원에 평생학습관련 기관은 정말 많은데 비해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이 주변 시민들에게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맞지만 수원에 소재한 다양한 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지현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평가는 둘째 치고 실제 평생학습관이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관 상담실에서는 수원 평생학습기관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상담하러 오신 시민이 원하는 강좌가 평생학습관에 없으면 다른 지역의 기관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거나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허윤범 위탁을 해서 운영권을 주었다면 행정기관의 보수성을 벗고 민간의 자율성을 지켜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민간의 장점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취지로 사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성엽 평생학습관의 원래 계획대로 힘들어도 밀고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협의의 시각으로 보면 학습관을 '장소, 공간'의 개념으로 바라봐서 허브역할에

대한 기대를 안 하는 것 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관은 허브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평생학습관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허브기능으로 가야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심지어 평생학습관에 있는 강의실 한

두 개는 연구조사에 몰두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모두가 나무를 벨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톱날을 갈아주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평생학습관 마저 프로그램에 몰두해야 한다고 하면 모두 나무를 베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연장이 무더질 것은 불문가지이죠. 계속 돌아다니면서 날을 갈아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생학습관에서 발간하는 소식지나 와글와글포럼도 그런 역할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지역주민들을 위해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다른 곳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3. 연구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선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주 간으로 동향리포트 '와'를 발간하고 있고 실무자간의 논의 및 교육의 장인 '와글와글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허윤범 와글와글 포럼의 경우가 실질적인 네트워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관은 이처럼 기반을 만드는 것에 좀 더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은 올해부터 지역협의체 교육분과에 들어갔는데 마침 포럼에 참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추천을 받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기관에서는 평생교육을 한두 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혼자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직에서는 한두 명의 개인을 위해 직무교육을 시켜주는 사실 어렵습니다. 현대 포럼이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법과 소통을 촉진시키는 스킬 교육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포럼이 직무교육으로서의 역할까지 하고 있는 셈이지요.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고, 도움이 되는 강의를 소개받아서 많은 분들이 하나로 함께 갈 수 있다면 좋겠

습니다.

허윤범 소식지는 잘 보고 있는데 저도 예전에 제작을 해 보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비교해 보기도 합니다. 디자인 부분에서는 기본 형태가 희망제작소와 비슷해서 신선함은 떨어졌지만 내용 면에서는 다양한 것을 접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보여서 좋았습니다. 현대 많은 정보를 모으는 것도 좋지만 그 중에서 좀 더 선별해서 양질의 정보만 모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지역소식과 국내소식이 너무 많아서 보는 것에 좀 부담감이 있더라구요. 집중해서 보여주어야 할 것과 다른 통로를 통해 보여주는 게 구분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라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이성엽 허윤범 선생님의 소식지 의견과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동향정보의 경우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없는 정보는 없다고 생각해요. 뿌려주고 모아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는 강제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어떤 강한 힘을 통해서 모일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서는 실질적인 네트워크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네트워크는 물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고 간절하면 모이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물꼬를 터워줄 수 있는 것,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고, 포럼이 그 정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통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은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포럼이 더 이상 확대, 활성화 되지 않는다면 참가자 혹은 수원시 평생학습기관 종사자들의 니즈가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지은 역지로 자리를 만든다고 내용까지 채워질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만으로

도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포럼이 없었으면 이렇게 만나서 서로 소통하고 배울 수 있는 자리도 없으니까요.

4. 프로그램 측면에서 보면 몇 가지 축이 있다. SDS, 인문대학 같은 긴 호흡의 강좌 / 시민사회와 함께한 모금학교, 기획학교, 직무과정 / 지역과의 연계를 위해 재무상담사 과정, 평생학습상담사 과정 등. 한사람의 교양인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사람의 성장이 지역으로 흘러들어 지역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 모토이다. 프로그램 관련 의견은?

권지현 평생학습관이 소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평생학습관이 추구하는 방향과 인근지역주민과의 불일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아주 기초적인 교양·취미 프로그램 같이 다른 곳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기본 프로그램이 왜 많지 않느냐 라는 불만들이 초반에는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해소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학습관에서 시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좋았습니다. 물론 SDS는 결과적으로 성황리에 이루어진 것 같진 않지만 프로그램에 맞는 타겟 층에 대한 홍보 그리고 기본 분위기가 조성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문대학의 경우에는 1기를 수강하신 분들이 주변 지인들에게 적극 추천을 해서 2기가 구성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강좌보다 수준이 높고 질적으로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처음에 생각했던 기본 틀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걸리 교실’ 같은 특강은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정규 강좌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담쟁이 문화살롱도 형식과 내용은 참 좋은데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음알음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영통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평생학습관의 좋은 프로그램을 잘 몰라서 못 오는 측면

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지은 '누구나학교'가 매우 신선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관의 역사해설가 양성과정의 경우 실습을 했던 분이 스스로 기획하고 계획을 세

워서 진행하는 교육인데 반응이 매우 좋은데 누구나학교를 보면서 그 분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나학교도 아직까지는 참여자가 많지 않지만 사람들 간에 네트워크가 되고 추천이 되고 하면 그런 분이 지역사회 안에서 훌륭한 강사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살롱'은 카페를 활용한 학습인데 공간을 잘 활용하는 측면에서 신선함이 들었습니다. 저희 기관이 영통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활동지역은 영통인데 영통주민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학교는 장소 구애를 받지 않으니까 이러한 프로그램이 영통지역에서 개최되면 홍보 측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허윤범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진행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역에 있는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 교육의 경우 근처에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도 있고... 주변에 연무와 우만복지관이 있어서 중복 프로그램을 지양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성원 지역민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모두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취미교양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부분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프로그램이 중복되면 시간과 요일의 조정을 통해 중복을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해 교육의 경우 저희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역량

과 열정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하는 분야는 저희가 하고 다른 기관이 강점이 있는 분야는 연대를 하거나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 하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의 기본 관점입니다.

이지은 Y에서 위탁운영하는 서수원의 경우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는데 백화점 문화센터와의 프로그램 차이가 별로 없어서 그 기관의 특성이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성열 대학의 경우는 대학의 강점을 살려서 진행하는 것이 있는데 평생학습기관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대는 사진반, 숙명여대는 식품영양관련 단기프로그램 등, 이런 것들이 특화된 프로그램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백화점 문화센터 같은 곳이 오히려 다양성 측면에서는 더 나은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 평생학습관은 나름대로 카테고리가 잘 되어 있고 더 이상 양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시민 전체의 니즈를 잘 분석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겉으로 들어나는 욕구 외에 그 속에 들어나지 않은 욕구를 잘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필요가 니즈인데 접해보지 않고 잘 몰라서 학습자들의 욕구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진행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니즈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윤범 제가 평생학습관에 참여한 것은 몇 개 있었는데 다른 프로그램은 직무차원으로 했던 것이고 개인적으로 수강한 것



은 수원시민인문대학입니다. 교수님의 내공은 있는데 제가 부족한 것인지 조금 어려워 듣기 부담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쉽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지현 제가 볼 때 평생학습관의 경우 다른 곳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긴 해도 그것을 조금 변형시켜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드로잉, 창의력 만화 교실 같은 경우에는 참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학습자수가 적어서 걱정했는데 사람들이 직접 경험을 해 보면서 점점 더 만족도와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나 학교의 경우에는 참가자 스스로 강사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그런 분들이 모두 전문강사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보다는 축소되는 경향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시작했지만 전문강사로 설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평생학습관 카페가 가족들로 항상 가득한데 가사도 같은 경우 가족단위로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텃밭, 농업에 대한 요구도 많고요. 이런 점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평생학습관의 개선점이나 제안

허윤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만 학교건물이라서 그런지 저녁에 왔는데 좀 쌀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포근한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지현 학습관을 오면 좋은 에너지가 생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지켜나갔으면 합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하게 정착하지는 않은 듯합니다. 일이 발생할 때 우왕좌왕하는 느낌이 있고 세부적으로 보면 담당자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운동장 주차 문제도 해결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지은 같은 평생학습관련 기관이지만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프로그램이 나오면 기관에 먼저 홍보를 합니다. 아주대도 마찬가지고요. 프로그램이 겹치는 것이 아니라면 기관에 홍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사한 기관에 선뜻 홍보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곳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 그 기관의 자신감이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관도 타 기관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허윤범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해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면 계속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주말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다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계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도 시스템적으로 고민하면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성열 학습관이 근원적,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굳이 아쉬운 점은 과정 개발이 되어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중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직관적인 측면에서 진행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희망제작소의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수원과 수원시민을 위해서 과연 필요하고 우선순위인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의문이 드는 것도 있지요. 숨어있는 욕구의 분석,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탐색과정이 있었느냐 그리고 얼마나 반영했느냐는 것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학습관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른 기관에 보급시키는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의 경우에는 몇 명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느냐, 수료율이 얼마인가로 보지 말고 새로운 것을 인큐베이팅해서 얼마나 보급했는

가, 이런 것이 평가의 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 가족단위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족이 함께하는 학습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평생학습관의 경우 좋은 강의가 참 많이 있는데 일회성 강좌로 날리는 것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좋은 오프라인 강좌는 온라인 강좌로 만들어서 더 많은 수원시민들이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학습관 이렇게 일했습니다

발행호 (제17호) 2012. 10. 24.(수)
글 남경아 수원시평생학습관 사무국장

“초심을 잃지 않고 잘 해주기를...”

수원시 평생학습관이 10월 28일 개관 1년을 맞는다. 이에 지난 1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과제를 정리하며 운영성과집을 만들었다. 이 페이지를 빌어 자료집의 한 글을 소개하며, 앞으로의 길을 다짐해 본다.

※ 운영성과집은 관련 기관으로 배포할 예정이며,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도시 수원의 평생학습 활성화와 시민들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2011년 6월 「수원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설립된 기관으로 2011년 10월 28일 정식 개관하였다. 수원시평생학습관은 ‘삶과 삶이 하나로, 배움과 실천이 결합되는 평생학습의 새로운 모델을 선도한다’는 비전아래 다음과 같이 4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 거점 평생학습 기관으로서 수원평생학습의 허브 역할 (허브-네트워크)
- 수원의 특성에 맞는 전문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교육)
- 수원시 평생교육 정책제안 및 국내·외 평생교육 사례연구 (싱크탱크)
- 학습동아리 육성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시민참여)

인력·조직체계·공간 세팅,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까지 無에서 有를 만들어내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온

1년이였다. 짧은 기간 동안 나름 다양한 도전과 변화로 비교적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지난 1년간 수원시 평생학습관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해 본다.

1. 수원평생교육, 네트워크에서 희망을 찾다.

지난 1년 간 가장 주력한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지역 네트워크사업이었는데,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수원평생교육 와글와글 포럼>의 힘찬 첫걸음이다.

‘와글와글 포럼’은 학습을 매개로 다양한 시민을 만나고 있는 평생학습 실무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공통이슈와 문제를 펼쳐놓고, 집단 지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하에 시작되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이 제안, 기획했지만, 추진과정은 지역단체, 연구자로 구성된 별도 추진단을 꾸려 기획부터 운



영까지 진행하였다. 지난 4월 1차 포럼을 시작으로 격월에 1회씩, 총 5번의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포럼주제는 참여한 교육생들이 직접 선정하였는데 학습기획 노하우, 프로그램 홍보와 마케팅,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평생학습 실무자로서 전문성 함양 등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직접 부딪치는 실질적 고민들로 구성되었다. 관련 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를 초빙해 기초강연을 듣고, 각 현장에의 적용가능성 등 토론을 통해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와글와글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자발적인 학습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수원평생학습 실무자들 간 일상적 교류와 실질적 네트워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두 번째는 **지역단체·지역자원과 연계한 공동사업이다. 가장 돋보이는 성과 중 하나가 <제1기 수원모금전문가 양성과정> 사업이다.**

이는 수원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재단 추진이라는 현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원지역사회복지협의회,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수원시 평생학습관 4개 기관이 공동기획, 공동주최하였다. 총 7주 과정으로 수원지역 활동가 50여명이 참여했는데, 지역 내 복지, 자원봉사, 시민사회, 평생학습 기관 간 경계를 넘는 첫 공동사업으로 의미가 크다. 향후 지역재단 설립 등 지역의 구체적 의제를 더욱 발전시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희대학교와 함께 한 <수원시민 인문대학>, 사회적기업 에듀머니와 함께 한 <재무관리사 양성과정>, 수원시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일학교>, <교사인



문학> 등 지난 1년간 지역대학, 비영리 기관, 공공기관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질적 연대의 토대를 다진 것은 주요 성과라 할 수 있다.

2. 수원평생학습 싱크탱크 역할

출범 당시부터 수원시평생학습관은 수원평생학습의 싱크탱크 역할을 강조해 왔다. 이는 추상적 담론이나 총론적 논의로서의 연구가 아닌, 수원평생학습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천적인 이론, 현실과 소통하는 실사구시 이론을 의미한다.

개관 후 1년 동안은 시스템 세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에 더 무게중심이 가 있어 충분히 사유와 연구할 시간을 갖지 못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다음 2가지 사업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첫째는 평생교육 이슈·정책 및 수원 평생교육 기관들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통합 정보지 <수원평생학습 동향리포트 '와'>의 선전이다.

<와>는 지난 3월14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격주마다 1회씩 발간되었는데, 무엇보다 기동성과 정보량에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수원 뿐만 아니라 전국 평생학습 기관, 연구자, 평생학습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들에게 국내·외 평생학습 동향과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제공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인물이나 정책들을 집중 취재하고 있는데 향후 수원평생학습의 정책과 방향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앞으로 <와>는 수원평생학습기관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더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통합정보지로서의 위상을 높여갈 것이다.

수원시평생학습관
learning.suwon.go.kr

제10호 2012년 7월 18일
2주마다 수요일에 발간됩니다.
수원평생학습 동향리포트
메일링서비스 신청
블로그 suwonedu2011.blog.me
트위터 @suwonedu
페이스북 @suwonedu

"보는 나보다 나와 우리 A를 이어주는
앞으로 서로, 함께 할 뜻에 공명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정지인, 정지인, 정지인, 정지인)
매주는 소리를 통해 소통합니다."

이슈&진행
주인자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3)
이천시의 용감한 선택과
새로운 도전

가정생활
우리시대 청년
지역에서 삶의 영역을 만들어 가다.
자유상상캠프

도농복합도시 이천은 2009년부터 읍면동 12개 주민
자치회(마을위원회)의 전문 행정교육을 1명씩 배치하였다.
빠듯한 예산 안에서 평생학습에 방향을 잡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주민자치학습센터 담당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주말 이 고대
청소년 인문학

독일 학생들의 국제학업성취도연구는 OECD 국가의
평균에도 못 미치고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독일 시민들은 평생 학습에 공평하게, 다양한 계층과
세대별로, 프로그램 등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알려지지 않 고 있는 국제 도시발전과 스포츠문화가 있는 나라,
독일의 평생교육을 살펴보자.

이로운 소식

고직에서 배운다
모두가 즐거운
학업여행

추진자료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수원시평생학습관 블로그(suwonedu2011.blog.me)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해외 평생교육 연구 및 선진기관 연수를 추진하였다.

해외 평생학습 동향 연구는 선진도시의 평생학습 현황, 운영방법, 프로그램, 성공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수원 평생학습 발전에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영국, 독일, 일본, 미국의 평생학습 정책과 프로그램을 조사하였는데, 단순 문헌 조사를 넘어 관련 전문가, 현지 유학생, 관련 전공자들이 직접 집필에 참여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이고 생생한 정보전달이 가능했다. 특별히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는 올 상반기에 연구원 4명이 직접 영국 평생학습 현장을 방문해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영국은 시민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참여로 다양한 시민참여 학습프로그램이 활성화 된 대표적 국가로, 영국의 스쿨오브 에브리씽(School Of Everything), 유쓰리에이(U3A)와 같은 기관은 향후 수원평생학습 현장에서 시민참여 프



로그래를 추진하는 데 많은 영감을 주었다. 앞으로 연수 결과를 수원 평생학습 기관과 공유하고 수원에 맞게 재구성, 프로그램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3. 다양하고 차별화된 전문 강좌 운영

수원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평생학습시설과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수원시평생학습관은 이들 기관과 차별화된 전문 강좌를 운영함과 동시에, 인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즉, 전문 강좌 개발과 운영, 다양한 평생학습 강좌 추진이라는 당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학습프로그램을 1)차별화된 인문학 강좌, 2)지역리더·전문가 양성과정, 3)지역특화과정, 4)일자리 연계 및 직업능력향상 과정, 5)사회 통합 프로그램, 6)일반 취미·교양 강좌 총 6개 분야로 나누어, 연간 총 265개의 프로그램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이 중 특별히 의미가 있었던 몇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원시민 인문대학>의 성공적 정착이다.

수원시민 인문대학은 그 동안 수원에서 추진되고 있었던 인문학과 차별화를 갖고 긴 호흡을 가진 깊이 있는 인문학에 초점을 맞춰, 전문 지식습득과 깊이 있는 인문학 공부에 욕구가 있었던 다양한 시민

들을 학습의 장으로 끌어들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지역대학과 시민, 시민사회 3주체가 서로 협력하여,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문이 지역사회로 선순환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상·하반기 각 8~10개의 전문 강좌를 추진하였는데, 인문학을 매개로 모인 시민들이 자발적인 학습모임을 결성하는 등 지속적인 학습공동체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 주목할 프로그램은 지역리더 양성과정이다.

지역리더 양성과정은 학습을 통해 개인의 삶이 바뀌고, 변화된 개인이 모여 지역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으로, 그 동안 수원 소셜디자이너 양성과정, 모금전문가 양성과정, 수원 재무관리사 양성과정, 평생학습 상담사 양성과정이 추진되었다. 특히 최근 평생학습은 고용, 복지, 노동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일자리와 학습, 복지가 순환 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수원재무관리사 양성과정>은 첫 시도라 할 수 있다.

<수원재무관리사 양성과정>은 전문 기관과 협약을 통해 지역의 재무전문가를 양성하고, 양성된 재무관리사들이 학교·복지·평생학습 현장에서 강사로, 재무상담가로 활동함으로써 지역에 공헌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전을 갖고 있다. 아직 초기 단계라 보완해야 할 점이 많지만 재무관리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학습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습동

아리를 결성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재능기부로 아동들에게 경제학습을 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어 향후 사회공헌 일자리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세 번째는 비영리 기관 및 실무자를 지원하는 전문 교육이다.

〈모금전문가 과정〉, 〈비영리 기획·마케팅과정〉, 〈교육 기획 연수〉와 같은 전문 과정에서부터 〈업무활동백서〉와 같이 당장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단기 과정까지 다양하게 개설하였다. 또한,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 컨설팅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비영리 기관과 실무자를 위한 학습은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좋은 프로그램



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관과 실무자들의 전문성이 함양되어야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갖고 평생학습 종사자들의 역량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4. 시민들이 직접 평생학습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평생학습도시란 시민의 생활권인 도시에서 시민들의 학습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의 문제뿐만 아

니라, 그 학습이 다시 어떻게 지역으로 환원되는가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수원시평생학습관은 지역에 환원되는 주민의 평생 학습, 주민이 주체가 되는 평생학습 모델은 어떠한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가장 큰 도전은 〈수원 누구나학교〉였다.

〈수원 누구나학교〉의 도전과 실험

‘누구나학교’는 삶의 경험과 노하우, 전문지식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강사가 되고, 새로운 배움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갖고 싶은 사람이 만나 자유롭게 강의의를 열고, 서로 배우는 시민참여형 학교다.

지난 5월 출발한 이후 지금까지 57개의 강좌들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 초기라 구체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지만, 사회적 기업 대표, 시장상인, 동아리 회원, 주부, 대학생, 직장인, 전문 강사의 재능 나눔까지 〈누구나학교〉의 도전과 실험은 수원평생학습에 신선한 활기를 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 그 동안 ‘배워서 남 주자’는 모토를 실천하고 싶어도 마땅한 장을 찾지 못했던 학습동아리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고,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사회적 기업이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장을 열기도 하였다. 또 평생학습에 잘 참여하지 않았던 대학생들이 강사가 되어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컴

퓨터, 소셜 미디어를 가르쳐주는 등 세대 공감을 통한 평생학습의 모델이 만들어 지기도 하였다.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모두 자발적으로 대가 없이 참여하다 보니 오히려 수업의 열의도 높은 편이다. 물론 아직은 초기 단계라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주로 평생학습관의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앞으로 발전단계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물론 걱정과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직도 ‘강의’는 전문강사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많아 ‘나도 강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기 어렵다. 좋은 뜻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영리기업의 참여 범위를 어떻게 할지도 고민이 된다. 또, 전문강사들의 재능 나눔이 혹시나 타 기관에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을까 걱정도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도전을 포기할 수 없다. 배움이 배움으로 그치지 않고, 이웃에게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지역사회로 흘러가는 평생학습의 흐름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수원 누구나학교’도 이러한 시대흐름에 발맞추어 이제 작은 씨앗 하나를 던졌다. 부디 그 씨앗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잎과 열매를 맺게 되기를, 그리하여 시원한 나무 그늘을 만들어 내기를 소망해 본다.

평생학습의 꽃, 학습동아리 활성화

수원에는 약 300개의 학습동아리들이 있다. 주민들의 자발적 학습모임인 학습동아리들이야말로 평생학습의 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수원시 평생학습관은 지역 내의 학습동아리를 지원하고 동아리 리더들을 발굴, 성장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 먼저 평생학습관 공간을 유연하게 개방, 학습동아리들이 불편함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57개 동아리가 평생학습관에 입주해 활발한 학습의 장을 펼치고 있다.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동아리대표자 간담회 개최, 동

아리 전시회, 동아리 오픈 데이 등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 <누구나학교>프로그램과 연계해 동아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소통하여 학습동아리의 생산적인 동력을 공공화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5. 2013년 수원시평생학습관의 도전은 계속된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는 삶과 배움과 성장. 이것을 간결하게 줄인 말이 평생학습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해 본다. 누군가와 관계 맺음을 통해 배움을 주고받고, 어려운 문제도 함께 해결하며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꿈꾸는 학습자치의 장. 우리가 만들어야 할 평생학습의 미래다. 한 사회의 성숙함은 시민들의 역량에 달려있다는 믿음 아래 멀리 내다보려 한다. 수원시 평생학습관의 지난 1년. 아쉬움은 늘 남을 수밖에 없지만, 첫걸음을 떼었던 그 마음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차근차근 한 걸음씩 걸어갈 것이다. 수원평생학습, 갈 길이 바쁘다.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2012년

1월
~
8월



개관일
2011. 10. 28

허브(네트워크)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및 역량강화
와글와글포럼 및 직무교육
6회 / 107명



지역단체, 지역자원연계
컨소시엄 및 MOU 체결 기관
19개 기관



평생학습종합정보망구축
통합웹사이트 접속현황
497,034건 (1일평균 2,070건)



평생학습종합정보망구축
학습상담실 운영 및 개인학습이력관리
이용인원 14,794명 / 등록회원 4,859명

싱크탱크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 발신
동향리포트 와 발신현황
13회 / 40,947명



국내외 사례연구
해외선진기관 벤치마킹
방문기관 6곳 / 보고서 1권

시민참여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학습동아리 참여현황
57개 / 803명 회원



시민참여프로그램 활성화
누구나학교 참여현황
53개 강좌 / 587명 참여



시설 및 공간 활성화
시설 이용현황
102,970명 (1일평균 510명)

시설이용 현황

- ① 강의실 29,910명(29.0%)
- ② 동아리실 11,980명(11.6%)
- ③ 상담실 14,794명(14.4%)
- ④ 자료관 6,920명(6.7%)
- ⑤ 학습카페 17,301명(16.8%)
- ⑥ 시설대관 22,065명(21.5%)



교육

차별화된 인문학 강좌 운영

>>> 수원시민인문대학, 청소년인문학, 명사초청특강

지역리더,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 수원모금전문가과정, 평생학습상담사양성과정

지역특화과정 운영

>>> 길 위의 학교, 찾아가는 학교, 문화예술학교

일자리연계 및 직업능력향상 과정 운영

>>> 재무관리사양성과정, 비영리단체 업무활용백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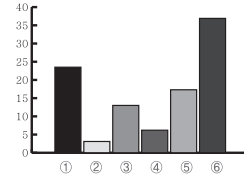
>>> 장애인청소년 강좌, 문해 교실, 소외계층 아동 가사토

취미교양 프로그램 운영

>>> 컴퓨터, 외국어, 건강체육, 음악, 사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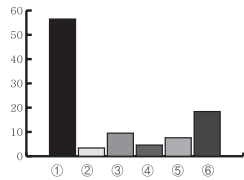
주제영역별 강좌 현황

- ① 인문교양 38개 강좌(23.5%)
- ② 지역특화 5개 강좌(3.1%)
- ③ 시민참여 21개 강좌(13.0%)
- ④ 직업능력 10개 강좌(6.2%)
- ⑤ 사회통합 28개 강좌(17.3%)
- ⑥ 문화예술 60개 강좌(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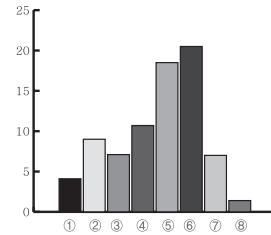
주제영역별 수강 현황

- ① 인문교양 3,203명(56.5%)
- ② 지역특화 192명(3.4%)
- ③ 시민참여 541명(9.5%)
- ④ 직업능력 261명(4.6%)
- ⑤ 사회통합 431명(7.6%)
- ⑥ 문화예술 1,043명(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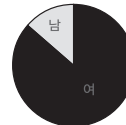
연령비율 현황

- ① 10대미만 232명(4.1%)
- ② 10대 510명(9.0%)
- ③ 20대 400명(7.1%)
- ④ 30대 604명(10.7%)
- ⑤ 40대 1,048명(18.5%)
- ⑥ 50대 1,165명(20.5%)
- ⑦ 60대 396명(7.0%)
- ⑧ 70대이상 77명(1.4%)
- ※ 미기재 1,239명(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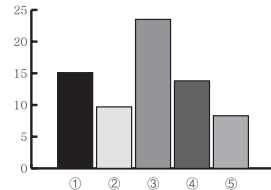
남녀비율 현황

- 여 4,424명(78.0%)
- 남 694명(12.2%)
- ※ 미기재 553명(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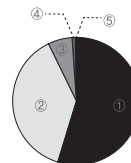
지역비율 현황

- ① 장안구 857명(15.1%)
- ② 권선구 548명(9.7%)
- ③ 팔달구 1,331명(23.5%)
- ④ 영통구 780명(13.8%)
- ⑤ 수원외 469명(8.3%)
- ※ 미기재 1,686명(29.6%)



교육만족도 조사

- ① 매우 만족한다 537명(55.0%)
- ② 만족한다 368명(37.9%)
- ③ 보통이다 58명(6.0%)
- ④ 불만족이다 10명(1.0%)
- ⑤ 매우 불만족이다 1명(0.1%)
- ※ 참여인원 971명



개설강좌 현황
162개



수강인원 현황
5,671명

첫 번째, 영국은 지금 대안교육운동 중~

발행호 [제4호] 2012. 04. 25.(수)

글 정선영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에서는 전 세계 다양한 평생학습 관련 동향과 사례, 단체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대안교육운동부터 각 나라의 평생학습 정책을 대표하는 단체와 프로그램까지. 정해진 틀은 없다. 각 나라의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우리의 평생학습 체계와 내용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생각을 기대할 뿐이다.

첫 번째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은 OECD의 '학습과 일터를 연계한 개인의 발달을 도모하여 평생교육의 가능성을

증진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상징하는 시장중심형 학습사회론'을 추구한다. 평생교육정책에서 인력자원의 개발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것이다. 이런 평생교육 정책은 책무성과 가시적인 성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문화를 형성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며, 반대 급부로 시민단체 등 제3섹터 그룹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안교육운동과 프로그램이 개발·운영되고 있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영국. 영국을 가다.<편집자 주>

년 학생, 난 선생? 그런 고정관념은 이제 그만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구분은 필요 없다.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누구나 배울 것이 있다. 공부는 일방적 지식 전달의 과정이 아니라, 공동작업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부는 가지런히 정형화된 지식 체계를 축적하는 정제된 경험이 아니라, 날카로운 질문과 자유로운 토론 및 대화와 창의적 아이디어 교환으로 어우러진 역동적 경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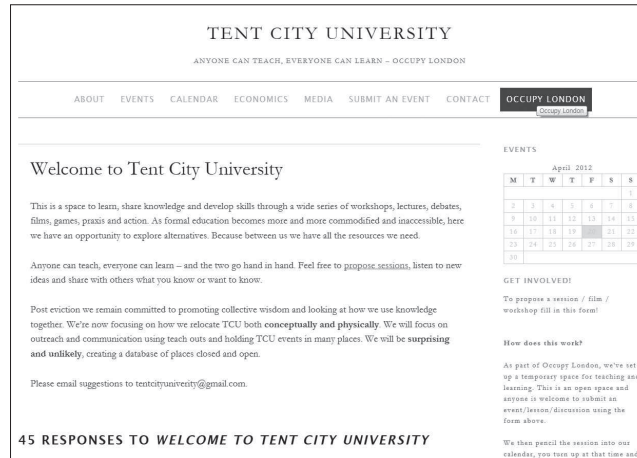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는 비싼 이유가 없다.

영국의 이러한 대안교육운동(alternative

education movements)은 고등 교육의 상품화, 스펙화 및 엘리트화에 대한 저항으로 그 역사가 그리 짧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의 'Occupy', '아랍의 봄' 등 전 세계적인 반자본·민주주의 운동 물결과 현 영국정부의 대학 등록금 인상, 인문·사회·예술 분야 교수들의 연구비 보조 삭감에 의해 그 운동력에 강한 탄력이 붙었다. 영국에서 불고 있는 대안 교육 바람을 한 번 맞아보자.

Tent City University

Tent City University는 글자 그대로 텐트에서 하는 공부다. 'Occupy London' 시위를 위해 텐트 아래



Tent City University <http://tentcityuniversity.org>

모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학습 공동체다. Tent City University에 대한 소문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온라인 캘린더는 등록된 워크숍 일정으로 꽉꽉 채워졌다. 시위가 진행되는 몇 개월 동안 일련의 저명 작가, 사회활동가, 언론인, 교수 등이 워크숍을 열었고, 쇼핑 나온 사람, 학생, 사회활동가, 관광객 등 관련 주제에 대한 소위 전문가부터 평범한 시민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워크숍에 참석했다. 금융 위기, 아랍의 봄, 신학, 신용협동조합 설립하기 등 다루는 주제도 매우 광범위했다. 각계각층,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에너지 넘치는 의견 교환과 질문을 통해 정치·사회·교육적 통념에 대해 날카롭게 도전했다.

Tent City University는 즉흥적으로 만들어져 빠르게 확산되었기 때문에 장기적 운영 계획이 수립될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Occupy 2.0'이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그 중요한 한 축으로 Tent City University 제 2라운드가 열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 가지 정보 더. Tent City University의 웹사이트 메인 메뉴 중 'Economics'라는 탭을 클릭하여, 'Occupied Economics'라는 온라인 학습과정을 수

강해 보자. 단, 20분 또는 5분만 투자하면 'Diploma in Occupied Economics' 또는 'Certificate in Occupied Economics' 증명서를 다운받을 수 있다. 자칫 비장할 수도 있는 주제를 이렇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경쾌하게 전달하는 방식이 재미있다.

Social Science Centre

2010년 여름, 높은 접근성과 참여자들 간의 협업을 중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이 Lincoln 지역에서 싹을 틔웠다. 전통적 방식의 대학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지향하는 학교지만 기존 대학들과 경쟁할 생각은 없다. Social Science Centre는 그들과는 뭔가 다른 것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곳은 2012년 가을에 첫 입학생을 받을 예정이다. 등록금은 없다. 학생과 선생 그리고 운영스텝 간 구분도 없다.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비위계적·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센터가 운영된다. 약 20명의 입학생을 받을 예정이며, 대학 학위 수준에 비견될만한 졸업 증서가 제공될 예정이다. 증서 한 장 달랑 주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학문적·지적 성과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기술할 계획이다. 학사 학위는 6년, 석사는 4년, 박사는 8년 정도의 파트타임 학습 기간이 필요하다. 제공된 증서의 학문적 우수성

검증을 위해 준회원 자격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객관적 검증자로서의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정해진 등록금은 없지만 학생과 선생들이 원하거나 여유가 된다면 자신들의 월급 중 1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율적으로 기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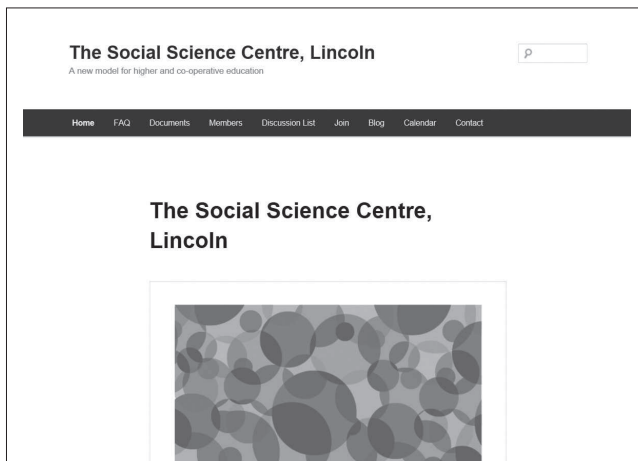
정부의 대학 연구 보조금 삭감 조치에 의해 촉발된 이 운동은 대학의 시장 상품화에 저항하며 우리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회복하고자 한다. 본 센터는 협동조합 방식을 지향한다. 모두가 주체가 되어 서로 배우며 함께 기관을 운영한다. 수업 역시 이러

만들고자 한다. 추상적 개념이 아닌, 물리적으로 진짜 존재하는 공간 말이다. 내가 사는 지역 내 주민들과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로 접속하여 함께 공부하고 성장하는 공간.

Really Open University는 이러한 학습 공간을 지향하며 Leeds 지역에 문을 열었다. 그들의 미션은 개인의 창조력과 비판적 역량을 배양할 수 하는 자유롭고 주체적인 교육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이다. 특정 집단을 위해 존재하는 학교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학교다.

대중 강연·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지만 Really Open University의 정수는 'Space Project'이다. 학교 밖 학습 공간 부족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다. 하지만 단순히 학습 행사 및 모임을 위한 공간 대역 프로젝트라고 생각하면 오산. 이 곳의 특징은 신청된 단일 프로그램들 간의 만남에 있다. Space Project 담당자는 신청된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고 서로 만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적절히 매칭해 준다. 일종의 큐레이터 또는 중매쟁이인 셈이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다채로운 아이디어·지식·프로젝트·사람들 간의 만남이다.

그 만남의 장을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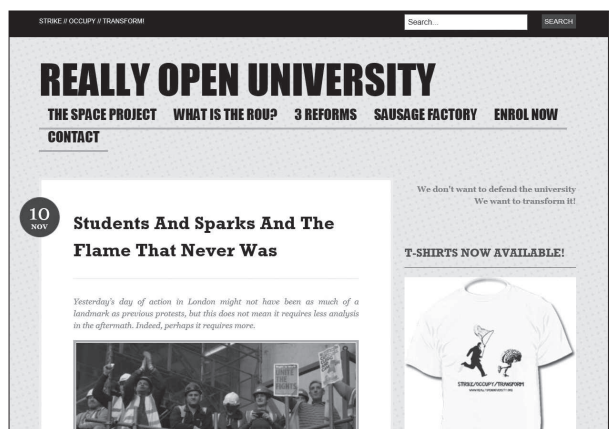
The Social Science Centre
<http://socialsciencecentre.org.uk>

한 기조 하에 열띤 토론, 질충, 협업으로 구성될 것이며 조사 연구 또한 선생과 학생의 협업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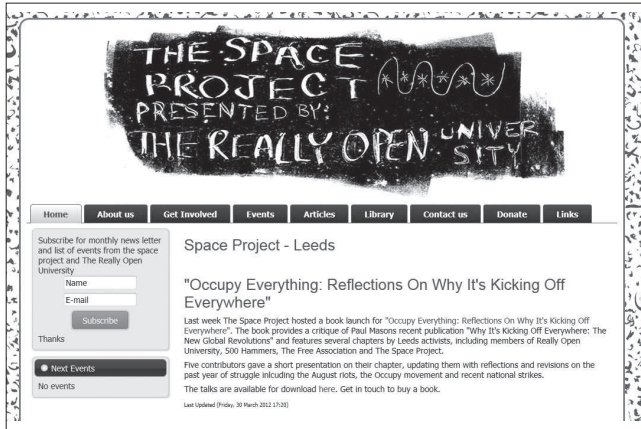
현재 30명 정도의 교수와 운영스텝이 참석을 약속했다. 대부분은 University of Lincoln 소속이다. 이들은 그들이 살고 싶은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학교를 꿈꾼다. 지역에 튼튼히 뿌리를 둔 채 서로 얼굴을 맞대고 나누며 협동하는 리얼 학습 공동체의 모습을.

Really Open University

대안교육운동은 진정한 대중 지성 향연의 장을



Really Open University
<http://reallyopenuniversity.wordpress.com>



The Space Project <http://spaceproject.org.uk>

The Free University of Liverpool

The Free University of Liverpool은 소수를 위한 특권적 교육이 아닌 모두를 위한 교육을 상상한다. 영국 정부의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지만, 단순히 돈 문제뿐 아니라 영국 대학 교육의 전반적 문제에 대해 이슈를 제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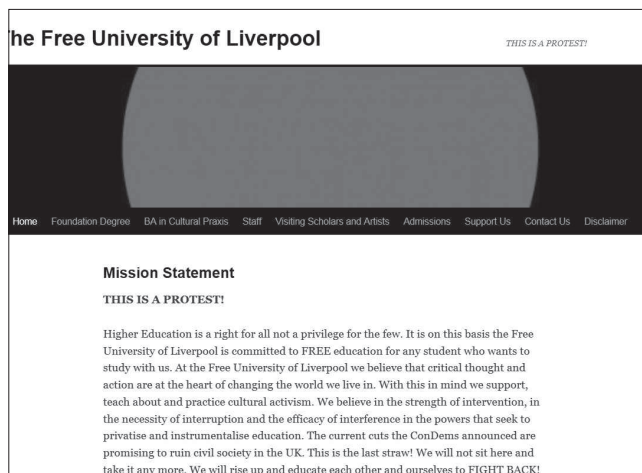
이 학습 프로젝트의 특징은 예술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 예술가, 사회활동가, 교육자들에 의해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예술을 경험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원활동가들이다. 첫 교육과정으로 2011년 10월에 6개월짜리 프로그램 램을 시작했으며 2012년 10월 3년짜리 Cultural Praxis라는 학사 학위 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분위기만 잘 타면 된다고? 천만의 말씀

Social Science Centre의 Mike Neary 씨에 의하면, 이러한 실험적 대안교육 운동의 활성화는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다고 한다. 부의 양극화 현상 심화, 세계적 재정 위기에 따른 각국의 긴축 정책 등으로 인해 뭔가 해

야만 한다는 시민들의 자발적 결의가 하나로 결집되면서 이러한 역사적 흐름이 조성될 수 있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러한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Neary씨는 따끔히 충고한다. 각자가 그 흐름의 주체로서 비판적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 또한 영국에서 실험되고 있는 다양한 운동들이 다른 지역에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라지만 단순히 카피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이러한 단순 복제는 또

다른 형태의 상품화 및 대량 생산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실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The Free University of Liverpool
<http://thefreeuniversityofliverpool.wordpress.com>

영국 평생학습은 우리가 지킨다!

NIACE (The National Institute of Adult Continuing Education)

발행호 (제5호) 2012. 05. 09.(수)

글 정선영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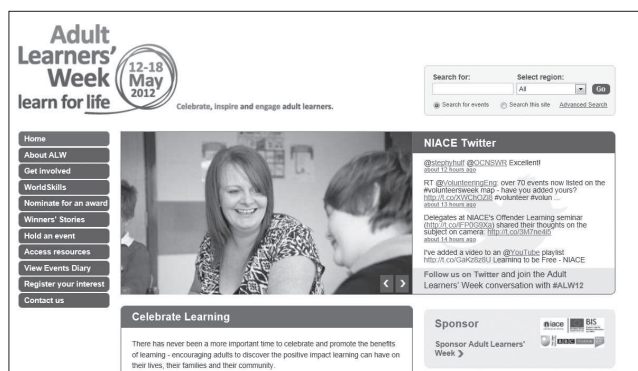
NIACE(The National Institute of Adult Continuing Education)는 성인의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단체로서 한국의 평생교육진흥원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NIACE는 자선적 성격을 띤 비영리/비정부 기관이자, 천 개(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1921년에 설립되었다. 평생학습 관련 비정부기관 중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한다. 하는 일은 캠페인 진행, 조사 연구, 컨설팅 서비스, 대정부 정책 활동, 관계자 네트워킹 지원, 출판, 전문정보 제공, 교육과정 제공 등이다. 그 중 몇 가지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 우수 학습자 및 학습기관을 선정하여 시상
- 평생학습단체들의 다양한 학습 이벤트 개최 및 체험 기회 제공
- 평생학습 정책 컨퍼런스, 의회 리셉션 등을 통한 대정부 정책 활동
- BBC, 가디언(The Guardian) 등 유력 언론의 집중 조명 유발
- 유수의 후원 기관 확보

이러한 다양하고 전략적인 행사 개최를 통해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높일 뿐 아니라, 정부와 사회 전반에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하게 각인시키고 있다.

Adult Learners' Week

Adult Learners' Week은 영국 내 최대 평생학습 축제로 매년 전국적으로 약 100,000명이 참가한다. “Celebrate, inspire and engage adult learners(평생학습자들을 축하하고, 영감을 불어넣고, 참여시키자)”을 모토로 하는 Adult Learners' Week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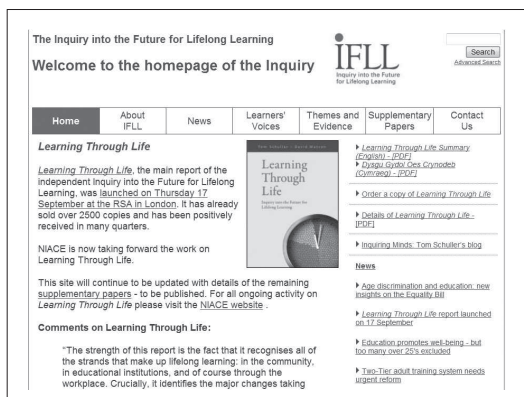
Adult Learner' Week <http://www.alw.org.uk>

올해 Adult Learners' Week은 5월 12-18일 개최 예정이다.

Inquiry into the Future for Lifelong Learning

Inquiry into the Future for Lifelong Learning(IFLL)은 NIACE가 발주한 독립 연구 프로젝트로, 성인 평생학습이 나아가야 할 미래 방향성을 제시한다. 2007년 9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약 2년간 진행됐다.

본 프로젝트의 주요 메시지는 현 시대상에 맞도록 평생학습의 큰 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화, 청년 취업연령 상승, 빠른 환경 변화에 따른 잦은 전직, 다양한 고용 형태의 출현 등과 같은 급속한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개인의 인생 각 시기에서 학습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 인생 전체를 네 단계, 즉 25세 이전 / 25-25 / 50-75 / 75세 이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노동, 학습, 여가 간의 시간 배분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정의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50세 이후의 계속 교육에 대한 재정 확대, 풀타임과 파트타임 학습 간 재정 지원 차별 철폐, 시민의식 배양의 중요성 강조, 지역 및 개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학습 제공 등의 내용이 눈길을 끈다.



Inquiry into the Future for Lifelong Learning
http://www.niace.org.uk/lifelonglearninginqui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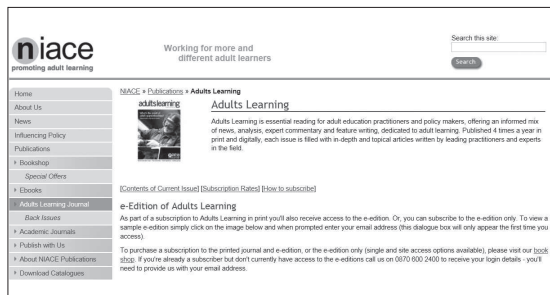
2년 간의 연구로 「Learning Through Life」라는 주 보고서 외 방대한 양의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Adult Learning

Adult Learning은 NIACE가 1년에 4번 발행하는 평생학습 저널이다. 평생학습계의 저명한 연구자 및 활동가들의 깊이있는 분석보고서, 전문가 칼럼, 뉴스 등을 담고 있어 평생학습 관계자 및 정책 수립자들에게 필독 저널로 통한다. 구독 신청하면 우편으로 책자를 받아볼 수도 있고, 또는 인터넷판 구독도 가능하다.

- 책자+인터넷판: 해외 개인 £54 / 단체 £85
- 인터넷판: 해외 개인 £35 / 단체 £55(1인) 또는 £95(다수)

영국의 평생학습 동향이 궁금하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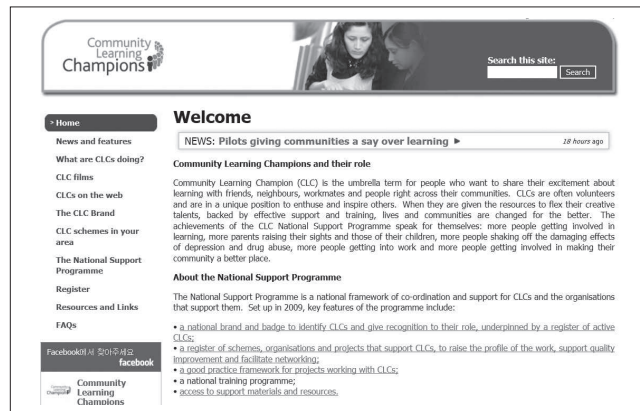
Inquiry into the Future for Lifelong Learning
http://www.niace.org.uk/lifelonglearninginquiry

Community Learning Champions

Community Learning Champions는 평생학습 홍보 대사로서, 친구, 이웃 또는 완전히 낯선 사람들에게 평생학습의 좋은 점을 홍보하고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자원활동가들이다. NIACE는 이러한 Community Learning Champions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영국 전역에 걸쳐 약 50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챔피언들의 관련 스킬 향상 교육

및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2011년 3월 통계에 따르면, 약 2,000명이 지역사회 학습챔피언으로 등록되었고, 그들의 활동을 통해 약 100,000명에 달하는 소외 지역의 주민들이 학습 기회를 얻었다. 10만 명 중 무려 70%가 무직자였다고 한다.



Community Learning Champions
<http://www.communitylearningchampions.org.uk>

Community Learning Champions는 소외 계층으로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시민참여, 이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매우 효과적 방법으로 평가 받고 있다.

NIACE는 그 역사의 오래됨과 활동의 다양성으로, 담고 있는 정보가 매우 풍성하다.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 웹사이트만도 수십 개에 이른다. 영어라는 점이 상당히 부담스럽긴 하지만, 평생학습 관계자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으니 가끔 접속하여 정보의 바다에 풍덩 빠져보는 건 어떨까? 아니면 NIACE의 Adult Learning 저널을 함께 읽는 모임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런지? 영어 공부와 해외 평생학습 동향 파악을 한 방에……

수동적 소비가 아닌 적극적 참여로 만들어가는 배움

발행호 (제6호) 2012. 05. 23.(수)

글 정선영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Camden Town Shed의 Mike Jenn(좌)과 방문단을 반겨준 U3A 멤버들. 전현직 대표들이 모두 모였다.

“U3A는 Learning Co-op(학습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군가는 그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함께 참여하여 서로 배우고 동시에 서로 가르치는 순환적 학습의 장입니다. 수업에 들어와 그냥 의자에 앉아 있기만 해서는 안됩니다. 함께 만들어 가야죠.”

- Pam Jones(U3A의 South East 지역 이사)씨와의
인터뷰 중에서

“Camden Town Shed는 나 개인의 공간도, 특정 기관이 소유한 공간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멤버모두의 공간입니다. 지역 내 기반을 두고(community initiated), 멤버 간 스스로 서로 돕는(self-help) 형태의 조직이 가장 지속력 있는 강력한 조직입니다.”

- Mike Jenn(Camden Town Shed의 회장)씨와의
인터뷰 중에서

교육이라고 하면, 학교, 학원, 주민센터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수업목록을 이리저리 살핀 후 적당한 수업을 찾아 등록하고, 수업이 있는 날 교실에 들어가 조용히 선생님의 가르침과 지시를 따르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마치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듯 교육도 또 다른 이름의 소비 행위쯤으로 여겼다고나 할까?

영국의 평생학습 동향 연구를 위해 방문한 U3A와 Camden Town Shed는 나의 이러한 안일한 생각을 여지없이 깨주었다.

중국의 높은 성장률을 능가하는 유일한 조직인 U3A

The University of The Third Age, 즉 U3A는 은퇴한 시니어들의 학습 공동체로서 각 지역에서 자립적,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다. 현재 영국 내 약 840여 개의 U3A가 설립돼 있고, 회원은 약 275,000명에 이른다. 요즘 2주에 1개 꼴로 지역 내 새로운 U3A가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이 어려운 시기에 중국 보다 성장률이 높은 조직은 U3A가 유일할 거라며 U3A회원 분들이 자랑 삼아 말씀 하신다. 전 세계적 현상인 고령화 사회로 인해 증가하는 은퇴한 시니어들을 생각해 보면 그럴 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시니어 숫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U3A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선생과 학생 구분은 NO.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수업

U3A는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University라는 이름 때문이었을까? 프랑스에서는 좀 더 학문적 수업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한다. 즉,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one-way 방식 같은 형태 말이다. 그러던 것이 1982년에 영국에 전해져 영국 방식의 U3A가 발전하게 되었다. 선생과 학생 간 구분이 있

는 강의식 보다는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two-way 방식. U3A에서는 선생이라는 말 대신 코디네이터(coordinator)라는 말을 쓴다. 회원들 중 특정 내용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회원이 코디네이터가 되어 수업의 진행을 도울 뿐이다. 일방적인 강의 방식이 아니라 참가자들의 참여와 서로간 지식의 나눔이 수업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코디네이터가 혼자 모든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수업을 준비한다. 수업에 들어와 잠자코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는 건 용납되지 않는다.

자율.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U3A가 이렇듯 회원 모두의 참여, 즉 주인의식을 중요시 하는 것은 자율적, 자립적 조직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U3A는 외부의 어떤 재정 지원도 거부한다. 기본적으로 회원들의 회비만으로 운영되는 조직이다. 외부에서 재정 지원을 제안해 오는 경우도 있다. 사실 솔깃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 지원에 따를 제반 조건들로 인해 제한될 회원들의 자율을 생각하면 거절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재원이지만 이렇듯 U3A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건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 때문이다. 코디네이터들의 수업 진행, 조직 운영에 수반되는 각종 행정 업무 등 모든 U3A 업무는 회원들이 무보수로 직접 처리한다. 또한 조직이나 단체라고 하면 보통 독립된 공간 마련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U3A는 물리적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상당한 고정 비용을 감내할 필요가 없다. 주로 회원들의 집이나 또는 지역 사회 내 community center, 교회 등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수업이나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자립, 자조 조직이 가장 강력한 형태의 조직이다



매월 회의를 진행하는 지역 교회의 강당(좌)과 두번째 미팅이 진행된 community center(우)

Camden Town Shed를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Camden Town Shed는 2011년 5월 퇴직을 앞 둔 사회적 기업가인 Mike Jenn씨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퇴직 후 사회생활의 단절로 어려움을 겪기 일쑤인 남성들을 위한 지역 목공소를 만들고 싶었다. 목공소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연장, 자재 등 어느 정도 돈이 필요했다. 기획서를 들고 여러 군데 문을 두드리려 펀딩을 받을 수 있었다. 단순한 애걸이 아닌 명확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펀딩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초기 비용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펀딩을 받긴 했지만, Jenn씨는 앞으로는 자립적으로 목공소를 운영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어딘가에서 펀딩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그 후원처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Jenn씨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힘들지만 목공소에서 만든 물건의 판로를 개척 한다든지, 회원이 아닌 일일 사용자에게 약간의 사용료를 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독립적 재원 마련을 위해 애쓰고 있다. 왜냐하면 특정 후원 조직의 이름을 단 목공소도, 또는 나만의 목공소도 아닌, “우리의 목공소”를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Jenn씨는 이러한 자립적, 자조적 조직만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물론 회원 간 다툼이나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가정이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Camden Town Shed도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



community center 2층에 자리한 Camden Town Shed. 회원들이 모여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아래)이 제일 중요하다고 한다.

러한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을 기르면 그 무엇보다 강력한 조직이 바로 이러한 self-help 조직이라고 Jenn씨는 말한다.

자율적 참여가 만들어내는 열정과 활기

U3A와 Camden Town Shed를 방문하며 가장 크

게 감명 받은 건 그들의 눈빛과 몸짓에서 뿜어 나오는 열정과 활기였다. 항상 어떤 의무감이나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으로 무언가를 배워왔던 나에게 배움 자체에 대한 열정과 환희,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공유의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엔 무언가 사람을 울컥하게 만드는 감동이 있었다. 방문을 해도 좋겠냐는 이메일에 대한 즉각적이면서도 친절한 답장, 미팅 장소 및 시간에 대한 상세한 설명, 우리 방문단을 맞이하는 따뜻한 눈길, 우리가 하나라도 더 경험하고 갈 수 있도록 신경 쓴 세세한 사전 준비, 자신들이 하고 있는 학습 활동을 설명할 때의 그 진지하면서도 열정적 몸짓. 귀찮을 만도 했을 텐데, 작은 거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세세히 신경 쓴 흔적을 느끼며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무엇보다 그러한 준비들이 전혀 가식적이지 않고 즐기며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니, 대접받는 우리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그 열정에 감염되는 느낌이었다. 이런 것이 바로 자율적 참여가 만들어 내는 힘이 아닐까?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에는 언제나 피로와 매너리즘이 있다. 또한 받기만 하는 서비스에는 언제나 불만과 불편함이 있다. 자율적 참여로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학습을 행할 때만이 진정한 배움에 대한 환희와, 함께 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물어날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U3A 회원이 손수 만든 수업 소개 판넬을 가지고 설명하는 중(좌) Camden Town Shed의 Mike씨가 그동안 만든 물품사진을 보여주고 있다(우).

개인적 학습을 넘어 사회적 학습으로

발행호 (제7호) 2012. 06. 05(화)
글 정선영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은

세상에는 참 많은 교육들이 있다.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 과정, 여가 시간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취미 과정, 삶의 의미를 곱씹어보기 위한 인문학 과정,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나의 몸값을 올리기 위한 외국어 과정 등. 이 다양한 교육들의 공통점은? ……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나 자신의 능력과 가치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즉, 그 중심에는 “나”가 있다.

물론, 영국도 이런 교육 많이 한다. 특히나 영국의 예전 같지 않은 경제 상황과 약해진 대외적 위상으로 인해 인문학 위주의 성인 교육에서 그 방향을 선회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인의 기술력 개발 교육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평생교육 정책으로 인해, 그 품격(?) 있던 영국도 지나치게 가시적인 성과를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다.

개인적 학습을 넘어 사회적 학습으로

영국은 근대적 의미의 민주주의를 최초로 이룩한

나라이자, 16세기경에 이미 민간의 자선활동관련 법령이 제정되었을 만큼 시민 참여 및 제3섹터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이다. 또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영국 정부의 오랜 정책 기조에 따라 정부정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3섹터의 역할을 중요시해왔다. 특히, 2010년 5월 출범한 캐머런 정권은 이러한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Big Society(큰 사회)’라는 정책을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권력을 지역사회, 즉 시민들에게로 대대적으로 이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획기적이고 다양한 관련 정책과 대안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시민들의 역량 향상 교육이 있다.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통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된 ‘Big Society’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할 주체인 시민들의 체질이 우선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자유롭고 참여적인 민주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이러한 교육은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와 일원으로서의 나의 문제, 즉 사회적 차원의 의미를 강조하는 교육이다.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 지자체의 정책 및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영향

력을 행사하고 지방 행정에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등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지식, 스킬 및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다.

사실 사회적 의미가 강조된 교육이라 해서 개인적 이해와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사는 마을 또는 국가의 행정이나 법률 등 정치 사회적 문제가 내 인생을 알게 모르게, 아니 때로는 드러내놓고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Marmot Review의 “Fair Society, Healthy Lives”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 문제에 대한 개인의 적극적 참여가 개인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더 높이고 개인의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즉, 사회 참여를 통해 내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자율적으로 살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진다는 의미이리라.

Take Part(참여하라)!

언뜻 감이 잘 안 잡히는 시민 참여 또는 사회적 교육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위해, 영국 중앙 정부와 지자체, 제3섹터 단체, 교육기관 등이 협력하여 함께 진행한 “Take Part”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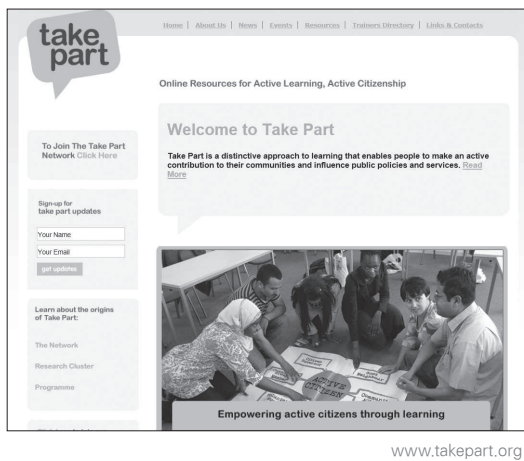
Take Part 프로그램은 정부의 Big Society 정책 방향성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8년에서 2011년까지 진행된 프로젝트다. 정부 부처인 The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여러 단체들과의 협력과 자문을 받아 The Community Development Foundation에서 운영했다. Take Part 프로그램은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성공적으로 진행된 ALAC(Active Learning for Active Citizenship)프로그램을 발전시킨 것이다. 즉,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전부터 진행돼 온 정부 권력의 지역사회 이양 및 시민 참여 활성화 노력에서 얻은 성과, 경험 등 소중한 교훈을 바탕으로 이를 진일보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Take Part는 영국 전역에 걸쳐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약 19개 지역에 Take Part pathfinders(선도자)라는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소외 지역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가 특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하여 그러한 지역이 주로 선정되었다. Pathfinder는 지자체, 제3섹터단체, 교육기관 등 지역 내 다양한 단체를 포함하며,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그 지역 이슈 및 특성에 잘 맞는 혁신적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교육 과정, 리더십 프로그램, 공공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Take Part approach(접근 방법)에 따라 제공된다. Take part approach의 주요 특색 중 하나는 ‘참여자 중심’이다. 어떤 위대한 사람의 성공 비결 및 사례를 쫓아 그대로 모방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프로그램 참여자들, 즉 특정 공동체 멤버들의 특수한 상황, 이슈, 특성, 역량 등 그들의 현재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함께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도 이론 습득 위주의 교육보다는 현장 경험을 통한 학습, 자기 성찰에 기반한 배움, 실제 구체적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중시한다. 이러한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사들은 지원적, 협력적, 안정적 학습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주민들은 지역사회 내 의사결정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여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지식, 스킬, 자신감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지자체들도 Take Part 프로그램 운영의 참여를 통해 지역 주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들의 영향력 행사에 방어적이지 아닌 좀 더 열린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전국 단위의 Take Part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종결됐지만, Take Part approach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녹아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지역에 따라 독립적으로 새로운 편당이 이어져 프로그램이 계속되기도 한다. 또한 ‘Train the Take Part trainers’라는 Take Part 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 배출된 인력들이 전국에 걸쳐 활동하고 있고, Take Part Network라는 오픈 멤버십 조직이 결성되어 있어 그 확장성은 여전히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이런 사이트들을 보면 솔직히 좀 놀랍다. 프로젝트가 끝났다고 서둘러 대충 일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공을 챙기거나 생색을 내려하기 보다는 경험을 통해 축적된 값진 지식과 노하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그 내용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세. 귀찮을 만도 할 텐데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챙겨 일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일을 제대로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정신이 바로 영국의 그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만든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리사 씨 이야기

Take Part는 단순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그림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는 게 사실이다. 여기 리사라는 여성의 Take Part 프로그램 참여기를 통해 한 발짝 더 Take Part에 다가가 보자.

리사 씨는 소위 ‘백수’였다. 직업을 구하기 위해 옥스퍼드에 있는 한 평생학습대학에서 구직자 대상 사회간병 수업을 이수하였다. 이 수업을 통해 지역 내 한 자선 단체에서 자원 활동도 시작하게 되었고, ‘Helping in School’이라는 수업도 계속 듣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0년 9월 Take Par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던 ‘Sharing Skills’ 수업을 만난다.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지역 초등학교에 학부모와 교사간 협의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 이 지역은 옥스퍼드 내에서 소외된 지역 중 하나였다. 수업을 듣던 리사 씨와 몇몇이 주축이 되어 학교에 ‘Parent’s Voice’라는 조직을 구성하였다. 리사 씨의 의도는 이 조직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공동체에 속한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그냥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부모들의 자녀와 학교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져 좀 더 나은 학교 환경이 만들어지고, 학부모와 자녀 간 관계도 개선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Take Part 프로젝트 이후 현재 리사 씨는 학교 운영 위원이자 해당 지역의 교육 협의체 및 학부모 협의체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그녀의 열정을 좀 더 전문적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대학에서 사회과학분야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리사 씨처럼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지역에서 이웃들과 함께 사회적으로 풀어가며 지역의 참 주인으로 자율적, 자발적으로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이 Take Part의 핵심이 아닐까 한다. 이 사회는 한 사람의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다수의 일상적 작은 영웅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게 민주주의니까.



영국 방문 시 참여했던 컨퍼런스 정소안, 여러 활동을 소개해놓은 판넬 중 Take Part 활동 사례 내용도 있다.

시민참여교육, 투 트랙(Two Tracks)이 필요하다

발행호 (제8호) 2012. 06. 20.(수)

글 정선영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지난 호 해외동향 제1탄 영국 편 네 번째 이야기, ‘개인적 학습을 넘어 사회적 학습으로’에서는 시민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인 “Take Part”를 소개했었다. 이번 호에서는 Take Part와는 다른 시각에서 시민참여를 바라보고 있는 “The U”라는 평생학습 사례를 통해 시민참여를 정의·구현하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마을 공동체가 무너졌다.

마을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정다운 이웃, 서로 돕는 이웃, 마을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이웃이란 말은 옛 말이다.

장면1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누군가 함께 타기라도 하면 불편하기 짝이 없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어떡하나 싶어 엘리베이터 전광판만 뚫어져라 응시한다. 말이라도 걸어도 어떡하나 싶어 휴대폰을 꺼내 들어 열중 모드로 전환한다. 마침 밤이라면 정체도 모르는 이 이웃이 언제 돌변할지 몰라 무섭기 짝이 없다.

장면2 우리 옆 집은 가내 목공소라도 차린 걸까? 가수 지망생이라도 사는 걸까? 옆 집 애들은 하나같이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를 겪고 있는 게 아닐까? 정말 시끄러워 살 수가 없다. 무 개념 인간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다닥다닥 꼭 붙어살건만, 이웃에 대한 예의나 배려라고는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다. 자기 가족 밖에 모르는 꼴 보기 싫은 인간들. 이웃이 아니라 웬수라 부르고 싶다.

장면3 교복을 간지나게 차려 입은 고딩들. 아니 중딩인가? 보란 듯이 담배를 피우신다. 앗, 그 중 한 녀석은 같은 패거리가 아닌가 보다. 뺨 뜯기고 있는 게 분명하다. 마을의 어른으로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일이다. 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일까? 요즘 뉴스에 등장하는 청소년들, 웬만한 성인 조폭보다 더 무섭다. 저 아이들의 표정을 보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포스를 풍긴다. 괜히 애들 눈에 띄지나 말고 조용히 나가던 길이나 가자. 내가 배트맨 의상으로 짠 갈아입고 우리 동네 범죄를 다 소탕할 수도 없는 일. 동네 경찰은 뭐 폼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들

하겠지. 나는 내 일이나 잘 하면 된다. 내 코가 석자인데, 주제에 누굴 간섭하겠나.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시민참여를 통한 공동체 회복’ 요즘 많이 들려오는 얘기다. 공시령 공시령 투덜거리지만 말고 직접 나서란다. 민주주의 사회는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거란다. 문제가 있으면 직접 참여하여 해결하란다. 내가 사는 동네, 내가 몸 담고 있는 공동체는 내가 참여하는 만큼 변한다.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단다. 맞는 말인 거 같다. 하지만 현실은?

영국의 대표적 사회혁신 단체인 “The Young Foundation”의 벤처 프로젝트 중 하나인 “The U”는 현재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을 실험 중이다. “The U”의 조사에 의하면 지역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 즉 참여핵심(Civic Core)이라고 부를 수 있는 비율은 어느 지역 사회를 막론하고 5%를 넘지 않는다고 한다. 적극적 시민 참여를 부르짖어 봤자 이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참여 시민의 저변이 확대되기 보다는 Civic Core의 참여 강도만 더 높아질 뿐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시민 참여 및 지역 사회 내 구성원 간의 유대 관계 형성이 좋은 것이라는 데에 이성적, 당위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실제로는 참여하기를 꺼린다. 끈끈한 이웃 관계에서 기인한 과도한 간섭,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그들은 부담스러워 한다.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 긴 출퇴근 시간, 가족 대소사 만으로도 현대인들은 이미 충분히 바쁘다. 그리고 힘들다. 지역 이슈에 일정 시간을 할애하여 직접 참여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The U”가 실시한 대 시민 설문조사 및 인터뷰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이웃과의 연대, 참여의 정도는 내 이웃의 얼굴을 아는 정도, 그들의

이름을 아는 정도, 조금 더 나아가 이웃집 택배를 대신 받아주는 정도라고 한다. 이웃들로 구성된 특정 모임에 참여한다던지, 동네 문제 해결을 위해 이웃들을 모아 비공식 모임을 조직한다던지 하는 정도의 관계는 그들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시민들은 동네 상점의 중요성에 대해 많이 언급 했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의 문제점이라든지 중소 자영업자 살리기 등의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가 아니라, 사람과의 인간적 관계의 필요성에 대한 관점에서 말이다. 지역 사회 내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즉 내 이웃이 운영하는 상점에 가면 주인이 나를 알아본다. 서로 눈인사를 한다. 조금 친해진 주인장과는 가끔 몇 마디 인사말을 건네기도 한다. 어제 동네에서 있었던 얘기를 나누기도 한다. 그 주인장이 어떤 사람인지 알 필요는 없다. 서로의 집을 방문하는 친구 사이가 될 필요도 없다. 그저 안면이 있는, 인사를 나누는 이웃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끈끈한 연대, 긴밀한 공동체가 아니다.

Weak Ties(약한 유대)

“The U”가 꿈꾸는 공동체는 ‘Weak Ties(약한 유대)’가 활발히 작동하는 사회다. “The Strength of Weak Ties”의 저자 Mark Granovetter에 따르면 ‘Weak Ties’란 이웃과 서로 눈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관계, 동네 단골 노점상 주인에게 매일 아침 신문을 사는 정도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한다. Weak Ties는,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집단의 가치나 규율에 따르거나, 집단의 행동규범에서 벗어났을 때 눈총이나 지탄을 받거나 하는 등 강한 연대 형성에 필요한 요구들을 따라야 하는 부담 없이 사람들 간 형성할 수 있는 첫 단계의 연대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은연 중에 끈끈한 유대에 기반한 공동체가

‘옳은 것’이라는 선입관을 갖고 있다. 과연 현실은 어떨까?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이고, 다양성이 점점 심화되는 사회이다. 즉, 현재를 살아가는 공동체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 중 하나는 끊임없는 변화와 새로운 사람들의 유입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이다. 하지만 강한 연대에 기반한 공동체는 편안함, 예측 가능성,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적 성향을 띠게 마련이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변화를 배척하기 마련이다. 즉 현대 사회는 강한 연대에 기반한 공동체가 작동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반면, ‘Weak Ties’ 약한 유대는 바쁘고, 다양하고, 빠르게 변하는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의 부담을 꺼리는 특성을 충분히 포용할 만큼 유연성이 높다. 이 뿐 아니라,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충분한 책임을 느낄 만큼의 압박을 가하기도 하는 강압적 관계다. 미미한 연대인 것 같지만 위급 상황에서는 기대치 않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관계인 것이다. 또한 정보와 네트워크가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는 현 시대에 Weak Ties는 사회 구성원들 간 광범위하게 지식과 정보가 흘러갈 수 있는 채널로 작동하게 되어 새로운 사회적 약자인 네트워크 소외 계층의 양산을 막을 수도 있다.

너와 나를 이어주는 90분간의 경험

이러한 Weak Ties 형성을 돕기 위해 “The U”는 새로운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험 중에 있다. 2010년 10월부터 시작된 이들의 고민은 2011년 6월에서야 첫 교육 프로그램 실시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The U” 교육의 가장 기본 목적은 단순하다. 그저 참여한 학습자들이 서로 말문을 트기를, 서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각 교육은 약 90분 동안 진행된다. 그리고 재미

있게 진행된다. 즉, 책상 앞에 앉아있기 보다는 활동량이 많고, 뭔가를 쓰거나 읽을 필요도 없고, 게임을 하거나, 비디오 시청을 하는 식이다. 또한, 고정된 교육 장소에서 세션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심의 쇼핑몰 내 빈 공간에 팝업(pop-up) 교육 장소를 설치하는 등 학습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간다. 이러한 짧고 재미있고 이동하는 일회성 교육은 학습자의 심리적, 물리적 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다. 교육 재 신청률도 꽤 높다. 약 30% 정도가 “The U” 교육을 다시 찾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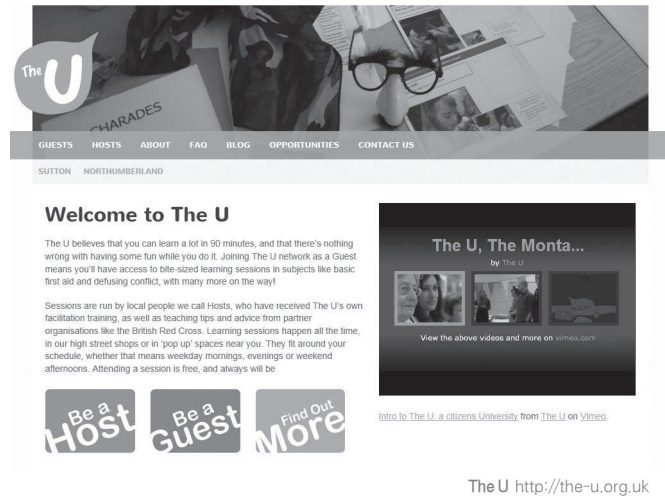
교육 주제는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지만 중요한 내용들로 구성된다. 첫 번째 예는 화재, 뇌졸중, 호흡곤란 등 응급 의료 상황에 대처하기. 특히 이런 교육은 응급 상황 대처 기술을 배울 뿐 아니라, 서로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어 참여자 간 친밀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두 번째 예는 시끄러운 이웃에 대처하는 법, 길을 막고 무리 지어 지나가는 학생들의 속 내 이해하기 등 이웃과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들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소위 ‘How To Talk To People(이웃들과 말문 트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지만 너무 기본적이라 어디에서든 가르쳐 주지 않는 스킬들에 대해 배우는 거다.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 비법, 협상 및 설득의 기술 등 난이도가 높은 커뮤니케이션 교육들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교육은 찾아보기 힘든 게 사실이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은 전문강사가 교육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Volunteer들이 하루 정도 교육을 받고 Facilitator(조력/협력/촉진자)로 참여한다. 학생과 선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배운다는 컨셉이고, 전문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학습자 중 약 10% 정도가 Volunteer로 다시 교육에 참여한다고 한다.

“The U”가 궁금하신 분은 그들의 발랄한 홈페이지도 한 번 방문해 보시길.

즉 “The U”의 교육 프로그램이 쉽고 재미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벼이 여길 내용은 아니라는 것. 차이를 만드는 것은 결국 착고, 사소한 것들이니까.



결국, 소소한 것들이 차이를 만든다

“The U” 프로젝트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시민 참여 활성화 노력의 필요성이나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Civic Core의 중요성을 폄하하고자 함은 아니다. Civic core의 필요성과 더불어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Weak Ties의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뿐이다. 가끔 우리는 지역 사회의 소위 ‘우선 순위가 높은’ ‘중요한’ 이슈에 몰두한 나머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소소한 것들을 소홀히 할 때가 있다. 자원봉사, Participatory Budgeting(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위원회 활동 등 적극적 지역사회 참여가 어렵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활동은 목적이나 활동 계획 등이 구체적인 편이라 참여하는 사람들의 책임이나 역할도 명확한 편이다. 하지만 이웃들의 존재를 인식하기, 이웃들과 눈인사 나누기, 이웃들과 말문 트기 등은 사소한 것일 수는 있지만, 일상적으로 항상 실천한다는 것은 어쩌면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런던의 평생학습을 배우다

발행호 (제9호) 2012. 07. 04.(수)
글 남경아 수원시평생학습관 국장

런던으로 출장간다니깐 친구들이 '좋겠다'며 부러워했다.

글쎄, 자로고 내 경험에 의하면 '출장'으로 가는 해외여행은 노뎡큐다.

왜냐구? 일단 성격 급하고 호기심 많은 나 같은 성향의 사람은 언어스트레스를 참기 힘들다.

특히 영어권 국가는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말이 빠른 건 기본이요, 통역하는 시간도 잘 기다려 주지 않는다. 의례 '연수까지 올 정도면 영어 정도는 하겠지?' 생각하는 거 같다. 나라마다 사람마다 억양이며 발음의 차이가 커, 영어를 잘 하는 사람도 하루 종일 귀 쫑긋 세우고 듣다 보면 머리에서 쥐나기 일쑤다. 이번처럼 비즈니스로 간 여행에서는 당연히 전문용어가 과반수 이상이다. 이러하니 영어를 잘 하는 사람이나 못 하는 사람이나 언어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한다.

관광? 런던을 떠나기까지 템즈강 한번 못 보고 돌아오는 줄 알았다. 비영리단체에서 해외 연수를 계획할 때는 적은 비용에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야 한다는 심리적, 물리적 압박 때문에 좀 과장되게 표

현하면 살인적인 스케줄을 잡게 마련이다. 짐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노트북2대, 캠코더, 사진기, 각종 자료, 기관 선물, 공동 물품까지... 날마다 양 어깨에 한 아름씩 짊어지고 하루에도 수차례씩 전철을 옮겨 타며 다녀야했다.

설상가상으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2012년 5월, 런던은 몇 십 년 만에 사상 최악의 날씨였다. 5월 중순인데도 거리 곳곳에 겨울 옷차림을 한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우리는 미리 정보를 알고 초겨울 옷을 준비해 갔지만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날마다 과김치가 되어 호텔방에 들어왔다. 그렇게 우리는 지난 5월 13일~5월 20일까지 6박 8일간의 런던연수를 무사히! 다녀왔다.



매일 아침 방문기관으로 출발 전, 호텔 로비에 자료를 정리했다.

푸념이 좀 길어졌다. 런던 출장 다녀온 지 한 달.

하도 몸 고생, 마음고생을 해서 일까. 갔다 와서 2주는 손도 까딱 하기 싫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가끔씩 눈을 감으면 런던의 푸른 녹음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다. U3A의 이안, 브라이언, 토니... WEA의 앤, 라사, Camden Town Shed의 마이크... 가까이 우리를 집으로 초대하고 맞아준 유니스&또치 부부, 영파운데이션에서 일하고 있는 옛 동료 소정, 윤하씨...

그리고, 우리는 보고 배웠다. 학습을 통해 개인이 변화되고, 변화된 개인들이 모여 사회를 바꾸는 다양한 실험들을. 인종·연령·세대를 초월해 열정과 신념을 갖고 묵묵히 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비록 언어는 잘 통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진심을 다해 교감했고 감동받았다.

지난 6월8일, 모처럼 런던 방문단이 한자리에 모여 다시 런던을 이야기 했다. 귀차니즘으로 톡톡 뭉친 우리학교의 여성 4인방은 런던에서 어떤 것들을 보고 듣고 느꼈을까? 그녀들이 전하는 솔직, 발랄한 기행 '런던을 배우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 런던 방문 기관들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 4호~8호>를 통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오는 8월에는 연구보고서 형태의 소책자가 발간될 예정이다. 이번 연제는 서로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하고 토론하는 좌담회 형식을 빌렸다.



〈런던 연수 정리를 위한 좌담회〉

• 일시 : 2012년 6월 8일(금)

• 참석자 : 5명

정성원 관장 특유의 날카로움과 분석력으로 연수단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우리학교의 최고 대빵.

남경아 국장 말, 행동, 생각 모두 빠르다. 호기심도 많고 감동도 잘해 조그마한 것을 봐도 그냥 넘기지 않는 오지랖의 소유자. 연수 총괄이라는 막중한 사명을 띠고 현지에서는 대화 내용 정리, 분석, 기사작성을 주로 담당했다.

임성미 팀장 예리하다. 모두가 감동모드에 빠져 좋은 것만 이야기 할 때, 날카롭게 한마디 보태, 급 평정모드로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있다. 이번 연수에서 동영상 촬영, 편집, 노트북 수리까지 기계 만지는 일을 담당했다. 자타공인 학습관의 맥가이버.

이보라 연구원 동향리포트 '와'담당. 연수단의 막내로 회계, 행정 등 이것저것 굵은 일을 도맡아 했다. 복잡한 런던 시내 전철을 하루 만에 파악, 길 찾기 달인으로서의 새로운 잠재능력을 발견하고는 좋아함. 연수단의 회계를 맡은 덕분에 영국 지폐, 동전 구분은 누워서 식은 죽 먹기가 됐다는...

정선영 연구원 이번 연수의 일등공신. 잘 나가던 대기업 직장 때려치우고 뒤늦게 비영리 분야에 들어와 생고생이다. 탁월한 컨설턴트로서의 경력을 발휘, 이번 연수의 자료조사, 섭외, 실무, 현지 통역까지 1인3역을 했다. 연수 끝나고 살이 2kg는 빠졌다는.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평생교육, WEA를 들여다 보다. (Workers' Educational Association)

런던 다녀 온지 3주가 지났다. 굉장히 오래전 일인 것 같다. 런던에서 밤마다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평가했다. 생각해보니 우리 굉장히 부지런했네요. 그렇죠?(일동 웃음) 오늘 이 자리는 런던 연수를 총정리 하는 자리다. 각자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종합해 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우리학교를 비롯해 평생학습 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눠보자. 먼저, 우리를 가장 고민하게 만들었던 WEA에 대해 말해볼까?

※ WEA (Workers' Educational Association)

1903년에 설립된 영국 성인교육기관 중 최대 기관.

중앙에 National이 있고, 하부에 9개의 Region, 500여개의 Branch로 구성되어 있다.

WEA는 영국 전역에 12,000개 코스에, 약 110,0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정선영 정말 가장 고민되는 기관이라는 것에 동의. 왜냐면 WEA는 굉장히 방대한 조직이다. 그래서 이번 연수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여했다. 그럼에도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진다. 하지만 내 생각에 핵심 키워드는 단연 브랜치(branch) 조직의 역할과 운영방식이다. WEA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 협회(National office)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교육을 기획하여 내려 보내는 탑-다운(Top-down) 방식이 아니라, 지역사회 단위, 즉 현장에 브랜치(branch)를 두어 주민들의 생생한 교육 욕구가 그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방식(Bottom-up)에 있다.

남경아 WEA의 조직형태, 일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평생교육, 시민교육에 던지는 시사점이 크다. 모든 교육의 기획이 현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기관들도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주민욕구조사, 지역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일하는 실무자들의 주관적 판단, 취향이 가장 크

게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브랜치(branch)가 일상의 생활단위에서 시민들의 교육욕구와 니즈를 파악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모든 프로그램이 결정되고 설계된다는 것은 놀랍기까지 했다.

임성미 그런데, 난 아직도 브랜치(branch)에 대해 명확하지가 않다.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시민제안 프로그램이나 공모방식 같은 지원 사업이 있지 않은가? 이것과 브랜치(branch) 활동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브랜치(branch)는 자원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조직인데 이들을 지속적으로 자원 활동하게 만드는 동력이 무엇인가?

정선영 브랜치(branch)는 프로젝트 성격이 아니라, 일상적 조직으로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성, 노인, 홈리스, 임대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있다. 주민들은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모두 다른 교육 욕구를 가질 것이다. 브랜치(branch)는 이런 다양한 시민들의 구체적 욕구를 파악하고 제안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브랜치(branch)가 자원 활동 조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강사 섭외, 페이퍼 작업, 펀딩 등 교육진행에 필요한 내용은 모두 WEA Region의 실무자들이 담당하고 있다.

정성원 그러면, 브랜치(branch)가 되기 위한 조건은?

남경아 브랜치(branch)는 일부러 모집하는 방식이 아니다. 구체적인 주민들의 교육욕구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구성되는 형태다. 물론 3인 이상의 주민들이 모여 있어야 한다든지 등의 최소 기준은 있지만, 크게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리고, 브랜치(branch)에서 프로그램을 제안한다고 다 승인되는 건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WEA에서 펼쳐지는 모든 학습은 Active Learning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었다.

따라서 단순한 강의 중심, 특강식 프로그램은 지양, 수업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기여 하는 방식, 구체적인 실행계획 (action plan)까지 연결되는 프로그램에만 지원하고 있었다.

이보라 우리를 안내해 준 WEA London office의 Ann이 한 말 중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다. “볼런티어로 브랜치(branch)를 운영하는 게 사실 우리도 어려운 게 많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렵지만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자체를 일상의 민주주의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말 볼런티어라는 게 꼭 필요하지만 어렵다는 것은 전 세계가 공통적인 것 같다.(일동 웃음)

임성미 WEA는 조직운영의 효율성, 효과성 보다는 시민들의 참여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 이는 WEA가 100년 전 민주주의의 태동과 민주주의 운동에서 시작된 단체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핵심은 ‘시민참여’고, 따라서 볼런티어 운영에 어려운 점들이 있더라도 그런 가치, 정신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기관의 철학, 중심이 확실하다. 이런 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



WEA의 친절한 Ann과의 미팅. 방대한 WEA시스템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정성원 연수준비하면서 WEA의 CLC(Community Learning Champions)를 벤치마킹 하자고 했는데

실제로 CLC를 우리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가? 구체적인 방법은?

※ Community Learning Champions(이하 CLC)

Learning champions는 자원활동가들로 친구, 이웃, 완전히 낯선 사람들에게 평생학습의 좋은 점을 홍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평생학습자로서 주위의 롤모델이 되기도 함. 2011년 3월 통계에 따르면, 약 2,000명이 챔피언으로 등록되었고, 그들의 활동을 통해 약 100,000명의 사람들이 학습기회를 소개 받음. 10만 명 중 약 70%는 무직자였음.

※ CLC 관련 동영상

<http://www.communitylearningchampions.org.uk/clc-videos>

정선영 ‘역시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 하는구나’ 절감하게 한 것이 CLC였다. 당연히 나는 CLC를 통해 몇 명의 학습자가 더 참여했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한 Ann의 답변은 의외였다. “우리는 CLC를 통해 몇 명의 학습자가 더 참여했는지 통계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CLC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원래는 학습을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챔피언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변화된 사례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챔피언 자체가 동기화 된 것에 더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홈리스였던 사람이 우연한 기회에 교육을 듣고 CLC가 되고, 자신이 변화한 경험이 놀랍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위의 다른 홈리스를 데려오고 하는 식이었다.

임성미 WEA는 굉장히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굳이 우리나라와 비교하자면 지역사회 주민운동 조직, 볼런티어 조직과 유사하다고나 할까? 또 WEA교육의 약 50%이상이 지역 단체와의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파트너 기관들의 프로그램을 컨설팅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일종의 교육

컨설팅 회사처럼도 느껴진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더 공부 필요하다.

남경아 WEA의 브랜치(branch)나 CLC 같은 조직, 프로그램을 우리 사회에 당장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WEA의 가치, 철학, 조직운영 방식, 교육 내용이 우리 평생교육 현장에 던지는 화두는 크다. 특히 요즘 평생학습에서도 사회적 자본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 WEA의 모델은 사회적자본을 형성하는 교육의 힘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아닐까 한다.

이보라 그리고 이번 연수의 핵심 주제였던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과도 가깝다. WEA교육을 수강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볼런티어로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교실에서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학습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이 아니라,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결과물임을 보여준 좋은 사례가 아닐까 한다.

※ 사회적자본

언제부턴가 Social 이라는 단어가 유행이다. Social Capital 이라 표기되는 사회적자본은 평생학습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도 많이 거론된다. 즉 ‘사회적 자본을 키우는 평생학습’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힘을 합쳐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힘’으로써, 평생학습을 통한 마을 만들기, 평생학습사회의 개념과도 맥을 같이한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나라는 OECD국가 31개국 중 ‘사회적 자본’ 지수 부문에서 22위를 차지했다. ‘평생교육’의 갈 길이 바쁘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 WEA의 조직구조, 프로그램을 당장 갖다 쓰기는 어렵다.
- 하지만 WEA를 국내 평생학습 현장에 소개하고,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구조, 패턴에 대해 성찰하고, 인식의 전환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 가능하다면 하반기 컨퍼런스 때 WEA의 관계자를 초청해서 강연도 듣고 관심 있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 섹션별 토론을 추진해 보자.
- 그리고, WEA의 브랜치(Branch), CLC(러닝챗피인) 구조를 우리 학습관에도 적용해 보자. 수원시평생학습관의 경우 ‘평생학습 상담사’의 역할과 연계 지어볼 수 있다. 평생학습 상담사 역할을 시민들의 학습상담과 프로그램 홍보에서 확장, 지역 주민들의 교육 욕구를 파악하고 전달하는 조직으로 재정립해 보면 좋겠다. 하반기 평생학습 상담사 보수교육 때 함께 토론했다. 또, 지역 주민들과 가장 근거리에서 밀접한 관계를 갖는 평생교육기관인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는 방안도 연구해 보자.



WEA 런던 사무실 전경(좌)과 내부(우)

런던의 평생학습을 배우다! 학습공동체 U3A 번외편

영국연수 중 방문단이 눈물을 쏟은 이유는?

런던연수 3일째.

우리는 런던에서 기차로 한 시간 쯤 떨어진 Fetcham이라는 작은 마을로 이동했다. 인구가 1,000명도 채 안 되는 이 작은 마을까지 간 이유는? U3A in Fetcham 회원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U3A는 이미 한국에도 꽤 알려진 시니어 단체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 3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 즉 은퇴한 시니어들의 학습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 U3A Trust의 이안(Ian)씨가 런던 사무실이 아닌 Fetcham까지 오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 주저했다. 하루 종일 낯선 시니어들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부담도 부담이었지만, 이번엔 방문하기로 계획한 기관 중에서 U3A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기관이라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U3A에 하루 일정을 꼬박 투자(?)하는 게 효율적일까? 라는 건방진 생각이 자리 잡았던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직감적으로 U3A회원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고, U3A의 속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어 용기를 냈다. 정말 안 갔으면 크게 후회할 뻔 했다.

※ U3A

U3A (The University of The Third Age, 이하 U3A)는 은퇴한 시니어들의 학습공동체로 1981년에 프랑스에서 시작되었지만 영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영국전역에 844개의 U3A학습공동체가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멤버도 27만 명이 넘는다.

이안(Ian)과 토니(Tony)씨가 Fetcham역까지 우리를 마중 나와 있었다. 얼마나 환한 미소로 우리를 반

갑게 맞이해 주는지 낯선 타국에서의 긴장감이 눈 녹듯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오전에 우리는 토니 씨 집에 초대되어 Fetcham지역의 그룹 리더 6~7분과 함께 담소를 나눴다. 오후에는 근처 커뮤니티센터로 이동, U3A의 학습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생생한 발표를 들을 수 있었다. 모임 중간 중간 회원들이 직접 만든 맛있는 쿠키와 tea도 빠질 수 없다.

지금도 생생하다. 멀리 동양에서 온 어리버리한 여자들을 진심으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고 하나라도 더 보여주기 위해 하루 종일 세심한 준비를 아끼지 않았던 U3A Fetcham 회원들의 밝은 미소가! 그들의 따뜻한 마음, 정성이 고스란히 전해져서 헤어지는 순간에는 우리 모두 울컥했다. 비즈니스로 간 연수에서, 그것도 생전 처음 만난 시니어들 앞에서 울컥이라니... 세상엔 말로 설명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세대가 달라도 가슴으로 전해지는 그들의 따뜻한 이야기,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귀한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주었던 U3A Fetcham! 소박하지만, 누구보다 강했던 그들의 이야기를 풀어보자.

정성원 U3A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관심 있게 지켜봐 온 모델이었다. U3A가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는데, 영국에서 가장 활발한 이유가 있는가? 영국 U3A만의 특징이 있다면?

남경아 U3A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프랑스는 교수중심, 강의중심의 성격이 강한 반면, 영국 U3A는 회원들이 함께 학습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그러다 보니 일방적 강의보다는 회원들끼리 서로 공부해 와서 발제, 토론하는 형식이 많았다. 우리가 만났던 회원 중에 '아트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예술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현대 예술은 너무 어렵고 비싸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머리 맞대고 공부해 보자고 모였다. 지금 나는 이 활동이 너무 좋고 행복하다” 영국 U3A만의 특징이랄까, 독창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이보라 참, 그래서인지 영국 U3A에서는 수업을 클래스(class)라 표현하지 않고, 그룹(group)이라고 한다. 강사를 ‘코디네이터(coordinator)’라고 하고, 그룹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지만 리더들이 모두 강사는 아니었다. 오히려 각 그룹을 코디네이터 하는 조력자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또 한가지! 런던처럼 큰 지역은 별도 사무실이 있지만, 우리가 방문했던 Fetcham은 작은 동네라 별도 사무실이 없고 모든 학습은 회원들의 집, 또는 지역 커뮤니티센터 등을 빌려서 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규모를 우습게 보면 안된다. Fetcham만 하더라도 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회원수도 600여명에 이른다.

정선영 U3A의 특징은 크게 자율, 자치, 자조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즉,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다. 외부의 제약에 구애받지 않는다(자율), 주인정신 및 책임감을 갖고 조직운영과 의사결정에 모두가 참여해서 만들어 간다(자치), 선생과 학생이 따로 없다. 서로 함께 배운다(자조). 학습공동체 (Learning co-up)성격이 짙다보니 참여하는 회원들의 자발성이 대단히 높다고 한다. 이런 게 가장 큰 동력이 아닐까?

임성미 U3A에서는 매우 다양한 수업들이 있다. 컴퓨터, 볼륨댄스와 같이 일반 취미, 교양수업부터 가드닝, 집수리, 아트, 복리딩, 와인, 라틴어 등 매우 전문적인 수업까지. 하지만 이 모든 수업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함께 사는 법을 배운다’는 거



다. 그런데 이런 U3A 모델이 전 세대로 확장가능한 것일까? 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이 든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많은 시니어들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젊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오프라인 학습모임보다 온라인을 선호하지 않을까?

정선영 영국에는 U3A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학습모임도 활발하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School of everything(모든 것의 학교)’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사회혁신 기관인 영파운데이션(Young Foundation)에서 인큐베이팅한 혁신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을 연결하는 온라인 중개 사이트다. 2006년에 설립 되 지금까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번 연수 때 방문하려고 했으나, 운영자와 일정이 맞지 않았다. 궁금한 내용은 추후 이메일링으로 질문하기로 했다.

정성원 U3A모델이 은퇴자들이기에 확실히 더 유리한 것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U3A, School of everything 등 세대마다, 지역마다 학습방법에 차이는 있겠지만 ‘함께 만들어 간다’ ‘서로 배운다’는 기본 정신은 우리나라 평생학습에서도 꼭 필요한 내용이다.



남경아 국내에도 아직은 초기지만 이런 실험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U3A의 모델을 벤치마킹한 희망제작소의 '지혜로 열린 대학'인데, 지혜로 열린 대학도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참, '지혜로 열린 대학'은 최근에 U3A in seoul로 단체명을 바꿨다. U3A 국내 첫 사례라고나 할까?

이보라 온라인에서도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다. 서로의 재능을 사고 파는 신개념 소셜 커머스의 일종인 온라인 벼룩시장이었는데, 자기가 가진 재능을 등록해 놓으면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구입하는 방식이다. 아직 초기라 활발한 것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이런 사이트들이 점점 더 확장되지 않을까?

남경아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도 이런 취지와 정신을 살린 '수원 누구나학교'를 이미 시작했다. 물론 아직은 초기라 미진한 점이 많다. 가장 어려운 점은 아직도 '학습'이라고 하면 '전문 강사가 하는 것'이라

는 인식이 강해 자발적으로 학습모임을 개설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전문 강사들의 재능 나눔 강화도 '기존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아닌가'하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또, 강사와 학습자 구별이 뚜렷하다 보니 등록한 학습자 숫자 등에 민감하다. 자율·자치·자조라는 U3A의 기본정신을 어떻게 구현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

임성미 하나의 학습공동체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올바른 관점을 가진 '한사람'의 집요한 열정과 끈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평생학습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습동아리'들이 이런 취지를 가장 잘 살린 모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습동아리들의 활동을 <누구나학교>로 인식하게끔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 같다.

정선영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평생학습관은 어린이부터 시니어까지, 일반과정에서 전문 과정까지, 전 지역주민들의 욕구와 니즈를 반영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에 공을 들일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교육 이후에 학습자들의 변화와 지속적 관계 유지, 자발적인 학습 모임 등 학습자들의 조직화에는 덜 신경 쓰게 되는 것 같다.





정성원 그럴수록 실무자가 모든 걸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가능하지도 않고. 현재 누구나 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강사, 학습자 중에 리더그룹들을 발굴하고 키우는 관점이 중요하다.

일상과 공부, 관계가 살아있는 학습공동체

토니(Tony)씨는 현직에 있을 때 외교 관련 업무를 해서 전 세계 곳곳을 많이 다녔다. 우리에게 한국에도 온 적이 있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U3A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볼런티어 단체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회원들의 독립성, 자율성이 부족한 것 같아 탈퇴했다고 한다. 헤어지기 전 토니 씨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U3A를 몰랐다면, 지금 쫓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신문이나 뒤적이면서 지냈을 것이다.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도 아닌 사람 (nobody)으로 지냈어야 했을 것이다. 하지

만 난 U3A를 알게 됐고, 참여하게 되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참여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

Fetcham 회원들은 그룹 활동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일 저일로 수시로 만난다. 멀리 대도시에 있는 자식들이 자주 오지 않아도 심심하지가 않다. 학습을 매개로 만났지만 일상과 공부, 관계가 살아 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는 삶과 배움과 성장. 이것을 간절하게 줄인 말이 평생 학습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해 본다. 누군가와 관계 맺음을 통해 배움을 주고 받고, 어려운 문제도 함께 해결하며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꿈꾸는 학습자치의 장. 우리가 만들어야 할 평생학습의 미래다. 갈 길이 바쁘다.

독일 시민들은 공부 중

발행호 (제10호) 2012. 07. 18.(수)

글 강현선 前희망제작소 연구원, 베를린 자유대학 정치학 석사

수원평생학습관(희망제작소 위탁운영)에서는 전 세계 다양한 평생학습 관련 동향과 사례, 단체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대안 교육운동부터 각 나라의 평생학습 정책을 대표하는 단체와 프로그램까지. 정해진 틀은 없다. 각 나라의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우리의 평생학습 체계와 내용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생각을 기대할 뿐이다.

지난 영국편에 이어 이제는 독일이다. 독일은 정치교육·시민교육이 발달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과거 나치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반성하고, 교육을 통해 올바른 시민

상을 제시한다. 또한 통일 전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동서독 시민들의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함께 살아가고자 노력한다. 하지만 독일의 평생교육을 단순히 시민교육으로만 이해해서는 안된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평가 성적은 OECD 국가 평균에도 못미치고 중하위권에 머물지만, 모든 시민이 평생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다양한 교육 혜택을 누리며 그 힘은 나라를 지탱한다. 수많은 제반시설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잘 짜여진 제도들과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 탄탄하게 독일을 받쳐주고 있는 독일의 평생교육을 살펴보자. <편집자주>

독일은 학교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부러워할만한 나라가 아닐지도 모른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 PISA에서 턱없이 부진한 성적을 보였으며, 통일 후 국가의 지원감소로 인해 각급 학교들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PISA의 결과에 충격을 받은 독일 정부가 교육개혁의 칼을 뽑아 들긴 했지만, 급격한 제도 변화에 대한 현장의 반대 역시 만만치 않아서 무척 어수선한 상태이다. 그런데도 현실에서 독일이라는 나라의 경쟁력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유럽 전역에 몰아닥친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홀로 위풍당당하다. 무엇 때문일까? 나는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학교 밖에서 계속되는 교육, 즉 평생교육의 힘이

라고 생각한다.¹ 끊임없이 배우고 고민하는 시민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더 나은 문제해결 능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 Hannah Arendt는 활동적인 삶을 이루는 근본활동으로 노동labor, 작업work, 행위action를 꼽았다. 노동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이며, 작업은 노동과는 별개로 인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구조물을 창조하는 것이고, 행위는 정치적 조직체를 건설하고 보존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다. 아렌트는 근대사회에서 사람들이 노동하는 동물이 되어가고, 인간의 활동이 오직 노동으로

만 수렴하는 경향을 경계했다. 굳이 철학적 설명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일에 매몰되어 취미생활도, 시민으로서 정치참여도 못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허무하게 느끼게 되고, 그들의 공동체 역시 피폐해질 수밖에 없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노동, 작업, 행위가 균형을 이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 것이다. 이런 사회를 만드는 데에 꼭 필요한 것이 평생교육이다.

독일 사람들은 졸업한 후에도, 입시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공부한다. 독일인들은 지하철 안에서, 카페에서, 거리의 벤치나 공원에서 신문과 책을 읽으며, 일상적으로 공공도서관을 찾는다. 또 전국의 시민대학들에서는 연중 해아리기 힘들만큼 많은 수의 강의가 개설된다. 왜 그런 것일까? 독일의 대표적인 평생교육기관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번 호에서는 독일 시민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독일사회의 저력에 대해서 살펴 볼 것이다.

여유만만 독일사회

교과부의 발표를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OECD 회원국의 평균인 40.8%에 훨씬 못 미치는 30.5%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주로 시간이나 돈이 없거나 가까운 곳에 적당한 시설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람이 무언가를 배우려면 우선 여유가 있어야 한다.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그리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심리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의무교육을 모두 마친 성인의 경우에는 이런 여유가 더욱 중요하다. 내가 본 독일사회는 시민들에게 이런 여유를 제공해 주는 사회이다.

독일 시민들은 많은 권리를 누리고 산다. 아이를 낳

으면 국가가 자녀수당과 보육비를 지원해 주고, 대학교육까지 무료로 제공해 주고, 병이 들면 무상의료 서비스를 해 준다. 일터에서도 그들은 매년 6주 이상의 휴가를 보장받고, 경영자들과 영업시간, 일시 휴업, 노동자 해고 등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직장협의회라는 조직을 통해 협상을 할 수 있다. 더욱 놀랍게도 독일에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감독)이사회에 노동자대표와 경영자가 동수로 참여하는 노사공동결정제도라는 것이 있다. 물론 이런 제도들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결정만 내려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노사공동결정제도는 직원이 2,000명 이상인 대규모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경영자들을 견제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며, 노동자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주요한 결정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해 준다. 또한 독일은 유럽의 모든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근로자의 해고보호규율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나라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일의 직장인들은 퇴근할 때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노동자들은 임금협상을 포함한 그들의 권익을 위해 나서주는 막강한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독일의 노동자들은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고 충분한 휴식을 누린다. 그 밖에도 독일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더라도 실업수당과 기초복지수당 등을 통해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촘촘하게 짜인 사회안전망 속에서 사람들은 여유를 갖게 된다.

여유는 그들의 삶 곳곳에서 배어난다. 그들은 해마다 6월~8월이 되면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가까이 별이 좋은 곳을 찾아 휴가를 떠난다. 물론 나머지 휴가일정도 공휴일, 샌드위치 휴일에 덧붙여서 연중 톱툰이 즐긴다.² IKEA에서 조립식 가구를 사다가 조립하는 것을 즐기고, 여러 달에 걸쳐 퇴근 후 집수리

를 하기도 하며, 집으로 손님을 초대해서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하는 일도 즐긴다. 소규모 별장형 농장인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을 가꾸느라 큰 몸집을 부지런히 움직이기도 한다.³ 그들은 이렇게 번거롭고 불편하게 살 수 있는 여유를 누린다. 물론 여유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두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유가 그들에게 공부를 또는 그 밖의 무엇인가를 '선택할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만은 분명하다.

읽어지면 코 닿는 곳에 있는 도서관과 스포츠 클럽

독일 사람들은 공공도서관을 일상적으로 애용한다. 그곳에서 숙제를 하기도 하고, 소설책을 읽기도 하고, 음악이나 영화를 감상하며 쉬기도 한다. 도서관의 도서대출(반납)코너는 늘 사람들로 북적인다.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의 연령층도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우리에게 도서관이 시험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나를 외부와 단절시키기 위해 찾은 닫힌 공간이라면, 독일 사람들에게 도서관은 일상 속에서 새로운 세계와 그들을 연결시켜 주는 열린 공간이다. 독일에는 이런 공공도서관들이 동네마다 촘촘히 들어서 있다. 독일에는 총 8,256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이는 주민 9,902명 당 1개의 도서관이 있다는 뜻이다. 독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도서관을 지척에 두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공공도서관들 덕분에 시민들은 돈 걱정 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책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들을 맘껏 이용할 수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독일의 출판사들 역시 공공도서관들이 안정적으로 도서를 구입해 주는 덕분에 양질의 책들을 큰 위험 부담 없이 꾸준히 발간할 수 있게 된다. 시민들을 지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공간이자 과도한 상업화의 논리로부터 시민들의 지성을 지켜주는 든든한



독일 공공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베퉀시장 모습.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한다. (출처:오마이뉴스 <http://bit.ly/MWMQY>)

요새인 독일의 공공도서관은 평생교육이라는 나무가 자라기에 더 없이 좋은 토양이다.

독일은 또한 자타가 공인하는 생활스포츠 선진국이다. 이런 독일의 생활스포츠를 견인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클럽이다. 현재 독일에서는 약 9만 개의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다. 스포츠클럽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익적인 성격의 조직으로서, 7명 이상의

1 독일에서는 평생교육을 '계속교육(Weiterbildung)' 또는 '성인교육(Erwachsenenbildung)'이라고 부른다.

2 2010년 현재 독일의 노동시간은 연간 1,408시간이고, 우리나라는 2,193시간이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775시간이다. OECD 회원국들 가운데 독일은 두 번째로 노동시간이 짧은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칠레보다도 노동시간이 긴, 최장시간 노동 국가이다. (출처:OECD Statistics)

3 '작은 농장'이라는 뜻의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은 텃밭이 딸린 소규모 별장형 농장이다. 이는 주말농장의 시초이기도 하다. 독일에는 전국적으로 클라인가르텐 단지마다 협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그 수는 약 15,000개소에 이르고, 회원 수는 약 120만 명에 달한다. 회원 1인당 관리하는 클라인가르텐의 면적은 250-300㎡ 정도이며, 1/3이상의 면적에 과일이나 채소를 심어야 하고, 1/3 이내의 규모로 집을 지을 수 있으며, 1/3이상에는 의무적으로 꽃을 키우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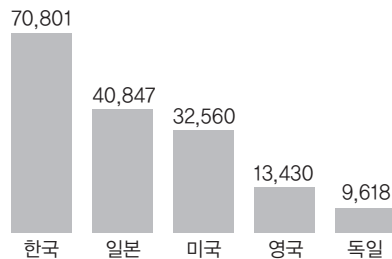
주요 국가별 도서관수, 1관당 인구수

(단위 : 개관/명/권)

구분	도서관수	인구수	1관당 인구수	기준년도
한국	759	50,515,666	66,556	2010
미국	9,221	302,864,000	32,845	2008
영국	4,517	61,380,700	13,589	2008~2009
독일	8,256	81,750,000	9,902	2010
일본	3,196	128,056,026	40,068	2010

자료 : e-나라지표/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문화체육관광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수



한국 2009년, 타국가 2008년 기준, 자료 : 통계청, 문화체육관광부

회원만 확보되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정부는 클럽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상당부분을 지원하고, 그 밖에도 운동시설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런 스포츠클럽들은 상업스포츠 시설에 비해 훨씬 저렴하며⁴, 매우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전국에 고루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살던 소도시에서 살던 접근이 용이하다. 이런 장점들 덕분에 독일 인구의 약 1/3 가량이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한다. 즉 독일 사람들은 몸에서 적신호를 보내야 비로소 시작하는 절박한 치료목적인 운동이나 여름철 비키니를 입기 위한 벼락치기 운동 대신, 생활의 활력과 즐거움을 위한 생활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이런 성과를 얻기까지 독일정부는 이른바 ‘황금계획(Goldener Plan)’이라고 하는 스포츠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투자했다. 이 황금계획은 독일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10분 거리 이내에서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다. 1961년 이후 꾸준히 투자가 이루어진 덕분에 오늘날 독일에서는 구 동독지역의 소도시들에서도 잔디구장과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시민들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책임지고 있는 스포츠클럽은 공공도서관과 함께 독일 평생교육의 훌륭한 바탕이다.

평생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교육의 폭은 주부들이 주요 수강생인 문화센터의 취미교실에서부

터, 성인들이 자신의 지적욕구를 채우기 위해 또는 자아실현을 위해 듣는 다양한 교양강좌들에 이르기까지 매우 넓다. 평생교육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직업교육이다. 직장인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발전하는 기술에 발맞추기 위해서 외국어를 배우거나 업무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하기도 한다. 앞으로 연재될 <해외동향 독일 편>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독일의 역사, 문화, 사상 등을 잘 드러내 주는 기관과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짙은 녹음이 뚝뚝 듣는 여름날 <해외동향 독일 편>과 함께 독일사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그들이 지향하는 내일의 모습을 어렵 꽃하게나마 짐작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⁴ 예를 들어, 대도시 소재의 피트니스 스튜디오의 경우, 월 80~100유로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지만, 스포츠클럽의 경우, 성인의 평균 월 회비는 7.5유로로서 이는 독일 노동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인 8유로 보다 적은 금액이다. 청소년은 4.5유로, 어린이는 3.5유로, 가족단위로는 14유로의 월회비를 지불한다. (송형석, <독일의 생활체육 육성정책과 스포츠클럽>, FES-Information-Series, 2009)

함께하는 정치교육, 국가는 거들 뿐

발행호 (제10호) 2012. 07. 18.(수)

글 강현선 前희망제작소 연구원, 베를린 자유대학 정치학 석사



독일연방정치교육원 <http://www.bpb.de>

독일의 대표적인 정치교육 지원기관인 연방정치교육원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이 올해로 설립 60주년을 맞았다.¹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참패한 후 독일에게는 전범국이자 패전국이라는 이중의 명예가 씌워졌다. 패전 후 독일인들을 절망하게 만들었던 것은 잿더미가 된 국토뿐만이 아니었다. 1백만 명이 넘는 강제노동자와 전쟁포로들을 죽이고, 6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정권의 만행은 양심적인 독일인들에게 또는 독일인들의 양심에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로 남았다. 종전 후 나치즘의 최면에서 깨어난 독일인들은 자신들의 침묵과

동의,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전쟁범죄의 참상에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런 역사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자신의 이성과 양심에 따라 불의한 정치에 항거할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이에 독일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국민들의 민주의식과 정치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사업을 시작했으며, 그 결과로 1952년 내무부 산하 연방정치교육원이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지난 60년 동안 약 400여 개에 이르는 공인된 교육기관, 정치재단, NGO 등의 정치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다양성이 지켜주는 중립성

‘정치교육’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는 국가기관이나 어용단체의 정책선전이나 이념색 짙은 단체들의 선동을 먼저 떠올린다.²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식의 반공교육과 억압적인 독재정권,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에서의 안보교육을 기억하는 우리들에게 정부 산하의 정치교육기관이란 국가의 꼭두각시로 의심받기 쉽다. 더구나 나치즘과 히틀러를 탄생시킨 독일이 아닌가? 이런 정당한 의구심에 답하기 위해 이번 호에서는 독일연방정치교육원이 국가의 선전 도구로 전락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한다.

우선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원기관이다. 이 기관은 매년 연방예산으로 수백 개의 단체들을 지원하지만, 각 기관의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³ 지원기관이 지켜야 할 조건은 첫째, 보이텔스바흐 협약Beutelsbach Konsens을 준수하는 것, 그리고 둘째, 모든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다. 지원을 받는 단체들은 이 조건을 준수하는 한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성향을 따라 얼마든지 자유롭게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독일에서 정치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노조, 교회, 정치재단, NGO 등이며, 연방정치교육원은 사회 전반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교육에 반영되도록 장려하는 조율자와 지원자의 역할을 한다.

독일의 정치교육의 최소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1976년 가을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 각 정파들이 모여서 수차례의 회의를 거듭한 결과 얻어진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다. 보이텔스바흐 협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치교육에서는 교화 및 주입식 교육을 금지한다. 즉 어떤 경우에도 학생에게 가르치는 사

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2.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은 교실에서도 논쟁 중인 것으로 소개해야 한다.
3.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당면한 정치상황과 자신의 입장을 분석하고 그로부터 자율적으로 자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76년에 합의된 이 협약은 서로 다른 주체들이 공존할 수 있기 위한 원칙이며, 그러므로 상대의 존재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주장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연방정치교육원의 중립성은 정치적으로 결코 중립적이지 않은 노조, 정치재단, 교회, NGO들을 지원하여 정치생태계의 다양성을 유지함으로써 지켜진다. 예를 들어, 정당과 노선을 같이 하는 정치재단들은 각 정당의 국회 내 의석수에 비례하는 자금을 지원받아 정치교육을 실시한다.⁴ 이러한 제도 덕분에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수와 정당의 정당재단들까지도 국내외에 수십여 개의 지부를 운영하면서 유의미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조성된 공존과 경쟁의 환경 속에서 독일의 민주주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연방정치교육원의 이러한 운영방식은 독일의 중요한 사회운영원리 중 하나인 ‘보충성의 원칙 Subsidiaritätsprinzip’에 따른 것이다. ‘보충성의 원칙’이란 시민단체나 교회공동체 등이 사회의 하부단위에서 행하는 일을 국가와 상부단위에서 중복해서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대신 이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아래로부터의 시민참여와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등에 대한 독일식 해답을 제시해 준다. 이러한 원칙은 또한 국가의 최소단위인 국민 개개인의 자기결정능력과 자기책임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능력과 책임감을 강화한다.

연방정치교육원은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또한 갖추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기구가 교육관련 기본내용을 결정하는 전문위원회와 교육원 사업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독하는 감독위원회이다. 이들의 결정이나 감독의 기준이 되는 것은 역시 보이텔스바흐협약이다.

많이 알려진 사업은 아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연방정치교육원의 사업 가운데 주목하고 있는 사업은 총서발간 사업이다. 연방정치교육원은 역사, 정치, 경제, 사회, 환경,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여 매년 약 80권의 새로운 단행본을 발간해 일반 시민들에게 매우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이런 단행본들을 연방정치교육원에서 자체 제작하기도 하고, 기존에 출판된 책의 판권을 사들여 재출판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예를 들어 일반 서점에서 20유로정도 하는 책을 이곳에서는 4.5유로에 살 수 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했던 유학생 시절, 이 제도의 덕을 톡톡히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이 사업은 비록 성과를 눈으로 확인하기도 어렵고, 지속적으로 비용이 투입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사업'이 되기 십상이지만, 동시에 대중이 양서 속에 담긴 교양과 정보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일이며, 정치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길이기도 하다.

스스로 배우는 정치교육

우리의 평생교육 가운데 아직은 다소 취약한 분야가 '시민'을 육성하는 교육, 즉 정치교육이다. 여기서 시민이란 자신의 삶과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공적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를 말하는데, 이러한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바로 정치교육의 본령이다. 시민이란 자신이 속한 사회의 현실을 다각도로 이해하면서, 삶 속의 구체적인 과제들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베를린 카이저빌헬름기념교회의 전경

자연스럽게 성숙하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시민을 길러내는 정치교육은 매우 포괄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다. 즉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들이 충돌하고 조율되는 과정 자체가 정치교육이며, 이 과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개인, 마을, 사회, 국가의 문화와 구조까지도 바꾸는 것이 정치교육이다. 이런 정치교육은 정부의 특정부처가 도맡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정부는 독일의 사례가 보여 주듯이 시민들이 배우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저 여건을 만들고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의 지원시스템은 정치교육의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고 현실에 적용

1 연방정치교육원과 거의 동일한 기능을 주(州)차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정치교육원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이 별도로 존재한다.

2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정치교육보다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칭이 더 널리 쓰이고 있다.

3 2009년 연방정치교육원의 예산은 3,840만 유로(한화 기준 약 540억 원)이었다.

4 정치재단의 경우 각자의 정당들로부터 일정하게 독립성을 갖고 있다. 당지도부가 재단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단의 역할과 활동영역, 당의 역할과 활동영역은 명백하게 분리되어 있다. 대표적인 정당과 정치재단을 연결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사민당SPD / 프리드리히 에버츠재단FriedrichErberts-Stiftung, 녹색당Grüne / 하인리히 뵐 재단HeinrichBöhlStiftung, 기민련CDU / 콘라드 아데나우어 재단KonradAdenauerStiftung.

한 성공적 사례이다. 이런 지원시스템 덕분에 독일의 정치교육분야에서는 개인이나 민간단체들의 열정이나 희생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정치교육분야에서와는 달리, 훨씬 효과적으로 정보와 인적자원이 네트워킹되며, 축적되고 전수되고 있다.

베를린 시내 중심가에서는 우리는 낯선 풍경을 만나게 된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을 당해 부서진 카이저빌헬름기념교회 Kaiser Wilhelm Gedächtniskirche(사진)가 파괴된 모습 그대로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이 교회는 독일인들이 자신이 일으킨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고 성찰하기 위해 남겨둔 일종의 경고기념물이다. 이러한 경고기념물들은 독일 곳곳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그들이 과거에 그만큼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역사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독일인들은 그들의 잘못을 외면하지 않고 끈질기리만치 기억하고 성찰한다. 연방정치교육의 출발점이자 지속의 동력이 되어준 이런 독일인들의 태도는 모든 것을 너무나 쉽게 잊고 앞만 향해 내달리는 우리사회에 무거운 질문을 던지는 듯하다.

독일사회의 교육안전망

『시민대학』

발행호 (제12호) 2012. 08. 14.(화)

글 강현선 前희망제작소 연구원, 베를린 자유대학 정치학 석사



교사들이 참여한 뮌헨 시민대학의 이미지광고. 매우 다양한 개성을 가진 교사들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공부에는 때가 있다는 말에 익숙하고, 어딜 가나 비슷한 또래의 비슷한 배경과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배우는 것에 익숙한 우리에게 나이도, 피부색도, 언어도, 학력도, 경제력도 모두가 제각각인 학생과 선생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독일 시민대학 Volkshochschule의 풍경이 낯설다. 무엇이 이런 차

이를 만드는 것일까?

시민대학은 독일의 평생교육기관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공적 교육기관이자 지역평생교육의 중심이다. 독일을 포함한 여러 나라가 운영하고 있는 이 시민대학의 시초는 1844년 덴마크의 시인이자 역사가자인 N. F. 그룬트비Nikolai Frederik Severin

Grundtvig가 설립한 시민대학folkehøjskole이다. 그룬트비는 시민들이 당시에 처음으로 부여받은 민주적 참여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 ‘적합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런 신념에 기초해 경제적 장벽이나 선발시험제도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성인들을 위한 교육기관인 시민대학folkehøjskoler을 세웠다.¹ 독일에서 시민대학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시도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시기이지만, 대부분의 시민대학들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교육소외계층에게 좀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당시 독일에 분 ‘시민대학 열풍’ 덕분에 1918/19년 예

나Jena에 세워진 한 시민대학에는 개교한 지 하루 만에 2,000명의 학생이 몰리기도 했다.

현재 독일에는 938개의 시민대학(3,072개 지부)이 운영되고 있다.² 시민들은 이곳에서 일반 교육기관에서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시민대학이 영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재정의 약 60%에 해당하는 공적지원금을 받으므로 수강생들이 재정의 약 40%만을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³ 시민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누구든지 관심 가는 강좌를 쉽게 찾을 수 있을 만큼 다양하다. 철자법이

인간, 사회, 정치	건강과 환경
정치와 사회	건강정보
경제와 금융	건강활동
도시계획	시니어를 위한 건강활동
자연과학	요리문화와 와인
철학	환경과 생태학
세계의 종교	외국어
심리학과 생활예술	영어
학습과 기억	프랑스어
연구 일반	이탈리어
시니어 시민대학	스페인어
문화, 예술, 창의성	포르투갈어
시각 갤러리	기타 외국어(한국어 포함)
문학과 영화	직업교육과 컴퓨터 활용
어휘와 텍스트 - 작문	기업체 계속교육
연극	경영능력과 영업능력
음악	화법, 의사소통, 리더십
춤	문서작성 기술
예술사와 문화사	컴퓨터 활용
박물관 안의 뮌헨시민대학	인터넷과 멀티미디어
여행 속 뮌헨시민대학 - 학습여행 프로그램	성인교육의 교수법과 방법론
회화	기초교육과 중등교육이수
조형	철자교육과 기초교육
공예	중등교육이수
유행과 의상디자인	청소년 사회봉사와 과도기관리(학교수업 병행과정)
사진과 비디오	청소년을 위한 시민대학
가로지르기 프로그램	독일어, 이민과 통합
도시의 동서남북	외국어로서 독일어
장애인을 위한 교육	두 번째 모국어로서 독일어
	통합프로그램

뮌헨시민대학(www.mvhs.de)의 강좌 분류

나 단순한 셈법과 같은 기초교육강좌부터, 바퀴벌레 퇴치법, 청소하는 법 등의 생활강좌, 외국어강좌, 그리고 하버마스나 데리다의 철학 강좌에 까지 이르도록 다양하다.

독일의 시민대학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뮌헨시민대학에서는 연간 약 14,000개의 강좌가 개설된다. 실제로 개설강좌의 수가 연간 14,000개라고 하면, 강좌 수에서는 이와 비교할 만한 교육기관을 찾기 어려운 수준이다. 뮌헨시민대학은 약 234명의 상근인력(교육인력 100명, 행정인력 134명)을 확보하고 있으며,⁴ 강사진 또한 분야의 전문가들이다.⁵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뮌헨시민대학 상근인력의 약 9%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인데, 이는 시민대학이 스스로 표방하는 사회통합의 이념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시민대학에서 일반시민들은 취미생활을 즐기고 교양을 쌓고, 직장인들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실직자들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익히고, 만학도들은 학력이수강좌를 듣는다. 이런 실용적인 교육프로그램 외에도 시민대학은 정치·사회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예를 들어, 세계화와 유럽통합이 진전되면서 이주 외국인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는 독일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위해 인종, 언어, 종교,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좌를 제공하고, 독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나 이민자들에게 큰 비용부담없이 '외국어로로서의 독일어'강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 밖에도 다양한 프로젝트도 실시하는데, 최근 뮌헨시민대학은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인 뮌헨필하모니와 공동으로 파일릿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대학에서 독일어 수업을 듣는 외국인 학생들이 뮌헨필하모니의 연주를 함께 감상한 후, 그들이 느낀 것에 대해 필하모니 연주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

이다. 필하모니가 연주하는 바흐나 말러의 음악은 말하기 연습의 훌륭한 소재이기도 하지만, 외국인 학생들과 독일문화를 이어주는 가교가 되기도 한다. 도시통합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기획된 이 프로젝트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서 뮌헨시민대학 측은 앞으로 다양한 문화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런 프로젝트들을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독일의 시민대학은 지식습득과 기술연마라는 '교육적 과업'과 사회통합과 민주적 가치 함양이라는 '사회적 과업'을 두 축으로 삼아 움직이고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

독일 시민대학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방성이다. 시민대학은 모든 사람에게, 즉 어떤 사회계층에 속해 있는지, 수입이 얼마인지, 어떤 환경적, 문화적 배경을 가졌는지와 무관하게 모두에게 열려 있다. 따라서 시민대학에서는 서로 다른 또는 적대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도 만남의 기회를 가지는데, 이런 만남이 서로 상대를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시민대학은 누구나 집과 가까운 곳에서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리장벽을 없애고, 수업료를 저렴하게 책정함으로써 경제적 진입

1 이 세계 최초의 시민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덴마크의 농촌청년들은 패전에 따른 농업위기를 극복하여 세계적 농업국, 평화적인 문화국가 건설의 기초를 이룩하였다.

2 2010년 독일시민대학협회Deutsche Volkshochschul-Verband 자료기준. (www.dvv-vhs.de/vhs/geschichte.html)

3 지자체와 주와의 지원금 : 약 40%, 연방과 EU차원의 지원금 : 약 20%. 기업의 후원금도 증가하는 추세임.

4 일반적으로 시민대학 강좌의 대부분은 외부 초빙강사가 진행한다.

5 한 일간지에 따르면, 뮌헨 시민대학 학생들 1,540명에게 설문을 한 결과, 약 90%가 강사들이 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답했으며, 85%가 강사들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고 답했고, 그 밖에도 약 86%에 이르는 학생들이 강사들이 수업준비를 성실히 한다고 생각한다 고 한다. (출처:Süddeutsche Zeitung, 2011년 5월14일자 기사)

장벽을 낮춘다. 그 덕분에 사람들은 누구나 배움이 필요한 삶의 순간에 시민대학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시민대학은 특히 기존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거나 아예 받지 못한 사람들을 평생교육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데에 큰 기여를 한다. 독일 시민대학의 이런 개방성은 시민들을 (평생)교육의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려는 독일사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 다시 이런 개방적인 시민대학은 독일사회를 지켜주는 교육안정망이 되어주고 있다.

드는 일은 동시에 지역의 잠재력을 복돋아주는 일이다.

이번 독일 시민대학의 사례를 살펴보면 평생교육의 목표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만 있지 않고,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진정한 사회의 변화는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 하나하나가 변화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시민대학과 같은 평생교육기관은 사회의 백년대계와 함께 기획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지역을 위한 교육

시민대학은 전국 어디에서나 찾아 볼 수 있다. 방방곡곡에 그물망처럼 퍼져 있는 약 1,000개의 시민대학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역연계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실제로 시골지역에서는 시민대학이 현지에 있는 유일한 평생교육기관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입지적 장점은 시민대학이 독일전역에 기본적인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시민대학은 이렇게 지역 밀착적인 동시에 매우 국제적이다. 시민대학의 강좌에 참여하는 다수의 외국인 또는 이민자 수강생들과 강사진들은 시민대학에 다문화적인 성격을 부여한다. 또한 시민대학은 도시 간 자매결연, EU-프로젝트, 또는 상위조직의 업무를 통해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시민대학은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또는 지역에 있는 다양한 파트너 단체들과의 공동프로젝트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들간의 접촉의 기회를 열어준다. 이렇게 시민대학은 시민들 개개인의 능력계발을 돕는 교육기관인 동시에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시민대학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의 교육환경을 풍요롭게 만

다른 듯 다른 평생교육지원제도 — 학습하는 지역들

발행호 [제13호] 2012. 08. 29.(수)

글 강현선 前희망제작소 연구원, 베를린 자유대학 정치학 석사

Die 76 Netzwerke



독일 전역에 흩어져 있는 76개의 '학습하는 지역들'

우리는 모두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에서 일하고, 지역에서 생활하고 소비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은 평생교육의 수요자들에게 적합한 혁신적 교육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행하기에 적절한 단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 자치의 역사와 전통이 깊어서 고유의 경제적·문화

적 특색을 지니고 있는 독일의 지역들은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도 비교적 독자적인 정책 결정과 수행의 단위가 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역의 평생교육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단체와 기관들이 서로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학습하는 지역들 Lernende Regionen'을 중심으로 독일의 평생교육 지원제도를 소개하려고 한다.

'학습하는 지역들'²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교육과정의 개발과, 피교육자에게 실제로 유용한 직업능력을 가르치는 교육과정의 개발은 한 두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다양한 영역의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이 각자의 경험을 가지고 네트워킹할 때에만 가능하다. 이런 자발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각 지역이 지역의 특성에 맞고 꼭 필요한 혁신적 교육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학습하는 지역들' 프로그램의 목표이다.

이 프로그램은 독일의 연방연구부가 1억 3천만 유

로의 예산을 책정해 2001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진행된 독일역사상 최대의 평생교육 사업이다. 현재 독일 전역에는 76개의 학습하는 지역들 네트워크가 산재해 있다(앞의 그림). 지원받는 예산의 규모가 엄청난 만큼 각 네트워크들의 정부예산에 대한 의존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연방과 주정부의 재정지원이 단계적으로 감소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또한 한번 결성된 네트워크들이 정부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지속되어 지역의 평생교육 공급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이들 중 상당수는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재단이나 사단법인 또는 공익유한회사gemeinnützige GmbH의 형태로 탈바꿈했다.³ 이처럼 독일정부는 평생교육정책에 있어서 철저히 중앙보다는 지역을 중심으로 구상하고, 주도하기보다는 지원하는데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있다.



크라일스하임에 있는 직업학교에서 열린 '기술직 여성들' 홍보의 날에 학교를 방문한 여성들이 학교의 구성구석을 둘러보며 안내를 받고 있다.

여기에서 잠시 '학습하는 지역들' 프로그램의 취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를 살펴보자. 슈베비쉬 할 Schwäbisch Hall과 안스바흐Ansbach 지역에서 조직된 '기술직 여성들Frauen in Technikberufe'이라는 네트워크는 평생교육을 통한 과도기 매니지먼트의 사례이다.⁴ 이 두 지역은 제조업이 강세인 지역인데 반해, 이 지역의 여성들은 대부분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결혼이나 육아로 인해 일을 쉬었다가 일자리로 돌아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기술에 대한 지식이 있는 판매인력에 대한 수요가 컸다. 이런 수요공급의 불균형 상황에 착안한 '기술직 여성들' 네트워크는 재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그들이 지역의 제조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 네트워크는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민의 숨은 능력을 개발해 주고, 인생의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한 사례이다. 이 네트워크에는 지방 노동청, 교육기관,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데, 두 지역의 노동청은 중소기업들과 관련 교육기관들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고 협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들은 필요한 교육과정의 설계에 참여하며, 직업교육센터나 기술전문대학들은 여성들의 교육을 직접 담당한다.

이처럼 '학습하는 지역들'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노동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학습하는 지역들' 프로그램이 기존의 전통적 교육 시스템을 따르기보다 지역 노동시장의 필요에 맞춰 교육의 공급을 개선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역 노동시장의 관계자와의 교육 관계자의 소통을 통해서 실질적인 고용촉진을 이룬 것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 덕분에 우수한 인력의 확보에 성공한 지역의 기업들은 이후에도 평생교육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사람들의 삶의 궤적과 직업 이력은 수없이 바뀌고 단절되기 때문에 우리의 배움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제도교육에서 끝날 수 없다. 이런 삶의 조건은 한국, 독일, 그 밖의 다른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런 변화에 적응해야 할 책임이 온전히 개인에게 떠넘겨지는지, 아니면 공동체와 사회에도 함께 부여되는지가 나라에 따라 다를 뿐이다.

'학습하는 지역들' 프로그램은 직업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긴 하지만, 이런 평생교육 네트워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문화사회,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

서 사람들이 떠안게 된 낯선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의 공존, 은퇴 후의 긴 삶에 대한 준비 등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 단위의 평생교육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다.

네트워크는 지구화Globalisierung와 지역화Regionalisierung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확장성이 높고 매우 유연한 현대적 조직 형태이다. 이런 네트워크는 기존 교육시스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도구가 된다. 네트워크는 영역을 넘나드는 소통과 협업을 가능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평생교육 시설들⁵을 연결시켜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고 교육서비스의 질과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 밖의 제도들

우리나라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준이지만 독일 역시 국민들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낮은 것을 고민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지원금 제도의 새로운 도구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보려고 한다. 이런 지원금 제도는 이미 상당수의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교육지원 제도이다. 그러나 독일 정부가 추가로 마련한 제도들은 독일이 ‘기초’ 또는 ‘최소한’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그래서 또한 우리 한국사회의 발걸음을 재촉한다.

평생교육적금Weiterbildungssparen과 평생교육대출Weiterbildungsdarlehen⁶

우선 평생교육적금은 적금 해약 없이 적립금을 평생 교육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보통 독일의 적금은 7년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만기 시에

높은 만기이자를 받게 되어 있다. 평생교육적금제도는 이 만기이자 보너스를 그대로 받으면서 기존 적립액을 계속교육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제도를 통해 직장인들은 자신의 직장인우대적금을 자신의 교육비로 십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정부에서 교육비용의 50%를 부담해 주는 보조금Prämiengutschein제도와 함께 직장인들의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음은 평생교육대출 제도이다. 이것은 평생교육비용을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이다. 이 대출 제도는 특히 고가의 평생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사람들은 이 대출금으로 교육기간 동안의 생활비와 수업에 관련된 부대비용까지 충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컴퓨터 구매 비용이나 수강지역으로의 여행 및 숙박 비용 등도 교육비용으로 인정된다. 이 대출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은 신청자의 신용도를 제한적으로 심사한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이 대출

1 독일의 일반교육은 연방정부의 소관 이 아니라 16개 주정부의 독자적 결정과 책임 아래 운영된다. 그러므로 각 교과목의 도입 시기와 교과서의 종류 등의 제반 교육행정이 주정부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초등학교의 교육기간도 14개 주에서는 4년,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주에서는 6년이다.

2 ‘학습하는 지역들’ 홈페이지 <http://www.lernende-regionen.de>

3 양대중, 『독일 평생교육 정책동향』, 평생교육진흥원, 2008년 / BMBF, 〈Regional kooperieren für eine neue Bildung in Deutschland〉, 2008년

4 <http://www.lernenderegion.net/arbeitsgruppen/detail.php?id=14>

5 독일의 평생교육은 전국적으로 약 2만 5천 개의 교육시설들에서 약 40만 개 정도의 학과나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주체별 평생교육 분담률은 기업 30%, 시민대학Volkshochschule 14%, 사설교육기관 11%, 상공·수공업회의소 5%, 직업군별 협회들과 교회 각각 4%, 대학교와 전문대학 2%, 직업아카데미 4% 등으로 나타난다. (BMBF, 〈Das 9. Weiterbildungsberichtssystem〉, 2006년)

6 <http://www.weiterbildungssparen.info>

을 받기 위해 지정된 상담소에 가서 본인의 학습계획에 대해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상담사는 대출금을 상품권 형태로 발급해 주면서 세 군데 이상의 평생교육기관을 상품권에 기재하게 되는데, 신청자는 그 기관들 중 한 곳에서만 그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앞의 두 제도는 모두 아직 도입단계에 있어서⁷ 그 성과나 한계 등을 평가하는 것이 조금 선부르지만, 이런 제도의 도입을 통해 독일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바는 분명해 보인다. 지금까지 일반교육이나 평생교육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포함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약의 발판을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 소개한 제도들과 유사한 제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학습하는 지역들’은 ‘평생학습도시’와 평생교육보조금 제도는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교육지원금 제도와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들의 유사함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룩한 교육복지의 제도적 성과를 의미하며, 그 상이함은 사람과 사회, 세계를 보는 그들과 우리의 시각이 다름을 의미하는 듯하다.

⁷ 두 제도는 모두 2009년에 법제화되었다.

함께 살기, 서로 배우기

발행호 (제14호) 2012. 09. 12.(수)

글 강현선 前희망제작소 연구원, 베를린 자유대학 정치학 석사

정치교육원과 시민대학으로 유명하고 지역중심의 학습공동체가 발달되어 있는 독일은 세계 최초로 유치원을 만든 나라이기도 하다. 영어로 유치원을 ‘킨더가튼Kindergarten’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단어가 ‘아이들의 정원’이라는 뜻의 독일어 ‘킨더가르텐Kindergarten’에서 유래했다. 평생교육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치원 타령을 하는 이유는 오늘 소개할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독일의 유치원이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로 유치원을 만든 나라답게 독일의 유치원은 오늘도 한 발 앞서 진화하고 있고, 그 진화의 방향은 그들이 지향하는 사회의 모습을 짐작케 해준다. 또한 그들이 부단히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자신들이 바라는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

양로원과 어린이집이 하나로?!

독일 함부르크의 한 양로원 ‘Pflegen & Wohnen Farmsen’ 건물의 주방 안은 아이들의 재잘거림과 노인들의 웃음소리로 시끌시끌하다. 다섯 살 엠마와 여든다섯 살 파울은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열

심히 까고, 썰고, 맛보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곳에서는 백발성성한 노인들이 아이들에게 옛날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이것저것을 함께 만드는 것이 일상이다. 어찌된 일일까? 이 모든 일은 2년 전, 이 양로원 건물로 어린이집이 이사해 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의 절묘한 동거는 최근 독일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곳에서는 약 150명의 아이들과 200명의 노인들이 함께 보살핌을 받고 있다. 양로원과 어린이집의 조합이라니 무척 낯설게 들리지만, 기실 이것은 과거 대가족 안에서의 우리 삶의 모습과 무척 닮아있다. 그들은 상대방에게 줄 것을 참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 아이들의 끊임없는 호기심과 재잘거림은 노인들의 단조로운 무채색 일상에 다채로운 색을 입혀준다. 노인들은 아이들과 맺는 관계를 통해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얻고 웃음을 되찾는다. 아이들 역시 집에서 만나기 힘든 다른 세대와의 어울림을 통해 노인에 대한 또는 약한 존재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게 된다. 이런 관계 속에서 아이들은 단순한 지식뿐만 아니라, 파울 할아버지가 떨어뜨린 숟가락을 집어주고



‘Pflegen & Wohnen Farmsen’을 소개하는 독일의 뉴스 동영상의 한 장면
(출처: <http://www.zdf.de>)



원현의 한 통합유치원에서의 수업시간

앞장서서 문을 열어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까지 함께 배운다.

독일 전역에 12개의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Pflegen & Wohnen Farmsen’(이하 P&W)은 이런 양로원과 어린이집 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좋고 수요도 늘고 있어서 아직 아이들이 없는 나머지 여덟 개의 요양시설에도 곧 어린이집의 입주가능성을 타진해 볼 예정이라고 한다. P&W가 독일 내의 세대통합 돌봄 프로그램의 선두 주자 격이기는 하지만, 그 밖의 다양한 기관들도 최근에 이와 유사한 시도들을 독일 곳곳에서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통합유치원 Integrationskindergarten

독일의 통합유치원에서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장애가 없는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뛰어 논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함께 노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고, 각자 이름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장애가 있고 없음 역시 여러 가

지 차이 가운데 하나일 뿐임을 깨닫게 된다. 처음에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다르고 낮은 행동들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울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특성을 알게 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어울리게 되는데, 이것은 결코 일반유치원의 교실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함께 어울려 본 아이들은 장애가 있건 없건 간에 서로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통합유치원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만 유리한 제도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 때문에 학습진도가 전체적으로 느려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이런 우려는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이지, 통합유치원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아니다. 과거의 나의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한 학급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했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놀림의 대상이거나 동정의 대상인 경우가 많았다. 마치 우리의 일상에 불쑥 끼어든 이방인 같았던 그 아이들은 존재감도 힘도 미미했다.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그

저 학급의 책상 한 개를 내어 주었을 뿐, 그 아이들과의 통합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의 일상에 일방적으로 적응해야 한다.

독일의 통합유치원의 모습은 내 기억 속의 유치원이나 학교와는 사뭇 달라 보인다. 우선, 통합유치원의 장애아와 비장애아의 비율은 대략 1:2정도이며, 각 반에는 이들을 돕는 특수교육 전공교사가 추가로 배치되어 있다. 또한 통합유치원은 부분적인 분리수업, 전문인력 투입, 통합교육에 적합한 커리큘럼 개발 등을 통해 아이들의 통합을 지원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뮌헨에 있는 한 통합유치원의 경우는 한 반의 학생 수를 15명으로 규정해 인근의 일반유치원의 25명보다 적게 유지하고 있으며, 물리치료사와 음악치료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게 하고 있다. 시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를 위해 아이의 부모가 평균적으로 한 달에 70유로(한화로 약 11만원) 정도를 내는데, 장애아를 가진 경우에는 이마저도 시에서 보조해준다. 이런 환경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나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나 모두 좀 더 자연스럽게 서로를 일상을 공유하는 친구로 받아들이게 된다. 물론 이곳에서도 아이들은 서로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최소한 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응이 강요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장애가 없는 아이들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적응하는 일이 훨씬 많다. 독일에서는 일반유치원에 비해 더 좋은 교육여건 덕분에 통합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려는 비장애아 부모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서 EQ(감성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런데 IQ(지능지수)만을 중시하는 사회에 경종을 울리려는 의도로 소개된 EQ라는 개념이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EQ를 검사하는 테스트가 생겨나고 아이들이 그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학원에 다니는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숫자로 표시되는 감성지수 대신에, 몸과 마음에 보이지 않게 스미는 ‘진짜’ 감수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해답도 학원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통합교육에서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학교 안의 학교 - ‘시니어학교 부영이’ Seniorenchule EULE'

다음으로 소개할 사례는, 유치원은 아니지만,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울려 배운다는 점에서 앞의 유치원들의 사례와 맥을 같이한다. ‘시니어학교 부영이’는 지난 2001년에 독일 북서부의 도시 레케Recke의 뤼어스텐베르크 고등학교Fürstenberg-Gymnasium에서 시작된 학생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교사가 되어 5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영어, 불어, 컴퓨터와 인터넷, 기억력훈련, 문학 등을 가르친다. 이 시니어학교는 뤼어스텐베르크 고등학교의 학생과 시설을 활용한 ‘학교 안의 학교’라는 새로운 개념의 학교이다. 이런 시니어학교가 아직은 몇몇 소수의 고등학교에만 도입되어 있지만, 다른 학교의 사례에서 영감을 얻고 자극을 받은 학생들이 하나둘씩 이런 ‘학교 안의 학교’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은 각자 자신 있는 과목을 택하여 강좌를 담당하게 되는데, 가르치면서 더 많이 배우게 된다고 즐거워한다. 이런 ‘학생’ 교사들이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부딪힐 경우에는 담당과목 ‘진짜’ 교사들이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 학교에는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약 120명의 시니어학생들이 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 시니어학교의 수업시간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노트북코스 학생들에게 새 노트북 전달기념(좌), 학생식당에서 다함께 즐기는 티타임 (우)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15분까지이다. 보통 두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시간 사이의 쉬는 시간에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식당에 모여 함께 티타임을 가진다. 이 티타임은 각 반별로 순번을 정해 준비한다.

이런 시니어학교는 세대간 대화의 장場인 동시에,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노년 세대가 자신과 비슷한 관심과 성향을 가진 또래들을 만나고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또래간 대화의 장場이기도 하다.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참여의지를 통해 만들어지는 시니어학교는 지역사회 노인들의 삶에 활력을 더해 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참여와 나눔의 기쁨을 선물해 준다. 학생들의 이런 뜻에 공감하는 테클렌부르거 란트의 가톨릭 복지회Caritasverband Tecklenburger Land가 자신이 노인 복지사업을 운영하면서 얻은 노하우와 인력을 제공해 주면서 이 프로젝트를 지원해 주고 있다.

당장의 대학입시에 짓눌린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에게는, 또는 그런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는 독일 학생들의 이런 경험담이 그저 먼 나라의 팔자 좋은 아이들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런 '딴 짓'을 하기에 대학입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래 전에 비슷한 과정을 겪어 본 우리들은 대부분 알고 있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훌륭한 시민이 수능점수와는 사실 별 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려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연대하는 능력,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희망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용기를 내지 못하고, '닥쳐 올 미래'에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또는 남들에게 뒤쳐지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쩌면 단 한 스푼의 용기와 서로에 대한 믿음일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소개한 독일의 사례들과 유사한 또는 더 훌륭한 시도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미 움트고 있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마음만 먹는다면

발행호 (제15호) 2012. 09. 26.(수)

글 김이혜연 前희망제작소 연구원,
National College of Natural Medicine 재학 중

수원평생학습관(희망제작소 위탁운영)에서는 전 세계 다양한 평생학습 관련 동향과 사례, 단체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대안 교육운동부터 각 나라의 평생학습 정책을 대표하는 단체와 프로그램까지. 정해진 틀은 없다. 각 나라의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우리의 평생학습 체계와 내용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생각을 기대할 뿐이다.

이번 호부터는 유럽을 넘어 아메리카 대륙, 미국으로 가보자. 미국은 경제, 사회, 복지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정책입안자들의 롤모델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입학사정관제 같은 대학제도부

터 대안교육까지 교육부분에서도 미국의 많은 사례와 제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녹아들고 있다.

‘와’에서는 미국의 다양한 교육제도 중 ‘커뮤니티 컬리지’를 직접 경험하고 활용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글쓴이는 미국 유학생으로 커뮤니티 컬리지를 통해 필요하고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접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었다고 한다. 글쓴이와 글쓴이 주변 친구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누구에게나 또 한번의 기회를 주는 평생학습의 핵심, ‘커뮤니티 컬리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편집자주〉



“커뮤니티 컬리지란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은 이에 대해 많은 얘기들을 들어왔을 겁니다. 루저 컬리지? 구제가 필요한 10대들의 학교? 아니면 고등학교를 중퇴한 20대들이 다니는 학교? 중년의 이혼녀들의

학교? 혹은 생각은 열정적이지만, 영원의 배수구만을 맴돌고 있는 노인들의 학교? 아마 이런 것들이 커뮤니티 컬리지에 대해 들어온 것들이겠죠?” from “Community” TV Show

콜로라도의 작은 타운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를 배경으로 하는 NBC의 드라마 “커뮤니티”의 첫 시작이다. 커뮤니티 컬리지에 대한 미국인들의 일반적인 인상은, 좀 과장을 많이 보태, ‘찌질이들의 학교?’ 일런지 모른다. 그러나 루저, 고등학교 중퇴자, 이혼 후 안정적인 직업이 필요한 중년 여성, 그리고 노인들의 학교. 이들의 공통점을 생각해본다면, 커뮤니티 컬리지가 미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모두 ‘한번의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어떤 ‘궤도’를 이탈한 사람들, 다시금 그 ‘궤도’로 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 그곳이 바로 커뮤니티 컬리지이다.

나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미국 북서부에 있는 오레곤 주의 그레שמ이라는 작은 동네에 있는 마운틴뷰 커뮤니티 컬리지 (이하 MHCC)에서 공부하고, 올 9월 자연의학 대학원의 입학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늦어지면 아예 시작도 못할 것 같아, 오랫동안 꿈 꾸기만 한 자연의학 공부를 위해 한국을 떠나 MHCC에서 의학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일반생물학, 일반화학, 유기화학 등의 선수과목들을 이수했다.¹ 그리고 그 1년 반 동안 학교에서 “커뮤니티”라는 드라마에서 볼 수 있었던 루저, 고등학교 중퇴자, 중년의 이혼여성, 노인들을 다 만났고 그들과 함께 숙제를 붙잡고 씨름하고, 중간고사 후 서로 답을 맞춰보기도 하며, 그렇게 같이 학생의 회로애락을 함께 나누었다.

컬리지가 뭐죠?”라는 질문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커뮤니티 컬리지는 2년제 대학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식으로 하면 전문대’라고 소개되기도 하고, 혹은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을 위한 중간교육기관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이해한다면 커뮤니티 컬리지에 대해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될 것이다. 또 도대체 노인들이나 중년 여성들은 왜 다니는 걸까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커뮤니티 컬리지에 대한 개념이 우리의 인식체계에 접속이 안될 정도로 낮은 이유는 한국의 교육제도에 있는 어떤 학습 기관과도 1:1로 맞아 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1년 반 동안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공부하면서 나는 커뮤니티 컬리지는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임을 알게 되었다. 커뮤니티 컬리지는 2년제 대학이자,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기 위한 중간교육 기관이며, 직업 학교이며, 제도 교육으로의 복귀 시스템이며, 지역에 기반을 둔 평생학습기관이며, ‘무엇이든 가르치는’ 학교였다.

문턱 없는 학교

생각해보라, 한국에서 대학에 가는 일이 얼마나 지난하고 (그 악몽 같았던 고 3 시절을 생각해 보라), 복잡하며 (교과과정이 다르면 시험 봐야 할 과목도

전체댓글수 8 | 댓글이 많은 댓글은 우선 게재됩니다. 댓글은 10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ㅇㅇ	커뮤니티: 전문대/컬리지: 4년제	175,211,***	2012.07.01 22:36	[X]
후연방	그런데일 커뮤니티 컬리지 보니까 전문대보다 더 하던데.. 노인을 다니고 수업 많대로 듣고..	220,02,***	2012.07.01 22:41	[X]
일호	그럼 평생교육원이라?	115,22,***	2012.07.01 22:44	[X]
나노박자	그날 전문대라고 보면됨. 명문대 들어간사람이 저기 2년동안 열심히 다니면서 학점 잘따면 3학년으로 명문대 편입도 가능해서 요즘 많이들 간다고 하던데..	121,136,***	2012.07.01 22:51	[X]
나노박자	그런데 커뮤니티에서처럼 나이 많은사람들도 공부 하고싶으셔서 다니시는분들도 많다고 들음..	121,136,***	2012.07.01 22:51	[X]
미모연구	미드 커뮤니티 보면 알수 있잖.. 그런데일이 인생막장 투겨들을 안봐주면 우린 어디로 가야 할까?	72,240,***	2012.07.01 23:03	[X]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커뮤니티 컬리지 개념 좀...”이란 질문에 대한 답글.
“그럼 평생교육원이야?” 빙고!

커뮤니티 컬리지가 뭐지?

커뮤니티 컬리지는 뭘까? 우리말로 커뮤니티 컬리지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야 할까? 한국의 포털사이트에서 ‘커뮤니티 컬리지’를 검색해보면, “커뮤니티

다르다며?)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난 아직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능을 다시 보는 꿈을 꾸다지?). 사실 한국에서 수능을 다시 보고 대학을 다시 들어갈까 생각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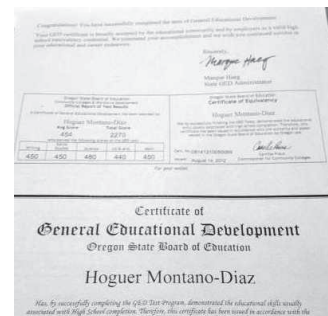
지만 입시학원을 또 다닐 생각을 하니 몸서리가 쳐졌고, 원서를 쓰기 위해 다시 고등학교를 찾아가 코흘리개 시절 좋아했던 선생님을 만나야 하는 것도 겹연쩍고 민망한 일이었다. 무엇보다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대학입시준비생’이라는 그 기간을 견뎌낼 수 있을지 정말 자신이 없었다. 남의 나라 말로 한번도 접해보지 않은 과목들을 공부하는 것도 역시 두려운 일이었지만, 열심히 만 한다면 커뮤니티 컬리지에서는 1년 반 안에 필요한 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었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원과 가까이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들을 고르고, 담당자와 여러 차례 메일을 주고 받은 끝에 학교(MHCC)를 선택했고 입학 준비를 했다.

외국학생이기 때문에 공인영어성적과 재정증명, 그리고 국적에 상관없이 다 제출해야 하는 예방접종증명 등, 몇 가지 증명서류를 준비해 보내고 입학 허가를 받았다. 입학 허가를 받았다고 바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학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하는 평가시험 (College Placement Test, 이하 CPT)을 보고 그에 따라 수강이 가능한 과목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CPT는 영어와 수학 두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에 해당되는 교육을 받았으면 풀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문제들이 출제된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CPT에는 정해진 마감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를 풀다가 휴식이 필요하면 시험을 중단하고 다음에 이어 볼 수도 있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한 번 시험을 볼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시험 결과에 따라 들어야 할 영어 작문, 수학 수업의 레벨이 정해진다.² 시험 성적을 받으면 어드바이저를 만나 전공 선택과 그 전공을 위해 필요한 과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학기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등의 내용으로 상담을 하고 수강 신청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남은 일은, 개강날 잊지 않고 수업에 들어가는 일!

이처럼 커뮤니티 컬리지는 진입 장벽 자체가 낮다. 시험의 결과는 합격/불합격이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 공부해야 할 내용이 정해지므로 자신이 이해하는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서 찬찬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컬리지에 입학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장이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다면,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ABE(Adult Basic Education) 또는 GED(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 과정을 통해 읽기, 쓰기, 수학, 과학, 사회 과목들을 배우고, 고등학교 졸업자격 시험에 해당하는 GED 시험을 볼 수 있다. 읽기, 쓰기와 수학은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 꼭 갖추어야 할 기술 중의 하나이며, 고등학교 학위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



내 친구 호게르의 GED 증명서. 멕시코 이민자인 호게르는 어릴 때 사고를 좀 많이 치는 바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는데, 25살 때 '맘 잡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공부를 워낙 안해 골셀, 나눗셈마저 어려워 할 정도였는데 드디어 GED를 받았다.

¹ 의대, 약대, 법대 등은 한국과 다르게 전문대학원으로만 존재한다. 학부를 졸업해야만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므로, 의대, 법대 등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학부에서 필요한 선수과목-의대인 경우, 일반생물학, 일반화학, 유기화학, 수학, 물리학, 심리학 등-과 학사를 받기 위해 필요한 학점을 이수한다. 나는 이미 대학을 졸업하였으나 대학에서 한번도 자연과학 과목들을 공부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필요한 선수과목들을 수강하였다.

² 전공에 따라 이수해야 할 과목의 수준이 다르긴 하지만 영어 작문과 수학은 학사학위를 받기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목이다.

은 당연지사이다. 히스패닉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영어 뿐만 아니라 스페인어로도 수업이 제공된다. 과정 이수 없이도 GED 시험을 볼 수 있으니,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라도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열차에 올라탈 수 있는 것이다.

여러 종류의 학생, 여러 종류의 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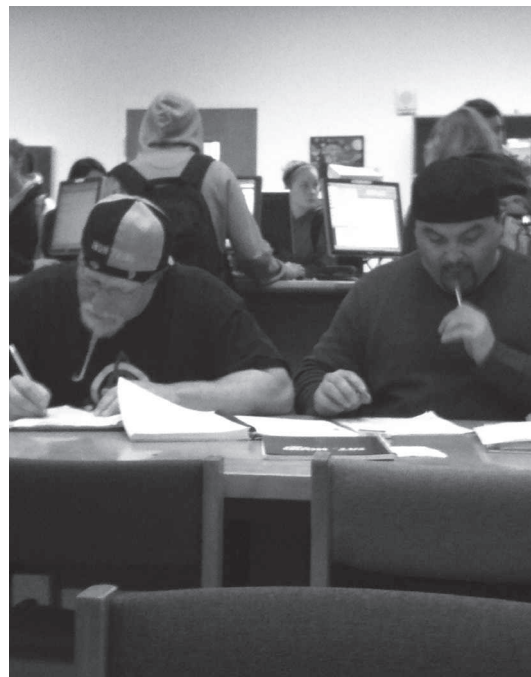
‘아무 것도 들리지 않는구나’라는 절망 속에 첫 날 수업을 마치고서 짐을 챙기며 옆에 있던 애한테 말을 걸었다. 그녀의 이름은 펠리사. 나이는 스물 세 살. 나의 첫 친구가 되어 준 그녀는 나에게 커뮤니티 컬리지가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임을 보여주었다.

그녀와 함께 학교 여기저기를 다니면 카페테리아에서 샌드위치를 만들던 아저씨도, 캐셔 언니도, 화장실을 청소하던 아줌마도 그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한다. “넌 어떻게 학교 사람들을 다 아니?”란 질문에 그녀는 웃으며 “내가 학교를 오래 ~ 다녔잖아.” 했다. 어쨌든 커뮤니티 컬리지는 ‘거처가는’ 학교이다. 빨리 마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커뮤니티 컬리지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는 4년째 커뮤니티 컬리지에 다니고 있다. 그렇다고 그녀가 게으름만 부리며 돈만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녀는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정말 하나하나씩 다 찾아 배우고 있는 중이었다. 음악을 좋아하는 그녀는 음악 교육으로 Associate Degree를 받았고, 간호사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간호학교를 가기 위해 관련 과목을 듣다가, 간호사 대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은 검시관이 되는 거라고 깨닫고 해부학, 생물학 등을 수강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틈틈히 관심가는 분야의 수업들을 하나둘씩 찾아 듣는 그녀를 보며 난 ‘공부’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재미있어서 하는 공부, 궁금한 것들을 하나씩 채워가는 공부, 공부가 그냥 삶

자체인 공부. 무엇보다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커뮤니티 컬리지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학교 벤치에 앉아 친구를 기다리다 이야기를 나누게 된 어떤 아줌마는 지금 특수학교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다.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농아란다. 아기와 대화를 하기 위해 커뮤니티 컬리지에 수화 과정을 등록하고 배우기 시작했다. 배우다 보니 재미도 있고, 또 아이와만 소통할 게 아니라 자기 아이와 같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공부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어느 날엔 버스에서 내 옆 자리에 앉아 말을 거는 할아버지도 있었다. 그동안 도서관이랑 버스 안에서 나를 몇 번 봤다며, 무슨 과목을 듣는지, 뭘 하고 싶은지 등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몇 년 전에 은퇴했다는 이 할아버지는 지금 영어 작문과 수학 수업을 듣는단다. 이유를 묻는 내 질문에 할아버지는 “재미로 (for fun)!”라고 대답했다. 재미로 작문 수업



할리 데이비스를 타고 다니는 아저씨들. 프로 레슬러 헬크 호간을 닮아서 내가 그렇게 이름 붙여줬는데, 덩치에 안맞게 막대 사탕을 쪽쪽 빨며 열광중이시다.

을 듣고, 수학 수업을 들을 수 있구나, 그렇구나. 학교 생활에 조금 여유가 생겨 구석구석을 돌아보니 머리 하얀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꽤 자주 볼 수 있었다. 수학 튜터까지 구해서 수학공부를 하던 할머니, 할리 데이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니던 헐크 호간을 닮은 할아버지도 도서관에서 수학책을 잡고 씨름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듣던 삼각함수 시간에도 나이가 지긋한 아저씨가 하나 있었다. 나와 일반화학부터 그 어려운 유기화학까지 같이 들었던 친구 하나는, 화학이 그저 너무 재밌었어 듣고 있노라고 했다. 공부를 하는 이유도 동기도 각각 다르겠지만, 그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공간이 사는 곳 가까이 있다는 게 나는 너무나 부러웠다.

모든 것을 가르치는 학교

발행호 (제16호) 2012. 10. 10.(수)

글 김이혜연 前희망제작소 연구원,
National College of Natural Medicine 재학 중



MHCC 카탈로그

“사람들은 커뮤니티 컬리지에 대해 백화점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내가 다닌 MHCC의 프로그램을 한번 보자. ‘도대체 안 가르치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커뮤니티 컬리지의 프로그램은 대개 세 가지 트랙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아카데믹한 것, 또 하나는 기술적인 것, 그리고 마지막은 그 둘의 중간 정도이다.

아카데믹한 프로그램의 경우 많은 이들이 4년제 종합대학에 들어가기 전 학점 이수 과정으로 많이 이용한다. 그 이유는 커뮤니티 컬리지의 공적 재정으로 운영되므로 학비가 굉장히 싸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레곤 주민의 경우 MHCC의 학비는 1학점 당 97.75불로 오레곤에서 가장 큰 도시인 포틀랜드에 있는 4년제 종합대학 포틀랜드 주립대학

(Portland State University, PSU)의 1학점 당 142불보다 44불이 싸다.¹ 그래서 정말 집에 돈이 너무 많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은 경우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최대)2년 동안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고 4년제 대학으로 옮겨간다. 컬럼비아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다고 알려진 오바마 대통령도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처음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지 않는가.

또 하나의 트랙은 기술을 습득하고 연마하는 것이다. MHCC의 프로그램에는 자동차 정비술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고, 포틀랜드와 그 주변 지역을 커버하는 대중교통인 Trimet 정비기술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다. 또 도제 프로그램이라 하여 산학협력과 같이 특정 기업과 연계하여 학교와 기업이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에 해당 기업에 취업도 가능하다. 이러한 직업 교육 프로그램은 학업 기간에 따라 학위 과정(2년제, Associate degree)와 자격증(1년제, Certificate)으로 나뉜다. 수업은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고 주말에도 열리기 때문에 체력만 받쳐준다면 주경야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MHCC 학교 입구. 문턱만 낮을 뿐 아니라, 교문도 담장도 없다. 모두에게 열린 커뮤니티 컬리지. 저 멀리 보이는 눈 덮힌 산이 후드산이다.

마지막 트랙으로 이름에 “커뮤니티”를 달고 있는 만큼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역시 가지고 있다. 컴퓨터 교육은 물론이고, 소기업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우리에게 익숙한 댄스, 요가, 기타 등의 취미 교육도 물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취미 교육의 경우 그 성격이 한국의 그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되는 게 있다. 그것은 바로 DIY-Do it yourself, 즉 뭔가 스스로 만들고 고치는 것에 대한 교육이 많다는 것이다. 기타 교습은 어디에나 있지만 기타를 만드는 프로그램은 흔치 않다. 그래서 기타를 만드는 강좌는 나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자동차 정비 교육은 포드, GM, 도요타 등 브랜드 별로 나뉘어져 있고, 디지털 카메라 강좌도 캐논 따로 니콘 따로 한다. 요가, 필라테스, 태권도 같은 생활체육 수업은 학점 인정이 되는 과목들이어서 학생들도 많이 듣는데, 이런 수업들은 학생들과 지역 주민, 다양한 연령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나의 어머니는 생물학을 공부하고 싶어 하셨다. 하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기타 평생학습기관에서는 생물학 강좌를 열지 않았고, 엄마가 생물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은 대학이 아니

고선 찾기 힘들었다. 막연하게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문화센터의 강좌는 너무 가볍고,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는 원하는 강좌를 찾기 어렵고, 대학교의 강좌는 진입 장벽부터 너무 높다(방송통신대 역시 입학하기 위해서는 수능 시험을 봐야 한다). 무슨 무슨 연구소 혹은 무슨무슨 아카데미에서 하는 강좌들은 너무 학술적이지 않는가. 수능을 보지 않아도 대학교 수준의 강좌를 들을 수 있다면 그게 생물학이 됐든, 종교학

이 됐든 너무 가볍지 않고, 시작 자체가 너무 어렵지 않은 그런 곳에서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다면 삶이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더욱이 취미로, 재미있어 시작한 공부가 학점으로 쌓여 나중에 학위까지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닌가.

숨어 있는 지식과 자원과 능력을 순환시키는 곳

커뮤니티 컬리지는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은퇴한 시니어나 임신, 출산,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된 고학력 여성들에게도 자신의 능력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 되기도 한다. MHCC의 튜터링 센터² (tutoring center)에는 머리가 하얗게 샌 물리 튜터, 케빈 할아버지가 있다. 영화 백 투 더 퓨처에 나오는 박사님을 닮은 그는 내가 들고 간 모든 문제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해주었다. 여러 차례 도움을 받으면서도 왜 튜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못했는데, 여하튼 그의 탁월한 물리학 지식이 커뮤니티 컬리지를 통해 순환될 수 있어 기쁠 따름이다. MHCC에서의 마지막 학기에 나는 문법 수업을 들었다. 담당 선생님은 남편을 따라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경력 단절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웬만큼 자라자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작문 튜터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글을 쓰고, 글을 고치고, 문법을 설명하는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깨닫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 MHCC에서 작문 교수로 일하고 있다. 커뮤니티 컬리지는 이처럼 숨어 있는 지식과 자원, 능력을 순환시킨다. 지역 사회 안에 있지만 지역주민의 도서관 출입마저 불허하는 한국의 대학, 높다란 담장과 커다란 교문으로 자신만의 울타리를 지키는 한국의 대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미국에서 짧은 시간을 살면서, 다른 건 몰라도 꼭 하나 한국으로 옮겨가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시스템, 언제나 그렇듯 ‘달콤한 열매’는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지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만으로,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것만으로 이 제도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Tutor Levi Casey (left) assists Cari Cannefax with math.

MHCC 튜터링 센터 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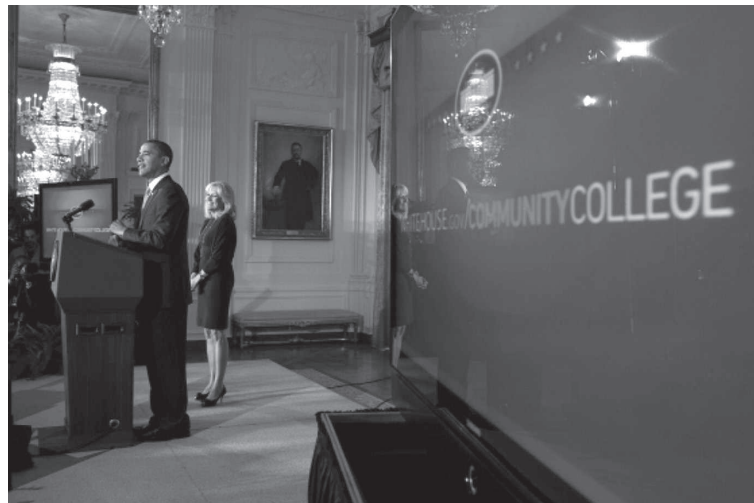
1 커뮤니티 컬리지를 비롯해 주립 대학은 주(州, state) 재정으로 운영된다. 주 재정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확보되므로, 주민이 주립 학교를 들어갈 경우 학비는 타주에 살거나 외국 학생에 비해 훨씬 싸다. MHCC의 경우 타 주에 사는 학생의 학비는 한 학점당 216.75불, PSU는 480불이다. 외국 학생은 그 보다 30불 정도더 비싸다.

2 튜터링 제도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돕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일정 정도의 학점 평균을 유지하면 튜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들은 시간당 꽤 높은 돈을 학교로부터 받으며 정해진 시간 일을 한다. 이들에게 부과된 업무는 동료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 함께 문제를 풀거나,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튜터를 하는 학생들에게겐 훌륭한 아르바이트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겐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공짜 과외 수업이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자격을 충족한다면 튜터가 될 수 있다.

마음이 학교를 키운다

발행호 (제17호) 2012. 10. 24.(수)

글 김이혜연 前희망제작소 연구원,
National College of Natural Medicine 재학 중



2010년 열린 커뮤니티 “컬리지에 대한 회담”에서 연설을 하는 오바마 대통령

“지금이 바로 더 확고하고 강력한 성장의 기초를 세울 때입니다. 이 단단한 토대는 미래에 다가올 경제 한파에도 끄떡하지 않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또 세계 경제 속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커뮤니티 컬리지를 개선하여, 모든 연령의 국민들이 미래에 경쟁적인 직업을 갖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커뮤니티 컬리지에 대한 회담(White House Summit on Community College)” 연설 일부, 2010. 10. 5.>

오바마 대통령의 교육 정책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미국 교육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까닭에 한국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그가 추진하는 교육정책은 명문대학에 지원금을 더 주는 식이 아니라 커뮤니티 컬리지를 개선하고 육성하는 데에 상당 부분 방점이 찍혀 있다. 경제 불황 속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누구나 접근가능하며 또 누구나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가 바로 그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바

마 대통령은 2020년까지 미국이 다시 한 번 가장 많은 대졸자 비율을 가진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커뮤니티 컬리지가 5백만 명의 졸업자를 낳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4년간 20억의 예산을 커뮤니티 컬리지와 직업훈련에 쓰도록 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커뮤니티 컬리지를 ‘미국 교육 시스템의 찬양받지 못한 영웅 (Unsung heroes)’라 부르며 인식의 재고를 촉구했으며, 자신의 주요 연설지로 커뮤니티 컬리지를 택해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시켰다. 그리고 이 즈음 커뮤니티 컬리지를 다시 생각해야한다는 기사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였으니, 2009년 가을 TV 쇼 ‘커뮤니티’의 방영은 완전히 우연이라고는 할 수 없을 듯하다.

2012년 현재 미국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는 총 1,132개이고, 분교 형태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총 1,600개에 달한다고 한다. 그리고 2009년 가을 학기에 커뮤니티 컬리지에 등록한 학생은 모두 13만 명. 오바마 정부의 커뮤니티 컬리지 지원 정책에 힘입어 커뮤니티 컬리지에 등록하는 학생 수는 점점 더 늘고 있는 추산이라 한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다. 미국 교육 정책의 중심으로 우뚝 서고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

강사의 학력보다 자질이 더욱 중요

한국에서 ‘안정적’인 대학 시간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박사 과정 중에 있거나 수료를 해야 한다. 전임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거의 무조건, 박사학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공부하면서 한 가지 새로웠던 점은 석사 학위만으로도 전임강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사실 우리나라의 대학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들의 취업률은 참으로 안쓰럽고, 국내 시간강사들의 처우는 심각한 수준이다.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연일 치솟는 등록금을 내며 대학원까지 졸업했건만 강사자리 하나 구하기 어렵고, 일주일 평균 강의 시간(4.2시간)을 토대로 강의료를 산정해보니 연봉이 600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 나 역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또 여성학이라는 소위 시장성 없는 공부를 한 사람으로, 논문을 마칠 때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다. 그러나 석사학위를 가지고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교육기관이 있다면 고학력자들의 실업 문제도 많은 부분 해결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Faculty & Administrators > Faculty & Administrators - Mary Bernadette Harnish

FACULTY & ADMINISTRATORS

Index

Mary Bernadette Harnish (2008)

Instructor

Chemistry

Degre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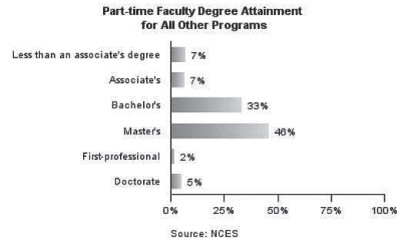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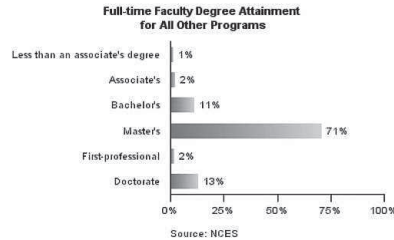
MS, Portland State University, 2004
BS, Portland State University, 2002
AA, Mt. Hood Community College, 2000

MHCC 의 한 화학 교수의 약력. 그녀 역시 MHCC에서 공부했다.
(출처: <http://www.mhcc.edu>)

언젠가 한 번은 MHCC 홈페이지에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한 화학 교수의 이력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다름 아닌 MHCC를 졸업한 사람이었다. 50대 초반의 그녀가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화학 공부를 시작했을 때 그녀는 아마도 30대 중반이었을 것이다.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화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녀는 화학 교수로 삶의 전환을 만들었고, 그걸 가능케 한 것이 커뮤니티 컬리지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나와 같은 곳에서 출발한 사람이 지금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증거’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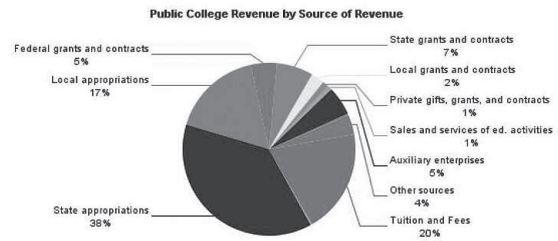
※ 커뮤니티 컬리지에는 강사 외에도 학습자들의 학습을 도와 주는 튜터링 제도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뒤늦게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 나에게 제도 큰 힘이 되었다.



파트타임, 풀타임 강사직을 통틀어 석사학위 소지자가 제일 많다.
(출처: <http://www.aacc.nche.edu>)

이 통계는 커뮤니티 컬리지 강사들의 대다수가 석사 학위 소지자임을 보여주는데, 혹자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커뮤니티 컬리지의 교육의 질이 4년제보다 훨씬 떨어진다고도 말하며, 명망있는 로스쿨이나 메디컬스쿨을 가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조언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교육의 질이 강사진의 박사 학위 소지 여부에 달려 있다기 보다는 강사 개인의 자질과 커뮤니티 컬리지의 교육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2009년 통계에 따르면 커뮤니티 컬리지에 등록한 학생들의 평균 연령이 29세이며, 절반에 해당하는 49%의 학생이 파트타임으로 학교에 적을 두고 있었다. 이렇게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사람에게 공부를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이 따라갈 수 있는 학업 양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것이다. 또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처음 공부를 시작하며, 별 거 아닌 것에 칭찬을 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참 특이한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사람들,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사람들이 계속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칭찬과 격려가 무엇보다 꼭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



주 정부의 지원이 재원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커뮤니티 컬리지는 공적 자금으로 유지된다.

	FY 2002	FY 2010	FY 2010 vs. FY 2002	%
Tuition and Fees	\$ 146,895,700	\$ 282,996,948	\$ 136,101,248	92.65%
State Aid	153,726,295	176,836,455	23,110,160	15.03%
Local Support	60,003,850	99,464,652	39,460,802	65.76%
Federal Funding	29,501,900	81,062,466	51,560,566	174.77%
Sales and Services	7,404,636	7,147,771	-256,865	-3.47%
Other	104,793,757	201,359,138	96,565,381	92.15%
Total	\$ 502,326,138	\$ 848,867,430	\$ 346,541,292	68.99%

Source: Department of Education, Division of Community Colleges and Workforce Preparation, AS-15E Reports

아이오와 주의 커뮤니티 컬리지의 재원 분포의 추이를 보면, 오바마 대통령의 커뮤니티 컬리지 장려 정책 이후 주 정부 및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크게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출처: <http://www.iavalleys.cc.ia.us>)

마음이 학교를 키운다 : 커뮤니티 컬리지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커뮤니티 컬리지의 재원은 일차적으로 주 정부(State)의 지원금이며 그 외 학생들이 내는 학비와 지역 기금이 그 다음을 차지한다. 오바마 정부 이후 연방의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도 많이 늘었다. 공립 커뮤니티 컬리지는 이렇게 공적 자금이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므로 자금의 쓰임 역시 '교육위원회(board of education)'를 통해 관리된다. 교육위원회는 4년의 임기를 갖는 무보수 선출직으로, 학교가 속해있는 행정단위에 거주하는 7명의 시민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사립학교의 이사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예산 승인, 교육프로그램 승인, 그리고 교직원의 고용과 해고 등에 관한 의사도 결정한다. 교육위원회의 역할 중 하나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잘 설정하는 것이다. 공교육은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교육위원회는 이러한 의사결정과정에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교육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학교와 관련된 정보들을 모으고 배분하는 일에서 지역사회와의 의사소통 과정 설계도 주요한 몫이다.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학교의 중심 주체는 학생이다. 비록 '거처가' 학교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긴 해도, 학생회를 통해 학교와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다. MHCC의 경우에는 학생회 안에 학교 측과 재정을 협의하는 담당자가 예산처와 매주 회의를 통해 다음 년도 예산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눈다. 이곳에서 결정된 의견은 다시 학생회에서 논의되고 여러 차례의 의사 결정 라인을 거쳐 MHCC의 총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올해 MHCC는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 하나가 예산검토부서를 신설하여 결정된 예산을 리뷰하는 과정을 새로이 도입하고, 이 과정에 학생회 멤버

2명을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학생과 전 교직원들에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지를 진행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산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해 큰 틀 안에서라도 이해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내용의 질은 잠시 차치하더라도 지역과 교직원과 학생이 커뮤니티 컬리지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틀을 계속 만들고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평생학습이 활짝 열려있는 곳, 커뮤니티 컬리지

하지만 사람들이 만든 제도가 언제나 그렇듯, 커뮤니티 컬리지 역시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위원회와 교직원들의 불협화음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으며, 처음 실시된 예산안 설문조사는 저조한 참여로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커뮤니티 컬리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을 갖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컬리지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지역사회에 단단히 뿌리 내리고, 지역민의 지식과 삶과 경험이 지역사회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하는 커다란 창구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이다. 누구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곳,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두에게 열린 배움의 공간. 어떤 형태가 되었든 이와 비슷한 교육기관이 우리 사회에도 있기를 희망한다.

일본 풀뿌리 주민자치와 공동학습의 힘! “사회교육”

발행호 (제18호) 2012. 11. 07.(수)
글 정현경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수원평생학습관(희망제작소 위탁운영)에서는 전 세계 다양한 평생학습 관련 동향과 사례, 단체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생적으로 움직이는 대안 교육운동부터 각 나라의 평생학습 정책을 대표하는 단체와 프로그램까지, 정해진 틀은 없다. 각 나라의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우리의 평생학습 체계와 내용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과 생각을 기대할 뿐이다.

‘와18호’부터는 가깝지만 먼나라 일본을 찾아 간다. 일본은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 협동조합 등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퍼져나갔던 사회적경제 분야의 선배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활동을 직접 보기 위

해 연수를 떠나는 곳이다. 유럽이나 북미의 제도·정책은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지만 같은 동양문화권인 일본은 유사하고 연계성이 많은 사회문화, 역사적 배경이 깔려있기도 하다.

‘와’에서는 일본 평생학습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살펴보고자 한다. 글쓴이는 일본에서 유학생으로 사회교육을 공부했고 한 아이의 엄마이자 일본사회의 주민으로서 생활 속의 평생학습을 만났다. 앞으로 총 4회 연재를 통해 일본에서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평생학습이 자리하게 되었는지, 현재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으며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편집자주>

주민으로써 사회교육과의 만남

일본의 평생학습이나 주민활동을 생각하면 흔히 떠오르는 것이 많은 학습모임과 꼼꼼히 학습이나 활동을 기록한 기록물들일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평생학습 문화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사회교육 제도와 지원이 있었다.

한국의 평생교육이라는 개념과 유사한 것이 일본의 생애교육(학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말보다 일본인들의 생활 속에는 ‘사회교육’이라는 현상이 있다. 일본인들은 자신의 지역사회교육현장에서 작은 학습모임을 갖고, 문화 활동을 하며, 자치 등을 배우고 익히고 있다.

필자는 일본에서 사회교육을 전공했는데 사

실 처음부터 사회교육을 전공하겠다고 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본에서 일본어 대학원 준비를 할 때 사회교육시설인 <공민관>에서 ‘일본어 교실’을 접하고 이후 유학생으로, 주민으로, 엄마로 살아가면서 사회교육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났다. 물론 석·박사 과정에서 일본의 사회교육 및 평생학습을 연구하기도 했지만 나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본의 사회교육을 접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아시아를 알고자 하는 강좌와 모임에서(이는 대부분 지역의 공민관에서 자주학습모임이나 강좌 형태로 열린다) 돈이 없었던 유학생 시절 저렴한 숙박시설인 청년의집을 비롯한 자연의 집 등 각종 숙박형 사회교육시설, 그 밖에 지역마다 있는 도서관, 깔끔한 여성교육시



일본 최초의 공민관 전경

설, 여성들의 학습모임, 주민자치 모임, 각종 위원회 등 반드시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사회교육과 평생학습은 생활에서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다음 호에서 현장 사례와 함께 자세히 소개하기로 하겠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일본평생교육의 특징과 역사적 발자취를 알아보고 현재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일본평생학습의 특징

일본의 평생교육은 패전(1945년)을 기점으로 큰 전환을 겪었다. 전전(戰前)의 국가주의·군국주의적인 교육체제를 반성하고 국민주권, 민주주의, 평화주의 이념에 기초한 전후 사회교육으로의 새로운 첫 발을 내딛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법제를 갖추고 시설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해왔다.

가장 우선적으로 한 것은 법제를 정비하려는 노력이다. 전후 제정된 헌법(1946) 정신에 입각하여 「교육기본법」이 제정(1947년) 되었으며, 적극적인 논

의를 거쳐 「교육기본법」안에 사회교육에 관한 조항(제7조)이 삽입되었다. 이것을 토대로 「사회교육법」(1949년), 「도서관법」(1950), 「박물관법」(1951) 등 평생학습 관련 주요 3법이 연이어 성립되었다. 이 중 일본평생학습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사회교육법은 내용적으로는 공민관에 관한 조항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실질적인 의미에서 ‘공민관법’이라는 별칭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었다.

둘째는 이러한 법제정에 힘입어 시설을 확보한 점이다. 이는 「교육기본법」 제7조 제2항을 근거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교육 “조건정비”, “환경조성”에 관한 구체적 임무로써 공민관 도서관, 박물관 등의 시설을 설치한 것이다. 이는 전전(戰前)부터 일본 사회교육이 “비시설, 단체중심성”의 실태가 있었던 점, 즉 시설적으로 빈곤한 한편, 반관반민(半官半民) 단체를 통한 교화주의적 사회교육이 주류였기에 개혁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공민관, 도서관, 박물관 등의 사회교육시설은 단순히 건물의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제상으로는 학교와 대등한 “교육기관”으로 규정되었다.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구비조건에 각 기관에 필요한 시설, 설비들의 물적 조건, 전문성을 지닌 직원을 포함한 인적조건, 고유의 전문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의사와 사업을 전개할 기능적 조건들의 세 가지 요건이 필요했다. 물론 법제상으로는나 실태에서도 학교교육기관과 비교하여 사회교육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제반요건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며 특히 인적 조건인 전문직(공민관주사, 도서관 사서, 박물관의 학예원 등)제도에 있어서는 60년이라는 세월이 경과한 지금도 비정규직 등 많은 과제는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주민의 자치와 학습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점이다. 전후 교육개혁의 지방분권의 원

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를 존중하고 지역의 기반을 둔 사회교육 및 행정이 지역중심주의와 주민자치의 원칙을 중시하며 전개되어 왔다. 거기에는 전전(戰前)의 국가 집권적인 사회교육에 대한 강한 반성이 존재하였고 지역의 필요에 따라 실제 생활에 입각해서 주민의 자치와 참여를 기본으로 한 관점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주민자치 원칙은 전전(戰前)의 통제적 사회교육의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하게 통제를 해서는 안 되고 주민의 자치와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각 시설마다 운영심의회나 이용자 연학회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물론 지역적인 격차는 있지만 행정·시설 사업에 주민의 자치와 참여구조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실제적인 활동과 실천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축적되어온 점은 큰 의미를 갖는다. 필자 또한 유학생 신분이지만 살고 있는 지역의 공민관의 〈이용자 연학회〉 및 각종 위원회활동을 권유받고 하기도 하였다.

이상으로 일본의 평생교육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다음에는 일본 평생교육의 역사를 시기별로 나누어 간단히 소개해보겠다.

일본평생학습의 발자취

1. 1945~ 1950년대, 지자체 행정정비·시설 보급기

앞서 말한 법제정으로 지자체의 사회교육행정조직이 어느 정도 정비되고 공민관을 중심으로 한 여러 시설이 보급되어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사회교육 행정과 시설 체제에 어느 정도 근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학급 진흥법」(1953년)이 많은 논란 속에 만들어졌고, 이에 대항하여 일어난 지역 청년운동 주도의 ‘공동학습’도 주목할 만하다.

2. 1960~1970년대, 지역변모·사회교육 약동기

「사회교육법」 ‘대개정’(1959년)으로 고도경제성장정

책에 수반되는 급격한 지역변화와 도시화에 의해 기존사회교육의 농촌적 기반이 상실되고 도시적인 사회교육활동이 추구된 시기이다. 도시 근교부에서는 시민계층 주도의 주민운동이 대동하여 주민주체의 학습 및 문화활동과 시설설립 운동이 확대되어 갔다. 이시기에 각종 현대사회문제에 대한 학습과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사회교육 관련자들도 매우 적극적으로 사회문제·지역문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각종 선언문을 발표했다.

3. 1980~1990년대 전반, 평생학습이행·사회교육정체기

중앙교육심의회 「생애교육에 대하여」(1981년), 임시교육심의회 교육개혁에 관한 답신」(1987년) 등에 의한 평생교육의 도입과 평생학습체제로의 이행 시책이 전개된 시기이다. 법제적으로는 「생애학습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체제 등 정비에 관한 법률」(1990년)이 성립되었다. 동시에 이 시기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개혁’, ‘재정합리화’시책과 버블경제의 붕괴로 지자체 사회교육과 평생학습의 공적 조건 정비가 향상되지 않고 오히려 시설위탁, 직원삭감, 예산삭감 등의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 사회교육과 평생학습 간에 혼동도 일어나 지자체 사회교육의 실태는 오히려 후퇴와 침체 상태가 적지 않았다.

4.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사회교육재편·전환기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사회교육 공적체제의 재검토, 시장원리의 도입, 규제완화, 시설의 민간위탁(이를 지정관리자 제도라고 함) 등의 시책이 도입되고 「사회교육법」과 공민관 설치 기준 등의 개정(1999년, 2001년, 2003년)이 줄을 이은 시기이다. 또한 신보수주의 노선에 따라 「교육기준법」개정(2006년)과 기타 사회교육법 등이 개정 되었다.

대규모의 시정촌 합병, 지방재정의 긴축, 자치단체장 직속행정으로의 사회교육시설 흡수 통합

등 동향 속에서 사회교육 행정 및 시설의 축소, 개편, 폐지라고 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한편 이시기에는 자원봉사, 시민활동, 사회공헌 활동이 전개되었으며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1998년)의 제정으로 법인격을 지닌 시민단체들이 독자적이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일본평생학습, 오늘의 자화상

1.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1990년대부터 2000년 이후 일본의 사회교육과 평생학습은 정체와 혼미, 전환과 재생이라는 다난한 세월을 겪고 있다. 그 배경에는 앞서 말하였듯이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시장원리도입, 규제완화, 재정삭감, 민간 위탁 등의 여러 시책들이 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사회교육과 평생학습의 여러 조건 정비 수준이 후퇴되어 직원 집단이 해체되고 실제 사업과 활동이 자치적인 전망을 상실해 가고 있는 지역도 있다. 행정주도로 진행되어 온 사회교육과 평생학습의 행정개혁-행정시책의 후퇴와 재정조건 축소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약 60년간 축적 된 것을 바탕으로 한 발전과 새로운 태동도 보이게 된다. 정책과 행정의 관점만이 아니라 지자체 내의 시민과 주민의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풍경이 나타나고 있다. 그간 지방분권의 흐름도 있었기에 지자체의 자치적 역량과 시민상호간의 네트워크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행정 개혁의 추진으로 사회교육의 전환기를 맞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역만들기, 마을만들기에 대한 역할을 사회교육에 기대하는 움직임도 두드러지고 있다. 오랫동안 이어진 행정주도의 지역만들기, 마을 만들기를 시민 주도형으로 전환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행정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대등한 관계에서 연계하고

서로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시민협동'의 지역만들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그 때문에 지역만들기, 마을만들기의 주체인 시민역량(시민력)형성을 사회교육(시민교육)의 현장에 기대하고 있다.

2. 시민네트워크 및 NPO와의 접점 찾기

일본의 사회교육 및 평생학습을 둘러싼 정체와 전환이라는 측면과 시민활동의 태동과 재생이라는 두 측면은 특히 오늘날 공민관이 놓인 상황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행정 측에서 보면 공적 시설인 공민관의 조건정비는 확실히 후퇴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민관과 관련된 시민의 참여와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동안 다채로운 시민, 그룹들이 공민관을 거점으로 활동하였고 적극적인 지역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공민관을 지탱하는 시민네트워크가 확산되고 있는 지역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공민관 활동에서 NPO활동이 태동하고 지역복지와 연결된 공민관 사업이 창출되며 또는 소지역, 마을 단위의 주민자치에 뿌리내린 자치 공민관이 활약하는 등 많은 지역 사례들이 있다.

또한 지방의 경우 도시의 인구 집중과는 반대로 과소화와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 "한계마을"이라고 불리는 지역도 출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에서도 지역의 재생과 활성화가 강조되며 마을살리기의 관점에 입각한 사회교육의 추진이 요청되고 있다. 이를 살려서 도시나 농촌에서의 인재양성과 사람 만들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교육의 실천으로서 음악제나 영화제, 인형극 등을 통한 마을만들기 등 지역성을 반영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재해 속에서 다시 재조명되는 공동체 학습

모두가 알다시피 작년 2011년 일본 동북지역을 강타한 쓰나미 재해와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에 대해 전면적으로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개인주의적 삶에 대해, 개발위주의 경제발전에 대해 무엇을 잃어버렸는가를 되돌아보고 있다.

특히 쓰나미가 있었던 일본의 동북지역은 필자가 유학생활동을 했던 센다이에서 가까운 곳으로 올 8월에 다녀왔다. 어느 정도 복구는 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상처와 복잡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생생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쓰나미 속에서 살아남은 당사자들의 뮤지컬공연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신만이 살아남았다는 죄의식 등 복잡한 감정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마침 그 주민들 중 전에 사회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문화 활동을 한 사람이 주축이 되어 뮤지컬공연을 하게 되었다. 이들은 처음에는 무척 망설였지만 차츰 자신들의 속 깊은 이야기를 함께 터놓고 말하고, 극본을 쓰고 뮤지컬 연습을 하면서 공연까지 하게 된 것이다. 이른바 공동학습과 문화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문제”에서 “우리들의 과제”로 인식하게 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된 것이다. 앞서 소개한 대로 일본사회는 개발위주와 공동체 붕괴로 극도로 개인주의 성향이 만연하게 되었고 이는 평생교육의 현장에서도 개인적 학습의 중요성과 개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모습으로 많이 만나게 된다. 그러나 이번 재해를 통해 개인주의 삶과 학습의 한계를 새삼 깨닫고 공공(公共)성과 공동체적 삶을 지향해왔던 “사회교육”적 요소가 사람사회에 불가결한 요소임을 재해를 딛고 복구하면서 일본인들은 다시 한 번 돌아다보는 것 같다.

※ 이 글은 小林文人·伊藤長和·양병찬 공편 『일본의 사회교육 평생학습 : 풀뿌리 주민자치와 문화창조를 위하여』 학지사, 2010을 참고로 하였다. 좀 더 자세히 일본의 평생학습과 주민자치 등에 관심 있으신분들은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주민들의 평생마을놀이터, 공민관

발행호 (제19호) 2012. 11. 21.(수)
글 정현경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마을 주민들의 놀이터

지난 호에서 필자는 일본의 사회교육 특징 중의 하나가 시설주의인데 그중 대표적인 시설이 공민관이며 일본사회교육법은 별칭으로 “공민관법”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고 했다. 사실 필자의 일본유학생활동은 공민관과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 연구도 하게 되었지만, 때로는 혼자만의 독서실로 때로는 도서관으로 때로는 약속 장소 등으로 활용되는 생활터였다. 공민관과의 처음 만남은 지역에 있는 중앙공민관에서 하는 “무료 일본어교실”이었고 그 곳에서는 다양한 학습동아리들이 스스로 공부도 하고 무엇을 만들기도 하고 요리를 한다는 것을 알았다. 1991년 처음 일본에 갔을 때 아직 한국에는 지역시설이라고는 소수의 빈민지역중심의 지역복지관이나 시민회관정도가 대부분이었는데 그 당시 이런 공민관은 필자의 눈에는 참 재미있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곳이었다. 특별한 강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지원프로그램을 하는 곳도 아닌, 그저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학습하고, 무언가 만들고, 약속도 하는 곳, 남녀노소 모두 들락거리는 그곳은 매우 흥미로웠고 이후 필자의 연구주제가 되었다.

그 후 일본어교실에서 무료로 외국인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쳐주었던 일본어 선생님들은 실은 공민관의 “일본어교사 양성과정”을 통해 공부를 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원봉사로 운영된다는 것을 알았다.

공민관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공민관 주최의 “기획강좌운영”이다. 여기에는 “○○사회학급” “○○인권학급” “○○여성강좌” “탁아양성과정” 등 그 시대의 과제를 공부하는 강좌운영이 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강좌가 단순히 강의와 수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좌가 끝난 후 같은 주제를 학습했던 이들이 후속 소모임으로 학습과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 할 수 있도록 공민관측에서 지원한다는 점이다. 필자가 처음 만난 일본어 무료강좌도 국제화강좌에서 확대된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교사 양성과정”이었던 것이다.

둘째는 주민들 스스로 기획하는 “자주 기획 강좌”이다. 강좌는 공민관직원의 기획으로 개설되기도 하지만 각 공민관에 설치되어있는 “운영위원회” 또는 소모임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 개설되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배우고 싶은 강좌나 지역에서 필요한 강좌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각 강좌별로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기획위원회를 통해 기획부터 평가까지 모두 담당해서 하기도 한다. 필자도 여성학세미나 기획위원으로서 같이 참여하면서 테마설정부터 강사선정까지 함께 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주민들은 심도깊은 토의와 회의기법, 실무 등을 자연스레 몸에 익히게 될 뿐만 아니라 공민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높아진다.

셋째는 강좌뿐만 아니라 누구나 와서 자유로이 학습하기도 하고 담소하기도 하고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빌려주는 역할이다. 실제로 일본의 대부분의 공민관들은 지역의 다양한 주민모임의 거점이 되고 있다. 흔히들 사회교육시설은 ○○아동센터, ○○청소년센터, ○○노인센터 등 연령과 성별 혹은 장애여부로 나뉘어져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공민관은 말 그대로 유아부터 고령자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

넷째는 다양한 주민들의 교류장소라는 점이다. 많은 공민관에 작은 카페나 간단한 음식을 파는 코너가 있는데 이곳의 운영은 지역의 장애인, 여성, 고령자 등이 맡아 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인큐베이팅 공간으로도 활용되기도 한다. 특히 인상 깊은 활동 중에 하나는 장애인과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장애인 카페코너”이다. 이러한 카페를 통해서 장애인들은 일자리와 자기표현을,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을 만나면서 이해 할 수 있게 되는 곳이다.

공민관 시설 또한 이러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많은 공민관들이 3층 건물로 되어있는데 대부분 1층은 교류와 정보의 장으로 되어

있다. 1층은 다양한 지역의 소모임 활동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설치하고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모임별 물품보관소도 지원해주고, 인쇄 및 복사기 등도 공유할 수 있도록 배치해놓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2층은 강의실, 소모임실, 요리실, 공작실 등이 배치되어 있다. 대부분의 공민관에는 유아나 장애인 고령자를 고려하여 다다미방으로 되어있는 학습공간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간단하게 차나 다과, 도시락 등을 먹으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탕비실 등이 구비되어 있다. 3층은 다목적실인 체육관이나 강당 등이 있으며 작은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기도 하다.

공민관의 역사와 특징

공민관은 1947년 7월 테라나카라는 문부성사회교육과장의 제안으로 전후일본의 재건을 목표로 지역 부흥과 사회교육을 중심으로 “향토의 종합시설”로서 탄생되었다(공민관은 지자체가 설치(제21조)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있다). 법이 제정되었다고는 하나 전국의 사회교육시설이 일률적으로 정비된 것은 아니다. 지역의 사회교육 조건정비를 요구하는 사회교육직원과 주민운동의 확산 및 고조에 따라 사회교육, 평생학습시설 보급 및 정착은 지자체마다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었다.

전후 60년을 거쳐 전국지자체에 약 18,000관의 공민관(분관포함)이 보급되어 정착되어 있고 각 공민관마다 약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 가운데 공민관 주사 등 지도계 직원이 1명 정도 배치되어 있다. 공민관에 개설되어있는 “학습강좌”는 약 125만 명이 수강하고 있으며 지역의 학습단체 동아리나 개인이용자는 2억 3천 명 이상이다.

공민관의 설치 상황을 보면 설치율은 89.1%이지만

시(市)는 93.9%, 정(町)은 88.4%, 촌(村)은 79.7%로 시구 정촌별 설치율에서 차이가 난다(공민관 커뮤 니티시설 핸드북, 일본공민관학회편, 2006년).

설치율도 다르지만 그 수만큼 다양한 형태의 공민관의 역사가 있다. 예를 들면 1963년에 오사카부의 히라가타시는 사회교육의 주체는 시민이고, 사회교육행정은 지역주민의 자기 능력형성을 통해 민주주의의 확립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천명하고 이와 같은 활동의 장으로 공민관을 지정하고 공민관주사를 사회교육 전문직으로 규정하였다. 이 히라가타시 사회교육 행정의 기본방침인 “사회교육을 모든 시민에게”를 ‘히라가타 선언’이라고 부르고 있다. 지역에서 사회교육 실천을 지원하는 공민관주사의 직무에 대해 나가노현 이이다·시모이다지역의 공민관 주사회는 1965년 “공민관주사의 성격과 역할”을 발표했다. 이를 “시모이나 선언”이라고 한다. 또한 공민관의 전국조직으로서 사단법인 전국 공민관 연합회가 1951년에 결성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수도 도쿄의 베드타운인 산타마지역의 공민관 활동방향에 대하여 공민관은 주민의 자유로운 유희공간의 장이며, 주민에 의한 문화창조의 광장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견해는 도시형 공민관상을 제시한 것으로 “산타마선언”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제시된 도시형 공민관상은 1960년대 이후의 고도경제성장속에서 발전한 도시부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의 요구에 기초한 공민관 건설을 추진하는 지침이 되었다.

사회교육 기관인 공민관의 사업 및 활동을 수동적·소비적인 “교육의 장”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지역자치 및 문화 창조의 주체형성의 장으로 인식하고 지역생활을 통한 주민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학습·문화 활동의 거점으로 공민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7-80년대의 활성화시기를 거쳐 전후개혁의 총결산, 공민관의 통폐합, 사업단 위탁, 민영화, 시민센터화 등이 추진되면서 사회교육시설인 공민관의 공공성과 독립성은 점차 후퇴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1990년 「생애학습 진흥정비법」제정으로 인해 생애학습에 대한 국가통제의 강화와 신자유주의 원리를 받아들이면서 상대적으로 지자체들은 공민관의 존재가치를 경시하게 되었다.

이처럼 전후 일본 공민관 60년의 역사는 정치와 경제동향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지역정착도 각각의 단계에서 정치·경제 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것이다. 지자체별로 1970년대에 이미 공적 사회교육시설의 조건정비가 어느 정도 진행된 곳도 있었지만, 평생교육의 도입과 평생학습으로의 이행이 제창된 1980년대의 단계에서 국가의 행정개혁과 재정삭감, 그리고 신자유주의 노선에 따른 공공부문의 재검토와 시설 민간위탁등의 시책들로 인해 사회교육시설의 공적체제가 오히려 정체되게 되고 재생의 기회를 모색하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초래되고 있다.

물론 전체적인 경과를 보면 그간의 60년 세월동안 사회교육시설의 지역정착은 전국규모에서 광범위하게 성과를 거두어 왔다. 각각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도서관, 박물관과 나란히 공민관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보급, 정착되어 간 것은 전후 일본사회교육의 큰 성과로서 평가받고 있다. 적어도 통계적으로 의무교육기관인 학교시설에 필적할 만한 수준의 수치를 실현해 왔던 것이다.

환갑을 넘은 공민관의 새로운 도전

환갑이 지난 공민관은 현재 큰 기로에 서 있다. 시정촌 합병에 의한 공민관의 통폐합, 지정관리자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지자체 사회교육의 축소와 직원체

체의 악화, 또한 관할행정시스템의 변화라는 경향 속에서 공민관의 일반 행정 조직으로의 이관이나 위탁화 등, 공민관을 둘러싼 상황이 힘들게 되어 지역시설로서 공민관 존재가 문제시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오랜 주민의 자치와 역사가 있었던 만큼 지역사회로 눈을 돌리면 지방분권, 사회참여를 지향하는 분위기 속에서 지역자치, 주민자치의 형성이 강화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지역부흥’과 깊이 연관되어 지역주민들의 학습·문화활동의 장소로서 지역 주민들속에 뿌리를 내린 공민관도 존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민관 시설감소와 축소는 있지만 환갑이 지난 역사만큼이나 그동안 다채로운 시민·그룹들이 공민관을 거점으로 활동하였고 적극적인 지역활동을 자신들의 살고 있는 삶터에서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리더들의 탄생에는 60여년의 공민관이라는 마을 공공학습시설과 지역주민과 함께하면서 각종 선언을 한 정열적인 전문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다. 이제 일본의 공민관은 시설과 법테두리를 넘어서 환갑을 넘은 지혜와 유연함을 가지고 마을에서 새로운 세대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는 〈은발의 청춘〉으로 새롭게 도약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 평생학습의 뿌리, 여성

발행호 (제20호) 2012. 12. 05.(수)
글 정현경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여성은 학습 소비자

일본이나 한국이나 평생교육의 주요 대상은 여성이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기혼여성으로, 즉 주부라 불리는 엄마들은 평생교육의 고객으로서 각종 공민관, 여성센터, 미술관, 박물관 문화센터의 학습자이며 아이들의 성장과 더불어 각종 문화시설의 주요 고객이 된다. 이런 배경에는 M자형 취업곡선, 저출산, 고학력, 여전한 성별 역할 분업 등 한국과 일본여성의 공통점이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면서 그녀들은 엄마로서 주부로서 그리고 지역의 “전일제 주민”으로서 생활하게 되어 버린다. 설령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엄마와 주부의 역할에서 자유로운 이는 아직도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 그녀들이 잠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어 문화소비자로 그리고 학습자로서 문화쇼핑을 하는 것도 존재하는 현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삶의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지역의 생활자로서 학습과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지금까지 학습소비자로서 여성의 학습을 살펴보고 그들의 학습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학습과 실천으로 지역에서 순환되는지 생각해보기로 하자.

개인 생활경험에서 지역실천까지 이어지는 순환적 학습

필자의 석사논문 테마는 “여성자주그룹”이었는데 이들의 학습활동 배경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개인의 경험과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이를 지원해주는 지원정책과 시설이다.

실제로 필자가 오랜 유학생생활 동안 한국어 자원봉사를 한 한국어 학습모임 ‘무지개’도 국제 이해 프로그램으로서 한국연수 방문단들이 후속 모임으로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려고 만들어졌는데 5년 동안 공민관 시설을 이용하여 모임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외에도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학습하려면 이와 같은 활동을 뒷받침해주는 커뮤니티 시설이 있었다(2편 참조). 여기서는 그 중 하나로 엄마와 며느리라는 개인적 경험을 공동의 해결 실천으로 발전시킨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1) 육아, 탁아, 교육 - 한 아이의 엄마에서 지역의 엄마들로 재탄생 ‘엄마들의 손과 발로 만들어진 육아 정보지’

아이를 둔 부모가 그 지역에서 아이와 같이 누릴 수 있는 서비스정보를 일종의 지도형식을 빌려 매년 한

번씩 발간하기도 하고 영유아기 엄마들의 경험을 책으로 만들어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들은 아이들의 성장과 더불어 학교제도, 교육문제, 환경문제, 먹거리 문제 등으로 관심이 확대되어 다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또 다른 여성들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2) 탁아 자원활동 - 자신의 고충을 함께 해결하는 학습실천

한국이나 일본이나 M자형 취업곡선은 영유아기의 육아문제가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탁아 자원활동 모임의 목적은 육아의 어려움을 직접 느꼈던 여성들이 가장 사회와 동떨어지기 쉬운 시기의 취학 전의 아이를 둔 엄마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즉 아이와 같이하기 어려운 각종 학습활동이나 문화활동 행사에서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탁아하는 것이 바로 이 탁아자원활동의 주 목적이다.

모임활동의 산과 역할을 한 것은 커뮤니티센터(공민관)에서 실시하는 ‘탁아 자원봉사 양성과정’이다. 이 과정은 몇 개월간에 걸쳐 탁아에 대해 학습하고 난 후, 학습에서 배운 것을 실제로 탁아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활동의 토양을 제공하고 있다. 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소 제공과 코디네이터 역할을 커뮤니티센터 측에서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커뮤니티 측의 지원을 바탕으로 모임활동은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것이 된다.

또한 다른 ‘탁아 자원활동’ 모임과도 합동정례회 등을 통하여 정보도 교환하고 지역 탁아모임끼리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한다. 그 결과 자신들만의 모임세계에 안주하거나 닫힌 활동으로 인해 서비스가 중복되기 쉬운 지역탁아의 문제점을 극복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탁아 자원봉사 활동’ 덕분에 육아기 자녀를 둔 젊은 엄마들이 사회와 단절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3) 고령자 수발의 경험을 고령화 사회의 복지 활동으로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일본에서도 아이를 키워 놓고 경제활동을 하려고 해도 얼마 못가 발목을 잡는 것이 양가 부모들의 수발이다. 이들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장에서 만나 문제를 인식하고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서로 돕자는 취지에서 도시락배달, 심포지엄, 고령자 케어 등을 시작했다. 내가 인터뷰한 한 모임은 처음부터 고령자서비스를 한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일하는 여성들의 사회지원을 위해 저녁 배달로부터 시작된 것이 차츰 노인들을 위한 식사서비스로도 영역을 넓혀서 활동하게 된 것이다. 이 활동의 계기는 모임대표자의 힘들었던 개인의 노인간병, 수발경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대부분 가족(주로 며느리)에게 의존하는 노인수발을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하자라는 것이 활동의 취지이다. 구체적으로는 70세 이상의 독거 노인에게 매월 2회 정도 도시락 서비스, 매주 2회 정도의 전화상담 등을 하는 것이다. 그밖에도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출장탁아 활동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일정정도의 활동비를 번다. 이러한 실천학습활동을 통해 얻어진 생생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시민들을 위한 노인관련 심포지엄 개최 및 모임의 역사와 현황을 알리는 단행본 출판도 하고 있다.

위에 소개한 것은 지극히 작은 사례지만 이와 비슷한 수많은 사례가 일본전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의 특징을 단계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 나의 문제에서 우리의 문제로

집단 공동의 실천을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들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멤버들의 상호 공감을 토대로 공통의 경험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2단계 우리의 문제 우리 손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타자와 공유된 경험>을 통해서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게되고 이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공동체의식>을 갖게 된다. 이러한 문제해결도 외재적으로 주어진, 설정된 책임만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공동의 책임으로 자각되어 자신들의 문제의 근원을 <사회적 문맥>으로 표출하게 되는 것이다.

3단계 행동은 다시 배움으로

<공동의 배움>이 <공동의 실천>으로 되는 과정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의 싸이클을 이룬다. 지역의 과제,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공감>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동 과제해결의 실천>으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실천에는 <공동의 배움>이 필수적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학습>, <공동실천>을 통해서 지역으로 재생산되는 배움이 확산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확산은 다양한 실천 활동을 통해 또 다른 지역의 배움으로 확대된다. 이것은 단계별로 진화되는 것이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의 싸이클을 이루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이 하나의 싸이클을 이루면서 지역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순환적 학습생태계

공동의 행동을 지속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데는 체계적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이 연결되어 있다. 여성학습자들은 공동학습활동을 통해서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공동의 생활 나눔을 통해 서로 신뢰를 쌓고, 정서적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인 <공동의 행동>의 토대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강좌나 커리큘럼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과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배움의 과정

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실천과 성찰을 통해서 공동의 가치, 신념, 태도 등을 키워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경험지(知)가 공동학습지(知)로 실천지(知)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실천 속에서 다시 새로운 학습요구가 일어나 또 다른 학습으로 이어진다. 이른바 지속가능한 순환적 학습생태계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들의 실천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구성원의 모습, 예를 들어 보육소, 학교, 지역사회의 각종위원회 모니터 등 지역의 리더 또는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 워커즈 컬렉티브, 협동조합의 생산자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생활자의 경험을 토대로 생활정치인으로 의원으로 지자체 장으로 지역주민을 대변하여 선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에는 오랫동안 축적해온 학습의 힘에 그 뿌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그녀들은 지역이라는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다시 씨앗을 뿌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신이 살아서 생활에 안착하도록 하는데에는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많은 여성들의 손길이 있었다는 점이다. 그녀들은 지역교육의 멘토이자 “실천하는 교육자”로서 혈관처럼 마을에 건강한 피가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현재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남성 은퇴자들이 “지역주민으로 귀환”하고 있다. 이제 일본의 그녀들은 지역평생교육의 선배로서 남성학습자들과 함께 지역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으며 지진과 각종재해로 불안한 지역사회에서 지금까지의 학습실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부흥을 일구고 있다. 지금까지 여성들의 평생교육은 문화소비자 생산과 취미 교양 활동으로 끝난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그들은 지금 그들의 축적된 학습과 문화적 역량을 발휘하여 내일을 준비하고 있다.

일본 사회교육의 새로운 도약, 경계를 넘어 공동체를 위한 항해

발행호 (제20호) 2012. 12. 05.(수)
글 정현경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전환기를 맞이한 일본 사회교육

일본의 사회교육은 6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축적된 성과와 더불어 조직과 시설의 경직화·퇴보화라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습주체인 시민과 주민의 기대 및 요구에 대하여 생기고 역동적으로 대응해가는 자세나 에너지를 상실해 가고 있는 경향도 있다. 2000년 이후에는 대규모의 지자체 통합(시정촌 합병)이라는 폭풍을 만나 지자체에 따라서는 광역화와 조직재편의 영향이 지금까지 사회교육과 평생학습으로 축적된 성과를 무너뜨리고 있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

1편에 게재한 것처럼 1990년에 제정된 생애학습추진법과 민영화속에서 평생학습은 정체와 혼미, 전환과 재생 등 다난한 세월을 겪고 있고 그 배경에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시장원리도입, 규제완화, 재정삭감, 민간 위탁 등의 여러 시책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시책들은 일본사회교육이 시설과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정주도로 진행되어왔기에 행정개혁-행정시책의 후퇴로 인한 재정조건 축소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지금까지 축적된 것을 바탕으로 한 발전과 새

로운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과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새로운 움직임과 점점 찾기

NPO들과의 점점 찾기

1998년에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일명NPO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된 지금 현재 일본 전국에 약 3만 5천여 개(2010년) NPO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NPO는 활동 목적에 따라 시민 주도 아래 시민대상의 학습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있으며 사회교육과 관련된 공공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NPO도 있다. NPO법에는 활동분야의 하나로써 “사회교육의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이 규정되어 있으며 약 40%의 NPO가 사회교육활동을 활동 목적의 하나로 표방하고 있다. 한편 1949년에 제정된 「사회교육법」에서는 “법인의 유무와 상관없이 공적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로 사회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라는 조항으로 사회교육 관련단체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교육의 추진을 도모하는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NPO는 법적인 의미에서도 「사회교육법」상의 사회

교육 관련 단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사회교육 관련 단체도 NPO법인격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편, NPO도 임의단체 및 서클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NPO와 사회교육 관련단체는 그 역사적 형성과정은 다르지만 서로 공통되는 부분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교육 분야에서도 마을만들기, 생활의 재구축, 지자체와의 협력에 주목하면서 NPO학습활동을 주목하고 있다. 참여형 학습의 추진, 지자체 행정과 협력하는 파트너로서 NPO는 일본의 시민주도형 학습사회를 실현해 나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있다. 사토오 가즈코¹는 NPO를 조사하면서 이들의 60%가 보건, 의료, 복지활동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교육 추진과 마을만들기 추진이 각각 37%, 아동건강육성이 35%라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이 활동의 주목적은 아니지만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교육의 추진”을 시야에 포함하고 있는 NPO가 많다는 점이고,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NPO의 교육력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70% 이상의 NPO가 지역사회에 학습모임을 제공하고 있으며 과반수이상의 NPO가 정보제공과 상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간조직의 NPO센터도 지자체 내에 다수 설립되어있고 연구기관도 많다. 즉, 이들은 학습하는 조직으로서 활동에 수반되는 시민교육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학습하는 조직”으로서의 NPO의 의미가 충분히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학습의 과정이 비연속적이고 시스템으로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의 학습을 조직하는 주체로서의

NPO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평생학습사회의 담당자로서 그 독자적인 역할을 평가하는 일이 향후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NPO는 개별과제를 통해 참여형 학습을 확대발전시키고 있지만 생활과 노동·환경·평화 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사회인식 공유라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주민운동과 사회운동 학습을 시야에 넣는 사회교육의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 NPO가 중요한 이유는 사명(조직의 비전)을 내걸고 그 활동 가치를 사회적으로 제창하는 것 자체가 교육-학습과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을 창조하면서 전문적인 기술을 향상시키고 인재를 결집하고 있는 점은 직업적인 경험이나 자격을 살린 사회참여를 가능케 한다. 청년 후에도 새로운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기회를 발견하거나 협소했던 직업적 경력으로는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NPO는 공적인 제도로서의 사회교육 혹은 민간업체가 제공하는 평생학습기회와는 다른 활동들과 하나가 되어 공동학습을 축으로 하는 평생학습사회의 제 3영역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토오 가즈코 교수를 비롯한 많은 사회교육학자와 관련자들이 이점을 주목하고 있다.

필자 또한 이 말에 적극 동의하면서 여성학습자의 저력과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호(3편)에서 피력했다. NPO들이 여성만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의료, 복지, 교육이라는 분야에서 여성들의 학습과 활동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지역 만들기과 점점 찾기

지역 만들기과 평생학습이라는 주제는 사회교육, 평생학습의 실천적 주제로서 어느 시대에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글로벌화의 진전은 이 주제에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글로벌화

이면에는 지역사회가 폐쇄되고 양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젊은이들이 빈곤문제를 떠안고 이와 같은 문제들이 지역사회에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젊은이들의 실업문제,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시재생” “자치적인 지역공동체의 창출” “시티즌십”을 키우는 지역만들기와 평생학습의 계획책정 등 여러 방면으로 지역사회재생을 위해 노력하는데 거기에는 사회교육이 있다.

예를 들면, 과거 청년들의 학습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사회교육은 대학진학률이 상승하면서 그 역사적 사명은 끝났다고 한다. 그래서 1999년 청년학급 진흥법은 폐지되고 이어 “청년의 집”이 재편 통합되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청년교육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를 대신해서 2003년에 <청년자립, 도전플랜>을 책정하고 후생노동성동이 “잡카페 (JOP CAFE)”와 같은 청년들의 취업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실정에 맞는 청년들의 능력향상과 취업촉진을 도모하고 고용관련서비스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원스톱서비스만으로는 청년들과 취업을 연결시키는 것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기업은 바로 쓸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지만 고용의 폭은 좁고, 학교 교육은 직업교육에 있어서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례대로 배출되는 젊은 노동력은 갈 곳을 잃은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잡카페에 이어 2006년부터 포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니트족, 프리터족 문제에 대응하는 사회교육시설, 지역청년 서포트스테이션 사업을 전국 50여 곳에서 실시하고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학습과 교육, 교류 식사, 대화, 직업훈련들을 하며 유연성 있는 노동학습을 한다.

지역의 운동단체와 점점 찾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지자체 개편과 아웃소싱은 시민성의 육성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과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주체가 필요하며 시민과 협력하는 노조나 시민운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 그 중 좋은 사례가 오사카부 모리구치시의 경우이다. 이들 노조는 중소기업자들의 기업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역조사를 하는 도중에 영세기업들의 열악한 상황에 공감하며 영세기업들의 일자리와 주거를 같이 지켜나간 예이다.

기존의 지역 만들기와 문제 해결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사회교육, 평생학습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는 사람들이 인사를 나누고 교육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을 활성화하거나 문화를 창조하고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시민교육, 평생학습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지역 문제해결을 전문가와 행정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지역사람들이 역량 있는 주체가 되어 직접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즉,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지역차원의 집단지성의 힘이다.

필자도 일본에서 유학을 하면서 사회교육의 제도권 내의 활동을 연구하였지만 생활하면서는 지역의 주민으로 아이엄마로서 한사람의 시민으로서 지역에 역동적인, 이른바 주민운동 속에서 이들의 교육력을 발견하였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진정한 한일 평화를 원하는 시민들이 「고려박물관」이라는 작은 박물관을 만들어 한 일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교류하는 단체들의 학습력이었다. 이들의 모임을 지역주민으로서 곁에서 지켜보았는데 어느 대학원 세미나 못지않은 학습과 기록들을 하고 있었고 이러한 활동을 10년에 걸쳐 준비하면서 시민들의 후원으로 「고려박물관」을 설립·

1 사토우 가즈코 『NPO의 교육력』 동경대학 출판부, 2004 (일본어판)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단체들의 교육력은 사회 교육범주에는 들어가지 않았으나 사회를 변혁하는 힘으로 강력히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많은 시민 운동과 노동운동 등 이른바 사회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운동단체들의 비판적이고 변혁적인 교육력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교육의 교류의 중심-사회교육 전국추진 협의회

마지막으로 꼭 소개하고 싶었던 단체가 있다. 「사회교육추진 전국협의회」이다.

이 협의회는 1963년에 발족하여 매년 여름 실천 활동을 교류하고 이론으로 심화시키고 다시 실천함으로 이론과 실천의 조화를 이루고 서로의 영역을 알아갈 수 있는 교류와 네트워크의 장을 펼친다. 참가자들은 연구자, 사회교육 직원, 주민, 학생 등 다양한 사회교육 관련자로 이루어져 있다.

올해에는 일본의 자유민권운동지였던 고지에 서 8월에 열렸는데 필자도 참가하였다. 그 중 인상 깊었던 것은 기조 강연으로 저명한 학자가 아닌 고지 지역에서 평화학습활동을 하는 고등학생을 필두로 작은 평화박물관, 문해교육, 오랫동안 야간대학으로써 성인교육의 학습권리를 보장해준 단기대학의 사례가 당사자들을 통해 릴레이 발표로 이어진 점이다. 즉 저명한 이론가나 전문가의 거시담론이 아닌, 지역의 풀뿌리 학습활동을 가장 중요한 점으로 본다는 점에서 이들의 지역성 중시가 얼마나 깊은가를 다시 한 번 느낀 시간이었다.

경계를 넘어 - 따로 또 같이

이제 일본의 사회교육은 실정법의 테두리와 시설을 넘어서 좁은 시야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계성, 네트워크성, 유연성이다. 특히 작년 쓰나미 재해 후 일본사회는 다시 한 번 자신들이 살아온 파편적이고 개인적인 삶을 되돌아보고 고독한 현대병을 치유할 수

있는 참다운 인간살이를 위한 있는 공동학습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고 있다.

그러나 개별화된 시민의 목소리를 얼마만큼 모아 시민의 요구를 끄집어내는 주체로서 사회적인 개혁에 어느 선까지 관여해 갈수 있는가라는 점에서 그 한계성이 지적되기도 하고 비판적이고 정치적인 학습이 사회교육 제도권 내에서 밀려나온 상황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한 번 초심의 사회교육운동의 야성을 되돌아보려는 뼈아픈 성찰의 모습, 생활과 밀착된 생활자의 시선과 행동하는 민주 시민으로써의 역량강화라는 씨줄과 날줄을 유연하게 엮으려는 움직임과 공동체를 향한 항해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들의 항해가 신자유주의라는 폭풍, 개인주의라는 암초 속에서도 유연하게 헤쳐 나가기를 기원해본다.

수원탁틴내일

탁 트인 세상, 탁 트인 내일을 만들기 위한 스스로의 활동

발행호 (제1호) 2012. 03. 14.(수)
글 이보라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3월의 반가운 봄비가 내리던 날, '수원탁틴내일'을 방문했습니다. '탁틴' 이름에서 풍기는 뭔가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역시...'라는 감탄사를 일으켰고,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깊어지는 교육에 대한 고민과 생각들은 앞으로 함께 풀어나갈 과제들로 돌아왔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더 나은 세상 만들기를 소망하는 '수원탁틴내일'을 소개합니다.

'수원탁틴내일'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수원탁틴내일'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운동

을 하는 단체입니다. 이름 그대로 '탁 트인 세상, 탁 트인 내일'을 희망하며 아이들이 놓여있는 환경과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가자는 비전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희 단체가 처음 생겨날 때 여성들이 모여 사회문제를 바라보며 '가장 비어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아이들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문제, 폭력문제, 교육문제 등에 대해 접근을 하면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은 크게

아동·청소년 및 부모 상담, 교육, 자원 활동, 회원활동으로 나뉘지는데 성교육, 학교폭력 관련 교육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로 더욱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교육 대상은 크게 아이들, 부모, 전문 활동가 교육으로 나뉘는데요 아이들의 경우 학교에 방문하여 진행하거나 아이들이 직접 교육장으로 와서 진행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교육을 통해 아이들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활동가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지역에 더 많은 인적자원이 생겨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수원탁틴내일’은 수원지역 거의 유일한 성교육 전문 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단체의 활동을 성교육만으로 특화하고 싶지는 않다고 한다. 지금은 성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곳이 많지 않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탁틴내일의 역할이 크게 나타나지만, 탁틴내일은 어떠한 부분에서든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만들어가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비슷한 일을 하는 더 많은 기관들이 일의 경험과 노하우를 모으고 함께 진행한다면 더 깊고 풍부한 내용이 만들어지고 함께 힘을 받아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아이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사무실과 교육장에 직접 그린 벽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만족도와 자존감이 매우 높아졌다고 한다. 앞으로 마을벽화그리기 팀과 함께 마을의 밋밋한 큰 벽을 도화지 삼아 더욱 생동감 있고 재미있는 그림을 그릴 계획이라고...

교육을 진행하면서 보람과 행복을 느꼈던 적은 언제 이신가요?

교육은 사람의 변화 가능성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

해요. 교육을 함께했던 사람들의 변화가 느껴지고 나타날 때 정말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활동가양성교육의 경우 오랫동안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시선과 의식들부터 하나씩 변화되고 다가움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경우 밥 먹는 것 하나도 스스로 결정한 적이 별로 없어 첫날 오면 점심메뉴 고르는 것도 다른 사람의 눈치 아닌 눈치를 보며 일동 메뉴통일이던 아이들이 교육이 지나갈수록 작은 것부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볼 때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런 변화의 몸짓을 보면서 힘들어도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일을 하시면서 힘드신 때는 언제인가요?

자본적인 부족으로 인해 교육활동가들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작은 기관들을 보듬고 모으는 역할을 하며 상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새로 만든 교육프로그램의 아이디어만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힘이 많이 빠지죠.

그리고 수원에는 무료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저희와 같은 작은 기관들은 비용적인 면에서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기관 운영과도 직결되는 문제죠.

정부의 보조 없이 후원회원과 위탁사업 등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이었다. 무료교육에 대한 또 다른 걱정도 더해졌다.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많이 듣는 것보다 본인의 전문분야를 찾고 그것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배우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 무료교육은 수박 겉핥기식 교육과 교육 실적만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남기는 교육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몇 시간의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은 교육이 아니죠. 교육을 통해 나누고 그것이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전문가양성교육의 경우도 교육의 일부인 오랜 기간의 훈련을 힘들어하며 피해가고자 하는 분들도 많고 중간에 그만두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이것을 모두 함께하고 나가신 분들은 전문가로서 지역의 자산이 되시죠.”

조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서, 수원의 평생교육기관들과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요.

사실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많은 교육 기관들이 각개격과 형식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어려움과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함께 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의식은 잡혀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 모여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죠.

작년에 몇몇 단체들이 모여 ‘교육희망네트워크’라는 모임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논의의 내용이 학교 문제 등으로 좁혀지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네트워크에 대해 좀 더 공고히 하자는 의미에서 모임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움직임은 많은데 그것을 받쳐주는 곳이 없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수원시평생학습관이 중심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해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학습관의 역할에 대해 바라는 점들을 말씀해주셨다. 수원에 많은 교육기관과 단체들이 모두 각자의 틀 안에서 그저 각자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모으고 소통하게 하는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주었으면 한다는 바람. 각 단체마다 천차만별인 교육의 질을 일정정도 이상으로 상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넘치는 아이디어를 함께 육성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기관들에게 응원과 함께 실질적인 예산적 부분의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함께 해달라고 하셨다. 학습관의 짐이 무거워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래도 그만큼의

기대감이 있다는 의미이니 기분 좋은 책임감이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원에는 많은 사회적, 인적 자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굴하고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활동가들의 역량을 재생산하고 비전을 만들어주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영리단체들의 역할을 함께 공유하고 비전을 만들며, 실행력 있게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함께하고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역에 대한, 교육에 대한, 그리고 활동에 대한 다양하고 깊은 고민을 듣노라니 무거운 책임감이 들었지만 웬지 모를 든든함도 느껴졌다. 교육에 대해 함께 나눌 동료들 알게 되었다는 기쁨과 기대감에 무거움과 가벼움이 공존하는 발걸음으로 돌아섰다.

(수원택틴내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교동 142-20 신혼웨딩출장뷔페 3층

031-251-1516

<http://cafe.daum.net/suwontacteen>

칠보산마을공동체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널리 퍼져 나가기를

발행호 (제2호) 2012. 03. 28.(수)
글 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장



칠보산공동체마을 추장 최창규(좌)씨를 만나다.

20세기가 마을 파괴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마을 복원의 시대다. 산업화·도시화과정에서 마을은 속절없이 스러져 갔고 공동체는 가뭇없이 붕괴되어 갔다. 그러나 절망 속에 희망이 피어나듯 폐허의 땅 속에서 새로운 기운이 꿈틀거렸으며 그 생명의 한 가운데에는 아이가 있었다.

우리시대 마을 만들기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

은 성미산 마을공동체. 이 곳도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부모들의 고민으로부터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권선구 칠보산 자락에 터를 잡고 있는 ‘칠보산 마을공동체’의 경우에도 그 시작은 보육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마을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마을만들기의 경로는 달라지겠으나 대저 아이는 단결의 구심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셈이다.

2001년, 아이 보육문제와 관련하여 고민하던 칠보산 자락의 사람들이 스스로 ‘사이좋은 어린이 집’이라는 공동육아조합을 만들게 되었고 이 조합이 오늘날 칠보산 공동체의 씨앗이 되었다. 아이의 보육과 성장에 국가가 손 놓고 있을 때 부모들이 나서 협동과 연대의 정신으로 아이를 함께 돌보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똑똑한 부모가 아니라 따뜻한 마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 씨앗은 다양한 형태로 발아하고 꽃을 피워 나가기 시작했다. 대안학교 등 교육관련 공동체만해도 7개에 교육문화나눔터 ‘뚝방’과 같은 자치활동 단체 4개, 농악과 같은 동아리 3개, 명상모임 아빠공부모임 등 다양한 모임체가 8개에 이르렀다.

학습관 식구가 방문 한 3월 24일, 별은 따듯한데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공동체 구성원끼리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일행을 맞이한 분은 주장으로 불리고 있는 최창규 씨였다.

칠보산 공동체에 어떻게 접하게 되셨나요?

처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단순히 육아를 위해서 들어오게 되었지만 참여를 하다 보니 끈끈함이 생기게 되었다.

칠보산 공동체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2001년 사이좋은어린이집 개원 후 10여년의 시간을 세 개의 시기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초기 멤버들이 의기투합해 일을 하던 시기를 1기라고 본다면 각 단체의 안정화를 위해 일했던 2008년까지가 2기 정도에 해당되는 것 같다. 그 이후 단체들이 서로 모여 한가위 행사나 대보름 행사를 하는 등 공동 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이 3기

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 곳은 지역적으로 공동체원들이 인근에 거주하게 때문에 뭉치기가 좋다. 자연 환경이 좋고 지리적인 환경이 좋아서 공동체원들의 결합도는 성미산보다 더 높은 것 같다.

칠보산공동체의 멤버들은 보통 2~3개의 모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 활동만으로도 바쁘게 돌아간다. 학습관에서 방문한 그날은 방과 후학교 1곳이 봄맞이 대청소를 하느라 아빠들은 근육활동을 하고 있었고 엄마들은 음식 장만하느라 분주했을 뿐 아니라 조합원의 증가로 어린이집이 한 곳 더 분가 개관식을 하느라 여러모로 바쁘게 돌아갔다. 그런데 궁금했다. 칠보산공동체 구성원들은 지역주민들과 어느 정도 결합을 하고 있을까. 자칫 그들만의 리그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사실 일반주민이 참여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들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를 수도 있다. 일반주민들이 가입할 수 있는 곳은 한살림 생협이라든지 농악전수회 같은 동아리가 있다. 그래서 동아리들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악전수회의 경우 동아리가 처음 생길 때는 아무래도 아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서 공동체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공동체원은 10여명, 아닌 분들이 30명 정도 되는 것 같다. 마을에 이런 동아리들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개방형 동아리 외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공동체의 숙제라고 생각한다. 공동체 내부의 일을 고민하는 것도 바쁘기 때문에 외부 고민을 할 필요성을 잘 못 느낄 뿐더러 역량이나 힘이 없다. 하지만 점차 이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폭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

어 도토리교실의 경우도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논, 생태교육이다. 공동체들이 공동주관하는 한가위와 대보름 행사의 경우에도 지역민들에게 모두 개방하여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고 있다.

금곡동 LG빌리지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차 없는 거리’ 같은 것을 건의하기도 한다. 점차 함께하는 것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있다. 지역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나 방향이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계가 좋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공동체 조합원들이 대표회의 일원으로 들어간 경우도 많아져서 공동체를 알리고 있고, 둠병의 경우 장소를 마련해준다면 아이들을 위해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니 지금과 같이 공간이 생기게 되었다. 둠병도 처음에는 조합원 자녀들을 위주로 운영되었지만 아이들이 친구를 함께 데리고 오면서 지금 기타교실의 경우 비조합원 자녀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

칠보산의 경우 교육관련 공동체가 골간조직처럼 보이는데 이런 교육공동체가 지속성을 갖으려면 아이들이 계속 충원되어야 하는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신가요.

충원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 아이들 충원은 안정적인 편이었다. 그것보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과 어떻게 사귄다? 이러한 것이 더 큰 고민이고 이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

칠보산에서 공동육아를 하기 시작한지 십여 년. 굴곡은 있었을지언정 특별한 풍파를 겪진 않았다. 어린 아이가 점차 성장함에 따라 부모들은 그에 조응하는 조합을 결성하여 어린이집, 방과후 학교, 대안 학교를 만들었고 관련 동아리들도 하나 둘 생겨났다. 칠보산 자락의 마을에 대한 전략지도, 프로그램

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칠보산 마을은 이제 언론을 타기 시작했고 사람들 입에 회자되기 시작했다.

수원의 경우 염시장님의 의지도 있고 해서 마을르네상스센터 같은 지원기관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칠보산의 경우 마을만들기로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주민들 생각은 어떤지요?

2010년 정도 부터 주목받았던 것 같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생각이다. 다른 지역이나 기관분들이 와서 얘기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와 내용을 알리는 것도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부분 응했던 것도 있다.

그리고 마을마다 사정과 상황이 다른데 다른 곳에서도 우리같이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다.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하는 수밖에 없다. 자부심은 있지만 절대적인 샘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만 지금까지의 활동을 중간평가 한다면?

사이좋은 어린이집도 2000년 공동육아가 전국적으로 이야기되고 꽃핀 시기에 그러한 배경 속에서 시작했던 것 같다. 성미산도 그렇고, 안양, 과천 등에도 잘 운영되는 곳들이 있는데 칠보산의 경우 동네 위



치의 장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평가를 하자면 행운이었다고 생각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버하지 않고 현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해나갔던 것이 좋았던 것 같다. 지금 일부 외부의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자생력을 잃는 것 아닌가? 라는 내부의 목소리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우리의 독립성이 위험할 정도가 되면 지원을 끊자고 말하고 있다.

칠보산공동체의 중요 행사 중 하나인 한가위한마당 잔치를 벌일 때 외부 기관에서 행사비를 지원해 주었고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칠보산공동체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마을신문 종잣돈을 받게 되었다. 외부의 지원과 후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매우 휘발성이 높은 이슈이기 때문에 내부의 격렬한 논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내부의 합의에 의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운영되어 왔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내부 논의를 촉발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마을신문은 새로운 단계로 진전시킬 매개체이면서 한편으로는 생존의 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에 매우 예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신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을신문은 하나의 활동으로 생기기 했지만

공동체가 동네로 확산된 대표 케이스이라고 생각한다. 주민기자학교를 열면서 마을 언론이 되자고 했고 그런 힘들이 폭발된 것이 마을신문이다. 마을신문과 공동체 운영은 별개이고 마을신문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열려있는 장이다. 마을신문으로 공동체들의 활동을 묶어낼 수 있고 일정부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긴 했다.

앞으로의 과제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상시적인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자 라는 얘기가 있었다. 현재 내가 큰 행사들이 있으면 연락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구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의 틀을 어떻게 가져갈까 하는 고민과정에 있다.

조합원이 각자의 공동체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주된 정서이고 전체적인 마을 고민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들의 의지나 고민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힘이 축적되어야 가능한 것 같다. 그러나 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되어 왔고 앞으로도 무리한 운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터뷰 중간에 독립성의 위협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지만 독립성과 의존성의 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풀어내긴 힘들다.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과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열의를 매트릭스 시켜 놓고 마을의 중장기 로드맵을 차분히 합의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사람이나 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성미산 마을공동체에서 〈사람과 마을〉이라는 일상 활동 조직을 만든 것도 그런 연유가 아닐런지. 그런 면에서 보면 칠보산 마을공동체는 자발성과 목적의식성이 중첩되는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듯하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칠보산 공동체는 십년이 넘

는 경험과 전통이 있다. 그리고 그 속에 녹아 있는
사람들간의 연대와 협동정신이 커켜이 쌓여 있다.
그 연대와 협동의 정신이 칠보산 자락을 휘감고 돌
아 수원지역으로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란다.

칠보산마을공동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산 자락 일대

- 칠보산마을신문 <http://cafe.daum.net/chilbonews>
- 칠보문화놀이터 <http://cafe.daum.net/chilboculture>
- 청소년교육나눔터 둠벙 <http://cafe.daum.net/chilboyouthedu>
- 칠보산도토리교실 <http://cafe.daum.net/dotoliroom>
- 칠보산자유학교 <http://www.7bofree.or.kr>
- 한살림수원지부 <http://cafe.naver.com/hansalimsuwon>
- 배움터마당 <http://cafe.daum.net/ma-dang2010>
- 사이좋은방과후 <http://saijoeunbang.gongdong.or.kr>
- 칠보산 어린이집 <http://cafe.naver.com/chilbovillage>
- 사이좋은어린이집 <http://saijoeun.gongdong.or.kr>
- 수원칠보농악전수회 <http://cafe.daum.net/chilbonongak>
- 칠보산청소년방과후학교 <http://cafe.daum.net/cbafter>
- 칠보산자락예술빛나는사람들 <http://cafe.daum.net/chilbosansulsarang>

수원시미술전시관

문화예술과 지역 사회, 그리고 교육의 만남

발행호 (제3호) 2012. 04. 10. (화)
글 이보라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봄이 오거나 할까 싶을 정도로 기온도 바람도 잔뜩 휘방을 놓고 있는 요즘. 그러나 밤새 얼었던 땅은 아침 해를 받으며 다시 틈새를 벌리고 그 미세한 틈을 따라 새싹들이 힘겨운 몸부림을 펼치면서 점차 봄의 향연이 시작되고 있다. 봄은 그렇게 여린 것들이 이끌고 있다. 이런 시절엔 몸도 바람이 난다. 그래서 들로 산으로 나가 봄을 상찬 하곤 한다. 그렇다고 모두 도시를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럴 때면 가까운 미술관에서 문화와 예술의 향기를 맡는 것도 각박한 도시인의 생활의 지혜이다.

처음에는 잘 몰랐다. 수원시미술'전시관'이라는 이름에서 오는 약간의 낯설음이 있었지만 별로 개의치는 않았다. 그냥 막연히 미술관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수원시미술전시관은 미술관이 아니다. 이름 그대로 전시관이다. "저희는 미술관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실은 만석공원 내 위치한 시설로 되어 있죠. 미술관이라면 갖춰야 하는 보유 작품 몇 점 이상 이러한 요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죠. 하지만 미술관이 없는 수원지역에서 10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정 부분 미술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원시미술전시관에서는 주로 대관을 통한 전시를 진행한다. 1년에 1~2차례 기획전시를 진행하긴 하지만 타 기관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니다. "사실 실무자로서 기획전시를 하고 싶은 욕구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전시를 위해서는 길게는 몇 년의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도 부족한 상황이고, 전시와 관련된 학술프로그램, 교육, 전시 연계 프로그램 등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원활하지 않은 형편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기획전시 등에 대한 욕구보다는 대관을 통해 스스로 작품을 전시하는 것을 더 요구하고 있는 상황도 기획전시 비중이 적은 이유다. 그래서 기획 전시를 하더라도 장기간 동안 진행하지는 못한다고 한다. 긴 시간과 노력을 들인 것에 비해 전시기간이 짧아 아쉬운 마음이 들 것 같긴 하다.

전시관에서 단순 대관업무만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미술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인문학 강좌, 느리게 읽는 미술 책방을 통한 장애인과 작가와의 1대1



〈예술더하기〉 결과보고서를 보여주며 작품과 프로그램을 설명해주고 있는 박소화 큐레이터.

매칭 프로그램 등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느리게 읽는 미술 책방은 에이블아트로 특성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처음 했던 프로그램은 청각장애인과 작가가 함께 소통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점자·촉각책으로 만드는 〈하늘을 나는 점자책〉 프로그램이었어요. 홍인숙 작가님과 함께 작업을 하였는데 정말 의미있는 시간이었죠.” 큐레이터는 우리에게 〈하늘을 나는 점자책〉을 보여주면서 그 때의 뿌듯함을 자랑하기에 바빴다. 실제로 보니 두꺼운 하얀색 종이에 오돌토돌 나와 있는 그림과 점자들이 보기에 신기하고 손으로 느껴지는 감촉도 재미났다(이 책자는 느리게 읽는 미술 책방에 가면 볼 수 있다).

그 후에도 매년 장애인들과 작가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청각장애인과 함께 한 〈대화의 연금술〉(2010년),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함께한 〈예술더하기〉(2011년)가 그것이다.

“〈예술더하기〉를 진행할 때 한 학생이 생각나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가위질을 무서워하고 해본 적도 거의 없었죠. 근데 그 학생과 매칭이 된 작가분이 종이공예를 하시는 분이신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작가분이 ‘네가 가위로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해줄게’라고 하셨는데 결과보고 전시 때

보니 정말 멋진 작품이 탄생한 거예요. 작가분도 그 학생의 어머니도 모두들 감탄하고 좋아하는 작품이 되었죠.”

프로그램 이후에는 결과보고 형식으로 전시회를 진행한다고 한다. 다큐멘터리 작가가 매주 진행된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담아 상영도 하고, 자원봉사자 함께했던 대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사진, 드로잉, 텍스트 등으로 나타내고 이것들도 함께 전시하였다. 결과보고 책자에는 7개월간의 멋진 작업들이 오롯이 표현되어 있었다.

3년간 느리게 읽는 미술 책방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모두 25명이다. 이를 위해서 함께한 작가가 25명이고 여기에 자원봉사자들도 있다. 어찌 보면 프로그램 하나에 드는 비용과 인력이 프로그램 참여자 수에 비해 많이 드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전시관의 목적과 맞는 것이냐고 물어보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 생각해 보면 문화예술분야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단혀 있던 감성을 길러주고, 재미를 느끼게 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 단순히 참여자 수의 많고 적

음을 떠나서 더 의미 있는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
 “3년간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니 그들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비장애인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명 한 명이 변화하는 것보다 좀 더 과급력이 있도록, 그래서 각 개인이 개체가 되어 꽃벌처럼 다양한 곳에 앉아 변화의 씨앗을 옮겨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올해는 비장애인들과 함께 할 생각입니다.” 지역의 고등학생, 대학생들과 함께 점자책을 만드는 등 미술을 매개로 장애에 대해 함께 소통한다니 그 과정과 결과가 벌써부터 기대 된다.

느리게 읽는 미술 책방처럼 전시관에서는 프로그램의 양보다는 질에 포커스를 맞춰 긴 호흡을 가지고 내실을 기하는 프로그램을 위주로 운영한다. 인문학 강좌 또한 그렇다. 2004년부터 진행된 인문학 강좌는 초창기에는 30~40명의 시민이 참여했는데 그 수가 늘어나 작년에는 경기도 및 서울 각지에서 모인 200여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시대의 흐름과 시민들의 욕구를 관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한다는데 관심과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러한 기획의도가 서서히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전시관에서는 일종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인턴십 프로그램과 자원활동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단순히 실무업무를 보조하는 형식이 아니라 그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하고, 실제적으로 업무를 해볼 수 있도록 전시관 실무자와 매치업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인턴십과 자원활동가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들이 자신의 업무를 가지고 책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한다. 이렇게 함께 하는 파트너를 만들고 발맞춰 가는 것이 적은 실무 인원으로도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비법인 것 같다.

사실 전시관의 큐레이터는 단 2명뿐이다. 2명에서 하기에는 프로그램 기획, 전시, 진행, 행정 등등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가? 문화예술이라는 분야가 고상하고 우아하다는 시각이 많은데 일하는 실무자, 노동자로서의 고단함은 없는지 물어봤다. “선진국의 경우 큐레이터의 업무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서 각각의 분야별로 업무를 진행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정말 하나부터 백까지 모든 업무를 다 해야 해요. 전시가 있으면 못 박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그 안에서 오는 매력이 더 큼니다.” 새로운 작가에 대해서 공부하고 전시의 내용에 따라 과학, 생물, 생태, 의학까지 공부해야 한다는 큐레이터. 하지만 그 이야기 안에는 고단함보다는 희열이, 행복함이 보였다.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현장감을 느끼고 함께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온몸에 전율이 올 정도로 매력적인 작업인 것 같습니다.”



수원시미술전시관 박소화 큐레이터.
 미술에 대한 사랑과 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박소화 씨는 결과보고서, 교육자료집, 홍보물, 소식지까지 많은 자료를 주면서 소개해주었는데 그 중 <썩>이라는 소식지에 ‘아트맵’이라는 꼭지가 있었다. 수원의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을 소개해 놓은 페이지였다. 어쩌면 아주 단순한 꼭지라고 볼 수도 있으나 자기 기관만의 소식이 아니라 여러 기관들을 더 불러 소개하고 안내하는 그 마음씀이 그 기관의 가

치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었다. “〈서울아트가이드〉라는 책자를 보면 서울에 존재하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을 정리해놓았어요. 수원에도 이러한 자료가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마음에 부족하지만 아트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의 필요와 욕구로 만들어진 아트맵. 그러나 아직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는 없다고 한다. “저도 아직 학습관을 못 가봤어요. 아쉽고 노력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 만들어진 아트맵을 기준으로 기관 방문도 하고, 작가 발굴을 통한 지원사업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조만간 학습관도 꼭 와 보겠다는 약속도 함께 하였다.

“수원시미술전시관이 수원의 유일무이 미술관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곳이 중심이 되어 예술과 미술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소통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수원에 미술관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단순히 미술관이 하나 더 늘어난다고 해서 시민들의 욕구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각 인프라들을 연결하는 끈이 씨실과 날실로 엮이고 더욱 세밀하게 짜여 저야 더욱 풍성한 내용들이 생산될 것이다.

그런데 문화예술은 다가가기에는 거리감이 느껴지고 권력화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문화예술이 일상화·생활화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전시관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다. “과거에는 예술가 스스로 본인은 천재라고 생각하고, 일반 대중과 거리를 두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작가들은 지역으로 가서 지역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원 행궁동도 그런 사례인 것이죠. 문화예술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동물원을 찾고 있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기린모양 가로등이 있더라구요. 그 가로등을

쭉 따라가다 보니 바로 동물원이 나왔어요. 공공미술인 것이죠. 전시관도 만석공원 내에 위치한 특성을 살려 작가와 지역과 시민이 함께는 공공미술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작업이 진행된다면 꽤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을 어려워하는 수원시민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요청했는데 박소화 씨는 아주 단호하게 말을 했다. “어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관심도 많고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서울 등 다른 여러 곳에서 하는 강좌 등을 다녀봤지만 대부분 질문을 안 해요. 그런데 저희 인문학 강좌에서는 질의응답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질문을 하십니다. 강사분들도 놀랄 정도죠. 그만큼의 관심과 열의가 있다는 거죠. 광주 비엔날레의 경우 시민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다고 하는데 수원에 도 이런 무언가가 생긴다면 관심도와 참여도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애정과 열정이 있다면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수원시미술전시관 박소화 큐레이터를 만나고 나서 든 생각이다. 프로그램 하나하나를 소개하면서 당시 느꼈던 감정을 되새기며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미술을 사랑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일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는 수원시미술전시관이 더욱 기대되었다. 단순한 명소가 아니라 문화와 예술을 통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진지가 되기를 바란다.

수원시 미술 전시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417-24 (송정로 19)

031-251-1516

<http://www.suwonartcenter.org>

이웃 (EWUT)

지역 주민과 놀이로 함께하는 문화사랑방을 꿈꾼다

발행호 (제4호) 2012. 04. 25. (수)
글 이보라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자그마한 손글씨로 쓰여 있는 이웃센터 간판. 주민분들이 간판 좀 달라고 하신단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네비게이션은 자기 소임을 다했다는 멘트만 남기고 더 이상의 길안내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도통 찾을 수가 없었다. ‘핑퐁다방’이라는 간판을 찾으라고 했으나 간판은 커녕 이런 곳에 커피숍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다.

다닥다닥 붙어 있는 야트막한 집들. 그 주거지역의 골목길에 오늘의 목적지가 숨어 있었다. 손님

을 상대로 하는 영업집이 갖는 원시적 노출이 아니라 있는 듯 없는 듯 사람들 속에, 매장의 존재를 애써 부정하면서 그렇게 이웃과 더불어 존재하고 있었다.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드디어 존재가 될 수 있는 이것은 존재의 역설이자 ‘이웃’의 방향성이었다.

이웃? 아파트나 도시 생활을 하면서 어느덧 낯선 단어가 되어 가고 있는 이웃. 앞집에 누가 사는지 무관심. 나의 생활에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뒷집, 아랫집도 마찬가지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낯



지동 어느 골목길에 위치한 이웃. 튀지 않게, 하지만 존재감 있게 자리하고 있다.

다'는 말은 그저 사전 속에만 존재하고 있고 이제는 같은 동네에 아는 사람 한두 명 있는 것이 신기한 세상이 되었다. 현대 이런 '이웃'이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운 곳이 있다. 이웃(EWUT). 무슨 일을 하는 곳일까?

이웃(EWUT)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한마디로 놀이기획사업입니다. 현대사회의 놀이문화가 개인주의적으로 변질된 것이 많잖아요. 아이들 놀이도 컴퓨터, 게임이 주류가 되고 공동체 중심의 놀이가 사라지고 있고요. 그럼 '공동체를 키울 수 있는 공동체 놀이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놀이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왜 이웃(EWUT)인가요?

한글로 '이웃'이기도 하지만 영어로 'EWUT'은 약자입니다. E는 Experience(경험), W는 Work(일), U는 fun(재미), T는 culTure(문화)이죠. 어르신들의 삶이 묻어나는 경험, 어린 아이들이기에 말하고 느낄 수 있는 경험 등 모든 사람의 경험을 나누고, 재미있는 일로, 문화로 만들어가자는 의미입니다.

이곳 지동에 터를 잡은 이유가 있는지요.

작년 여름 끝 무렵입니다. 사실 지동은 우리가 선택했다기 보다는 선택 당한 느낌입니다.

전에 주로 행궁동을 오갔는데 우연한 기회로 이곳을 지나가다 성곽문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작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때 굉장히 조용하고 한적한 곳, 다른 느낌의 공간으로 왔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꼭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 들어온 느낌 같았습니다.

지동은 수원 화성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데 오른쪽에는 성곽이 펼쳐져 있고 안쪽은 70년대 감성의 동네죠.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동이 먼저 말을 걸어 온거죠.

그 후 팀원들에게 지동으로 가자고 했는데 모두 반대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한데 이곳은 이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기간의 토론과 설득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기업'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회적'이라는 단어에 방점을 찍고 새로운 영역을 마을 사람들과 만들어가자. 많이 소외되어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결정한 것이죠.

작년 8월 말에서 9월초에 결정하고 지동으로 와서 봤는데 현재 이웃센터 건물이 보였습니다. 공간이 독특하고 재미있어 보여서 바로 결정하게 되었죠. 이전에 있던 것을 철거하고 청소하는 것만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이 악물고 했죠. 모든 인테리어까지 저희 손으로 꾸미고 정리해나갔죠. 한... 3개월 정도 걸렸네요. 이런 과정을 거쳐 '문화사

랑방-이웃센터'가 만들어졌
습니다.

이웃센터는 뭔가요?

이웃센터는 문화사랑방입니
다.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놓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골방
영화제나 주민세미나 같은 이
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
네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하

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

다. 주민자치센터 같은 곳을 이용하기도 쉽지 않
기에 주민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즐기고 활용할 수 있
는 통기타 강좌나 목공 강좌 같은 것을 요청하시곤
합니다. 지금은 재능기부 형식으로 강좌를 운영하
는데 단순히 기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사에게
기부 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시간은행제 방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은행제도라면 지역화폐 같은 건가요?

넓게 말하면 지역화폐이지만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않고 좀 더 쉽게 다가가려 하고 있습니다. 재능을 시
간으로 환산하고 이것을 다시 화폐로 만드는 것이
죠. 우리가 만들어서 활용만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지향
하고 있습니다.

시간화폐가 활성화되려면 사용처가 다양해야 할 텐 데요.

평풍음악다방에서도 쓸 수도 있고 다른 것을 배울
때 사용할 수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
다. 아직까지는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
다. 하지만 가맹점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 경험을 늘



이웃센터 내부

리는 것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공유경제의 개념
으로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함께 하는 것을 만들
려고 하는 거죠. 웹사이트를 만들어 폭을 넓히려
하는데 웹사이트 구성 및 디자인 비용은 co-up에
서 진행하는 공유경제 분야의 팀으로 선정되어 부
족하긴 하지만 일정 정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 수원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지역화폐를 연구하며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의 시간을 지역화폐 개념으
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찾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수익이 발생해야 할 텐 데요.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
습니다.

- ① 놀이공간컨설팅 사업은 커뮤니티비즈니스의 하
나로 문화공간을 매개체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사례를 만
들기 위해 이웃센터와 평풍음악다방을 직접 운영하
고 있습니다.
- ② 놀이연구 사업으로 '뭐라도 공작소'
를 진행합니다.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다양한 생활
물품, 소품 등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 ③ 신나는

수요일 프로그램은 권선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공동체 놀이 교육을 하는 것이고, ④ 놀이이벤트 사업으로는 행사 기획·홍보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센터나 핑퐁음악다방은 수익 발생 목적이 아닌 지역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교육사업이나 기획사업의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웃센터와 핑퐁음악다방 운영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이웃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화사랑방입니다. 운영 방침은 회원제로서 한 달 1만원의 회비를 받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아직은 회비를 받지 않고 있고, 뜻을 같이 하는 일반회원이 100여명 정도 있습니다. 지역 주민 분들 중에 참여하신 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도 같이 주민이 함께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만들고 주민은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은 지금의 실무진이 했지만 함께 만들어 가는 이웃센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핑퐁음악다방은 현재 이웃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에 운영하실 분들이 구성되면 컨설팅 등을 통해 넘길 생각입니다. 이웃의 상근자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의 얼마 전 시니어바리스타 교육을 받았던 주민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6분이 교육을 받았었는데 1분은 다른 곳에 취업을 하셔서 지금 5분이 돌아가면서 나오고 계십니다. 앞으로 2기 바리스타 교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웃센터나 핑퐁음악다방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웃센터에는 처음에 거부감을 드러내셨죠. 지동

은 이곳에서만 몇 십 년을 산 주민들이 많고 노년인구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외지인에 대해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죠. 이웃센터 공사만 3달가량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왜 이리 왔다갔다하며 똑닥거리는지 궁금해 하셨지만 먼저 말을 걸어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픈한지 한 달이 넘어도 뭐하는 곳인지 물어보시는 분이 한 분도 안계셨죠. 그러다가 두 달 정도 되었을 때 한 분이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점차 말을 걸어오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요즘은 주민분들이 안쓰럽게도 보시더라고요. 뭘 그렇게 열심히 하나면서... 한 곳에서만 30년 이상 사신 분들에게 함부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은 서로 믿음을 쌓고 있는 중인 것이죠.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다가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핑퐁음악다방은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좋습니다. 문을 연지 한 달이 안 되었지만 단골손님도 계십니다. 아무래도 카페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고 있는 것 같고, 탁구대가 있는 것도 나름 괜찮은 요인 같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아래 시장골목의 다방보다 더 싼 값에 커피를 파니 그것도 좋은 것 같구요. 핑퐁다방에 오신 분들에게 이웃센터를 홍보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과 운영하면서 다른 점이 있나요?

사실 처음부터 꼼꼼히 계획하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핑퐁음악다방도 '주민들과 커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실험적인 부분이 컸습니다. 앞으로 이곳을 활성화 시킬 계획으로 벽화골목, 공방 프로그램 등을 통한 관광코스 개발을 구상하고는 있지만 급하게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다. 치밀한 계획보다는 정이 통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다른 수원 지역에 비해서 마을만들기 참여도도 낮은 곳이기도 합니다. 취약계층(노년층, 다문화,



이웃(EWUT)송주희 대표. 열정이 넘친다.

저소득층) 비율도 높고 빈집도 많습니다. 수원 화성에 묶여 있어 도심공동화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죠.

이웃센터나 핑퐁음악다방 등의 공간이 교두보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공간이 매개가 되길 바랍니다. 요즘은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 위원들이 오셔서 회의도 하시고 합니다. 주민 분들이 커피를 드시러 오십니다. 계속 노력해야죠.

앨리스는 회중시계를 꺼내보는 토끼를 따라 이상한 나라에 들어가 다양한 판타지를 경험하게 된다. 현재의 시간과 과거의 공간이 동거를 하고 있는 이곳 지동. '이웃'은 이곳 지동에서 어떤 예기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어떤 일을 겪게 되든 '이웃'은 자기만의 초침과 분침에 의해 움직여 나갈 것이다. 결코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을 것이다.

머릿속에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넘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웃센터나 핑퐁음악다방을 보니 속도를 맞춰야겠더라고요." 빨리빨리가 넘치는 세상, 외연확장과 보여주기 사업이 우선하는 세상에서 '천천히' '함께'를 외치며 지역의 일원으로 다함께 가고자 한다는 이웃(EWUT).

최근 들어 목공을 하는 동료들 끌어 들여 이웃 사무실 바로 옆에 이웃으로 이사 왔다. 또 어떤 자원을 끌어 들여 작지만 단단한 진지를 넓혀 나갈지 모

르겠다. '이웃'은 이렇게 지동 마을사람들에게 다가서려 한다. 이웃이 되려 한다. 그러나 이웃이 되려고 떼쓰지 않는다. 오래 있었던 이웃처럼 그렇게 자기 존재를 내려놓고 다가서고 있다.

수원에 재기발랄하고 즐거운 곳이 꿈틀꿈틀 피어나고 있다. 아니 벌써 피어있는지도 모르겠다.

※ '이웃(EWUT)'은 2년 전 희망제작소가 주최한 '제1회 수원시 사회창안대회'를 준비하던 사람들, 재능버룩시장으로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의기투합해 결성하였다. 현재 송주희 대표를 포함해 3명의 상근자와 약간명의 인턴(연구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웃(EWUT)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부근

<http://www.ewut.kr>

<http://blog.naver.com/ewutcenter>

지혜로 열린 대학

함께하려는 열정 만이 필요할 뿐

발행호 (제5호) 2012. 05. 09. (수)
글 이보라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서대문 강의실에서 만난 김명중 학장

“누구나 가르치고 누구나 배울 수 있다.” 쉬운 이야기 같지만 일상에서 잘 실현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은 대부분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 학생은 배우는 사람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가르치면서 배운다고는 하지만 전제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누구나’라는 말은 단순한 표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 이 이야기를 실현하고자 활동을 시작한 단체가 있습니다. 누구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본이요, 배움에 있어서 어떤

형식도 중요하게 따지지 않는 곳. 바로 <지혜로 열린 대학>입니다.

가는 길이 멀다. 학습관에서 약속 장소인 서울 서대문까지 인터넷 길찾기 프로그램으로 알아보니 1시간 30분이 넘게 걸린단다. 버스에, 지하철에, 환승까지 하여 도착하니 출발할 때와 다르게 해는 저물고 있고 직장인들은 퇴근을 재촉한다. 빌딩 숲 안에 차와 사람이 넘실거린다. 서울 한복판이구나. 웬지 모

를 위압감이 들었다. 이렇게 빨리 돌아가는 세상 속에 배움이라는 선표를 찍고 삶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가르친다’ ‘배운다’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않고 일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 서대문의 한 사무실을 빌려 라틴어강좌를 진행하는 김명중 학장을 만났다.

‘지혜로 열린 대학’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학은 아닌데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지혜로 열린 대학’은 회원들이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평생학습 공동체입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지식·경험·기능을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치는 곳이지요. 영국의 U3A가 모델입니다.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자아를 실현하고 제2의 인생을 계획할 수도 있겠지요. 배움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도 있습니다.

U3A는 영국에서 1981년 시작해서 영국 전역에 30만 명 정도의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 단체이다. 주로 50세 이상의 시니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든 강좌는 회원들의 자원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1인당 연간 67파운드(약 12만 원)의 회비를 내면 U3A에서 진행되는 모든 강좌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현재 영국 전역에 840여 개의 지역조직이 존재하고 있고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열리는 강좌 수는 300여 개. 런던지역에서만 160여 개 강좌가 진행되고 있으며 퇴직 후 시니어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을 함께하고 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은

<http://www.makehope.org/2980>

<http://blog.makehope.org/happysenior/tag/3487>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2010년 희망제작소에서 영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

다. 그 때 우리의 모델이 된 U3A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그것에 모태가 되어서 희망제작소 행설아희(희망제작소 행복설계아카데미 프로그램)를 이수한 시니어 모임)가 주축이 되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2011년 4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사진 교실을 진행하고 그 후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6월 15일에 ‘지혜로 열린 대학’ 1기가 발족되었습니다.

1기에서는 5개 강좌가 열렸어요. 바둑, 사진, 컴퓨터, 사회적기업스터디그룹, 에코소품바느질 강좌 이렇게 5개였는데 교육이 끝나고 평가회를 할 때 보니 반응이 좋았습니다. 바둑을 하셨던 분은 급수가 올랐다고 좋아하시고, 흥미있고 재미있는 활동을 하니 삶의 활력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작년 하반기에 2기를 진행했었고 지금은 3기가 활동 중입니다.

서로 가르치고 배운다. 조금 막연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기본체제는 회원입니다. 누구라도 본인이 원하는 강좌를 개설할 수 있죠. 회원들이 열고 싶은 강좌와 듣고 싶은 강좌가 기본이고,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강의 계획과 강사신청서를 제출하면 그것을 토대로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강의를 개설합니다. 강좌를 선별하거나 하는 기준은 따로 없고 강의 내용에 따라 교육을 듣고자 하는 회원들의 선택에 의해 진행됩니다.

어떻게 하면 회원이 될 수 있나요? 회원 모집을 따로 하시나요?

회원의 조건은 없습니다. 회원들은 연간 5만 원의 회비만 내면 회원이 되고, 강좌 당 1만 원의 회비를 내면 모든 강좌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회원은 아니지만 강사로 오셨던 분들도 강좌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회원이 됩니다. 모집 공고를 따로 하

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희망제작소에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처음에 만들고 지금도 많이 참여하고 있다 보니 그쪽을 통해 알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라인 홍보나 카페를 통해 접하고 오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이 강좌를 소개해 주세요.

현재 3기에서 진행 중인 강좌는·라틴어 함께 배우기·컴퓨터로 젊어지기·힐링토크클럽·내 안의 리더 발견하기·리딩클럽과 글쓰기·아견장을 아십니까·은퇴 후 해외사업 도전기·아파트에서 농부 되기·몸·마음·의식 기공명상·SNS, 나를 눈부시게 하다 총 10강좌입니다. 정해진 틀은 없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이 강좌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19개 강좌가 개설되었다가 최종적으로 10개 강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혜로 열린 대학 수업 모습(출처:지혜로 열린 대학 홈페이지)

특별한 자격 기준 같은 것은 있나요? 강사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뭐 이런 조건 말이죠.

전혀 없습니다. 학력도 나이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열정만 있으면 되죠.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지금 '라틴어 함께 배우기'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좌명에서도 나타나지만 함께 배우기입니다. 저는 라틴어를 잘 하지 못해요. 관심이 있었고 배우고 싶은 욕구가 있었죠. 그런데 혼자 공부하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면서 가르치

고 함께 배우고 그러는 겁니다.

저 말고도 강의를 맡고 있는 분들이 배우는 분보다 내용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강좌를 연 사람을 무시하거나 불만이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 열린 대학>의 가치이고 강점입니다.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되면 재정적으로나 운영 면에서 어려운 점은 없나요?

비용은 거의 들지 않아요. 사실 비용이 들 것이 없어요. 강사들의 100% 자원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비가 들지 않고, 강의물 프린트도 강사들이 직접 해줍니다. 교육상 재료가 들어가는 것들은 본인이 직접 준비하는 것이고요. 강의를 할 수 있는 장소의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지인이나 관련 단체들을 통해 무료로 빌리거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장소를 대여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돈 들 일이 없죠.

외부 지원은 전혀 없나요?

물질적인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희망제작소 측에서 카페 운영이나 실무적인 부분에서 인적인 지원을 해

주는 합니다. 운영팀이 시니어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아직 실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해주는 정도로 실질적인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정리하고 진행합니다.

전반적인 학교 운영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처음 지혜로 열린 대학에 적극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만들었던 사람들이죠. 그 안에서 학기 운영 기획도 하고 강좌 개설에 따른

실무적 진행을 합니다. 강사들과 함께 중간 평가, 최종 평가도 진행합니다. 향후에는 회원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초창기로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팀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장소죠. 교육을 위해 정해진 장소가 없어요. 지금 이곳도 '희망도레미'라는 단체 사무실을 퇴근 후 저녁시간에만 빌려 쓰고 있죠. 또 다른 교육 공간인 삼청동에 있는 지하 사무실의 경우도 지인을 통해 공간 양해를 구하고 페인트칠 등 인테리어를 직접 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강사분들이 직접 공간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강좌수가 늘어남에 따라 계속적으로 장소가 필요한데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우리만의 공간이 없다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지혜로 열린 대학이 서울에만 있고 지역에는 아직 없다는 점이지요. 함께하시는 회원 분들 중 고양이나 분당 등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원이나 고양 등에도 학교가 생겨서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강좌가 끝나고 함께 한 회원들끼리 후속모임, 학습동아리 같은 것이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생겨날 거라 생각합니다. 강좌 진행의 경우 학기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학기 외 기간에도 계속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요. 라틴어 강좌도 함께했던 분들과 3기가 끝나도 계속하기로 했고요. 함께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들의 욕구가 쌓인다면 더 폭넓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 바람을 말씀해주세요.

회원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카페 회

원수가 150명 정도인데 1차적으로 500명까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바라면 장소가 있으면 좋겠죠. 이러저러한 환경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모임에 좀 더 수월할 테니까요. 그리고 서울이 아닌 타 지역에도 지혜로 열린 대학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해야죠.

고정관념이 돌을 맞아 금갔다. 배움에는 돈이 필요하다는 고정관념.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라는 구분. 완벽하게 알아야지만 가르칠 수 있다는 편견. 인터뷰를 마친 후 이전에 알고 있던 생각들이 깨지고 다시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교육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일상에 모든 것이 교육이 될 수 있다. 누구나 원하면 할 수 있다. 가르칠 수도 있고 배울 수도 있다. 함께 하려는 열정이 필요할 뿐이다.

지혜로 열린 대학

<http://cafe.naver.com/openuniversity>

수원제일평생학교

“성인문해교육은 소외된 사람을 위한 사회적 배려입니다.”

발행호 (제6호) 2012. 05. 23. (수)

글 이보라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수원제일평생학교의 박영도 교장

2008년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非)문해율(과거의 문맹률)은 1.7%로 선진국의 비문해율 평균 2.3%보다도 낮다. 당시 조사에서는 19세 이상의 성인 중 약 62만 명 정도가 글을 읽을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광복 당시의 1945년 문맹률 77.8%와 비교해본다면 실로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한강의 기적’이 경제 성장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나 보다. 그러나 이 수치가 틀렸다고 단호히 말하는 사람이 있다. 수원

제일평생학교 박영도 교장이다.

나름 권위 있는 국립국어원과 통계청의 비문해율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 그 근거는 무엇일까? 내년 50년의 역사를 앞두고 있는 수원제일 평생학교를 찾아갔다.

수원제일평생학교는 역사가 매우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간의 역사를 소개해주세요.

1962년 정부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였

죠. 그 때 대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많은 지역에 야학이 생겼습니다. 저희의 경우는 서울대 학생들과 인근 오산의 군부대 군인들이 주축이 되어 1963년 처음 만들어지게 되었죠. 근데 사실 아주 오래 전의 이야기는 잘 모릅니다. 제가 그 당시 없었던 것도 그렇지만 1996년 화재로 건물이 전소되어 모든 자료들이 소실되었어요. 그 전에도 크고 작은 화재가 4~5건 정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명문화 되어 있는 기록은 거의 없고 구전으로만 남아있죠. 내년 50주년을 기념해서 학교의 역사를 정리하고 싶어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 예전 이야기를 듣고 관련 자료를 모으고 있기는 합니다.

야학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는 1980년대에는 수원에만 20여개 이상의 야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대가 점차 변하고 90년대 초반으로 접어들면서 많은 야학들이 없어졌죠. 우리 학교도 그 당시 없어질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건물 화재로 공부할 공간도 없었고 교회 등의 공간을 빌려 공부를 하다가도 다른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워줘야 하기 일쑤였지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후원의 밤도 열고 해서 돈을 마련해 1996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90년대 중반 전에는 청소년 아이들을 중심으로 문해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동지를 틀고 학습자 모집을 하니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죠. 나이가 많은 학습자 50여 분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인학습자를 위한 기초문해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사이트를 보니 작년에 이 곳에 새로운 동지를 트셨는데요.

네. 학습자가 점점 많아졌어요. 많은 분들이 평생교육이라는 것에 눈 뜨고, 배움에 대한 의식이 생기셨던 거죠. 그런데 학교는 너무 비좁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곳저곳의 도움을 받아 이곳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원받은 돈은 장소를 임대하고 간단한 인테리어를 하기에다 빠듯한 금액이었습시다. 그래도 우리 학습자 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은 최고로 만들었습니다. 학습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과 냉난방기도 모두 구비하고요. 학습에 불편함이 없도록 수업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죠.

이 공간을 유지하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으실 것 같은데 지원금이 나오는 건가요? 교육은 전부 무료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금은 전혀 없습니다. 청소년 대안학교 등 몇 가지 사업을 위탁해서 운영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금은 없습니다. 교육도 무료가 맞고요. 후원해주는 분들도 있고 사실 제 사비도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재정적 어려움이 정말 큼니다. 임대료도 제 때 못 내고 있죠. 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럼 함께하는 교사분들은 모두 자원봉사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본업이 따로 있어요. 작은 회사를 하나 경영하는데 일주일에 거의 3일 이상은 학교에 나와 있죠. 우리 직원들이 이제는 잘 찾지도 않아요. 좀 미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곳에 있는 게 좋습니다.

오랜 시간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면서 이곳에서 활동하시는 동력은 무엇인가요.

생활에 힘듦이 있을 때 제가 유일하게 갈 수 있고 기댈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교사들 중 현직교사가 18분입니다. 본직이 가르치는 것인데 여기에 오셔서 또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오늘의 피로가 여기서 풀렸네요.”

봉사는 희생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힘을 얻어 갑니다. 이곳에서 가져가는 것이 더 많은데 어떻게 희생인가요. 제가 더 많이 감사한 일이지.

함께하는 교사들 중에는 부부교사 커플도 있고, 모녀·부녀가 함께하는 분들, 자매가 함께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다가 기쁘니 가족에게 소개하고 함께하는 것이겠죠. 좋지 않은 것을 가족에게 함게하자 말하진 않잖아요.

가슴이 뜨거운 것은 느껴봐야 아는 것입니다. 이 일도 그래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청소년 대안학교도 위탁받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어떤 교육과정인가요.

대안학교 과정은 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른바 문제아라고 찍힌 아이들이 저희에게 오죠. 교육은 이곳에서 받지만 모든 학적은 원래 학교로 등록되어 있어서 졸업도 그쪽에서 해요. 아이의 상황에 따라 저희와 2주만 함께할 수도 있고 1년을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때까지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과정만을 진행하죠. 고등학교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원래 학교에서 다녀야죠.

그리고 이민자들을 위한 한글교육도 진행합니다. 일반 성인들을 위한 문해교육도 수준과 내용에 맞게 여러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도를 보니 학생자치회도 운영되고 있네요.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학생자치회는 또 하나의 교육입니다. 자치회를 통해 공동체 학습을 하는 것이죠. 문해교육 학습자들은 대부분 자신을 내비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사

람들과도 피상적이고 사무적인 이야기만 하지요. 주변인에 대한 경계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글이 아닌 눈치로만 살았으니까요. 이 틀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 생각했고 그것이 학생자치회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활동에 학교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학습자들끼리 회비도 모으고 하지만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학습자들의 자율에 의해 움직입니다.

물론 잡음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타협하는 것도 배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활동을 하고, 토론하고 주장하고 이런 것들 통해 타인을 배려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성숙하는 것입니다.

원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문해교육이 왜 필요하죠?

통계청에서 조사한 내용 중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져서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599만 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통계는 잘못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체감은 훨씬 더 많습니다. 왜곡된 통계치라고 생각합니다. 인구조사원이 학력을 물어보는데 부끄러운 마음에 그냥 대강 말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통계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 문해지식이 없어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시골로 가면 그 비율은 더 커지죠.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따라가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문맹입니다. 글을 알아도 요즘 같은 시대에 컴퓨터를 못하면 컴퓨터 문맹인 것이죠.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니 점차 새로운 것도 더 많아지고 문맹률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이 있어도 그것을 받을 수 없다면 필요가 없습니다. 문화 향유사회, 정보화 사회에서 같이 공유해야 하는데 이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우리 윗세대에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공공이 나서서 해결해주고 나아가야 합니다. 헌법 제 31조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단순히 성인 비문해자 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우리사회의 소외된 이들을 위해 삶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본을 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가진 자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누구나 사회에 기여하고 살고 있습니다. 직장, 가정 등 나의 생활에서, 나라에 세금도 내고... 모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하나를 더해서 각자가 가진 재능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의 것을 수평적으로 나누면 필요한 이가 가져갈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조금씩만 나누고 그것이 합쳐지면 더욱 살기 좋지 않을까요?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회를 꿈꿨습니다.

인터뷰를 끝내고 학교를 둘러보는데 모든 교실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강의실이 허락하는 한 수업을 진행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학습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수원제일평생학교의 철학이다. 잠깐 교실에 들어가 수업을 들어도 되고 사진을 찍어도 된다고 하셨지만 그럴 수 없었다. 만학의 열정을 조금이라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얼마 전 영화프로그램을 보니 ‘할머니는 일학년’이라는 영화가 5월 24일 개봉한다고 한다. 까막눈인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죽은 아들의 생전 편지를 읽기 위해 일곱 살 난 손녀에게 한글을 배우고,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하며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영화다. 손녀에게 글을 배우는 할머니라...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나의 부모일 수도, 옆집 아줌마, 할머니일 수도 있다.

글을 아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아직 배우지 않은 아이가 아닌 이상 글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내 이름 적 자를 쓸 수 있고, 영화의 자막을 읽고, 버스 노선보고 길을 찾아 가고, 은행에서 돈을 찾는 일이 당연했다. 나에겐 당연했던 일이 누군가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어려운 것일 수 있다.

수원제일평생학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86-3 3층
070-7523-0663

프로그램		학습내용
기초 문해과정	소망반	한글기초, 숫자 기초
	배움반	한글활용, 수셈식
	지혜반	한글활용, 수셈식
문해과정	초등반	초등1~6년, 중입검정고시
	중등반	중등1~3년, 고입검정고시
문해 후 과정	고등반	고등1~3년, 고졸검정고시
대안학교	희망반	중학교1~3년, 위탁형대안학교
다문화	어울림	결혼이민자 한국어 학력 자격취득
소양 교육과정	생활교양	한문 : 한자 9급~6급
	수업	컴퓨터 : 컴퓨터기초, 간단서식, 인터넷, 메일보내기
		음악 : 가곡, 건전가요, 대중가요
	문화수업	수학여행 : 1박2일/년 1회
		영화, 연극, 뮤지컬 관람/년 4회 시민축제 참가 관람/년 1회

수원체육문화센터

주민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저희의 정체성입니다

발행호 (제7호) 2012. 06. 05. (화)

글 이보라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인터뷰에 응해주신 권미영 수원체육문화센터 관장

수원체육문화센터는 조금 다른 설립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수원시폐기물처리시설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지역 혐오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소각장(공식명칭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서면서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약간의 보상(?) 개념으로 주민편익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곳이 수원체육문화센터입니다.

주민이 싫어하는 시설과 주민이 원하는 시설의 공존. 이상한 동거일수도, 서로의 존재 이유일 수도 있는 곳.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함께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과 수원체육문화센터.

5월 30일 개관 10주년을 맞이한 수원체육문화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지역의 편익시설로서 주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수원체육문화센터 이야기입니다.

우선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시작 전 장선경 선생님(평생교육사)으로부터 기관 라운딩과 함께 간략 소개를 받았는데요. 센터 옆 수원시자원회수시설로 인해 센터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은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모여 처리되는 곳이지요. 2000년 이 시설이 지역에 들어올 때 주민과 지역 단체들의 반대가 매우 심했습니다.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여러 가지 물질로 인한 환경파괴, 생태계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반대 운동이 일어났죠.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 시설이 자리하게 되었고 이후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 혜택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시설이 만들어졌고, 수원 YWCA에서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관련 법령이 타 단체들과 달라 조금 외롭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법령에 수원 지역에는 이 법령에 의한 시설이 우리 센터와 서수원주민 편익시설 두 곳 뿐입니다. 그래서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낮은 부분도 있지요.

그럼 수원 외 타 지역에는 있나요?

폐기물처리시설 등 유사한 시설이 들어선 지역에는 관련 법령에 의해 주민편익시설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설립을 해놓고 운영하지 못하는 곳도 있어요. 지역의 이해도나 지자체와의 관계 등에 의해만 들어만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수원은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자원회수시설과 여러 부분에서 공조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 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센터 냉난방 시설을 가동하고 있죠. 그래서 그 어느 시설보다 더 쾌적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센터에서 보내는 증기와 물은 소각 시 재사용되고 있습니다.

기관 라운딩을 할 때보니 시설이 꽤 큼니다. 헬스장, 수영장, 실내골프장도 있고..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렇게 큰 센터를 운영하신 방법, 노하우라고 할까요. 어떤 것이 있나요?

노하우라는 것 특별히 없습니다. 그저 주민들의 계속 찾아주시고 이용해주시는 덕분이죠.

10주년을 기념해서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시설을 이용하신 분들을 찾아봤더니 26분이 계시더라구요. 10년 동안 매달 한번도 빠짐없이 등록하시고 이용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의 이용 수기를 봤는데 “학창시설이 끝나면 학교와도 끝인 줄 알았는데 센터가 학교 같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기 귀찮다가도 또 가고 싶고 가보면 재미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잊고 있던 것들을 센터를 이용하면서 다시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시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적으로는 회원님들께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실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자 노력합니다. 단순히 생활체육 시설로서의 이용뿐만이 아니라 환경문제, 생명(생태) 문제에 대한 접근부터 다양한 분야의 사회 현상들과 이야기들을 접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10년 전에는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이 아직 덜한 시점이었는데 그 때부터 저희는 학습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만들어나가려고 했습니다. 개관 때부터 활동하셨던 분들은 학습동아리 활동을 하며 전문성도 향상되고 점차 활동 영역을 넓혀나가고 계시죠.

학습동아리 중에 ‘극단 내일’이 있습니다. 여성 분들로만 구성되었는데 처음에는 연극관련 프로그램에 단순히 참여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던 중 학습동아리로 점차 그 활동을 넓히셨고 2004년 창단해서 지금은 매년 정기적으로 공연도 하시고,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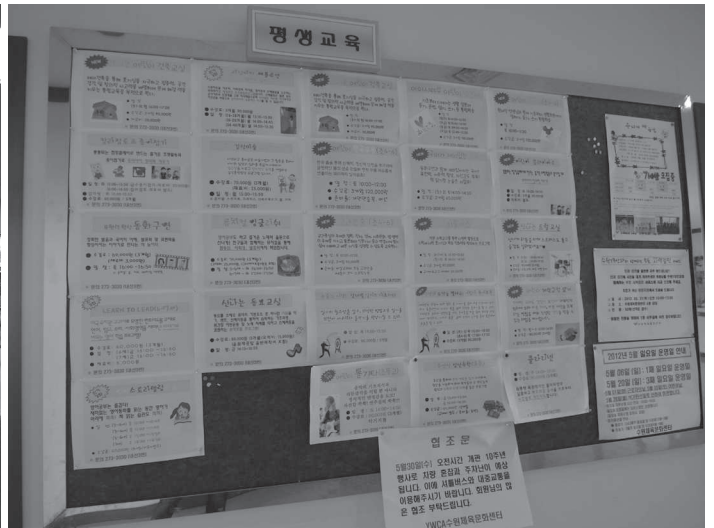
곳에 초청을 받아 공연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자기계발로 시작되었던 활동이 점차 사회영역으로 넓혀져 가고 이것을 통해 지역사회에 관심을 넓히는 계기가 되어가는 것이죠.

위탁받는 모범인이 수원YWCA입니다. 영향을 미치는 면이 있나요?

YWCA는 여성단체이면서 사회단체입니다. YWCA의 정신은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고 사회참여를 통해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것입니다. 이러한 YWCA의 정신이 프로그램 기획이나 운영에 반영된다고 봅니다. 2003년부터 시작한 '수원 아나바다나눔장터'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활동에 참여하고 이것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모두 소외계층 지원에 활용합니다. 이러한 활동과 자원봉

사를 통해 사회참여를 하고 자신의 삶도 변화되고 지역사회도 변화하는 것이죠.

이번에 직원들과 함께 네팔 오지마을에 도서관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삼시일반 모아서 마을 빈 공간에 책장과 책을 구입해 넣어주는 일이었죠. 그리 큰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모여서 다른 곳까지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활동입니다. 또 조만간 센터를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네팔 10대 여학생들을 위해 대안생리대를 지원하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네팔은 아직까지도 월경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고 특히 여학생들은 한 달에 일주일만 학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은 월경 때가 되면 집에서 쫓겨나 가축우리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현재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대안생리대 보급과 함께 인식의 변



수원체육문화센터 사업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생활체육,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아체능단.
그러나 권미영 관장은 생활체육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다.
모두가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왼쪽부터 헬스장, 평생교육프로그램 게시판, 유아체능단 입구)

화를 이끌기 위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마음, 나누는 마음을 가지자는 것인데 얼마나 호응이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데요, 센터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특별히 거대한 비전은 없습니다. 건강한 삶과 행복한 공간이 되자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죠. 센터 이용을 통해 자기계발을 하고, 가정 내 이야깃거리가 많아지고, 건강한 시민이 생겨나고,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지역사회가 건강해지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필요한 것은 모두 하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묻기도 하는데, ‘주민이 원하는 일을 한다’가 저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에 어려운 점, 힘든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안전입니다. 10년 정도 되다 보니 시설이 자연스럽게 노후화되는 부분도 있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체육시설 등이 있다 보니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법정 전염병이 유행하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신종인플루엔자 때는 정말 고민스러웠죠. 회원님들을 안심시켜야 하고 그만큼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하니까요.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엔 당연히 온라인 결제 시스템 등 행정시스템도 현대화가 필요한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저희가 독립채산체로 운영되다 보니 점차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회원님들의 불편함이 있죠.

그리고 주민분들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주변에 다른 이용시설이 생기면 아무래도 저희는 경쟁상대이잖아요. 좀 더 긴장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

고자 애쓰지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말씀해주세요.

주민분들이 이용하기 쉽게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주민분들이 평생교육을 통해 삶을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인문학 강좌에도 더욱 힘을 생각합니다. 인문학 붐을 타고 그냥 그런 프로그램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관점을 넓혀 생각하고 인식의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수원시체육문화센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2-3

031-273-3030

<http://sscc3030.or.kr>

수원다문화도서관 “지구별상상”

편견과 동화를 넘어 함께하는 공동체

발행호 (제8호) 2012. 06. 20. (수)
글 이보라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다문화도서관 모습

수원에는 외국인인 많다. 학습관 출근길, 연무대를 지나다 보면 이른 아침부터 화성을 둘러보는 외국인 관광객과 그들을 태운 버스가 주차장에 가득 차 있다. 이들은 우리의 문화를 잠시 맛보다 떠나는 외국인이다.

수원에는 이주민이 많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로 많다고 한다. 이들에게 수원은 관광지가 아닌 생활처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한다. 아이들을 챙겨 등교시키고 집안일을 하고 장을 본다. 내국인과 똑같다. 하지

만 그들이 받는 시선과 처우는 조금 다르다. 우리사회의 한 축으로 분명히 존재하고 공존해야 하지만 많은 이들이 부정하거나 차가운 시선을 보낸다. 아마도 요즘은 좀 더 심해졌을지도...

이런 와중에 “이주민이 주인 되는 곳”라 말하는 곳을 다녀왔다. 이주민이 그들의 문화를 지키고 그들의 자녀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책’이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는 <수원다문화도서관-지구별상상>이다.

‘지구별상상’의 박재우 사무국장을 만났다.

어떻게 ‘지구별상상’에서 일하게 되셨나요.

2008년도에 이소연 관장과 같이 수원이주민센터에서 자원활동가로 활동하다가 2009년에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그 때 이소연 관장은 이주민 관련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다문화도서관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기증받는 등 준비를 하는 와중에 제가 군대를 전역해서 함께 일하게 되었죠.

수원에 다문화도서관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이소연 관장이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이주민 분들과 함께 책을 빌리러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수원에는 다문화도서관이 없었고 인근에 있는 안산까지 가게 되었다고 해요. 사람 수가 많다 보니 차를 빌려 함께 갔는데, 가고 오는 것도 일이었지요. 그런데 그 때 같이 가셨던 이주민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국어로 된 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으셨던 거 같아요. 이주민분들은 자녀들에게 자국어 된 동화책을 읽어주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수원에는 관련 도서관이 없었고 일반 도서관에 가도 영어서적만 있었던 거죠. 이주민분들의 욕구가 있고 교육적인 면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럼 수원 중에서도 화서동인 이유가 있나요?

네, 있죠. 일단 화서동 및 인근 일대에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이주민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한국다문화교육상담센터, 엠하우스가 모두 이 근처에 있어요. 인근에 살지 않으시는 이주민분들도 다른 단체 교육 등으로 왕래가 많으시죠. 그래서 이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나요? 단순한 도서대여 사업만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위주로 진행합니다. 작년에는 도서관엄마학교 프로그램으로 책 읽는 법, 책 고르는 법, 북아트 등 독서지도와 도서 관련 프로그램을 하면서 중간에 비폭력대화법 등 다른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했었습니다. 또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위한 다문화이해교육프로그램도 진행했었죠. 올해는 다문화요리교실, 서예교실, 놀토체험프로그램, 방과후 교실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요리교실의 경우 다른 단체에서는 보통 한국요리를 가르치고 배우는데 저희는 다른 단체에서 많이 하지 않는 자국의 요리를 하는 것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베트남 월남쌈, 중국만두, 중국샤브샤브를 만들었죠. 사실 우리나라 다문화 프로그램이 이주민을 한국화하려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동화주의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방향에서 진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는 편견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주민 노동자에 대한 편견, 어떻게 풀어나가시나요.

경제적인 척도가 행복이나 우월감이 척도가 될 수 없는데 같이 일을 하거나 자원봉사 온 분들을 보면 이주민들을 보고 불쌍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언젠가 자원봉사를 온 친구가 한 아이에게 ‘너 그렇게 하면 동남아에서 온 거 확 티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무의식 중에 한 말이었겠지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피부색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배타적인 느낌이 깔려있었던 겁니다. 사회적으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문화교육이 아니라 세계시민교육으로 가야한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

분을 사업 안에 어떻게 녹여내시나요.

저희는 메일주소, 블로그 주소 등을 ‘glocal’이라고 씁니다. 어디서 왔는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문화라고 하면 보통 백인들을 뺍니다. 동남아나 중국을 다문화라고 생각하고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기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체화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local’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에서 유래하는 조어(造語)-네이버 지식사전-이다. 전세계가 하나의 큰 틀로선 하나의 공동체이지만, 또 한편으로 각각 지역의 특수성도 존중하고 고려하면서 함께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대상은 누구입니까?

결혼이민자 어머니들과 중도입국자녀에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합니다.

중도입국자녀는 교육이나 프로그램 방향 면에서 좀 다른가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특히 조선족(이 표현을 싫어하지만 대화의 편의를 위해 사용한다고 했다)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문화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도입국자녀 교육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작년 중도입국자녀 아이들 인터뷰를 지원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 아이에게 꿈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내가 여기서 이방인으로 느껴지는데 내가 여기서 무슨 꿈을 꾸겠느냐. 나는 한국에서 꾸는 꿈이 없다. 중국에 돌아가고 싶은 것이 내 꿈이다”라고 말하더라구요. 망치로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

다. 떨어지고.. 아직까지는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단체와 함께 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곳과 함께 하시나요.

마을르네상스센터, 아름다운재단, 동북아평화연대, 경기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각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코리아헨즈에서는 9명의 자원활동가를 파견해주셔서 그분들과도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진 비용이 없어서입니다. 프로젝트 사업을 해야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 작년에 시설물 보조비를 받아 지금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겨울에 난방이 안 되서 너무 추운 나머지 도서관 문을 닫아야만 했죠. 아름다운재단, 동북아평화연대와는 책 기증 사업, 모금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를 통해 올해 안에 외국 도서가 4,000권 정도 구비될 예정입니다. 일일이 도서리스트를 뽑고 이주민분들에게 책 내용을 확인 받고, 추천도서도 받고 있습니다. 이주민분들의 욕구에 맞는 책을 구비하려고 노력 중이죠.

예를 들어 베트남어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백설공주면 이주민분들은 굳이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자국어로 된 책을 통해 문화를 느끼게 해주고 싶은 것인데 단순 번역본은 그렇지 않으니깐요.

일을 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

임금을 못 받는 것이요(웃음). 프로젝트 사업을 해도 인건비 지원은 없으니까 저나 관장님이나 사정이 같습니다. 보통 도서관을 개인이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저희는 그러고 있는 상황이니깐 월세 내는 것도 힘들 때가 있죠.

그리고 힘들다기 보다는 안타까운 점은 자원활동가나 상근자에 의해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대부분 자원활동을 주말에



하길 원하는데 다문화가정의 경우 가정적으로 통제 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평일에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또 자원활동을 문의하실 때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책을 읽어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는 그런 또래들이 많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인식이 좀 안타깝죠.

앞으로 도서관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비전이라기보다는 한국에 수많은 이주민 단체들이 있는데 이주민이 상근하고 대표를 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이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언어나 사업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리해서 앞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실제로 다문화도서관이라면 그들의 필요와 요구로 만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단계까지 저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단기적인 과제와 방향은 무엇인가요.

현실적인 부분인데 운영비와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후원을 하는 것이 막상 쉽지가 않잖아요. 신뢰를 줄 수 있는 실력과 신뢰도를 높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활동비가 어느 정도 나와야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존립의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별상상’에는 현재 약 10개국, 6,000여 권의 도서가 구비되어 있다. 돈을 주고 산 책은 한권도 없고 100% 기증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한다.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지 1년 남짓 된 단체가 다양한 곳에서 지원금을 받으며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일하는 이들의 노력과 열정이 넘치기에, 그리고 그 이상의 신뢰를 주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지구별상상’은 회원제로 운영하며 현재 약 120여 명의 회원이 있다. 후원회비 형식으로 이주민은 월 5,000원/내국인은 월 10,000원의 회비를 내면 도서를 대여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적은 이들의 경우 회비를 받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한다.

수원다문화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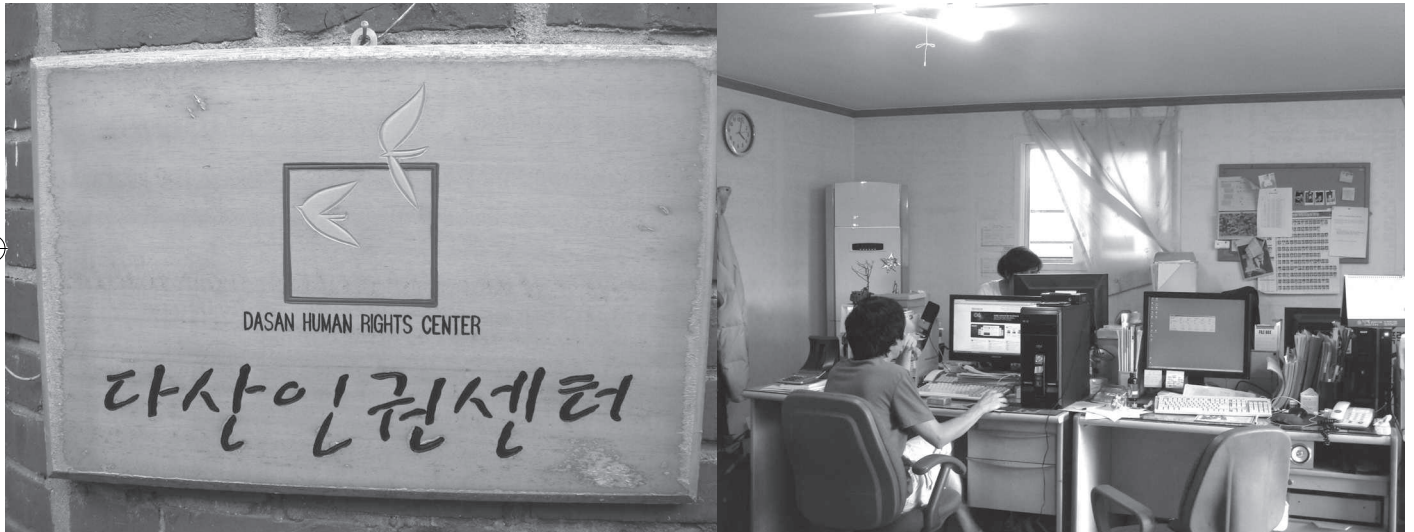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71-107 2층

<http://cafe.naver.com/glocal79>

다산인권센터

인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발행호 [제9호] 2012. 07. 04. (수)
글 이보라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다산인권센터 현판(좌)과 사무실 전경

경기남부지역의 유일무이 인권상담소로 시작해서 2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이제는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는 다산인권센터를 만나고 왔다. 사람과 사회를 바라보는 민감함과 예민함, 인권 감수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일하는 곳. 앞으로 또 다른 20년을 준비하는 다산인권센터. 다산의 박진 활동을 만났다.

다산인권센터가 올해 20주년을 맞이했다고요. 지난 20년 다산의 역사를 얘기해주세요.

다산은 김철준 변호사가 1990년 변호사 사무실을 개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때 김철준 변호사가 노동이나 공안 관련 변호를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인권문제로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찾아오는 노동자들의 삶은 체불이나 해고와 관련된 문제였지

요. 또 가정폭력, 철거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기 남부지역에는 다산인권상담소가 거의 유일의 노동인권 관련 단체였어요. 그렇게 변호사 사무실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90년대 후반부터 변론과 함께 수원인권영화제, 사회복지학교, 인권평화학교 등을 진행하면서 인권센터로서의 역할에 중심을 두고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독립하여 변호사 사무실은 '법무법인 다산'으로 자리를 잡았고, 저희는 '다산인권센터'로 독립하여 인권단체로서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박 진 활동가는 90년대 다양한 인권관련 변론 사례도 이야기 해주었다. 특히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운동의 확산과 제정에 기초가 된 대해 정○○모녀(가정폭력)사건은 당시 어린시절이었는데도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그 사건은 1996년 일어나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으로 노모가 딸에게 구타를 가하던 사위를 우발적으로 칼로 찌른 가정폭력사건이었는데, 사건 발생 초기 딸이 노모를 감옥에 보낼 수 없다면서 대신 경찰에 자수했었다.

요즘에는 다양한 인권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내고 있는데 장애인이동권문제나 수원어린이집 CCTV 설치 반대 등 국가나 지방정부의 잘못에 대해 사회적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인권활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권침해 관련 사건에 대응하는 것과 인권교육이 있죠. 저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정신장애인교육·노동인권교육·학생(청소년)인권교육 등 인권 당사자 교육을 진행합니다.

경기도에서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 때 함께 참여했었죠. 또 요즘은 매주 수요일 수원역에서 진행

하는 촛불문화제에 함께 합니다.

인권교육은 무엇인가요? 어떤 것을 가르치시나요?

사회적 약자, 장애인이나 아동, 청소년 등 당사자의 경우는 인권 보호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나 장애인·학생의 가족 같은 경우는 인권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옹호자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각자의 위치와 입장에서 인권에 대해 생각하고 어떤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자신의 문제와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이러한 내용을 함께 합니다.

루마니아의 어느 인권교육가는 '인권교육은 또 하나의 인권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인권에 대해 잘 모릅니다. 나의 권리행사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방법인지 배우지 않고는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인권교육을 배우는 것이 또 하나의 인권이라는 것입니다.

인권교육은 가치, 태도를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원적으로 말하면 인권은 '인간의 권리'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인권'은 뭔가요?

그렇죠. 인권은 인간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에서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경우 어리다는 이유로 처음 본 어른도 반말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두발을 제한하죠.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행동입니다. 각 상황에 따라, 사안에 따라 매우 구체적인 갈등상황이 나타나고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인권은 그것이 억압된, 빼앗긴 사람의 입장에서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 힘없고, 버려지고, 시민이 되지 못한 사람의 권리가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빼앗기기 전에는 인권 얘기 안합니다. 잘

모르죠. 빼앗기기 전에 지키고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있고, 그곳의 중점 사업 중 하나가 인권교육인 것이죠.

하지만 인권교육의 제도화에 대해 우려도 표명했다. 무엇이든 제도화되면 형식적인 부분으로 변형되는 경향이 있는데 인권교육도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사회의 불편한 담론을 꺼내는 것인데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수준, 윤리적 수준의 인권교육으로 머무는 것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라고 하였다.

인권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은 똑같다.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권의 타자화’라고 말하는데요. 예전에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장애인시설 관련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한 시설을 방문했던 친구가 “이 시설 좋은데요. 깨끗하고, 시설도 좋고...”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좋으면 네가 여기서 살 수 있지?” 라고 말하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자신은 안 되지만 장애인은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제 딸이 다섯 살 때 어린이집에서 온 가정통신문을 보기 위해서 딸 아이의 가방을 열었더니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왜 내 가방을 허락도 없이 열어?”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스무살이었다면 제가 그렇게 허락 없이 열어보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인권은 내 안의 권력도 해체되어야 하고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인권이 10년 전으로 후퇴했다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과업이 벌어지는 이유도 그

렇고, 예전 대통령을 회화한 벽보 그림의 같은 경우도 하나의 표현으로, 풍자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경찰에서 수사하고 벌금을 물리고 했잖아요. 그리고 절차상 민주주의의 부분에 있어서도 역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후퇴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인권이 이 정부에서만 후퇴하고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사회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리는 것이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권리인데,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발전을 지향하고 편리만을 지향하는 풍토가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사회·환경적인 부분이 인권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지원이나 기업지원은 안 받는다고 하시던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대부분의 인권 억압의 주체는 정부나 기업입니다. 권력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국가 재정에 대해서는 열어놓았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기업은 절대 불가입니다. 기업의 비용 지원은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산인권센터의 비전, 방향은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저희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했다고 봅니다. 인권 침해를 당하신 분이 찾아와 이야기하고 그것을 공론화하고 함께 싸워주는 역할을 수행했죠. 그런데 이것은 기본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이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하되, 다른 부분의 것에도 힘쓰려고 합니다. 먼저 다가가서 국민들과 함께 인권을 일상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참여하는 인권운동이 되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에 주부인권강좌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삶 속에서 여성으로, 엄마로, 사회의 일원으로 인권 문제를 발견하고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때 함께하셨던 분들이 평소 생각지도 않았던 것에 대해



다산인권센터의 활동들. 인권 관련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힘 있게 외친다.

이야기하고, 알게 되어서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권 문제가 보편화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는데, 요즘 20주년을 맞이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20주년 생일잔치에 대해 물어보니 계획 중이긴 한데 언제, 어떤 내용이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사람으로 치자면 20살은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지나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주체적인 인간으로 인정받는 시기이다. 선거권도 생기고, 술·담배도 살 수 있다. 성년으로 자기 인생에 독자적인 책임을 지는 나이인 것이다. 그래서 20살 다산의 앞날이 더욱 기대되는 것 같다.

다산인권센터 홈페이지 상단에 이렇게 적혀 있다. ‘인권에는 양보가 없습니다.’ 양보의 미덕이라는 말도 있는데 양보가 없으니... 무슨 뜻일까? 다산인권센터의 10주년 책자 첫 페이지를 넘기고 그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인권을 위해서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어야 한다는 긴장감과 각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산인권센터는 인권이라는 당연하지만 무심히 지나쳤던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발 빠르게 행동한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지나쳤던 인권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의 나는 아닐 수 있지만 미래의 나를 위해, 그리고 현재 소외된 약자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함께 행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권 감수성을 키워보는 것은 어떨까?

다산인권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85-13

031-213-2105

<http://www.rights.or.kr>

<http://cafe.daum.net/humandasana>

자유상상캠프

우리시대 청년, 지역에서 삶의 영역을 만들어 가다

발행호 (제10호) 2012. 07. 18. (수)
글 이보라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얼마 전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흥미로운 조직(?)을 알게 되었다. 이름 하여 자유상상캠프.

여름방학이 다가오니 많은 단체

와 기관에서 다양한 캠프를 준비하는데 이곳은 조금 달라보였다. 흔히 캠프는 자연이 좋은 어딘가로 떠나서 숙박을 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곳 프로그램을 보니 멀리 떠나지도 않고, 숙박을 하지도 않는다. 떠난다는 곳이 그저, 도심 내 공원에서 텐트를 치는 것이다. 떠나지는 않지만 한 곳에 모인다. 모여서 즐기고, 이야기 나누고, 토론하며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역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다.

자유+상상+캠프. 이름만 들어도 재기발랄함이 묻어나고 흥미로운 일이 생길 것 같은 이 곳. 김미경 선생님을 만났다.

처음 명함을 주고받는데 하나로 묶인 5장을 주었다.

‘여기저기 직함이 많나?’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명함의 이름이 다 달랐다. 알고 보니 자유상상캠프 5명의 기획단 명함이었다. “저 한 명을 만나셨어도 저희 다섯 명을 다 만난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이 조직을 대표하고, 조직의 모두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일한다는 의미 같았다.

지역에서 진행하는 여러가지 실험

이번 2012년 여름에 진행되는 자유상상캠프의 주제는 <만들어진 도시 깃들여갈 지역>이다. 그 중 ‘깃들다’라는 단어에 마음이 움직였다. 자연스럽게 스미는, 튀지 않고 물 흐르듯이, 어느 순간 돌아보니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함께 하는 것이 깃드는 것 아닐까? 자유상상캠프는 처음 어떻게 부천에 깃들게 되었을까? 처음 생기게 된 배경이 궁금했다.

“저는 ‘지창공(지속 가능한 창조적 공간)’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문화기획자로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하다 보니 제가 하는 일을 직접 펼칠만한 현장이 없다는 것에 아쉬움, 실험의 공허함, 가능성과 한계의 모호함 등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한 선배가 ‘자유예술캠프’같은

것을 부천지역에서 하려고 하는데 할 생각이 있다고 묻더라고요. 부천문화재단에서도 그것에 대한 욕구가 있었고요. 현장에 대한 아쉬움이 있던 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맞아져서 시작하게 되었죠.”

자유예술캠프는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에서 2009년 시작한 활동이다. 정부에 의해 문화예술단체와 단체장들이 탄압을 받던 시절, 한예종은 기나긴 감사와 함께 총장 퇴진, 학과 축소 및 폐지 등으로 그 중심에 있었다. 그 때 이에 항의하고 새로운 교육 내용과 시스템을 고민하던 교수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 밖에서 만든 조직이 바로 ‘자유예술캠프’이다. 자유예술캠프는 처음에는 한예종 학생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활동되었으나 회차가 지나갈수록 문화예술, 인문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배우고 공부하는 조직으로 확대되었으며, ‘자유상캠프’는 이러한 시스템과 내용을 바탕으로 두고 내용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사실 처음 진행했던 2010년에는 지역을 잘 몰랐어요.” 부천지역에 대한 이해가 없다보니 지역의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고 열심히 기획해서 만든 프로그램의 절반이 수강생 부족으로 폐강하였다고 한다. “그 때 기획하면서 우리들은 내심 ‘이거 대박이다’ 그랬는데 결과를 보고는 한동안 멍해졌죠.” 또 2011년에는 단순히 주입식 강의가 아니라 함께 토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리고 싶어서 특강을 1시간 30분 정도로 짧게 잡고, 이야기 시간을 3시간 배정했는데 특강이 끝나고 대부분의 사람이 돌아갔다고 한다. “왜일까.. 왜 이럴까.. 프로그램이 끝나고 그 이유를 고민하고 과정과정 별로 다시 살펴보는데 7시간을 논의했어요.”

대외적으로는 실패한 프로그램일지도 그 때 제일 많이 배우고 깨달았다고 한다. 시작할 때의 시행착오는 늘 겪기 마련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키

고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보다 더 치밀한 토론과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3년차, 더 내실 있는 자유상캠프가 나올 수 있었으리라.

“특강이라는 이름에서부터 누군가는 강의하고, 배우는 것으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더 열린 개념으로 포럼이라고 정리했어요.”

청년, 흔들리는 청년들이 함께 자립을 외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독(獨)립? 동(洞)립하는 청년자립평상’이다. “사실 요즘 청년들은 부모에 기생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결혼을 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기생하는 공간이 좀 멀어졌다 뿐이지 부모집에서 반찬을 가져오고... 완전한 자립이 아니죠.” 자립은 현실이라는 측면에서 명성 있는 누군가의 발제를 듣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자립을 고민하는 청년들이 발제하고 토론한다. 진정 자립을 고민하는 주체가 스스로 말하는 현실 그대로의 이야기인 것이다.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반찬계, 시장계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함께 하면서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삶 안에서 자립하고 삶의 몸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반찬계는 반찬을 나누는 것이다. 한사람이 일 주일에 다섯 가지 반찬을 먹는다고 했을 때 반찬 다섯 개를 하는 것은 힘들지만 한 가지 반찬을 5인분 하는 것은 힘이 덜 든다. 그 반찬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시장계는 필요한 것을 함께 사고, 산 것을 나누는 것이다. 혼자 사는 집에서 양파 한 망을 사면 반은 먹고 반은 썩어 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을 함께 사서 나누면 버리는 것도 없고 싱싱할 때 맛있게 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나왔다. “아파트 알뜰장

에서 느타리버섯을 떨어뜨려 파는 거예요. 저는 버섯이 필요한데 아주머니는 나눠서 팔 생각은 없었고, 저걸 다 사면 반은 버릴 게 분명했죠. 우선 필요해서 사긴 샀는데 집으로 가져가면서도 계속 고민이던 찰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두 분께 나누어 드렸어요. 어차피 이거 다 가져가면 못쓰고 버리니까 그냥 드릴게요. 그 후로 그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는 사이가 되었지요.” 시댁과 친정을 오가며 김치를 싸오고, 먹고 싶어도 남을까 겁나 살 수 없었던 수박을 바라보았던 일들이 떠올랐다. 많은 내용 중 한 예를 말해줬는데 이렇게 마음에 와 닿을 수가. 청년 자립은 정말 현실이었다.

포럼은 단순히 하루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플랫폼으로 이동시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이야기할 수 있는 판을 만들고 그 안에서 더욱 세밀한 이야기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자유상상캠프의 핵심, 청년지역문화기획자

이렇게 재미있는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기획단은 어떻게 꾸려진 것일까? “현재 기획단은 총 5명인데 저는 처음부터 시작한 사람이고, 두 명은 2010년 청지기, 두 명은 2011년 청지기 출신이에요. 청지기는 매년 선발하는데 기획단과 함께 캠프를 만들어가요.”

청지기는 ‘청년지역문화기획자’의 줄임말이다. 자유상상캠프의 핵심 과정으로 지역의 청년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이 과정으로 자유상상캠프가 만들어지고, 운영된다. 한 번의 청지기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곳에 남아서 계속 함께해도 좋고, 이곳에서 쌓은 열정과 마음과 능력을 다른 곳에서 펼쳐도 땡큐다. 청지기에 오는 청년들은 매우 다양하다. 고3 학생도 있었고, 대학생, 대학원생, 단체 활동가 등등 나이도 하는 일도 각양각색이다. 특별한 기준도 없고 그저 본인이 하겠다고 마음먹고 할 수 있으면 된다.

자유상상캠프는 지역문화운동이자 청년 트레이닝 조직이다. ‘청년지역문화기획자’가 중심이다.

“청년들이 지역에 들어갈 준비도 안 되어 있지만, 지역도 청년을 받아들이기 준비가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지역으로 오라고 하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포획한다는 것이다.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에게 자꾸 기관, 단체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죠. 그런 다음 청년들의 열정과 재능을 있는 대로 빨아먹고 청년들은 지쳐 나가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자유상상캠프도 단체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하자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작년에는 부천문화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활동했었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으면 아무래도 활동의 자유성이 떨어져 올해는 재단의 지원금을 받지 않고 홍보비 등 약간의 사업비만 다른 기관에서 프로젝트사업으로 받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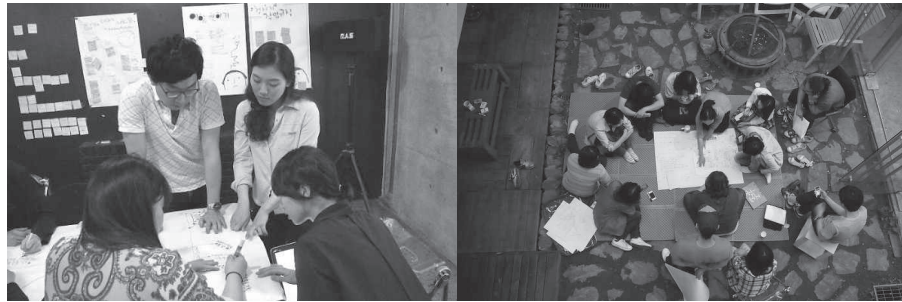
각 조별로 프로그램 기획 중인 자유상상캠프 일원들. (출처: 자유상상캠프 블로그)

자유상상캠프의 청년 트레이닝 과정은 다양하다. 그리고 조금 다르다. 자유상상캠프의 목표가 청년 트레이닝이고, 트레이닝의 결과가 자유상상캠프 프로그램이다. 순환적이고 체계적이다. 강사를 불러 강의를 듣고 함께 토론하기도 하고, 다른 단체를 견학하기도 한다. 홍보 팸플렛 하나를 만들어도 외부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만든다. 기획단과 청지기 안

큰 틀은 세 가지 이다. 첫째, 지역문화에 기반하자. 둘째, 청년을 트레이닝 하자. 셋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이 큰 틀 안에서는 언제든지 새로운 내용이 나타나고 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 부천지역에서 자유상상캠프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청년들이 날 것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이라는



다함께 토론하고, 강의를 듣기도 한다. (출처:자유상상캠프 블로그)

에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만들어 이러한 것 하나하나가 트레이닝 과정이다. “내년에는 청지기를 레지던시 형식으로 운영하고 싶어요.” 그렇게 된다면 열린 플랫폼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기관에서 일을 할 때나 프로젝트 사업을 운영할 때 자원활동가와 함께 한다고 하면 우선 그들에게 사업의 의미를 설명하고 약간의 교육을 진행한 후 그냥 일을 시킨다. 그리고 그 일은 대부분 단순한 일에 그친다. 자원활동가들이 주체가 되어서 뭔가를 함께 만드는 것은 드문 일이다.

매회 함께하는 사람들이 변하니 그 내용도 변한다. “시기에 따라 함께하는 사람과 그들의 역량에 따라, 생각하고 고민하는 내용에 따라 저희의 내용은 변화무쌍해요.” 자유상상캠프가 가지고 있는 큰 틀 안에서 주제와 내용은 얼마든지 새로 만들어지고, 없어질 수 있다. 하지만 변화의 유연함이 큰 만큼 뚜렷한 가치관이 있다. 자유상상캠프가 말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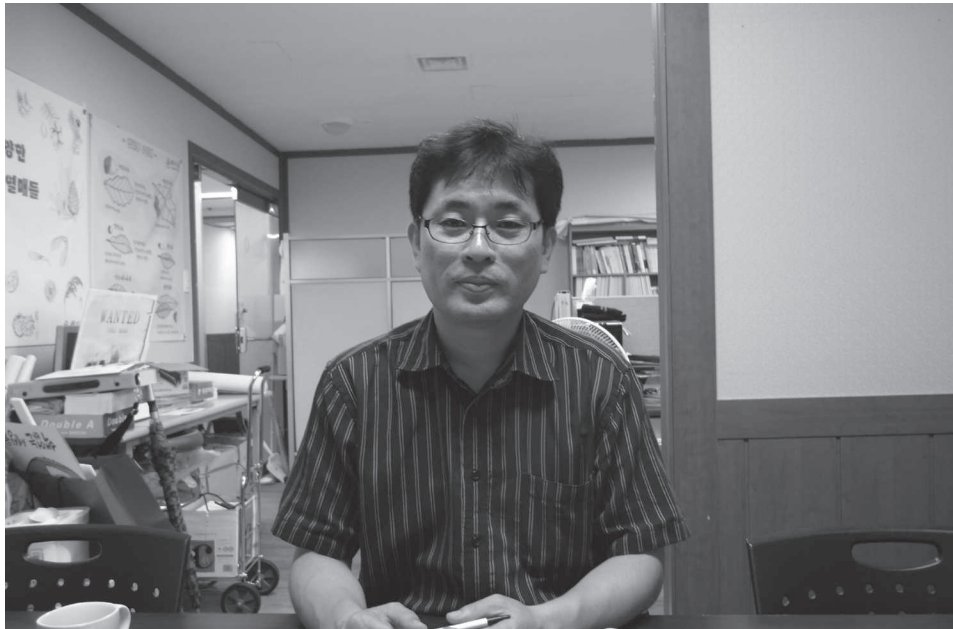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중심 네트워크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고, 스스로 아웃사이드를 자칭해서 상호 자극도 되고, 정에 이끌리지 않는 파트너십도 형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의미 있는 점은 청년들이 자기 문제의식과 고민을 키우고 그것을 고민하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장이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지역운동, 지역 활동을 한다면 그곳에 풍덩 빠져서 같이 헤엄쳐야 한다지만 일정거리를 떨어짐으로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려는 것 같다.

항상 활기찬 것만 같은데 힘든 일이 있을까 궁금했다. “저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헤어진다면 돈도 관계도 아니고 우리의 역량 때문일 것이라고요.” 일을 계속 해나가다 보니 역량의 부족함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것에 관한 조급함이 나를, 서로를 힘들게 한다는 것이다. 한 단계, 한 단계 배워서 하는 일이 당연히 느리고 더디고 실수 할 수 있을 것이

수원환경운동연합

환경을 위해 불편함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 한다

발행호 [제11호] 2012. 08. 01. (수)
글 이보라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

요즘 정부 정책에 따라 건물의 실내 온도는 26℃로 유지해야 하고, 가게 문을 열어 놓고는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카페나 음식점, 대형마트, 백화점 같은 곳에 가보면 서늘한 기운에 얽은 기다견이 생각나곤 합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날 시원한 것은 좋지만 원전이다, 에너지 부족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이렇게 펄펄 쓰는 게 괜찮은 걸까?'라는 고민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님을 만나고 왔습니

다. 우리 자연생태계를 보살펴야 하는 이유와 방법,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듣고, 수원지역의 환경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7월 말,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기온은 30℃가 넘었고, 밖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더위를 잘 타지 않아 웬만해서는 덥다는 얘기를 잘 하지 않는 저지만 수원환경운동연합을 찾아가는 길은 정말 더웠

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는 에어컨이 켜져 있을까?’ 이렇게 더운 날이니 켜져 있을 것 같기도 했지만 환경단체니까 켜 있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활짝 열려 있는 사무실 문과 돌아가는 선풍기. 역시나 에어컨은 켜져 있지 않았습다. ‘그래도 좀 더운데...’ 라는 생각과 함께 손부채질을 하면서 인터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원한 음료수를 갖다 주십니다. 한 모금 마시고 잠시 숨을 돌리니 흘렸던 땀이 식고 더운 기운도 사라집니다. 필요했던 건 에어컨 바람보다는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었나 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역에 기반을 둔 전국 단체인데, 수원에도 생기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환경운동연합은 3만여 회원이 활동하고, 전국 50여 개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이죠. 수원에 환경운동연합이 생기기 전인 2000년, 경기도에는 6개 지역에 환경운동연합이 있었어요. 환경운동연합의 기본은 지역조직 인데 환경의 가치와 목소리를 지역에서부터 끌어 모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또한 수원의 지역적 특성 중 하나가 경기도청이 소재해 있는 경기도의 중심지역이잖아요. 지역 단체들의 거점단체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9월부터 준비 작업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창립하게 된 것

은 2002년입니다. 올해가 10주년이 되는 해이지요.

수원환경운동연합의 창립일은 7월 20일입니다. 9주년까지는 창립일 기념행사를 한 적이 없지만 올해는 10주년을 기념하여 처음으로 기념식을 가진다고 합니다. 7월은 너무 더워 9월에 진행하신다는 기념식은 9월 6일(목) 경기여성비전센터에서 ‘해 바람 물 흙에 깃든 세상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불편함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

카페를 보니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시던데요. 그 중에서도 환경교육이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하시나요.

환경은 의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습관화된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린 시절 흡수력이 높은 시기에 교육으로 진행된다면 당연히 되고, 체화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2005년부터 환경교육을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생태환경지도자로 자연생태 교육을 진행하고, 실천할 수 있게 운영하죠. 초등학교, 공부방 등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과 함께 교사직무연수 과정을 진행해서 교육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게끔 합니다. 지도자교육도 정기적으로 진행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을 양성하죠. 이분들은 현재 ‘온새미로’라는 모임으로 활동하시며 다양한 교육을 기획·진행하고 계십니다.

‘온새미로’는 수원환경운동연합의 소모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모임의 대표가 사무국의 교육팀장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양성된 인원은 더 많지만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9명 정도로 평균 10명 내외로 활동하신다고 합니다. 경



수원환경운동연합 활동 사진(출처:수원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제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활동이 크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사랑에 대한 가치와 그것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단순히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매력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교육 활동 이외에 또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시나요.

전국적인 환경 현안을 지역에서 푸는 활동들을 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과 함께 정책 제시 활동도 진행합니다. 전국적으로 활동했던 주요 사안으로는 참여정부 때는 새만금 개발 관련 활동을 많이 했고요. 이 정부 들어서는 4대강 사업, 광우병 등의 사안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정부에서 할 일이 많죠.

지역 현안에 있어서는 난개발 문제나 수원비행장 문제, KCC 철거 문제 등 현안에 의견을 제시하고, 시민들과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2004년부터는 기후변화대책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사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수원시의 경우는 2009년에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환경수도라는 내용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등 선진적이라 할 수 있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장동빈 국장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수원에 살고 있지만 자세히 알지 못했던 지역의 환경 문제에 대해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를 들으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환경을 위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

수원시는 '환경수도 수원'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평가, 의미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환경은 성장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이 전제되어 진행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과, 환경수도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두 가지가 상충되는 일입니다. 단순히 선언하고 한두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한 일이지요. 예를 들어 브라질의 꾸리치바는 대중교통 시스템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한 측면에는 대중교통 이용은 매우 편리하지만 자가운전자가 불편한 교통시스템과 정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책·시스템적 변화를 기본으로 전체적으로 환경에 대해 정리하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개선 문제가 도시구조와 지역생태계 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진행되어야 하는 일이라는 반증인 것이죠.

수원시는 무비트램을 설치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변화 없이 단순히 설치만 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편과 불만만 가중시키고 실패할 공산이 큼니다. 환경과 관련해서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후속 과제와 지원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또한 상호간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시민과의 소통, 공감대를 찾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불편함과 예산 등의 우선순위의 저항이 있을 텐데 그것을 위한 소통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점차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는 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발지상주의, 성장만능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환경·생태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교육이 바뀌어야 합니다. 불편함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제 불편함이 아닌 것이 됩니다. 학교생활의 교육 내용이 바뀌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환경

과 관련하여 새롭게 시민들을 재교육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의 경우도 환경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교육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와 공감, 체험의 기회가 많아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 환경이 우리의 마

음을 혼듭니다. TV를 틀면 자동차를 사라고 광고하고 더 좋은 것, 더 편리한 것에 대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시의회의 역할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의 경우는 기본의 틀에 갇혀서 새로운 것에 대

수원의 환경 관련 주요 현안 설명

〈난개발 문제〉

수원은 1980년대 30만 명이었던 인구가 2000년에 들어 인구 100만 도시가 되었다. 20년 만에 인구가 70만 명이 증가한 것이다. 인구밀도는 경기도 지역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도시이고, 차량 등록 댓수는 38만 대가 넘는다. 수원이 도시다운 도시인가 의문이 드는 점이다. 광교지구의 경우 애초 계획되었던 것보다 2배 가량 늘어났고 도시는 계속 확장되고 있다. 용인이나 화성과 같이 수도권 남부 도시의 특성상 수원도 계속적으로 인구밀집이 우려되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자체의 도시의 미래를 보는 시각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는 의문이다.

〈수원비행장〉

수원과 같이 큰 도심 한복판에 공공비행장이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다. 250만 평 정도에 이르는 비행장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의 수가 수원 전체 시민의 약 1/20정도 된다. 비행장 인근 지역 아동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했던 난청과 불안 장애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일상에서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주민의 환경권, 학습권 등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배상·책임 등의 대처활동을 진행 중에 있는데 얼마 전 국방부에서 관련법을 제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것에도 문제가 있다. 다른 곳의 경우 75웨클 이상이면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수원, 광주, 대구의 군용비행장 주변만 85웨클 이상으로 배상 책임을 지정해 놓았다. 세 지역의 인근 주민들이 30만 명 정도 되는데 배상의 규모가 커지니까 기준을 다르게 설정한 것이다.

※ 웨클(WECPNL)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로, 항공기가 이착륙 할 때 발생하는 소음도에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등에 가산점을 주어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단순히 소리 크기만을 나타내는 단위인 데시벨(dB)과 다르다. (출처:네이버 지식사전)

〈수원역 인근 KCC 공장 철거〉

KCC공장은 슬레이트나 텍스 등 석면(발암물질)관련 제품을 생산하던 곳으로, 2004년에 공장을 폐쇄하고 2010년 한 차례 구조물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 2010년 구조물 철거를 진행할 때 철거에 관련한 사전 고지, 비산방지대책, 철거인부들의 안전 보호 등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올해는 공장 부지에 묻어두었던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2010년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지역에서 이윤을 창출하고 떠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태인 것이다.

한 배타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의회에 부여한 권한을 활용해서 시민들과 함께 제도와 방법을 찾고,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든 만큼 써야...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해 책임감 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 쓰면 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는 평균 온도가 0.6℃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1.5℃가 올랐습니다. 유래를 찾기 힘든 급격한 변화이지요. 사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탈핵, 반핵운동도 일어나고 있고요. 사실 에너지 발전수단을 올스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23개 있는 원전 시설은 가장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에너지 발전 시설입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비효율적이니 그것부터 제거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합니다. 원전의 경우 우리나라 에너지 발전 비율의 3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효율은 너무 낮습니다. 위험부담은 크고요. 후쿠시마 원전의 경우는 그래도 도심 외곽에 위치해 사고의 크기보다 피해자가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원전은 상황이 다릅니다. 원전 반경 30Km 이내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 사고가 날 경우 치명적인데 우리나라는 원전 30Km 안에 사는 시민이 300만 명이 넘습니다.

사실 대기전력(콘센트 뽑기)만 줄여도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의 10% 이상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런 활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건축을 할 때도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데요. 단열 등의 기본적인 것만 제대로만 지어도 에너지의 30%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제

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것은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아껴쓰기만 해도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유럽 평균의 30%를 넘는데, 너무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과 관련해서는 재생 에너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바이오매스 등이 이런 것이죠. 수원의 경우는 태양광이 제일 좋은 방식인데 그래서 요즘 ‘태양광생산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아야 합니다. 내 손으로 만들고 내가 만든 만큼 쓰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눈이 보이니 더욱 아낄 수 있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에너지에 대한 철학적인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너지,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태양광생산협동조합’은 현재 추진위가 구성되어 기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태양광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시흥 시민 햇빛발전소, 부산 햇빛발전소가 있고, 안산과 서울에서도 추진위가 구성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등 전국적으로 관련 활동이 진행 중입니다. 시민이 만들어가는 햇빛발전소가 여러 곳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수 있다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원전은 조만간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수원지역의 타 단체들과는 어떻게 네트워크 활동을 하시나요?

지역현안이나 전체적인 현안과 관련해서는 수원시 민사회단체협의회를 통해 기본 대응활동 등을 함께 진행합니다. 시정·의회·예산과 관련해서는 참여예산 네트워크를 통해 함께 활동하죠. 2004년에 학교 급식네트워크가 운영되었는데 이것의 결과물이 현재 학습관 4층에 있는 수원친환경학교급식센터입니

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수원중소하천유역네트워크가 있는데 이곳을 통해 함께 활동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수원환경운동연합의 가치와 철학, 앞으로의 과제를 말씀해주세요.

올해 1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찾은 것 같습니다. 사안의 경중, 완급조절,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생각은 온전한 자연 생태계를 물려주자. 두 번째 생각은 망가진 생태계를 복원하자는 것입니다. 에너지 문제는 우리시대의 과제입니다. 이것에 대해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활동도 진행할 것 입니다. 자연은 해·바람·물·흙이 근간입니다. 자연에너지를 인간의 삶에 도입하고, 서로 기대어 살 수 있는 자연과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보전과 복원, 우리 지역에서 우리에게 실현될 수 있도록 운동하고자 합니다.

수도꼭지만 돌리면 쿵쿵 쏟아지는 물, 더울 땀에 어킨, 추울 땀 보일러, 버튼만 누르면 켜지는 전동·가전제품, 곳곳에 있는 주유소... 우리는 에너지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큰 노력 없이도 가질 수 있기에 그 소중함을 가끔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 할수록 자연은 아파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더 커져서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환경보호, 자연사랑이 그저 외치는 구호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불편함이 생활이 되어 더 이상 불편함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편리함이 아니라 한 숨 쉬어가는 여유와 시간, 그리고 실천입니다.



수원환경운동연합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08-1 동성영화타운상가 331호

031-223-7938

<http://cafe.daum.net/suwonkfem>

수원환경운동연합의 다양한 환경교육 활동

- 이산화탄소 발생 제로 마을 만들기 운동
- 지역 생태모니터링
- 서호천 청소년 생태학교
- 온새미로 자연환경학교
- 생태환경지도자 교육
- 교사들을 위한 환경생태교육 직무연수
- 환경정책세미나 소모임

슬기샘어린이도서관

아이에게 좋은 친구를 소개해주세요

발행호 (제12호) 2012. 08. 14. (화)

글 이보라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슬기샘도서관 전경(제공:슬기샘도서관)

“좋은 책은 좋은 친구와 같다” “그대의 돈을 책을 사는데 써라. 그 대신에 황금과 지성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인격은 그가 읽은 책으로 알 수 있다” 등등... 책에 대한 명언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만큼 책과 독서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독서 말고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어른들은 직장 일에 집안 일..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으로 이어지는 수업과 숙

제에 치입니다. 잠시의 휴식시간에는 밀린 잠도 자고, TV에서 하는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도 봐야 하고, 인터넷도 하고, 게임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좀 쉬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책 한 장 넘길 시간이 없습니다. 2008년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월 평균 독서량은 1.59권이라고 합니다. 삶에 치여 책은 손에서 떨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독서습관에 관심이 많습니다.



도서관 1층 웅달샘(유아자료실, 좌)과 2층 두레샘(초등학생자료실, 우) 모습. 많은 이용객들이 책을 읽고 있다.

책이 좋다는 걸 알고, 나는 그렇게 못해도 자녀만큼은 책과 좀 더 가깝게 해주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들을 위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수원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도서관 3곳이 있습니다. 각자 특화된 영역을 가지고 유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도서를 구비해 놓고 있으며, 각 도서관별 특화된 영역을 가지고 있어 더욱 심화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3곳 중 슬기샘어린이도서관을 다녀왔습니다. 만석공원 옆 수원시미술전시관과 이웃해서 자리 잡고 있는 슬기샘도서관의 다양한 도서와 연계교육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연령에 맞는 다양한 도서와 교육프로그램

슬기샘도서관에는 유아부터 중학생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약 10만여 권의 도서와 영상자료를 구비해 놓고 있으며, 다양한 독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책장은 각 자료실별로 아이들의 눈높이로 배치되어 있어 스스로 책을 고르고 읽기 편하게 되어 있으며, 아동이 볼 수 있는 곳, 초등학생이 볼 수 있는 것, 중학생이 볼 수 있는 것 등 자료와 장소를 구분하여 또래들과 함께 좀 더 편하게 책을 보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아들과 부모가 편히 앉아 책을 볼 수 있도록 마루로 구성된 유아자료실은 아이들이 책을 접하기 더 없이

좋은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일년 도서구입 예산이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8,000여 권의 도서를 신규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도서 구입의 경우는 한 명의 사서가 모든 책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수원시 타 도서관 사서들과 소통을 통해 도서 분야를 나누고 함께 서점에 나가 직접 책을 보고 구입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책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 많은 책을 어떻게 다 보나 궁금했는데 역시 나름의 효율적인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슬기샘도서관은 책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여름방학에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구성했는데 그만큼 호응도도 좋고, 찾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독서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연령별 독서지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동화구연이나 방문독서지도 프로그램도 운영하지요. 이번에 진행했던 독후활동 프로그램 중에는 책을 읽고 그와 연계하여 요리도 만들고, 몸활동·몸놀이도 하고, 가방에 그림도 그리는 활동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감수성을 더욱 다양하게 키워주지요.” 예전에는 독후활동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독후감쓰기가 전부였던 반면에 요즘은 좀 더 재미있고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책에 대한 흥미를 더욱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하는 대로 자란다

슬기샘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이지만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바로 부모교육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이의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라지 않고, 부모가 하는 대로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가 책을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아이에게 “책을 읽어라”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책과 가까이 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는 아이들은 책과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책과 친해지고, 도서관과 가까워지는 계기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와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부모,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실행력을 높여야 합니다. ‘행복하겠다는 마음,’ ‘이해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자주 잊게 되는 것들에 대한 각인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책 읽는 자녀를 만들려하지 말고, 책 읽는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도 함께 하는 것이죠.

“독서체험 활동에 대한 시민분들의 요구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에서 좋은 강사 분을 모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는데 비용이 적으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용하시는 분들도 도서관을 책 빌리는 곳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책과 다양한 문화체험활동의 공간으로 이해하

고 계시는데, 이에 맞는 예산은 아직 부족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더 커지는 천문우주 특화 도서관

슬기샘도서관은 천문우주로 특화된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관련도서관도 구비되어 있고,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천문우주체험관도 있습니다. 체험관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다양한 체험 내용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체로 도서관 체험 프로그램 왔을 때 아이들이 체험을 하는데, 특히 스페이스를 좋아한다고 해요.” 천문우주 관련 3D영화를 보면 의자도 함께 움직이고 한다면 아이들의 좋아할 것 같습니다.

교육프로그램으로는 로봇창작교실이나 관련도서관을 읽고 독후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천문우주로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밤하늘 별보기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만석공원 옆에 위치한 특색을 살려서 공원에서 천체망원경으로 별을 본다고 합니다.

수원에는 어린이 도서관 3곳을 비롯해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9곳 있습니다. 위탁도서관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새마을문고, 기타 작은도서관이 있긴 하지만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의 도서관 수로는 좀 적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전보다는 많아



천문우주특화도서관으로 관련 체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 좌측의 '스페이스쉽'문을 열고 들어가면 3D영화가 상영된다.

졌지만 도서관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저의 말에 “그래도 경기도, 특히 수원은 다른 지역보다 도서관이나 제반 시설이 잘 되어있는 것 같아 일하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죠. 그리고 앞으로 조원동이나 광고, 호매실에 도서관이 더 생긴다고 하니 그것도 기대해볼 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곳 주민분들께서 ‘우리 동네에 도서관이 있어서 참 좋아요’라고 말씀해주시면 기운이 나죠.” 단순히 책을 읽고 빌려주는 편의시설이 있다는 사실도 그러하지만 도서관이 주는 묘한 문화적 풍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버스를 타지 않아도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서관을 모든 주민들이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책을 얼마나 많이 읽으세요?

저희끼리 하는 말로 책표지는 많이 본다 라는 말을 해요. 사실 그렇게 많은 책을 읽지는 못하지만 한 달에 평균 두 권 정도는 읽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린이도서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어린이 책을 많이 접하게 되서 읽다보면 새로운 느낌, 교훈을 얻게 되지요. 얼마 전에 도서관에 있는 앤서니 브라운 책을 찾아 읽었는데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어린이 그림동화도 한 번 찾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책이 가장 좋은 책

정말 무수히 많은 책들 중에 올바른 도서 선택 방법과 책 읽는 방법에 대해 물었더니 “읽는 사람의 수준에 맞는 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즘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는 것인지 글씨를 읽는 것인지 한숨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책은 제 수준에 안맞았던 것, 올바른 도서 선택이 아니었나 봅니다. 또 내용이 재미있고 감동이 있는 책,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게 하고 우리의 문화와 정서에 맞는 책, 쉬운 낱말,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제공:솔기샘도서관)

간결한 문장사용, 정서적으로 안정된 그림을 사용한 책이 아이들 책을 고를 때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책을 읽을 때는 읽는 것보다 이해해야 하며, 목적성을 가지고 독서를 한다면 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는 버릇을 들이고, 자신의 독서기록을 감상문이나 일기, 그림 등으로 남기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하시면서 힘든 점을 여쭙보았는데 인력문제를 꼽으셨습니다. “저희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는 형태기 때문에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하죠. 순환근무를 해서 매주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주말을 보내지 못할 때 좀 아쉽습니다.” 도서관이나 박물관 같은 공공문화예술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현실적인 고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말 늦게까지 문이 열려있는 도서관은 주민들에게는 정말 좋은 쉼터이니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하루 평균 1,100분 정도 오시는 것 같고, 주말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시죠. 사실 도서관은 의자가 아닌 바닥에서는 책을 잘 안 읽으시잖아요. 서점같지 않고, 근데 요즘은 자리가 없어 바닥에서 읽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유독 더운 올해 여름 도서관으로 ‘독서피서’를 오는 사람들이 많은가 봅니다. 아무래도 더운 집보다는 시원한 도서관에, 책이라는 좋은 친구도 있으니 ‘독서피서’가 당분간 꽤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근처 도서관을 방문해보세요. 아마도 책 냄새와 책 읽는 사람들의 열기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릴 겁니다.

슬기샘어린이도서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정로9 (송죽동)

031-228-4794

<http://skid.suwonlib.go.kr>

프로그램	내용
책은 나의 친구	7세~10세까지 4개반 독서지도, 책읽기 및 다양한 독후활동 진행
동화구연	화~금요일, 어르신 일자리 사업 참여자, 동화구연봉사자, 동화구연가 등 책 읽어주기와 동화구연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지역아동센터 방문독서지도 프로그램
동아리활동	가랑비(독서, 역사논술 모임), 책친구(북아트), 에르디아(청소년 독서토론동아리)
천문우주 특화교육	우주탐험독서회, 슬기샘 달별캠프, 로봇창작교실, 케이넥스교실, 여름독서교실 등
부모교육	새내기학부모교실, 동화책 읽기지도, 공교육활용, 북아트로 배우는 한국역사, 엄마가 하는 독서치료
기타	독서교실(방학 중), 9월 독서의 달 행사, 4월 도서관 주간행사, 방학특강, 스토리텔링

에이블아트센터

차이가 차별이 아닌 새로운 문화로 탄생되는 공간

발행호 (제13호) 2012. 08. 29. (수)

글 이보라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차이가 차별이 아닌 새로운 문화로 탄생되는 공간

에이블아트(ableart)는 가능성의 예술, 장애의 예술, 차이와 소통의 예술이라고 불린다. 장애인들이 만들어가는 문화예술활동으로서 다양한 예술 활동의 장르 중 하나이며 독특한 상상력과 창의력이 만드는 작품 세계이다. 에이블아트는 장애인 문화복지,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차원이 아닌 장애인 예술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인정하고 하나의 문화 장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인들만의 동등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느끼고 공유하고 작품으로 소통한다.

에이블아트센터에서 바라보는 바깥풍경은 예뻐다. 저 멀리 보이는 산, 넓게 펼쳐진 푸른 논과 그 사이를 흐르는 황구지천, 초등학교 아이들의 뛰노는 모습과 웃음소리가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좋은 것을 보면 좋은 생각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예쁜 경치를 보고 있자면 예술적 영감이 자연스레 차오를 것 같았다.



2층 카페 입구에 전시되어 있는 일본 에이블아트 작가 아마노 마사시의 작품

공간을 가득 채운 아티스트들의 작품

에이블아트센터에는 곳곳에 다양한 미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사무실에, 복도에, 계단 사이사이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은 하나하나가 독특하고 재미있다. 휴식휴레쉬감을 나누어주는 것을 좋아하는 작가가 전시회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감을 나누어주고 씹을 감을 작품에 붙이게 하여 완성된 해골작품은 재미있는 상상력과 작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흰 벽으로만 이루어진 딱딱한 공간을 살리는 힘이 작품에 있



6층 회화실과 5층 도예실 모습. 방문했을 때는 방학기간이라 작업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는 없었다.

었다. 단순한 사무공간이나 건물이 아닌 한 곳의 쉼
러리를 다녀온 기분이다. 공간이 그리 넓지 않아 〈1
기 에이블아트 스튜디오〉 작가들의 공예나 도예 작
품은 대부분 전시되지 못하고 작가의 집으로 향했
다고 하는데 아쉽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서은영 사무국장이 토론회 자료
집부터 프로그램 리플릿, 포스터, 각종 사업의 소개
자료까지 관련 자료를 하나 가득 내민다. 그 만큼 많
은 일들을 했다는 이야기이자 사업에 대한 자부심
인데, 사실 에이블아트센터가 개관한 지는 일 년이
조금 넘었을 뿐이다. “하드웨어인 건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했어요. 건물
건축을 위해 다양한 콘서트, 바자회, 후원회 등도 열
고, 장애인작가 작품의 전시지원도 했었죠.”

미술·음악·미디어 등 문화예술활동 지원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그 중 하나가 〈에이블아트 스튜디오〉프로
그램이다. 센터에는 회화실, 음악실, 도예실, 공예실
등 다양한 작업공간이 있는데 이곳을 오픈스튜디오
형식으로 운영하여 창작활동에 관심 있고 재능이
있는 작가들을 모집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1기
작가들은 작업을 종료하였고, 현재는 2기 작가들을
모집 중에 있다. 단순히 공간만을 빌려주는 것이 아
니다. 1명의 장애인 작가에게는 1명의 아트서포터즈
가 함께 하며 작가에게 숨겨져 있는 다른 재능을 발

굴하고 그것을 촉진, 증폭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재능 있는 (예비)작가들이 진정한 아티스트로 성장
하고, 자신의 영역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대표적인 것이 〈에이블아트 오케스트라〉이다. 장애
인과 비장애인 통합오케스트라로서 8명의 장애인
과 10명의 비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단원
모집 중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관현악기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상에는 한계가 있지만 다
양한 방식으로 예술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점
에서 의미 있다. 장애아동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
램으로는 〈음악아카데미〉와 〈음악놀이〉프로그램이
있는데 아카데미의 경우 1인 1악기, 일대일 아트링크
레슨 방식으로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이며, 음악놀이는
성악, 악기, 시각예술, 몸놀이 등 다양한 예술체험
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찾아가는 고양이들〉프로그램은 에이블아트센터에
서 시작한 예비사회적기업 윗박스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예술의 꿈을 품고 있는 장애아동·청
소년들의 집을 직접 찾아가 일대일 아트링크 방식으
로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회화, 디
자인, 영상, 성악, 관현악, 무용 등 다양한 예술 분야
의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장애아동들이 프로그램을
찾아 먼 곳까지 어렵게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강
점이 있다.

끼리끼리가 아닌 지역과 함께하는 예술공동체

에이블아트센터는 다른 단체와 동거 중에 있다. 건물에 걸려 있는 두 개의 간판 중 하나는 에이블아트센터, 하나는 교회이다. 누가 누구의 공간에 세 들어 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평일의 주인은 센터이고 주말의 주인은 교회인 것 같다.

김보라 연구원은 “사실 장애와 교회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장막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이곳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그랬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이곳은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고, 저희도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 하죠. 2층 카페의 스파게티도 정말 맛있어요.”

에이블아트센터는 어떻게 보면 수원의 중심부에서 조금 떨어진 외진 곳에 있는 것 같지만 지역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 센터 뒤에는 중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고, 조그만 길을 사이에 두고 초등학교가 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지역민들의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장병용 이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 곳을 택했다고 한다. “장애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장애인들끼리만, 장애인들만을 위해서는 지양합니다. 장애인이 지역에 들어가야 하고,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프로그램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죠.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미술작업도 모든 프로그램이 장애·비장애 통합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지역의 열린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자리하는 것이고, 지역과 함께하는 예술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를 외치며 센터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하우스콘서트를 연다. 2층 카페는 콘서트장으로 변신하며 누구나 와서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다. 8월 25일에 열린 하우스콘서트는 인근 지역의 칠보산자유학교 학부모와 교사로 구성된 고무밴드도 함께 했다. 칠보산마을공동체들이 지역에서 직접 키운 감자 등을 가져와 함께 맛있는 음식도 나누었다고 하니, 못 가본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2층 카페는 매달 콘서트 장소로 변신도 하고, 한 켠에서는 작가들의 작품을 아트상품으로 만들어 진열해 놓았다. 작가의 그림으로 만든 공책, 공룡을 잘 그리는 조민서 작가의 엽서와 그 그림을 모티브로 작가의 할머니가 만든 휴대폰 고리까지. 아트상품 판매를 통해 작가의 수익까지 올라가니 의미 있는 작업과 공간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부정적이다. 욕설과 비하 발언의 많은 것이 장애 특성을 깔보며 사용되고 있으며, 장애인시설은 혐오시설로 낙인 찍혀 동네에서 추방되기 일쑤다. 부정적이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특성은 부족하고 모자란 것으로 생각하고 동정과 연민을 보낸다. 이러한 사회 상황에서



센터 앞은 초등학교, 뒤는 아파트이다(우). 매월 하우스콘서트가 열리는 2층 카페모습(좌)

에이블아트센터를 만들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장병용 이사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의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여주에서 목회활동을 할 때 목사와 신도 사이를 넘어 정말 친하게 지낸 장애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미술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예술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유서 한 장을 남기고 자살을 했습니다. 유서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는데 그 이면에는 장애인을 바라보고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주어졌었다면 그렇게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이었죠. 이것을 해결하고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문화예술 관련 단체를 방문했었는데, 일본의 탄포노이에(민들레의 집)를 다녀오고 하리마 마쓰오 소장 을 만난 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곳은 1970년 장애인 문화예술운동을 시작한 곳인데, 이곳의 하나아트센터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이것이 지역의 문화로 자리했습니다.

사실 서양에서는 장애인이라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기 때문에 문화가 달라 모델링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일본은 비슷한 동양 문화권으로 우리나라에 접목하기가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문화센터를 모델링해 에이블아트센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름에서 나오는 원초적인 생명력과 상상력, 창조의 힘

에이블아트의 중심은 장애인을 보는 시각에 있었다. “장애는 몸의 차이인데 차이와 차별이 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차이에서 오는 것을 차별로 이어버리죠. 에이블아트는 차이로 나타나는 다

름을 아트, 예술로 보는 것 입니다. 그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원초적인 생명력, 독특성, 상상력을 새로운 창조의 힘으로 보는 것 입니다. 또한 이것은 치유와 변화로 다가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간은 힘이 있다. 에이블아트센터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 사람과 문화가 함께하는 공간, 예술과 지역이 만나는 공간이었다. 거창하게 사회통합을 외치지 않아도 서로가 함께함을 알 수 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하기에 우리가 장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차별의 편견을 벗어 던진다면 함께하는 재미와 즐거움, 행복과 치유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에이블아트센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021 / 070-8672-1077

<http://www.ableart.or.kr>

〈에이블아트센터〉 주요 사업

- 장애 예술인 및 아트서포터즈 양성사업
 - 장애인 시작예술 신진작가 양성 프로그램
 - 시각예술 아트서포터즈 양성 프로그램
 - 음악 아카데미 및 오케스트라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 시작예술 프로그램 : 도예·회화·영상·공예
 - 장애인 예술가를 위한 상주 작업실
 - 장애인 예술가의 전시회 및 상영회
 - 작가 아트웍을 이용한 아트상품 개발
- 공연 및 음악 프로그램
 - 에이블아트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장애인 음악가의 연주회 및 공연
 - 대한민국 장애인 음악제 개최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하우스 콘서트
- 장애인 문화예술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 장애인 문화예술 조사연구사업
- 지역사회 문화예술공간 사업

수원여성회

더디지만 함께 가는 힘, 그 힘이 든든한 뿌리가 됩니다

발행호 [제14호] 2012. 09. 12. (수)

글 이보라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수원여성회 회원수련회 및 가족모임 사진(출처:여성회 홈페이지)

요즘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남아 있는 남아선호사상으로 뱃속 아이의 성별을 확인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딸 키우는 부모들은 요즘 세상 무서워 집 앞 슈퍼 심부름도 시키지 않는다고 한다. 취업 전선에서 여성은 비정규직과 낮은 급여의 타겟층이다. 축복받아야 하는 출산의 기쁨은 언제 찢릴지 모른다는 위압감으로 다가오고, 엄마에게만 요구되고 책임지어지는 자녀양육은 여성을 더욱 지치게 만든다. 대한민국의 절반을 이루고 있는 여성의 이야기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수원여성회(이하 여성회)는 수원에서 가장 오

래된 여성운동단체이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불씨가 가슴 속에 남아있던 지역 여성들의 필요와 요구에 1989년 수원여민회(수원여성회의 이전 명칭)가 창립하였다. 직장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한 여성회는 초장기 여성노동자의 고용평등과 육아문제 등을 중심에 두고 활동하였다고 한다. 24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여성회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여성회의 장정희 상임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장정희 대표는 1994년 여성회에서 개원한 어린이집 교사로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18년이 지난 지금 여성회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한 단체

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활동을 하는 것도, 교사로, 회원으로, 활동가로, 대표로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단체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변화시킨 것도 흥미로웠다.

여성회가 처음 생긴 때부터 지금까지 회원이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2~3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현재 적극적인 회원 활동을 하진 않으셔도 후원회원으로 계속 지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처음 회원으로 오셨을 때는 아이가 유치원생이었는데 지금은 중·고등학생인 회원분들도 많아요. 초창기 사업에서 놀이방,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문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면 요즘은 청소년 교육 사업 부분도 진행하고 조금씩 변화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원여성회는 화성성곽을 올라갈 수 있는 공방거리에서 멀지 않은 주택가에 자리하고 있다. 방안에 앉아 있으니 바깥의 소음은 들리지 않고, 차분한 빛소리만 들렸다. 작은 마당에는 모여 앉아 놀 수 있는 벤치가 있다. 분위기와 위치가 너무 좋다고 하자 지금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처음 이곳을 고른 이유가 일반 사무실의 경우는 회원 자녀들이 함께 오면 아이들이 마땅히 있을 곳이 없잖아요. 주택이면 회원들이 일을 보는 동안 아이들끼리 모여서 놀기도 좋고, 해서 계속 이곳에 있었죠. 그런데 너무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 보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시민 단체라면 지나가다가도 보고 들어올 수 있고 해야 하는데 접근성이 너무 떨어진거죠. 그래서 지금 이전을 위한 모금사업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더디더라도 함께하기

여성회가 이전을 준비하는 다른 측면에는 회원 중심의 사업에서 지역 중심의 사업으로의 변화도 있었

다. 작년까지는 회원 소모임이 중심이 되어 조직이 운영되었는데, 긴 논의를 거치며 지역분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고 한다.

소모임에서 지역분과로 조직을 개편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풀뿌리여성운동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했지만 소모임 형태로 지역 현안에 접근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었죠. 지역의 문제로 눈을 돌리고 직면하게 된 것은 2007년 수원의 놀이터 실태조사를 하면서입니다. 지역에 있는 놀이터 현황을 조사하는데 단순히 놀이터만이 아니라 그 이면의 문제가 보이면서 지역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놀이터가 왜 이렇게 외진 곳에 있을까, 놀이터 주변의 유흥가 등 환경은 왜 이리 열악한가, 가로등은 없고, 시설물이 파손된 것들도 있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지역에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은 한 곳에 있고, 소모임 활동은 구성원들의 터전이다 보니 공유하고 논의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만약 영통지역에 문제가 있다면 영통지역민이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맞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 문제를 고민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지역분과 조직으로 개편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개편작업은 쉽지 않았다. 처음 이야기가 나온 2007년 이후로 개편까지는 대략 3년 정도가 걸렸다고 한다.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기존의 소모임 운영이 익숙하고 재미있던 사람들은 지역활동에 부담감을 느꼈고, 또 한편에서는 긴 논의 과정에 피로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래도 모두를 이해시키고 함께 합의 과정을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느려도 계속적인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결과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더 단단한 힘을 받았다고 한다. 회원들은 아직 개편된 지역분과 조직

에 적응하는 중이라지만 함께 한다면 그리 멀지 않아 보였다.

누군가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빠른 의사결정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 경영 측면에서 본다면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라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겠다. 이래서 무슨 일이 되겠냐고. 하지만 여성회는 회원이 주체가 되는 단체이기에, 주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간은 결코 헛된 소모가 아니었다. 맛있는 열매를 하루아침에 키워 따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듯, 열매를 잘 키우기까지 긴 관심과 애정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오랜 기간 사업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은 사업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2000년도에 경기도 좋은학교도서관만들기 운동을 했었어요. 그 때까지 학교도서관은 도서관도 너무 오래되고 담당 사서도 없어서 유명무실했지요. 그래서 사업 제안을 통해 경기도 10개 학교에 담당 사서를 파견하고 도서 양질화사업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파견 형식으로 진행하다보니 사서 선생님들의 업무상 어려운 점이나 고용 안정화 요구가 저희에게로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는 당사자 운동을 제안하고 교육청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 제안을 진행해 사업이 안정화될 수 있었죠. 저희가 계속 했다면 저희만의 실적으로 남았겠지만 사업이 커지고 안정화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운동성을 가지고 그 전까지의 활동을 하는 것이 시민단체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회원이 만들고 운영하는 사업, 이제는 지역과 함께

진행하시는 교육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저희 소모임 자체가 교육 모임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함께 학습하고 발제와 토론을 통해 더 깊은 내

용을 나누죠. 여성문화나 여성학 같은 여성의 삶에 대한 교육이나 여성건강 같은 교육은 공개강좌로도 운영했어요.

청소년 영상캠프를 통한 미디어교육도 진행하고, 미디어 바로보기 같은 교육도 함께 합니다.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통해 돈의 철학이나 가치에 대해서 나누고 좀 더 연계해서 자조모임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생애주기별로 여성의 몸

에 대한 교육, 초경학교, 몽정학교도 진행하고요. 통일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 창립선언문에 평화통일과 관련된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해서 통일여행, 여성통일리더양성과정, 통일평화강좌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회원 중심 교육이었는데 이제는 지역, 시민들과 함께하는 교육 활동도 점차 넓히고 있습니다.



올 여름 진행했던 청소년 영상캠프 모습(출처:여성회 홈페이지)

교육 기획이나 운영은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교육기획과 운영의 주체는 회원들로 구성된 교육연구팀입니다. 이 팀에 사무국 활동가가 함께하며 논의하지만 실제적인 기획은 교육연구팀이 하고 사무국은 실행과 집행에 중심을 두죠. 회원들은 기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강사로 직접 활동하세요. 특강 같이 외부 전문가를 모셔올 때도 있지만 거의 회원들이 진행합니다. 강사를 하시는 회원분들은 그 분야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시고 강의도 하시는 전문가이시죠.



사회 현안과 관련한 다양한 운동 활동도 진행한다
(출처: 여성회 홈페이지)

각 운영분과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략 4~50분정도 된다고 한다. 이 분들은 교육뿐만 아니라 본인이 참여하는 운영분과의 위원으로 정책, 교육, 조직, 홍보 등의 사업을 함께 기획하고 진행한다. 사무국 활동가나

소수의 몇몇 회원의 힘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니, 회원조직으로서의 진정한 면모가 보였다. 예전에는 활동회원 중에 남자도 있었는데, 지금은 활동하지 않으시고 후원회원으로만 계신다고 한다. 그리고 생각보다 남자 후원회원은 꽤 되신다고 한다.

수원의 다른 단체와의 네트워크는 어떻게 하시나요?

수원에는 여성회를 포함해 6개의 여성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모여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저희와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YWCA,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탁틴내일이죠. 수원에 이런 단체들이 생겨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과거에는 저희 혼자 해야 한다는 사실에 힘도 들었고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해야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데 부족함이 있었죠. 네트워크에서는 수원의 여성정책 논의와 방향제시 뿐만 아니라 여성주간행사, 여성영화제 등의 다양한 사업을 연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권이 신장되었다고는 하나 사회 깊숙한 부분을 살펴보면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여성가족부도 있고 각 지자체에는 여성정책담당과가 구성되어 있다. 여성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고민하는 단위가 있고 없음은 그들의 권리를 얼마나 인정하고 함께하고자 하는가를 반추하는 것이라고 한다.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닌 단순한 생물학적 차이 때문에 차별받아 왔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도 차별당하고 있는 이 시대의 여성들을 위해 여성회가 함께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모두가 평등한 양성평등사회를 기대한다.

수원여성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116-3, 1층 (행궁로 62번길 25,1층)

031-241-7530~1

<http://www.swa.or.kr>

수원여성회 주요사업

- 정책사업
 - 여성정책 토론회 및 현안대응 활동
 - 여성빈곤대응 및 여성경제교육
 - 여성가장대출사업 '캐쉬SOS'
- 교육·홍보사업
 - 여성학 강좌, 여성정치교육, 여성건강교육
 - 초경학교, 우리동네학당
 - 그림책강좌 및 강사양성교육 전래놀이강좌
 - 소식지 '수원여성' 발간
- 지역사업
 - 지역모임, 동네놀이터 실태조사 사업
 - 동네 작은 축제 및 교육사업
 - 전래놀이한마당
- 통일사업
 - 통일평화기행, 여성통일리더양성
 - 찾아가는 통일교육 및 통일평화강좌
- 문화사업
 - 수원여성문화한마당, 영상교육 및 여성영상제작
 - 여성연극공연, 빛그림상영회, 전래놀이 연구모임

2012 평생학습축제에서 만난 지동과 원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마을을 향기를 느끼다

발행호 (제15호) 2012. 09. 26. (수)
글 이보라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1. 주민자치(citizen autonomy, 住民自治)_관료중심의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를 배제하고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가 되는 것(출처:두산백과)

우리나라는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1999년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가 시범적으로 설치·운영되면서 본격적인 주민자치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운영되고 있는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았다. 주민자치 위원들에게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생업에 바빠며, 담당 공무원은 다른 업무로 인해 주민자치센터 업무에 올인하지 못하고, 주민자치라고 하지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는 매우 미미했다. 참여라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하는 취미교육 강좌의 수강생 입장 정도이다. 이런 주민자치센터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주민 참여가 있다.

2.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교육이나 프로그램은 모든 지역이 같다고 말해도 무관할 정도로 유사했다. 그 마을의 지역적 특성이나 주민의 특성을 고려했다고 보기는 어려웠고, 유행에 따라 옆 마을 주민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조금씩만 바꾸어 진행했다. 원래 있던 마을의 개성조차 사라질 것 같았다. 변화의 시작은 주민으로부터 나왔다. 굳이 ‘마을 만들기’라 칭하지 않아도 마을의 작은 단위에서부터 주민들은 움직였다. 마음과 뜻이 맞는 주민들이 모여 모임을 이루고,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마을을 위해 함께 작은 행동들을 진행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마을만들기’라는 정책적 뒷받침이 더해져 그 성과가 대내외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주민들의 변화를 주민자치센터가 조금씩 받기 시작했다. 주민자치센터는 어느덧 마을만들기에 한축을 담당하는 조직이 되었고, 주민들과 함께 마을에 색을 입히고 있다.

3. 지난 9월 14일과 15일 양일 간에 걸쳐 화성행궁 광장에서는 <2012 수원평생학습축제>가 열렸었다. 이날 행사에는 수원에 있는 다양한 학습동아리와 평생학습기관, 그리고 39개 주민자치센터가 참가했다. 많은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있었지만, 그 중 두 곳의 주민자치센터가 눈에 띄었다. 그 내용을 소개한다.

첫 번째 이야기, 성곽 안의 작은 마을 지동

수원시 팔달구 지동. 큰 연못이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 동네가 뜻하지 않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동네가 되었다. 그런데 전국민이 아는 이유와는 조금 다르게 지동은 그 전부터 유명했었다. 행궁동과 함께 수원 마을만들기의 원조격으로 문화예술가, 지역활동가, 소셜벤처 청년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마을벽화를 그리고, 동네 커피숍에서는 이야기를 나누고, 자그마한 공간에 모여서 영화도 보고, 세미나도 진행한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와 협력하여 더욱 다양한 활동 중에 있다.

통장님 댁 옥상에서 음악회가?

가을 노을빛 아래 펼쳐지는 옥상 음악회를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노을빛 옥상 음악회’가 바로 그것이다. 지동 13통 통장님 댁 옥상에 올라가면 화성 성곽과 지동 마을 전경이 발치에 펼쳐진다. 바로 그곳에서 음악회가 열린다. 주민들이 준비하고 만들어나가는 음악회는 참여하는 사람들도 모두 마을사람들이다. 시청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음악 연주 동아리, 팔달구청장님의 기타 연주, 지역 음악학원 원장님의 연주, 다양한 재능을 가진 지역주민들의 재능기부로 음악회가 촘촘히 채워진다. 올해 9월 18일 열린 옥상콘서트도 성황리에 끝이 났다고 한다. 지동은 세계문화유산에 둘러쌓



2011년 진행되었던 노을빛 음악회 모습.
무대 뒤로 펼쳐지는 노을과 화성 성곽의 야경이 멋스럽다 (출처:수원문화저널)

여 있지만 그로 인해 개발 제한에 막혀 있고, 사람들은 한두 명씩 떠나 빈집도 생겨나고 노인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동네이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문화적 혜택에 소외되었던 주민들과 마을 안에서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고 있다.

마을 안에서 조금씩 일어나는 변화의 문화

얼마 뒤면 지동에 또 다른 자랑거리가 생길 것 같다. 바로 <노을빛 전망대와 갤러리>이다. 화성 성곽을 걷다가 지동 쪽으로 접어들면 저 멀리서부터 보이는 건물 하나가 있는데 교회 침탑이다. 사실 홀로 높게 솟아 있는 교회 건물을 보면 주변과 어울리지 않게 혼자 솟아 오른 모습이 좋아보이지는 않았다. 누군가는 미관을 해친다고도 했다. 그렇게 높게 솟은 교회가 그 장점을 살려 전망대 역할을 한다고 한다. 지금은 준비단계지만 내년 봄이 되면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완전 개방할 예정이다. 침탑의 높이 만큼이나 그 곳에서 바라보는 수원의 전망은 좋을 것 같다. 또한 단순히 침탑만을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침탑으로 올라가는 곳을 갤러리와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단다. 교회의 공간을 내어주는 만큼 그 이상으로 지역 안으로 들어오고 함께 사는 곳이 되어 간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동의 관광자원과 전통시장이 연계된 이야기책 <지동 마실 가는 길>도 제작한다.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마을의 변화를 알려주는 마을지도와 지동 마을과 시장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숨은 이야기들이 발굴되고 이것이 관광안내 책자로 활용될 예정이다. 빈집들은 재활용된다. 마을에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예술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되살림 발전소>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곳은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재활용 워크숍의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며, 지동마을 해설사 등 마을관



원천동 공감아카데미 강의(좌)와 수료식(우) 모습.(출처: 구글 이미지)

서 향상시키고자 한다. 이 교육을 받은 주민자치위원과 주민들은 교육을 통해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는 것은 물론이고, 상담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의 독거노인이나 청소년들과 소통 공감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한다.

런 교육도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주민 사랑방 등의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여 빈집이 주인이 떠난 죽어있는 공간이 아닌, 마을의 소통공간으로 재탄생 하는 것이다. 주인이 떠난 자리에 잡풀만 무성하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다. 지역 주민들의 손길로 새롭게 지역의 활력 공장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소통과 공감의 마을 원천동

원천동은 전체가구대비 87% 이상이 아파트가 차지한 지역이다. 우리나라 대도시 주택가가 의례 그렇긴 하지만 비율상으로 보자면 매우 높다. 이렇게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은 많은 주민들이 거주 공간을 삶의 공간보다는 베드타운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이웃 간의 나눔이 적어지고, 데면데면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원천동에서 흥미로운 교육을 개최하였다. 주민자치위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감 아카데미>가 그것이다.

교육을 통한 이웃과의 나눔. 공감아카데미 + 먼내사랑

공감아카데미는 전문적인 심리상담 교육이다. 상담의 기초와 이론, 대화법 등을 배우고 노인이나 청소년 같은 대상별 심화된 상담 유형 사례를 공부하면서 실제 적용방법에 대해 배웠다. 또한 단순히 일회성 교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심화과정 및 전문가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상담 역량을 계속해

나누고 있다.

원천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간사는 “교육을 받으면서 본인 스스로가 변하고 그로 인해 우리 가족이 변화되는 걸 느꼈다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느낀 이런 부분을 독거노인이나 청소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라고 한다. 교육생들은 ‘먼내사랑’이라는 모임을 창단하고 마을의 소외된 계층들을 찾아가 본격적인 상담서비스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담은 교육을 많이 배운 전문 상담가만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들을 쉽게 찾아가기도 어렵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하지만 마을 안에서 내가 마음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마을 사람들이 건강해진다면 이는 마을이 건강해지는 것이다.

마을에 자신들만의 색을 입히는 것은 주민들만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기 어렵다. 주민자치센터 혼자 할 수 없다. 센터와 주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실천해야만 진정한 마을의 색깔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지속시킬 때만이 살아 숨 쉬는 마을이 되는 것이다. 마을이 수월 곳 곳에서 움트고 있다.

더버튼&에코버튼

365개의 새로운 일상을 만드는 활력 발전소

발행호 (제16호) 2012. 10. 10. (수)
글 이보라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일상생활은 익숙함, 습관의 연속입니다. 어느 순간 부터 몸에 익힌 패턴으로 생활하고, 그렇게 사회는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되는 일상에 지루함과 권태를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꿈꾸며 삶과 생활을 되뇌어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재기발랄해지고 진일보하게 됩니다.

여기 365일 새로운 일상을 만들겠다는 단체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사회의 활력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움을 지향한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새로운 일상이 무엇인지도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활력을 창조한다는 것일까요? 더버튼&에코버튼의 박기범 대표를 만나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홈페이지를 보니 한겨레경제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사회적기업가학교(HERI)에서 만난 사람들이 함께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박기범 대표님이 그 과정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야기를 하자면 조금 긴데, 학창시절부터 수원의 환경단체에서 자원 활동을 했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환경과 비영리 쪽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와중 군대를 제대하고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차에 아는 선배로부터 환경재단에서 진행하는 그린아시아프로젝트라는 것을 소개받고 지원하여 베트남에 가게 되었다.

월드비전에서 파 준 우물과 관련하여 모니터링을 하는 일이었는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 한 마을의 우물이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총 100만 원을 들여서 우물을 뚫고 그중 일부의 돈을 주변 5개 가구가 모아서 냈는데, 우물을 판 후에

이웃마을 사람들까지 많은 이들이 이용하다보니 우물물이 마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러자 돈을 냈던 가구들이 회의를 해서 우물을 자물쇠로 잠근 것이다. 공동 소유 개념이었던 우물이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함에 따라 일부 개인의 것이 되었다.

그 후 다른 마을을 갔는데, 그 마을은 어느 집 마당 한복판에 웰드비전 지원금 40만 원을 들여서 우물을 팠다. 엄밀히 말해서 우물은 사유지에 있고, 비용이 적게 들어갔다는 것은 더 알게 팠다는 것으로 우물물이 마를 위험이 더 크다. 아니나 다를까 우물물이 말라 갔다. 하지만 그 우물이 있는 땅 주인은 우물을 잠그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우물물이 마르는 것을 염려하여 서로 우물 사용을 조심했고, 그래서 완전히 마르지도, 자물쇠로 잠기지도 않았던 것이다.

이것을 보면서 공동체성과 공공의 것을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지 찾아보다가 사회적 기업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HERI교육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가하게 되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다. 예전에는 영리와 비영리를 구분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는 게 모호해질 때가 있다. 비영리도 일을 하다보면 모금활동이나 수익 창출과 같은 일을 하고, 영리의 경우도 과거에는 개인과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영업활동을 했다지만 모두 그러한 것도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확히 양분된 개념으로 일하지 않는다. 영리와 비영리를 동시에 취하고 영리활동을 하는 것이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적 목적을 이유로 진행한다.

홈페이지의 설명을 보면 더버튼과 에코버튼을 CO-UP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

다. 어떠한 관계인가요.

버튼이 활동한 지 3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나누어 설명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는 앞으로 이렇게 가고자 하는 비전이 있기 때문이다.

더버튼은 우리의 비전을 실행하는 실행단위이고, 에코버튼은 이것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로 가져가는 것이다. 좀 쉽게 설명하면 더버튼은 비전과 목적을 수행하는 단위이고, 에코버튼은 돈을 버는 사업적 일을 하는 단위이다.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은 에코버튼(주)에서 받았다. 그런데 딱 잘라 구분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다. 좀 더 장기적인 모델로서 두 개를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버튼’이라 부른다. 하고자 하는 일의 내용이나 형식에 따라 어느 단위에서 하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를 항상 고민한다.

그럼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버튼의 이름으로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주말환경 놀이터이다. 환경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너무 사망감의 형식으로 다가갔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아이들이 환경을 파괴해봤자 지금 어른들보다 더 했겠는가. 그런데 아이들에게 너무 무겁고 딱딱하게 다가갔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놀이로서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환경놀이터에 와서 환경에 대해 느끼다 가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초창기 환경놀이터라고 하니 친환경적으로 만든 놀이기구 등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마을의 공터에 가서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공터가 환경놀이터가 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환경교육으로 에코슈타인과 에코편스쿨이 있고,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에코레시피(만성공원 내)의 경우는 카페형 커뮤니티센터를 목적으로 단



아기자기 예쁘게 꾸며져 있는 에코레시퍼. 지역의 상품이나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순히 음료를 파는 공간이 아니라 이곳이 거점이 되어서 다양한 환경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할 생각이다. 영복여고 학생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곁에(파지수거 어르신을 위한 입장료 재탄생 프로젝트)' 프로그램, 아주대학교병원 소아과병동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교육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에코슈타인과 에코편스쿨은 어떤 프로그램이고, 함께 참여하는 아이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에코슈타인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복지적 측면도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학 동안 아이들이 계속 머무는 공간인데 자체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번에 3개 지역아동센터와 주 2회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아름다운재단의 개미스폰서 지원금을 통해 지역의 작가들과 더버튼이 함께 진행했었다.

에코편스쿨의 경우는 남창초등학교와 함께 한다. 남창초등학교는 수원 팔달구의 중심부에 있음에도 전교생이 95명밖에 되지 않는데, 교실 한 개를 환

경공간으로 만들고 그곳에 선생님이 상주하며 아이들과 함께 환경 관련 프로그램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도 한다. 아이들은 생태텃밭동아리, 생태습지동아리 등의 활동을 하면서 환경에 대해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한다. 하나의 예로 여름에 너무 더운 날이어서 쾌적한 수업 환경을 위해 에어컨을 틀려고 했다. 그런데 아이들이 먼저 나서서 "선생님, 에어컨 틀면 안되요. 틀지 말아요."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이들이 입에서 먼저 나오는 것이 너무 뿌듯했다.

버튼에서 진행하고 있는 환경놀이(교육)은 '에코FUN놀이터'라는 이름으로 2011년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을 받았습니다. 교육 콘텐츠의 질을 공식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은 교육을 만들고 진행하는 스텝에게는 자부심을,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나 관련 단체(학교)에게는 양질의 교육이 받고 있다는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다보니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더버튼이 만들어진 지 3년이 되었는데 사실 2년까지는 수익이 없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활동을 하다 보니 일하는 것에서 수익이 나오기 시작했다.



남창초등학교에서 진행되었던 에코펠스쿨 모습 (출처:더버튼 블로그)

예를 들어 행사를 하다보면 환경활동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일회성 현수막과 배너, 플라스틱 부스 등이 사용되었다. 이런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강 화골판지를 활용해 저탄소부스를 만들었다. 이러한 것이 소문이 나서 점점 행사부스 제작 의뢰가 들어 왔고, 이제는 하나의 비즈니스모델이 되었다. 환경교육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교구를 개발하고 직접 제작했는데 이러한 것들도 환경교구로 상품화 할 예정이고, 주말환경놀이터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행사진행 부분도 하나의 수익창출 모델이 되었다.

올 6월에 경기도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증 이전보다 지원적인 부분에서 좋아졌나요?

사실 그런 건 없다. 인건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논의 끝에 신청하지 않았다. 어떻게 들릴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자립하고 버티자고 했다. 사회적기업으로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가 라는 고민도 있긴 했는데, 인증을 받고 나니 입찰 등의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욱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외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심리적 동기부여도 되었다. 그만큼 역할도 많아지고 부담도 된다.

수원의 소셜벤처들을 보면 수원을 대표하는 청년사회적기업가들이 있는데 박기범 대표님도 그 중 한 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사적인 친분 말고 사업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놀이기획사 이웃이나, 못골시장 모두 열의와 열망을 동력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많다. 가끔 만나서 서로 웃으며 힘들다 말하면서도 포기하고 싶거나 하기 싫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해서 다들 비슷한 발전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의지도 되고 통하는 것도 많다. 다들 진행하는 분야가 달라서 지금 함께하는 것은 없지만 서로의 영역이 좀 더 공고히 되고 한다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에코레시피에서는 광고에서 재배하는 토마토를 공급받아 토마토주스를 판매하고 있고, 다음 주에 진행되는 행사에서도 광고산 포도를 사용하여 행사를 진행하는데 수원시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내고자 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열의 있는 사회적기업가(대표)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적기업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직이 계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없어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음 조직을 시작할 때는 그러한 부분이 큰 것이 사실이고, 사회적기업가가 열의로 이끌고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갈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버튼이 훗날 제가 없다고 조직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버튼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버튼의 조직 형태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가치와 철학, 비전은 계속해서 지켜지고 그것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3명의 상근직원 외에도 자원활동 등으로 버튼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15명 정도 된다. 그 분들이 처음 활동을 시작하실 때는 가벼운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버튼의 가치와 비전을 함께하면서 좀 더 무게감 있고 철학을 공유하면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HERI 과정 중 선후배와의 만남 자리가 있었다. 거기서 어떤 교육생이 물어왔다. ‘만약 사업이 잘 되고 커졌을 때 대기업이 들어와 그 분야를 잠식하면 어떻겠습니까’ 질문을 받고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생각해보니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쳐서 그 일을 했는데 자본에 잠식당하면 어쩌하겠는가. 하지만 소셜 영역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해 주었다. 그 이유는 이 영역은 단순히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그것의 히스토리를 보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가치와 비전을 가져가는 부분에서 단순히 머니게임만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

사람들에게 버튼이 어떻게 불리길,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어려운 질문이다.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버튼은 버튼스럽다 라는 것이면 될 것 같다. 우리는 활력을 창조한다. 재미와 의미가 있는 일과 그 안에서 변화를 꿈꾼다. 우리의 가치인 “365개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사회의 활력을 창조한다.”는 한 문

장을 실현하는 사람들이면 좋겠다.

박기범 대표는 ‘강약중간약’이라는 말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것은 진지하고 무겁게, 어떤 것은 가볍고 산뜻하게 일의 내용과 형식,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의 맥락은 버튼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비전에 맞는 것이라고 합니다.

버튼만이 혼자 뭔가 큰일을 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조금씩 해나가면서 그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사실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만나 서로 뜻을 맞추고 비전을 공유하면서 돈도 되지 않는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인터뷰를 하다 보니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버튼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활동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기발랄한 수원을 꿈꾸며 버튼이 만드는 새로운 일상이 나와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버튼&에코버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84번길 23, 108

070-4118-4331

<http://the-button.tistory.com>

- 더버튼의 가치
- 365개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사회의 활력을 창조한다.
- 3가지 실행원칙
1. 시민들의 환경소통 증진
 2. 미래세대를 위해 뜻있는 도전을 하는 인재육성
 3.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 대안 제시

2012 수원 평생학습동아리 한마당

평생학습동아리, 알고 계신가요?

발행호 (제17호) 2012. 10. 24. (수)
글 이보라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10월 13일 토요일, 수원시평생학습관은 아침부터 북적거렸습니다. 비어 있던 앞마당은 간이무대와 파라솔 테이블로 채워졌고, 대강당과 학습관 복도는 학습동아리들의 멋진 작품들과 체험마당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원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학습동아리들의 축제, 「2012 수원 평생학습동아리 한마당」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교육분과(7개 기관)와 학습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한마당에는 수원 지역의 총 28개 학습동아리들이 배움과 체험, 공연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수원 방방곡곡에서 배움의 열정과 기쁨으로 함께하고 계신 학습동아리 회원 분들은 그동안의 숨쉴 틈을 뽐내고, 평생학습과 학습동아리에 대해 생소한 시민들에게 함께 학습하는 것의 즐거움을 나누어주기 위해 열심이었습니다.

학습동아리들이 펼치는 열린배움터

학습관 1층 거북이공방과 3층 예체능실에서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바로 학습동아리들이

직접 꾸민 열린배움터입니다. 학습동아리는 서로 관심 있는 주제를 함께 배우고 학습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전문 영역에 강사로 나서기 위한 모임일 수도 있고, 좀 더 깊은 취미교양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순히 어떠한 것에 대한 얹이 좋아서 모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열린배움터는 이렇게 스스로 학습한 내용들을 시민 분들에게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오전에는 버드나무용단의 ‘한국무용 배우기’와 알기 쉬운 경매 동아리의 ‘전세금으로 내 집 마련 노하우’ 강좌가 열렸고, 오후에는 금울리고 동아리의 ‘가야금 배우기’와 수원사랑교육연구회의 ‘거중기 만들기 체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가야금 배우기’ 배움터였습니다. 동아리에서 직접 준비해 준 가야금을 앞에 두고 모인 사람들은 정말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했습니다. 음악에는 남녀노소가 없다고 하더니, 함께 배우는 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학습동아리 회원의 설명에 맞춰 한 음 한 음 튕기며 가야금을 배우는 모습이 사뭇 진지했습니다. 가야금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부터 가야금을 다루는 법, 음계 설명이



금율리교의 '가야금 배우기' 배움터(좌)와 수원사랑교육연구회의 '거중기 만들기 체험' 배움터(우) 모습



학습동아리 한마당의 다양한 체험 마당 모습

끝나고 기본 음계를 이용해 강좌 마지막에는 오늘 처음 가야금을 배운 사람들이 아리랑을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두 시간의 짧은 배움으로는 기초 중의 기초만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어렵고 나와 별 상관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의

삶과 배움으로 함께 할 수 있다고 알려준 것이 열린 배움터의 묘미이자 학습동아리가 가진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멋진 작품 전시와 프리마켓, 그리고 체험

대강당에는 촘촘히 테이블이 놓여 있습니다. 학습동아리는 그동안 만들었던 작품을 판매하고 한마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중창단(좌)과 영통색소폰동아리(우)의 공연모습

당을 즐기기 위해 찾아와주신 시민 분들에게 체험의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평소 한복을 입을 일이 없는 아이들이 고름을 매고 갓을 써 보는 한복입기 체험도 하고, 은은한 차를 마시고 다식만들기 체험을 하면서 우리차와 예절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규방공예로 만든 브로찌나 리본과 형짚을 재 활용한 장미꽃과 사과 만들기, 손글씨 조각보 프리마켓은 즐거운 체험과 함께 학습동아리들의 멋진 솜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수원YMCA역사해설가연구회에서는 아이들에게 재미난 놀이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바로 '퍼즐로 만나는 수원 화성'인데요, 수원 화성 전경을 직소 퍼즐로 만들어 5분 안에 맞추는 것입니다. 제한시간 안에 퍼즐을 맞추는 재미와 함께 수원 화성의 위치와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징검다리에서는 가정재무관리와 관련하여 아이들에게는 돈의 가치와 용돈 관리 방법을 교구를 통해 설명하고, 어른들에게는 가정재무의 건전성을 살피며 보험다이아트방법, 통장 쪼개기 등 설명하고 상담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학습동아리는 일차적으로 자신의 학습과 성장을 위해 구성된 모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개인과 모임의 학습을 넘어 지역사회와 어떻

게 나누고 함께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합니다. 학습공동체를 넘어서 지역사회와의 연대와 네트워크를 통해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지역에 학습동아리가 많아지면 개개인의 삶도 풍성해지고 지역이 건강해지는 이유입니다.

숨씨 뽐내기 공연 한마당

한마당 메인 무대에서는 학습동아리들의 다양한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풍물대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백발이 성성한 노년의 신사가 연주하는 아코디언과 색소폰부터 시각장애 아이들이 손잡고 부르는 예쁜 동요 공연, 신나는 난타 한 판, 팬플룻오카리나강사 분들이 연주하는 소리의 향연, 그리고 재활용밴드의 특별 축하공연까지... 공연은 가을 햇살 아래서 더욱 빛났습니다.

결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 한마당이 처음 공연이라는 장애아동 중창단과 지역아동센터 아이들로 구성된 꿈쟁이오케스트라는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더욱 빛나는 활동이 기대됩니다. 영통색소폰 동아리와 수원앵콜색소폰동아리는 지역의 수원보훈요양원, 화성 행궁광장, 중앙양로원 등에서 다양한 공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그 연주도 수준급입니다.

함께 만나 연주하고 공연하는 즐거움은 어떤

것일까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짜릿함과 뿌듯함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연 활동을 통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생각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도전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2 수원 평생학습동아리 한마당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학습동아리들의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함께 배우면서 성장하고 이것이 자신과 가족, 이웃, 지역사회에 까지 번지는 날, 세상은 조금씩 달라질 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배움과 나눔으로 조금씩 차오를 때, 그 때 우리는 삶이 더욱 풍요롭다 느끼지 않을까요?

함께하는 평생학습, 학습동아리

학습동아리란?

평생학습의 꽃이 학습동아리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평생학습에서 학습동아리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습동아리는 무엇인가요? 마음맞는 사람들끼리 가끔 모여앉아 관심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정보를 나누는 것을 학습동아리라 말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평생학습에서 말하는 학습동아리는 그것과 조금 비슷하지만 또 다릅니다. 학습동아리란 소모임 중심에서도 같은 주제에 관심이 있는 성인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는 집단을 말하며, 일정한 인원의 성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만나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통해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고 공동체를 지향하는 모임입니다. 즉, 단순히 몇 번의 만남과 이야기, 활동을 학습동아리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학습동아리의 첫 발자국이 그것이 될 수는 있겠지요. 처음부터 뭔가 번듯한 이름을 만들고, 활동을 시작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통의 주제(천목이나 사

교가 아닌)를 가지고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토론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학습동아리라는 공동체가 형성될 것입니다.

학습동아리의 몇 가지 특성

1. 학습동아리는 개인과 공동체가 만나는 곳이다.

학습동아리에서 개인은 공동의 문제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후원과 격려를 경험합니다. 공동체 역시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은 개개인의 힘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개인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이해 할 수 있게 되며, 개인의 자발성에 기초하지 않는 공동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 학습동아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학습동아리는 ‘학습’하는 소모임이므로, 만남과 토의는 언제나 이전의 결과를 갱신하거나 개선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학습동아리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가능합니다.

3. 학습동아리는 계속 퍼져 나간다.

내부 성원 간, 학습동아리 간, 지역사회 간의 연대와 상호작용은 학습동아리를 유지시키는 힘의 근본이자 확신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학습동아리로 맺어진 네트워크는 끊임없이 다시 생성되고 확산됩니다.

수원의 학습동아리

수원에는 2012년 10월 현재 약 300개의 학습동아리가 등록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 평생학습기관이나 단체에서 강좌 등을 듣고 이후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 만들어진 동아리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아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 보다 이후 어떻게 활동하는지가 더욱 중요하겠죠?

학습동아리 등록하기

- 대상 : 수원시 내에서 활동하는 있는 학습동아리
- 등록분야 : 어느 주제든 토론과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모두 가능
(예 : 가정생활교육 <부모교육> 분야 / 지역사회 자원활동 분야 / 직업 및 지도자 양성 분야 / 전통문화 이해 분야 / 취미분야 / 건강 및 보건교육 분야 / 기초 및 교양 분야 / 국제문화 이해 교육분야 등)
- 등록방법 : 수원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등록 후 수원시청 교육청소년과 (별관5층) 방문접수
- 준비자료 : 학습동아리 이름, 목적 내용, 모임방법, 활동사항 등을 포함하는 자료
- 모집기간 : 연중 수시
- 문의 : 수원시청 교육청소년과 (031-228-2199)

수원시평생학습관 동아리실 이용하기

- 이용공간 : 소강의실, 중강의실, 컴퓨터실, 예체능실
- 방법
 1. 사전 이용문의 _ 교육팀 031-248-9906
 2. 사용신청서 작성 _ 홈페이지 학습동아리 게시판에서 양식 다운로드
 3. 접수 _ syrmong@suwonedu.org

수원지기학교

역사와 문화, 현장에서 스스로 배우는 삶의 가치

발행호 [제18호] 2012. 11. 07. (수)
글 이보라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우리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TV와 신문 지면을 채우는 아이들의 자살 소식이 무겁게 마음을 짓누르고, 학교폭력과 왕따 문제가 입에 오르내리는데 가끔은 누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겉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사건과 논쟁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제 아무리 질풍노도의 시기라 말하지만 바람이 부는 대로 휘둘리는 역세와 같은 아이들을 잡아주고 같이 걸어가갈 수는 없을까 생각합니다.

〈수원지기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 우연한 계기로 소개를 받아 알게 되었는데 수원에 자리 잡은

지 어느덧 7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7년의 세월동안 아이들과 함께 움직이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배움을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보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자라났다고 합니다.

지기학교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담한 내부에 알차게 자리 잡은 교육장들이 보였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안내해주신 곳으로 따라 들어가니 베란다에 멋진 정자가 한 채 놓여있었습니다. 시골마을길 나무 아래 놓여있는 것 같은 정자에 앉아 인터뷰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가을 녘 산들바람이 부는 들판에 앉아있는 것 같은 착각이 일었습니다.

지기학교에 가는 중 인터뷰에 동행한 선생님은 왜 <수원지기학교>인지 이름이 궁금하다 했습니다. 사전 정보가 없는 관계로 '수원의 무엇을 지킨다는 건가?'라는 추측만 할 뿐이었습니다. 신영주 교장선생님께서 건네주신 「지기자우」소식지 표지를 보니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우리는 '수원지기 학교'라고 띄어 읽었는데 알고 보니 '수원 지기학교'였던 것입니다. '지기'라는 뜻이 지기(知己)라 하여 세상에서 가장 큰 공부는 나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고, 문지기·나루지기처럼 어떤 역할을 맡아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좋은 친구라는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저주기에 익숙한 사람이 되자는 또 다른 뜻도 있더니... 하나의 단어와 단체의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많은 의미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처음 지기학교가 생겼을 때 고양시와 서울 노원구에도 함께 생기면서 수원이라는 지역명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모두 없어지고 수원지기학교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기 전 또 다른 궁금증은 '왜 영통인가?'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영통은 아파트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통지역에 이러한 단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칠보산 자락의 <칠보마을공동체>처럼 조금씩 태동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들이 모여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상도 빔나갔습니다. 처음 지기학교를 만든 분이 이전부터 수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지역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사비를 털어 장소를 구하고, 임대료를 내면서 영통지역에 자리를 잡으신 거라고 합니다.



수원지기학교 신영주 교장선생님. 지기학교 2대 교장선생님이다.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맹이와 작은 일렁임

어떠한 사업(활동)을 진행할 때 주민의 요구와 힘이 모여 추진력을 가지는 것, 당연히 의미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생각과 욕구는 있는데 모아내기 어려울 수도 있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bottom-up도 중요하지만 잔잔한 호수에 누군가 던지는 돌맹이도 중요합니다. 작은 파문이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소중하다 확립화시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역과 사람, 환경에 따라 모두 다른 방식과 내용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일 것입니다. 하나의 단체가 생기고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가면서 지역의 활동을 모으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기학교는 역사·문화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현장교육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인간의 삶입니다. 역사를 알아야 선택할 수 있고 그것에 책임 질 수 있습니다. 살면서 중요한 삶에 대한 방향과 가치관을 설정할 때 역사 안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역사교육은 단순히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달달 외우는 국사교육이 아니라 과거의 삶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가치를 배우면서 지금의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일련의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교육이 단순히 문화재

현장답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개로 환경과 생태, 문화에 대해 사고하고 자기중심을 세워가는 현장인 것입니다.

“학부모님들이 말해요. ‘학창시절 역사시간이 정말 싫고 재미없었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겠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잘 배우게 하고 싶어요라고 말이죠. 그만큼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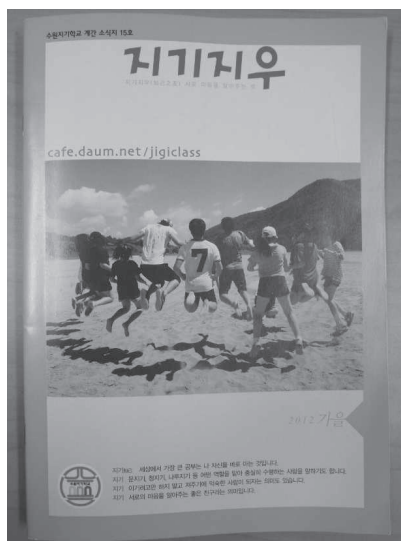
주말형 대안교육활동의 발자국

지기학교는 대안교육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안학교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나라 보편적인 대안학교는 오전부터 오후까지 일정 시간,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공교육에서 배우는 국영수 위주의 과목을 배우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의 정규수업과정에 맞추어 일련의 수업을 진행합니다.지기학교는 이러한 대안학교에 대한 목표도 일정부분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주말형 대안교육활동을 진행합니다. 대안교육에 대해 관심이 있고 참여하고 배우고 싶지만 현실적인 고민 등의 다양한 이유로 실천하지 못

하는 학생들이 주말동안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이해하자면 주말형 방과후교실(놀토교실) 어디 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교육방식이 아닌 조금 다른 색깔과 방식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참여하는 아이들은 게으름과 귀찮음을 이기고 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입니다. 어른들도 주말이면 늦잠도 자고 싶고, 아무것도 안하고 빈둥거리고 싶기도 하니까요. 아이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눈을 비비며 찾아오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부모의 등쌀에 떠밀려 오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뭐든지 자발성이 없다면 지속가능함도 없으니까요.” 동아리활동은 대부분 1년 단위로 진행되는데, 계속 참여 비중이 20%정도 된다고 합니다. 4년을 참여하는 아이도 있고 대학생이 된 후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참석한다고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지기학교는 청소년자원봉사터전인증기관인데 활동 후 카페에 활동후기를 쓰지 않으면 자원봉사 시간을 인증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반발도 많았어요. 어떤 기관에서는 2시간만 해도 4시간을 인정해주는데 여기는 글 안 썼다고 활동한 시간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글로써 남기고 활동을 되돌아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아이들과 부모님들도 이해하십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 스스로 활동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약속시간을 잘 지키자 또 하나는 인사를 잘하자 입니다. 약속시간을 지키는 것은 성실에 관한 문제이고, 인사는 생활의 기본이라



아이들의 글로 채워진 계간 소식지 '지기지우' 올 여름 모꼬지를 갔을 때 찍었다는 표지 사진이 정말 생동감 있다.



사무실 벽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각종 상장들. 지기학교 활동을 응원해주는 것 같다.

고 생각해서입니다. 어디를 갈 때 줄맞춰 안가도 되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활동에 제약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아이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높이고, 이를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원칙인 것입니다.

동아리 활동에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이 함께 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는지 궁금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어린 학생들을 잘 챙겨요. 그리고 먼저 경험해보았던 아이들이 처음 온 친구들을 챙기고요. 처음에는 어색해해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 친해지고, 동아리 그룹 안에서 유기적으로 잘 활동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선배라고 후배들을 억박지르거나 귀찮은 일을 시키고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잘 챙기려고 하고 술선수범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편견이 작동하지만 않는다면 아이들은 함께 더 잘 커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와 부모교육을 통한 가정과 지역사회의 변화

지기학교는 학부모 수업도 함께 합니다. “아이들의 변화를 위해서는 부모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잖아요. 저희는 학부모들에게도 역사교육을 진행하는데 아이들 교육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교육의 전부는 아닙니다.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학부모의 가치관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죠.” 지기학교의 카페를

보니 한 학부모가 남긴 짧은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한국사 강의 두 번째를 들었습니다. 저녁식사 자리에서 남편과 아이에게 위만조선 이야기도 하고, 그 후에 부여, 옥저, 동예 등을 차례로 설명을 했더니 남편은 어떻게 그걸 한 번 듣고 잘 설명하느냐며 감탄하고, 아들은 보충설명을 해줍니다. 샘 덕분에 저녁식사 시간이 풍성했습니다. 감사드려요^^’ 이 짧은 글을 통해 지기학교 부모교육이 가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집약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건강함이 지역사회의 건강함으로 커져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부모 교육을 통해 어머니들은 자신의 숨겨져 있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는 기회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기학교 선생님은 모두 17분입니다. 11분은 정규 강사이며, 6분은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모두 학부모교육을 통해 강사가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경력 단절로 오랜 시간 집에 계시던 분들이 교육을 통해 강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실무적인 행정력은 조금 부족하다 걱정을 하시지만 직접 작성하신 문서로 청소년동아리인 ‘수지청’이 올해 전국 직지문화제 청소년 봉사대상 금상을 수상하였다고 하니, 역시 모든 사업은 말이나 글보다 그 내용과 깊이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수입 부분이나 행정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도 하고, 경기도로부터 청소년자원봉사터전인증도 받으며 하나 둘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후원금과 교육수익 등에 의존하는 수익 구조는 불안한 부분이 있고, 같이 하는 선생님들에게 강의료도 넉넉히 드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과거 2년 정도 수입이 없어 정말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임대료 내기도 어렵고 했죠. 근데 그 시기도 잘 버텸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려워도 잘 해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죠.” 활동에 대한 자부심과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긴 하지만 지역아동센터 등에 교육나눔활동을 다니기도 하고, 영통 이외의 수원지역을 찾아 교육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원을 자신들의 틀 안에만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발맞춰 나가는 활동인 것입니다.

“얼마 전 희망제작소에서 진행하는 모금전문가학교 심화과정을 들었는데 가치와 비전에 대해 끈임 없이 물어오시더라고요. 사실 지금까지 가치와 비전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바빴죠. 이제 우리의 가치와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하나의 단어와 말로 표현해 놓지는 않았지만 지기학교가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바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현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굳건히 해왔고 앞으로도 분명 그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수원지기학교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38-10 윤현빌딩 7층

031-205-3022

<http://cafe.daum.net/jigiclass>

설낭(說囊)_이야기 주머니

거대 도시 속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발행호 (제19호) 2012. 11. 21. (수)
글 이보라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역사이자 문화를 반영합니다. 때문에 기록의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설낭의 김형아 대표를 만났습니다.

설낭은 2010년 수원시민창안대회 입상팀입니다. 지금까지 더버튼이나 이웃 등 창안대회 배출(?)팀들을 만나면서 매번 궁금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왜 참여하게 되었는지입니다.

앞집에 누가 사는지 아시나요? 옆집엔? 아래윗집에는 누가 사나요?

이 질문에 모두 답하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것이란 생각은 들지 않지만 그리 많으실 거란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까지 들어 줄 여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과 마을을 이야기하지만 그 또한 나의 생활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또 다른 목소리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수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원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합니다. 개인의 이야기는 시대의

창안대회에는 어떤 계기로 참여하시게 되었나요?

사실 별 생각이 없었어요. 사당역에서 집에 가는 길에 지하철 출구 옆에 붙어 있던 창안대회 광고를 봤는데 재미있겠다 생각했고 친구를 꼬셔서 참가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서는 제가 직접 실행해야 하는 건지 몰랐어요. 아이디어만 내면 되는 줄 알았죠.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키는데 알고 보니 직접 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좀 놀랐어요. 그래도 그냥 했죠.

사실 김형아 대표는 창안대회 광고를 보기 전 개인적인 고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건축학을 배운

학생으로서 우리나라 건축물들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 생태계에 배척되게 설계되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 저지하는 활동에도 참여를 했는데 함께 하던 친구가 어느 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문제제기 말고 이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지역에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고민들이 있던 와중에 창안대회 포스터를 본 것이고, 이것이 지금의 설날까지 이어지게 된 것 입니다.

삶은 우연의 연속이고 매 순간 기회는 주어진다고 하는데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붙잡고 자신의 것으로 실현시키는 사람은 몇 사람되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준비된 사람만이 잡는 것이란 자기계발 서적들의 레퍼토리가 떠올랐습니다. 책 속의 말이 괜한 미사여구는 아닌 것이죠.

설날이 창안대회에 제출한 아이템은 구술 프로젝트는 아니었습니다. 그 때는 화성 여행에 관한 안내문 겸 스토리북이었습니다. “화성을 돌면서 주요 코너마다 퍼즐조각을 나누어 주고 그것을 맞추면 하나가 되는 게임 형식의 것과 스토리북 같은 여행북 성격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상품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죠. 수익성이 안 맞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다른 형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는 형태를 조금 변형해 화성 여행 앱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앱 개발은 책자 형식보다 초기 비용도 적게 들고 스마트폰 시대에 맞춰 업데이트 등이 착실히 이루어진다면 화성 여행의 또 다른 시너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현재 하고 계신 청소년 구술사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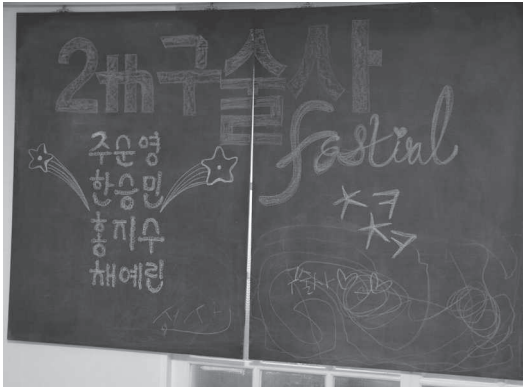
제가 건축 공부를 했어요. 건축을 바라보다 보니 도시가 보이고 그러면서 지역도 함께 보였습니다. 다시 지역에서 사람으로 사람의 이야기로 점차 관심이 좁혀지면서 그 안의 것들을 보게 된 거죠. 청소년 구술사 프로그램은 작년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이에요. 약 6개월 가량 진행했는데 한 달 동안은 구술의 개념부터 시작해 인터뷰 방법, 후속작업 방법 등을 교육하고 그 후에 저희와 함께 다니면서 직접 구술 작업을 진행했죠. 그리고 구술 작업이 종료된 후에 한 분 한 분 생애사 책자를 발간했어요.

올해는 4명의 청소년이 함께 했고, 지난해에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어요. 사실 작년 프로그램이 끝나고 올해는 한 달에 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겠다고 했더니 꺼려하시고 왜 돈을 받는지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올해 함께한 아이들은 모두 작년에 함께 했던 아이들에게요. 작년에는 구술 작업을 중심으로 진행했는데 올해는 후속 작업으로 구술한 내용을 풀고 정리하는 것도 함께 진행했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아이들이 엄청 바빠요. 주중에 학교가 끝나면 학원 다니기도 바쁘고, 중간고사·기말고사 시험기간에는 시간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땀 아예 3주 정도 프로그램을 쉬고 방학기간에 집중적으로 작업을 해요. 구술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고 싶지만 아이들이 너무 바빠서 저희 마음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계속 이야기 나누고 함께 하려고 하죠.

내년에는 대학생들까지 포함해서 해 볼 생각이에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홍보를 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함께 하려고요. 중학생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르신들께서 아이들에게는 쉽



얼마전 끝난 2기 청소년 구술사 프로젝트, 축하파티를 하였다고 한다.

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도 있고요.

청소년 구술 프로그램은 단순히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이 근·현대 역사에 대해 이렇게 지식이 적은 줄을 몰랐어요. 오히려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국사시간에 배우니 알고 있는데 근·현대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예를 들어 6·25 전쟁이 뭔지는 아는데 1·4후퇴는 모르고.. 세부적인 역사는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배경 지식이 없다보니 못 알아듣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인터뷰 작업이 원활히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공부하면서 아이들은 저절로 근현대 역사 공부를 하는 거죠. 저는 이러한 것들이 시민교육의 한 축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은 구술 작업을 하는 도중 어르신이 시집을 때 직접 지은 한복 이야기를 하셨고, 아이들은 그 한복을 직접 입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누에를 쳐서 실을 뽑고 직접 한복을 짓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이야기이고 그것을 입어보는 것은 박물관 유물 안에 걸려있는 근대복식을 보고 설명을 읽는 것과는 비교하기 힘든 경험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술 작업을 진행한 분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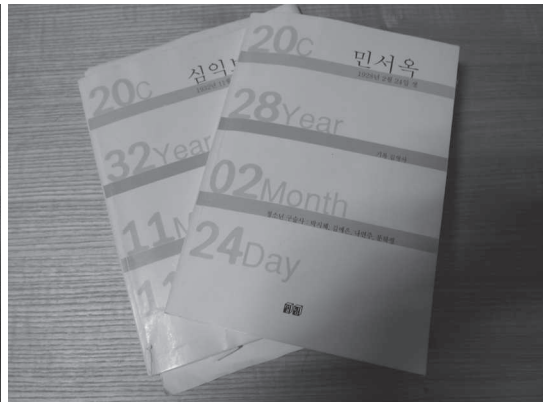
작년하고 올해를 합해서 8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엮어 생애사 책자로 만들어서 냈는데 사실 저희가 읽어도 너무 재미가 없어서 읽히지가 않는 거예요. 구술 작업 할 때는 정말 재미있게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책으로 만들었을 때 한계가 있는 거죠. 많은 이들이 편하게 읽기 위해서는 적절한 구성과 편집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직 저희가 작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사 작업을 하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개인의 역사를 다룬 생애사이니 만큼 사생활이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오픈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에 대해 이야기의 원 주인에게 어느 정도 비용을 드려야 하는지 등도 아직 정리되지 않고 고민인 부분이죠.

어르신 한 분의 이야기를 묶을 때 평균 6번 정도 방문한다고 합니다. 질문을 잘 정리해서 갔다고 해도 다녀와서 보면 꼭 놓친 부분이 있고, 이야기가 더 풀어야 하는데 끊어져서 더 이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이야기를 해도 될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여야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에다 유명한 기관도 아니다 보니 한 두 번의 인터뷰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요. 어떤 어르신의 경우는 자신의 이야기가 책자로 다 만들어진 후에야 사진을 주시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과 이야기가 쌓여서 수원, 우리 이웃의 이야기가 모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 사회적기업이시던데, 어떻게 등록하게 되신 건가요?

사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생각도 없었죠. 일을 하다 보니 주변에서 사회적기



설날의 사업 결과물, 화성 홍보리플렛(좌)을 비롯해 생애사 책자(우)까지.

업으로 해보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셔서 그냥 하면 되는 건 줄 알았고 제안해주신 분이 해주시는 건 줄 알았죠.(웃음)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사회적기업으로 방향을 정리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심사 서류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준비하면서 사회적기업의 매력을 찾았고 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짜여지지 않은 형태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설날의 어떤 사업에 대해 물어보면 김형아 대표는 공부해서 했고, 공부해서 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구술 작업도, 리플릿과 책자 제작도, 앱 개발도... 모두 관련 서적을 보며 공부하고, 서툴지만 조금씩 만들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알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배워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잘 알지 못하면 시작하기 두렵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설날은 결정하고 시작하고 결국에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었습니다.

김형아 대표가 보여 준 몇 가지 자료 중 하얀색 열쇠가 그려진 작은 책자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진행되었던 수원화성 스토리텔링 공모전에 구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이 참가해서 입상을 했는데 그 자료입니다. 아이들이 먼저 참가하기를

원해서 저희는 약간의 조언만 해주었는데 입상을 한 거죠. 입상 성적에 어떤 아이는 실망하고, 어떤 아이는 기뻐했지만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는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설날의 방식이 함께하는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매우 건강해 보입니다.

어느 책자를 보니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도시는 있으나 마을이 없고, 사람은 있으나 이웃이 없다.”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네 모습을 한마디로 압축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그저 비슷한 공간을 공유하고 있을 뿐 그것이 나의 이웃이라던지, 나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삶, 내 공간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라는 이름은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지역을 보고, 지역의 사람과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구 110만 수원이라는 대도시에서 소소하지만 소중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기록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함께 귀를 기울여봅니다.

설날

<http://sullang.tistory.com>

마음샘정신재활센터

서로의 가능성을 믿고 느리게 더 느리게 함께 가는 공동체

발행호 (제20호) 2012. 12. 05. (수)
글 이보라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느리게 산다는 것을 무엇일까요? 이렇게 바쁜 현대 사회에서 ‘느리게’라는 말은 ‘게으름’의 동의어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게으름을 느림의 미학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피에르 쌍소가 지은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란 책에서는 느리게 산다는 것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것, 다른 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 가장 넓고 큰 가능성을 열어둘 것 등을 이야기 합니다. 느림은 게으름이나 일상에서의 벗어남이 아닌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을 바로, 멀리 내다보는 것을 뜻하는 것일 겁니다.

마음샘정신재활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학습관 1층 담쟁이카페에서 일하시는 회원 한 분을 만났습니다. 몇 번 뵙지 않아 당연히 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보시더니 반갑게 인사해주셨습니다. 무슨 일로 왔냐며 물어보시더니 사무실 안까지 안내해주셨습니다. 저를 알아봐주신 것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샘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최은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마음샘은 어떤 분들이 함께 하시나요?

저희는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로 관련 장애를 가지고 계신 회원분들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현재 총 93분이 계시는데, 병원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은 7분 정도 되시고, 취업 활동을 나가고 계신 분은 약 40여 분 정도 되십니다.

전체 장애 유형을 보면 조현병(정신분열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65%, 기분장애(우울장애 등)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25%, 기타 복합 질환 등을 가지고 계신 분이 10% 정도 됩니다.

홈페이지를 보니 '서포터즈활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존의 자원봉사와 다른 점이 있나요?

자원봉사라고 하면 누가 누구를 도와준다 라는 시혜의 개념과 약간 우위 개념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서포터즈라고 말해요. 저희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해주시고 활동해주시는데 거기에 동등한 의식을 부여하는 것이죠. 서포터즈 뿐만이 아니라 용어의 선택에서 의미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더욱 주의해서 이야기하고,



마음샘정신재활센터 홈페이지. 기관명 대신 '마음샘공동체'라고 적혀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안에 공동체정신·평등정신을 담아내려고 노력하죠.

마음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공동체 정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방적인 지원과 한 방향 소통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행동하고 성장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는 조직과 사업, 프로그램 곳곳에 묻어나 있습니다. 1층 사무실 문을 열면 한 가운데 커다란 회의 테이블이 있는데 이것은 사무실이 직원들만의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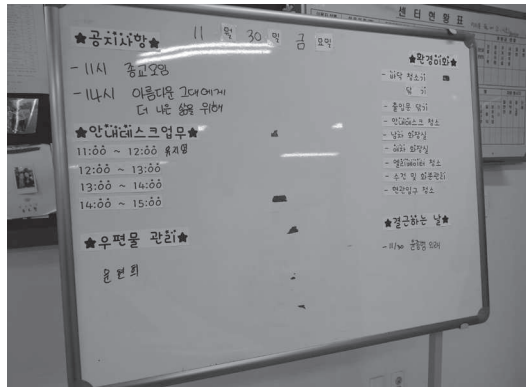
“저희는 사회복지사와 회원을 딱 잘라 분리하지 않아요. 사무 공간도 모두 공유해서 쓰고 있죠. 직원들이 사무를 보는 공간(책상)은 있지만 전체 분리하지 않고 함께 공유합니다.”

이러한 것은 마음샘의 조직도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조직도를 보면 시설장과 클럽장이 같은 위치에 있어요. 클럽장은 회원분들 중 6개월에 한 번씩 투표를 통해 선출합니다. 각 팀별로 회원팀장도 있어요. 회원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팀을 선택하고 그 중에 회원팀장을 선출하는 것이죠. 선출된 회원팀장은 매일 오전 회의를 진행하고 출석 관리를 하는 등 역할을 맡으십니다. 회원 분들이 이런 역할을 맞게 되면 그 자신감도 높아지고 책임감도 강해

지십니다.”

사무실 커다란 칠판에는 안내데스크부터 청소, 관리 등 다양한 업무가 적혀 있었습니다. 원하는 회원은 자신이 원하는 업무와 시간대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그 업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함께하고 역할과 책임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작은 업무라도 함께 역할을 나누고 책임을 다하는 마음샘

마음샘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나요?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사회재활프로그램, 두 번째 직업재활프로그램, 세 번째 지역사회연대 프로그램이지요.

정신사회재활프로그램은 클럽하우스 연구모임, 마음샘FC, 샘과 그림(전문미술가와 함께하는 미술 프로그램), 아름다운 그대에게(여성회원을 위한 미용 프로그램), 인권 따라잡기, 정책프로그램, 정신건강교육 등의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한 음악회, 정신건강 및 인권 관련 토론회 등 비정기적인 프로그램 참여도 있습니다.

직업재활프로그램은 취업 전 훈련 프로그램으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작성법, 천연비누 제작 및 판매, 회원과 고용주가 함께하는 고용주 간담회, 취업장 사례관리, 해외연수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 중 몇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는 ‘인권 따라잡기’ 프로그램입니다. 인권 따라잡기는 회원이 직접 준비와 진행을 맡아 최근 이슈가 되는 문제나 인권에 대해 주제를 정하고 찬반토론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실무자가 준비하고 지정한 프로그램에 단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내용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이상적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현장에서는 실제 진행하기 힘든 프로그램입니다. ‘인권 따라잡기’뿐만 아니라 타 프로그램 진행에서도 회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마음씨의 철학이 보였습니다.

또 하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입니다.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취업한 회원들이 본인의 월급 중 일부를 모아 그 돈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프로그램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총 4회를 진행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취업한 회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해외연수라는 것이 매개가 되어 2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미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으며, 해외연수를 통해 인식의 전환과 시야 확장이 가능하고, 개인의 자부심이 타 회원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샘에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보호작업장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음샘의 철학과 궤를 같이합니다. 회원들은 기관 안에서의 활동이 아닌 지역 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 안에서 운영하는 보호작업장이 아닌 치밀한 취업 훈련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 분들의 취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 취업처가 들어오면 내부 게시판에 전체 공지를 합니다. 그러면 취업을 하고 싶으신 분이 거기에 신청을 하시죠. 또한 스스로 의지를 표현하지 않

서도 적절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는 분께는 저희가 격려하고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력서를 내고 취업처와 연결을 하게 됩니다. 회원 분들의 욕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지만 전문가의 입장에서 회원 분들이 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역사회 안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합니다. 사실 본인의 의지와 욕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들의 경우 불안감과 걱정 때문에 취업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역량과 의지로는 취업이 가능한 분이 가족의 반대로 취업이 안 되실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독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과 같은 취업난에 정신장애인의 취업이라면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고용주와의 신뢰관계이지 않을까요?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고용주 간담회 등을 통해 신뢰 관계를 축적하는 것이 마음샘의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회원과 가족 중에는 지역사회에서 강사 활동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대학생이나 다른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며 더 나은 생활을 꿈꾸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원 취업 현황표에 ‘전문강사’라는 항목으로 회원들의



한 쪽 벽면을 채우고 있는 마음샘의 역사. 기관이 받은 상장부터 회원들의 각종 자격증까지 전시되어 있다.

이름이 붙여지기를 희망하신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경우는 가족강사양성프로그램을 통해 강사로 양성 되는데 현재 전체 가족 중에 1/3 정도는 양성과정을 마치셨고, 가족회장님 등 몇 분께서 많지는 않지만 꾸준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학습관 1층에도 마음샘 회원분들이 운영하는 담쟁이 카페가 있습니다. ‘건강카페 샘’과 관련하여 소개해주세요.

‘건강카페 샘’은 작년 6월에 장안구보건소에 오픈한 것을 시작으로 평생학습관, 권선구보건소, 수원차량등록사업소, 수원시장업지원센터 등 총 6곳(예정 1곳 포함)을 운영 중입니다.

처음 운영하게 된 계기는 회원 분들이 일할 기회와 공간이 없다는 현실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카페 사업을 통해 회원 분들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전문성을 향상시켜 직접 일하는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되

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모두 공공기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는 카페가 소통의 창구이자 문화 형성의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지역의 일원으로서 자연스럽게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이 회원들이 열린 공간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는 가족들의 변화입니다. 가족들은 회원 분들이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염려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직접 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통해 가족들도 회원을 더욱 믿고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카페 샘이 운영된 지 1년 4개월 남짓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6곳 운영이라는 것이 조금 놀라웠습니다. 비법을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회원들의 열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이 하고자 하는



커피를 내리고 있는 ‘건강카페 샘’의 바리스타.
학습관 1층 담쟁이카페에서도 맛볼 수 있다. (제공:마음샘정신재활센터)



마음이 모이고, 그것에 저희의 지원이 더해져서 가능했다 생각합니다.”

외부에 있는 카페로 나가시기 전 회원 분들은 마음샘 3층의 공간에서 직원과 사무실을 방문한 손님들 상대로 커피를 만들어 보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직업 훈련을 하고 계셨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고 경험한 것들이 쌓이면 지역사회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주민들의 열린 마음도 필요할 것입니다.

일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전문가로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힘이 듭니다. 제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것이 회원 분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과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부딪칠 때 어려움을 느낍니다. 정신장애인은 다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비해 사회적 편견이 더 많습니다.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장벽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해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장애 등록 재심사를 하는데 이 때 등록을 다시 못 받으시면 취업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이 지원의 대상이 안 되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지요. 지속적인 개입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면에서 제도가 현실을 따라주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떠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신건강 예방교육이나 초기 정신질환 발병 시 초기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신건강교육은 지역주민들에게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 교육과 함께 요즘 대두되고 있는 자살예방교육, 스트레스 조절 교육 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교육의 경우 학교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교육이 되었잖아요. 정신건강교육도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정신질환이 생겼을 때 초기 개입 정도에 따라 정신장애에서 더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속적인 것으로 풀려고 하거나 종교적인 관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정신과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샘 홈페이지 인사말에는 “느리게 더 느리게”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회원분들과 직원분들이 모두 하나의 방향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바르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게 귀 기울여주고 서로의 가능성을 믿고 함께 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너의 미학이지 않을까요?

마음샘정신재활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6-2

031-242-0877

<http://www.ikpr.or.kr>

만나행복한홈스쿨 지역아동센터

이 곳은 내 편!!
아이들을 위한 또 하나의 보금자리를 다녀오다

발행호 (제21호) 2012. 12. 19. (수)
글 김소라 수원시평생학습관 시민기자



인터뷰에 응해 주신 김분녀 센터장님(우)과 강춘금 사회복지사님(좌)

인터뷰를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네이버 해피빈에서 ‘만나행복한홈스쿨’에 모든 콩을 기부하였습니다. 그동안 블로그 활동을 해 오면서 무심코 쌓였던 콩들이 12,500원이나 되었더군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용도를 몰라서 그냥 두었는데, 쌓인 콩으로도 기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마침 찾아보니, ‘만나 행복한 홈스쿨 지역아동센터’의 해피빈 후원금 모금함도 있었습니다.

이번 기관탐방으로 찾아간 곳은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에 위치한 <만나 행복한 홈스쿨 지역아동센터

>(이하 만나행복한홈스쿨)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요? 빈곤 가정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제 2의 가정과 같은 기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4,003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다고 하네요. 주로 저소득층, 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이들이 방과 후 안전하게 보호받고,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어떤 기관을 방문하게 될 때 기관보다는 사람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러한 일을 시작한 사람은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을까 하고 말이죠. 만나행복한홈스쿨의 김분녀 센터장은 지역에서 비인가 지역아동센터를 먼저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난 2006년 ‘기아대책’에서 연계 할 지역아동센터를 찾고 있었고, 마침 만나행복한홈스쿨의 인가 시기 등 타이밍이 맞아 현재는 기아대책 법인 소속의 지역아동센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시작하게 된 센터장의 진솔한 이야기는 매우 감동이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지역아동센터를 시작하게 되었나요?

2004년 여름 즈음, 정자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몇몇이 밥을 못 먹고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데려다 점심을 주면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3년 가까이 비인가 지역아동센터로 운영하다가 2006년 12월 정식 인가를 받고 만나행복한홈스쿨을 열었습니다. 기아대책이 법인이 되면서 운영상의 시스템도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센터를 열게 된 계기를 준 아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 아이는 6학년이었는데, 초등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시험을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6학년 때 마지막 기말 시험을 안 보면 졸업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기초생활 수급자 가정의 아이였는데, 어떻게든 학교를 졸업하게끔 해야겠다는 생각에 시험을 보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결국은 초등학교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면 빈곤층의 아이들은 더더욱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후 그 아이는 고등학교까지 잘 들어갔고, 지금은 연락이 끊어졌지만 성인으로 잘 자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어나고 있는 도시 빈곤층의 돌봄 기관

수원과 같은 대도시에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과연 있을까 싶지만, 도시 빈민층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다. 대형 아파트와 화려한 네온사인에 가려져 빈곤층의 삶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며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현재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29명의 아이들이 방과 후 돌봄을 받습니다. 2명의 상근하는 선생님과 공익근무요원, 대학생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실습생 등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지역아동센터는 단순히 아이들을 먹여 주고, 보호해 주는 기능을 넘어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육적인 측면까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기주도역량강화’라는 프로그램을 2년 동안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성꿈나무 장학재단의 후원사업으로 경기대학교 청소년 연구소에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연구소의 교수님과 대학생 멘토가 함께 진행하는데, 매주 2명의 대학생 멘토가 와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의 아이들에게 학습적인 것 이외의 활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아존중감 향상, 미래의 직업 찾기, 리더십 향상, 심리검사를 통한 성격검사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끔 합니다. 자기주도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우울했던 아이들이 좋아진 것이 눈에 띕니다. 내년에는 축구교실을 통해서 체력을 키우는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매주 2명씩의 대학생 멘토가 와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니 좋은 것 같습니다. 삶의 모델, 멘토가 없는 아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이죠. 소극적인 아이들도 표현력이 좋아졌습니다. 대학연구소의 프로그램이어서 그런지 체계적이고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들이 건축현장에서 일하거나 일용직 노동자, 마트 시간제 근무자, 한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가 파괴되어 친인



센터 한 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시판. 아이들 상장과 사진으로 꽉 차 있다.

척 관계도 넓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이들은 알지 못하여 꿈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알고, 사람을 알아가는 일이 다른 학습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선생님들 월급은 최저 임금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함께 일하는 강춘금 사회복지사는 2007년 사회복지사 실습생으로 오셨던 분인데, 알고 보니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르고 졸라 이곳에서 일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만 5년 동안 함께 하고 계시는데 적은 임금으로 죄송하고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법인이 있으니까 다른 곳보다 조금 나은 편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데 운영비에 인건비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돈을 받지도 않습니다. 철저하게 운영비 안에서 매달 살림을 하는 것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인건비가 보장되지 않기에, 종사자들이 힘들고 역량은 약해지죠. 기업과 연계된 프로그램은 ‘돈’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에 운영상 도움이 되는 측면은 사실 약합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 확보와 함께 종사자들의 인건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이 일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보다 더욱 가치 있는 의미가 있다면?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계속 다니는 것보다 떠나야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초등학교 내내, 중학

교 내내 이곳을 집처럼 떠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2,500만 원 짜리 전셋집을 살다가 500만원을 더 모으면 3,000만 원 짜리 전셋집으로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지 못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 500만 원 보증금을 더 올려주어야 하니까요. 그렇기에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마음의 상처,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닌 부모와 아이들이기 때문인지 칭찬이나 피드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서운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인생의 한 시기에 머물렀다가 가는 곳이지만, 탈선하지 않도록 가정의 울타리 기능을 대신 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나 부모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보태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대체로 열의가 부족합니다. 삶의 에너지가 낮습니다. 좋다, 신난다 등의 감정 표현이 별로 없고 항상 시큰둥합니다. 얼마 전 영화 ‘가디언즈’를 보러 가자고 했는데도 환호하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울한 감정에 억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기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손잡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저희가 잘 해 주어도 아이들의

마음을 100% 공감하기는 어렵지요. 그래도 이해하고 다독이고 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에 현대 캐피탈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선정이 되어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도 낡은 상가 건물의 2층에 위치해 있고, 환경적으로도 열악합니다. 지원을 받아서 도배와 장판, 책·결상을 바꿀 수 있게 되었고 작은 도서관을 꾸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집처럼 편안한 환경이 만들어지니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도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는 것과 더불어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여 사회 속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성장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입니다.

그리고 최근 지역아동센터에도 시설평가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저희 같은 곳은 상가 2층이라는 위치와 환경 때문에 감점이 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사실 빠른 재정 상태인 것을 알면서, 일일이 조사를 하고 개선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은 형식적입니다. 평가를 위한 틀에 갇히게 되고, 독자성과 자율성이 떨어집니다. 물론 평가를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질적인 면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다만 현장 중심으로 평가 문항을 개선하게 된다면 실용성과 효과성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 보며, 인터뷰를 마칩니다

어떤 아이는 따뜻한 가정에서 살뜰히 보살핌을 받으면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랍니다. 하지만 또 한 편에서는 집은 들어가기 싫은 곳, 외로운 곳, 배고

픈 곳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 밥을 못 먹고 방황하는 아이들을 보고이 일을 시작했다는 김분녀 센터장의 이야기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침에 인터넷 신문 기사를 읽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기사가 올라 왔길래 바로 클릭해보았습니다. 두 청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공부방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던 시절 자신을 키워준 공부방의 고마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 다. 노점상을 하는 부모님 대신 공부방 선생님이 운동회에 와 주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 그리고 공부방 선생님처럼 소외된 아이들을 평생 돕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사회복지사가 되었다고 하는 청년의 인터뷰 글이었습니다. 온전한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만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가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사회와 지역이 그 일을 담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각자 자신이 태어난 삶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돕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가는데 한 남자 아이가 센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를 맞아 온통 생쥐 꼴을 한 아이입니다. 선생님은 안쓰러운 마음으로 “왜 우산 안 쓰고 다녔어? 훌쩍 닦았네. 출겠다.” 말하며 걱정하십니다. 누군가의 걱정하는 정겨운 말 한마디로 아이는 보이지 않는 사랑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만나행복한홈스쿨 지역아동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1동 383 범야상가 212호

031-245-9176

학습자의 마음을 여는 강의 오프닝 기법

발행호 (제2호) 2012. 03. 28.(수)
글 이민영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처음 만난 사람들과 어색하고 멧쩍게 있다 보면 수강생들끼리 친해지기도 즐겁게 강의를 진행하기도 쉽지 않겠죠? 교육 내용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도록 마음부터 활짝 여는 오프닝 기법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인터뷰 게임

1회 단기 교육이 아니라면 학습자들끼리 서로 소개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 명 씩 나와서 소개하면 형식적인 이야기만 하기 일쑤지요. 이럴 때 2인 1조로 조를 구성해 짝꿍을 인터뷰하여 소개하는 방식은 학습자들끼리 서로 잘 알지 못할 경우 친숙해지게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진행순서

1. 2인 1조로 모둠을 만든다.
2. 짝꿍을 인터뷰하게 한다.
3. 2인 1조 한 모둠을, 2~5 모둠으로 모이게 해 짝꿍을 소개한다.

Tip

- ▶ 인터뷰 게임은 2회 정도 반복하는 게 적당합니다. 4회 이상 반복하면 지루하니까요.
- ▶ 짝꿍을 인터뷰한 뒤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는 횟수를 거듭할수록 소개시간을 축소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면 훨씬 박진감 넘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최종 모듬의 최대인원은 10명으로 제한합니다. 10명 이상이 되면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명찰게임

소규모 인원(15명 정도)이 모여 있을 때 활용도가 높은 기법입니다. 교육 시 달고 있는 명찰의 뒷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진행순서

1. 작은 메모 용지를 모든 학습자에게 나눠준다.
2. 질문자가 정한 두 세 개의 물음에 대한 답을 메모용지에 적게 한다.
3. 답을 다 쓴 후 메모용지를 접어 수거한 뒤 섞는다.
4. 한 장씩 나누어 갖는다.
5. 학습자는 받은 메모용지 속 내용을 나의 것인 양 1~2분 간 소개한다.
6. 소개를 하는 동안 다른 학습자들은 발표 내용의 실제 주인공을 찾는다.
7. 발표가 끝나면 처음 발표했던 순서대로 자기가 발표한 내용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학습자에게 다가가 메모용지를 건네준다.
8. 메모용지를 받은 학습자 중 자기 것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한다.
9. 자기 것을 찾은 사람은 내용을 다시 읽고, 혹시 궁금한 것이 있는 학습자가 있으면 묻고 답할 시간을 준다.
10. 실제 주인공을 찾지 못한 메모지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진행해 주인공을 찾는다.



Tip

- ▶ 메모용지에 적을 내용은 학습내용과 연관 있거나 학습자 간 소통에 필요한 주제 중 선별하여 제시하면 됩니다.
- ▶ 메모 용지 크기는 명찰 뒤에 끼어 넣을 수 있도록 명찰 크기보다 조금 작은 게 좋습니다.

미션임파서블 게임

앞에서 소개한 인터뷰게임이나 명찰게임이 친밀감을 형성하는 게임이라면 미션임파서블 게임은 이미 구성된 모둠원 간의 협동심을 키우는 게임입니다.

진행순서

1. 모둠별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미션을 4~5가지 제시합니다.
2. 각 모둠은 팀워크를 발휘해 미션을 수행합니다.
3. 미션을 끝낸 모둠은 사전에 정한 구호를 외쳐 정답을 발표합니다.
4. 미션 수행 순서에 따라 등수를 매깁니다.

Tip

- ▶ 미션은 학습자의 수준과 상황에 따라 선별하되 두세 가지는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두 가지는 학습내용과 연관 있는 것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 효과음이나 상품을 이용하면 게임이 좀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 참고자료 : 강의를 풍부하게 하는 방법 / 김성학 저



구글 문서도구로 설문조사 만들기

발행호 (제3호) 2012. 04. 10.(화)
글 임성미 수원시평생학습관 홍보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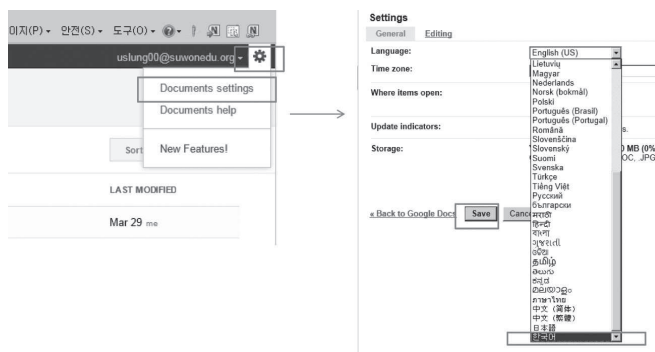
교육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욕구조사, 교육만족도조사, 강의평가 등. 일반적으로 직접 출력해서 사용하는 설문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설문조사에도 너무 많은 품이 듭니다. 설문지 작성, 설문지 인쇄, 설문지 배포, 작성된 설문지 수거, 작성된 내용 입력 등.

설문지를 꼭 사용해야만 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작업과정이 번거로운 설문지 대신 간편하게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설문조사입니다. 설문지를 사용할때보다 2~4단계의 작업과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 계정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설문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만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이 존재하지만 구글 문서도구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 나는 구글 사용 안하는데...'라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구글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설명을 따라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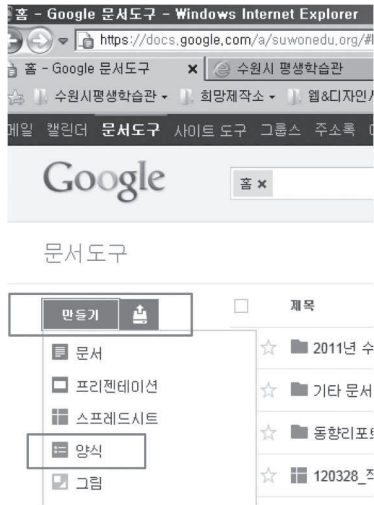
1. 구글 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듭니다. www.google.com/accounts/ManageAccount
2.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후, 구글 <문서도구>로 들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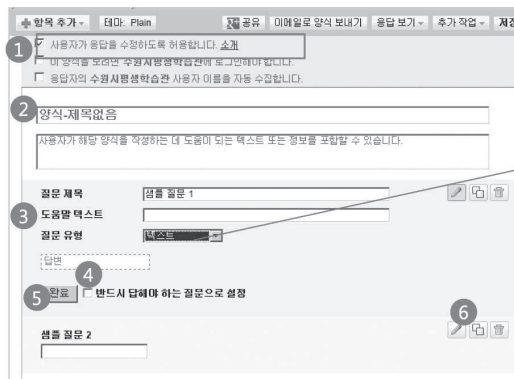
3. 오른쪽 상단 로그인 계정 옆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한 후, <Documents Settings>으로 들어가서, <한국어>로 바꾸고 저장합니다.



4. 문서도구 <만들기>를 클릭하여 메뉴 중 <양식>으로 들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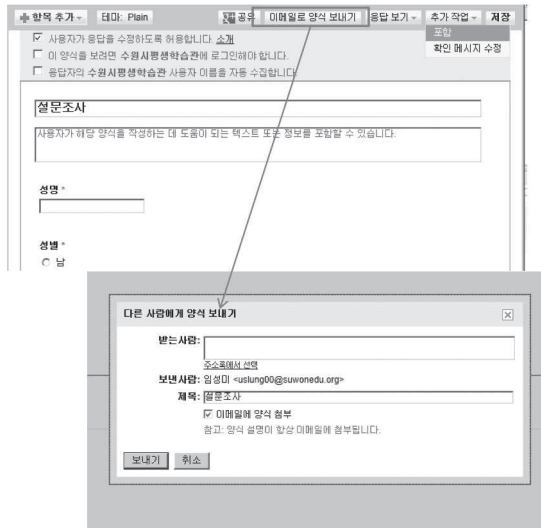
5. 양식을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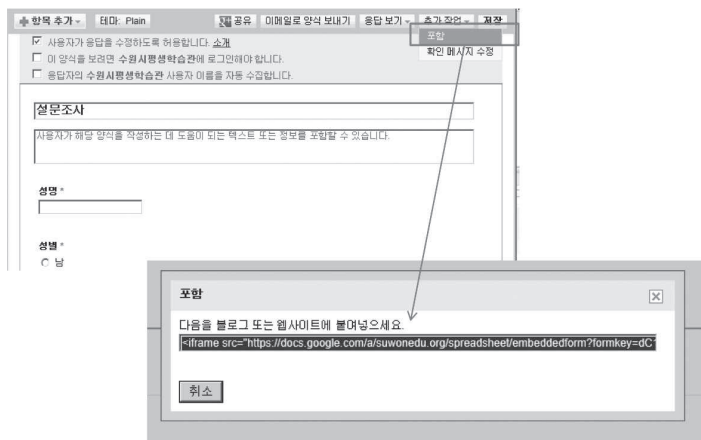
- * 텍스트 한 줄 정도의 텍스트 기록 시 (이름, 주소 등)
- * 단락텍스트 긴 문장 기록 시 (의견, 참고사항 등)
- * 선택형 질문 여러 항목 중 하나를 선택 시 (성별, 연령대 등)
- * 확인란 여러 항목 중 복수 선택 가능 시 (관심교육분야 등)
- * 목록에서 선택 선택형 질문과 유사
- * 점수 범위 선택 질문에 점수를 매길 시
- * 그리드 열과 행을 함께 이용 시

- ① <사용자가 응답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란만 체크
- ② 설문조사 제목 및 도움되는 설명 기록
- ③ 질문 내용 및 유형(7가지 중 1가지 선택) 선택
- ④ 응답자가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경우에 체크
- ⑤ 완료 클릭하면 질문 완성
- ⑥ 수정 및 복사를 클릭한 후 위의 2~5방법 반복

6. 완성된 설문조사는 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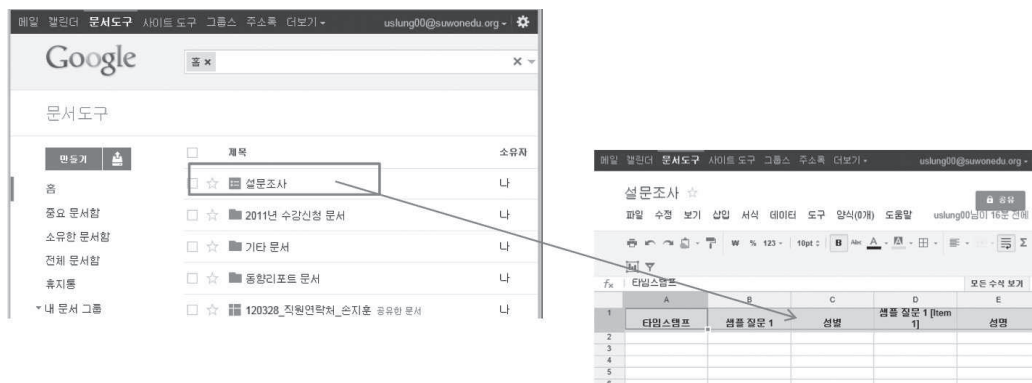


7. 완성된 설문조사는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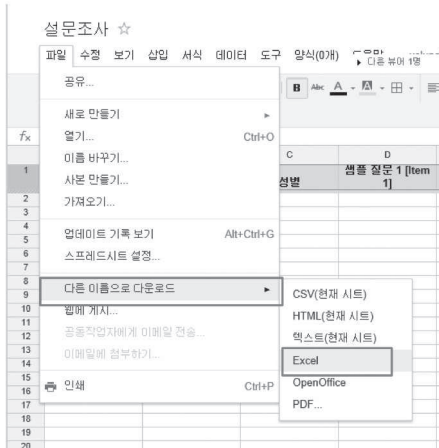


8. 설문조사에 응답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자료로 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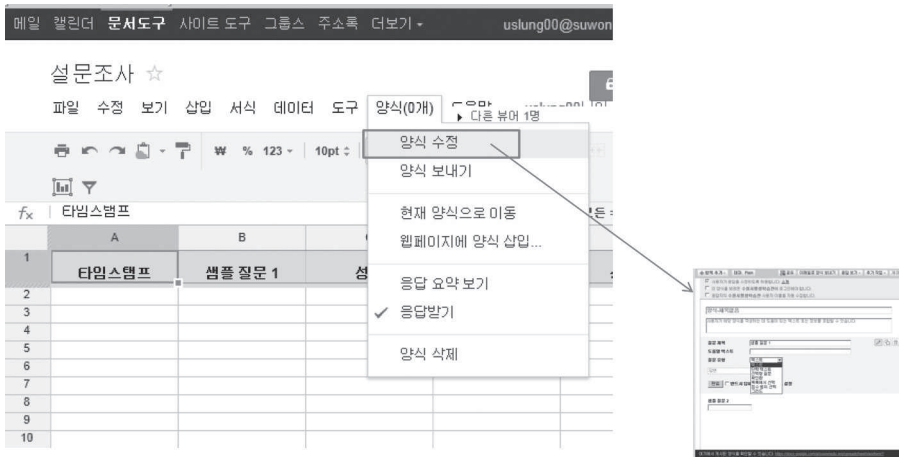
- 문서도구 메인페이지에서 방금 작성한 <설문조사> 문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설문결과가 엑셀에 정리 됩니다.



9. 설문결과를 엑셀 형태로 따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10. 설문조사 양식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저것 클릭해 보고, 테스트 해 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작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배우고 익히면 업무항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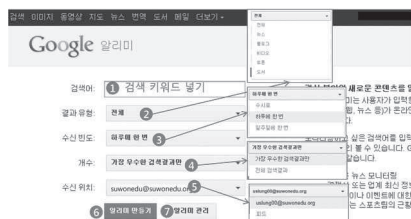
구글 알리미를 활용한 실시간 정보수집

발행호 (제4호) 2012. 04. 25(수)
글 임성미 수원시평생학습관 홍보팀장

매일 매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쏙쏙 골라먹을 수 있는 완소 '정보검색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구글 알리미를 활용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가 인터넷에서 생산될 때마다 지메일 혹은 rss 피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구글 알리미는 지메일 혹은 구글피드로 정보를 전송받기 때문에 구글 계정이 있어야 합니다. 구글 계정은 지난 <수원평생학습 동향리포트 와 3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suwonedu2011.blog.me/130135454390

구글 알리미(www.google.co.kr/alerts)에 접속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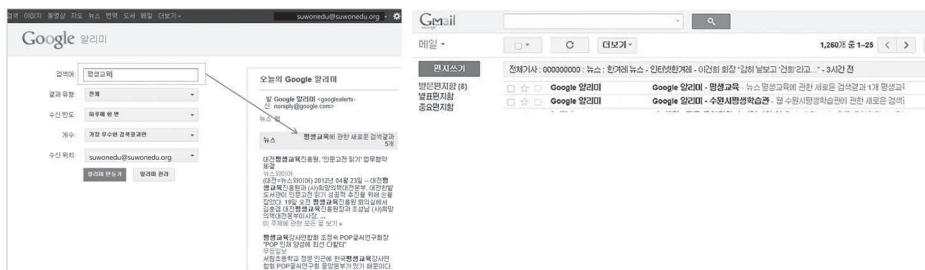
- ① 검색어 : 검색 키워드를 넣는다. (예시: 평생교육, 인문학 등)
- ② 결과유형 : '전체' 설정
- ③ 수신빈도 : '하루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번'으로 설정
- ④ 개수 : '가장 우수한 검색결과만' 설정
- ⑤ 수신위치 : '개인 지메일' 설정
- ⑥ 알리미 만들기 : 알리미를 등록한다.
- ⑦ 알리미 관리 : 자신이 만든 알리미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알리미 목록(예시)

전체	수정	수신빈도	수신 위치	
☐ 마일안도기	가장 우수한 검색결과만	하루에 한 번	suwonedu@suwonedu.org	수정
☐ 사립대학교	가장 우수한 검색결과만	하루에 한 번	suwonedu@suwonedu.org	수정
☐ 수원시	가장 우수한 검색결과만	하루에 한 번	suwonedu@suwonedu.org	수정
☐ 수원시평생학습관	가장 우수한 검색결과만	하루에 한 번	suwonedu@suwonedu.org	수정

검색 키워드를 넣으면 오른쪽에서 정보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정보를 일일이 검색할 필요없이 지메일로 받아보게 된다.



보자기를 활용하여 선물포장 하기

발행호 (제5호) 2012. 05. 09.(수)

글 정희연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선물할 일이 많아지는 5월입니다.

어떤 선물을 사는지도 중요하지만 선물을 돋보이게 하는 포장법도 걱정이죠. 한번 쓰고 버려지는 포장지가 아깝기도 합니다. 그럴 때 집에 있는 보자기를 한 번 활용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버리기는 아깝고 막상 쓸 곳은 없는 보자기 한두개쯤은 있으실텐데요. 보자기를 활용한 선물포장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진행되었던 “보자기 포장법과 활용(강사:김지현)” 강좌 내용 중 일부입니다.

1. 바구니 포장하기

준비물 : 보자기, 노란 고무줄 2개

① 보자기를 펼친 후 가운데에 바구니를 놓고 네 귀퉁이를 모아 고무줄로 두 번 감아줍니다.



② 고무줄 위로 나온 보자기 끝을 예쁘게 펼쳐 줍니다.



③ 펼쳐준 보자기 끝을 위로 모아 쥐고 다시 고무줄로 두 번 감아준 후 모양을 잡아 줍니다.



2. 바구니 포장하기

① 펼친 보자기 가운데 바구니를 놓고 네 귀퉁이를 모은 후 그 중 한 가닥을 돌려 고리를 만들어 끝을 위에서 아래로 뽑아 고정 시킵니다.



② 보자기 끝을 예쁘게 펼쳐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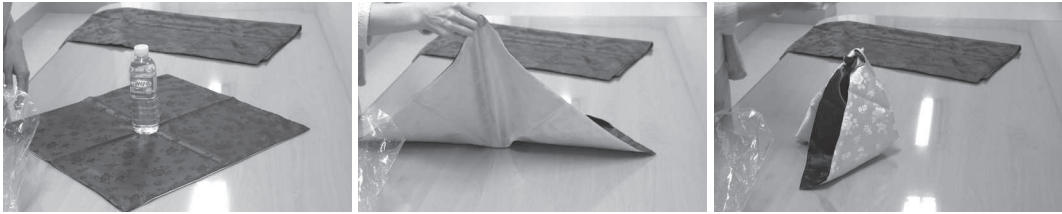


③ 펼친 보자기 끝을 고리 안으로 말아 넣어 고정시킨 후 모양을 잡아 줍니다.



3. 병 포장하기

① 마름모로 펼친 보자기 가운데 병을 놓고 좌·우 양 끝을 잡아 병뚜껑 위에 두 번 묶어 고정 시킵니다.



② 묶지 않은 양 끝을 잡아 앞에서 한 번 엇갈린 후 뒤로 돌려줍니다.



③ 두 번 묶어 고정한 후 모양을 잡아 줍니다.



4. 책 포장하기

① 마름모 모양으로 펼친 보자기 가운데 책을 놓고 아래 쪽 자락을 위로 덮은 후 책 너비로 접어 줍니다.

② 양 끝을 모아 두 번 묶습니다.(같은 한 자락이 계속 위로 올라가도록 묶어야 합니다.)

③ 남은 긴 자락을 매듭 안쪽으로 말아 넣고 옆으로 나와 있는 매듭 자락도 안으로 말아 넣습니다.

자락을 말아 놓은 공간에 카드를 꽂아 넣습니다.



우리집 재무관리 십계명

발행호 (제6호) 2012. 05. 23.(수)
글 김준하 에듀머니 경제교육강사

“돈”. ‘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근데 난 왜 이렇게 없는거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생각이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한들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없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재무관리”. ‘ 관리할 돈이 있어야 관리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재무관리는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이다. 제대로 된 재무관리는 우리집의 새는 돈을 막고 가계 경제를 튼튼하게 지켜주는 기초공사이다.

“우리집 재무관리”.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수원시평생학습관 “재무관리사 양성과정”에서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재무관리 십계명을 정리해 보았다.



1. 비상금 만들기

부채상환에, 과도한 교육비에 숨 쉴 틈이 없는 가정경제 구조에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한꺼번에 큰 비상금을 만들려하지 말고 매달 몇만원씩이라도 조금씩 준비해놓아야 소득감소, 부채이자자의 증가 등 외부충격이 있어도 가정경제가 건실하게 유지될 수 있다.

2. 마이너스 통장 정리하기

평소에는 별 탈 없이 쓰는 마이너스통장이지만 소득이 감소하

거나 목돈 쓸 일이 생겨버리면 마이너스 통장에서 신용대출로 신용대출에서 카드론까지 순식간에 발전할 위험이 있다. 더구나 매월 발생하는 금융비용으로 인해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

게다가 마이너스 통장을 월급 통장으로 쓰다보니 적자가 나는 달조차 그냥 넘어가게 되면서 카드값이 얼마인지 한달 생활비가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을 더욱 게을리하게 된다.

마이너스통장과 월급통장을 분리하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자.

3. 신용카드 자르기

신용카드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이제는 신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매달 월급을 가불하는 구조에 갇혀버렸다.

돈의 기본은 벌기 쓰기 모으기, 그리고 다시 모아서 ‘쓰기’이다. 벌어서 갚는 구조에서 벗어나 벌어서 쓰는 구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4. 고정지출 줄이기

고정 지출이 많으면 평달에 마이너스 현금흐름일 수밖에 없다. 당연히 심리적으로 돈에 대한 압박감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고정 지출을 평상시 군살없이 유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5. 불필요한 보험정리하기

보험의 경우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항목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는 것은 고정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해약시 나오는 해약환급금을 통하여 밀린 카드결제금이나 마이너스 통장 등의 기존 부채를 상환해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6. 대형마트보다는 재래시장이나 슈퍼이용하기

대형마트가 싸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많이 이용하지만 싸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물건까지 구입하다 보니 사고도 버리는 물건이 늘어나게 된다. 대형마트에서는 진열을 잘 하는 것만으로도 30%의 매출증대가 이뤄진다고 한다. 이 말은 뒤집어보면 대형

마트를 끊는 것만으로도 30% 이상의 식비와 생활용품 등의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7. 비정기지출 예측하기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주거비 식비 외식비 통신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등을 제외한 그때그때 나가는 비정기적인 지출도 가계에서 적지 않은 돈이 나간다. 비정기지출은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아니다 보니 무심코 그때그때 많이 쓰게 된다. 따라서 1월부터 12월까지의 한 달 한 달의 비정기지출을 미리 예측해서 계획을 세워줘야 한다.

8. 월급통장 구조조정하기(통장쪼개기)

지출은 단순히 '잘 관리해야지', '아껴써야지'하는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생활비 통장, 월1회성지출(자동이체)통장, 비정기지출 통장, 이렇게 지출 유형별로 3가지로 나눠서 쓰는 것이 좋다.

통장이 많아져 복잡하지 않을까 싶지만 돈의 사용 용도와 자산의 형태에 따라 통장을 구분하는 것은 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대단히 유용하다.

9.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기

저축을 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게 한다. 예를 들면 6개월 후에 자동차를 교체해야 한다면, 1년 후에는 아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입학에 따르는 목돈이 지출될 것이다. 부모님 회갑잔치가 있다는 등의 매월 소득을 넘치는 목돈지출에 대해 예측하고 목표를 잡게 하는 힘을 갖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않고 그때그때 신용카드나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결을 하다보면 저축을 통해 지출하는 것과 달리 금융비용이 발생한다. 반대로 저축을 통해 이런 목돈 지출을 해결하게 되면 이자가 발생한다. 그 이자가 낮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금융비용을 불필요하게 지출하는 것과 비교하면 그 이자는 어찌되었건 가계에 플러스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낮은 이자라고 하더라도 평생에 걸쳐 금융비용을 지출하고 사는 것과 이자를 챙기고 사는 것은 길게 보면 가계 재정상태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10. 가계부 쓰기

어려울 수록 들어오고 나가는 돈에 대해서 꼼꼼해져야 한다.

당연히 가계부를 쓰냐는 질문을 하면 새해에 잠깐 인터넷 가계부에 기웃거리다 이내 포기했던 기억에 웃음부터 짓는 것이 일반적이다. 며칠 기록해 봤더니 별거 없더라, 가정 경제가 뻥하지

않느냐 하는 말들과 더불어 꼭 하는 말이 '우리 집 경제는 머릿속에 다 들어 있다'는 말이다.

신용카드 내역이 있는데 무얼 일일이 번거롭고 구차스럽게 꼬깃 꼬깃 적어야 하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런 태도들이야말로 가정경제가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생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신용카드 명세서를 이메일로 받아보면서 아예 열어보지도 않는 가정도 많은데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각각의 결제금액만 확인하고 신용카드 전체의 결제금액을 더해보지 않는 가정도 상당수다.

결국 머릿속으로 대충 파악하는 가계 현금흐름은 실제 기록을 통해 냉정하게 평가할 때와 적게는 몇 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 원의 합산 금액의 차이를 만들 수밖에 없다.

머릿속에 다 들어 있다는 믿음 자체가 알고보면 어처구니 없는 판단의 오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결국 그때그때 작은 지출들을 머리로 대충 계산해 의사결정하고 나면 열심히 일해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은데 살림은 늘 제자리같은 허탈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체계적으로 기록을 통해 가계 소비 지출을 통제해야 한다.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는 불필요한 지출들만 줄여도 가족의 미래를 위한 적금 통장 몇 개는 더 만들 수 있다.

* 에듀머니 착한재무설계, 재무교육 등으로 돈에 대한 합리적인 철학,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돈관리를 지향하며, 금융 정보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입니다.



모금전문가 십계명

발행호 (제7호) 2012. 06. 05.(화)
글 이민영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지난 3월 27일부터 5월22일까지 8주 간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수원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수원시평생학습관 4개 기관이 공동주최하고 휴먼트리가 주관한 <수원모금전문가학교>가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었습니다. <수원모금전문가학교>는 비영리단체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모금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윤정숙 전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등 10여 명의 전문가가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을 교육을 통해 전수했습니다.

1. 요청하라
2.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라.
3. 거절을 두려워하지 마라.
4.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라.
5. 모금의 원칙을 정하고 지켜라.
6. 모금에 대한 전략을 세워라.
7. 고민하고 또 고민하라.
8. 모금자 자신부터 시작이다.
9. 좋은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하라.
10.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모금가가 되라.



8주 간 수강생들은 모금 기획, 기부자 개발 및 분석,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등 구체적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실습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바로 실무에 적용해 보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위의 모금전문가 십계명은 교육 중 수강생들이 자신들이 모금가로서 늘 품어야 할 마음가짐 열 가지를 서로 논의하여 직접 선발한 것입니다. 수료식에는 모금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시 첫 마음으로 되돌아가란 의미로 십계명을 적은 손수건을 나눠 가졌습니다. 수료한 42명의 모금전문가들은 앞으로 이 십계명을 가슴에 새기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 초상권 지키기

글 이보라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발행호 (제8호) 2012. 06. 20.(수)

요즘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 매체에는 지하철 ××녀, 버스○○남 같은 제목의 사진이나 동영상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고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제보하는 형식인 것이죠. 이것은 공공질서 측면에서는 지탄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본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게 '나'를 가장 빠르게 인식시키는 방법은 얼굴입니다. 그런 내 얼굴이 나도 모르는 사이 방송, 신문, 잡지, 인터넷에 올려져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심지어 그 사진을 본 사람들이 나를 오해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일까요? 어떠한 것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초상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이다.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이나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이다.

• 초상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례) 동의를 받지 않고 백화점에서 쇼핑 중인 사람을 촬영·보도하여 초상권 침해

(2010서울조정361 손배청구)

‘○○신문’이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경 중인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보도. 이 때문에 신청인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백화점에서 장을 보는 것을 보니 돈이 많은가



야 하는 것인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내용은 5월 16일 진행되었던 실용SOS 4탄 ‘어! 내 얼굴이 신문에 나왔네? 언론 피해사례와 대처방안’(강사: 강현석) 강의 내용 및 자료-「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요?(언론중재위원회)」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보다”라고 말을 듣는 등 사생활의 자유와 초상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신문사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초상 당사자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동의한 범위를 벗어나 사용되었거나, 본인이 공표한 초상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공표의도와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성립됩니다.

사례) 익명성 보장이 지켜지지 않아 초상권 침해

(서울남부지법 2007. 5. 4. 선고 2006가합9577 판결)

원고는 방송사가 호스피스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방송을 한다면서 인터뷰를 요청하자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변조 등 익명성 보장을 조건으로 허락하였는데, 실제 방송에서는 원고의 얼굴과 신체모습, 실명을 공개하고 음성을 변조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함.

•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동의없이 촬영·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공적 인물 또는 시사적 인물은 그가 갖는 시사적인 의미와 연관되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인물이 단지 한 장면 또는 장소에서 부수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 집회·행렬 또는 유사한 사건의 참가자로서 나타나는 경우, 사법 및 공공질서 목적 등 공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는 동의없이 촬영·사용이 가능합니다.

사례) 다수 교인이 있는 교회 대표자는 공적 인물로서 초상공표를 감수해야

(서울중앙지법 2008. 10. 31. 선고2009가합2419 판결)

다수의 교인들이 속해 있는 교회의 대표자는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공적 인물의 경우 자신의 초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므로 얼굴이 방송되도록 한 것에 위법성이 없음.

사례) 시위현장에서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면 초상권 침해 아님

(서울중앙지법 2010. 11. 25. 선고 2009가단300209 판결)

원고의 사진이 게재된 기사는 당시 전국민적 관심사인 '광우병 촛불집회' 시위 현장이었으므로 공공성이 인정되고, 원고의 모습은 이러한 현장을 촬영하는 중 우연히 포함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은 아닌 점, 원고 스스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현장에 있었으므로 언론에 촬영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원고의 사진이 원고의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집회 시위 장면 촬영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 사진에 나타난 영상이나 사진과 결부된 기사 내용이 왜곡된 사실을 전달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부정적인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 그 기사내용과 무관한 사람의 사진을 사용하거나, 피촬영자가 집회·시위의 주도자가 아님에도 독자나 시청자

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인상을 주도록 의도적으로 편집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등)

② 순간적으로 촬영된 지극히 부자연스러운 표정이나 동작의 일부를 전후 설명 없이 보여줌으로써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한 의사표현이나 동작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당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도록 하거나 모욕을 느끼게 하는 경우

〈 언론조정·중재제도 〉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얼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조정·중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중재의 신청은 대상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는 후 6개월 이내에 (추후보도 청구의 경우 형사 절차가 무죄 또는 무혐의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이 때 신청인은 손해배상청구권,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을 하나 또는 병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재의 경우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어 언론사는 정정·반론·추후보도문을 보도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법원에 이행을 강제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언론중재위원회 : <http://www.pac.or.kr>

언론중재 Eye-Net : <http://people.pac.or.kr>

언론피해상담 : 02-397-3000/3010/3100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명상

발행호 (제9호) 2012. 07. 04.(수)
글 이보라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한다. 이 만병의 근원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스트레스 상황으로 몰아넣는다. 윗집의 쿵쿵대는 소리도 스트레스요, 내 말을 안 듣는 자식도 스트레스, 엄마의 잔소리, 버벅 대는 컴퓨터, 뱅뱅거리는 자동차 경적소리, 막히는 출퇴근길... 셀 수도 없을 만큼 많다. 그 때마다 솟아 오르는 짜증과 함께 머리는 아파오고, 속은 더부룩하고, 가슴은 벌렁벌렁... 온갖 증상들이 몰려온다. 그런데 이것을 풀지 않고 계속 쌓아두면 병이 된다는데... 어찌지? 스트레스를 다스리기는 커녕 스트레스에 치여 살고 있는 우

런 강의를 진행 중인 한도겸 선생님(도겸명상센터)의 강의와 강의자료, 간략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스트레스란?

외부에서 가해지는 여러 가지 자극이나, 내부에서 생리적으로 발생하는 자극, 또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 등으로, 일상 생활을 해나가는 데 불편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모든 형태의 방해현상을 말하는데, 명상에서는 스트레스라 표현하지 않고 ‘싫은 느낌(괴로운 느낌)’이라고 말한다.



〈누구나학교 ‘스트레스를 위한 명상시간’ 수업 모습〉

리의 건강을 위해 그림 어떻게 해야 할까? 술과 담배가 아닌,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는 없을까?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의 한 방법으로 ‘명상’을 소개한다.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상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명상의 기초를 알아보자. 그리고 명상을 일상생활로 체화하여 스트레스 해소와 함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 보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명상〉은 현재 누구나학교에서 관

스트레스의 원인

스트레스는 내·외적으로 다양한 원인이 있다.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아이가 갑자기 방의 불을 켜면 그것은 스트레스이다. 업무의 마감시간, 틀에 맞춰야 하는 형식이나 절차, 직업 상실 뿐만 아니라 승진도 스트레스이다. 칼 같이 지켜야 하는 출근시간도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또한 내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완벽주의, 강박증, 비관적인 생각도 스트레스를 배가 시킨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원인들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크게 개념치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마음가짐의 차이이고,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다스릴 줄 아는가의 차이이다.

명상이란 무엇인가?

명상이란 어두울 명(冥)에 생각 상(想)자를 쓴다. 한자의 단순한 뜻풀이로 보자면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명상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 들어가는 것’이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명상〉이 집중하는 대상은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나 늘 하고 있는 ‘호흡’이다. 들숨(들이마시는 호흡)과 날숨(내뿜는 호흡)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명상의 효과는 무엇인가?

명상은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각종 심인성(心因性) 질환의 치료를 돕는다. 스트레스로 발생했던 소화불량이나 불면증, 두통,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으며, 화병이나 우울증, 불안 등 마음의 병도 완화시킬 수 있다.

명상의 궁극적 목적은 마음의 행복, 영원한 행복을 찾는 것이다. 꾸준한 명상을 통해 궁극의 경지에 오르면 깨달음(지혜)을 얻을 수 있다.

명상. 어떻게 하는 것인가?

명상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명상은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그 대상은 호흡이다. 다만 인위적으로 호흡을 조정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지켜보고 있어도 처음에는 호흡에만 집중이 되지 않고 자꾸 과거의 기억이나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떠오른다. 이것을 명상에서는 ‘망상’이라고 한다. 그럴 경우에도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호흡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어떤 특별한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물론 그것이 끝은 아니고 더욱 집중해 들어가다 보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 도달하기도 한다. 그리고 나면 온갖 짜증이나 분노, 원망은 소멸하고 얼굴엔 미소가 피어날 것이다.

명상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나?

1. 매일 꾸준히 한다.

매일 하루에 10분 이상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샤워하

고 확장하고 몸을 꾸미는데는 시간을 쓰면서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리는데는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한번 할 때 오래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2. 소식을 하고 커피를 피한다.

명상을 하기 직전에는 소식(小食)하는 것이 좋다. 배부르게 먹고 앉아서 명상을 하려고 하면 더부룩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졸립기 쉽다. 커피는 되도록 적게 마시는게 좋다. 명상은 기운을 아래로 내려서 차분하게 하는 것인데, 커피는 기운을 위로 올리는 효과가 있다. 마음을 들뜨게 한다는 말이다. 들떠 있으니 조금만 자극이 돼도 금방 반응을 해버린다. 차분함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3. 아침 식사 전 명상의 시간

명상을 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식사 전이다. 아침에 몸을 정갈히 하고, 식사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집중에도 좋다. 또 하루를 차분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 허겁지겁 시작하는 것보다 더 안정적인 마음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일 아침에 10분 명상 그리고 잠자리에 누워 10분 명상을 권한다.

몸자세, 호흡법은?

반드시 어떤 자세로 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행주좌와(行住坐臥; 걸거나 서있거나 앉거나 눕거나) 어묵동정(語默動靜;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어느 경우에도 할 수가 있다. 다만, 초심자일 경우에는 조용한 장소에서 앉아서 하는 반가부좌* 좌선(坐禪)과 걸으며 발바닥의 느낌을 관찰하는 행선(行禪)을 교대로 하기를 권한다.

호흡에 집중할 때는 인위적으로 호흡을 조정하면 안된다. 다만 몸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두고 들숨과 날숨을 지켜볼 뿐이다.

*** 반가부좌란 한쪽 다리를 오므리고 그 위에 자연스럽게 올려 놓고 앉는 방법이다. 그리고 엉덩이에 알맞게 방석을 받쳐 앉으면 안정적이고 집중에 방해되지 않는다.**

사실 명상은 글로 설명하기도 힘들고, 같이 명상을 해도 한두 번 한다고 자세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 꾸준히 하고,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려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

모두가 즐거운 착한여행

발행호 (제10호) 2012. 07. 18.(수)
글 이민영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지난 7월 12일 <담쟁이 문화살롱>에서는 “모두가 즐거운 착한 여행”(강사 : 고두환 대표, 청년사회적기업 공감만세)이라는 제목의 강좌가 운영되었습니다. 휴가철을 맞이하여 조금은 색다른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여행을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이번 강좌에서 이야기하는 ‘공정 여행’이 무엇인지, 이번 휴가철에 실천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 그날 생생한 강좌 후기가 궁금하신 분은
<http://suwonedu2011.blog.me/130142387241>

그런데 왜 하필 공정여행이라고요?

우리가 한 번의 해외여행에서 쓰는 돈이 100만 원이라면, 그중 40만 원은 비행기에, 그 중 20만 원은 여행사에, 20만 원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쓸 물건을 수입해 오는 데 지불하게 됩니다. 현지에 남는 돈은 20만 원, 그 중에서 현지의 마을에 돌아가는 돈은 1~2만 원 뿐입니다. 현지인들은 자신들이 살던 마을이 관광지가 되어도 여전히 가난하고, 고기 뉘고 밭을 일구던 바다와 땅을 다국적 호텔에 넘겨준 채 그곳의 일용직 청소부, 집꾼, 웨이터가 되고 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정여행은 여행자와 여행사, 현지 원주민이 대등한 관계에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여행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된 여행입니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여행이 자연과 사람을 파괴하지 않게 노력하고,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배우고, 나누고, 성장하는 여행의 태도와 여행의 방식을 통틀어 공정여행이라고 합니다. 책임여행, 착한여행 등 다양한 표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한 사람이 여행할 때, 하루 평균 3.5kg의 쓰레기를 남기고, 인도 고아의 오성급 호텔 하나가 인근 다섯 마을이 쓸 물을 소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여행을 정말 마음 편히 즐길 수 있을까요? 그보다는 현지 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지역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 문화를 배우며 현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하는, 내가 여행을 하는 만큼 그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여행이야말로 서로 기쁘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위에서 제시한 규칙들을 모두 지키면서 어떻게 여행을 하라는

거지 미리부터 머리 아파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지를 이해하고
아끼려는 마음이 생기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
지 스스로 알게 될 테니까요. 1회용품 쓰지 않기, 사진을 찍을
때 허락 구하기 등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그것
이 공정여행이 정신이라는 점! 이번 여름, 나만의 공정여행, 어
떠세요?

*참고자료 : 희망을 여행하라 (2009) 임영신, 이혜영 저

* 혼자서 공정여행하기 엄두가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정여행을 추구하는 곳

* (주) 공감만세 www.fairtravelkorea.com

* 트래블러스맵 www.travelersmap.co.kr

* 착한여행 www.goodtravel.kr



공감만세의 공정여행이란

1. 여행은 가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이다.

공정여행을 위한 기본적인 수칙은 우리 스스로 지킵니다.

- 여행지에 대해 현지인에게 듣고, 배우는 여행
- 성매매, 동물학대, 노동 착취 등의 여행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기
- 기념품은 지역의 특산물이나 공정무역 제품으로
- 가이드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닌 소통하며 다니는 여행

2. 지구와 지역이 웃는 여행

지속가능한 여행을 위해 지역경제에 도움되고, 환경을 생각하는 여행을 합니다.

- 현지인 가이드 고용
- 원주민이 운영하는 숙소 및 식당 이용
- 현지 교통 수단 이용
- 걷는 여행 지행
- 탄소상쇄를 위한 나무 심기

3. 친구가 되는 여행

나만 즐거운 여행이 아닌, 모두가 즐거운 여행을 지향합니다.

- 매 순간 현지인과 함께하는 여행
-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가 있는 여행
- 여행의 수익금은 현지의 공동체를 지원하는 여행 나눔 참가

휴가지에서 예쁘게 사진 찍는 방법

발행호 (제11호) 2012. 08. 01.(수)

글 나종민 바라봄 사진관, 수원시평생학습관 사진강사

여름의 추억을 사진에 담다

여름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아름다운 휴가지에서 가족이나 연인의 모습을 추억으로 남기기 위하여 여러분의 여행가방 속에 디지털 카메라는 필수품이 아닐까요? 그 중 작은 크기와 가벼운 무게로 휴대가 편하고 촬영이 간편한 컴팩트 카메라(일명 똑딱이)는 요즘 스마트폰에 탑재된 훌륭한 카메라 기능으로 무시 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똑딱이는 그렇게 무시당할 카메라가 아닙니다. 아래 소개되는 똑딱이의 사용팁을 이용하여 이번 여름 휴가에서 여러분의 멋진 추억만들기에 도전해보세요.

※ 글을 써주신 나종민 선생님은 현재 학습관에서 DSLR 반과 디지털카메라반을 강의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똑딱이를 이용한 대부분의 촬영은 단순히 자동모드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카메라 메뉴를 확인하시면 장면모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드는 여러분들에게 휴가지의 풍경과 가족의 모습을 아름답게 사진에 담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1. 인물 모드

흔히 인물 촬영시 주인공만 선명하고 뒷 배경은 흐리게 하는 아웃포커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진을 위하여 인물 촬영시 장면모드의 인물에 놓고 촬영하세요. 물론똑딱이의 렌즈가 너무 작아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만들기는 쉽지 않으나 분명히 자동보다는 효과적입니다.



2. 풍경 모드

풍경 사진은 전체가 선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장면모드를 산이 그려진 풍경모드에 놓고 촬영하세요.



3. 야경 모드

야간에 멋진 배경으로 촬영을 하였지만 후레쉬에 의하여 사람은 잘 나왔지만 배경은 어둡게된 사진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 경우 야경모드로 촬영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배경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삼각대를 이용하여 흔들림을 방지해 주셔야 합니다.



4. 일출, 일몰모드

사진기에 담고 싶은 풍경 중 일출, 일몰은 빠질 수 없는 소재입니다. 붉은 기운을 담고 있는 해가 떠오르는 순간, 하루를 비추던 해가 서쪽으로 지는 모습은 늘 사진가들을 설레게 하죠. 이런 일출과 일몰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자동 모드보다 일출(일몰)모드를 놓고 촬영하시면 붉은 기운을 잘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5. 여명모드

새벽녘 동 트기 전 파란 하늘을 찍고 싶으시면 장면모드 중 여명모드를 사용하세요. 앞에서 설명드린 일몰, 일출모드는 떠오르는 해의 붉은 기운을 잘 표현했다면, 여명 모드는 그 직전의 파란 하늘을 잘 표현할 겁니다.



요즘 출시되는 카메라에는 위에 소개드린 모드 이외에 다양한 모드(해변모드, 파노라마등)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법도 카메라 내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해가 등 뒤에 있는 역광에서 사진을 찍지말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는 피사체가 어둡게 촬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변가에서 촬영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흔히 만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 카메라에 내장되어있는 후레쉬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장후레쉬는 일반적으로 빛이 부족한 실내나 밤에 자동으로 발광하도록 되었지만 이를 일부러 터지도록 설정을 하면 역광인 상황에서 어두운 피사체를 밝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글쓰기,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발행호 (제12호) 2012. 08. 14.(화)
글 김소라(독서코치) 누구나학교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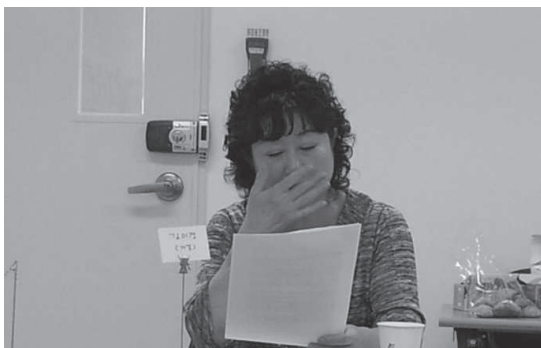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는 소설 한 권 분량 만큼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 소설가 김영하 -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내 안의 창조성을 깨우는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수원 인근지역의 글쓰기의 갈급한 영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된 글쓰기 수업을 평생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 학창시절 글쓰기는 고통스런 숙제로만 여겼던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창조적 글쓰기' 수업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술가'로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창조영역을 통해 행복감을 느꼈죠. 벽에 이름모를 낙서를 하고, 거짓말같은 이야기를 꾸며내고, 노래를

어둠어 자신의 삶을 나누고, 일상을 글로 담아내면서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재미있음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별 것 아닌 타인의 일상에 감동을 받고, 나의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면서 '나의 속에 있는 예술의 본능'을 일깨웠습니다. 글쓰기는 단순히 글을 잘 쓰는 재주만을 배우는 일이 아님을 알았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나의 인생 속에 무수히 많은 이야기가 존재함을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창조적 글쓰기' 수업에서 우리 모두는 닉네임으로 서로를 부릅니다. 부모님이 부여해주신 이름이 아닌 나만의 의미를 담아 만들어 낸 인터넷 상의 닉네임은 어쩌면 나를 대신해주는 또 하나의 이름일 수 있습니다. 이름은 나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한



'창조적 글쓰기' 강좌 모습(제공:김소라)

지어서 부르고, 텔레비전의 가수들을 따라 춤을 추었죠. 그랬던 어린 예술가들은 점점 나이가 들고 자라나면서 '예술은 밥 먹여주는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밥벌이에 몰두하게 됩니다. 하지만 먼 원시 태고적부터 인간에게는 나의 생각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표현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생존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창조적 글쓰기'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을 뛰어

평생 한 가지 이름으로 살아왔다면 글쓰기 수업에서는 내가 갖고 싶은 이미지, 내가 꿈꾸는 모습을 닉네임으로 사용해 보는 것이죠. 일상 생활에서 잘 부르지 않는 닉네임을 글쓰기 수업에서 사용하면서 신선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주, 먼지요정, 산길, 커피조아, 산쟁이썸, 해피, 당근, 더행, 해움지기, 첼로의 신, 초록빛 향기, 티타임" 등 예쁜 닉네임을 만나게 되었죠.

또한 4주동안 다양한 글을 연습해보면서 글쓰기가 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4행일기'를 통해서 쉽게 일기 쓰는 법을 익혀보

았습니다. 바로 '사실-느낌-교훈-선언'을 각각 한 줄로 써 보는 것입니다. 4줄짜리 일기를 통해서 매일을 감동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묘사하는 글쓰기'를 배우면서 훌륭한 글은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미사여구로 꾸며진 글이 아닌, 사물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여 초등학교처럼 쓴 글이 쉽고 전달력 있음을 실질적으로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솔하게 글쓰기'는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담는 글이 가장 감동적인 글임을 알게 하였습니다. 진솔한 글은 내 감정을 드러내고, 치유하는 기능을 하기도 했죠.

'창조적 글쓰기' 수업의 마지막 시간 '인터뷰 글쓰기'를 배웁니다. 2인 1조가 되어서 상대방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던지는 인터뷰어가 되어봅니다. 이후 질문한 내용을 글로 재구성하여 상대방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는 해 봅니다. 주제가 있는 대화를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상대방의 인생관, 삶의 가치관을 알게 되면서 애정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또한 인터뷰한 내용을 글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삶을 새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관점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뷰 기사를 작성한 것을 수업 시간에 함께 읽어보면서 합평하고 피드백하는 시간은 가장 인상적인 수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이야기를 글로 써 준다는 것 자체가 값진 선물이지요.

저는 b급 선생, 이류선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수강생들 덕에 저 또한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누구나 학교>는 강사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사람은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장이라고 할까요. 전문가들이 하는 수많은 글쓰기 강좌들이 있지만, <누구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학생'인 서로가 가르치고 배우는 열린 수업이라 생각합니다. 강사인 제가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더없이 매력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글쓰기 선생으로 초보 작가로서 한걸음 성큼 다가서게 된 데에는 <누구나 학교>의 덕이 큼니다.

모든 사람은 창조성을 내면에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누구도 발견하지 못하여, 심지어 나조차도 신뢰하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간 것이죠. 보티첼리의 그림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도 500년 동안 지하의 와인 저장창고에 묻혀 있다가 그림의 진가를 알아본 러스킨에 의하여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안의 창조적인 놀라운 능력들이 무의식 너머에 묻혀 있었다면 글쓰기 수업은 그것들을 꺼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의 창조성을 발견하는 일이 바로 글쓰기입니다.

다음은 몇몇 수강생들의 생생한 목소리입니다. 글쓰기가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임을 배우게 된 이들이 꾸준히 글을 쓰는

재미를 느끼면 좋겠습니다. 삶을 배우는 글쓰기 수업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1기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 저를 느껴요...

조금씩 나를 알아간다고 해야 할까요?

나를 알아가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유해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중입니다.

지금... 사춘기 소녀처럼 많은 방황을 하고 있지만...

살짝 끝이 보일 듯해요...^^* -먼지요정-

내가 몰랐던, 내 안의 나를 발견하고 있어요 ^^**

커피 한잔과 함께. 그 안에서의 작은 여유! 너무 좋은 강의입니다!! -산쟁이쓰-

나는 잘 쓰려하거나 계획적이거나 다듬거나 하지 않는다.

그냥 펜가는 대로.

그래서 날것 그대로인 글이랄 것도 없는 글을 끄적인다.

그런데도 소라쌤의 주문(?)대로 하다보면

낙서가 아닌 글이 되니 신기하다.

개떡같이 써도 스승의 가르침이 좋으면 찰떡 비슷해진다고 할까.

- 산길 -

* 이 글은 <누구나 학교> '내 안의 창조성을 깨우는 글쓰기' 강좌의 강사이신 김소라(독서코치)님께서 강의후기 형식으로 써 주신 글입니다. <누구나 학교> 글쓰기 교실은 8월에도 계속됩니다.



김소라(독서코치) 누구나학교 강사

강점 리더십 코칭

나의 강점 발견 하기,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발행호 (제13호) 2012. 08. 29.(수)
정리 김진석 수원시평생학습관 실습생

스티브잡스, 김연아, 박태환, 한비야...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진취적이고 성공적으로 성취해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가장 첫 번째 원칙은 '자신의 강점에 집중했다는 것' 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강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강점보다는 약점을 더 크게 보기 마련입니다. 만약 우리도 스티브잡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에 집중하여 그것을 발견하고 확장해 나간다면 좀 더 만족할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 본 글은 [누구나학교] 이선아 커리어코치님의 '강점 리더십 코칭' 강좌를 수강하고 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강점이란?

- 나를 강하다고 느끼게 하는 활동
- 남보다 우세하거나 더 뛰어난 점
- 남이 말려도 하고 싶은, 막 신나고 뜨거운 일
- 역할과 책임에 따라 달라짐
(회사와 가정에서 다르듯이)

강점·약점 공유하기

평소에 자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돌아보며,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강점·약점 공유하기 시간'을 통하여 자신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말로 표현해내면서 더욱 분명하게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서로의 조언 속에 강점을 키우고 약점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 강점 FREE 인터뷰 : 다음의 4단계를 거치면서 자신의 강점을 더욱 FREE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단계 : Focus (집중) : 현재 역할에서 이 강점이 어디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라.

- ① 이 강점을 언제 사용하는가? 어떤 활동인가?
- ② 이 강점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가?
- ③ 이 강점이 업무에 용이하다는 것이 언제, 어떻게 증명되는가?
- ④ 이 강점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을 받아 왔는가?

2단계 : Release (구제) : 현재 역할에서 놓쳐버린 기회를 찾아라.

- ① 이 강점을 더욱 사용하려면 어떤 새로운 상황이 필요할까?
- ② 그 상황을 위해 업무 스케줄을 바꿀 수 있는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 달라고 말해야 할까?
그렇다면 누구일까?
- ③ 이 강점을 가속화하려면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나 기법을 시도할 수 있을까?
- ④ 이 강점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어떻게 측정·추적할 수 있을까?
- ⑤ 현재 맡고 있는 업무(책임)중에 특별히 애쓰고 있는 것이 있는가? 어떤 것인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점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3단계 : Educate (교육) : 이 강점을 발전시키기 위해 새로운 기술과 기법을 배워라.

- ① 이 강점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을까?
- ② 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
읽을 만한 책이나, 등록할 만한 수업, 온라인 리서치가 있을까?
- ③ 직장에서 잡 새도를 할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
- ④ 이 강점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누구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

4단계 : Expand (확장) - 이 강점을 중심으로 업무를 설계하라.

- ① 이 강점을 중심으로 한 모범 사례를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 언제 할 수 있을까?

- ② 이 강점을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당신의 역할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까?

• **약점 STOP 인터뷰 : 다음의 4단계를 거치면서 자신의 약점을 STOP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단계 : Stop (중단) : 중단해야 할 일

- ① 이 활동·약점이 업무상 성공하는 데 결정적인가?
그렇다면 3번 질문으로 가라.
- ② 그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4번으로 가라.
- ③ 그만 둘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 ④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할까?

2단계 : Team up (팀 구성) : 팀 구성은 이 일로 강해지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

- ① 함께 일하는 사람 중 이 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 ② 업무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③ 좀 더 신속하게·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사람은 누구일까?
- ④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3단계 : Offer up (제안) : 제안한 강점을 중심으로 업무를 조정하라.

- ① 이 일을 더 쉽게 하기 위해 어떤 강점을 사용할 수 있을까?
- ② 어떻게 하면 정기적으로 강점을 자원하면서 점차 새로운 역할을 맡을 수 있을까?

4단계 : Perceive (인지) : 다른 관점에서 약점을 바라보라.

- ① 이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 ② 이 일을 하는 시간을 바꾸면 도움이 될까?
- ③ 어떻게 하면 강점의 눈으로 이 활동을 볼 수 있을까?
- ④ 어떻게 하면 이 활동을 통해 강점을 극대화 할 수 있을까?
- ⑤ 흥미로운 일이나 정말로 중요한 일과 이 활동 사이에 어떤 연결을 만들 수 있을까?

Bigger Game

게임의 이름 그대로 나 자신을 변화·성장(bigger)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9가지 구성요소들에 비추어서 자신의 과거·현재·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지금 모습 그대로의 내가 아닌, 자신이 바라고 꿈꿔왔던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자

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를 돌아볼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인생과 자신이 추구하고자 했던 인생의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도록 해줍니다. 이것은 지금 그대로의 삶이 아닌, 자신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지금 당장 실천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9가지 구성요소

- ① **안전지대 (Comfort Zone)** : 변화를 싫어하는 인간의 기본적 성향에 대해 인식
- ② **갈망 (Hunger)** : 일상의 반복 아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
- ③ **강력한 목적 (Compelling Purpose)** : 느끼는 갈망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감
- ④ **평가 (Assess)** :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평가
- ⑤ **감대한 행동 (Bold Action)** : 항상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항상 같은 것만 얻을 것이다.
- ⑥ **숨이 멎을 정도의 긴장감 (GULP)** : 신나고 짜릿하고 두렵다는 복합적 느낌
- ⑦ **지속능력 (Sustainability)** : 전략적 계획과 지속적 인 다짐, 일과 재충전 간의 균형 유지
- ⑧ **협력자 (Allies)** : 누구라도 가능, 부정적 피드백, 경쟁자
- ⑨ **투자 (Investment)** : 변화 지속 시 향후 필요한 계획, 평가, 예산 등에 변화가 반영

• 게임방법

1단계 : 9가지 구성요소 중에서 과거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2단계 : 9가지 구성요소 중에서 현재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3단계 : 9가지 구성요소 중에서 미래에 내가 바라보고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내 손으로 만드는 종이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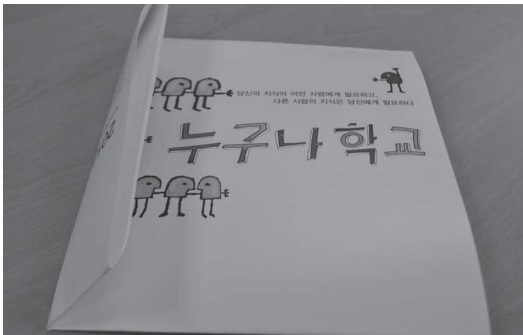
발행호 (제14호) 2012. 09. 12.(수)
글 이보라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지난 8월 말, 학습관에서는 재미있는 만들기 수업이 있었습니다. 평생학습상담사분들과 함께 한 ‘전단지로 종이가방 만들기’ 시간이었는데요. 그냥 있으면 쓰레기가 되는 전단지를 활용하여 쉽고 간편하게 만들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종이가방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예쁜 색깔 종이도 좋고, 전단지나 책표지 등을 활용할 수도 있고, 윗부분을 다르게 응용하면 밀봉형으로도 만들어 선물포장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용도에 따라 작은 종이, 큰 종이 모두 가능합니다. 지난 번 수업에서는 학습관 홍보포스터를 사용해서 만들어보았는데요. “내 손으로 만드는 종이가방”은 9월 14일(금) ~ 15일(토)에 진행되는 <2012 수원평생학습축제>(장소:화성행궁광장), 수원시 평생학습관 부스를 방문하시면 함께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 만드는 방법은 8월에 진행된 수업 내용과 평생학습상담사 윤민영 선생님께서 ‘수원평생학습상담사(수평선)’ 카페에 올려주신 포스트를 재정리한 것입니다.

준비물 : 종이(사용 용도에 따라 종이 두께 변경), 양면테이프, 타공펀치, 끈, 긴 자, 가위

1. 종이 끝을 1.5~2cm 접은 후, 접은 부분에 양면테이프를 붙여서 접어 줍니다



2. 종이의 벌어진 쪽을 방금 전 접어 넣은 길이의 (2×2+1.5)를 접습니다. 처음 종이를 2cm 접어 넣었다면 2×2+1.5, 즉 5.5cm를 접습니다.



3. 접은 종이 안쪽을 양쪽으로 펴줍니다.



4. 아래쪽 종이를 적당히 접고, 같은 방법으로 위쪽도 접은 후,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고정시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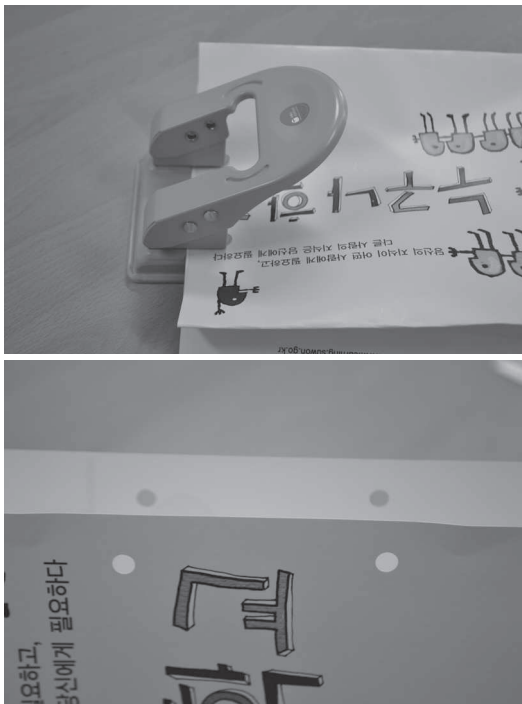
5. 양쪽으로 다시 접은 다음, 접은 종이를 펴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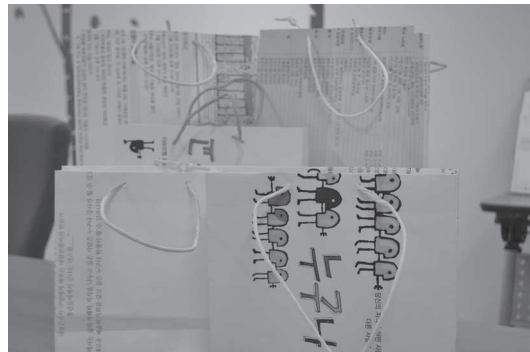
7. 준비해 놓은 끈을 구멍에 넣어 묶어줍니다.



6. 종이가방 뒷 부분을 타공펀치를 이용해 구멍을 두 개 뚫습니다.



8. 이렇게 예쁜 모양의 종이쇼핑백이 완성됩니다.



“커피찌꺼기에서 버섯이?!”

발행호 (제15호) 2012. 09. 26.(수)
글 이보라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커피찌꺼기로 버섯을 키우는 ‘버섯친구교실’은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열리는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일〉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번 글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한 후 ‘버섯친구교실’의 강사이자 꼬마농부의 대표이신 이현수님께서 감수해주셨습니다.

버섯친구교실의 탄생비화

경제가 성장하면 커피 소비가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연구결과와 정직한 모델인 듯합니다. 도심지의 한 집 건너 한 집은 커피숍이고, 강남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강남 시내에는 크고 작은 커피숍 300여 개가 모여 있다고 합니다. 2010년 국내 커피시장 규모는 약 2.7조 원으로 추산되며, 그 중 커피전문점은 약 30%를 차지하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렇게 많은 커피를 소비하는데 그럼 커피를 마시고 난 커피 찌꺼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집이나 커피전문점에서 사용된 커피찌꺼기는 쓰레기통으로 직행합니다. 탈취에 좋다고 하여 가끔 말려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미미합니다. 나의 한 두 잔은 어찌 생각하면 매우 소소하지만 커피전문점 한 매장에서 나오는 커피찌꺼기의 양을 생각하면 그 수치는 어마어마합니다. 한 매장에서 하루 약 20kg 정도 찌꺼기가 나온다면, 9,400개(2010년 말 기준) 매장에서 1년 동안 나오는 양은 약 7만 톤입니다.

커피찌꺼기는 매립형 쓰레기로 종량제봉투에 넣은 후 버리면 매립됩니다. 그런데 그냥 매립하면 커피찌꺼기에서는 지구 온실가스의 주범인 메탄이 나옵니다. 그리고 커피에 있는 카페인 때문에 땅속 식물들과 동물들의 생태계에도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커피도 마시면서 생태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이런 고민 속에 이현수 대표(꼬마농부)는 커피찌

꺼기로 버섯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랜 연구 끝에 커피찌꺼기를 활용해 버섯을 키우는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키워진 버섯은 맛있으며, 그 후 커피찌꺼기는 나쁜 성분은 사라지고 좋은 퇴비가 되어 자연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버섯친구 소개

버섯은 식물일까요? 동물일까요? 정답은 둘 다 아닙니다. 시간을 거슬러 초등학교 자연시간을 떠올려 보면 ‘균류’라고 배우신 게 기억나실 겁니다. 버섯은 균류로서 별명은 “지구의 청소부”입니다. 버섯은 지구에 해를 끼치는 것들을 분해해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커피찌꺼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찌꺼기는 그냥 버리면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는 쓰레기이지만 버섯을 키우고 난 후의 커피찌꺼기는 땅에 좋은 퇴비가 됩니다. 버섯이 커피찌꺼기의 카페인을 분해하고 땅에 좋은 영양분으로만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커피찌꺼기로 버섯 키우는 방법

1. 버섯친구 키트를 준비합니다.
2. 버섯하우스 정면의 점선을 뜯어냅니다.
3. 안에 들어있는 봉지에 열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냅니다. 이 공간은 물이 안으로 들어가고, 버섯이 밖으로 나오는 출구가 됩니다.
4. 상자를 열고 안의 봉지를 꺼내 하룻밤 동안 물 속에 폭 담가둡니다.

※ 키트가 가버우니 위에 무거운 것을 올려놓아 칼집 낸 부분이 물에 폭 잠기게 해주세요.

5. 키트 안 물기를 빼고 봉지 겉면에 묻은 물기를 깨끗이 닦아낸 다음, 다시 버섯하우스에 쏙쏙! 넣어줍니다.

※ 당연히 칼집 낸 부분이 앞쪽으로 오게 해주셔야 합니다.

6. 칼집 낸 부분에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 줍니다. 아침, 저녁 하루 2~3회, 건조한 겨울철에는 좀 더 자주 뿌려주세요.

7. 보통 개봉 후 열흘에서 보름 안에 버섯이 자랍니다.

8. 예쁘게 잘 자란 버섯을 수확한 후 맛있게 요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9. 수확이 끝난 버섯키트는 일주일 정도의 휴지기를 가진 후 뒷면을 활용해 같은 방법으로 버섯을 키울 수 있습니다.

* 가사토 '버섯친구교실'에 오면 버섯키트 뿐만이 아니라 버섯DIY키트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버섯 키우기 tip!!

1. 버섯이 제일 좋아하는 것 : 촉촉함과 신선한 공기

- 습한 것을 좋아하지만, 물이 흥건한 건 싫어합니다. 세면대 위나 세탁실, 뒷베란다 등 집에서 가장 시원하고 습한 곳에서 키우시는게 좋습니다. 버섯 싹이 발생하면, 물을 더 자주(하루 5~6회) 뿌려 줍니다.

- 실내가 건조하면 버섯이 발생하더라도 노랗게 마를 수 있습니다. 이미 말라버린 버섯은 떼어버리고, 뚜껑을 덮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었다가 일주일 뒤에 다시 시작하세요.

2. 버섯이 제일 싫어하는 것 : 뜨거운 햇빛

- 어두운 곳을 좋아하지만, 햇빛만 피하면 꼭 어두운 곳일 필요는 없습니다.

- 가능한 실내온도를 20도 정도로 유지합니다.

3. 건조한 집안에서도 잘 키우는 방법 : 비닐하우스 만들기

- 비닐하우스를 씌워주면 습도를 유지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 버섯하우스 위에 투명한 비닐봉지(주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비닐팩도 가능)를 씌워주기
- 밀봉상태는 안됩니다. 환기가 되도록 살짝 덮어주세요. 비닐하우스 사방으로 가위집을 내주어 숨구멍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 어느 정도의 빛이 필요합니다. 검은 비닐봉지는 사용하지 마세요.

4. 버섯 수확하기

- 버섯 발생 일주일 후, 갓이 탁구공 만해졌을 때 따는 것이 좋습니다.
- 갓수가 많지 않고 2~3송이만 자랐을 때는 조금 더 크게 키워보셔도 괜찮습니다.
- 버섯은 포자가 나오기 전에 따는 게 좋습니다. 버섯은 갓이 뒤집히기 전에 수확하세요.
- 버섯을 딸 때는 다발을 잡고 살짝 비틀면 툭 떨어집니다. 가능한 상처를 많이 남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따는 것이 좋습니다.

5. 버섯을 수확한 후...

- ① 한번 더 키우기 : 수확 후 표면에 있는 버섯 잔여물을 잘 정리한 다음 처음에 뜯어낸 버섯 문을 닫아 두고 시원한 곳에서 일주일 정도 쉬게 합니다. 일주일 후에 뒷면에 다시 칼집을 내는 것부터 순서대로 하시면 버섯이 다시 발생합니다.
- ② 커피찌꺼기는 퇴비로 활용하세요. 화분 옷거름, 텃밭 밑거름, 그것도 귀찮으면 그냥 나무 뿌리에 살살살 뿌려주세요. 버섯을 다 키우고 난 커피찌꺼기는 좋은 퇴비가 되어 지구가 좋아합니다.

'지구를 구하는 버섯친구교실'은 "수거-생산-소비-순환"의 생태계를 지향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꼬마농부 홈페이지(<http://www.0farmers.com>)를 방문하시거나 가사토 버섯친구교실 강좌를 들어보세요.

맛과 멋, 흥이 함께하는 막걸리 만들기

발행호 (제16호) 2012. 10. 10.(수)
정리 이보라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는 지난 9월 총 4회에 걸쳐 <막걸리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우리술 막걸리에 대해 배우고, 내 생애 첫 술을 빚으며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조금만 신경 쓰고 관심을 갖는다면 집에서도 충분히 빚을 수 있는 막걸리. 이번 글에서는 막걸리의 종류와 빚는 방법, 술을 품평하는 기본 자세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 막걸리교실은 술의학교(사이트 : <http://www.soolschool.com>)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 막걸리교실 수강생 후기 : <http://suwonedu2011.blog.me/130148158375>

■ 고두밥 잘 찌는 노하우

- 쌀을 깨끗이 씻어 2~4시간 정도 물에 불린다.
- 물에 불린 쌀을 바구니에 담아 30~60분 동안 물을 뺀다.
- 물기를 뺀 쌀을 광목천에 담아 찜통이나 시루에 넣고 고두밥을 찐다.
- 김이 나기 시작할 때부터 40~60분 동안 찐다.
- 불을 끈 상태에서 20분 정도 뜸을 들인다.
- 잘 찌진 고두밥알은 손으로 누르면 힘없이 문드러질 정도가 된다.

※ 너무 물러도 너무 딱딱해도 좋지 않습니다. 가운데 흰 부분이 없이 맑고 투명한 상태가 좋다고 합니다.

생 막걸리	살균 막걸리
- 효모와 유산균이 살아있음. - 후발효로 탄산가스 생성되어 청량감이 있음 - 맛과 향이 순하고 부드러운 - 10도에서 10일간 유통 권장	- 발효 정지, 장기유통가능, 일정한 맛을 유지 - 65도에서 30분간 살균 - 6개월~1년간 유통 가능 - 맛과 향이 생막걸리 보다 진하게 느껴짐 - 탄산가스를 주입하여 청량감이 돌게 할 수 있음 - 1995년 10월1일부터 살균탁약주 전국유통

막걸리의 두 종류

막걸리 빚기

- 준비물 : 쌀, 물, 누룩
- 원료배합비율 : 쌀100%, 물150%, 누룩9~20%

■ 물이 좋아야 술이 맛있다

- 수돗물은 끓인 뒤에 차게 식혀서(20℃ 정도) 사용한다.
- 생수를 사용하거나 정수기물을 바로 사용해도 된다.
- 오염된 물이거나 잡균이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의 물은 피한다.
 - ※ 효모의 영양성분이 되는 소량이 미네랄이 들어있는 약한 경수가 술빚기에 좋다고 하나, 지나친 경수로 빚은 술은 맛이 거칠고, 지나친 연수로 빚은 술은 힘이 없다고 합니다.

- 고두밥은 잘 식힌 뒤(25℃ 정도 유지)에 누룩을 섞거나, 물을 섞어 술을 빚는다.

※ 마지막 강좌 시간 막걸리 품평회 때 1등을 한 수강생은 원료를 배합할 때 고두밥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치댄 것이 1등을 한 비법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 발효의 과학, 막걸리

- 23~28℃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발효가 왕성할 때 30℃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한다.
- 하루에 한 번씩 술을 저어준다.
- 술을 저어주고 나서 술독 안쪽 면이나 주둥이에 묻은 술을 잘 닦아준다. 천에 소주를 묻혀 닦아주어도 좋다.

- 술통은 천이나 한지로 덮어 끈으로 묶고, 비닐로 밀봉할 경우 이쑤시개로 비닐에 숨구멍을 내놓는다.
- 항아리 밑바닥의 찬 기운이나 뜨거운 기운이 직접 올라 오지 않도록, 술항아리 밑에 나무나 책을 바쳐둔다.
- 외부 온도가 낮을 때는 항아리 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아리 겉면을 이불솜이나 두꺼운 솜옷으로 싸둔다.
- 발효 기간은 5~7일이 걸린다.

■ 발효 확인하기

- 술 위로 기포(탄산가스)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상태
- 술독에서 코를 강력하게 자극하는 냄새가 나지 않을 때
 - ※ 술독이 클 때에는 코를 직접 대면 탄산가스량이 많아 정신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니 조심하세요.
- 술독의 위쪽이 맑아지고, 지게미가 밑으로 가라앉아 층이 분리된 상태

■ 발효된 막걸리 관리하기

- 술이 익으면 용수를 박아 맑은 윗술을 떠낸다.
 - ※ 이것이 청주이다
- 술은 자루에 담아 거르는데 처음에 저절로 여과되는 술을 따로 담은 뒤, 자루를 압착하여 술을 짜낸다. 체로 받쳐 거를 수도 있다.
- 거른 술을 생수병이나 유리병에 넣는데, 술병을 냉장고나 시원한 곳에 일주일쯤 넣어두면 맛이 순해지고 깊어진다. 냉장고에 넣어두면 한두 달 정도는 맛이 유지되지만, 되도록 빨리 먹는 것이 좋다.

술 평가하기

- 술을 평가할 때 배고프거나 배부른 상태를 피한다. 10~11시, 4~5시 사이가 가장 좋다.
- 향이 강한 향수나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 낮은 도수의 술부터 평가한다.
- 맑은 술부터 시작해 약재 등이 섞인 향이 강한 술로 이어간다.
- 평가하기 위한 술의 온도는 대체로 15~20℃가 적합하다.
 - ※ 탄산의 청량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맥주는 8~12℃ 정도가 적합하다고 합니다.
- 술을 평가할 때는 여러 가지를 놓고 상대적으로 평가한다. 하나만 놓고 보면 어려움이 있다.

술 평가 방법

- 색·외관을 관찰한다. - 원료에서 오는 색, 재료의 색을

잘 살렸는가.

- 술잔을 코에 대고 올라온 향을 맡는다.
 - ※ 평가의 순서는 색 → 향 → 맛
- 5~10ml 정도를 입에 넣고 천천히 혀 위에 펼쳐 후루룩 하면서 공기를 입 안으로 넣어 술과 혼합한다.
- 이 공기를 코로 내고, 머금은 향을 확인한다.
- 천천히 혀 위의 맛을 확인한다.
- 마지막으로 내뱉은 후, 조용히 목으로 떨어뜨려 뒷맛을 확인한다.
- 향과 맛에 대한 종합평가를 일정한 기준으로 채점한다.
 - 본인이 느낀 맛은 전달가능한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해 상대방에게 그 맛이 전달되어야 한다.

막걸리는 발효음식으로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단순히 알코올로 평가할 수 없고, 옛부터 농주라 하여 고된 농사일 중간에 농부들의 힘이 되어 주었다. 서민들의 흥과 애환, 전통이 살아 숨쉬는 막걸리. 알고 마시는 지혜를 가져보자.

선의 아름다움이 살아있는 한국무용

발행호 (제18호) 2012. 11. 07.(수)

글 이보라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누구나학교 버드내무용단과 함께하는 〈우울증, 오십견을 예방하는 한국무용〉

수원시평생학습관 누구나학교에서는 학습동아리 버드내무용단과 함께하는 〈우울증, 오십견을 예방하는 한국무용〉강좌를 진행합니다. 지난 8월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고 있는 이 강좌는 한국무용에 대해 관심은 있었지만 마땅히 배울 곳이 없던 분, 한국무용을 배우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한국무용이 일상의 건강함으로 자리 잡은 버드내무용단과 함께하는 한국무용. 지난 11월 2일(금) 1시간가량 직접 배우면서 즐겼던 한국무용을 소개합니다.

치맛자락을 살포시 잡고 하는 동작이 있어서 제대로 동작을 취하려면 치마는 기본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 지식이 없던 저도 청바지 차림이었는데 미처 치마를 준비하지 못하셨어도 상관없습니다. 우선은 동작 하나하나를 따라하며 배우면서 복장은 차츰 갖춰나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인지 강의가 시작될 때는 학습자분들이 많지 않았지만 음악에 따라 스텝을 밟으며 몸을 풀고 강좌가 조금씩 진행되자 한 분 두 분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추워서 집에 있고 싶은 생각도 간절했지만 나와서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을 만나야 몸과 마음에 활력이 생기고, 즐겁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강좌의 제목 중 '우울증 예방'이라는 말이 괜히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학교 '우울증, 오십견을 예방하는 한국무용' 강좌의 정소은 선생님.
한국무용 전문강사로 누구나학교에서 재능나눔을 해주신다.

강의실 문을 열었더니 한 칸에서 학습자분들이 옷을 갈아 입고 계셨습니다. 상의를 입고 오신 옷을 입으시더라도 하의는 모두 치마로 갈아입으시는 중이셨는데도 한국무용 동작을 하다보면

저 말고 새로 오신 분이 한 분 더 계셨습니다. 20대의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근처 회사에 다니던 중 누구나학교 강좌 소개를 보고 관심이 있어서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전에 한국무용에

대해 계속 관심이 있었고 배우고 싶었지만 주변에 배울 곳이 없어서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던 중 때마침 강좌 소개를 본 것이죠. 사람마다 관심분야가 다양하고 자신만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엮어주는 것이 '누구나학교'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는 기존 학습자 분들이 계신 관계로 이전에 배우신 동작을 음악에 맞춰 따라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몇 번을 따라하다 보니 대략 흥내는 낼 수 있었지만 동작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 헤매었습니다. 그러던 차나, 강사님이 새

사실 처음 취재를 결정한 후 기사를 통해 한국무용의 한 동작 한 동작을 설명하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으신 분들도 집에서 따라해 보실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직접 한국무용을 배우면서 글로 적는 것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도대체 글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함이 생겼습니다. 동작 설명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읽고 따라하실 수 있을까? 한국무용은 동작 하나를 하고 순서를 외우는 것은 사람에게 따라 금방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한국무용 선의 아름다움을 몸으로 표현하기까지는 계속되는 연습과



강의 진행 모습. 한 동작 한 동작씩 섬세하게 표현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타령에 맞춘 한국무용 동작을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해주셨습니다. 노래 가사에 맞춘 동작설명은 이해하기 쉬웠고 설명해주는 동작을 따라하다 보니 대략적인 느낌과 동작들이 몸에 익어갔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한국무용의 어떤 점이 좋은가요?”라는 짧은 질문에 수 많은 장점을 알려주십니다. 팔 움직임이 많으니 강좌의 이름대로 오십견에 좋고, 계속 바른 자세를 취하며 동작을 하니 몸매도 예뻐진다고 합니다. 격한 운동이 아니어서 체력적으로 몸에 무리가 많이 가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동작 반복으로 운동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음악에 맞춰서 무용을 하니 마음도 차분해지고 안정되어진다고 합니다. 몸동작뿐만 아니라 동작을 나타내는 표정까지 함께 지어야 하니 얼굴도 예뻐진다고 하네요. 수업이 시작되기 전 학습자분의 말씀처럼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 함께 활동을 하니 우울감도 많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은 나이가 들면서 요실금이 생겼었는데 한국무용을 하고 한 후 요실금 증상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같이했던 학습자분들의 증언(?)이 이어집니다.

함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무용을 배우지는 않더라도 한국무용 본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작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무용은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것이니까요.

무용할 때 신는 버선의 앞코와 치마를 살짝 올렸을 때 보이는 속바지, 손가락 선 하나까지 작은 것 하나도 모두 한국무용의 아름다움입니다. 한국무용의 아름다움과 건강함을 느껴보고 싶으신가요? 누구나학교 <우울증과 오십견을 예방하는 한국무용>수업을 한 번 들어보세요. 일상의 작은 아름다움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누구나학교

<http://cafe.daum.net/suwonnuguna>

공정무역커피로 집에서 하는 수망로스팅

발행호 (제19호) 2012. 11. 21.(수)
글 김고는 수원시평생학습관 실습생

커피는 적도 부근의 모든 나라에서 재배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석유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습니다. 우리가 먹는 커피는 커피나무에 달리는 열매 중 잘 익은 것만 골라 따서 말린 다음 열매의 씨를 채취한 것인데, 이 과정을 수행하는 노동력의 대부분이 아이와 여성입니다.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재배되고 채취된 커피들은 유통 경로가 다양하지 않아 수확철에 판매처를 찾지 못하면 모두 버려야 하고 이 사정을 하는 기업들은 너무나 싼 값에 수매를 하여 노동자들은 돈 한 톨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이런 악순환에서 커피 농가는 계속해서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단체에서 커피 농가와 직접 거래를 하고 커피 생두의 제값을 치르고 좋은 품질의 커피를 사면서 커피농가의 직접적인 수입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정무역입니다.

커피는 많은 나라에서 재배되고 있지만 어느 나라, 어느 재배, 어떤 지역(고도)에서 재배되는 지에 따라 맛이 각양각색입니다. 생두를 볶아 원두로 만드는 과정에서 볶는 정도에 따라서도 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리스타들은 맛있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 각기 다른 지역에서 재배된 커피들을 섞어 보기도 하고 볶는 정도를 달리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커피들을 섞는 것을 블렌딩이라 하고, 생두를 볶는 것을 로스팅 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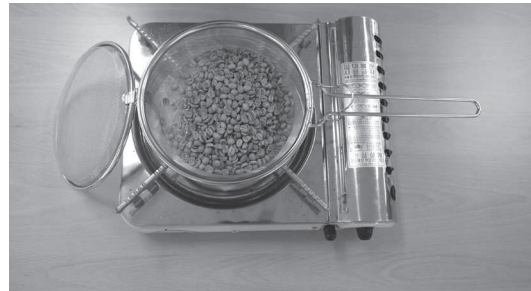
지난 금요일(11/10) 거북이 공방에서는 “공정무역커피로 집에서 하는 수망 로스팅” 강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생두와 로스팅 방법 중 자신의 기호에 맞는 방법을 찾고 직접 만들어 마시는 강좌였습니다. 이 글을 통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로스팅 방법과 핸드드립 방법을 함께 배워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커피를 찾아보세요. 이왕이면 공정무역커피로...

※ 본 강의는 사회적기업 까페티모르(www.cafetimor.com)의 조여호 대표님과 주선옥 선생님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com)의 조여호 대표님과 주선옥 선생님께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수망로스팅 하기

1. 수망에 적당한 생두를 넣고 뚜껑을 닫는다.



2. 수망을 불 위에 올려놓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좌우로 세게 흔들고, 흔들는 중간에 뚜껑을 열어 생두의 색깔을 확인한다.
※이 때 불이 강하거나 수망과 불의 거리가 너무 좁으면 쉽게 타 버릴 수 있다.



3. “따닥”하는 소리(Crack)가 두 번 날 때까지 흔들어 준다. 소리는 생두 내부에서 열팽창으로 인해 생두 표면이 갈라지는 소리이다. ※ 약 10분 소요 로스팅이 다 된 생두는 원두라고 부르게 되고 안에 있는 열로 로스팅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찬바람으로 식혀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두의 보관기간은 3년 이상으로 매우 길지만 로스팅 된 원두는 15일 내로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4. 예열된 서버 위에 커피가 담긴 드리퍼를 올린다. 드립포트로 가운데부터 테두리로 나선형을 그리며 물을 한바퀴 부어주어 뜸들이기(15~20초)를 한다. 드립포트로 가늘고 천천히 가운데부터 원을 크게 그려가며 다시 작게 그려 가운데에서 마치도록 한다.

※ 뜸을 들이는 이유는 드리퍼의 구멍으로 커피가 잘 추출될 수 있도록 기도를 확보하는 것이다.

※ 물 줄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며 여과지 테두리로 물이 올라오면 멈춘다. 2회 실시하고 2분 이내에 마치도록 한다.



핸드드립 커피 만들기

1. 원두를 핸드밀에 넣고 곱게 간다.



2. 여과지를 접어 드리퍼 안에 끼운 후, 여과지가 끼워진 드리퍼에 커피를 붓고 흔들어 수평이 되도록 한다.



3. 드립포트와 서버에 끓는 물을 번갈아가며 부어준다.

※ 커피 물은 80℃후반의 온도가 적당하므로 100℃의 물을 식히기도 하고 커피를 받는 서버를 예열시키는 역할도 한다.



5. 커피가 진하다면 물을 타서 마시도록 한다.

핸드드립커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프레소와는 추출 방식이 다르며 원두커피라 부릅니다. 아메리카노보다 향이 진하고 깔끔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실습한 티모르 커피는 신맛이 나며 깊고 풍부한 맛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에 담긴 생산자와 공정무역커피 이야기, 바리스타들의 열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니 입 안 뿐 아니라 마음도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발행호 (제20호) 2012. 12. 05.(수)
글 이보라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프레지는 2009년 헝가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입니다. 개발 초기 간단한 사용 방법과 참신한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사용되어졌으나 PPT와 큰 차이가 없다는 비판 아래 개발 1여년 만에 하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토리를 담아내는 발표 방법과 창의적 발표도구로서 다시금 주목 받고 있습니다.

프레지를 기존의 익숙한 화면과 방식 등 PPT와 같은 느낌으로 만들 것이라면 PPT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지는 PPT와는 다른 개념의 창의적 발상 도구로서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발표의

스토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쉬운 메뉴와 직관적 프로그램으로 몇 번의 연습만 거친다면 누구나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이 코너를 통해 프레지의 간단한 사용법을 알려드리오니
한 번 사용해 보세요. 만만의 색깔과 이야기를 가진 발표
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11월 13일 ~ 14일 진행되었던 창의적 업무스킬 ‘PPT보다 잘 나가는 프레지 마스터’(강사 : 유장휴 AG브릿지 대표) 강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1. 프레지 사이트에 회원가입 하기

[illegible]

2. 새로운 프레지

[illegible]

3. 다른 사람의 프레지를 통해 영감 받기

수원시평생학습관
Suwon Lifelong Learning Center

Prezi 당신의 프레지를 배우기 **탐색**

영감을 받으세요

수백만개 프레지 중 검색하기

Business & Conferences <더보기>

카테고리 별 탐색
Business & Conferences >
교육 >
디자인 >
Personal & Portfolio >
Science & Environment >
Government & Industry >
Remarkable people >
Beyond English >
Fun & Inspirational >
Creative Writers >
Best for iPad >
Popular >
All >

프레지 기본 사항
프레지는 웹과 모바일(아이폰, 안드로이드)에
는 클라우드의 자유, 데스크탑의 정돈, 아
이패드와 아이폰의 용이함 중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새로운 기능

상단의 탐색을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만든
다양한 프레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4. 간단한 메뉴 버튼 익히기

수원시평생학습관
Suwon Lifelong Learning Center

메뉴 버튼 설명

Prezi Add Frames Themes Images Shapes Media PowerPoint

- **Add Frames:** 레이아웃이나 프레임을 삽입합니다.
- **Themes:** 언어선택, 글꼴 변경 및 생각 변경을 합니다.
- **Images:** 내 컴퓨터 및 구글 이미지에 올려져 있는 이미지 파일을 삽입합니다.
- **Shapes:** 도형, 선, 화살표 등을 삽입합니다.
- **Media:** 내 컴퓨터 및 유튜브에 있는 미디어&동영상을 삽입합니다.
- **Powerpoint:** 파워포인트를 삽입합니다.

새창 저장 이전으로 다음으로 공동편집 화면비율 나가기

PDF로 출력 도움말

5. 입력 언어 변환하기

수원시평생학습관
Suwon Lifelong Learning Center

상단 Themes를 클릭하여 한글로 변환합니다.

Prezi Add Frames **Themes** Images Shapes Media PowerPoint

Themes

Revert to original Sailor MANIFESTO Summer NCUN

Infographic Discreet Coffee Recycle Orange

Pastel Goa Blue Athlete Sketchy

Industrial Cute Midnight 中文 한글

日本語

Customize Current Theme...

6. 글씨 입력 및 개체 조정 방법

글씨 입력



화면을 클릭하면
입력창이 뜹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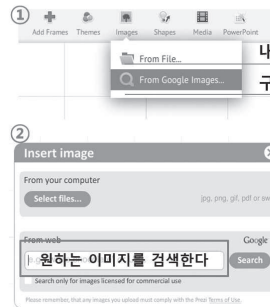
위 메뉴에서 글씨 굵기, 색상, 배열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를 포함한 삽입된 모든 개체
의 크기, 방향, 위치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 - 개체 크기 조정
- 손바닥 개체 이동
- 쓰레기통 개체 삭제
- 연필 텍스트 편집
- 원형 선 개체 방향 회전

7. 사진 삽입 방법

사진 삽입



내 파일에서 불러오기
구글 이미지에서 찾기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찾은 후
원하는 위치에 놓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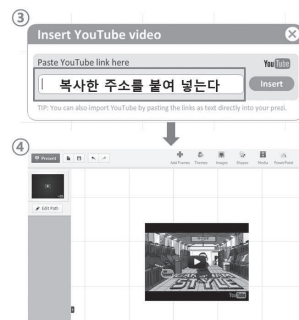
8. 동영상 삽입 방법

동영상 삽입



내 파일에서 불러오기
유튜브에서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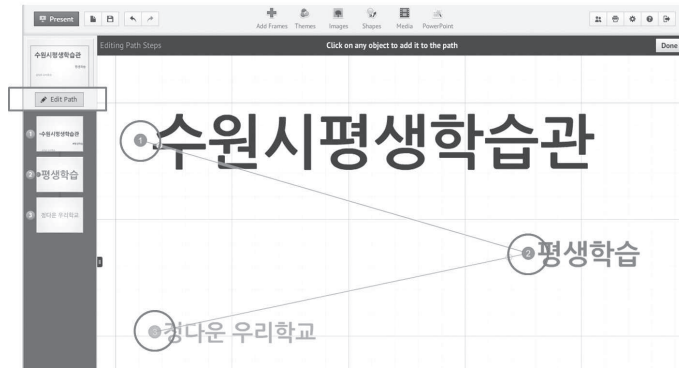
원하는 영상을 검색
공유를 클릭한 후 주소창 복사하기



9. 화면 순서 정하기

화면 순서 정하기

- Edit Path 를 클릭한 후 화면에 나타내고 싶은 순서대로 클릭하면 Present시 순차적으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 ※ Edit Path 클릭 → 순서 수정 가능 / 한번 더 클릭 → 순서 수정 불가능



10. 미리보기 창으로 확인하고 다운로드 하기

미리보기 창



- 편집하기: 기존에 만든 프레지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 함께 감상하기: 주소 공유를 통해 여럿이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 다운로드: 인터넷이 안 되는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한 파일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복사본 저장하기: 동일한 프레지가 하나 더 생성됩니다.
- 공유하기: SNS,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등에 공유 가능합니다.
- 퍼가기 허용: 공개&복사 허용 / 퍼블릭 / 비공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는 유료서비스부터 가능)
- 휴지통: 해당 프레지 삭제

11. 동영상으로 프레지 사용법 배우기 <http://youtu.be/Tp1iqZQH5vI>

동영상으로 프레지 사용법 배우기

- 유튜브 주소: <http://youtu.be/Tp1iqZQH5vI>



1. 시작하기
 2. 더 멋진 프레지 만들기
 3. 협업&공유하기
 4. 파워포인트에서 불러오기
- ※ 동영상에 나오는 프레지 배경은 구 버전이나, 기본 기능은 같음.

집에서 직접 담그는 건강한 효소

발행호 (제21호) 2012. 12. 19.(수)
정리 이보라 수원시평생학습관 연구원

추운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예년보다 더욱 추울 것이라는 일기예보만 보고 있어도 몸이 움츠러드는데요. 따뜻한 물에 맛있는 효소를 한 손가락 타서 먹으면 얼었던 몸도 사르르 녹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몸에 좋은 효소가 집에 있어야겠죠? 마트에서 사 먹는 것 말고, 집에서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믿을 수 있고 정성이 듬뿍 담긴 효소를 먹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약초교실에서는 몸에 좋은 약초 고르는 방법, 내 몸에 맞는 약초 찾기 등 다양한 내용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12월 7일(금) 진행된 교육에서는 직접 약초 효소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만들어 보았는데요, 한 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효소차를 드셔보세요.

※ 약초교실은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장광진 교수님께서 강의 해주십니다.



건강한 효소를 만들어 보자!

준비물 : 오갈피300g, 황설탕 60g, 천연소금 20g, 물 2l, 구연산(산도조절용), 유리병, 알코올(소주)

만드는 순서

1. 병과 손을 알코올(소주)로 깨끗이 씻어 잡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2. 약초를 용기에 담는다.
3. 분량의 설탕을 넣고 흔들어 약초와 잘 섞는다.
4. 재료의 2배 되는 분량의 물을 넣고 잘 섞는다. 약초가 300g이면 600ml의 물을 넣는다.
※ 재료가 모두 잠길 정도가 좋으며, 재료가 물에 뜰 경우 눌러주어도 무관하다.
5. 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식용 구연산(산도조절제)를 넣고 흔든다.
6. 약초의 2%되는 분량의 천연소금을 넣는다.
7. 입구를 알코올(소주)로 깨끗이 닦는다.
8. 랍을 씌운 후 뚜껑을 닫고 보관한다.
9.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섞어 준다.



